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슬문화총서 9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금정구 · 동래구 편

박경수 · 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로 중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금정구·동래구의 설화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설화,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Ⅲ. 문헌 소재 설화로 편성하고, 각 장의 설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설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설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설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부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부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 ● ● ● 각 권 별 편 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예정]
-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 - [2020년 발간 예정]
-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4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i
I. 현장조사 설화	1
1. 금정구 설화	3
2. 동래구 설화	199
II. 기존 현장조사 설화	287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	289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	366
III. 문헌 소재 설화	435
1. 금정구 설화	437
2. 동래구 설화	497
※ 참고문헌	524
※ 제보자 색인	525
※ 설화 제목 색인	528

I. 현장조사 설화

1. 금정구 설화
2. 동래구 설화

1. 금정구 설화

[금정구 설화 1]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근호(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조사자: 그래 옛날에 어째, 옛날에 메누리가.]
방구를 몬 꺾가지고 내 얼굴이 노란데 시아부지가,
“야야, 니 얼굴이 왜 그러노?”
강게, 인제 방구로 몬 꺾서 그래 노랑다 카거든.
“그라면 맘 놓고 꺾바라.”
“아버님, 기등을 붙잡으소.”

기등을 붙잡아가지고 그래 방구를 꺾게 마, 기등이 마 혈러덩 막 움직이더랍니다. 방구가 췌기 꺾서. [조사자: 하두 췌가지고.] 예. [조사자: 그래 집이 넘어갔는가요?] 뭐 넘어가진 않았겠지.

[금정구 설화 2]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던 미륵암

정상금(여, 1926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큰 돌이 있다. 큰 돌이 앞에 있었다 그래. [조사자: 그 옛날에 무슨 쌀 나오는, 쌀 나오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맞다. 이이. [조사자: 그게 그 이야기 거 기억나는교? 그거 기억나는교? 와 큰 바위에 인제 쌀 나오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어떤 스님이, 그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거기 미륵바위 아닌가?] 미륵, 미륵암 앞에, 미륵암에. [조사자: 미륵암.] 큰 저저저 아이고 내가 뭐 말이 안 된다 요새 잇아뿌고.

[조사자: 미륵암 밑에 무슨 옛날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는가?] 구멍이 있었는데 쌀, 쌀이

똑딱똑딱 널진다 카든강? 그래 그런카네 마, 어째 되노? [조사자: 스님이.] 스님이 많이 나오
라꼬 짝때기가 쭈시뵈다 카든강. 그래노이카 그래 그렇다 카면서 그 뒤에 가йка네, 우리
가йка네 물이 똑똑똑 흐르던 기 출출출 흘러내리더라고. [조사자: 아아, 쌀이 안 나오고 안자
물이 나오던갑네.] 물이 나오더라 카대. [조사자: 그래 그래. 미륵암 이야기가 옛날에 있어.]

미륵암 앞에 그 돌도 큰 거 있고, 그 우로 기(기어) 올라가가 다 보고 그랬다. [조사자: 아아,
그렇지예. 맞아예. 옛날에는 거기, 거 가서 나물도 마이 뜯고 그랬지요?] 나물 뜯는, 나물 캐는
장소 아이가 그런 데. [조사자: 나물 캐고 그래.]

[금정구 설화 3]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1)

배석엽(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내 열세 살 먹어서 사천에 있는데, 고 집 할매가 저, [말을 바꾸어] 어, 우리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인자 죽었어. 죽었는데 요새 삼일 동안은 초상을 안 치르고 있었는데요, 고래 깨어
나더랍니다.

“어째서 깨어났노?”

카йка네,

“어데로 간다꼬 가니까, 돌배이(돌맹이) 같은 거 딱 얹어 났는데, 고거로 옆 디디라(뺏아라)
카더라. 뺏으라 하더라.”

카네. 그래,

“그기 바짝 깨진카네 딱 깨져. 꿈꾸는 것처럼 그랬다.”

하대. 예예 네. 직접, [조사자: 놀래가지고 꺾꺾 깬네.] 예. 꿈꾸는 거매치로(것처럼). 고거로
마 뺏으니까 확 깨지카네, 꿈꾸는 거매치로 깨지더라 카네. 우리 옆에 집에 할매가. 한 삼년
살았어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승에.

[금정구 설화 4]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2)

배석엽(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우리 어무이가 아이고 세상 베리겠다(버리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살살 깨어나더라 카네요.
그래갖고,

“내가 저승에 갔다 왔는데, 어느 골목을 가니까네 꽃밭이고, 어느 골목에는 솔을 걸어놓고
짐이(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야들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내가 가니까 키가 커다란 노인이
'쟈, 당신 안주(아직) 올 때 멀었다.' 감시로 가라 캐서 내가 왔다.”

이래 카더라. 그래갖고 우리 어무이가 백살 열추(거의) 다 돼가 살았다.

[금정구 설화 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우순(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지계로 그 무덤, 할매를 묻어놓고 거 그냥 나오니까 그 손자가,

“아부지, 지계를 와 안 가(가져) 갑니까?”

그카고,

“그 필요없어 안 가 간다.”

그러고,

“나도 아버지 나중에 저다 내뺨릴라몬 저거를 가 가야 그거를 안 하냐고.”

그래. [조사자: 아, 거 처음에 어째 되는교? 그래 누가 어머니를 지고 갔는가?] 저거 엄마로
지고 갔는데 물어난 거, 고려장 해놓고 나오면서 지계를 놔두고 오이꺼네, 아들이,

“아부지 저 지계로 와 안 가지고 가냐?”

고 그카니까,

“지계 인자 필요없다.”

카이꺼네,

“필요없는 기 아이라, 지계를 가지고 가야 다음에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도 나이 많으면
저래 갖다 내뺨리고 아이냐고.”

그래 아들이 그래 따지더라. [조사자: 그런카네 그 다음에 도로 지고 내려왔는가요?] 그렇지.
[조사자: 그런카네 그때부터 없어졌는가요?] 없어지지.

[금정구 설화 6]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우순(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호랭이가 자아무러(잡아먹으러) 내려오가고, 아가 울어났는데, 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달개지는데, 할매가,

“울지 마라, 꽃감 주께 울지 마라.”

카이까, 그러면 아가 떨걱 끄치거든. 꽃감이 제일 무서운 거인 줄, [웃음] 호랭이가 도망을 쳐.

[조사자: 그러이 호랭이가 꽃감이 내보다 무서운 줄 알고?] 꽃감이 제일 무서운 줄 알고.

[금정구 설화 7]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이우순(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비가 오고 그거를 해도 씨를 그 할 줄 모르고, 공부만, 책만 디다보고(들여다 보고) 공부를 하이. 마 여자가 거 발 빼냈는 기라. 그래 발 뺐는데 거 가서도 역시 그거를 하는 기라.

[조사자: 강피를?] 강피를 훑는 기라. 그래 남자가 출세를 해가지고 말로 타고 이래 그거 해가 오이꺼네, 그냥 논에서 거석을 하고 있으이꺼네,

“그 간 데도 가는 쪽쪽 그거를 뽑는다.”

고 그래 한탄을 하더라네.

[금정구 설화 8]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우순(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그 저 어데 남편이 일하러 가고.] 모르지 일하러 갔는가.

그 메느리가 시오마이를 그거 지령이로 가이고 국을 끼리가이고 그래가 주이꺼네, 그리 맛이 있어서 ‘그래 이기 무슨 거석인고?’ 싶어서 할매가 뉘터만(먹었더니만) 눈을 퍼떡 떴다 카대. [조사자: 그래 그거 먹고 눈 떴네?] 예. 그러이 지령이 저기 좋다고 묵고 안 해쌌는교.

[금정구 설화 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정혜연(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애를 놔놓고 어루면서로,

“뉘를 주꼬?”

봉덕, [조사자: 봉덕이.] 봉덕이로 어루면서,

“뉘로 주꼬? 봉덕이를 주까?”

카면서 이래 그래 어랐는데.

그래 뉘 그 에밀레종을 해가지고 뉘뉘, 원이 돼가 거기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내 운다 카면서. [조사자: 스님이 찾아왔다 그러던대.] 예. 뉘라 카대요. 스님이 도방을(‘동냥을’의 뜻으로 말한 듯함) 하러 왔는데, 돌아왔는데 머, ‘우리 봉덕이를 주까. 뉘로 주까’ 이래 어루면서 그래 놔노이까,

“그렇다.”

카면서 그건 옳게 안 들어.

[금정구 설화 10]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혜연(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눈 어둡고 그래이 하재 밍다 캤는데, 마 눈도 뜨고 살이 썩가 마 반지리- 거시를 묵어놓으

이카네 살이 찌빠리니까네, 그 집 메느리 효부상 받았다 카두마는. 효자가 돼가지고.

“뭘로 해가 그렇노?”

카이꺼네.

“그 지렁이를 저 약을 해가 멕이가지고 그래, 그기 약이 돼가, 보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효부가 됐다”

고. [조사자: 처음에는 메느리가 마 시아마시 빨리 죽으라꼬.] 예. 시아마시 밍다고 죽으라꼬 꺼시름(지렁이를) 삶아 먹이고 마, 눈도 뜨고 그랬지. 그래 낚노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시로 묵고 마 눈도 뜨고 살이 찌가 그래노이, 아무 때기는,

“그래 뭘로 묵고 그래 이래 눈을 뜨고 무슨 약을 메느리가 해줘가 그렇노?”

그런께,

“몰라, 우리 메느리 그래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맞는 걸 해조가(해줘서) 묵고나이 이래 내가 이래 막 새덕이가 돼뿌고.”

마 그래낚노니까 효부가 돼뵈다 카대. 시아마시 죽으라꼬 한 기 그기 저 저 보약이 돼뵈어.

[금정구 설화 11]

귀신을 태워준 택시 기사

류순임(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한 열두 시가 다 됐는데예, 저 석계에 공동묘지에서(공동묘지에서) 여자가예 한복을 딱 입고예, 저 뭘꼬 영업용 택시를 딱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 손을 들어가 딱 태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자.”

하는데, 그래 그까지 갔는데, 탁 내려쫘는데 사람이 아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예.

[금정구 설화 12]

콩쥐와 팥쥐

박점명(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팔쥐, 인자 저거 콩쥐는 언니고, 팔쥐는 동생인데, 인자 저거 콩쥐 나왔는(놓은)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결혼을 해나이께네, 안자 팔쥐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 인자 시골에 가을 벼농사를 지가 저 덕석을, 명석에다 막 넣어 낳는데, 그래 인자 그 팔쥐한테는 안 시키고 (시키고), 콩쥐한테, 저 넣어난 저로, 옛날에는 디딜방아 찌가(짚어서) 밥해 묵거든. 그래,

“디딜방아다 방아로 찌가지고 쌀로 두 대 딱 지가 저녁밥을 해라.”

떼거리 주도 안 하면서 그래 시깃는데, 콩쥐가 기가 찬다 아이가 지 혼자서 무슨 방아를 찧노. 사람이 세 명 해야, 들이는 우에서 찧고, 방아다리가 요래 있어 들이는 찧고, 밑에 하나 빗자리 찧어(쓸어) 옹고 그래야 되는데, 찧야 되는데 못 찧고. 새가, 참새가 돌덤으로 날라 와가지고 주묵는가 쪼까도 참새들이 가도 안 하고 그를 다 까는 기라. 그래 참새가 두 대를 까냈어. 그래 밥을 저녁 했는데, 저녁밥을 하고 해난께네, 또 그 이튿날 뭐로 시키노 카모,

옛날에는 시루떡 찌는, 지금도 그런 기 있다. 구멍이 많이 난 시루떡 시루가 있어요. 밑 빠진 독. 거 인자,

“물로 물동에다 물로 항거(가득) 채아나라. 내일은 물 한 동 채아나라.”

켰는데, 그래 인자, 두꺼비가 물로 여다 부으면 세뻘고 세뻘고 없는데, 그날은 여다 부이 물이 안 세더란다. 안 세는데, 저거 엄마 오갖고 물 딱 입빠이(일본어로 ‘가득’의 뜻) 채워난 거 보고, 저거 엄마 기가 찰 거 아이가. 어제 나라도 지나라(지어 놓아라) 큰께 쌀로 또 짓다. 그래 낫제. 지 낫제. 또 물도 채아라(채워라) 캐노이 물로 한거, 두꺼비가 와서 막하가 채워 낫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기라.

그래가 안자 그때부터는 팔쥐로(‘콩쥐를’이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함) 조지는 기라.

“니가 무슨 요술로 부리가지고 쌀로 혼자서 안 되는 일 해냈고, 물도 여 채아났노?”

이런께, 이 지도 모르는 기라. 본인이 모르지. 그래 참새가 지 인자 나라도 까냈고 밑에는 물 뜨무는 모른다 이래가 인자 있었던 기라. 그 물로 그 이튿날 저거 엄마가 쓸라 쿠니까, 두꺼비 기나가빠서 물이 없는 기라.

물이 없으니까, 그래 인자 사람은 그 여러 가지로 엉뚱(엉뚱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라는 뜻으로, 그래 인자 마음이 고운 팔쥐(‘콩쥐’라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함). 팔쥐는 시집을 갔는데, 인자 백조한테(백조에게) 가고. 콩쥐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보낼 때 백조인데, 그 남자가 인물이 마, 잘 묵고 하니까 살이 찌가 인물이 좋고. 그래 팔쥐는 문 살고, 콩쥐는 잘 살아가 부자가 됐더라.

[금정구 설화 13]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박점명(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옛날에 고려시댄갑다. 그 시대에 인자 메느리를 봤는데, 메느리가 하룻밤 자고 나몬 얼굴이 노랗고, 또 자고 나몬 노랗고, 약을 사줘도 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그러거로 한 삼 년 비라가지고(별러서) 물엿단다. 물은께네, 그래 메느리도 말로 안 하고 있다가, 참다 참다 이야기를 하는 기, 신랑 남편보고,

“방구로 집에 있을 때 잘 깰는데, 방구로 안 끼고 참으니까.”

“그라모 마 그래 참아가 병 나몬 되냐? 니 죽으몬 안 된다. 나는 니 엄시면(없으면) 몬 사니까 그래 방구를 함(한 번) 끼바라.”

캐서, 그래가 인자,

“그냥 끼몬 안 되니까, 어른들한테 허가를 다 말아라.”

시오마니, 시아바지한테, 칭칭이(층층이) 어른들은, 옛날에는 요새는 부모 없으몬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칭칭시아(층층시아) 밑에 가몬 좋아했거든. 그래 칭칭이 인자 계단을 밟아서 다 허락을 말아가 방구로 끼기는 깰는데, 지붕 대가리가 확 다 날라가뻘더라. 그래 날라가뻘는데,

“또 한 문(한 번) 더 끼 바라. 지붕은 이미 날라간 기고.”

끼께네, 지둥(기둥) 뿌리도 다 날라가더란다.

옛날에 그 말이 인자 들어보니까, 원두막, 원두막 집 맨치로. 옛날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

[금정구 설화 14]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점명(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어느 선비 집에 인자 과거를 보러 가몬 낙방하고, 보러 가몬 낙방하고, 그래가 삼년, 사년, 오해까지(오년까지) 낙방했어. 그래가, ‘내 이 선비 바래가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 인자 그 아줌마가 눈에 다니면서 피, 잡풀, 그거로 피 훑어가지고, 시내 또랑가 냇가가모 그 바위가 넓덕하게(넓게) 생겼는데, 바위 위에다 넣어놔어. 요새는 비닐 갑바(‘커버’의 일본어식 발음)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 없어서 노란 도끼리조(돌가루 종이, 시멘트를 담은 종이.) 거다가(그곳에다) 넣어놔는데. 비가 쏘내기(소나기가) 오는데, 그 떠내러가도 이 선비가 글만 디다보고 앉아 그것도 안 줍, 그걸 일년, 이년, 삼년, 사년, 오년, 일년에 한 문씩 과거

보는데, 낙방을 오해를 했어.

그래가 인자 고무신 꺼꾸로 신고 탄 데 시집을 갔어. 시집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라고 시집가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 본 남편은 서울 가서 과거를 봐가 합격을 해가, 인자 당나귀 타고 이래 오니까, 저 들판에 저 김해평양걸은 평야서 거 피로 훑고 있는 아줌마가 지 안면 있는 아줌마라. 그래서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저 평야 갱피(강피) 훑는 저 아주매, 사주가 얼마나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가는 데마다 골골마다 갱피 훑노?”

지는 이미 과거 봐갖고 부자로 좋은 집도 있고, 다 부자로 사는데, 가마 한 자리 붙어 있었시몬 지가 복이 될킨데. 지 복이 문칠네 까재복이 돼가 거 가서 갱피 훑는다고. 그 노래가,

“저 들에 저 갱피 훑는 저 아주매 무슨 복이 그래 많이 간 데 쪽쪽 갱피 훑소?”

그 노래가 있습니다.

[금정구 설화 15]

지령이국을 먹고 눈을 뜬 어머니

백순임(여, 1948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지령이를 잡아들고 하도 맛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야야 뭘 고긴데 이리 맛이 있노?”

이라이께로, 그래 인제,

“맛있느냐고?”

물은께로, 또 아들이 재차 물으니,

“맛있다.”

칸께로,

“그래 이게 뭘 고기고?”

이라이께로, 그래 그때는 인제 엄마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거라. [청중: 놀래가지고 눈을 떴다 안 카더나?] 그래 지령이를,

“지령이.”

라 칸께라, 할매가 놀래가지고 눈을 떴다.

[금정구 설화 1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오절(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할머니경로당]

[청중1: 동냥을 하러 왔는데, 고 줄 끼 없다고 뭐. 거 할매 또 이야기해 보소. 그라대 옛날에, 경주 에밀레종.] [청중2: 저 할매한테 가 보소.] [청중1: 해봐.]

“아를 쫓으면 쫓지, 동냥 줄 끼 없다.”

이래.

“아라도 달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아로 쫓어. 종이 인자 데꼬 간다. 데꼬 가가 이 보살에미가, 종이카 뭐라카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소리가 희미하게 났어. 소리가 총민하게 안 나고. 그래 물으이 까네 또,

“아로 거다가 무쇠로다 녹하가(녹여서) 아로 뚜드라가, 그래 인자 종을 만글아가(만들어서) 쳐 봐라. 쳐모 소리가 난다.”

이카더래. 그랬대요. 그래노 인자 나중에 아로 거기가 가마솥에다 열어(넣어) 고아가, 쇠강 고아가, 그래 인자 그 종을 만글아가 인자 쳤어. 쳐이께네 에밀레 때문에 죽았다고 저검마 (저거 엄마) 때문에 죽았다고 ‘에밀레’ 카더랍니다.

[금정구 설화 17]

정묘 이야기

곽병윤(남,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금동경로당]

정묘이야기는 내가 들은 바가 참 많았는데. 뭐 옛날에 정묘, 그기 정묘 씨기(쓰기) 전에, 옛날에 정씨가 궁궐에 드가가지고 정승을 했는데, 그래 그 인자 저, 지금 정묘 있는데 거기가 참 임금이 드갈 못자리라고 잡아놨는데, 그기 인자 안된다고 인자 그 거짓말을 했다 이라대.

와 거짓말을 했냐면은, 정묘 맞은 편에 거기에 그 큰 바위가 큰 기 있었다고 해요. 큰 바위가. 큰 바위 그기 장애물이 돼가지고 안 된다. 인자 그래 이야기 해놨는께네, 그로 갖다가

안 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승이 와서 그라니께 안 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인제 정묘 그기 인자 자기가 그걸 씨고 나서 그 바위가 날라가, 저 저 그 뭐고? 참 까마구 날라가자 배 떨어지기로 마침 그제 저 비가 와가지고 벼락이 쳐가이고 그 바위로 갖다가 깨져가 없애졌뵈다 카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는 내가 들은 예가 있지. 그거 뿌이(그것밖에) 모릅니다.

[금정구 설화 18]

며느리 방구 소리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 거 뭐로 저 저 뭐로, 며느리가 방구를
“뽕~”
끼이께네, 시아바이가,
“아이구 야야, 아가 그게 뭘 소리고?”
이러이께네,
“보지 날개 치는 소립니다.”
카더란다. [일동 웃음] [청중: 그거는 하지 마라.]

[금정구 설화 19]

노름꾼의 변명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장팔아, 장팔아.”
카이께네, 인자 그 지는 인제 노름을 잘 하이, 지 인자,
“장팔아, 장팔아.”
카며, 돈 딸 거 그 연구만 하고 그래 했는데, 그레이끼네 인제 아바이가,

“야야, 니 그계 뭘소리고?”
하이께네,
“아버지, 장에 파리가 빠졌네요.”
이래더란다. 그래 그래 모면을 하더란다.

[금정구 설화 20]

좋으면 좋다 해라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두 신랑 각시가 잠자리를 할 때, 그전에 이불이 한 개 가지 아니가. 이놈을 덮고 했는가
배 둘이. 그라이께네 남자가,
“좋으나, 좋으나.”
근께네, 암말도 안 하거든.
머씨마가 옆에 있다가,
“엄마, 좋으면 좋다 해라. 내 추버(추워) 죽겠다.”
이카더라.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21]

아버지 옛이 제일 맛있다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래가 깨를 이래 뭐 넣어놨는데, [조사자: 네.] 남자가 어적어적 기면설랑 그 깨를 덩개
덩개 묻혀 가지고설랑 [일동 웃음] 나대이께네, [조사자: 다시.]
“엄마 옛 먹고 싶다. 옛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옛 사다 달라.”

[조사자: 다시 이야기, 앞에 그것만 안 되지에.] [제보자: 똘다. 고마 나뉘.]

[조사자: 옛 먹고 싶다고예? 옛 먹고 싶다 본께네.]

“옛이 어데 있노?”

카이께네.

“나는 아버지 옛이 게일(제일) 맛있던데.” [일동 웃음]

카더란다.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22]

뱀 눈을 찌른 신랑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 전에 인제, 장가를 가다이크네, 가마를 타고 장개를 갔는데, 가다이 저 논둑 밑에서 쪼매낸 너물뱀이하고 커다란 구러이(구렁이)하고 장난을 하거든? 그래이께네 신랑이 고마 하도 갈잡아 가지고 마 구러이(구렁이) 눈을 고마 찌러뿌렁다. 한 짝 눈을. 그래 찌러가지고 첫날 자다이크네, 구리가 한 마리 천장에서 실금 들어오디마는, 그래 신랑이 하는 소리가,

“니 나를 잡아먹을라면 잡아먹어라. 니 어찌 점잖은 짐승을 내놓고 쪼매한 너물뱀이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찌렀다. 찌러 죽였다. 눈을 찌렀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네. 나가디마는 마당에 가디만은 벼락 치는 소리내가 나가 따라나가 보이께네, 그 눈 까진 뱀을 데려왔더라 그래. 데려와가지고 이 신랑 말을 들어보이께네 옳거든. 그래놓이께네 그래 가서 고마 물어 죽여뿌더란다.

[금정구 설화 23]

먹잇감을 놓쳐 복수하는 뱀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나는 저기 뭐로, 우리 클 적에 실제로 내가 그거를 겪었거든. 겪었는데, 저게 아가씨가,

우리 먼 집안에 아가씨가, 우리 언니 또랜데, 약혼을 해놔어. 약혼을 해놓고설랑 봄에 산에 나물하러 갔어. 나물하러 가이, 콩이(평이) 알을 놓을라고 그랬는지 알을 품었는지 몰라. 그런데 요래요래 앉아있어. 앉아있는 걸 이 아가씨가 그걸 건드리버렸어.

저기 뭐로 이 뱀이가 그걸 인제 콩을 물고 있는 걸 건드리뿌렸어. 그러이께네 마 콩은 내 고마 살자 달아나부리는데, 뱀이가 죽자사자 따라오는 거라. 죽기살기 따라와. 그래가지고 좀 가다가보면 신작로가 이래 있어. 이리 건너갈라 하는데, 그러이께네 그래 신작로가 이래 있으니까네, 고마 이 아가씨가 신작로로 이리로 고마 마 쫓겨올라가니께 뱀이가 바로 고마 산으로 마 기어 올라가. 뱀이는 직진으로 가제 이래이래 못 가거든. 이래가지고설랑 그 아가씨가 시나시나 앓다가 죽어버렸어.

전부 다 그거 마 받아가지고 그 전에 옷을 막 해가지고 갔잖아? 시집갈 적에. 그래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 다 하다가 반은 하고 반은 끊어놓고 이랬는 걸 그걸 마 소밭이에다가 한 소밭이 싫카(싫어서) 보냈어. 아가씨가 죽어뿌리가지고. 그거는 실지로 내가 봤어 그거는. 우리 언니 저기 친구, 우리 언니 또랜데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든가 어엿든가 마 고마 죽대. 시나시나 앓다가.

[금정구 설화 24]

구령덩덩 신선부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거는 저기 뭐로, 그 어마이가 아를 놓지 못해가지고 저거 하다가 아를 하나 낳았는데, 머시마를 하나 낳아논께네, 뭐 눈도 코도 없는 게 마 이래 이렇더라대.

그래가지고 뒤에, 뒤에다가 떡찌루 찌는 그 저거에다, 그 밑에다 갖다여놔디만은 이우제 (이웃집) 아가씨들이 삼형제가 얼라(아기) 보러 온다 하면서러 와가지려고설랑,

“아이구, 이 집 아지매는 얼라 낳았다더마는 얼라 봅시더.”

카이께네,

“뒤에 떡찌루 뒤에 가 있다, 가봐라.”

그카히께,

만이 가서 이래 디다보디만은(들여다보더니)

“어이고 뭐 두리몽시를 나놔네.”

카고 가고, 또 두 번째도 딸이 오디마는, 또 들셔보디마는

“아이고, 또 두루뭉시같은 거 나왔네.”
이러더니, 막내이딸이 오디마는 들이보디,
“동동 신선부를 놔놔네.”
그카더라대. 그레이께네 그기 인제 그 하늘에 천사가 돼가지고 올라, 올라 갔다대. 올라
가가지고 그 집이 잘되더라대.

[금정구 설화 25]

피를 내어 아내를 효부로 만들 아들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밤을 서 되를 사다 놓고, 서 말을 사다 놓고, 시어마이가 밭다꼬 밭다꼬 그래가지고설랑,
아들이 밤을 서 되를 뒤안에다 갖다놓고설랑,

“이거는 한 개도 먹으면은 약이 안 되고, 이 밤 서 말을 다 멕이면은 엄마가 죽을 거다.
그레이께네 요고 한 개도 남구치 말고 누가 먹어도 안 되고 한께네. 요거 다 멕이라.”

기운 없는 할매를 언제 밤을 꾸워서도 주고, 삶아서도 주고 이래 멕이논께, 기운이 나가
지고 보리 실어 방아도 넣어주제, 청소도 하제.

그래 가지고 그래 해놓고는, 인제 저 저 산 넘에 그 집에는 효부가 하나 살았어.

“그 집에 환갑잔치를 한다 하는데,한 번 가보고 온나.”

메느리, 각시를 보냈어. 보냈디마는, 그래가지고 가이께네 막- 떡강 뭐강 해놓고 시어마이를
저게 얹혀놓고 마구 절 하고 마 마 동네가 마구 잔치 하더라대. 그래가지고설랑 잔치하는 걸
보고 그래가 인자 메느리가, 각시가 올 때 돼가지고 마 방구들 이만치 파놓고 청솔갈을 갖다
여놓고 마 굴뚝에 마 연기를 막 피우이 방에, 시어마이 있는 방에 막 연기가 팍 찰 끼아이가.
죽지는 안할 끼 아닌 가배. 청솔갈을. 저 등넘에 오는 거 걸애가지고 마 신량이 마 그래 저거를
했디마는,

“아이고, 우리 시어마이 죽이지 마라꼬.”

마구 녹디방정을 떠며 넘어 오더라네. 그래,

“와 그래노?”

그러께네,

“죽이야 되지 왜 못 죽여. 밤도 다 먹고 했으니 죽여야 되지.”

카니께,

“아무것이네 집에 가이 환갑잔치 한다꼬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도 환갑잔치 하거러 놔두라고. 시어마이 놔두라고.”

마구 오디마는 시어마이를 꺼내고 그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효도를 그래 잘하더라네. 그래 환갑잔치도 해먹고. 마마 그래가지고 각시 질을 들어가 잘 살더라예.

[금정구 설화 26]

여우가 된 딸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아들만 놔놓고, 딸을, 저기 뭐로 딸 놓는다고 불공해가지고 딸을 낳아놓으니까네 그 여우가 되가지고설랑. [청중: 야시라 안 카나 우리.] 여우가 돼가지고설랑 그 집에 뭐 뭐 소도 많고 말도 많은데, 하루 지녔(저녁) 하나씩 죽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래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앞아가지고 저걸 하이께네, 가씨나가 낮에는 사람 뻘다가 저녁에는 여우가 돼가지고, 거 마 손을 고마 그 그게다가 마 집어넣더라네. [청중: 창자 열어가지고 빼.]

그거다가 여가지고, 창자 여가지고 빼이께네, 고마 소 하나 휘딱 자빠지고 말 하나 휘딱 자빠지고, 그리고 집이 망하더라네. 그러이께네 요새래도 딸 좋다고 하면 안 된다네. 저기 뭐로 딸을 놓니 여우를 놓제 카는 거 하고.

[금정구 설화 27]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전에 뭐 제사 얻어먹으러 오다가 저기 뭐로 그제 가극쟁이가 그 미(묘) 옆에 요래 잔다고 들누웠다이께네, 밤중서 오디마는,

“할마이, 가세.”

카더라네. 그카이께네 할머니 그 미 안에서 거짓말이겠지.

“아이고, 나는 오늘 저녁 손님이 와서 못가니더. 영감 혼자 가소.”

그래더라대. 그러디마는.

[청중: 손님이 인제 그 가객쟁이가 그 와서 잔께네, 그 손님 왔다고 못 간다 한다.] [조사자: 그래갖고예?]

아이, 할마이가 아이고(아니고) 저게 뭐로 할바이가. 할마이가 오디마는,

“영감, 가시더.”

카더라대. 그래가지고설랑 그래,

“내가 저녁에는 오늘 손님이 와서 있으이께네 자네 혼자 갔다 오게.”

카더라대, 그 할머이 혼자 내려가이께네 그 제사 음식에 그 머리끄대이 걸은 거 귀신 앞에는 그 구리라(구렁이라) 하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왔더라대 와가지고서는,

“그래 잘 얻어먹고 왔는가?”

카이께네,

“가이께네 구리를 삶아제끼놔가지고 먹도 안하고 마 손자라도 불에 떠밀어 열고왔니더.”

카더라대.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와 그래노? 그 아들이 모를 낀대, 어데 가면 뭘 저거를 갖다가 바르면 나올 낀데. 어짜꼬 누가 갈키주노.”

카면서러, 영감은 그래 걱정을 하더라 하대. 할마이는 못되가지고. 죽으나 사나 할마이들은 좀 못된 거 곁애. 그래가지고설랑 그 가객쟁이가 그 아침에 그 동네를 내려오니께네 참말로 어제 저녁 저 집에 제사지내고 아 불에 탔다고 난리가 났더라대. 그래 가객쟁이가 그 가가지고설랑 그래 이제 어데 약을 하면 나올 꺼라 하면설랑 [청중: 영혼이라도 갈가쥘다, 그제? 제사 안 가고.] 들리쥬디마는 그래 참말 한 상 잘 먹고 그래 약을 갈키주고 왔디만은, 그래 그 약을 쓰이께네 났더라대.

[금정구 설화 28]

버려진 아이를 구해 대신 키워준 개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 전에 저게 인제 이 신랑은 과거보러 서울에 가고 없고, 어마이가, 그 집에 어마이가 아를 몬 낳아가지고, 인제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를, 열라를 뻗는데. 그 집에 개도 이제 한 마리 맥있고 그랬는데, 신랑이 저게를 가면설랑 적은어마이를 두이께네, 인제 큰어마이가 인제

얼라를 뺏어. 뺏는데, 얼라를 놓기는 놔야 되는데 적은어마이를 맏기고 갈라이까네 의심시러 버놓이께네 신랑이 인제 유모를 하나 뒀어. 하나 두고,

“얼라 놓거들랑 좀 보고 있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설랑 어마이가 인자 아를 낳어. 낳는데, 놔놓고 나이께네는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가 깨이보이께네 얼라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라는 우였노?”

카이께네,

“얼라 놓기는 머씨마를 낳는데 죽어가지고 갖다 내다 버렸다.”

하더라네.

“죽은 거라도 한 번 봤으면 좋을 낀데.”

하고 고마 마 타령을 하고 앉았단께네.

개가 어데 가서 그래 인자 놓을 달이 한 달인데, 개를, 날마다 개를 밥주며,

“니는 어데 가 탄 데 가가 새끼 낳아가 온네이, 새끼 낳아가 온네이.”

얼라 뺏 어마이가 날마다 씨다듬어 줬지만, 그래 한 며칠 돼가 왔더라네. 왔는데 어데 가서 새끼를 낳아놓고 왔더라 개. 그래가,

“니는 어데 가 새끼를 낳았노? 나는 낳아도 참말로 아도 못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있다.”

고. 자꾸 개가 이래 치마 꼬리를 물어 땡기더라네. 가자꼬. [청중: 지 따라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나물 뜯는 다래끼가 이래 있었어. 다래끼가 있는데 그 다래끼를 들고 개 찾으러 간다고 갔어. 가이께네 저 산꼭대백에(산꼭대기에) 방구(바위) 밑에 요래 양지 바른 데 요런 데 갖다뺏는데, 지 새끼는 다섯 마리를 낳아가지고 가에다가 주릭 눅혀놓고, 복판에 뽕얀 두데기 쌓인 게 요래 있더라네, 가보이까네 아라. 그래가지고설랑 그 개가 데려 가가지고 지 젓을 맥여가지고 아를 고래 키워놔어. [청중1: 아이구 세상에.] [청중2: 포데기는 또 어데서 구했노?]

싸다 내비렸지. [청중2: 아하.] 그 저 유모하고 적은 마누래랑 싸고. [청중2: 싸고 마 씹을 해가이고, 큰마누네 아 낳았다고 갖다 내뺏려뺏네.] 그래가지고 그 적은 어마이가 유모한테,

“이 아만 갖다 내빌면은 내가 재산은 내가 받을 주꾸마.”

이래 약속을 하고 그래 했거든. 그래가지고 어마이가 하다하다 기가 맥혀가지고, 이놈의거는 옛날에는 그 광목 앞치마 있었잖아? 개는 거기다 싸고, 다래끼에 주공가 둘러미고 울며불며 오이께네, 저쪽 삼짓거리(삽작거리)에서 신랑이 들어오더란다. 과거보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방에 갖다 눅혀노니 머씨마래. 머씨만데, 개가 젓을 먹여갖고 뽕얀 게 고래가지고설랑 키워놔더라 개.

그래 어째서 이래 했노 조사를 하이께네, 그래 유모가 하는 소리가,

“적은어마이가 야를 내빌면은(내버리면), 재산을 받을 준다 그래가 내가 마구 구석에다 내버렸다.”

그래가 개가 물고 갔는 기라. 마구 구석에 갖다 내뺏리 놓으이께네. 소 마구에. 그래가지고 설랑 그 인제 적은어마이는 뭐 사형을 시켰는둥. 뭐있는둥 하고. 이 할마이는 지역(징역)보내코.

그 개를 얼쩡 수 없어가 그 개가 죽도록 그걸 키웠는 기라, 저 창원에 어데 가면 개 미가(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장사를 그렇게 크게 잘 지냈어. [조사자: 개 장사를.] 예. [청중1: 짐승은 그래 은혜를 한다 안 카나.] 그 개, 그 집에 머시마 키와 물고 갔다가 데려왔는 개 살려줬다고 [청중2: 살려줬다고.] 그 크게 했어요. 우리 클 적에. [청중1: 그렇겠다.] 그 가면, 창원 그 어데 가면은 안죽 개 미가 있어.

[금정구 설화 29]

죽어 쥐가 된 시어머니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전에는 시어마이가 하도 하도 저게 없어가지고 쌀 내려오면은,

“쫄매 떠내래이, 쫄매 떠내래이.”

쌀만 떠내려오면.

“쫄매 떠내라.”

그래는 거라 시어마이가 메느리보고. ‘저놈의 시어마이가 언제 죽으면 죽으면 내가 쌀을 좀 쌀을 많이 퍼내다 밥을 좀 많이 해가 먹을 낀데.’ 카고 있다йка네, 한 번은 시어마이 죽더라대. 죽어가지고. 장사 이제 다 지내고 인제 쌀을 떠내는데, 딱 고만치 떠내고 한 숟가락 더 떠낼려고 하이까네,

“고만.”

하더라대. [청중: 하하(웃음), 죽어 가꼬도.] ‘고만’ 해가지고 뭐가 이래는고 싶어가지고, 단지 뒤에 이래 본게네 쥐가 반들반들 그런 게 있더라대. [청중: 쥐가 돼가이고.] 쥐가 돼가지고. [웃음] [청중: 간섭하던 가배.]

“그만.”

하더라대. [웃음]

그래가지고 그 쥐를 그래 가만 놔뒀시면 될 낀데, 저게 죽어가지고도 쥐가 돼가지고도 쌀 못 떠내구로 한다고 쫓아버렸어 [웃음] 메느리가. 그래 그 집이 안 되더라대. 암말도말고(아무 말도 안 하고) 좀 더 떠내다 먹제. [청중: 맞다.]

[금정구 설화 30]

죽어 구렁이가 된 어머니

권분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시어마이가 죽디마는. 죽고 장사지내고 나이께네, 비가 축축이 오이께네, 처마 끝으로 누런 구렁이가 슬 슬 들어오더라대. 그래가지고설랑 그래 모두 보디만은,

“아이구! 저건 할매가 저게 구리(구렁이) 됐는 갑다. 구리 됐는 갑다. 구리 됐는 갑다.”

했디, 그래가지고설랑 그 인제 아들이 그 구래이를 여 마 저기다가 열어가지고 담아 업고, 구래이를 담아 업고서는, 온- 천지를 마 구경을 시켰다대. 그래 시키가지고 그 집에 델다는 께네, 고마 실- 가디마는 그래 그 집이 글쿠(그렇게) 잘되더라대. 글쿠 밥도 못 먹고 살던 집이 그래 잘되더라대.

[금정구 설화 31]

꼬끼요 하면 삐약삐약 한다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식구가 많은데 애가 많은 기라. 그래 방은 솔고(좁고), 그래 인자 부부간에 같이 접촉을 할라 캐도이 방이 솔아서 몬 해서 인자 부부간에 약속을 하는 기라.

“내가 꼬끼꼬끼 커면 살짝이 나오이라.”

인자 그랬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소리가 들리서 인자 할맘이 나간께네,

“삐약, 삐약, 삐약.”

싸면서러 전부 다 아들이 다 따라 나오더라대.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32]

반침을 안 붙여 우습게 된 편지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 군예를 갔는데, 글로 모르는 사람이 군예를 갔어. 글을 알긴 아는데, 잘 마 발음이 안 되는 기라 받침이. 그래 집에 인제 편지를 쓰는데, 저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본 지도 까맣다고를, '어머니 보지도 까맣고 [일동 웃음] 형수님 보지도 까맣고.' [일동 웃음] [청중1: 이응받침을 그걸 안 해놓으니 그렇다.] 엄마 본 지도 까맣고 인자 그걸 갖다가. [조사자: 말 된다 그지예?]

[청중2: 저저 엄마가 그러카더라 안 카나. 저놈의 자식이 내가 지 놓을 때 내 꺼는 봤지만은 저저 형수 보지는 언제 봤노? (웃음) 보지라 커고, 그래 말로 하더라 안 카나?]

[금정구 설화 33]

직선으로만 가는 뱀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저 거석에 저 경주란다. 저 양산 통도사 가는데 요서 차 타고 가면 저 건너편 산에가면 산에 질이(길이) 쪽 있어요. 외길로. [조사자: 미태암?] 미태암 거는 서창이고. 미태암 있는 데는. 저 양산 다가가서 통도사 다가서. 그러면 요래 가고 톨게이트 틀어사면. 그 석에 들어간께, 질이 죽- 있고 그 위에 바위가 있대. 그래 그기 테레비에 전설에도, 전설 그석에 나오대.

밑에 그 샘이가, 샘이, 좋은 물이 있는 기라. 밑에. 질이 쪽 있어. 그 포가(표시가) 나. 이리 차 타고 가도. 그래 뱀이가 인자 용이 되갓고 인자 올로 가는 기라. 인자 올라가서 인자 그 위에 바위에 올라가면 인자 그석이 이무기가 돼. 하늘에 올라가 등천을 해. 자기가 큰 그석이 되는데, [청중: 용이 될 낀데.] 인자 이리 올라가다가 뭐이 날짜가 덜 찻어. 뭐 만일이면 백일, 백일이 되야 가는데, 뱀이는 이리이리 몬 온다 카대. 그렇게 뒷걸음, 언제든지 배암은 직진으로 가. 뒷걸음 몬 치이, 이리이리 인자 뒷걸음치 내려온께 희안해. 그 전설 보면 질이 보면 이리이리 돼가 있어. [조사자: 뱀이.] 뱀이 내려온 질이라. 바로 이리 몬 내려온께네. 이리 몬(못) 틀어오고, 바로 거꾸로 내려온께네. 길이 이리이리 되는 기라.

[금정구 설화 34]

눈물을 받아먹고 사는 상사뱀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거는예 우리 영주에서 그런 거 봤다. 봤는데, 아가씨가 저게 짝사랑을 하다가 죽었는지 뭐 우였는지 사랑을 하다가 머시마가 저게 뒤로 죽었어. 죽었는데, 그 물이 참 좋아 그 뒤에 그. 요새는 물이 그 없더라만은. 물이 좋아가지고 거랑가 빨래 씨이러(씻으러) 갔어. 빨래 씨이러 갔는데 꽃이 요런 게 하나 동동동 떠내려오이까네 아가씨가 꺾졌거든. 꺾져가지고 오이께네 뱀이라.

뱀인데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화장실에 간다면은 떨어지고, 또 어디 저거 한다면은 떨어지지 절대 안 떨어지고 앞에 탁- 붙어가지고, 얼굴에 요래 붙어가지고설랑 눈물 내려오면 눈물 받아먹고 그래가 있는데.

그게 그때 순천 병원인듯, 그런데 그게 가 가서 있을 적에. 우리가 내일 구경 가자, 모래 구경 가자. 하도 사람이 와놓으니께네 고마 철장을 해뿌고 문을 안 열어 주는 거라. 우리가 가이께네 그 안에 들기는 들었는데. 먼저 가본 사람은 가봤는 거라. 그레이께네 자꾸 여자가, 딸아가 우니께네, 눈물만 쪽쪽 빨아먹고 화장실에 간다 컨께네, 그래 내려왔고 그라는데 딱 복판에 요게 요게서, 앞에서 요래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조사자: 사람 눈에는 보입니까? 그 뱀이] 보이지. 보이지요. 아가씨도 그거 아는 거라. 그게 붙었는 주로. 안 떨어지이께 못 가지.

[금정구 설화 35]

자손이 몇인지 점치는 가락장사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그 무맹(무명), 명 찾는 거 있제? 솜으로 이리이리 잣으면 실 졸졸 나오는 거. 그 가락, 그거 쇠로 된 거 있거든. 그거 팔러 댕기는 할머니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 그거 팔러 댕기는 할머니들이 한 번씩 말로 쓱- 하는 게 맞아 들어간다 캐. 우리 실제, 실제 있었던 기.

우리 시가집에 우리 시어머이가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락장사가 와서 인자 이야기를 톡 하는 기, 우리 아저씨도 어리고 우리 시숙도 어린데. 우리 시숙을 보더마는, 인자 옛날에는 마 ‘요놈.’ 커고 그란다 아이요.

“요 큰놈 요놈은 꼬치에 아들이 조랑조랑하네. 인자 꼬치에, 꼬치가 조랑조랑 달렸네.”

그러 쿠이,

“꼬추가 조랑조랑 달렸네.”

그러 쿠고, 우리 아저씨보고는,

“여는 하나뿌이 꼬추가 안 달렸다.”

그러 쿠더라 카더라 캐. 그라더만 우리 시숙은 아들이 너이고, 우리 아저씨는 아들 하난 기라. 그래 우리 시어머이 하는 소리가,

“그 가락장사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한 번씩 하는 기 마친다(맞춘다).

“맞힌다.”

고, 그래 그라더라.

[금정구 설화 36]

자손들이 하얀 머리가 나는 이유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래 인자, 짐이 푹 올라옴께 먼데서 막,

“덮어라. 덮어라.”

막 그리 가암을(고함음) 지른께네, 그 옆에 섰던 인자 그 제관택이제. 모시 두루마기 입었던 걸 두루막으로 푹 이래 덮었어. 그래 그 대대손들이 미리, 하얀머리가 나더라 커대. [청중1: 그래 모시옷이 그래.] 그래 모시옷 그기 그리. 공께 죽으면. 모시옷은 절대 안 태우거든. [청중2: 모시옷은 못 태우지.] [청중1: 머리가 센다 안 카나?] 삼베는 좋아도 절대 모시는 [청중2: 모시는 못 태운다.] 그래 뭐,

“덮아리. 덮어라.”

마 그래 산께네, 급해가 모시 두루막으로 덮었던만 그 대대손손 머리가 하애(하얗게), 그래 새치머리 많은 기라.

[금정구 설화 37]

정묘 이야기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정묘사 그 못자리 그래 터가 좋아서 거기 제관이 인제 터가 좋은가 안 좋은가 파갔고, 계란을 물어냈더만 계란이 삶겨졌다야이가. 터가 좋으께네 훈집이 나는 기라. [청중: 그래 정가들이 내 발복했다.] 그래가 인자 그 시조 할아버지가,

“내 죽거들랑 여 물어달라.”

인자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 기라. 그래 자손들이 인자 거기 물어놓고 그 돌아가시고 나면 물어놓고 맨 산소 가거든. 마 굴건 그거 제복 입고 작대기 짚고 아침에 둘러보러 가는 기라. 인사하러 간께 뵈이 파내났는데 그래 또 물어놓면 또 파내놓고 또 파내놓고 그라는 기라.

그래갖고 어느 인자 스님이라카더나? 그 전설이 좋다. 그계 하마정 그 뭐 말을 어데서 뵈이 말로 타고도 하마정 내리갖고쌘서러. [조사자: 동래부사도.] 야, 그런 전설이 있는데 모르겠다 인자. 그래갖고는 그 어데 스님한테 물으니까네,

“그기는 대인이 들어갈 자린데, 소인이 들어갈 자리 아이다. 산신령이 자꾸 파낸다.”

카는 기라.

“그래. 그럼 우짜야 되노?”

그란께네, 그 없는 집이라 논께네.

“우짜야 되노?”

한께네, 보릿대, 보리타작하면 보릿대가 있거든요. 그게 누러이 금걸애. 문 봤는가 몰라. 문 봤는가 몰라. [청중: 누러이 거기 금걸애.]

“그걸 갖다가 시체를 싸갖고 물어라.”

그라는 기라. 그래갖고 묻었더만은 안 파는 기라. 그래 그걸로부터 동래 정씨네들이 시조 할아버지 산소 그 바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부자된다꼬. 그런 전설이. 그 전설.

[금정구 설화 38]

할머니의 지혜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전에 좀 멍청한 놈이 있어. 그런데 인제 첫 아로 하나 낳았는데, 첫 아 하나 놓고는 고만에(그만) 마, 아 머리 자꾸 이래 만져보면서러 할마이 옆에 못 가는 거라. 아가 이렇게 굵은 게 나왔으니까 거 뭐 어떤 건고 싶어갖고 옆에 못 가고 있었거든. 있다가 그래 인제 여자하고 인제 낳 걸은 이런 할머니가 이우제 하나 살았는가배. 그래 그 여자한테 말을 들으 이께네 그래,

“우리 신랑은 야 놓고는 내절에 안 온다.”

이카니께네,

“그 멍청한 놈이 어데있노. 오늘 저녁 내한테 보내라.”

이래 그래갖고,

“할매가 오늘 죽 썬다고 오라하던데.”

그래. 그 갔어. 가이까네 콩죽을 인제 떠놓고서는 먹으라 하이께네, 한 숟가락 떠먹으이께 그 자리가 또 메끼고(메꾸워지고), 또 한 숟가락 떠먹으이께 또 그 자리가 메끼고 이러이께네,

“이놈아, 니 그 콩죽 떠먹으니까 어떠노?”

그러이께네,

“뭐, 숟가락 저거 한 게 없고, 자꾸 메끼네요.”

그러이께네,

“이놈아 얼라 하나 낳았다고 그기가 메끼지 그럼 열려있나? 에이 바보걸은 놈아.”

그래가지고 그 날 저녁에 옆에 가더라네. 옆에 가가 둘째를 놓더라네. 둘째 놓고는 나중에. [웃음] [청중1: 빠져 죽을까 싶어.] [청중2: 지가 빠져 죽을까봐 싫아서. 자궁이 이마이 넓어지 이니 갑자기.] [웃음] 그 빠져죽을까 봐 못 드가는(들어가는), 못 가는 거라고마. 그 바보걸은 놈이. 그래가 콩죽 썬다놓고 이웃 할머니가 그래 그 갖다 붙었다 아이가. [웃음]

[금정구 설화 39]

빠꾸기 우는 소리의 의미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빠꾹. 빠꾹.”

소리도 들어보면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라. 빠꾸기 새도. [청중: 빠꾹. 빠꾹.]

“기집(계집) 죽고, 자석 죽고, 나 혼차서 어찌 살꼬.”

캐 샐대. 버꼭새 우는 기. 기집 죽고 상처하고, 자석 죽고 다친다 하고, 어찌 살고, 그리 한다.

[금정구 설화 40]

고양이 양값음을 막은 삽살개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어느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내 그거 어던(어떤) 책에서 봤어.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사 지낼라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고양이가 고 고기를 갖다가 입에를 대는 기라. 그랑께 주인이 우찌 뵈가 때린다고 때린께네, 고양이 한 쪽 눈이 빠졌어. 그 질로 도망가서 안 와.

그래가 안 오는데, 한 번 시장을 나갔는데, 그 어느 주막집에 들어간께, 그 집에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어데 장 가면 삽살개 있제? 까만 거 삽살개. 그걸 파는 집 있으니까 깎지도 말고 두 마리를 다 사라.”

카는 기라. 그래,

“와 그라노?”

카이께,

“나중에 사놓으면 그석할 일이 있다고 사놓으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사갓고 하나는 대문 앞에 놔두고 하나는 마루 밑에 놔놓으라.”

카는 기라. 그래 오늘날 인자 누자니께네, 막 대문간에 개가 마 막 죽는 시늉을 하고 난린 기라 마. 그래서 무섭어도 나오도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라.”

인제 그래는 기라.

“알 징조가 있을 꺼다.”

커며. 그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또 조용한께네 마루 밑에 개가 마 또 마 죽는다고 마 난리를 지기고 투닥닥 거리고 콩구고 막 난리를 지기.

그래가 인자 난중에 있은께네, 조용해가 날 새가 나와본께네 그 고양이인 기라. 그 눈 빠진 고양이. [청중: 복수하러 왔어.] 저 양금하러 오는데, 삽살개, 그 삽살개 눈에는 저 귀신도 다 빈다. 옛날에 삽살개는.

[금정구 설화 41]

다람쥐의 원망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다람쥐 이야기 할께. 그것도 내 어느 책에서 봤어. 어느 절에 고양이 인제 가을에 인제 도토리를 주우러 갔는 기라. 도토리를 주우러 갔는데, 어디 바위 밑에 저 고양이, 저 도토리가 겨울에 몰라꼬 모으거든. 그거 저 다람쥐가 도토리, 밤 그런 거 주우다가. 그걸 밤을 도토리를 많이 모아놔는 기라. 그래 그걸 싹 갖다가 목을 꿰어뭇는 기라. 그 인자 고양이, 절에 가서 꿰어 뭇는데(먹었느데), 자고난께 그 뒷날인가 보니까네 고양이 신발 안에 새끼까지 와서 오골오골하이 와서 다 죽어뺏는 기라.

우리 목이를(먹이를) 우리 먹거리를, 겨울 우리 먹고 살 걸 다 갖고 와서, 인자 우리가 배고파서 죽는다는 뜻이거든. 고양이 신발 안에 새끼하고 에미하고 전부 다 와 죽었더란다. 그런데 거짓말 거짓말이지. [조사자: 원망 아닙니까 그지예?] 원망하는 거지. 그것도 내 어느 책에서.

[금정구 설화 42]

소가 된 어머니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아들이 돈 살아서 딸 몰래 보릿쌀을 두 되 아들을 퍼줬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딸한테 말해가 줬으면 될 낀데, 그것도 죄가 돼갖고, 소가 돼갖고, 후제 할매가 딸네 집에서 그 그숙을 다 갖으더라 카네. 소가 돼가 일 해주이. 근께 절대 눈거시지(눈에 거슬리게 하지) 마라. 쪼금이라도 인자 말을 하고 그석해라 그 말이다. 그래 그것도 소로 태어나고 딸네 집에, 딸네 집에서 이제 보릿쌀 두 되 똥치(흙) 준 그 그석을 다 소가, 소가 돼갖고 딸네 집에.

[김정구 설화 43]

명주 짜는 여인과 스님과의 대화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게 뭐로 이제 웬 여자가 인제 베를 이래 이래 매는 게 있거든. 옛날 베 짜는 거 매고 삼베를 매는데, 밑에 이거는 다 인제 옛날에는 이게 막 따개졌잖아? 요새같이 안 막히고, 이래 벌려놓고 있다이께네, 속곳 안 입고 오이께네, 그 저게 인제 중이 와보이께네 밑엿게(밑이) 다 보이거든. 그러이께네,

“푸르딩딩 하오리다.”

카이께네, 이 여자가 인자 이 베를 매면설랑,

“수꾸풀(수수풀)을 하였소.”

그래,

“넌넌주름 하오리다.”

아이들이 삼을 삼아서 넌넌주름 하다꼬 인제 그래 인제 답변을 하더라네. 그래, [웃음]

“궁기(구멍) 뻐끔하오리다.”

카이께네,

“북 드가는 자리오.” [일동 웃음]

[청중: 베, 베 베짜는 그 말이다 그제? 지 베짜는.] 그래가지고 인제 처음에는 보이께네 넌넌 주름하거든 거기가. 그러이께네,

“넌넌주름 하오리다.”

카이께네. [웃음]

“아이들 산 삼은 삼이오.”

“뽕그덕덕 하오리다.”

그러이께네,

“숫꾸풀을 하였소.”

[조사자: 숫꾸풀이 뭘니까?] 숫꾸, 수수. 수수풀이 뽕겅잖아. 그래 그 풀을 해가지고 인자 뽕겅다 하고, 그래 인제,

“궁기 뻐끔 하오리다.”

그러이께네,

“북 드가는 자리오.”

카더라네. 그래 답변을 다 하더라네.

[금정구 설화 44]

새 울음의 의미

우경녀(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저 칠, 팔월 되면 산에 가면 새가 오만(갓가지) 새가 다 있는데, 우는 게 다 틀리. 가마이
고요하이 들으면, 우는 기 그지요? [청중: 다 틀리지.] 참 그게 희안해. 고요한데, 짙은 산에
가면 마 만일 열 마리 열 마리 지지금(제각기) 소리가 우는 게 다 틀리고. 고요한데 그 참.
그전에 저 모찌는 새는 새벽만 되면은 ‘착착착’ 한다이. 물 요리 해가지고 ‘착착착’ 뚜드리는
소리 나고. [청중: 그 소리도 내는 새가 있네.] 또 삐꼭삐꼭 소리도 들어보면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라. 삐꾸기 새도.

“기집 죽고 자석 죽고 나 혼차서 어째 살꼬.”

캐 샐대. 삐꼭새 우는 기 기집 죽고 상처하고 자석 죽고 다친다 하고 그리 살고 그리 한다.
배가 고파서 인자 서슴에 빨래풀 하는데, 있은께 풀꼭 거기라도 얻어먹을라고 하이 확- 부아
내뻘다고 그래, ‘풀꼭 풀꼭’ 해가 ‘깨개객’. 그게 피 토하고 죽는 소리라 마. 그래 샐대. 옛날
어른들은 다.

[금정구 설화 4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명순(여, 1923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렇대. 나라에 임금이 아주 어려븐 일이 있었다 카네. 있었는데 이거를 판단을 못 해갔고,
요새 말로 박정희 탄핵마이 애러버갔고(어려워서) 참 그 있으이 아버지를 고려장을 안 시키고
마루 밑에 이래 숨카놔다 카대. 숨겨놓고 있으니까네,

“야야,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 뭐로 어째하라 한다 카더라? 나 그거로 모르겠다. 뭐로 어째해갔고,

“임금님한테 말씀드리라.”

이래 캬다 카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래 카이. 되게 어려븐(어려운) 일이 뭘고 모르지. 있었는데 그래,

“임금님한테 말씀드려라.”

카이, 그래 참 아버지가 가리키주는 말로 아들이 참 임금님한테 가서 그 말을 전하이께네, 그래,

“누가 그렇게 가리키주더노?”

물으니께네,

“칠십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고려장을 하라 카는데 차마 몬 버리서 우리 마리(마루) 밑에 그래 숨카놓고 있다.”

카이, 임금님이 나라일로 골치가 아프고 어려븐 일이 있어갓고 해결로 몬 지는 말을 아버지 가 가르키주더라 카네. 그래 전해주라고 그제 무슨 말인고는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다.

그라이께네 그 임금님이 그 말을 탁 듣더만은,

“절대 고려장을 없애뿌리지 마라.”

카더란다. 인자 없애뿌리라 하더란다.

칠십 나만(나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영리하고 옛날사람 지혜 몬 하라고. 그때 임금님이 요새 대통령 맨치로 요래 판단을 취해가 그래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대. 그랬다고 캐샀대.

[금정구 설화 46]

호랑이와 꽃감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알라가(아기가) 마 하도 울어사이께네, 암만 달개도 호랑이가 온다, 뭐가 온다 달개 사도(달래도) 안 근치서(안 그쳐서),

“꽃감 주꾸마.”

카이께네, 떨걱 그치더라 카대 얘기가. 그래갓고 [웃음] 꽃감을 마 아들 울면,

“꽃감 주꾸마.”

카면, 떨걱 그친다꼬. 이런 얘기가 있더라.

[금정구 설화 4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그래 저 저 저 이 종을 통- 통- 치면 그래,
“에밀레~, 에밀레~.”
카는 기, 왜 그런가 카면. 어찌 참 옥동자를 낳아는 게 좋아갓고 아이고 어른다꼬 엄마가
그랬다 카대,
“아이고! 뭐 누구를 줄까? 이 복대를 누구를 줄까? 저래 줄까?”
이래 되갓고, 그리 캬다가 이 종을, 에밀레종을 맨들어놓고 보니까 이래 종을 치이 소리가
안 나더라 카대. 그래서,
“이 시주하러 가다가 그래 뭐를 봤노?”
이래 물으이께네, 그 그 사람이 얘기를 잡고 좋아갓고, 와 귀여운 아는 와 막 막 어루거든.
공께,
“어루는 말로 듣고 그래 왔다.”
이래 카니께네, 그래 가로(그 아이를) 기증을 했다 카대 에밀레종에다가. 그래놓이께네 이
종이 탕- 치면 엄마로 어머니한테 원망한다꼬 그래,
“에밀레~, 에밀레.”
카고 그래 그랬다 카대. 그래 너무 아로 놀음을 하는 것도 암만 좋아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모양이대.

[금정구 설화 4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나가 많애가지고 아바이를 지계를 지가지고 [청중: 어데, 칠십에 고려장하던 시절에
고려장 하러 가이. 고려장 하러 간다꼬 지계를 징가(지고) 가면서러 가는 족족 솔가지를 똑-

똑 집에다가 하나씩 뺏우라 하더라. 가는 족족(내내) 아들로 보고.

그래 인자 거꺼정(그기까지) 고려장 하러 가가지고 인자 고려장은 문 하고 인자 아버지를 내뺏러놓고러 나오니까네. 아버지가 고 솔가지 뿌사논 거 고 질로 따라서 집으로 오더라. 안 죽고. [청중: 아이고] 아들로 찾아가라고, 길로 알아라고 솔가지를 똑- 똑 뺏라 뺏다네. 근데 그 지계를 가지고 올라카이께네, 저저저 지계로 저저저 참 뺏놓고 온께네, 아버지가 그래 카더라 카대.

“아버지도 칠십이라고 고려장이라고 이 지계에 지고 가는데,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도 또 칠십, 칠십 되면 또 지고 와야 안 됩니까?”

카면서, 지계를 가지고 가라 카더라. 그 지계에 아들 지도, 아들 지도 높으면 후제 손지가 여 지고와야 된다고 가지고 가라 카더라. [조사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감서러 있었다 하대. 아이고 참.

[금정구 설화 49]

나무꾼과 선녀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나무꾼 선녀도 내나 그 저저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이께네, 선녀가 옷을 벗고 개울에서 인자 목욕을 하더라 카네. 목욕을 해서 마, 옷을 숨카뿌고(숨겨버리고) 감차뿌렸어(감춰버렸어). 감차 뿌리고 그라께네 선녀가 옷을 문 입고 마마 하늘로 못 올라가이, 그 인자 그 선녀를 델고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돼가지고, 애기를 저저 한 서넛 놓을 때까지는 이야기 하지 마라 켜는데, 내가 옷 짜비(흠쳐) 갔다는 말 안 하는데, 그래 아로 놓고 마 한 번 마 이래 마 자기가 마 이야기삼아 마누라한께 참 당신을 어째서 내가 델고 왔다꼬. 그래 내 나무를 하러 가니까 그래 선녀가 목욕을 하는데 내가 옷을 숨기뺏어 무지개를 타고 문 올라갔다꼬.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러 그래 내하고 결혼하게 됐다 칸께네, 그래 마 옷을 즐라고 마 사정을 해삿더라 카대.

그래서러 마 ‘아가 마 두엇이 날아지가 있는데, 그래 마 참 마누라가 또 옷 입고 가겠나?’ 싶어서 옷을 썩 내쫘는 기라. 그 옷을, 그 옷을 입고는 마 딱 무지(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뺏다. 그래 마 마누라를 잊어뺏다 카대. 거기 나무꾼 선녀 이야기라고 해. 그렇다고 이야기 하대. 그래 쫘 거짓말을 넣어야 재미가 있는데.

[금정구 설화 50]

손님 끊기게 해 망한 집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하도 하도 옛날 가각들이(가객들이) 많았다고, 이 집에 참 부잔데. 저저 손님이 너무 와서 마 귀찮거든 늘 밥 해주고 할라 카이. 그래서 옛날에 가각이 댕기는 사람이 전부 마 풍수고 볼 줄을 아는 사람인데,

“하이 어짜면 우리 집에 손님이 안오겠는교? 안 오도록 좀 해주소.”

이래 카이, 가각이 딱 보더만 그 집 마리청에서 바리(바로) 딱 쳐다보면 저 건니 방구가 있는데. 방구, 방구. [조사자: 바위.] 바위로,

“저 바위를 깨뿌면 손님이 안 올 까다.”

이래 카더라 카대. 그 말 들었다고 손님 오니께 언서리가(넌더리가) 나갔고 손 치기 싫었어. 오는 사람도 자고 가고, 가는 사람도 자고 가고. 일꾼들을 델가(데리고) 마 바위를 통통 다 깎뻬는 기라 마. 그 바위로. 깨고 난께네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기. 와 안 오노 카이. 살림이 살살 꺼지갓고 마 이래 마 거러지가(거지가) 뻬뿌끼네, 손님들이 안 오더라 카대. 그러이까네 마 가각이,

“그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마 손님 안 오게 해주지요.”

카면서러, 일꾼들로 데려가 저 바위 깨뿌라 하더라 카대. 딱 마리청에 딱 앉아서 바로 보면 자기 집을 보는 방구가 있는 거를, 산 우에 있는 방구 저걸 깨라카이, 깨고난께네 마 일시에 살림이 살살 가이 손이 아무 안 오더라. 그렇다고.

복을 주는데, 집 자가(지어서) 좋아가. 이 여자 입이 방정을 지갓고 살림을 싹- 내리가게로 해뻬는 기라. 마 손님 많으면 원래 그렇데 옛날에. 손님 많이 오고 사람 많이 오는 집에는 복을 주고, 물 끼(먹을 것이) 있고. 없는 집에는 물 끼 없었으니까 안 들어온다 카대. 그래 복을 지야 복이 온다 카는데, 그걸 그래 복을 털고 짚에서(싫어서) 가각을 보고 그래, 가각이 딱 첫말에 가르쳐주더라 카대. 그 방구 깨라고.

[금정구 설화 51]

남의 복으로 살았던 사람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우리 엄마는 또 옛날에 이야기 한 기, 맨날 이야기 한 기, 만날 사람이 이래 다 살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카네. [청중: 복이 있는 사람이 있지. 있으이 잘 살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놈이 지 혼자 사는데 나무로 두 짐을 해갖고, 한 짐을 팔아갖고는 쌀 한 동이 밖에 못 팔아먹는데, 두 짐을 해가 팔라 카면 그 날 밤에 마 나무 한 짐이 자고 일 나면 없다 카네.

나무를 두 짐을 해가, 내일 두 짐을 팔아갖고, 두 동을 해가 팔아가 칼치나 한 마리 사가 괴기(고기) 찌지 몰라꼬, 이래 나무를 두 동만 해놓면 자고나면 나무가 없고, 또 한 동 팔면 쌀 밖에 문 팔아묵고 이래서러, 나무똥 새이(사이) 한 날 밤에 언(어느) 놈이 가갖는가 본다고, 딱 몽카가(묵어) 앉아서 나무캉 같이 새이(사이에) 앉아서 밤샘을 했다 카네. 하긴 거짓말이겠지 그지? 이야기가. 하늘에서 줄이 주루루 밤중되니 내려오더라 카대. 마 딸리가(달려서) 올라 갔는 기라. 자기가 딸리가 떡 올라가니, 나무등에 사람이 딸리가 올라온께네, 그래 하늘에서러, 예수 믿는 사람걸으면 천국이겠지. [웃음] 그서 그래 묻더라 카네. 그래,

“웬 사람이 이래 따라 올라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내가 사실 나무를 해갖고 이래, 한 동 팔아가 쌀로 팔아가 한때 묵고 사는데, 고기 한 마리 사 몰라꼬 두 동만 해놓으면 나무가 없어진다.”

고, 이게 카이케네,

“그래.”

이캄서러, 그 사람이 탁 책장을 띄 내가 보여주더라 카네.

“어떤 사람은 누 복을 사고, 어떤 사람은 어데 복이 들어서 살고, 어데 복이 들어서 사는데, 당신은 나무 한 짐 팔아가 묵고 살 복이 안 된다.”

이래 카더란다

“그럼 나 어짤까요?”

이래 카이께네.

“고기도 한 마리 사무야 되야 되는데?”

그래 카이께네.

“그러면 녀의 복으로 한 십오 년 묵고살구려 해줄테니까 내려가라.”

카더라대. 그래 인제 그 말을 듣고 줄로 내려줘서 줄로 타고 내려왔는데, 한 날은 마 어떤 여자가 마마 사색이 되가갖고 마 배가 부른 여자가,

“아이고 아저씨요, 헛간도 좋습니더 마 어디서라도 내가 이거 배가 아파서 이러이, 애기를 틀어갖고 놓는 도중인데 낳아줄라.”

카더란다.

“해지는 막 헛간에 갈 필요 없고, 우리 방에 와서 낳으라.”

카이, 놓으이께 머스마라 카대. 그 아를 놓고나이께 마 나무도 두 동, 세 동 해도 아무도 가가는 것도 없고, 밥 물 끼 있고, 고기도 사물(사먹을) 수 있고 마, 떡도 사물 수 있고 마 부자가 돼갖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야가 저저 아버지도 아니고, 열 댓 살 무이께(먹으니) 시건이(철이) 나노이께네.

“하이고 엄마, 우리가 아저씨캉 이래 한 집에 내 살아가.”

아저씨라고 부르이께네.

“살아가 되겠나? 우리는 나가자.”

카더라 카대.

열다섯 살 문 기, 알라가, 머쓰마가 인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지도 장성하고 하이께네. 그래 그래서 그 아들로 뎁고(데리고) 마 나가뿌고는, 이 영감쟁이는 마 나무 한 짐백에 팔아 묵는 복이 없어. 그 아들 복에 살았다 하더라.

님의 복으로도 살아라꼬, 그래 땡겨주갓고 아로 그 집에서 낳아가 십오 년은 잘 묵고 살았는데, 그 아가 나가뿌이께네 마 나무 한 짐백에 몬 팔고, 두 동도 몬 팔고. 그래 그거 먹고 살다가 죽었단다.

[금정구 설화 52]

허가 짧아 우습게 된 말(1)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동민 여러분이라 칼(할) 거를.

“좏민 여러분, 오늘 보지 매상되는 날인데 추진(습기가 찬) 보지 [웃음] 추진 보리로 갖다가, 보지는 현 조디, 어 새 새 조디에 열으라 카나?” [웃음] 자리가 안 돼갖고 새 자지에 열고 마른 보지는 추진 자지에 열으라고 카고. [웃음]” 그래,

[조사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장이 썩가 짤라갓고 방송하는 기 좏민여러분, 나는 그래 못하겠다. 우리 회장 맨키로. 우섭아서. 나 우섭아 못 한다.

자리고 갖다가 자지에 열고. 새 보지는, 마른 보지는 [웃음] [조사자: 추진, 추진 이게(이곳에) 넣고.] 현 자지에 열고 새 보지에 열고, 그런께 자리를 갖다가 자지라 카고, 보리로 갖다가 보지라 카고 그래 말을 해.

[금정구 설화 53]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결혼 못하는 이유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김해 김씨 왕이 장개로 갈라 칸께네, 백년 인연이 없어가지고 그래 저 중국에 있는 저 허씨, 저 허수로왕, 왕 뭐고? 인자? [조사자: 허황후.] 그래 여자가 중국서 돌배를 타고 김해김씨 저 인자 김수로왕한테 결혼할라꼬 이래 오면서러, 배를 타고 왔는 게 어디로 왔노 하면? 김해, 우리 저저 거가도 있제? 거가도 앞에 용원이라 하는데 돌배를 타고 와갖고, 돌배 얹어난 거 지금도 있대이.

그래가 김해 김수로왕하고 결혼을 했거든. 허씨가 와갖고. 그래서 인자 아들로 서이를 낳는데, 허씨가 언강 똑똑한 중국서 온 사람이 똑똑한 기라 여자가. 그런께 돌배를 타고 여 자기 배우자를 찾아가 김수로왕한테 시집을 왔지.

아들 서이 중에 한 애는 허 가를 줄라 카더란다. 지 성을 따라 줄라 캬어. 그래서 김수로 왕이 어느 아들 하나로 허 가 성을 줬다 카네. 그러이까네 한 형제간이니까 그래 허씨하고 김해 김씨하고는 결혼을 못 한다 안 카나.

그러이까네 엄마가 한 엄만 그기라. 그러이께네 엄마가, 인제 엄마 성을. 엄마는 한 엄만데 성을 엄마 성을 한애이 따랐는 기라. 아들 서이 중에서 한애이가. 그래 허가하고는 결혼 못 한다꼬. 그래 이유가 돼가 있대.

[금정구 설화 54]

허가 째아 우습게 된 말(2)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저게, 해(허) 짜른(짧은) 사람이 뭐,

“쫓민 여러분, 오늘 저 보지 매상인데, 보리 매상이라는 소리 보지 매상인데. 마른 보지는 진 자리에 열고, 진 자리에 열고. 또 진 보지는 마른 자지에 열고. 그래 마캬 나오라.”

그러더라네. 보리 매상한다고 해 짜른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저기 뭐고? 그 전에 또 시숙하고 인제 그 저 사람하고 둘이 인제 꼬치 팔러 갔다 하제?
[조사자: 꼬치예?] 꼬치 팔러가이 [웃음] 아주버님, 저게, [웃음] [청중: 아주버님 꼬추는.]
“아주버님 꼬치는 참 기네요.”
카더란다. [일동 웃음] 꼬치를 팔러 가서 뭐라 그 하겠노? 그래,
[조사자: 그 꼬추가 그 꼬추가 아닌데 그지예?] 응.
“아주버님 꼬추는 참 기네요”
카대. 팔러간 꼬추가 기다는(길다는) 소리가,
“아주버님은 꼬추는 꽤 기네요”
쿠더란다.

[금정구 설화 55]

마누라 길 들인 남편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우리 엄마한테 만날 이런 이야기 잘 듣거든. 우리 엄마가 그라는데, 메느리가 마 시아바이
밥을 안주고 훑아갔고 마 영감쟁이가 마 꼬랑뎡이가 돼갔고 마 근근히 힘도 없어 눈도 바리
(바로) 몬 뜨고 이라거든. 그라이께네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이께네, ‘이거 이래갔고 안 되겠다.’
싫어갔고. 저 마니래를(마누라를) 보고,

“내가 아래 장에 가이께네 시아바이로 살로 찌와(찌워서)와서 팔러왔는데, 파는데 돈을 참
많이 받더라.”

이카더란다. 시아바씨.

“많이 받더라. 근데 우리도 아버지로 밥을 많이 미가(먹여) 살로 찌워가 팔로(팔러) 가자.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을 거 같다 ”

그래 마누래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해가, 아버지 밥을 안 주고 마, 애로 믹이고 해갔고 마
훑아가 비틀어져가 일도 못하고 하는데, 자양(장애) 팔러갈 욕심으로, 마니래가 아버지를 마
마 밥도 많이 주고, 마 반찬도 잘해주고 마 아버지가 마 살이 찌갔고 힘이 막 나고 이레이께네,
마 아버지가 마 힘이 좋아갔고 인자는 마 아도 봐주고, 나무도 마 갖다 놓으면 마 탁 패갔고
마 정지에 항거씩(많이) 들라주고 마 메느리 지가 참 수월커든. 보리방아도 찌주고, 알라도
봐주고, 물도 마 떠다주고, 나무도 마 이래 챙기다가 열어주고 한께네. 인자 아버지가 힘이
좀 많이 들고 살이 찌고 나서는 신랑이 하는 말이,

“우리 모리(모레) 장에 아버지 팔러가자.”

이래 카이까네,

“인자 아버지 팔러 가면 돈을 좀 많이 받겠다. 팔아가 돈 쓰구로.”

이카니께,

마 마누래가 몬 팔아라 카더라 카네.

“아, 아버지 팔지 마이소. 아버지, 아버지가 저 힘이 좋아갖고 알라도 봐주고, 나무도 해가 달라주고, 보리방아도 찌주고, 아부지 일로 마이(많이) 무거운 것도 잘 들어주는데.”

몬 팔라 카더라 카대.

그래가 마니래 질로 들어더란다. 마니래가 그래가 하도 아버지를 밥을 안 주가 아부지가 일도 못 하고 힘이 없어 몬 했는데, 살로 찌워노니 아도 잘 봐주제, 보리방아 잘 찌주제, 나무 다 들라주제 몬 팔아라 카더란다. 신랑이 그래 머리를 틀어갖고 그래 남자로, 각시 질을(버릇을) 디리가지고 잘 사더래요.

[금정구 설화 56]

은혜 깊은 호랑이

주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이런 말도 있더라.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안 잡아뵈나 그제? 호석갈(호식할) 때 그때. 그래 어떤 사람이 밤질로 이래 오이까네 호랑이가 막 눈물로 포독포독 흘리면서러 앞아가 있더라 카네. 그래서러 무섭아서 움쭉하이 서가 있으니까네.

입을 딱 벌키가(벌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옛날에 비녀로 찢렸던 모양 이라 이렇게. 비녀로 그 사람을 잡아먹는데 비녀가 목에 이리 딱- 걸리갖고, 막 받치갖고 안 되는 기, 그거를 모르고 지가 죽게가 됐는 기라. 호랑이 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짐승아, 니가 여짜다가 이것까지 샘키다가(삼키다가) 이래 걸렸노?”

카면서, 그래 손을 여가(넣어) 그걸 빼줬다 카네. 가래 샘킨 거(가로로 삼킨 거) 빼주이께,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고 말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카고 비녀 그 빼주고 호랑이는 살려준 택이지. 그래 집에 오가 있으이께, 그 이튿날에 오이까네, 마마 뭐로 갖다뵈다 카더노? 뭐로 마마 짐승을 잡아가 갖다놓고 마마 그래 이 사람한테 은혜를 하더라 카네. 지 살려줬다꼬. [청중: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다.]

[금정구 설화 57]

나무꾼과 선녀

엄소연(여, 1928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나무꾼이 옷을 훔쳐버리, 너무나 그 선녀가 예뻐나니 옷을 훔쳐가지고, 선녀가 문 올라 가갖고 나무꾼하고 살았지. 살아가 애기 둘 놓고 서이 놓으면 안 가겠지, 안 가겠다고 옷을 주니까, 서이 낳아도 한쪽 손에 한 팔씩 안고, 하늘나라에서 두루박 내려줄라 캐서, 그 두루박 타고 올라가뿌리더란다.

[금정구 설화 5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춘자(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아들이 지고 가고갖고, 인자 아버지를 버리니까, 손자가 지계를 아부지가,
“말라꼬 가져 가게.”
카이까네,
“아부지도 할아버지를 저다 버렸은께, 나도 아부지를 저다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계를 도로 지고 와가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답니다.

[금정구 설화 5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춘자(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그 종 그거는 뭐꼬. 에밀레종인데. 동냥을 하러가니까 그 나도 모르겠네. 동냥을 하러 가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 것도 줄 것이 없고, 요 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로 스님이 받아갈 수 없잖아. 그래갖고 온 데를, 인제 다른 데 동냥을 다 해가지
고 종을 에밀레종을 만드니까, 종에서 소리가 안나. 안나가지고 저,

“왜 이렇노? 종을 이마이 정성을 들여가 만들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느냐?”

하면서, 그래갖고 또 인자 하니까, 그래 스님이,

“내가 어제 시주를 가니까, 그래 그렇게 하더라. 우리 집 아무것도 줄 거, 애기 밖에 줄게
없다고.”

그래서러 그래 인자 그 스님이 그 집에 갔어. 그래하이께네 애기를 주더란다. 그 엄마가.
그 종을 할 때 애기를 영으니까, 그래 종이 만들어가, 만들어가지고 종을 치니까, 그래 종소
리가 나더란다. 그래 에밀레 엄마가 줘서,

“에밀레~.”

카는 종소리가 난다꼬.

[금정구 설화 60]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춘자(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시어마씨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방에 계시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효녀 메느리. 그때는
없는 시절이 되갓고, 그래 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지령이가 이래 막 마당에 떨어졌는 기라.
그래 그 며느리가 마 그 지령이를 잡아다가 주워가지고, 삶아갓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 가,
그 사람이 정신이 착한 사람이제, 나빠서 시어머니를 나쁘게 하는 게 아이고, 이거라도 먹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줬디만, 그 지령이를 삶아 먹고 그 시어머니가 눈을 뜨더랍니다.

[금정구 설화 61]

죽어서 뱀이 된 시어머니

이춘자(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시어머님이 너무, 없어서 그랬겠지. 메늘로(며느리를) 미버서(미워써)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절 없으니까, 이래 살을(쌀을) 내(항상) 떠 내주고, 떠 내주고 그러더라 카대. 새댁 말마 떠나, 선생님 말마 떠나 그래 내주갓고(내어줘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뱀이 되가지고, 내나 살바가지(쌀바가지) 안에 딱 있더라네. 그걸 주와 떼지뿌리니까, 뱀이 죽으니까네, 며느리 안 좋다 카던강 그런 말이 들리대. 그래 시어머니가 어데 미버가(비워써) 그랬겠나? 없어서 그랬겠지. 그 시절에.

[금정구 설화 62]

죽기 싫은 사람

이춘자(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이야기하시는 게, 항상 우리잘에.
“삼천갑자가 삼천년을 살아도 우물을 디다 볼 때 죽을까봐, 그래 허리에 밧줄로 매갓고 그래 우물을 디다본다.”
이 소리는 하시더라. 삼천년을 살았는데도 더 살고 싶어서.

[금정구 설화 63]

오입 잘하는 남자의 한탄

안종내(여, 1946년 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동 동대경로당]

옛날에 남자가 너무 오입을 잘해가지고. 그래 인자 마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러다 변소 가서 가만 있으니까네,
“아이고!”
이 이놈의 좇을 하나 탁 때리고, 양쪽 보디 탁 때리고.
“아이고! 내가 니 말 듣다가 내 신세가 이래 됐다.” [웃음]

[김정구 설화 6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춘남(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아니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그래 저 아버지가 안자 엄마를 지게에 지고, 할머니를 지고 올라가는데, 손녀가, 손주가 따라오더라.

그래 산에다가 갖다 버리고 나니까, 할매를 버리고, 거기다 내리놓고, 내리오는데, 지게를 거게다 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하는 말이,

“아버지, 지게를 지고 가야지. 왜, 왜 놔놓고 가요?”

“그럼 거기만 놔놓고 내버리고 가자.”

이래 카니,

“내가 아버지 또 갖다 여기다 이래 버리고 갈라면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왜 여기 놔놓고 가요.”

이래더라는 거야.

그걸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래 하더람서, 내가 ‘세상에 지가 그런 불효자를 하는데, 우째 자식이 그래 뽀을(본을) 안 보겠노.’ 내가 이렇하고 대꾸를 했다가.

그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조사자: 그래가 인자 고려장이 없어지고?] 예. 예. 그래서 그 길로 고려장이 없어지구, 인저 마을에다 막을 지어가지고 이래 부모를 모셔놓고 밥도 드리고 이랬다 카대. 옛날엔 다 갖다 버렸는데. 그 길로 그랬다 이라대. 그 애 때문에. 손주 때때 그런 적이 났다 하문서 전설에 나왔다 이라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어른이.

[김정구 설화 65]

귀신에게 홀린 사람

김춘남(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청중: 요 영감 이야기 들어보소.] 우리 영감이 저 웃동네 밤에 턱 나도 모르는데, 내가 웃

동네 일을 다녔어요. 그전에 너무 집에 일 주방, 일을 다녔는데, 마 이놈을 내가 거길 밤낮 가니까네, 이 양반이 또 내가 거기서 안 왔는가 싶어서 자기 뜰에 갔어. 가가지고 호자네 가게에서 사탕에, 까자에(과자에) 잔뜩 사갖고 왔는데 안 오는 거야. 이 양반이 밤새도록. 아침에도, 새벽(새벽), 새벽녘에 들어오더라고 하여튼.

그러더니 마 그 애장터¹⁾에 있지. 여기 왜 이런 데는 애장터라 해놓잖아. 아니 애장터가 아니고, [청중: 상엿집.²⁾] 상엿집. 상엿집을 해놨는데, 저 매똥(똥등)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를 흘려, 귀신한테 흘려 끌려 들어갔는가베. 아침에 자고 왔는데 반쪽이 먼지 꾸디기 예요. 여기.

“당신, 어디 갔다 인제 들어와요?”

이러니까,

“나 저, 저기 저게, 거 저기 상엿집에서 자고 왔어.”

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고 왔느냐?”

고 하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거 끌려 들어간 거예요. 도깨비한테, 귀신한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전에 많더라 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이 무섭다는 게 그때부터 내가 밤에 마실을 못 갔다니까. [조사자: 아, 무섭어가지고.] 야. 귀신 있다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금정구 설화 66]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복연(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옛날에 애기가, 저얌계³⁾ 살다가 보니까, 애기가 우니까 줄 건 없고 아무리 달개도 애기가 안 달개지고 해서러,

“애기야 꽃감을 줄까?”

밖에서 호랑이가 가만 듣고 있다가, ‘하, 이거 꽃감이 얼마나 무섭긴데, 애기가 꽃감 줄까

1) 아이의 무덤 터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2) 상여와 그에 딸린 여러 도구를 넣어 두는 초막. 흔히 마을 옆이나 산 밑에 짓는다.

3) ‘가난하게’의 뜻으로 말한 듯함.

카이꺼네 그래 얘기가 안 울고 이러노.’ 그러는 거야. 가마이(가만히) 이거 호랑이가 밖에서 생각을 하이, 확 무서워서러, ‘내보다 더 무서운 기 있는가배. 내보다 더 무섭는 기 있는갑다.’

그 꽃감이, 꽃감 이야기를 갖다 그래 하이.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말을 바꾸어] 아, 호랑이가 밖에서 듣다가, ‘아! 내보다 더 무섭는 기 있는갑다.’ 이래가 내가 도망을 마 가뿌더 띠꼬 이런 말이 있고.

[금정구 설화 6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암자

전덕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조사자: 여 미륵암에 뭐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다 카는데.] [청중1: 가문 쌀이 하나씩 떨어진대요. 잘, 저저 정성을 마이 들이고 가만.] [청중2: 미륵바위가 아이고 그거는 정상 아가.] [청중1: 아?] 아이다 이래 한다. 이래 합니다. 옛날에 이 공 들이러 가모예, 이고 가잡아예. 그라몬 스님이 무울(먹을) 꺼 없잔아예. 고래 하몬 쌀이 똑똑 떨어지몬, 매일 떨어지는 기 스님 한 분밖에 몬 자시예.

그런끼네, 그 스님이 욕심이 많아가 구영을(구멍을) 뚫버가지고 많이 나오라꼬 그러이, 지금 물만 똑똑 떨어지거든예. 그런 전설이 있어예. 그래 됐어요.

[조사자: 그 옛날에 암좌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물 똑똑 떨어져예. 예 지금도 물이 똑똑 떨어져예. 예, 그리 됐어요.

[금정구 설화 68]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전덕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우리 이모부도 팔순 적에 그럴 때는, 이장이라 했거든예. 승만이 저거 아버지가. 운동회로 그거로 불러서러 갔답니다. 가인께네 그서러 친구들을 만나서 술좌석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술로 마이 묵고 안자 여 남산동을 요 올라오거든. 산길 아입니까. 올라오이께네 앞에서 어떤 녀미 팔대장 같더란다. 그래 만나가(만나서) 이래 보이까 비도(보이도) 안 하고 마 자기 앞에 서더라 카네. 그래서 ‘이 새끼.’ 카고 마 씨름을 하고 이라는데, 어더로 자꾸 까시발을 끌고 가더라대에, 도깨비는. 그래가 참말로 그 이튿날 찾으러 갔어예. 그런 일이 있더라꼬예. [조사자: 도깨비한테 흘렀구나.] 예.

[금정구 설화 69]

여우로 변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전덕순(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옛날에 딸을 못 낳아서리에. 그래 참 선생님 말따나 공을 드려가 낳았는데, 우리는 구미 호라 켜어요. 야시라 안 카고. 근데 애기 때는 아이고 처녀쫓 되이까네, 말을 많이 먹었는데 말이 자꾸 한 바리씩 없더라 카데예. 그래가 인자 하인들 안 있습니까? 하인들로 인자 경비로 썼어요. 가이까네 난데없이 하나 오더니만 말을 한 바리 툇 잡아 먹고 가고 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들 정승의 뵈이라 안 갑니까. 그런께네,

“그래 하더라.”

카니까, 절대 안 믿는 기라.

“딸이 그래 하더라.”

카이께네. 엄마, 아버지가 안 믿어예. 그래가 난중에는 마 다 잡아먹히고 엄마, 아버지 다 잡아먹히고, 그래 인자 선생님 말따나 그래 어데 과게 보고 오다가 참,

“말 한 떼(‘떼거리’를 줄여서 한 말), 오빠 한 떼.”

그래. 파란 뱅캉(병하고) 그래 주더라.

그래가지고 그 전설이 나오긴 나왔어예. 들었어예 제가.

[금정구 설화 70]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최해수(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나는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조모님이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저 아가씨 때 나물로 캐러 가이, 그래 호랭이 새끼가 세 마리가 이래 있는 거로 마 좋다고 마 안고 땡기다가, 이래 보니까, 우짜다 보니까 거 있더랍니다. 우에, 돌빱(바위) 우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놀래가 놔놓고 나물바구니도 전부 다 집어던지고 왔는데, 밤에 나물 바구니가 고대로 다 있더랍니다. 집집마다 자기 바구니대로. 그래 그 이야기로 나 들었어요.

[금정구 설화 7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해수(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그것도 한 분 내 책에 봤어요.

옛날에 시집을 갔는데, 앞 못 보는 시어른,⁴⁾ 신랑은 인자 또 군에 조요예(징용예) 끌려가 뺏고, 또 어린애 둘이 데리고 살라 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어른은 인자 맨날 천날 무을(먹을) 거 배를 몬 채아주니까, 맨날 지는 지렁이를 잡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래 시어른을 주니까, 그기 참 맛있어가지고 그래 하나 묵고 돛자리 밑에 너널고, 또 하나, 한 분 묵고 돛자리 밑에 여널고, 이랜 게 그래 인자 한 삼년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인자 아들 올 무렵이라 그 때가 인자. 이러니까 그 할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니까,

“하휴, 울 엄마를 얼마나 저 좋은 걸 먹었으면 눈을 떴느냐?”

고.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돛자리를 걷으며,

”이거 묵고 내 눈 떴다.”

이라대. 알고 보이 전부 다 지렁이야. [웃음] [조사자: 그래 그걸 묵고 몸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예. 그렇다는 책에 봤어요 그거를.

4) ‘시어머니를’이라고 해야 할 말을 시어른이라고 잘못 말함.

[금정구 설화 72]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최해수(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조사자: 우스개 이야기라 옛날에.]

그래 인자 단칸방에 전부 다 살다보니, 참 인자 뒤편 마누라한테도 못 가고, 부엌에 가니 부엌에 따라 들어오고, 방에 가이 방에 따라 들어오고 이래싸이, 마누라한테 인자 의논을 했어.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나 하문 큰놈이 들어뵈어. 큰놈이 인자 그거를 들어뵈어. [조사자: 둘이 의논하는 걸 들었네.] 예. 그러니까 인자 아버지가 인자 ‘꾸꾸’하고 따라 올라가이, 인자 마누라가 ‘꾸꾸’하고 가이, 뒤에서는 그래 ‘삐약삐약’하고 따라가더랍니다. [웃음]

그래 진짜 참 전설이고 참 좋지요 그거.

[금정구 설화 73]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최해수(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인자 그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를 아무도 못 넘어요. 호랑이가 있기 때때(때문에). 이러는데 이거는 인자 여자가 인자 제사장 거리를 봐가지고 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자 이거를 갖다 끄네끼를(끈을) 가지고 매고, 인자 그때 인자 여자 몸에 멘스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바지를 벗어뵈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온 데 발랐어, 그거를.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기어갔거든 인자. 뒷걸음질 해가 기어가니까, 암만 봐도 저기 인자 ‘내카만 더 한 거를 자아묵고 저런갑다.’ 싶어 피해뵈어. [조사자: 호랑이가?] 예.

피했는데 뒤에 인자 남자가 딱 ‘여자도 건너갔는데 나도 건너가야 되겠다.’ 싫어가 진짜 인자 또 옷을 벗고 그래 인자 기어갔어. 기어가니까 이 호랑이가, ‘저 놈은 어데 가서 틀림없이 싸우다가 못 이기서 썩개(혀가) 빠졌다.’ 카더래요. [조사자 웃음] 그래가 자아묵혔대요, 뒤에 남자가.

[금정구 설화 74]

비가 오는 줄 아는 아가씨

표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남편이 선비고 뒤에 할마이는, 이 여자는 저저 내 일하러 나가야 돼. 일하러 나가야, [말을 바꾸어] 아 그게 아이다. 아가씨 적에 만날 일하러 나가자 옷을 몬 빨아입고, 비만 오면 젖이, 뒷집 아가씨는 비가 언제 비가 오는지 아는공, 비 오면 저 나락 넘어난(늘어놓은) 거로 척척 건너가 달로터라(들여 넣더라). 그래가 쪼개 있으이 비가 줄 오더라. 그거를 한 두 번 본 기 아이라.

그래서 저게 참 그 아가씨가 용타꼬 메느리로(며느리로) 삼았어. 메늘 삼아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 옷을 자주 빨아 입으께, 그거를 모르거든. 아랫도리 젖는 걸 모르거든. 옷을 오래 입으이께, 축축해가지고 마 지름 끼가지고(끼어서) 뭐 축축해 녹으니까 그래 됐는데. 저 시집 가자 옷을 자주 빨아 입, 안 빨아 입어⁵⁾ 그거를 모르거든.

하루는 우끼 널째, 우끼(우기)라 캐. 나락을 넘어났는데, 비가 아가(와서) 다 젖어가도 안 달로터라 캐. 메늘 보고,

“와 야야 비가 와가지고 저 나락을 다 적쌌노(젖게 했느냐).”

카이,

“내가 바지를 자주 빨아 입으니까 그게 없어서 문하, 저저 몰라서 문 걸었다.”

카더라요. [조사자: 아하, 처녀 때는 인자 마 어째 옷을 잘 안 갈아입고 마.] 옷을 안 갈아 입으이께, 지름이 찌이께, 축축, 축축하이 비가 올라 카몬 처지거든. 그래 시집을 가자(가서) 자주 빨아입으이 그걸 몰라.

[금정구 설화 75]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표순덕(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5) ‘빨아 입어’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함.

장전동 삼일육군병원 옆에 묘가 두, 산 고 있었는데, 우리 먼 척간 오빠가 술을 잔뜩 먹고 마 빼딱 빼딱 하고 가이, 옛날에 나락을 비 낚어. 비 깔아 낚어. 그래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오더만 볼때기를 탁 때리더란다. 눈알이 빠지도록 때리더라 캐. 그래서 ‘이놈의 씨발새끼 내가 니한테 지겠나?’ 싫어서, 밤새도록 안고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이튿날 와보이께 나락이 엉망진창이 돼가 있더라. [청중: 나락가 엉망이.] [청중: 나락강 싸웠나?] 나락가 싸웠어. 그게 또깨비, 그 또깨비라예. [조사자: 도깨비가 사람들, 인자 술은 취했고.] 야. 술은 취했고.

또 여게 저 동문에 고계, 동문 올라가는데 고계 논이 하나 있었거든. 집 하나 있지요? 이모가 누가 장사 하잖아요. 고가 논이라 카대. 논이, 자아(장애) 갔다 오는데 아저씨가 자꾸 부르더란다. 불러서 데꼬(데리고) 갔는데, 데꼬 가디만 마 똥굴에다가(우물에다가) 딱 처박아 뺐어. 밤새도록 고함 질러. 동네가 그게 건데 알 수가 있나. [청중: 쌀장시 하는 거게?] 어, 그래 고 거 우물이 있었거든. 밤새도록 그거 하이, 밤새도록 술은 약간 취했고, 밤새도록 소리 질러. 그래 밤에, 그래가 어째 누가 듣고 가가지고 얼마나 한 달을 넘어 고생했을 거야. [조사자: 도깨비한테 홀리가지고?] 실제라. 거 이거는 실제라.

[금정구 설화 76]

일본사람이 바위 깨고 아카시아 심어서 망한 마을

김대봉(남, 1934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서검뚝경로당]

[조사자: 일제시대?] 일제시대요. [조사자: 어디, 어디 장소는 어디고?] 우리, 우리 외국어대학 바로 옆에. 바로 고 옆에 있는데. [조사자: 그 지명이 뭐고? 그 지명?] 똑다리바운데(똑다리바위인데). 박자⁶⁾ 멧등 우에. [조사자: 똑다리바우?] 예. 똑다리바우. 돌로가 요 저저 다리를 만들어 낚께, 똑따리바우라고 카는데, 우리가.

[조사자: 거기 어데 일본놈들이 어떻게 했는데?] 일본놈들이 고서 그 바로 옆에 돌이 있는데, 돌이 참 좋아요. 그거를 깨고 나니까, 그건 안 봤는데, 누가 깨니까, 다 깨고 나가 짐(김)이 나, 짐이. 거기 그만큼 좋은 기라 한까네 짤라뿐 기라 일본놈이.

그래 옆에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아카시아 열매나 숨았든지(심었던지), 우리나라 절단났다 아이요. 그 잘 자라나고 잘 크고 또, 아카시아나무. 우리 마을에, 우리 참 동네 아이라. 일본 사람 와가지고 우리나라 절단났심더 그때. 왜냐면 아카시아 왜 심냐면 검마들(그사람들) 비행기

6) 박자(朴字). 즉, 박씨.

전쟁할 적에 기름 안 나는교 그쵸? 그거 찢라꼬 그래 심았는 기라.

그래 우리가 그래 한국 나라 절단났지요. [조사자: 돌이 깨지는 바람에 안자 그 마을이 안 되고?] 야야. 돌 참 야물고 좋았는데. 하여튼 요 참 좋았는데, 보기도 좋고. [조사자: 요 신암에 뒤에 있었는교?] 예, 있었어요. 그 아마 진모도 알긴데 그자. [조사자: 그게 일본 사람이 깨뵈네?] 예, 어데 한국 사람이요, [말을 바꾸어] 아 아니, 일본 사람 때미, 일본 사람 깨뵈어. 그걸 찢라뿐 기라. 혈을 찢라뿐 기라. 지금 말이지 사람이 피가 나지만 피 못 나올라 찢라뿐 기라. 그런 거 가지라. 그라고 그 밑에 박자 멧등, 박장군도 살고 이랬는데, 그거 다 없어졌 심더. 묘가 없어지뿌고 그렇지.

[금정구 설화 77]

서검뚝과 신암마을의 유래

박원근(남,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서검뚝경로당]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옛날에 인자 그 우리 조상들이 한 멧 사람이 여기 내려왔는 거라. 내려와가지고 그양(그냥) 농사짓고 인자 이렇게 그양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무식이었거든. 일자무식이니카네, 여계서 그 자식들을 놓고 이라이카네, 평생에 그 한이, 한이, 우리 자식들이 좀 이래 난중에(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서’자가 글 ‘서(書)’자거든. [조사자: 글, 서당할 때.] ‘글 서(書)’ 같으면 보통 그 선비. 선비 종류도 좀 이래 활동하고, ‘검’자는 인자 ‘칼 검(劍)’ 이래가지고, 이기 인자 말하자면 무사적인 것. 그러니까 ‘문무(文武)’. ‘문무적인 이런 면에 좀 우리 자식들이 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염원으로, 그래가 마 글도 모르고 하이카네, 서검, 서검 이래가. ‘뚝’은, 우리가 ‘뚝’으로 해놔는데, 그거는 뭐 정달이 있고, 보통 와 어데 등폴(덤불)이라든가 이런 장소 그거를 ‘뚝’이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서검뚝’으로 인자 그렇게 쭈욱 내려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동안의 그래가지고 쭈욱 보면은 여계서 참 아인기(아닌 게) 아이라 충북대학교, 거 서울대학 나아가지고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도 나왔다고. 여계 양만표가, 양만표가 인자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근데 무사는 인자 이기 참 없는 거라, 무사가. 그거 뭐 대학교 학장 카모 제법 안자, 그것 외에도 있지마는도. 그 뭐 무사는 뚜렷하게 인자 보통 뭐 군대 그 장교 출신만 있지, 영관이라든가 별자리는 인자 우리 여서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인자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벽에 걸린 활을 가리키며] 저기 인자 ‘환궁’인데, 환궁인데 환궁, 요게 인자 그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이 팔로가 이래 이래 떠지는

기라. 저기 인자 우리 회가, 내가 인자 노인들 2010년에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개인전 내가 1등을 했거든. [조사자: 와이구.]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러 [조사자: 우리 어르신이 ‘검’자네.] ‘문’은 마 거게고, ‘무’는 내인 것 같다 카매 웃으며 그렇게, 인자 그렇게는 해났어요. [청중: 총 사격도 잘하신다.] 그래서 여 나도 저 뒤에 나도 경력해가 보몬, 여계 내가 전국 1등 했다 니까, 그거는 에피소드고.

안자 요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자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인자 남산 남중 저 서건덤으로 이래 있다가, 예- 일제시대가 들어왔거든. 일제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이놈을 그 통할을 하다 보니까네, 가만 보이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래 문무적인 거, ‘서검’이라 카니까, 이념우 새키들 말이야 속에 이런 기 있어가지고 지거인테(자기들에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념을 마을 이름을 고치뵈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암’이라 했거든. ‘신암’이 뭐냐면, 이 지역에 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닥에 박힌 돌이. 그래서 ‘새 신(新)’자에 ‘바위 암(岩)’자로 해가 ‘신암(新岩)’으로. 그래가 일제시대 그때부터 이 ‘신암’으로 왔다꼬.

그래 오다가 여기 인자 도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산동’ 해가지고, 이리 통할을 해가. 지금은 여계 통으로 돼가 있죠? 그 뭐 이십(20)통도 되고, 십칠(17)통도 되고 인자 통으로 돼가지고, 지금 인자 그래 되어가지고, 서검뚝, 서검뚝 카면은 보통 문습니다. ‘그 무슨 뚝을 뜨는 데냐?’ 이런데, 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이 붙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여계도 ‘서검뚝경로당’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들하고, 그 다음에 ‘신암경로당’ 해가지고 밑에 해가지고 할머니로, 그거는 나났습니다.

[금정구 설화 78]

도깨비가 되어 벌 주는 사람과 도깨비에 홀린 사람

박원근(남,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서검뚝경로당]

옛날에 여계 우리 마을에도 보몬, 그 개를 사냥개를 키아가지고 거 인자 돼지를 잡으러 가는 거기 있어요. 돼지나 오소리나 짐승을 잡으러 가는데, 저녁에 인자 개하고 창하고 가지고 가가지고, 거 인자 밤에 씨름을 해가지고 인자 그거를 잡아가 오는 그런 기가 있어요.

근데 인자 잡는 사람은 그런 벨(벌) 거기(것이) 아인데, 보는 사람이 ‘하 이거 짐승을 저래 잡으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인자 하고 이렇는데, 돼지를 잡으면 피가, 돼지는 보몬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인자 이것이 형상화가 돼가지고, 아까 [김대봉 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또깨비가 같은 것들이 그거를 나와가지고 괴롭혔다.’ 안자 말하자면은 거 잡은 사람을 괴롭

했다 인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보면은 여계 뭐 목을 것도 없고 하이까네, 남의 집에 초상이나 그런 데 있으론 가거든. 아침에 가가지고 그서 인자 술을 먹고 하는데, 그냥 보고 오몬 아이고 늦게까지 또 몇 차로 가가지고 술을 먹는 기라. 그래가 인자 술을 취해가지고 인자 집을 오는데, 집을 오자면은 그 때는 길이 전부 논길이어카네, 논이 이렇게 있단 말야. 오다가 또깨비에 흘리가지고, 또깨비에 흘리가지고 허적거리고 인자 물에 빠져, 인자 눈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인자 죽은 경우가 있는데, 또깨비에 흘렀다 이기, 또깨비한테 흘린 게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가지고 막 헤메이카네 또깨비 형상이 됐다. 거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는데, 도살장이 아이고 다른 데 보몬 끔찍하듯이, 그 당시에 그래 했거던. 잡을 때 어데 뭐 오소리 같은 거 잡으면은 굴에 잡아 열어가지고, 그놈 나오도록 불을 피아가지고, 연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잔인하잖아. 그때도 그런 기 돼가지고 그기 또깨비로 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그런 식이 인자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뭐 지금하고는 안 맞는데, 그 당시에 ‘그래 놓으면은 반드시 자기한테 화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인자 있었고.

[금정구 설화 79]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강대순(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아, 그런께 지삿날(제삿날) 저녁에 일찍 지사를 일찍 지내뿐께, 늦어서 못, 좀 밥을 못 얻어 묵고 도로 갈라근께(갈려고 하니까), 점방(작은 가게) 있어서 점방에서 우유 하나, 빵 하나 사 갖고 나갔는다.

뒷날 아직에(아침에) 본께 그 집 지삿집 대문 앞에가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하고 있더라 그런다고 하대.

[금정구 설화 80]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노재상(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옛날에 밤에 애기가 하도 울어서, 밤엔데 하도 울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그치게 할라
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달개지니까,

“아이고, 그럼 호랭이, 호랭이를, 호랭이 온다.”

하니까, 애기가 딱 끄치는(그치는) 거야. 끄치는 거야. [조사자: 호랑이 아이고 꽃감 준다고.]
어, 꽃감(꽃감) 예.

“꽃감을 참 준다.”

그러니까 애기가 딱 그치는 거여.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인제 해치러 올라다가, 하이고
애기가 우는데, 애기를 어떻게 해코지 하러 오는데, ‘아이고,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보다.’
하고서는 호랭이가 그냥 도망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할머니에게) 들었던 소리야.

[금정구 설화 8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노재상(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저게 가난하게 살으니까, 남편이 인제 돈을 벌러 갔어. 아내하고 인자 엄마하고 뉘겨(남겨)
놓고 갔는데,

“엄마 좀 잘 보신하라고.”

하고선 갔는데, 메느리가 그렇게 때마다 맛있는 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들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준다’ 싶어서 그걸 먹다 하나씩 자리 밑에다 넣어노는
거야. 자리 밑에다 노냈는데(놓아두었는데), 얼마 있다 남편이 왔는데, 엄마가 뿌연하께(보약
계) 살이 썩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를 참 저기했네. 엄마, 뭘 이렇게 잡수시고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고 하니까,

“그래 너희 댁이 너 가고 나서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해주더라. 그런데 하도 맛있어서 너 좀
보일라고 자리 밑에다 너냈다고.”

자리 밑에 떠들어 본께, 지렁이가 꼭 있는 거야. 말른 것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지령이.”

라고 하니까 마, 깜짝 놀래갔고 엄마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짤 일이냐”

카고 눈을 떠보니까, 진짜 지령이더라고요. 그런 거 할머니한테(할머니에게) 어렸을 때 들은 거라.

[금정구 설화 82]

우렁각시와 결혼한 총각

노재상(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옛날에는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갔어요. 총각인데. 근데 어디 일을 하고 갔다 오면 밥을 딱 차려 놓고 있는 거라. 부엌에. 사람은 집에 없는데, 여성스럽게 밥을 탁 차려 놓고. 그래 또 그걸 먹고서 인자 또,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갔다 오면 또 그라고, 매일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나?’ 하고선 인자 가만히 저 살펴보니까, 향아리 속에서 우렁이, [웃으며] 우렁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예쁜 각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 놓고 딱 들어가고 그라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아, 우렁각시가 인자 그랬나 보다.’ 하고선은, 몰라.

그라고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노총각을 면했다고.

[금정구 설화 83]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노재상(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질어서(길어서) 갈 때마다 그게 입으로 시치는(스치는) 거예요, 그게. 옷을 벗었으니까, 남자 꺼가 길으니까 [웃으며] 시치니까,

“아이, 아버지도 참 그냥 걸어서 가지.”

마 입에 시친다고 인자 애들이 그란께, 옆에 애가 또,
“아이, 나도 그런데.”

지들끼리. 인자 옛날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살았대요. 옛날이 아녀. 그게 그리고 보몬
옛날이, 조선시대가 아녀요. 얼마 전 옛날이다 이게. 얘기 많이 나오더라.

[금정구 설화 84]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민색인레(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비가 부실부실하고 이러이 오는데, 키가 팔대장서이같은(팔대장승같은) 녀이 턱 나타나,
“내하고 씨름 한 번 할래?”

그런께,

“당신 누구요?”

그런께,

“누구, 내가 아무개다.”

이라니까, 그래 밤새도록 메가지(목) 끈고(끌고) 끄꼬 막 땡기면서 마 이래저래 끄꼬 땡기면서,
그래가 마 기운을 다 빠져갓고 난중에는(나중에는) 그래가 어디 바우(바위) 틈인가 어디가 콧
처박아 놓더라대.

그래서 자기가 인자 어디 정신 차리가 날이, 날이 새니까 인자, 정신을 차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 손때 묻는 빗자리 몽대이가, 그래가 있다 어디 소나무에다 묶어놔더라 캐. 그 사람이.
어, 소나무에다 딱 묶어놓고 자기가 정신 차리가지고 오니까네, 그 다음 날 ‘뿔이 나를 그랬
는고?’ 싶어서 가보니까, 빗자리 몽대이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쓰는 빗자리 몽대이. 빗자리
몽대이하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땡기더라대. 그래 날이 샌께 그기 고마 없어졌불더
라대.

[금정구 설화 85]

떡을 뺏어먹는 호랑이

민색인레(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떡을 해가지고 이래 가는데, 호랭이가 나타나서,
“내 그 떡 하나 주문 안 잡아 묵지.”
이래. 또 하나 또 던지고, 쪼끔 한 발 쪼끔 더 가고난께,
“내 떡 하나 또 주문 안 잡아묵지.”
그라고, 자꾸 따라서 그 떡을 다 뺏들어 묵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아입니까. 예.

[금정구 설화 86]

저승 갔다 온 사람

민색인레(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저승 갔다 와가지고 삼일만에 그냥 곱이 부두둑 부두둑 이래 막 움직이더라 하대. 그래서 이래 곱이 턱 벌어지더라 하대. 그래서 보니까네 사램이 살아가지고, 깜짝 놀래서 모도 뭐 인자 그 초상 칠 끼라고 모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서 보니까네, 아버지가 살아,
“내 저승 갔다 왔다.”
이라면서러 일라더라(일어나더라) 카던대.

[금정구 설화 87]

병어리 삼년의 시집살이

민색인레(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제주도에 제가 쫘 자주 땡기는데, 그 기사가 하는 전설이 있는데. 왜 옛날 사람들은 그러 잼아요. 눈, 저 보는 것도 못 본 척, 듣는 것도 못 들은 척, 또 뭐 있는데 또. 보는 것도.

[조사자: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귀머거리 삼 년, 석 삼 년, 그런께,

“구 년을 말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는 것도 못 본 척. 이거 석 삼 년을, 그런케네(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인자 할 말 해라.”

이라니까는, 시집을 갔는데,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고, 보는 것도 보는 척 안 하고, 듣는 것도 들은 척 안 하고, 바보라 완전히. 아주 똑똑한 메느린데. 그래서 인자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하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저래가지고 우리는 덕고(데리고) 못 살겠소. 데부다(데려다) 주야 되겠다.”

고 이래가, 인자 가족회를 했어. 그래 데부다 준다, 신랑이.

“그람(그러면) 가자.”

하고 데부다 주는데, 한 중간쯤 가서 멀다 보니까 차도 없고 하니까네, 중간쯤 가다가 좀 쉬어가자 하고 딱 앉았는데, 꿩이 한 마리 포르르이 날라가거든? 아아, 꿩이 한 마리 포르르 날아간께,

“저 꿩일랑 잡아서 훨훨 날른 날꺄랑 시아부지를 주었으면, 오동통한 다리는 서방님이나 좃으면, 콧코 찡는 저 주맹이는 시누나 좃으면, 푹푹, 이게 뭐야, 푹푹 썩은 이 가슴뱅이는 내나 먹었으면.”

이라고 시를 한 편 탁 짓더라네.

“웁지. 니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시를 짓는데, 우째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듣는 것도 들은 체 안 하고 그렇게 살았냐?”

근께,

“제가 클 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석 삼 년이 지나가면 말을 할 라고 그랬습니다.”

하인께,

“아이고 똥다.”

그래가지고 다부 덕고(데리고) 저거 집에 가더랍니다. 신랑이.

[금정구 설화 88]

가난을 못 벗어날 팔자의 부인

박숙인(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 저저 선생님이 했는 거, 고 거 끝에 내가 해보게예. [조사자: 아니 앞에서 해야지.] 앞에는 들어싸도 할 줄은 몰라예.

말을 타고 인자 과게를(과거를) 해가 오는데, 그 마누래가 그 집에 안 살고 딴 데로, 딴 데로 시집을 갔는 기라예. 딴 데로 그 집에 인자, 저 신랑이 만날 공부만 하고 좀 떠내려가도 하이께네, ‘이 집구석 못 살겠다’ 하매 너머(남의) 집에 딱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 기라.

시집을 가가지고 거도 갈 때, 자기 또 맨 수수도 널어야 되고 맨 똑같은 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 신랑이 과게 해가, 공부하던 사람이 과게 해가 말을 타고 이래가 오는데, 마누래가 거도 똑같이 하고 있으이께네, 마누래가 인자 거서(거기서) 하는 말이,

“아이고 거 가나, 살려 가나 내한테 있으나, 내한테 있었으며는 좋을 낀데 시집가서도 그렇다.”

인제 카매, 그 얘기를 하대. 나 그렇게백에, 다 까묵었어. 얘기 고꺼지만(거기까지만) 알아. [조사자: 훔던 쟁피 다시 훔네 하고 뭐 그런.] 야. 나 고꺼지백에 몰라. 까묵었어.

[금정구 설화 89]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박순엽(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도깨비하고, 어디 밤에 갔다 오는데, 마 도깨비인지도 모르고 인자 썸을 한 거야. 실컷 썸을 하다가 그 사람을 인자 나무에다 묶어 뵈어요.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이겼다고 묶어 뵈는데, 그 이튿날 와보니까 빗지라기더래요(빗자루더래요). ‘아, 이게 도깨비였구나.’하는 것을 인자 알고.

옛날에는 그렇게 도깨비가 많았었어.

[금정구 설화 90]

저승 갔다 온 사람

박순엽(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이- 갈 때, 이야 애들 운동장 있잖아요. 교실, 교실. 그것을 두 개를 넘어가지고, 또 그 교실을 넘고, 또 뒤에 나가이까 또 교실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교실, 그 안에 가니까 짤이 짝- 나가지고 있대요.

근데 깨끗하기는 너무 깨끗하고, 그거 금붕어가, 맞아 이렇게 땡기면서 막 이렇게 놓고. [조사자: 아, 물이 있네.] 예. 근데 이 우리 민간들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똑- 같어요. 초가집도 지와집도(기와집도), 그런데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 한옥, 한옥, 길로 길로 이렇게 가지만 사람이라고는 없어예.

그래서 그냥 인자 도로 돌아서서 오는데, 그 길로, 그 길로 돌아 돌아 오니까, 마지막에 그 대처 넘, 그 교실 넘고 교실 넘고 무슨 강물이 있는 기라요. 그래 강물이 있는데, 강아지가 뒤에서 콧 문 기라. 여어 발 뒤꿈치를(뒤꿈치를). 그래 깜짝 놀래서 일어나이까 저승이랴요.⁷⁾

[조사자: 깨어났네 그러니까 그때.] 예. 그런데 [조사자: 아, 어째 한 분 대기 마이 아팠던교?] 음, 조금 아팠어요, 요새. 그런데 이렇게 하이, 일어나니까, 우리 영감이랑 아주 마 내 옷, 내 옷을 하얗게 다 입히났는 기라요. 야. 죽었다고 인자. 그런데 내가 튀나갈 때 깜짝 놀래서 팍 튀나가이까.

[금정구 설화 91]

수숫대가 빨간 이유

오윤신(여, 1948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그래,
“엄마가 왔다고 문 열어라고. 문 열어라.”
하던가배. 그래고 개들들이,
“살려주라고. 하느님 살려주라.”
한께, 뭐 동아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가배. 떨어지니까 가들들이(그 아이들이) 이래 타고 올라간께, 호랭이도 지도,
“동아줄을 내려주라.”
한께, 썩은 동아줄 내려주갓고, 타고 올라가다가 수시발에(수수발에) 똑 떨어져갓고, 그것이 수시발에 빨간 피같은 거 있지예? 꺾디. 그게 호랭이 피라 안 하던개.

7) ‘이승이랴요’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함.

[금정구 설화 9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종례(여, 1938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인자 그 손자하고, 참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저거 할아버지를 인자 그거 해가 고래장을 해가 지고 갔는 거야. 지고 가가 고래장을 해놓고 이래 내려오면서, 오는 걸음에 손자가 하는 말이, 지계를 인자 고래장을 하몬 지계를 안 가 오는 갑대요. 저다 버리는 거. 그거 지계를 인자 안 가지고 나 놓고 오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와 지계를 안 지고 가는대요?”

카이,

“야, 이놈아! 이 지계를 가지고 가, 뭐 쓸 거, 쓸 데 다 썼는데 왜 필요하노?”

카매,

“아 참. 다음에 준비도 해야지요. 아버지 돌아가시몬 우리가 또 아버지 칠십 되몬 또 우리가 저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계를 지고 갑시다.”

카매, 지가 지고 인자 내려오더라고.

그래서러 그 말이 그이 전설이 됐더라. 그래 칠십 살은 고래장을 그때는 했는데, 그 질부 터는 인자 고래장을 안 했답니다.

[금정구 설화 93]

부인만 구하고 여동생을 버린 오빠

조종례(여, 1938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옛날에 친정 올케하고 저거 오빠하고 지하고 세 사람이 저 어데 들에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니까, 갑자기 도랑물이 콧 마 우에서 비 오몬 막 마이 실려가 내려왔어. 한 도랑 내리오니까. 여기서 세 사람인데 누구라도 한 사람만 끼고 가야 건널 정도밖에 안 되는 기라. 그래 가만 저거 오빠가 실컨(실컷) 기다리다가 그 큰물을 저거 올케를, 딱 마누라니까 끼고 인자 또랑을 건넌갔는 기라. 건네가는데, 지도 저거 오빠 따라서 건너간다고 가다가 떠내려갔는 거야.

동생이 떠내려가. 떠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이룬데 올라타고 갔겠지.

“찰람 찰람 찰람 대야 올라 앉은 우리 오빠. 오빠는 죽어 개구리가 되고 나는 죽어 뱀이 돼서 오월 초닷셋 날 미나리깡에 만납시다.”

하매 그런 노래, 우리 전설을 어릴 적에 들었어. [조사자: 아이 그 모 심을 때 그런 노래 부르지요.] 아.

[금정구 설화 94]

여우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조종례(여, 1938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참 저저 부잣집에, 그집에가 인자 살았어. 부잣집으로 살았는데, 그 집에가 차츰차츰 인제 살림도 망하고 사람도 자꾸 없어졌어. 그래도 그걸 누가 그거 해서 없어지는 거를 몰랐는 기라.

몰라서, 결국은 그 집이 인자 아들이 하나가 남고, 가정이 인자 다 폐쇄가 다 돼뿌고, 사람도 없고, 집에도 집에도 인자 막, 예 썩밭이 되고 이룬데, 오빠가 와보니까 너무 집도 이상하고 이래서, 집을 살펴보니까, 그 썩대밭에서 저거 여동생이 하나가 살아가 있었어.

있는데,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니 혼자 있느냐? 우리 어매, 아버지는 다 우야고(어떻게 하고)?”

카이,

“모른다.”

카고 그거 하더라대. 그래 인자 그 어디 갔다가 오면서 뭐 과거를 해가 왔는가 말을 타고 왔대요, 오빠가. 그래 말을 타고,

“내가 니하고는 같이 생활을 몬 하겠다. 나는 어더로 가야 된다. 서울을 가야 된다.”

카고, 거 말을 타고 다부 돌아가, 말을 타고 가니까, 그 동생이 여시가 돼가,

“오빠 한 때 말 한 때, 두 끼, 두 끼 꺼리.”

인자 묵고 살기 생겼으이카이. 그 천리만리를 저 오빠하고 말하고, 저 시나(시내?) 가가지고 다 잡아묵었다 안 카던가배.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금정구 설화 95]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박상숙(여, 1928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3동 오륜경로당]

“방구를 몬 꺾기 그렇다.”

캐깃고,

“아, 그라면은 아부이가 저 저게 집 모티(모퉁이) 저 가서러 저 저게 이거 새까리(서까래) 잘에(결에) 흔드는데 거 잡고 있으소.”

이러 캐깃고, 그래가 지가 방구를 몬 끼기 그렇다 카이, 이쪽에 나아가(나와서) 방구를 타르르륵 꺾이카네 집이 절로(저쪽으로) 넘어가더라 카대. 벧집이(벧집으로 지은 집, 즉 초가집이) 넘어가서,

“어 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 카이꺼네,

“아부이 마 거 걸어서 이쪽으로 와서 또 서소.”

카다가, 또 서가 저짜(저쪽에) 가서 꺾이카네 이 집이 발라지더라 카는, 그거는 무슨 농담이 있대요.

[앞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자 다음 이야기를 구술함]
이바구라 그라대. [조사자: 며느리가 그 저 저 인자 얼굴이 노래져서.] 노란해져깃고,

“와 저래 노랑노? 아가 와 저래 노랑노?”

“방구로 몬 끼깃고 노랑다.”

이래 카이꺼네,

“그라면은 내가 니가 그 마음껏 니가 꺾라.”

이러 카가,

“아바이, 저짜 가서 집 저 저게 새까리(서까래) 잘에 잡고 서소.”

카더라. ‘이 고리 잡고 서가 있으몬 날로 우짤라고 이러노?’ 싶어서 그래가, 얼마나 들, 꺾이카네 마 집이 마 절로 자기 앞으로 널찌이카네(떨어지니까),

“여기 집 넘어온다 집 넘어온다.”

카몬,

“아, 팬찮아요. 이쪽에 와서 또 잡으소.”

카더라 카대. 또 잡고 있으이까 그 짝에 가서 또 꺾이카네 집이 발라지더라고. 그 그래깃고 그래 마 그 소리로 해쌌대.

[금정구 설화 96]

제삿날 찾아온 죽은 딸

박상숙(여, 1928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3동 오륜경로당]

옛날에 인자 제사라 카는 거는 통 없는 줄로 알고, 그때는 옛날에는 제사다 미신이다 이래 샀는데. 그 저거 딸이 어데 차에 오다가 그때 뭐 그 교통사고로 해갖고 딸이 처년데, 머리를 질끔질끔 묶아갖고 여까지 내려오도록 땅에갖고 그래 처년데, 그래 안자 그 어데 오다가, 오다가 차에 치이가지고 돌아갔어.

그래 죽어뿌고 이래 해봐노이카네, 그기 마 너무 저 부모도 안타깝고 그 딸로 잃어뿌고나 이카네 이렇는데. 그래 인자 일 년이 지나가서 제삿날이라 카대. 제삿날에, 제삿날인데 인자 그 뭐 제사고 그런 거는 뭐 시집도(시집도) 안 가고 해놓으이 제사고 뭐시고 안 할라 카고 이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삿날 저녁에, 저녁에 그래 봐보이카네, 그 인자 사람 인자 원래 제사로 지낼 라 카몬 대문을 열고 이래 문을 열어 놓는다 아이가? 열어놓는데 열어놓으카네, 그래 하이 그래 또 연해 지 그 죽었는 그거 처녀맨추로(처녀처럼) 그날 저녁에 머리로 질끔질끔 질끔 열매나 땀은 처녀가 있기에, 차를 타고 내려오디마는 그 딱 오디만은 저거 집에 들어오더라 카대. 그 저거 인자 엄마집에 들오더라 카대.

들와서러,

“아이고 어짜꼬? 니가 그래.”

이름을 부르면서,

“오나?”

이래 카민서러 그래 카이꺼네, 그래갖고 차는 거 서가 있고, 차비는 안 주고 있으이 차가 내 서가 있더라. 그기 귀신이더라 카네.

그래 그래갖고 이기 제사가 있다, 안자 그래가지고 이 제사가 그 저거 엄마가 와이고 지 날짜에 오는 거 보이카네, 저거 딸 죽었는 귀신이라 이래갖고 그래 문을 열어 놓고 있으이카네, 그래 그 제사 그 앓더라(왔더라) 카대. 아갖고(와서)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라꼬요. 그 소리는요.

[금정구 설화 97]

오시계마을의 유래

박도자(여, 1929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이기 뭐고 여계 목욕탕 있지예. 고 밑에 옛날에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여계. 오시계 동네. 오래 됐습니다.

어데 전설에 나오는 기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몇 회 임금이 옛날에, 몇 회 임금이 이 고을로 지내가다가 바가지로(바가지로) 우물로 퍼서, 여 저 겨울에는 짐이 무력무력 올라왔어예. 올라오고. 그 물이 차(차가워), 아주. 우리 이 동네 사람도 여다 묵고 빨래도 거 하고 이랬거던요.

그런 물이 있었는데, 몇 회 임금이 옛날에 지내가다가, 전설에 나와서 내가 들었지. 내가 와 걸나몬(그렇냐 하면) 내가 이 동네 내가 칠십 년짜(년째) 삽니다. 일본서 해방 되고 나와가지고 여 살거든. 그럴 적에 여 고을이 전부 다 전신(전부) 미나리깡이고, 장화 없이는 못 땡긴다 카는 동네가 그런 동네라, 옛날에. 그래 할 때 이 바가지 물로 여다 묵었는데, 몇 회 임금이 요 지내가다가 그 바가지로 물로 퍼사이까 물좀 달라 카더라 카네. 그래서 물로 디리니까네. 물맛이 좋다고,

“이 고을로 오행이라, 오행이라 불러라.”

캬는데, 그거이 질게 나와가지고 현재는 오시계가 돼뻬는 기라. 그이 전설에 나왔어요.

[금정구 설화 9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도자(여, 1929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지렁이를 해주니까 맛이 있는데 보이지는 안 하고 그 한 마리씩 자리 밑에다 열었다(넣었다). 그 할매가. 자식들 오몬 자랑할라꼬. 그래갖고 자식들이 와서 볼 적에,

“내가 그래 맛있는 거를 누가 해주더라.”

카면서러 보니까 아들이 보이까네,

“아이고! 어머니 지렁이다.”

카이, 그이 놀래갖고 눈을 뜨더란다. 그것도 나왔어 전설에.

그 아들이 볼 직에(적에), 인자 어머니는 신기해서 자리 밑에 한 마리씩 열은 기 지렁이가 말랐다 아입니까. 그래 자식이 와서,

“아이고! 어머니 지령이를 잡셨네(잡수셨네).”
카이 놀래서, 깜짝 놀랜 기 눈을 뜨더라 카대.

[금정구 설화 99]

친정에 온 딸을 시집으로 쫓아낸 어머니

박도자(여, 1929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인자 시집을 살다가 배가 고파 못살겠다고, 인자 친정으로 왔는 거라. 오니까네,
“니 그라몬 하루에 대변을 얼마나 보노?”
이러카이까네,
“두 번 세 번 본다.”
카더라 카네. 그러이까네,
“니가 배가 고프몬 대변을 한 분도 못 보는데, 두 번 세 번 보는 거는 니가 배가 고프몬 기
아이고 시집 살기 싫어 왔으니까 가라꼬.”
쫓가냈다(쫓아냈다) 카대.

[금정구 설화 100]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찬덕(여, 1937년 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얼굴이 노래가 그래,
“와?”
물으이, 야까 선생님 말씀대로,
“방구로 문 끼, 참 내가 그래 방구로 문 꺾서 글타(그렇다).”
카이,
“야야, 그 수분(쉬운) 기다 함(한 번) 꺾 봐라.”

카이,
“아버님은 저 가 잡으쇼. 여 가 잡으쇼.”
[웃으며] 카고, 방구를 꿰이카네 집이 넘어가니 시아바이가 홀 뛰더라대. [웃으며] 그래,
“야야 참아라. 야야 참아라.”
칸다 카대. 그런 얘기 대충 들었어요, 우리도.

[금정구 설화 101]

잘못 배운 제사

김순옥(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상놈이 제사를 안 지내야 제사 지낼 줄을 모르는 기라. 그래가지고 양반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법을 배알라꼬, 그날 저녁에 양반집에 제산데, 양반집 마리(마루) 밑에 딱 숨어서 보이께네 제사를 한 상 채리놓고(차려 놓고) 그 집 영감이 하는 말이, 대감이,
“이놈 어? 니가 내 제사가 지내야 되는데 내가 니 제사로 지내줘야 되나?”
쿠고, 이래 인자 ‘이놈아’ 쿠고 이래 했는 기라. 그라는 그거를 보고 와서, 인자 저거 집에 와서 저거 아버지 제사 지내면서(지내면서) 채리나놓고
“이놈아, 니가 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청중1: 그래 이 집엔 아랫대한테 그랬는데. 우야꼬!] 어. [웃음] 어여 양반집에서 지내는 거 배웠다고. 응, 그래가이고 응 아버지 저거 아버지 제사 지낼 때도 ‘이놈아 니 제사 내가 지내야 되나.’ 쿠더란다. 그런 옛날 말이 있대.
[조사자: 그래 배우긴 배웠다 그지예?]예, [청중1: 양반집에 가 거 배웠다고 그기.] 양반집에는 아들이 죽어가고 그라는데. [청중1: 좋은 소리라고.] [청중2: 거꾸로 듣고 인자.] [조사자: 재밌네예.]

[금정구 설화 102]

상객으로 간 욱쟁이 아버지

김순옥(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욕쟁이 아버지가 있어가 욕쟁이 아버지 때문에 장개를 몬 가고 있다가, 아버지 상각을(상객을) 가는데, 아버지 절대 인자 입도 달짝 안 하기로 하고 상각을 갔는 기라.

그러니께 처녀집에 색시집에서러 저 뭐 혼주는 인자 신랑 아버지 보고 버버린(빙어리)갑다 했는데, 마지막에 다 자시고 내리서면서, 죽담 내리서면서,

“어험, 이거는 입이 아이고 니기미썸이까?”

커더란다.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103]

허깨비 보고 도망 간 세 소녀

김혜숙(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우리가 그때 열 입곱 살인강 이래 묵었는데, 열 입곱 살 묵을 때라. 인자 마 이 동네 송정에 그 아들하고 기장에 이쪽에 있는 아들하고 인자 저녁에 되든 마 어떨 짝에는 마 토요일 마 이래 되든 마 같이 만나가지고. 옛날에는 방이 이래 혼자 사는 할마씨 이래 파자를 낳두고 판다꼬 방에다가. 그 인자 그런 거 뭐 쌀도 돌마다오고(가져오고) 아들이, 그 사람은 못 사니까네 쌀도 돌마다 주고 파자 바까(바꿔) 무꼬(먹고), 뭐 또 돈 주고도 뭐 사탕 하나씩 사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파는 집이 있었다꼬. 그래 가든 고거 팔아 묵을라꼬(먹으려고) 그 집 방을 빌리주는 기라.

그 할매가 빌리주면 인자 우리 오늘 거 가가지고 토요일고 그가가지고 노다가 오자 이라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서이가 떡 갔는 기라. 친구가 서이가 저쪽 동네로 송정동네로 갔는 기라 걸어 서러 십리로 밤에. [조사자: 밤에요?] 어, 밤에 갔는 기라. 가가지고 인자 파자도 묵고, 뭐 또 뭐도 묵고 이래가 짜다라 놀다가 인자 헤어져가지고, 한 세 시나 이래 돼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인자, 우리 엄마들 잘 때 들어가뿌야 살짜기 들어가야 되지 알든 또 뭐라 쿠이까네. 인자,

“니도 가자. 나도 가자.”

인자 서이서 인자 오고. 저거 저 짝에 있는, 그 아들은 헤어져가 저거 집을 다 가뿌고. 그 랐는데 서이서 떡 오는데 저저 기장 저 송정을 넘어가는 그 연꼬개(연고개)라는 데가 있다꼬, 연꼬개 그계서러 처음에 내 눈에 비더라꼬(보이더라고) 저저서러(저기서) 그는 마 허재비가, 철뚝이 고바이고(높고) 그래노니 그때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곳이라. 그러이까네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를 마이 듣고 인제 그 무섭은 곳을 지나가는 기라 인자. 지나가이까네 눈에 그런 게 빛는(보였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내 눈에 이러더라고. 서이가 인제로 가는데, 저저쪽에

하얀 옷을 입고 하나가 오더라꼬. 그래,

“니 저 하얀 옷 입고 오는 거 비이나(보이나)?”

이라니까네,

“비인다.”

또 야도,

“비인다.”

서이(셋이) 다 비인다 카는 기라.

쫘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네, 서이서 손 붙잡꼬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네, 둘이가 되더 마는 서이가 되더라꼬. 되더마는 뭐라 아라아라 말 끝도 없이 마 말로 하고 오는 기라 서이가. 그래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우리 왔던 집이 더 개잡고(가깝고) 우리 집으로 갈라 카이 더 멀고, 그러니까 왔던 그 집을 가자.”

이래가지고 신을 벗어가 그때는 옛날에 고무신 그걸 벗어가 들고 뛰기로 했는데, 이 도로가 전부 세멘이 안 돼가 있고 그때는 자갈밭이 돼가 있었다꼬. 그 자갈밭에 맨발로 벗고 한 오리 길이 다 되가도록 뛴는 기라. 뛰는데 나는 똥똥해가지고 꿈바래기로(꿀찌로) 가는 기라, 그 친구들은 마 저겅 가는데, 아따 그때 무섭은 거 말도 몬 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뛰 들어갔는 기라 그 집을 뛰들가가지고(뛰어들어가서) 말이 인자 없는 기라. 더 이상 말도 몬 하는 기라 서이 다(세 명 다). 그래가 인자 가들(친구들을 말함) 마 벌써 들가뵈고 나는 제일 꿈바래기(꿀찌) 갔지.

그래가지고 인자 한 그때 네 시나 쫘 넘어가지고 인자 그 할매가 인자 그 이우제(이웃의) 아들로 불러가지고, 머시마 둘이를 불러가지고, 인자 ‘우리 그 고개를 쫘 넘기주고 오라꼬.’ 부르는 기라. 자기 조카하고 그래가지고 불러가 인자 날이 안죽꺼정 안 샐어 그때도. 날이 새가 드가몬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밤에 그래 넘기(넘겨) 주드라꼬 그 고개로. 산을 해가(산으로 해서) 동네로 가는데 그 고개를 넘기(넘겨)주더라꼬. 그래가 참 그 진짜로 허재비를 봤어.

그라몬 삼 년 되몬 허재비는 보고 다시 돌아가몬 죽는다 커거든. 말이 있거든 우리 클 때. 왔던 길로 다부 돌아가몬 죽는다 커거든. 그래도 답답으니까네(답답하니까) 안 가고 할 수 없는 기라. 그래 갔는데도 죽지도 안 하더라. [청중: 죽지도 안 하고 안죽(아직) 살고 있다.] 한 친구도 살아가 있고 나도 살아가 있고. [일동 웃음] 그래 그렇더라고.

[금정구 설화 104]

사랑 나눈 걸 가려내는 법

김혜숙(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일본에 일하러 갔는 기라. 일하러 갔는데 인자 벌이목을라꼬 인자 거 밥 해줄라꼬 여자를 하나(하나) 데꼬 갔는 기라. 그래가 인자 한방에 그 인자 일꾼들 자는데 한태(같이) 데꼬 잤는 기라. 자다가 자다가 영감이 그걸 한 번하고 변소를 갔는 기라. 가고난 뒤에 가만히 옆엿 놈이 보니까네 참 재미있는 기거든 그 사람 마 변소 가뵈는 역에 마 해뵈는 기라. 또 남자가 변소 갔다와 또 할라 카거든.

“금방 해놔노코(해놓고) 또 할라고”

이라이까네,

“나는 변소 갔다 왔는데, 어느 놈이 했노?”

이라이까네, 남자가 있다가 말이,

“그래놓결랑, 응 그거 내봐라 보몬 안다. 갓 헨 거는 번들번들하고. [조사자: 웃음] 응. 갓 헨 거는 번들번들하고 내가 보몬 안다.”

이러니까네, 딱 그리 했는 놈이 턱 내놓고,

“함 봐라. 쪼깨나 볼 줄 알거들랑 봐라.”

이러면서로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만히 보더마는 지 찾으러 댕긴다꼬 댕기는 기,

“이거는, 내 꺼는 시든 좇이다 봐라.”

고 [조사자: 웃음] 이라이까네,

“이거는 시든 좇 맞고.”

해매, 딴 거 찾으러 댕기더란다. 그래 그런 일도 있더란다. [조사자: 아이고 말 맞다 그지 예.] 응.

[금정구 설화 105]

월경 피가 묻어 생긴 도깨비 불

남궁영화(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그 댐에 독이 있거든. 독이 있어갓고 그 우에 보면은 한참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 그러면 비가 올라고 하면은 그 인자 쥔 첨에는 도깨비가 하나 생겼다가 쭉 가면 막 착- 따라서 생기는 거라 끝까지.

근데 나중,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리를 있어가지고 그 핏지라기 나오제 그 피가

문어가지고, 그게 저기 인이 나와갖고 그래 생긴다 하더라꼬, [청중: 말은 글개도 그런 것도 아이더라(아니더라). 우리 쪼매널 때 보면은 저기 죽도 앞에 그마 불이 마마 갔다가 왔다가 그라는데.] 예, 팔딱팔딱 뛰다가 착- 가고 그라고.

[금정구 설화 106]

도깨비로 변한 빗자루

정재복(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피난 나와갖고 들은 얘기거든. [조사자: 예.] 그 싸와갖고 그 사람을 밍다고 마 나무 어디 나무에 갔다가 었다(어디다) 붙들어가 댔대. 매고 왔는데 아침에 가니까 빗자리란다 그기.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그래가. [청중: 그게 도깨비다 그기.]

응. 근께 여자들은 맨스 있을 때는 빗자루 깔아 앉지 마라. 앉으면 안 된다고. 응. 그래갖고 그래 아침에 어떤 놈을 내가 묶어놔놓고 싶어갖고 술이 깨갖고 내려가 보니까, 그 산에 옆에 이리 돌아오다 돌아왔는데 거 가 보니까 빗자루 떡- 묶어놔더라. 나무에다가. [웃음] 그런 이야기, 그라대. 그 아저씨 할배가.

[금정구 설화 107]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어 화난 귀신

정재복(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그래갖고 인자 어느 마을에 소금장사가 누버자는데(누워자는데), 그래가 나와가지고 인자 “내가 오늘 저녁 제산데 밥 묵으러 가자.”

같이 가자 캬다 카대. 그래 그 마을로 갔는데 참 머리칼 여면(넣으면) 구리라(구렁이라) 칸다 카대 구신은(귀신은). 그래갖고 밥에다 구리(구렁이) 열어갖고 몬 묵고왔다고, 불을 지르고 왔다 카더라네. [조사자: 어 세상에.]

그래 오니 소금장사가 고 마을에 가니까 진짜 불이 났더라. 제사 어제 지냈다 카면서. [청중 웃음] 그기 거짓말이겠지 진짜겠나 그제? [청중: 옛날에 거짓말이라.] 응. 그래 불이

났더라. 불이 났다 카더라. 응. 그런 말도 있더라 카면서. 맞아.

[금정구 설화 108]

도깨비가 자주 나왔던 상여집

최수영(남,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는 촌에 가면은 저 생이집(상여를 보관한 집)이라고 다 있었거든. [조사자: 예예.] 그리 오문. [청중: 생이집 있제?] [조사자: 예 생이집.] 도깨비가,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뭐 흘려 갔니 뭐니 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조사자: 생이집에서?] 응, 생이집 근처 그리 오면. [조사자: 네네.] 겁을 내가. 옛날 우리 촌에 있었다 아이요? [조사자: 네네.] 그 생이집 어디 있나 쿠면, 저 외딴 데에 있거든. [조사자: 네? 외딴 데에.] 항상 동네 가운데가 아니고 외딴 데에 있다꼬. 따로 있으면 그는 뭐 어 야간 전기도 없고 하니까 저 가가 어디 노다가 오면, 이웃에 친구인데 노가다(놀다가) 오면, 가급적이면 그 생이집을 피해가 땡긴다고.

[금정구 설화 109]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황춘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실지로 우리 제중(제중) 오빠데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갔고, [조사자: 네.] 오면서 허깨비 한테 흘리는가 [조사자: 네.] 그래갔고, 밤새도록 저- 남진데 고향이, 집이, [조사자: 네네.] 칠서 까정 갔는 기라. [조사자: 어이구야.]

그래 밤에 칠서 그 산망태기 중턱에 가서러 솔나무캉 마. 아 가다가 초소 하나가 있는데 그집에 사람이 살았는데 그계. 그 집에 가갔고, 야구 그 방맹이로 갖고, 열매나 그 집 사람을 뚜드리 패가 이빨 이거 마 다 뺏는 기 다 뿌아지고 이래갔고 그 질로 또 도망을 티가 인자 끌리가는 기지. 지가 가는 게 아이고. 그래가 산망태이 우리 외갓집 동네에 그 칠서 그 중턱에 가서 솔나무 잡고 밤새로 돌다가 잠이 샅 들어가 잤는 모양이지.

그래가 인자 깰께네 어느 산중턱인데 보이 생전 보도 안 한 데더랍니다. 그래가 살-살- 내려 온께네 거 산 지키는 고지기가 할배 살고 있다 카네. 그래 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떡 사람을 보더마는,

“아이고, 이 사람이 흘깨비한테 흘깃꾸나.”

이래 돼갓고 들어오라 캐가지고 꿀물로 타가 먹이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가 그래,

“오데 있노?”

이래 물은께네,

“그래 내가 저 창녕 남지에 있습니다.”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인자 사람을 델꼬(데리고) 왔어. 그래 델꼬 왔는데, 그 뚜드러 맞은 이빨 뿌사진(부러진) 집엔 또 얼마나 사람을 찾을라꼬 저게 했겠노? 그래가 마,

“그랬다꼬. 그것도 그래 됐다꼬.”

그 집에 이야기 ‘하고. 그 사람도 마 찾아왔는 기라, 그래가 왔는데 사람이 아파가 다 죽어가 놓어가 있음께네, 아하 큰일났다.’ 싶어가 마 이빨 해 넣어라는 돈도 받지도 안 하고 가더라 카네.

갔는데 인자 그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갓고 인자 영간히(어지간히) 낮았는 기라. 낮아갓고, 그래가 그 집 찾아가갓고 그래 빌고 이빨하라꼬, 돈 줄 낀께네 이빨하라꼬, 살기는 잘 살았 거든. 그래갓고 인자 이빨하라꼬 돈 줄라하이 돈도 안 받을라 카고. 그래가 의형제를 맺어갓고 그래갓고 내 형제간 맵기로(처럼) 웃다 갔다가 지내고 살았는데 그래고마 바 그래 한 번 당하고 나서 마 명이 안 질고(길고) 일찍 돌아가시뿌더라고,

[조사자: 그분들이 명이, 그리 오래 못 사시네예.] [청중: 오래 못 살아. 맞아. 하모 혼을 뺏어.]
그래가 돌아가시뻘다아이가. 그래 뻘뻘다.

[금정구 설화 110]

도깨비에 홀린 사람 구하기

황춘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그런 기 참 그렸대요. 우리 삼촌도 하내이 어른인데 시장에 시장에 가갓고(가서) 시장에 갔다가 늦게 오는데, 집에 오는데 이래더란다. 우리 동네가 산 밑에 산꼴짜기 십 리나 되거든 장터깁(장터까지). 그래가 인자 장에 갔다 오다가 저 인자 밖에 그거 나무가 안 있나? 서낭나무. 그 오다가 인자 그 오문 귀신이 안 따라 들어온단다. 그래가 집에 오갓고 막 헛소리를 하면서, 그 날 저녁에 헛소리를 하면서 이라더라고,

“하, 우리 친구들이 저 밖에 저 항거(많이) 오가(와) 있는데 내가 가야 된다.”
짜면서 막 오갔고 다부(다시) 갈라꼬 이라는 거 우리 고모가,
“에헤이, 이거 또 귀신한테 흘켰다.”
짜면서러 막 끄잡아 들라 방에 놀리놓고 막 진언 진언을 치더라꼬. 그래가 막 진언을 치고
막 이래 저거 하고 난깨네, 아 그래 괜찮대.
그래갖고 자고는, 실컷 한숨 자고나디마는 고마 괜찮더라꼬. 전에 옛날에 허깨비가 있었나?
[웃음] 그래 되더라꼬, [청중: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옛날에는 허깨비한테 흘켰다 카는 사람이 참 만애(많아). [청중: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 예,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꼬.

[금정구 설화 111]

밤에 나타나는 도깨비

김부권(남,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옛날에는 그그 저녁으로 밤길로 많이 걸었거든 밤에 한 둘이서. 시장에 갔다가 뭐뭐 시장도
그땐 이십 리 삼십 리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술 한 잔 묵고 밤에 밤길로 많이 걸었다고 밤길로.
그 밤길로 걸어오면, 그 또 한 동네 한 명이라도 이 동네 저 동네 놀러도 많이 이리 댕기고
했거든.

그리 댕기면 그 중에서도 그 무섭은 데가 또 별도로 따로 있어. 무섭은 데가. 그 있으면
근데 이래 놀다가, 술 한 잔 묵고 놀다오면 저기 보면 불이 막 햇불이 막 빙빙빙 돈다고. 기
토깨비라 그기.

그래가 담 썬 사람들은 그걸 안 놀래고 가 싸우는 기라 그놈하고. 한참 싸우고 나서 내가
이길쌍바라면(이길 것 같으면) 불이 없어져빠려. 불이 없어져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은 그게 토깨비가 아니고, 옛날에 디딜방아 디딜방아 고, 빗자루 몽덩이
이런 걸 나무에다 대고 밧줄로 그놈 총총 훑아매놨어. 그기 눈에 헛게 비이서(보여서) 그래
토깨비라 카는 그기.

[금정구 설화 112]

불 냄새를 싫어하는 호랑이

김부권(남,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삼십 리씩, 이십오 리씩 이래 산에 나무하러 가서, 점심 싸가 도시락 등에 끼 갖고, 소 물고 이래 가는 기라. 소 물고. 나무 두 짐을 해 갖고 소 등거리다 신고 오거든. 그래 산에 가 갖고 나무를 해가 마 날이 꾸무리하면, 이노무 소들이, 소가 여나므(열 마리 남짓) 마리 되거든. 소들이 이리 편편한 구석에 막- 이래 꼬리만 서로 맞대이고 모아가 뺨- 돌려 갖고 서가 있는 기라.

그래 사람이, 주인이 가 갖고 가자꼬 고삐이를(고삐를) 들고 땡겨내도 꼼짝도 안 해. 그때는 뭐시 거 있나 하면 호랭이가 그 근방에 나타나는 기라. 송아치는(송아지는) 인자 지 새끼는 지 배 밑에다가 열놓고, 소꼬리만 이래 막 서로 대가 이래 갖고 서가 있는 기라.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들은 얘기가, 내가 들은 얘기가, 그 하근내를 내면은 호랑이가 없어진다 하는 기라. 하근내, 불 불 불. 불로 그 지르면 하근내거든. 그걸 불 냄새를 내면 호랑이가 없어진다. 그래 갖고 꺼머지기로 주 갖고(주워서) 불로 내가 연기를 쫓 빼낸께, 소가 막 이래 고개를 쫓쫓 흔들며 요롱이 덜렁덜렁거는 기라. 그때는 호랑이가 그 하근내(불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내뺨 뺨는 기라 가뿌리고 없어.

그래가 소를 움직이고. 주인이 자기 소 다 찾아오고, 찾아온께 그 송아지도 인자 지 애미 따라서 오고.

[금정구 설화 113]

흙 파는 갈가지

김부권(남,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밤에 밤길도 많이 걸었거든. 그때는 차도 없어 갖고. 그 넘어, 재 넘어가다가 갈가지가 흙도 파 묵고. 흙을 파면 앞이 안 보였어. 걸음도 문 걸었어. 흙을 파놔서. [청중: 우리도 밤길을 역수로 걸었다고. 우리가 그 면소재지 가면 요면도 십 리, 요도 십 리라. 십 리 그거는 늘 걸어댕겼지. 차 버스 그 간간이 하나씩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나 문 기다리지.]

밤에 그거 버스도, 밤이 오래 되면 끊기뵈다 아납니까? [청중: 끊기.] 그래 갖고 흙 파 묵는 기 그기 갈가지야, 갈가지. 호랭이 늙은 거, 쪼매난 거, 요만해요. 갈가지 아니가 그기

[조사자: 이 동네에 갈가지가 있습니까?] 이 동네는 지금은 없어요. [조사자: 그 차이구나.]

[조사자: 저기 산성마을에 가도 갈가지가 있더라, 모래를 뿌려가지고 모래재가 있다 아님 니꺼?] 지금은 갈가지 없어요. 지금은.

[금정구 설화 11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규조(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스님이 시주로 통통하이,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뭐가 없잖아?
“하이고, 뭐도 아무꺼도 줄 게 있나? 우리 봉덕이나 주문 주지, 암꺼도(아무것도) 줄 꺼 없다.”
카이, 그래 스님이 시주를 해가 가가지고 그거 인자 종 하는데 그거 인자 그거 하나까네, 생전에 이 종이 안 되는 기라. 안 되가 어디 가 물으니까네,
“아이고 어떠한 그 집에 가이까네, 그 여자가 방정맞게로 아무것도 줄 꺼 없다, 우리 봉덕이나 주문 되지 카이, 그 아로 갖다가 그 종에다가 열어가지고 해야 그 종이 되겠다.”
고, 그래가 그 아를 참만(참말로) 갖다가 열어가지고 그 종이 올리면 항상,
“에밀레~, 에밀레~.”
캬는데 인자. 아 이름으로,
“에밀레~, 에밀레~.”
칸다꼬, 인자 그 뜻이 그 뜻이라.

[금정구 설화 11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옥희(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옛날에 인자 하도 시어마이가 눈이, 눈이 어둡어서 이래 인자 오줌똥을 받아내고 집에 들어앉아가 있는데 방안에. 며느리가 어떡게(어떻게) 효부든지. 뭐 아무 해줄 거는 없고 지렁이를 잡아가 드리이 지렁이 자자난(작은) 거, 빨간 지렁이를 잡아가 그거를 푹- 이래 약단지애 다

고아갓고. 때때마다 한 그릇 줬어. 이 씨오마이가 그거를 묵고 눈이 폭, 고마 살이 찌서 통통하이 해가, 뽀-하이 해가 있거든. 보순제(보신이지).

그게 제일 아들이, 그거 옛날에 그기 아들도 위장해가 요새매이로 이래 약으로 쓰잖아. 그걸로 아들도 얼라들도 위장해가 죽게 되면 그거를 고아 믹이가 살로 올 리가(살을 찌워) 살렸다 카대.

그래 그 며느리가 그래난께네 저 시어마이가 뽀하이 이래 살이 찌가, 아들이 참 인자 별이를 갔다가 오니께네 지 엄마가 살이 찌서 오동통 해가 있거든. 그래서,

“엄마, 엄마.”

하도 맛있고 자기가 좋은께네 ‘이게 무슨 고긴고? 날로 며느리가 이래 해준다 싶어서.’ 근지 가지고(건져서) 자리 밑에다가, 이런 자리 옛날에는 멍석자리(멍석자리) 그 살자리 그거 아이가? 자리 밑에다가 요래 열어놔어. 아들이 오면 이 맛있는 고기로 만날 해준다꼬 배아야지(보여야지) 싶어서 이랬는데.

“엄마, 엄마 똥을 잡숫고 이리 살이 찼노? 살이 찌고 좋노?”

쿤께네,

“아이고 야야, 며느리가 만날 날로 꿈을 해줘서 묵고 살찼다. 이기 이 고기로 갓고 만날 꿈을 때때마다 해준다.”

이래 쿤께 들어본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 쿤께네, 들어내는데 본께네 빨간 지렁이 그이 지렁이 그긴 기라. 그러이,

“엄마, 이 고기가 아니라 이거 지렁이 그시기다. 지렁이다.”

쿤께,

“어이!”

킴서 놀래갓고 그 눈이 퍼떡 떨어졌다. [조사자: 아하.] 그래가 그래가 눈뜯 봉사가 눈을 떴단다. 그래 그 이야기 있대. 그래 나 만(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클 때 얘기를 그리 하더라.

[금정구 설화 116]

도깨비와 싸워 이긴 사람

박옥희(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도깨비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불로 떼면서 부엌케(부엌에) 이리 아궁이에 불로 떼가 밥을 해

묵거든. 맨날 빗자리로, 부엌에 씨는 빗자리로 깔고 앉아가 불로 떼는 기라. 그라몬 그게 다 짧아서 빗자루 몽당이 있으면 집어 던져 내뺐거든. 내뺐이께네, [청중: 내뺐는 게(내버리는 것이) 아이고 여자가 그 생리 있는 거 그게 빗자루에 묻어가지고 그래가.] 그래 어쨌거나 여자가 깔고 앉는 거는 내뺐이면 안돼.

이 웬 인제 동네 어른이 그 전에는 장날이라고 먼데 가서 장에 땡기거든. 그러께네 두르막을 입고 막- 이래 장에 오니께네, 멀리 갔다오니께네 저무는 기라. 밤에 이리 오니께네 마 예쁜 각시가 고마 죽기 살자 붙잡더란다. 그래 썩리 뿌리치고, 난중에는 마 또 본께네 지캉 씨름을 하자쿠더라 쿠는 기라.

씨름을 하자 캐. 씨름을 해가 이 사람들이 마 이 남자가 팍 감아가 마 팍 콩치뺐어. 콩치 빼고 마 지근지근 훑아놓고 웃디(와서), 오서 자고 ‘이기 뵈이 이 도깨비가 날로 그래하는가? 지근지근 밟아서 반쯤 직이나코 왔는데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래 깡이, 옛날 노인네들 깡이 메고(깡이 메고) 안가나 깡이를 고 살깡이로 고 가보니께네 빗자루 몽당이 있더란다. 빗자루 몽당이라.

그래가 창칼로, 창칼 뺨 거로, 꼭 맥아지를(목을) 찢렸어. 창칼로, 창칼로 빼갖고 모가지를 폭- 찢러놓고 마 그래놓고 자기가 죽을 판돼서 웃디(오니), 빗자루 몽당이 창칼이, 창칼로요 차고 땡기는 요만한 게 있거든. 그래가 거기 딱 꼽히 있더란다. 그래 빗자루 몽당이 거기.

[금정구 설화 117]

자기 새끼 예뻐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박옥희(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옛날에 저 그라대. 나 만(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쫓대. 봄에 쑥 캐러 가문. 전치(전부) 강주리로(광주리) 가이(가지고) 옛날에 쑥 캐로 갈라꼬 이리이리 산에 산나물 뜯으러 갔는데. 저 참 고냉이(고양이) 새끼가 너무 예쁜 게 있어서 딸아들이 이리 보듬고,

“하이고, 예쁘다.”

고. 요리 쑤시고 요리 보듬고 이라이, 고냉인 줄 알고 고냉이 새끼로 그래 산께, 똑 고냉이 같거든. 그래 산께네, 쳐다본께네 뵈이 우 바우 틈에서,

“어흐응.”

좋다코, 지 새끼 이룬다꼬.

“어흐응.”

이 아가씨들이 마 놀래가 전치(전부) 강주리로 마 나물 캐는 소쿠리 집어 던지빼고, 새가 빠지게 쫓아와서 집에 오서 본께네, 그 강주리를 말캉 집집마장 한치(혼자) 안 가거든 산에 가문 동네사람 여럿이 가는데. 집집마장 칼로 갖다가 마 물어다 딱딱 딱딱 갖다 놔더라.

[금정구 설화 118]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 영동할매

박옥희(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영동할매가 [청중: 내리 올 짝에(올 때에).] 내려 올 짝에 [조사자: 언제 내려오는데예?] 이월 초하룻날 내려 올짝에 새벽 첫 새벽에 내려오몬, 그 며느리로 데꼬(데리고) 오몬 바람이 마이(많이) 불고, 딸로 데꼬 오몬 바람이 안 부는 기라. 왜 그라는고 카면 며느리는 용심이 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몬 옷이 호뻍(흠뻍) 다 젖고, 딸로 데꼬 오몬 바람이 불몬 고름이 팔랑팔랑.

[청중: 며느리를 델고 오면 비가 오고, 딸로 델고(데리고) 내려오면 바람 치멧자락에 펄렁 펄렁 하이 좋다꼬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인자 그렇게 비가 오면 며느리 델고 온다 카고, 인자 바람이 부면 딸 데리고 왔다 카거든. 고거뿐이라 그거는.]

[금정구 설화 119]

받침을 안 붙여 우습게 된 편지

박경열(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군대에 가가지고 마누라 생각이 나서 편지를 하니까, 편지를 고 받침을 하나 더 영었으면 될 낀데,

“형수씨 보지도 까맣고. 누나 보지는 더 까맣고.” [조사자: (웃음) 엄마는예?]

“엄마 보지도 깜, 엄마 보지는 너무 까맣다.”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 보지는 까맣다 카더라요.

[금정구 설화 120]

부인 옆에 못 가는 남자의 고민

박경열(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어느 남자가 장가를 딱 한 번 가놓으니까네. 장가를 가놓이 당최 마누라 옆에를 못 가겠어. 왜 그렇노 카면 이놈의 여자가 여게 막 어떻게 머리카락이 어찌 엉글어졌는지 하모 몬 가. 몬 가가 고민을 했는 기라. ‘하, 어째야 되노?’ 싶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으는 자기가 고민을 딱 하고 어느 술집에 앉아가, 술로 한 잔 하러 가가지고 술로 한 잔을 하니까, 어떤 남자가 마 수염이 이만치 낡는 남자가 술로 목으러 왔어. ‘아고 저 남자 저거는 어째가 술로 몰라고 저래가 오노. 입구멍도 비지도(보이지도) 안 하는데 어쩔라 카노?’ 싶어 보니, ‘어예가(어떻게) 술로 몰라 카노?’ 보이, 이래가 손가락을 이래가 씹 이래가 탁 이래 제쳐놓고 마시더래요.

‘딱 댕다. 나도 인자 배웠다. 인자 집에 가면 인자 가리미를(가르마를) 나도 딱 타놓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집에 가가지고 가리미를 딱 타놓고 그래가 하이 되더래요.

[금정구 설화 121]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박경열(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저 어느 고개에 넘어 댕기는데, ‘이 고개는 넘어가면은 살아남지를 못한다.’ 카는 고개로 어떤 여자가 하나 지나갔어. 온 저녁 내가 한 번 가보자. 간다고 딱 가니까네, 참 간다고 가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어흥” 쿠고 나오거든. 나오이까네,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틀림없이 지가 그날 저날 당할 판이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째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마 아랫도리 옷을 흘랑 벗고, 흘랑 벗고 마 머리 이거를 땅에다 대고 꺼꾸로 구불었는 기라.

이래 꺼꾸로 옆드리니까네, 이 범이 보니까네, ‘이상하다 짐승이 입이 생겨도 이리로 찌졌는 입이 있지. 이리 찌진 입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가, 이 호랑이가 거서 겁을 내가, ‘아이고! 짐승도 저거 별 짐승이다.’ 무섭다고 마 짐승이 내빼뿌고, 호랑이잖에 못 물리고, 안 물리고. 호랑이는 도망을 가고 여자는 넘어가니까, 저 넘에서러는 이 여자는 가다가 죽었다고, 죽었다고

떡 하고 있는데 오거든. 그래가 우째 살았냐고 그래 난리가 났더라요. 그래가 그 여자가 살았어.
마 할랑 벗어뿌고 마 할랑 벗어뿌고 마 이래가 마. [조사자: 고개만 숙있구나.] 응. 이래가 마
이래 가노이 범이 마 밑에 그놈을 보고 겁을 냈어. 마 검으이 해가 마 이래가 있으이. 입이
이래 짜져야 될 건데 이래 짜졌어. [손으로 가로 세로를 그리며] [일동 웃음] 이래 짜져놓으이
까네 호랭이가 보고 놀래가 도망가더라요.

[금정구 설화 122]

여자 음부를 문 계를 떼어준 스님

박경열(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점심상을 이고 가다가 나이까네, 점심상을 이고 가는데 와 오줌이 뭐하러 누렵울꼬. 상
광주리를 떡 이고 앞아가 오줌을 누다고 누니까, 그 밑에서 뭐 오줌을 누니까, 뜨시니까 께
가(계가) 나왔는 모양이라. 께가 나와가 밑에 마마 거거를 마 꼭 물어뷤어.

이놈의 여자가 마 밥 소쿠리를 내버리지는 문하고 이고 앞아가지고 ‘아야꼬’ 난리가 난캐네,
어떤 중이 하나 지내가다가,

“와 그라는교?”

그러니,

“아이고! 여기여기 끼가 나왔는가 날로 이로 물어가 그렇다고.”

이러 카이까네, 중이 이래 디다보니까 끼가 한 마리 팍 물고 있거든.

“아이고! 내 보다가 보다가 내 끼가 나와가 또 내 공알(여자 음부를 말함) 무는 건 처음 봤네.”

그카더라요 중이. 그래가 중이 거 저저 끼를 띠줬어. 띠줘도 뭐 어떻게 물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아프겠노? 그랬대요.

[금정구 설화 123]

지렁이 먹고 눈뜬 어머니

백수연(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아들이 뭘을 이래 갖다줘서 참 무운(먹은) 게 맛있는 기라. 그래 맛있어서 묵고 인제 자리 밑에, 촌에 옛날에 자리 아닌가배, 자리 밑에다 요래 넣어놨다가 하도 맛있어서 아들을 주면서,
“아나 니도 무봐라(먹어봐라).”
이라니까네로,
“어머니, 지령이네요.”
이래 کن께네,
“어역!”
하고 눈을 뜬다 이라대.

[금정구 설화 124]

구령덩덩 신선부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정승 집 딸이 서이라. 정승집 딸이 서이고. 그래 인자 그 집에 인자, 어느 집에 인자 아를 하나 낳았다 캐서 간다고 간께네, 그 저 옛날에 뽕아리 키우는 그 요만한 둥그름한 등가리라고 있거든. 아를 낳아갖고 그 구령이를 낳은께네, 그 엄마가 방앗간에다가 딱- 구령이를 가다놓는 기라. 가다놓이, 그 정승 딸이 서이가 디다보고,

“엄마나! 이 집에 아들 낳다 카더만은 구령이를 나날네.”

쿠거든. 또 둘째딸이 와가 또 그래. 그래 셋째딸이 딱 오가 보디만은,

“하이고! 오동동 신선부를 나날다.”

카는 기라. 그래 이 구령이가 가마히(가만히) 들으니, 나 이 이야기 좀 모리겠다. 하모,

“오동동 시승모(‘신선부’를 말함)를 놓아놨네.”

캐서, 그래 이 구령이가 허물로 짝- 벗고 나오가 아주 막 그한 청년이라. 그래갖고, 이 청년이 고마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라. 그래 이 딸아가 그 인자, 그 인자 오동동 시승모 찾아서 어디로 어디로 고개를 넘고 고개 넘고.

“그 저기 가는 날라가는 까마귀야, 우리 오동동 시승모 어디 갔노?”

쿠며 어디로 어디로, 아 까마귀가 인자,

“눈깔(눈알) 한 사발 빼주면 갈차준다.”

하는 기라. 그래갖고 그거를 인자 빼준께네 저 고개 넘어가면 하여튼 까마귀가 그래, 까치가 또 그래 인자 또 물어보래서 까치한테 물어보니까 까치가 하는 말이, 또 잊아뿌것네. 까치가,

“아, 우리 오동동 시승모를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노?”

쿰께네, 저 산 넘에 가면, 좀 빠자 묵는다. 산 넘에 가면 저 오동동한 우물이 이래 있는데, 그 가면 저저 바가친가 방맹인가 하나 떠가 있는데 고거를 물에 잡고 내려가라 안 카나. 그래 인자 잡고 내려간께 참 마을이 하나 생기는 기라. 마을이 생기갓고, 그래 거 내려가갓고,

“우리 오동동 시승모 사는 집이 어데냐?”

이리 물은께네, 저 건네 저 담 있는 저 집에 산다 하거든. 그래 인자 그 집에 딱- 찾아가 갓고,

“우리 오동동 시승모 사는 데로 왔는데 여기 어데냐?”

물은께네 그래,

“저 집이다.”

하이까네, 그 집에 간께네 이 남자가 결혼을 해가 살고 있어. 살고 있음께네 참 남자가 본께네, 자기 그 옛날에 그 사람이라. 그래갓고 그 남자가 퀴즈를 인자 하나 내냥는 거라. 퀴즈를 그 내냥으면서,

“이거 맞친 사람은 자기 데꼬 산다는 기라.”

데꼬 산 사람하고 찾아간 사람하고. 그래 인자 그 남자가,

“새 중에 무슨 새가 제일 크노?”

이 찾아간 여자가,

“먹새가 제일 크다.”

카대. 응.

“먹새가 제일 크다.”

그래가 그 여자하고 그래 잘 살더란다.

[금정구 설화 125]

스승 말을 듣고 낭패한 제자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선생님이, 그 학생이 하나 장가를 가는 거라. 장가를 갈라칸께네 선생이,
“저, 장가를 가가 첫날 저녁에 아들을 낳을라쿠면, 콩죽을 뭐 한 된가 두 된가 끼리(끓여) 묵고 가라.”

갓는 기라. 그래가 콩죽을 끼리가 묵고가노이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욕수로 고생을 했는

기라 이 선생 말로 듣고. 그래서 이 인자 이 제자가 생각을 하다가 선생한테 선물로 내가 어찌 해야겠는가 싶어서 설사 한 똥을 깡깡 얼아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더란다. [조사자: 응, 그거 했다고.] 응.

아들 놓을라 카면 콩을 콩죽을 먹고 가라 캬는데, 콩죽을 묵고 가놓으이 첫날 저녁에 마 똥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사를 해갖고 그래가 그 선생한테 선물로 한다꼬. 가마이 생각한께 안 되겠더라고, 똥을 뉘가 쪼쪼 얼아가(얼려서) 그래가 선생한테 그 답을 하더란다.

[금정구 설화 126]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시집을 가놓은께네 집에선 천지모르고 뭐 방구를 꺾다가 시집을 간께나 방구를 문 끼. 그래가 시아바이가 본께네 너무 사람이 노랑거든. 그래,

“야야, 니가 와 노리노?”

몰라, 나 그래 마 인제 대충 들은 이야긴데.

“와 니가 노리노?”

쿤께네,

“아버님, 방구를 문 끼서 노립니더.”

이란께네,

“그라먼 방구를 끼라.”

“그라먼 아버님이 기둥을 잡아야 되는대요.”

카거든. 집 기둥을 잡아야 된다하늘 기라. 마 앞에서 하나 ‘통’ 끼논께네 마 집이 뒤로 휘떡 하이 넘어가뻘어.

“아이고, 그래가 이 큰일 났다.”

쿤께네,

“아버님, 걱정 마이쇼.”

카디 뒤에 가서 ‘통’ 끼니 집이 딱 발라지더란다.

[금정구 설화 127]

상사병을 낮게 하는 모(毛)탕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어는 절에 제를 올렸는 기라. 제로, 제를 올린다꼬 이 여자들이 제 올리면 구경하러 간다고 많이 가잖아. 그래 갔는데 인제 제를 다 올리고 저 그 절에 말하자면 중 청소하고 하는 사람 안 있는가배. 쪼깨난 게 있는데 거기 청소를 하다가 여자 털이 하나 떨어졌어 마당에. 그래 마 스님한테 그놈을 주워가갖고,

“스님 이 귀중한 털이 청소를 하나 본께네 하나 떨어졌습니다.”

쿠면서 그거를 주워가 스님한테 보고를 했어. 보고를 한께 스님이,

“아 그러면은 물로 한 솔 붓고 그거를 고아라.”

그래가 인자 고았는데. 어디서 상사병 들은 남자가 하나 있어. 그래 그거를 고아가 그 스님 들은 한 그릇씩 다 마시고 어디 상사병 들은 남자가 하나 있었던가봐. 그래 그게 인자 모탕이라 제목이. 털 모, 모탕이라 하대. [조사자: 그게 효과가 있는가봐예.] 이야기기 모탕이라. 그래가지고 인자 그 절에 갔는 기라. 상사병이 들어가 그래 털 그거 하나 넣고 삶아 물로 먹고나 이 상사병이 싹 낮아빠더란다.

[금정구 설화 128]

똥을 된장이라 변명한 며느리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시아바이 밥상만 갖다놔면 매느리가 화장실도 잘 가. 밥상만 갖다놔다 쿠면. 그래서 한날은 밥상을 갖다놓고 시아바지가 물로 떡 떠가간께네 똥이 요 손가락에 묻었는 기라. 똥이 묻어 나이 시아바이가,

“야야, 그 손에 그게 뭐이고?”

쿠이,

“아이고 아버님, 된장이 묻었네요.”

쿠고 딱 훑아먹어뵈다 쿠더만.

[금정구 설화 12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저 이 마을에 내려와갖고 시주를 할라 칸께네, 그 아 어마이 하는 말이,
“시주할 게 업다(없다). 우리 아나(아기나) 주면 그할까 업다.”
이리 뵈어.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절에 뭐 내 대충만 아는데, 절에 종을 만드는데, 그 뭐
아를 그 해가(그렇게 해서) 그렸제? 종 만드는데 아를 넣어놓으이 그 에밀레종이, 그래서
엄마가 그 그런 말로 한 마디에 아가가 종이 치면 만날(늘),
“에밀레~, 에밀레~.”
쿤다고 듣긴 들었다 그리.

[금정구 설화 130]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옛날에 나물 캐러가니까, 높은 산에 가니까, 호랑이 새끼가 너무 예뻐. 그래서 호랑이 새끼가
너무 예뻐서 모두 하나씩 안고 안고,
“아이, 너무 이쁘다.”
싼께네, 호랑이가 우에서 ‘흐흫’ 웃거든. 놀래갖고 마 나물 소쿠리고 뿔이고 다 버리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보이, 아침에 자고나이 집집마다 나물 소쿠리 다 갖다뵈다 안 하더나.

[금정구 설화 131]

방귀 소리에 놀란 호랑이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어떤 여자가 어찌 신랑이 애로 믹이서 그랬는가도 모르지만도. 죽을라고, 죽을라고 어데 가면 지금 어데 호랑이가 있다 캐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 죽는다고 처마를(치마를) 벗고 [웃음] [조사자: 치마를 벗고.] 벗고 그 호랑이 있는 굴로 갔는 거라. 호랑이 있는 굴로 인자 꺼꾸로 떠억 영금영금 꺼꾸로(거꾸로) 간께네, 손으로 기어가면서 가다 호랑이가 그 참 있었던가봐. 근게 신경이 쓰있걸랑 마 우엿는고 마 여자가 방구를 ‘퐁’ 귀뿔어. 그니까 호랑이가 있다가 아따 퐁이짐승도,

“퐁이짐승이 왔다.”

칸다 카더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조사자: 그래가 도망갔뿐네. 호랑이가.] 잡아묵도 안 하고 그냥 가뿔는갑대.

[금정구 설화 132]

아이들 몰래 나누는 사랑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아가 많은게네(많으니까), 참- 진짜 부부간에 한 번 붙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건 또 딴 이야기 내 들어갈게. 그래가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참 요 마 저거 엄마가 아를 많이 낳아 사니 우쨌든 가 옆에 안 자면 아를 안 낳겠다 싶어서 큰아들이 마 죽기살기로 몬 자구로 하는 거라. 그래 인자 이 영감이 내다가, 내다가 안 돼서,

“저 어디 가서, 못등에 그 가서 소도 좀 매어 놓고 오라.”

캬거든. 그래 인자 소를 메가 오라 쿠고. 인자 그니까 이 아들이 틀림없이 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뭐 할라고 그란같다 싶어가 소도 매러 안 가고 어디 갔다 놔놓고, 옛날에 문조우(문종이) 아니까? 춤을(침을) 문혀가 구멍을 뚫어가 가마히 쳐다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으 이 저거 아버지가 저거 엄마 옷을 딱- 벗겨놓고 젖을 슬슬 이래 주물러가디만은, 또 밑에 배

또 슬슬 주물러쌌다, 고마 밑에 내려가갓고 마 말뚝을 박을라 쿤께네 아들이,
“잠깐!”
카거든, 그런께네 아버이가 있다가,
“니는 소도 안 매고 뭐 하노?”
쿤께네,
“벌써 돌에, 밧등 밑에, 늪을 번청 밑에 소 말뚝 딱 박아놓고 왔다.”
하더란다.

[금정구 설화 133]

누워서도 보이는데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부부간에 아침에 인자 마 아들도 자고 마 어째 하다 못 해서, 인자 어째 어째 해갓고 마
둘이 실컷 하고 난께네, 하고 떡 쳐다본께네, 아들이 우에(위에) 공부를 떡 하고 있거든. 공께,
“니는 이태껏 자도 안 하나?”
쿤께네,
“예.”
쿤께네. 막 뭐라 하거든.
“자도 안 하고 공부한다.”
쿤께네, 누워가 있는 아들이,
“누워가 있어도 보이는데, 행님은 와 의자에 앉아가 보노?”
쿤다 안 카더나.

[금정구 설화 134]

철수는 떨어져도 기차는 달린다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인자 저녁에 아들이 안 자는 거라. 아들이 안 자서 하- 자고나면 둘이 한 번 해볼라 카이 안 자. 안 자서 이거를 우째야 되겠노 싶어서, 이놈의 잘라는(자려는) 놈이 안 자서 마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야, 우리 기차놀이 하자. 기차놀이를 하자.”

이랬는 기라. 그래 인자 어마이를 눕히놓고 아버이는 그 우에서 꾸꾸리갓고(구부려서), 철수를 업고, 처음에는 슬슬 하다가 마 난중에는 마 기차같이 고마 마 달나거든. 하거든. 한께 네 마 업은 아가 떨어졌뻘어.

“아빠, 철수 떨어졌다. 떨어졌다.” [조사자 웃음]

쿤께,

“철수는 떨어져도 기차는 달린다.” [조사자 웃음]

[금정구 설화 135]

꼬끼요 하니 삐약삐약 한다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그것도 부부간에 생전 둘이 같이 잘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누라를 보고,
“오늘 저녁에 밤이 오래 되거든. 내가 마리(마루) 밑에서 ‘꼬끼꼬’ 쿠거든 나오라.”
카거든, 그래갓고 인자 밤이 오래돼서 참 신랑인가 영감인가 모르지만도,
“꼬끼꼬.”
쿤께네, 살- 엄마가 나온다고 나온께네(나오니) 아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면서,
“삐약, 삐약, 삐약.”
싸면서 따라 나온다하더만은.

[금정구 설화 136]

고추를 말리면 자루에 담아야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갑순이 갑돌이가, 갑돌이가 하루는 저 옥상에 가가 꼬치를 말룬다고, 별에 말룬다고 떡-내가 있었던 기라. 그래 내가 있으니까 갑순이가 [조사자: 지 꺼를예?] 응. 지 꺼를 인자 별에 인자 꼬치 말룬다고, 바람 좀 씩운다고 떡 말루고 있으이께네, 갑순이가 쳐다본께네 갑돌이가 꼬치 말린다고 떡 내놓고 있거든.

그래서 갑순이가 나도 좀 몰리야겠다(말려야겠다) 싶어서 옥상 가가 떡- 보지를 말루고 있는 기라. 말렸다가(말리다가) 본께네 보지도 다 말랐던가봐, 공께네(그러니) 갑돌이 보고, “자리를 말렸으면 꼬치를 넣어야 될 거 아니가.”

[금정구 설화 137]

혀기 짹아 우습게 된 말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동 장수부녀 경로당]

“쫓민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오늘 보리 수매를 한다 됐는데, 보지 수매를 하오니 헌 자지는 가오지 말고 새 자지를 가오라.”

됐는데, 세가(혀가) 짹라가(짹아),

“헌 자지는 가오지(가져오지) 말고, 새 자지만 갖고 나오세요.”

쿤다 카더만은.

[금정구 설화 138]

쫓 대회에 가려다 포기한 아들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어떤 놈이 부모한테 효도할 건 없고. 어디 꼬치 대회를 하는데, 쫓 대회를 한다 캐. 그래서 자기는 크다고, 인자 저 서울쫓 인자 그 인자 대회를 하는데, ‘이기면 내가 상을 타갖고 엄마한테 쫓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 인자 바자리에다 지고 저 서울로 갈라꼬 가는 길에,

중간에 어데 간께네 뵈이 똑 구루마에 항겨(가득) 또 그놈의 큰 거를 신고 가더라 카네.

‘아하, 저건 또 내가 커서 안 되겠다.’ 하고 구루마가 큰 거 그것도 인자 이래가 저 서울쫘 되는 거 신고 가다 보이, 어떤 놈은 뭐뭇 차 고빠기에다 싣었다 카제. [웃음]

그래가 신고 마 부모 효도도 못 하더란다 작아갓고. 지는 가면 커서 마 상 타가 부모한테 효도를 할라 했는데, 그래가 그 가다 보이 마 어띠(어떻게) 크든지 차 고빠이에 신고 가는 놈이 있었어. 뭐 부모한테 효도도 몬 하고 마 뭐 그렇다 쿠는갑더라.

[금정구 설화 139]

벌써 열 두 바퀴 짜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아가 하도 많이 재피날이(재워놓으니) 작은방에. 그놈을 한 번 해볼라 카이 세사(세상에) 될 수가 없어. 남자가 마 물이 나왔는고 어쨌는고 마 그 벗고 마 뽕뽕이로 돌다보이 아(아이) 머리 위에 물이 묻었는가봐. [조사자: 세상에.] 그래갓고 [일동 웃음] 아들이 하나 일나가.

“하면 열 두 바퀴 짜(열 두 바퀴 짜)다.”

칸다 안 카더나.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140]

거대한 음경과 음부를 가진 남녀

서순남(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어떤 남자가 꼬치가 어띠 크든지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자기 켄 만해갓고 그 이야기 아니가 그자? 바자리에다가 서름서름 그래가 지고 땡기는 기라. 지고 땡기는데. 이 아쫘마는 또 어띠 큰 지 함지에다가 또 서름서름 엮어가 이고 땡기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언자 그 함지를 이고 언자 떡 나섰는데, 어데 비가 마이(많이) 오갓고 비가 마이 와 다리가 다리를 놔야 물이 건너갈 그런 입장이라. 그래가 인자 그 마 막 그 물이 차

놓은께네 건너가지를 못해갖고 그래 가만이 남자가 보니 꼬치 큰 남자가 이기 고마 마 꼬치를 갖고 마 저건네 다리를 놔뻗어. 콧 걸치가 놔뻗어. 난께네 그놈의 다리가 얼마나 크는지.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나 피웠는 기라. 담배를 피우가 담배를 다리라꼬 툭툭 뚜드린께네, 고마 마 물에 마 빠져뻗어. 아이고 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난린 기라.

그런께네 함지 입은, 함지, 그 보지 큰 여자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거든. 자기 보지 들고 고 마 물에 그따다가 마 턱 내려갖고 물로 싹 빨아 다 들이빠더란다. 그라니까네 해결이 다 되더라.

[금정구 설화 141]

구렁이술을 먹고 문둥병을 고친 문둥이

신용영(여, 1928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잔치를 지내면 이제 뭐 거랭이(거지)들이 얻어먹으러 간다아니가? 근데 문둥이가 집 문둥이가 옥수로(많이) 얼굴이 마마 자꾸 헌디가 나서 문맹(문둥이)인데, 그래 인자 잔치집에를 인자 잔치 얻어먹으러 갔어. 가니까나 이 땅에다가 술을, 맥주를 묻고 그거 한다 아니가? 뭐든.

근데 종이로 이렇게 막아놔는데, 그걸 두고 구랭이가 그 저게 술 냄새를 잘 맡는 기라 구랭이가. 구랭이가 떡 술을 먹을라다가 빠져 죽었어. 빠져 죽었는데, 집문둥이가 그거 술을 갖다가서리 그거 열려놓으니까나 마 그 인제 생일 치고 잔치를 하는데, 한쪽에 그래가지고 있으니까네 실컷 퍼먹었어. 실컷 퍼먹고 방앗간에 가서, 저 방에(방아) 이래 디딜방애(디딜방아) 있어 옛날에 디딜방애. 그 가서 잠을 실컷 자고나니 문맹이 얼굴에서 뭐 벌거지가 새카맣게, 병을 낫았는 기라. 그 문맹이 집문둥이가 낫았어. 그런 건 그 구랭이 술이 거기 약이 될라니까나 그렇지. 그걸 먹고 집문둥이가 낫았어.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정구 설화 14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에나 뭐 육십만 육십금도 못 살고, 한 육십, 오십대 되몬 뭐 마이 살았다고 고마 가가지고 산에 가 땅을 마 구데이를(구덩이를) 파놓고설랑(파놓고는) 그 갖다고마 마 잡아 여놓고는, 메칠 만에 인제 가가지고 인자 밥 해다 주고 옷 갈아입히고 사뭇 사뭇 그러이께네 그래가 인자 고마 그 어마이를 지고 갔어. 고래장할라꼬. 아들이가 지게에다 나가 짚어지고 가가지고설랑(가서는) 땅을 파놓고 할매 그다(그곳에다) 주여놓고 밥도 갖다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며칠만에 가고 사뭇 그랬는데, 그래 남자 아들이가 가만 본께네, 이상하다 싶어가설랑 따라가 봤어. 그 고래장 하는 할매 손자지 그라몬.

따라가 보이께네 땅을 파놓고는 마 거 고마 나오도 못 하구로 고마 이래 채다보구로 땅을 짚으께(짚게) 파가 채다보구로 해놓고는, 고(그) 고마 밥 주고 옷 갈아입히고 사뭇 그라그든. 그래 인자 손자가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인자 따라오는데, 지게를 지고 오는데, 아버지, 지게 그 아바이가 내빠리거든. 산에 내빠리고 그래 올라 그러이께네,

“지게 그 다부(다시) 지고가시더.”

그 카는 기라.

“와?”

그 카이께네,

“나도 인제 뭐 엄마 돌아가시면 할매매이로(할머니처럼) 이래 고래장 시키는 거 이래 구데이 파고 갖다 하구로 지게 되(도로) 지고 가야 되죠.”

그 카더란다. 그리께네 아바이가 가만 생각해 보이께네, 참말로 내가 부모를 그리께네 내 아들도 고마 진직 받아가지고(본을 받아서라는 의미) 어마이 갖다 버릴라고 그랬겠다. 그런 소리를.

[금정구 설화 143]

은혜 값은 두꺼비[지네장터 이야기]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아가씨가 그 부모하고 마 여럿이 다 계시는데, 이 아가씨가 밥만 풀라(뜨려면) 그러면 두꺼비가 영금영금 아가씨 있는 데로 걸어 들어오는 게라. 사뭇 걸어 들어와도 그 보통으로 처음에는 봤는데, 나중에는 어데 있는 줄을 인제 목적지를 알라고 아가씨가 두꺼비 어데 나오는강

싫어가 인자 밥을 풀 적에 그래 멀리서 미행을 했다네. 하이께네 이 집 뒤에 디딤돌 안 있나? 바양(방) 디디고 들어오는 디딤돌에서 고 궁계(구멍이) 아래 있는데, 고서 디딤돌 밑에서 축담 밑에서 두꺼비가 나오더란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자는 밥을 줘야겠다. 우리 집에 왔는 짐승인데.’ 싫어가지고설랑 그래가지고 인자 밥을 사뭇 그래 좇어. 먹고 드가뿌고 먹고 드가 뿌고 이랬거든.

그래 인자 그 동네 한 해 한 번씩 아가씨를 갖다가 곳집에 갖다 바치는 기라. 그 안 바치몬 거 동네 고마 마 낭패가 되는 기라 고마. 짐승이 호랭이가 내려와가지고 마 아를 물고 가고 동네 마 쪽밭을 맹글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과년 찬 아가씨를 한 해 하나씩(하나씩). 곳집이라 그런 거는 뭐로 하몬, 사람 죽으면 행상 그 미고(매고) 땡기는 행상 거 갖다 영는 그게 곳집 이거든. 사람 죽으면 인자 생애를(상여를) 거서 재났다가 창고 문 자물차구 났다가(잠겨 놓았다) 그를 열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설랑 사람 이고 간다 아니요? 꾸맨(꾸민) 틀을 그다 신체(시체) 엮어가지고 산에 묻으러 갈 때. 그리 그 갖다 영어 논 곳집에 아가씨를 갖다 바치야 돼.

그래 바치는데 아만 뒹든 ‘니 가구로 내 가구로.’ 하이께네 안 갈라 커는 기라. 그래 인제 언지라도(언제라도) 인제 옛날에는 정월 열나흘날 그 동네 인제 공사를 하는 기라. 너른 집에 모여가지고. 그래 딸이 있는 집에 ‘니 가거라 내 가거라.’ 할 수도 없고 제비를 빼는 게라. 제비, 인제 요래 지푸레기를 요래 해가지고설랑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전부 쪽 돌아가며 딸 있는 집 재비를 쪽 빼이께네, 쥘 짜른 게(짧은 것이) 인자 고마 빼면 고마 마 그 딸이 고마 그 곳집에 가는 기라.

진 거 빼면 좋은데, 이래 막 손에 움켜지고 빼니께네 빼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 지래기(길이) 쥘 짧은 걸로 빼는 기라. 고마 그래 곳집에 걸린 기라. 그래 고마 이 집에가 고마 딱 걸려버린 기라. 뚜꺼비 밥 먹인 집에서. 그래가지고 마구 동네에서 참 울고불고 마, 어마이 아바이도 울고불고 딱 가는 날짜가 돼부러어. 가는 날짜가 됐다 떠났어.

울고불고 하고 떠나는데 그래 마구 대기를 해가지고 마 동네사람 곳집에 갔다 바치만 그 혼자 가는 거 아니라. 동네서 그 사람을 처자를 데리고 막 전부 대기해가지고 마 바양을 막 바래주고 하거든. 그래 곳집에 문을 열고 드가이께네, 인제 딱 드가가지고 동네 사람이 곳집 백에(밖에) 있는데. 곳집 문을 여이께네 지네가, 지네가 막 새퍼런 게 여게 대들보를 척- 걸쳐 있는데, 대들보, 집이라는 거는 제일 대들보가 집이거든. 지네가 큰- 지네가 막 그 대들보에 마 짝 고마 둘러있는데, 대들보하고 길이 똑같은 기라. 그래 둘러있는데 보이 막 빨-건 불을 고마 불을 써가지고 있는 기라. 그래 막 보이께네, 눈을 껌쩍 껌이께네, 빨건 불이 똑똑 띵기거든.

그래 인자 막 부모들이, 뭐 동네사람들이 드가거라 카고 문을 고마 딱 열어놓고는 문을 밖에서 잠가고 가는 기라. 그래 아가씨가 참 하도 가이없어가지고 ‘내가 이마침(이만큼) 커가지고 내 이래가지고 지네한테 내가 참 죽으러 들왔다.’ 싫어가지고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리 우이께네, 뭐가 문을 계속 호비 뜯더란다. 그래 이상하다 싫어가설랑 문을 열어주이께네 뚜꺼비가 따라 왔는 기라.

뚜꺼비가 따라와가지고 처자가 우이께네(우니), 뚜꺼비도 눈물을 똑똑 띠끼고(흘리고) 그래 울더란다. 울디만, 지네가 마 빨건 불을 써가지고 막 불을 똑똑 띠끼께네, 뚜꺼비가 고마 시퍼런 불을 고마 양쪽에(양쪽에) 고마 하도 시계(세계) 고마 고마 눈을 불쳐가(부릅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뚜꺼비가 불을 쓰이까네, 지네 불이 차차 차차 고마 불이 없어지는 기라. 쪼만큼 쪼만큼 없어지게네.

뚜꺼비가 워낙큼(워낙) 불을 디게(많이) 써버리이께네, 마 하늘에서 마 노성을(뇌성을) 울리고 마 청청벼락이 널찌는 소리 나고 노성 나디만은 고마 지네가 고마 벼락 치는 소리 나디만은 따양(땅에) 고마 치구부러지는 게 태산 봉두리같은(봉우리같은) 기 고마 대번 구부러지디만은, 고마 지네가 고 대번 죽어버렸어. 그 뚜꺼비 고마 불을 워낙 써가지고 독이 올라가가지고 지네를 죽여버렸지 뭐. 그래가지고 고마 아가씨가 살았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아가씨가 뚜꺼비를 등따리새에(‘등을 쓰다듬는다’는 의미),

“뚜껍아, 뚜껍아, 니 텃박(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니까, 뚜꺼비가 말을 문하고 눈물을 똑똑 띠끼더란다.

“뚜껍아, 뚜껍아. 니가 나를 살려줬이께네 인제는 내하고 니하고 인연이끼네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카매, 그래 인자 처자가 고마 뚜꺼비를 다부 데리고 집에 왔어. 그래 집에 오이 마 어른들이 죽으러 간 게 살아왔다. 그래 동네 사실대로 그리 얘기 해주이께네. 그래 고마 지네를 죽고부터먼은 해마딩 처자 고마 처자 바치려 안 받쳐 없어져 없어져뵈어. 지네가 죽여버렸거든. 그래 인제 그 이 처자가 뚜꺼비 사뭇사뭇 죽고 그래 낸장에(나중에) 시집 가가 잘 살았다.

[금정구 설화 14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뭘 뭐 확실히는 몰라도 뭐 대충은 그래 들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그거 인제 그거 저거 뭐라? 동냥이라꺼정(동냥이라고까지는) 그거는 그래는 못 하고, 왜 시주라 안 하나? 참 그 시주 시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 아침도 못 끓이먹을 정도가 돼가 아무것이(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시주 좀 하시오.”

그러이께네 아를 무르팍에 놓고 이래 추시리다가,
 “아무것도 우리는 아즉도 못 먹고 못 끼리,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카며 아를 추시리거든. 그래,
 “그 아무것도 줄 끼 없으면 우예노?”
 스님이 그카이께네, 그래 아 이름이 봉덕이랬거든.
 “우리 봉덕이나 주면 주지, 시주는 하나도 모(못) 하겠다.” [칭중: 아이구야.]
 이래가지고 마 고 아를 고마 데리가가지고(데려가서) 마 그 종에다가, 종 맹글 때 띠디리가
 지고 맹글었다고.

[금정구 설화 145]

여자의 음부가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모심기 점심을 인제 아줌마가 이고 가는데, 그래 인제 그 놈들이(일꾼들에게) 점심 주고 쉬는
 찰라에 이 안주인이가 까제(가제) 잡으러, 고마 치매도(치마도) 벗고 덩고 하이께 치매도 벗고
 옛날엔 인자 속바지가 뒤에 따졌거든. 요새는 팬티 고 다 맥히고 다 요 이래 이게 앞어도. 근데
 옛날엔 뒤에 이래 짝 벌리가지고 이래 헐치고(헤치고) 소변하고 그랬다 아이가?

그것만 입고 덩긴 하고 뭐 도랑가 누가 올라 싶어가지고. 골이 짙은데 계곡이 인제 도랑으로
 계곡이 엮드리가지고 까제 잡는다고, 이래 이래 인제 도랑 그 돌 재키고 잡아 올라가거든. 잡아
 올라가이께네 이놈우 호랭이라는 놈이 또 그 인제 산에서 내려왔어, 까제 자아묵는다고(잡아
 먹는다고) 자아묵는다고. 호랭이가 인제 또 앞밭로 가지고 자꾸 돌을 제키고 제키고 자아묵는다.
 자아묵다가 호랭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이래 보인께 아줌마가 엮드려가 있거든.

그래 호랭이가 가마 생각혀 볼 때는, 사람이 인생이라고 생긴 거는 전부 입이 옆으로 찌졌
 는데, 그 아짐마를 쳐다보이께네 입이 우로 치째져졌는 기라. [웃으며] 그래 호랭이가 [조사자:
 놀래갔고.] 세상에도 하늘 밑에는 호랭이가 썰 무섭고, 응 뭐라 일등 가고, 짐승도 잘 자아묵고
 사람도 잘 자아묵는데, 전부 입이 옆으로 찌졌는데 이 이거 무슨 짐승이가 입이 우로 치째노
 싶어가지고 고마 호랭이가 겁이 나가지고, ‘내가 제일로 호랭이가 겁나는 사람인데 내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도망을 가야 되겠다. 크일(큰일)났다. 입이 치째진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라꼬 절로(저리로) 올라가는구나.’ 싶어갔고 호랭이가 도망을 갔단다.

[웃으며] 그 소릴 들었다.

[금정구 설화 146]

여우로 태어난 외동딸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하도 이게 저그 부모들이가 내외간에 이래 사는데 아를 못 나. 당최 아를 못 나. 아를 못 낳아가지고설랑 그래 누가 있다가,

“산에 가가지고설랑 산불을 쓰면 자손이 한다.”

그래가지고설랑 [조사자: 산불예?] 산에 가 불을, 불을 인제 기도를 하는 기라. 그래 어딘지 뭐라도 하나 태달라고(‘아이를 점지해 달라’는 의미), 태달라고 자꾸 산불을 쓰고 기도를 했는데, 마춤 아가 태기가 있어가 놓으니께네 딸이라. 딸인데, 무슨 원수가 맺혀가 딸이 사뭇 차츰 차츰 크이께네, 딸이가 밤중 되어가 처자가 밤중 되어가 사뭇 나가는 기라. 그래 뭐 화장실에 간 줄 알고 부모들은 고마 그래 생각했는데, 그래 나중에는 어마이가 미행을 했어. 뒤에 따라가 자꾸 보이게 고마 산으로 올라가더라네, 산으로 올라가 고마 따라갈 수도 없고 고마 가마 놔뒀다 그래. 그래 며칠 만에 인제 가만 또 미행을 하이께네,

“후유!”

커모 들오더라. 그래 들오는데 보이께네, 명지를(명주를) 그래 모른다. [조사자: 알아예.] 누에 먹이고 명지, 옷 하는 명지를. 그거 뭐 사람 죽으면 뭐 그 명지에 옷하고 싸잡나? 그런 걸 마 푹푹 말아가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마리 밑에다 주 열어면서,

“휴우!”

쿠더란다. 그래가설랑.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대.

그래 내가 한 가지 빠자먹었다. 그래 아를 놓으니께네, 팽풍을 쳐냈는데 팽풍 넘에서 그거 인제 손을 요래 비비고 이래 어마이로 사뭇 넘바다 보는데 야시로(여우로) 비더란다 야시로, 야시, 애수로 빚어(보였어). 애수로 비가지고 본게 또 보다 내재는(나중에는) 고마 애수가 없어지고 딸뿐이고 딸뿐이고 그랬는데. 그 빌어가지고 낳았는 게가 고마 딸은 집에서 태어나도 사람인데 야시로 태어났어. 산불 썼는 기. 야시로 태어나가지고, 고마 아가 그래 돼가지고 고마 산에 가가지고 영장을, 고마 야시가 돼가 산에 가 영장을 자꾸 파냈는 기라. 밤중에 가가지고. 그이께네 자기 부모는 야신 줄은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래 몰랐는데(몰랐는데), 그래 계속 밤중 된연에(밤중이 되어) 되니까, 따라가 가가지고설랑 또,

“후유!”

하디만은, 보따리를 내려가지고 마리 밑에(마루 밑에) 주영고 주영고 사뭇 이리더란다. 그래가지고,

“에구! 까짓 널 저녁에는 꼭 따라가 본다.”

고 딸이 가는데 미행을 했어. 따라가이께네 차츰 차츰 따라가이께네, 고마 산에 밤중에 따라가이께네, 고마 딸은 없어지고 저게 뭐로 애수가, 부모 눈에는 애수가 고마 여우가 비이더란다(보이더란다).

여우가 팔딱 팔딱 뛰면설랑 마 그러디만은 뒀을 고마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자꾸 타넘으니께네 뒀이 딱 갈라지더란다. 딱 갈라지디만은 고마 여우가 드가가지고 마, 영장을 꺼내고 옷을 꺼내고 막 꺼내가 다 내버리고는 명지로 푹푹 말아가설랑 또 고마 오더란다. 그래 고마 어마이가 번개같이 집에 와가지고설랑 가만 모르는 걸이 있다이께 또,

“후유!”

그면설랑 또 옷을 말아가 사뭇 들오더란다. 그래가 ‘이 여자를 같이 사다가는 자식이라도 이거는 우리는 못 살았다. 아무리 해도 못 살았다.’ 싶어가지고 그래 영감 할마이 짚어.

“저걸 우리 자석이라고 낳는데 여우이께네 어짜몬 저럴노?”

싫어가지설랑 그래 이 여자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 옛날에 왜 뭐 아주 잘 아는 사람한테, 뭐 무수쟁이라 그러기도 하고, 점바치라 그러기도 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물으이께,

“그 당신들한테 자석이 아래(아니라) 원수가 태어나가, 여우가 태어났으니께네, 나중에는 인제 어마이 어바이 그 사람이 다 잡아먹을 챔이께네, 사전에 뭐 그리 하라.”

이카더라.

“사전에 그 무슨 방도가 있노? 갈차(가르쳐) 달라.”

고 이까이께네, 그러이께네,

“그 그런 뭉시기 있다.”

이카더란다. 그래 점바치가 어딘지, 이 어마이 어바이가 그런 방도를 가르쳐달라 하이께, 병을 세 개를 주더란다. 요새 바카스병 같은 걸 세 개를 주면설랑,

“요거는 바늘이 나오고, 요거는 물이가 나오고, 요거는 화약불이 나온다.”

카더란다. 그래 불원천리하고 고마 집도 고마 내버리고 고마 밤중에 고마 나 살라 갔단다. 오는데 마구 여우가 따라오면서러 마,

“엄마 아버지 왜 가노? 내가 다 자아먹을 낀데. 엄마 아버지 왜 가노?”

막 따라오더란다. 오는 걸 내재는 고마 막 바늘 먼저 뎨지라(던져라) 커더라네, 바늘 병을 막 뎨지이께네 바늘이 고마 땅바닥에 꼭 콩나물대거리걸이 깔렸는 기라. 그래도,

“따가라. 따가라. 따가라.”

하면서 막 따라오는 기라. 막 따라와. 또 내재는(나중에는) 고마 물을, 그 물을 병을 그거 뎨지라 커더란다. 물병을 고마 뎨지이께네 바다가 철렁철렁거는 데도 여우가 그 바다 위로

또 오는 기라. 그래 할 수 없어가 내재 마지막에 그 화약병을 땡겨버렸다네. 고마 오다 타죽 더란다. 타가 죽었다.

[금정구 설화 147]

삼천갑자 동방삭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삼천갑사(삼천갑자, 三千甲子) 동방석(동방삭, 東方朔)이, 동방석을 잡으라고, 뭐 이 조선 천지 마 옛날에 막 해도 못 잡아가지고. 그래 뭐 삼천갑사 동방석이 잡을라면 빨래를 써라고 (씻어라) 그칸다 커대.

그래가 그 아짐마가 빨래를 씨는데(씻는데),

“검은 빨래는 허영게 씻고 허연 빨래는 꺼멍게 씨라.”

그래 그카더란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짐마가 참말로 빨래를 한 보지기 이고 가가지고, 냇가 가가지고 빨래를 썼어. 씻는데 이놈의 검은 빨래는 암만 뚜드리고 허영게 씨도(씻어도) 허영게 안 나오고, 또 허연 빨래는 또 꺼멍게 씨도 암만 안 나와. 그래,

“이게 왜 허연 빨래가 안 나오노? 안 나오노?”

그카매, 자꾸 뚜드리다 그 하이께네 그래 윈 남자가 갓을 뒤에 휘딱 제끼쓰고설랑 신문을 한 장 들고 오더란다. 조우(종이)를, 문 바른 조우를 한 장 떡 들고오면서로,

“아따! 그 시내 참 참 서운네(시원하네), 한 잠 자고 가자. 한 잠 자고 가자.”

그카면서러, 그래 인자 갓을 쓰고설랑 휘떡 들루면설랑,

“삼천갑사 동방석이는 비개 없어도 난 잔다고.”

그카면설랑 그래 조우(종이)를, 초지(창호지)를 한 장 딱 깔아놨는데 들렀는데(드러누웠는데) 보이께네, 잠을 자고 코를 기리는데도(고는데) 이 조우에(종이에) 머리가 대야야 (달아야) 되잖나? 그 자리 비고 둘(드러) 누우몬 대야 되는데, 조우는(종이는) 땅바닥에 있는데 머리는 이 쭈서 올라와 있더란다. 고개를 펄쩍 들고. 그래가지고 이 아짐마가,

“아하! 검은 빨래는 허영게 씻고 허연 빨래는 꺼멍게 씨이라는, 삼천갑사 동방석을 나를 만넬라고, 내가 만넬라고 오늘 빨래 씨이러 보냈구나.”

그카더란다.

그래가지고 코를 기리고 자는데도 머리가 이쪽서 덜렁덜렁 올랐은 게, 그게 삼천갑사 동방 삭이 그놈을 잡았어. 그래 잡아가지고 뭐 나라 뭐 그래 뭐 데루고 갔다 그카더라. 나 고거백에

(그것밖에) 몰라.

[금정구 설화 148]

달강고개의 유래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아버지는 죽어뿌고, 돈은 많은데, 참말로 시숙이가 혼자 있어. 혼자 있고 계수를 (제수를) 인제 데리고 가는데, 청거천을 가는데, 저게 뭐라 떡을 한 짐 인제 지고 인제 지수가(제수가) 당의치마 입고, 초록 저고리 입고 앞에 따듬어가지고 가고, 시숙은 떡을 함 짐 짊어지고 뒤에 따라가이 하도 보이까네 색시가 너무너무 곱고. 자기는 일찍이 상처를 해부이께 네 여자 생각이 너무 나는 기라.

아이고 떡짐을 지고 가는데 이 꼬치가 일어나(일어나) 도저히 길을 못 가는 기라. [청중: 예헤!] 꼬치를 검어쥐고 잡아땡기도 안 되고, 이놈우 서가주 있으이께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가설랑 집 있는데 근처에 와가지설랑 기수는(제수는) 고마 집에 들여보내뿌고.

“아이고 기수씨, 먼저 가이소. 나는 여 마 조금 날이 덥어가지고 도랑에, 계곡에 낮이나 좀 씻고 쉬가지고 가는데.”

“예, 아즈바님 그라이소. 저는 먼저 드가께요.”

이래. 하도 꼬치가 일나가 이놈의 자식 계곡에 도랑을 건너가이 넓적한 바우가 거 있더라. 거 있는데, 그적세는(그전에는) 고마 하도 고만 마 ‘이놈우 뭐가 니가 나를 이래가지고 하소 싶어가 내놓긴 내놓고 보자.’ 그래 두루마길 꺼내가 이래 보이께네 아 고마 이놈의 자식이 고마 시들해지도 않고 사무이 뻗쳐가 있는 기라.

‘이거 사뭇 집에, 사돈집에 가노면 사무이 뻗쳐가 있으몬 대실수 하겠다. 이거 우야면 좋을노?’ 걱정을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그래 떡짐을 내려놓고는 고마 방구에다 내나놓고 고마 독을 이마한 거 가지고 고마 두드리 뿌사버렸어. 세 차례 때리인께 넓적탱이 돼부렸거든. 그러께네 넓적탱이 될 짝에 찍거렸단 말야. 찍해니라고 찍거니께네,

“에이거! 이놈우 자석아 것도 니 잘했다고 찌꺼미 대걸이 하나.”

이카더라. 그리고 이놈이 자빠져가 마 죽어버렸어. 지가 두드리가 죽어. 아 이놈우 사돈네가 오면, 뭐 참말로 결사돈이 온다고 뭐 배양을(배웅을) 나오고 기수가 배양을 나오이께네, 암만 찾아도 없는 기라. 그리 두루두루 살피다 보이 저 건너 바우에 갓을 쓰고 고마 떡짐 고마 그래 놓고 중우마(중우만) 까재껴놓고 두드리가 죽어버렸는 기라.

그리 기수가 대번 알아차릴 게아이라? ‘동서가 없인께 나를 데리고 오다가 흥분이 나가 이고 저래 만족을 못 풀고 고마 이래 죽었다.’ 싫어가지고 기수가 막 시숙을 막 두드러가며 울고,

“아이고 아주바니, 이럴 줄 알았시면 달라고나 그지 왜요. 이럴 줄 알았시면 달라고나 그면 주지요.”

그래가 그게 달랑고개가 돼버렸단다. 달랑고개.

[금정구 설화 149]

남편을 멀리 하는 아내 곁에 가는 방법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중동이, 운동이, 신동이, 삼형제였거든. 삼형제라도 저게 막 배 다른 삼형제라. 이웃 사람. 그래 삼형제인데, 배 다른, 참말로 뭐시기 형제데 남보다는 낫지. 남남간에 그래 있었는데. 이놈의 젼 말이 이 영감이, 운동이 영감이야. 할마이가 죽으라고 할마이가 아를, 딸 하나 나 놓고는 마 절대로 할마이가 고마 영감 모(못) 오구로 하는 기라. 하도 모 오구로 해가지설랑. 그래 인제 저 영감 밑으로 둘 영감이 있는데 얘기를 했어. 인제 가만이 할마이 명 잣고(명주실 잣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자네는 각방 안 씨나? 한테(같이) 자나?”

카이,

“아이고! 안즉싸(아직까지는) 뭐뭐 할마이하고 같이 자지, 뭐 할라 그리 각방 씨노?”

이라고.

“그 자네는?”

“아! 이 사람아, 나는 영자 나놓고는 절대로 할마이 곁에 못 가네.”

“그 뭐 방법이 있는데 갈차주까?”

근께,

“방법이 뭐로?”

카이,

“우리 서이 짜야 된다. 안 짜고는 안 된다.”

이래.

“짜몬 뭐 어떻게 하노? 뭐 자네가 얘기해 보라.”

카이,

“우리 오늘은 이래 가고, 내일어는 우리 둘이 이래 오거들랑 그래 ‘운동이’ ‘운동이’ 불러내 거들랑 사랑방으로 나오게.”

“그럼, 그래쎄.”

그래 이 영감이 인제 뭐라하면,

“저 님에 저 그 태장영감이라 쿠는 사람이 상체를(상처를) 했는데, 할마이가 하도 저게 뭐라 영감을 못 오구로 해가설랑 고마 아랫도리 살치 썩어가지고 마 그래 죽었는데, 장사가 널 모레 라네 운동이 자네 갈라는가?”

이카는 기라. 그래 이 할마이가 명을 부릉부릉 잣다 들어보이께네 하도 이상해가지고설랑 그래 명을 짓다가 중단해놓고 가만 들어보이께네 참 영그지기 짓기거든(말하거든)

“아이고! 저놈의 저 태장영감이 하도 영감을 모 오구로 해가지고 마 아랫도리가 썩어가지고 마 그래 죽었는데, 어제 죽었는데 내일이 장사라네. 그래 자네도 우리 가야 안 될런가?”

“그럼 가쎄. 장사 뭐뭐 친구찌리 가야 되지 되는강?”

그카는 기라. 그래 할마이 가만 들어보니 같잖은 기라. 지가 영감 모 오구로(못 오게) 했거든. 그래 인자 하룻밤 자고, 여사로 들고, 그래 고마 그적세는(그전에는) 고마 아침 먹고, 안날 오네. 영감 둘이 와가지고,

“운동이, 운동이.”

불러내는 기라.

“와요?”

칸께,

“아이고! 저 태장영감이 그거 오늘 장사 아닌가? 할마이 장사 아닌가?”

그래, 이 영감 모르는 것같이,

“와? 장사는 웬 장사? 뭐 어떤데?”

카이,

“아이고! 그 저 할마이가 하도 영감 모 오구로 해가설랑 아랫도리가 고마 썩어가지고설랑 죽었는데, 오늘 장사 아닌가? 자네도 맨 가야 안 되는가?”

카이,

“아이고! 가고마고 친구찌리 가야 되지.”

이카는 기라. 그리 영감 서이 딱 보내놓고는 고마 명이고 나발이고 뭐 잣는데 뭐뭐 고마 신경이(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귀에 들어오도 안하거든. 베루뻍에(벽에) 거울 딱 걸어 놔는 거 딱 빼기가지고는(빼서는) 아랫도리 속옷을 깐더라가지고 고마 거울로 고마 딱 놔놓고 걸터가 앉아가 보이께, 아랫도리 다 썩어가도 부한 게 찌가(끼어서) 버갸이 찌가지고, 그짜 오른쪽이 더 찌있네, ‘아이고 틀림없이 나 썩는다. [웃음] 썩으께네, 이거 영감 오늘 저녁부텨 이제 오구로 해야 되겠다. 인자 틀림없이 썩는다.’ 그래 인자 명 잣고마고 들랑날랑거며 그것만 달 아가, 그 썩는다고 막 걱정을 해가 들랑날랑거다니까, 영감이 갓을 씨고 집거리 들어오는데 마,

“어허험!”

고 들오거든. 들오이께네,

“아이고! 영전 아버지요, 오늘 저녁은 안방으로 들어오이소.”

“와?”

“아이고! 내가 여 짚을 튀겨 낫는데 출여 틀어놨는데, 새끼도 이 방에 꺾고, 요 오늘 들어 오이소.”

하네.

“어이구! 내 그 안방 갔다가 우엘라꼬 큰일나지. 몇 십 년을 그래 안방 출입을 안 했는데 드가면 내 큰일난다.”

“아이고! 내가 오라 커거든 오라 커소 고마. 뭐뭐 다 이미(의미)가 있는데.”

“이미가 뭐로?”

“아이고, 저 씨닭을 할라고 놔둔 암탉을 내가 잡아놨는데, 꼬아가지고설랑 요 우리 둘이 먹고설랑 고마 오늘 저녁은 여서 자소.”

그래,

“아이고! 자단께 내가 여 자다가는 큰일날라꼬. 큰일나서 못 잔다.”

카이께,

“아이고! 내가 고마 자라 하거든 자소.”

그리 양푼이다가 닭을 한 양푼이다 갖다 퍼다 주는 기라.

“그 먹으라.”

그이께네,

“내가 이래 먹어도 되나?”

하이께네,

“아이고! 자시소. 둘이 먹읍시다.”

그래 먹었다. 그래 먹고는 영감은 속으론 좋아 못 전디지(견디지). 못 전디는데 이 영감이 가면을 사양하는 기라. 뭐라고 사양하는 기라,

“내 저녁을 먹었으니 사랑방 가 나 책 읽고 오고.”

짚단은 들고 나갈라고 그러이께, 고마 바짓가랑이를 잡아나췄는 기라. 잡아나췄고,

“못 갑니더.”

고.

“와 이러노? 이 할마이가 각중예(갑자기) 왜이러노?”

“아이고! 그럴 일이 있어요. 고마 마 여 자시더. 그럴 일이 있는데.”

그래 몬 이기는 척하고 이려고 마 앉아가지고. 영감 옷목에 이래 삐씩이 들눕고 할마이 아랫 목에 들눕는데, 불로 끄고 들눕는데, 영감 다리를 고마 자꾸 잡아 땡긴다. 옷목에 자는 거.

“와?”

카이께,

“아랫목에 추운데 내려오소.”

“아이고! 내가 못 가지 큰일난다.”

할마이 잘에 절대로 못 가이께네 그리 알게.

“자네는 거 자고, 나는 여 자고.”

“아이고! 안 됩니다.”

영감 자꾸 속으론 좋은데 자꾸 버튼는다(버틴다). 버투이께네 그제서야 할마이 바른대로 얘기하는 기라.

“아이고! 저 등 넘에 오늘 장사 갔다 왔죠?”

“응, 장사 갔다 왔지. 신동이하고 금동이하고 전부 갔다 왔지.”

“뭐 어땠다던?”

“뭐 그런 얘기 자네 들어가지고 뭐 하노?”

하니,

“아이(아니) 들을 이가(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 꼭 해주소.”

이카는 기라.

“해야 되나?”

“하라.”

고, 그래 이 영감이 하는 말이,

“하도 그 태장댁이가, 영감이 할마이 절에 가이께네 못 오구로, 하도 못 오구로 해가지고 아랫도리가 썩어가지고설랑, 장산데, 우리 친군지 안 갈 수 있나? 그래 장사 보고 왔다. 와? 뭐 땀에 그러노?”

카이,

“아이 내 그게 아이고요. 오늘 저게 뭐 사랑양반들 서이 보내놓고요. 하도 내가 그래가지고 마 걱정이 돼가지고 마 의심이 나가지고 거울을 놓고 보이께네, 저짜 똥글레집짜으로(쪽으로) 더 썩었어요. 마 부연 게, 인개가 찌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설랑 막 땡기내룬다, 그래 막 대략 꺼올리고 땡기내루이 이 영감이 일을 시작 거든. 그래 그 딸아 영자는 똥글레집으로 보내버렸다. 보내고 나이, 그래,

“영감요.”

“와?”

“똥글레집짜을 시계(세계) 놀리쇼.”

“와?”

“그쪽으로 더 썩어가요. 마 그쪽은 형편이 없이 썩어가지고 마 부헌 게 마 더 썩으이께네, 그쪽으로 시계 놀리쇼.”

“그래? 아 그럼 시계 놀리지.” [일동 웃음]

“어어어어.”

거고 마 [웃으며] 자꾸 시계 놀리거든. 놀리고 그래 일을 쳤다.

“아이고! 영자는 똥글레집 보냈는데 마 저리 시키노.”

그래가지고 인자 영감 내보내놓고, 이놈의 날이 얼른 새야 이제 거울을 들봐다 볼 챔인데 영감 고 사랑방 보내놓고 날이 붕- 먼산 트는데, 거울을 딱 놓고 보니 다 씻게(씻기고) 하나도 없거든 병 고쳐버린거라. ‘아이고! 참 인제는 고마 이제 참 영감 저녁마다 오라해야 되겠다.’ [웃음]그래 영감하고 어불러가지고설랑 [조사자: 아이고 세상에.] 그래 고마 잘 살더라.

[금정구 설화 150]

여자 음부에 불이 붙은 사연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하도 나는(나이는) 많고, 일은 안 되지 해가지고결랑, 이 영감이 연구를 냈어. 정제에(부억에) 나가가지고 참지름을, 며느리 살림 살고 할마이는 일찍 죽어버렸거든. 그래 영감이 안죽, 그리 영감도 아니고 중책이놓으니 할마이 생각 나는 기라.

그래 며느리 아축알로(아침으로) 요리하는 참지름을 그 짜다 낳은 걸 갖다가, 고마 영감 할마이 암만 일을 시작할라 해 안 돼가이고, 참지름을 고마 그 메느리 모르고 뺏기가가지고 설랑 베루밖에(벽에) 걸어두고, 사뭇 그래 해가이고 재미를 봤거든. 봤는데, 이놈의 메느리가 참지름 병을 찾으니까 참지름 병이가 없는 기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온 데로 살피고, 시아바이가 어데 나간 새(사이) 인제 청소한다고 온 데로 마 살피보이께네, 참지름이 영감 사랑방 저 벽에 갖다 걸어놓고 옷을 그 덮어놔는 기라. 시아바지도 입거든. ‘요놈의 영감쟁이, 이따우 짓 한다고 참지름 찾으니 없다.’ 싶어가지고 고마 참지름을 뺏겨가지고 가쁘고, 라이터 휘발유로 고마 갖다 부다(부어) 고마 거다 걸어놔어 며느리가. [청중 웃음]

그래가지고 고마 라이터고 고 마 휘발유를 거 갖다 걸어놓으니까, 이놈우 고마 참지름 찾으니까네 없어가지고설랑 참지름인 줄 알고 고마 영감이 일을 시작했는 기라. 시작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설랑, ‘이놈우 뭐 참지름 뭐 왜 없노?’ 싶어가 하다 하도 할마이가 아프다고 나대 가이고, 그래 마지 못해 베루밖에(벽에) 이래 옷 걸어놔는데 들셔보이까 걸려있는 기라.

금께 참지름 뺏기가고 휘발유인지 모르고 거다 들어부엌는 기라. 들어붓고 고마 휘발유는 살에 따깝다 아이가? 드가만 보드라운 살에. 마 따가와 죽는다고 나대니까, 이놈의 영감이 라이터를 먼 불서 이래가지고, ‘그 왜 이러쿰(이렇게) 아픈가’ 싶어가지고. 할마이가 죽는다고 고함 지르니까, 그 휘발유를 부어놓으이께네, 죽는다고 고함지르이께네, 라이터를 먼 데서 탁 이래 켜이께네, 고마 마 불이 그 올라 붙어버렸는 기라. 붙어버려 화재 나가 고마 찢금 찢금 다 마 타버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일로, 고마 할마이가 마 화재를 봐놓이 방안에 펄떡펄떡 뛰내 내

죽는다꼬 막 방에 문꾸장지(문지방) 넘는 기라.

“아이고 큰 병원도 아닌데 뭐, 여 옆에 저기 좀 아는데, 뭐 한약 비스듬한데(비슷한데) 그따나(그곳에나마) 함 물어보러 가자.”

고, 그래 인자 할마이를 펄쩍펄쩍 뛰는 걸 억지로 인제 막 끄안고 지고 마당에 나서가지고, 갈라코 나설나니까네 아들이 나오가 오더라네.

“아버지, 어데 가능교? 이 밤에요.”

“야야, 너 어매 배가 아프다고설랑, 저짜 저 뭐 그 사람, 그 뭐 학자 집에, 큰 뭐 그래도 저 뭐시기 병원은 아니라도 의원아니라도 거 가 물어보구로 갈란다.”

카이,

“아이고 아버지, 밤에 그 못 갑니다. 못 가고. 마 아버지는 방에 드가이소. 엄마 고마 내가 데루(데리고) 감시더.”

데루 가가지고 아버지는 못 간다. 그래 어마이 둘러업었다. 둘러업고 인자 그 학자집에 턱 갔다. 검사를 제껴놓고 하이께네 이 학자 영감이야, 의사 영감이야 뭐러 쿠나?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니고. 화재를 봐도 디게(많이) 봤네요. 화재를 봤니더만은, 이거는 병도 없고요. 화재 본 거는 좀 아무는 약이 있는데.”

그러면설랑 그래 약을 주더란다. 그래 발라가지고 왔는데 마구 그놈 아파가지고 열매나 문구 장지를 넘고. 그래가 영감이 열매나 부끄럽노 그자? 아들이 있는데 화재를 봤다 카이까네, 아들은 암 그리되면 아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 참 오더란다. 와가주고, 내재는(나중에는) 고마 그래 휘발유를 안 들어붓고 꽤않게 그렇게 하더란다. 그래가 인제 그 별명이 되어가설랑 ‘라이타 보지 돌만 열어몬 팍팍팍’ [일동 웃음] 그러고, 옛날에 그랬다. 그래 아들이 동네 땡기면 설랑, ‘라이타 보지 돌만 열어몬 팍팍팍’ 하고.

[금정구 설화 151]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계수가(제수가) 짚을 잡고 날로가 쳐내는 기라. 잡고 쳐내는데, 짚을 빨리 쳐내라 쿠면 그래 들을 낀데, 뭐 그 뭐라 허대. 그건 잊어버렸다.

“기수씨도 씹 주소. 형수씨도 씹 주소. 엄마도 씹.”

그 말을 씹 주소. 혀가 짜르이께네 짚을 쳐내라는 말을 가지고,

“씹 주소. 씹 주소.”

그카더란다. 그래가 이웃사람이 들어보이께네, 아이고 참말로 혀가 짤라노이, 혀짜래기 말해노이께,

“짚을 쳐내 짚 주소. 짚 주소.”

그카면 될긴데,

“씹 주소. 씹 주소.”

그카더란다.

[금정구 설화 152]

개똥 보리쌀과 지렁이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인제 시어머니하고 신랑하고 살았는데, 신랑은 참말 옛날 학교를 모르고 한문 학자, 선비 집에 가가지고 한문을 많이 배와가지고 서울에 인제 과계 보러 갔는 기라. 그래 말을 타고 과계 보러 그래 보내놓고 시어머니가 뭐 끓여드릴라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눈이 어둡어 가지고 이래 들앉아있으니, 그래 메느리가 참 골목에, 물이따나 짚이준다고 샘에 가서 보지기 (보시기) 이고 물 이러 가다이께네, 울타리 처난 밑에 보리쌀을 마 개가 똥을 뉘가지고, 보리쌀을 어데 가서, 옛날에는챙이에다가챙이라 쿠몬 모른다 젊은 사람은. [조사자: 알아요. 체.] 이리 푸는 거, [조사자: 네 네, 아 까부리는 거.] 까부리는 거. [청중: 체이.]

그래 보리쌀을챙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땀겨가지고 디딜 방앗간에다 이래 그 칭이를 이리 떡 걸어놓는다 보리쌀을 담아가지고. 그래 개가 고마 거 가가지고 뭐 사람도 벼락(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개가 거 보리쌀을 실컷 먹어버렸는 기라. 실컷 먹고 울타리 밑에 똥을 누노이 비가 와가지고 허실허실 불어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보지기를 고마 내라놓고 ‘저게라도 집에 가져가서 써가지고 어머니 밥 해드리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 인제 그걸 바가치가 끌어담으이께네 지렁이가 한 마리 또 올라오더라네. 그래 지렁이하고 하묵 보리쌀하고 끌어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매 썼어(씻었어). 써가, 삶아가, 밥을 해가지고 마침 그래 할라고 그라이 신랑이가 서울에 과계 보러간 사람이 땡기러 왔어. 그래 신랑도 채리드리고, 인자 모자분이 인제 한채이(같이) 밥을 채리드리는데, 그래 이래 뒤적여보이께네, 신랑이가,

“이게 밥도 아니고, 이게 뭐로꼬? 지랭이, 이 지랭이 하고 이게 밥도, 이게 보리쌀밥이 이게 무슨 밥이 이런 밥이 있노?”

신랑이 그카이께네, 그래 여자가, 메느리가 지가 미리 밥을 해가 미리 먼저 먹어봤어. 먼저 미리 주면 죄 많다고. 그래 메느리가 먼저 묵고 인제 밥을 채려드렸는데 그래 시어마이가 눈을 고마,

“아이고! 이게 밥이 아니고, 마 이게 보리쌀이고 지랭이가 있네.”

그카니까네, 시어마이가 고마 눈을 번쩍 떠버렸어. 아들이 그카이께네 [청중: 놀라가지고] 그래 고마 눈을 번쩍 떠버리니까네 병 고치고, 이 여자가 효자 자식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상을 탔단다. 국가.

[금정구 설화 153]

오는 손님 막으려다 망한 부자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부자는 부잔데, 큰- 부자라. [조사자: 어떤 부자인데?] 옛날에 그 부자가 인제 호박골 참 들은 부자라, 팔부 부자라고 있었거든. 그 큰 부자가, 부자는 부잔데, 눈코 뜰 새 없어. 손님이 너무 와. 질로(길을) 가는 거지도 들어오고, 과각쟁이(과객)도 들어오고, 하다 너무 들어와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기라.

그래 참 어떤 과각쟁이가, 마 우리 보기엔 과각인데, 그 사람이 어사라, 어사. 어사 출동을 했는데, 어사가 지내가다가 참 이 집에 부자집에,

“하룻밤 유해 갑시다.”

들렸어. 그래 인자 안주인이가 하는 말이 그래,

“아이고! 참말로 하리밤(하룻밤) 유해 갑시다.”

그래 이카이께,

“네, 주무시고 가쇼.”

그래, 아침저녁에 해가지고 인자 얻어먹고, 어사 출동 서울서 과게 보러 갔다 인제 이 집에 하룻밤 자고 인제 들래가지고 갔는데,

“참 이게 밥은 먹고 부자질 하고 살아도, 거러지하고 질로 가는 행인하고 과각쟁이하고 너무너무 와사가지고 마 내가 너무 고달파가 죽겠다고. 농사 질 여가도 없고 고마 죽겠다.”

그카이께네, 그래 어사가 하는 말이,

“꼭 그라나?”

카이께네,

“그럼 방법을 갈차줄까?”

이카더란다.

“꼭 그리도 방법을 갈차주소.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으이께네, 참말로 갈차주소.”

이카더란다.

“그러면은, 당신이 여 대문 열고 맞은 편에 저 방구가(바위가) 있죠?”

이러 카더란다.

대문 맞은 편에. 그래 참 이 집에, 요 냇가에 요 상간에 있는데, 대문만 열면 맞은 편에 방구가, 똑 무슨 짐승 대가리같이 쭉- 나왔는 기 이리 있는 기라. 그래,

“있다.”

그카이께네,

“그걸 내일 가가지고설랑 뚜디리 뿌사뿌든지(부수든지), 파내뿌든지 하면은 고마 인자 손님 하나도 안 오고 이제 썩 끊애뿔거라고. 그래 나를 원망은 하지 마라.”

고, 인자 어사가 그카거든.

“아이고! 원망은 뭐요? 뭐뭐 나는 인자 사람에 치여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 참말로 과각쟁이가 하릿밤 자고 보내고는 마, 그 이튿날 마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쇠 지렛대 하고 마 돌깨, 돌깨는 그 돌깨쟁이 하고 막 데리와가지고, 막 이 짐승대가리같은 거를 막 지렛대로 떠가지고 막 뿌사가지고 마 내루고, 밑에 뿌리 막 파내가지고 냇가 구불러 내려 부렸어.

그래 내랏디만은 고, 마 차차 차차 이놈의 자석 고마 마 눈을 한 떼기 팔아먹고, 두 떼기 팔아먹고, 자꾸 팔아먹어부이꺼네, 고마 사랑어른들도 뭐 우예 고마 신경을 써가 돌아가시고 고마 집이 뼈득 뼈득 말아가더란다. 그래 말라가이 내재는(나중에는) 집도 팔아먹게 되었는데.

그러이께네 고마 낸주(나중에) 없으이께네, 손님이 썩 끊애뿌고 집이 고마 망해뿌더란다. 그 방구가 이 집 부자질 하거로 해졌어 사뭇. 대문만 여문 그 방구가 그 자꾸 복이 드가구로 맹글었어 그래도. 손님 마이 오고. 그런데 그 방구 파내뿌고는 집구석이 망해버렸어. 그래 고마 망해뿌이 손님 갈 택이(턱이) 있나 뭐라도. [조사자: 그게 복이었는데.] 그래 그게 복이랬단 말이다.

[금정구 설화 154]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등금장사가(등짐장사가) 영덕으로 소금 사러 갔거든. 옛날에는 영덕에, 바닷가에 소금난 적 없었대요. 그래 소금 사러 갔는데, 차는 없고 소금을 한 가마이 지고 집에 오니까네, 오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었어. 날이 저물어가지고설랑 집도 없고, 벌판에 산길을 가다보이께네, 산길을 가다보니까네, 날이 저물어가 자게 됐어. 그래 산에 인자 자리를 잡고 잘라거이까네 뫼가 (묘가) 쌍뫼가 요래 있더라네. 이짜 매양 이짜(여기) 쌍뫼가 이래 있는데, 고마 날이 찬바람이 불고 가을쭙 되었는데. 그래 바람 좀 들어라고, 가운데 요서 인제 소금 짐을 내라놓고 들누워 있었어. 들누어 있으니께, 밤중 되니까네 고마,

“아이고나, 제 보러 가보자. 제사 어떻게 지내노 가보자.”

카며, 뫼가 딱 갈라지더라. 나오는 거 보니 빨간 당의 처마 입고 새파란 초록 저고리 입고 새 새뎅이 나오더라. 나오디만 제사 지내는 데 쫓아가더라. 가디만 한참 있다 오는데 뭐라 하시고 하니,

“망한년들 그년을 갖다가 밥으는 방구(바위) 밥이고, 나물은 구리를(구렁이를) 막 해가지고 하고, 메밥을 뜯다는 게 그릇 밑에 행주를 넣어가지고 메밥을 뜨고. 그래가지고설랑 하도 입을 놀리고 제를 채려가지고, 내가 아를 고마 구석에 그 백에(밖에) 어마이 절에 나와 있는 그, 아를 구석에 떠밀어버리고 왔다.”

이카더라. 그래,

“내가 제를 먹지도 못 하고 왔다.”

이카더라. 그래 등짐장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카고, 그리고 먼동이 들어가지고 이래 보니까네, 그래 어떠한, 그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네,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기와집이 있는데 연기가 물물 나더라. 인자 그래 그래가지고 한 이십 리를 걸어야 집에 갈 판인데, 그래 고 밑에 내려오이께네, 기와집이 있어가지고 집 곁에서 주인을 불러내가지고, 그때는 뭐 참 요새는 아내로 그러고 그랬지만은,

“주인 있습니까? 주인.”

그래 아줌마가 쫓아나오더라. 나오는 거로,

“아이고, 여게 내가 요 소금을 지고, 등금 참 소금을 사가지고 가다 날이 저물어가지고 여 내가 아직(아침) 요구를 좀 할 수 있나?”

그카인께,

“아이고! 요구고 마고, 우리는 엿저녁에 제사를 채렸는데 아가 막 구석에 엮어져가지고 온 몸디가 고마 타버려가지고 훌쩍 벗겨져가지고 정신이 없너.”

그카더라.

“아, 그래요?”

그래 이 남자는 하문 다 알고 듣고 왔거든.

“아, 그러몬 그 내 방법을 갈차줄 챔이께네 그래 요기를 좀 할 수 있나?”

카이,

“들오라.”

카더란다. 그래 이 사람이 거 드가가지고설랑 얘기를 그래 했단다.

“그래 참 제사는, 어느 분이 제사를 지내면, 그 받아 자시는 어른은 어느 분이 받아 자시노?”

그카이께네, 그래,

“내가, 우리 그 제사 지내는 그는 큰덕인데, 자석도 못 놓고 열매 안 살아 당채 밑에 돌아 가셨고. 그래 내가 들와가 자석을 놓고 사는데, 전다지 새덕이 초록 같은 걸, 참 만날 제사, 제사 그래 싸이께네 바쁘기나하고, 그래 내가 좀 젓밥을 지으면설랑 입을 좀 놀렸다.”

그카더란다. 그래가설랑,

“그렇게요.”

인제 들었다 소리는 안 하고 그렇게요. 그러면은 그래,

“저 아 불에 디인(데인) 거, 뭐 약 약을 좀 가르쳐 달라.”

이카거든. 주인 할마이가.

그래 탄 기 없고 냇가 가문 청태, 새파라이 이끼 안 있나? 그걸 이끼를 걷어가지고 진흙을, 빨간 거 산에 가면 빨간 진흙을 파내가지고설랑 이끼를 이래이래 해가지고설랑 형겅에다 날아가지고 천에 몇 번 처매주면 이내 물이 그칠 꺼라고. 그런데 인자 주인이 그카이,

“그렇지. 내가 어제 날이 저물어가 산에서 잤는데, 산간에 미(뫼) 상간에 가운데 자다보이께 새덕이가 나오는데, 갔다오디만은 나물은 구리고 밥은 방구밥을 했는데, 입을 어떻게 놀려 났는지 밍어가지고(미워서), 내가 아를 불에 떠밀어버리고 왔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

카이,

“아이고! 선생님 그래요.”

“그치요? 그래 자석 못 놓고, 그 전천데(전처인데) 착실히 지내주면 아짐마가 복을 받을 낀데, 그래 입을 놀린 틈바구에 당신의 아가 났다(데었다).”

그카니께,

“아이고 그렇지요? 그럼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착실히 제를 지내고 안 그럴게요.”

그카더란다. 그래 인제 참 앞으로는 그래 안 하고 잘 살고, 인제 그 사람은 얻어먹고 집에 가고. 그런 소리는 들었어.

[금정구 설화 155]

욕심 부리다 곡식을 잃은 노부부

김영자(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농사를 마이(많이) 지었거든. 영감 할마이 농사를 마이 지어놓고, 나락을 포개놓고 도장에다 마이 열어놓고는 겨울에(겨울에) 먹기에 아깝은 기라. 그래가 영감 할마이 의논했어.

“아이고 안 될시더. 영감 와 아무래도 우리가 까먹어 버리면 힘이 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안 되고, 고마 겨울에 나가가지고 동냥지처럼 거러지매로(거지처럼) 열어먹고 봄에 들오자. 봄에 들와가 이 나락을 갖다 우리 식량하고 농사 밀천 하구로 봄에 들오자.”

그래, 그래 인자 고마 갔어. 열어먹으러 나갔어. 나가가지고 한 서너 달 열어먹고 집에 들오이께네, 문을 딱 여이까네, 참새가 한 마리 포로로 날아가디만은,

“아이고! 인자는 고매 있다(그냥 있다).”

그카더라는 거야 [조사자: 고매 있다?] 고매 있다. 그카면서 참새 그카면서 날아가더란다. 그래,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로?’ 싶여가지고 그래 나락을 인자 농사 지어 놓은 거를 문을 여이께네, 요 새가 고마 다 까먹어 하나도 쪽댕이, 빈 쪽댕이만 있어. [청중: 예헤이, 새가 알맹이 다 까먹었다.]

그래 빈 쪽댕이만 있는데, 영감 할마이 자는데, 콧구녕(콧구멍)에서 뭐가 요런 게 들날날랑 들날날랑 막 요런 게 쥐겘은 게 들날날랑 그러면서 숨어 있더란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콧구녕에 무슨 놈의 쥐가 영감 할마이 콧구녕 쥐가 들날날랑 거리노? 이상한 일이 있다. 영감 안 그렇소?”

“글썸나.”

그래가 또 뽀르르 나가디만 들날날랑거러. 그래 마지막에 세 번째 들와가지고는,

“고매 있다”

이카더란다. 또 쥐가 ‘고매 있다’ 그카는 거는, 인제 새나 쥐나 그 뭐로 말하자면 욕심을 너무 채리면은 식물이 끊어지는 기라. 그 농사 지어 놓은 거, 겨울에 가만 고 다 찌가 나락에 쌀을 해가 뜨신 밥 짙이묵고 가마 앉아 있으면 또 농사지으면 되는데, 죽도록 농사 지여가지고 아깝다고 안 먹고 놔두이께네, 그래 사람이 내 욕심을 너무 모간지까지 채이면은, 가마이가 차문 고마 식물이 없어지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제는 고마 우리가 다 먹고 가니까네, ‘너저는 고매 있다(그냥 있다.) 이게 그기라. 새고 쥐고 너저는 ‘고매 있다.’

“우리가 저기 다 까먹었다. 너 농사 지이가지고 가는 거, 너는 이제 고매 있다.”

그카고 새가 날아가고 쥐도 그러더란다. 콧구녕 들락날락 거리고.

[금정구 설화 156]

선녀와 나무꾼

황성래(여, 1938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산에 나무를 허로 갔는데, 그 선녀들 예쁜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빠가지고서 그 선녀들 옷을, 벗어서 그것 옆에 놓 옷을 감춰버렸다 고네. 한 사람 것을 감춰버린 게라. 그리 나중에는 나무꾼한테 들king게, 선녀들은 인자 서인데, 둘은 올라가빠리고 하나는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거시기하고, 못 입고서나 못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인자 그 나무꾼이 인자 델고 와서 저희집에서 사는데, 아를, 저 하나만 낳으면은 그 하나 업고 얼른 올라가빠린다고서나 하나 낳고, 둘 낳고, 서이 낳으면 인자 못 올라, 못 데리고 간다고 서이를 낳는다. 나중에 살다가 그 나무꾼이, 선녀가 애기를 하나는 업고, 하나 양쪽에다 찌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리백에 안 들었어.

[금정구 설화 15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분엽(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스님이 시주를 갔는데, 이 여자가 인자 자식을 못 낳다가 기도로 기도로 해가지고 인자 아를 하나 낳는데, 스님이 와가 시주를 하라 카이,

“나는 시주를 할 게 없다, 내가 시주를 할라몬 이 딸이나 시주할까, 자숙 하나 있는 거 이기나 시주할까 문 한다.”

스님이 시주하러 댕기기 때문에, 뭐라 할라몬 에밀레종 그거 만들라꼬. 시주를 해가, 인자 거두가지고 인자 하는 긴데, 종을 만들어 치문 탁 깨져버리고,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만들어 놓아 한 번 치문 탁 깨지빠고, 어느 그 뭐라 카노? 산신령이라 카나? 뭐 또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땀에 이러노?”

스님들로 물으니까는,
 “스님들이 땡기면서 뭐 들은 소리가 없느냐?”
 이리 인자 하니까는, 어느 한 스님이,
 “어데 어데 갔드마는 공을 들이가지고 딸로 하나 낳는데, 내맨 우리 집에는 줄 게 없고,
 이 아나(아이나) 시주 하든 시주할까 시주 할 게 없다.”
 그 소리를 들었다 이라니까는 그레가지고 그 아를 데꼬(데리고) 가가 녹여가지고 씻물에
 녹여가 종을 만들어 논께 그 아가 한이 돼가 어미야, 엄마 땀에 죽었다고,
 “에밀레~, 에밀레~.”
 한다대.

[금정구 설화 158]

물 길는 여자 도깨비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도깨비,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무를 한껏 소 싣고 가가지고 팔고 오는데, 여자가,
 예쁜 여자가 하나 빨간 옷을 입고 요래 물로 풍당풍당 푸드라 카네, 그레가지고 그 가 물로
 안 목으만 인제 도깨비한테 흘릴 꺼고, 물 한 사바리 줄라 켜어. 그레가 쥐가지고 한 사바리
 (한 사발) 마싯단다. 마시고 그레가지고

“나도 오라버니 집에 가야 된다”

캅서, 막 따라올라고 그레 애로 쓰더란다. 그레가 소 등드리에다 실었다 카네. 소 등드리에
 다가 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러 내라노이께네, 빗자리 드란다 빗자리. [조사자: 어어.] [청중
 웃음] 정지(부엌)빗자리란다, 정지 빗자리. [조사자: 도깨비가 여자 도깨비인가바예?] 그레
 여자 도깨비지.

[조사자: 여자 도깨비는 또 처음 듣는다.] 어. 그레가지고, [청중: 정지빗자리 이전에 여자들
 못 깔고 앉게 했다.] 정지비, 여자들 누가 맨소(맨스)하면 깔고 앉지? 그게 도깨비 된단다
 묻으마는. [청중: 그레 여자들 젊은 여자들 빗자리 문 깔게 했다.] 어. 그게 저저 돼가지고,
 [조사자: 여자도깨비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그레가 마 오빠야 쿠고 내가 따라간다
 카고. 그레가 마 소 등드리에다가 실었다 카대. 실어가 마 꼭꼭 묶이가지고 그레 집에 가서
 내라노이께 빗자리, 정지빗자리 꼭꼭 묶이가지고 또 왔더라 안 카나. [조사자: 세상에.] 그레
 그 그냥 놔놓으은 흘킨단다, 그레기 때문에 가서 물 한 사바리 줄라 캐서 묵고 그레 인자

올라 카이께로.

[금정구 설화 159]

사람 잡아먹는 늑대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우리 그 촌에, 저 저 문경에 예천(예천)이거든, 문경 저 경북에 예천. [조사자: 어 문경, 아 예에.] 예천인데, 그 살며는, 내가 저저 우리 엄마가, 고 집이 저저 한 채 있고, 요 밑에 요 두 채 있고 이랬거든. 그래 그서 인제 그거 한다. 물로 이고 오다가 단지 옛날엔 단지가 물 열었거든(물을 길었거든). 물로 이고 오다가, 아가 영강(워낙) 내가 약했다. 호린하이 약해가지고, 물로 이고 오다가 마 바람이 썩- 불어가. 물동우(물독)꺼지 마 아껴지 갔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물동우 마 반 탁 갈라져가지고, 어매한테가 뚜드러 맞을까 싶어가 물동우 그걸 주 와질고(집어들고) 그래 마,

“엄마!”

카고, 울고 들어오이께네, 우리 엄마가 빗자리 저저 부엌에서 그거 부지깽이가 불 때다가 부지깽이 불이 붙었는데, 막 따라오는 거라 펄라꼬. 그래 따라와가지고 그래 인제 어디갔나 하믄, 저 산에 뒷등에 거는 마 우리 동네 거는 마 늑대가 버글버글했거든 그때는. 늑대가 마 산에서 울고, 저 방에 불 때면 이래가 들바다보고(들여다보고) 늑대가 이랬다. 늑대가. 그래가지고 마 우리 엄마가 뚜드러 패가지고 뒷등에 가 놓여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가,

“주식이는 어디 갔노?”

카이,

“주식이 그년의 가시나 내쫓았어요.”

그년이 지집아라 칸다 그는, 가스나라 안 칸다.

“그년이 지집아, 물동우를 깨가 내쫓았다.”

고 이라거든. 그래가 아버지가 등불 들고 마 온데 찾아땡기이 뒷등 그서 잠이 들어 자더라 안 카나. 그 앞에(옆에) 마 늑대가 버글버글 하는데, 우리 클 적에 늑대 만애타(맏았다). 늑대 버글.

그래가지고 내가 아(아이)를 저저 동생을 네 살 먹는 거를 업고, 아나 두 살 먹는 거 업고, 네 살 먹는 거 글루고(걸게 하고) 이래가 감 주으러 갔다(아가)가 감나무 밑에. 감 주으러 가이께로, 늑대가 한 마리 실- 나오더라꼬, 나오는데 그래가 이래 들바다보이께로, 나도 간도 크지

들바다보이께 새끼로 막 개새끼매롬(개새끼처럼) 한죽없이(끝없이, 많다는 뜻) 낱아가 있더라고. 그래 나아가(낱아) 있는데, 그래가 실- 나오다 드가고 실- 나오다 드가고, 그 새끼 안 낱았으면 우리 다 죽었다 그서. 물어 징군단 말이다.(물어 죽인단 말이다.) 그 늑대는 와 그렸나 하문(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갔다가 키대로 넘었다가 넘었다가 넘었다 이라문 나자빠지면 그때는 자아먹거든(잡아먹거든). 서가 있는 건 문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청중: 혼을 빼가지.] 혼을 빼가 그래 자아묵거든.

그래가 나가가지고 아 업고 큰 동생 그거는 마 내뺄어놓고(내버리고) 자아묵든가 말든가 내뺄어놓고, 작은 거 업은 거 그거만 업고 마 새가 빠지게 왔다아이가. 오이께네 우리 동생이 지금 팔십 살 다 묵고 그렇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 한다 제사 가며는,

“누나는 그때에 나는 죽으라고 내뺄어놓고, 작은 동생만 업고 다알라고(도망하고).”

캐사며 그 얘기 한다 지금. 그래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저 모산동네 오빠네들 하고 몽디이가지고 잡으러가이께네 마 어디로 마 싹 앵겼는지(웁겼는지) 마 업써(없어). 봤다꼬, 사람 봤다꼬 마 싹- 앵기뿌리고(웁겨버리고) 없는 거라, 그래 늑대 그 새끼를 낱아가 못 나왔는 거라. 그라이면(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잡아먹혔지. 어 새끼 나아가(낱아가) 문 잡아먹었다.

[금정구 설화 160]

아이를 구워먹은 문둥이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시집오며는, 삼 년이 넘아가야 친정을 가거든. 우리 동네 그 시집을 와가지고 삼 년이 되도, 삼 년 됐는데 아로 하나 낱아가지고, 삼 년 동안에 친정 간다고 얼마나 좋아하노? 그러문 아를 둘러업고, 삼 년 됐으면 그 질이(길이) 변한단 말이다 질이. 전에는 요 질로 왔는데, 시집 올 적에는 조(저) 질로 오고 했는데 질이 변해가지고.

아를 업고, 좋다고 마 친정 간다고 가는데 문디가 열 명이 나타나더란다. 열 명이, 문디가 짹- 나타남서러,

“아(아이) 내놓으라.”

카더란다, 그래 아로 왜 내놓으라 카는가문, 불에 꾸어 묵는다 카대, 내놓으라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로 똑 젓 믱이가지고 주끼요(줄께요). 젓 믱이가 주끼요.”

카며, 해나(행여나) 누가 오는가 싶어가 젓 믱이가 주끼요 카, 그래가지고 젓을 다 믱이도

안 오더란다. 안 와서러 상주가 하나 헐레벌떡 헐레벌떡하고, 상주가, 상주도 그 길로 잘
문 들었는 거라. 그래 들어오이께네,

“아이고! 오빠요.”

카이께로,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오빠라 카노?”

마 이래 됐는 거라. [청중: 아이고, 오야! 할 낀데.]

“오야! 니 가자.”

카면 될걸,

“니. 나를 언제 봤다고 오빠라 카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뺏어가지고 그 애미 보는 데서 한작불(장작불)에 꾸어(구워)
묵꼬, 문디가 열 명이 열 명이 꾸어 묵꼬. 그래가지고 그 색씨는 갔다 카더라 저거 집으로.
그래 됐다. 그런 것도 다 있다.

[금정구 설화 161]

말 잘못 해 곤혹을 치른 여자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여자들 몇이 녹을 해가지고, 문디 고구매밭에 고구마밭 매로 갔다 카대. 가이께 그 여자
가 뒷도 모르고 인제 씨부렀는 거라, 하이고 고구매를 캐문(캐면) 하나 캐며, 이만 한 거,

“이거 또 문디 좇겸다.”

했는 거라 그서.

“이거 또 문디 좇겸다.”

이래놓께네, 그래가지고 고 세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을 부르더라 카네. 불러가,

“내일 하리만(하루만) 더 나오소. 더 나오믄 내가 돈을 마이(많이) 드릴끼요.”

이렇게 됐는 거라. 그래가지고 고 사람만 나오라 카는 거라. 돈 마이 준다고. 그래 그 뒷날
갔다 카네. 가이께로,

“니 문디 좇맛 함 봐라.”

카고 마 창고 드가가 마 얼마나 조지났든지, 좇을 내가지고, [청중1: 귀신인데 뭐 한다고
따라갔는고.] 어 좇을 내가지고, [청중2: 돈을 더준다 카이께.] 돈을 마이 주고 다른 사람 안
쓰고, 그거 해놓이께로 그래 마 좇을 내가지고,

“니 문디 좇 함 봐라. 맛 봐라.”
감서 마 조짚다 조짚어. 그래가지고 그래 됐다.

[금정구 설화 162]

자기 새끼 예뻐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큰엄마는 그래가지고 나물 캐러 간다고, 나물 바금지(바구니) 메고 나물 캐러 갔는데. 가이
끼로 방구 밑에(바위 밑에) 마 호랭이가 새끼를 내가지고 날아가지고(날아서), 마 하이고 깨냉이
(고양이) 새끼맨키로 너무 이쁘더란다. 그 똑 깨냉이 새끼같거든.

그래가지고 하도 이뻐서,
“아이고! 우째 이리 이쁘노, 이쁘노.”

카며 만치고(만지고). 여덟 마리 나났는데(날았는데) 여덟 마리 다 씨담아(쓰다듬어) 줬다
카네. 씨담아주고 그래,

“엄마캉 잘 살아래이(살아라).”

카고, 그래 왔단다. 돌아보이께네 나물빠금지가(나물바구니가) 없더란다, 태산 봉대기걸이
한 바금지(바구니)하고, 보따리 한 보따리하고 이래 싸냈는데, 나물 빠금지 없고, 보따리도
없더라 안 카나. 그래가 집에 오이께네 집에다 물어다 뵈더란다. [조사자: 호랑이가?] 지 새끼
곱다 캐놓이께로 어 집에 물어다 뵈더란다. 그래 그 그마이(그만큼) 은혜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큰엄마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해주고 그랬다 옛날에.

[금정구 설화 163]

집지킴이 구렁이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내 초갓집에 시집 오이, 해동에 그 시집 오이께로, 날이 꿀무리하이께로(날이 굶으니), 구렁

이가 하여튼간 지게 작대기만 하는 거라, 그런 기 초갓집에 척- 그 이래가 떡- 누버가(누워가) 내바다(내려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시어마이 보고,

“하이고 어머니요, 어머니요. 저기 구렁이가 나와가 있는데 저거 잡아야 안 되겠는교?”

카이,

“하이고, 그 건들이지 마라”

이라대. 집찌꿈(집지킴)이라 카대. 집찌꿈. 그래 건들이지 마라 카대.

그래가지고 그 앞 집에 하나는, 호래이, 그 구렁이 나온 거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래가 동가리 동가리 내가 직있다(죽였다) 카대. 직이니까 그 집구석이 마 쫘딱 망했는 거라. 자석도 다 죽고 마 전부 다 죽었어. 그래 우리 집에도 그래 떡- 나와가 옆드리가 있더라고,

[청중: 그래 초가집이 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랬다.

[금정구 설화 164]

까치 새끼 잡고 노는 별난 아이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옛날에 우리 클 적엔 초가집에 있었거든 초갓집. 내가 클 전에 뺄났다(별났다). 쪼매난 기 역수로(곤장히) 뺄났거든. 초가집에 거 사다리 놓고 기올라 가가지고, 다른 아는, 머스마도 못 올라가는데 나는 마 다 기올라 가는 거라. 다 기 올라가 새 새끼 다 끄잡아 내가지고, 새 새끼 눈도 안 뜬 거로(것을) 끄잡아 내가지고 여 막 덕시기에다 딱 놔놓고 그래 또 판다고 앉아가 있었는 거라. 판다고 앉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제 살림 그거 한다 하면서러,

“한 마리 나도 주가(쥐) 나도 주가(쥐).”

풀로 주고 산다 카면서 사가가고 이랬거든. 그래 나는 그래 미루낭개(미류나무)로, 역수로 미루나무 얼마나 높으노? 그 올라가가지고 깡챙이(까치) 새끼 다 뜯어내루고 내 그랬다. 깡챙이 새끼 때,

그때사 뺄스가 있나? 뺄스도 없어요. 매미치마만 입고 있었거든. 그래 가 미루낭개 올라간다고. 막 이래싸이 여 보지가 끌키가지고 마 피가 다 나고 이랬다. 예려서(어려서). 그래가 꼬치나 그거 저 그래가지고, 그 새끼 마 깡챙이 새끼 마 전부 다 뜯으러 내루고 새 새끼 다 뜯어내. 까치, 까치. 그래 새 새끼 마 다 뜯어 내루고 그랬다. 내 클 적에 뺄났다.

[금정구 설화 165]

질투가 많았던 작은 시어머니

이원님(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우리 내가, 시어마이 시집오이께 꼬꾸랑 시어마이 큰시어마이 하고 또 작은시어마이 말 묻하는 시어마이로 저 그거 했대 우리 시어마이로. 자석을 큰시어마이가 자석을 못 놓이께, 작은 시어마이를 인자 하나 들이가지고 아를 놓는 거라.

놓아가지고(날아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키우기는 큰어마이가 키우고, 놓키는(날기는) 작은 어마이가 다 놓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뭐 할매가 그리 농사 짓다가 들어와가 젓만 먹이고, 젓만 먹이 놓고 또 인자 할배가, 우리 시어바이가 저 어데 갔다 오며는, 어느 여자칸 말만해도 마 세로(질투를) 해가지고, 거 할매가, 중풍든 할매가, 말 묻하는 할매가, 막 세로(질투를) 해가지고, 아를 젓먹이를 갖다가 마당에 획 집어 던지고(던지고) 이래 했다 안 카나. 우리 영감쟁이도 몇 번 마당에 쳐박혔단다(쳐박혔단다) 집어 던지(던져)가. 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밤에 잘 적에도 큰시어마이 이래 자며는, 작은시어마이가 요래 문 앞에서 듣고, 귀도 어둡고 그랬단다. 그런데도 마 요래 듣고 있다 안 카나 작은시어마이가.

[금정구 설화 166]

돼지도 아는 사랑

임채엽(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우리 집에 옛날에 돼지를 먹었는데 암돼지를 먹었거든. 이놈의 암돼지가 푹푹푹푹 죽도 안 먹고 그래왔는데 ‘와 저카는고?’ 이래가 싶어 보이께네, 거품을 이만치 내뿜더라. 그래 ‘아, 이기 신량이 생각이 나서 그라는가’ 싫어서러 몰고 인자 수놈인데로 가이까네, 가기는 갔는데, 가기는 갔는데 수놈을 보디마는 막 내뺌는 기라. 내뺌이 와이카는고 이리이께, 그래 어째 꼬추를, 사알 꼬추를 사알 손을 대갖고 요래 살 하이께네, 그래 어째 하고 나더이마는 좋거든.

인자 실고 왔다. 실고 오놓이께네, 고마 리아카 끄실고(끌고) 가자고, 리아카에 턱- 올라 앉았는 기라. [조사자 웃음] 한 번 더 가자고 [웃음] 그런 거를 봤다 우리 돼지 먹이면서.

[김정구 설화 167]

서울 가서 배운 사랑

임채엽(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옛날에 저저 저저 딸이 서울에서 잘 산다고 카거든. 옛날에 얼마나 잘 사려고 싶어서, 저저 아버지가 가고 싶어서러 딸네집에 톱 가이께네, 문을 툭툭 두드리이께네, 딸이 껌쩍 놀래거든,

“야야, 와 이래 문을 잠구고 있노?”

“아이고! 아버지가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올라왔습니꺼?”

쿵께, 뿔이 농에 드간다꼬 ‘쿠다딱 쿠다딱’ 하거든. ‘아, 뿔이 드가는고?’ 싶어서,

“와 농문이 덜컹덜컹 컷노?”

“아무것도 아입니다. 아버지.”

그래 저저 아버지가 톱 앞아가꼬,

“야야, 니가 잘 산다꼬 캐서 내가 이래 왔다”

“아버지, 내 잘 살기는 뭘 잘 살아요, 이력저력 안 삽니까.”

이놈우 자석 껌딩이로 것다다가(그기에다) 조영노이께네(밀어넣으니) 껌딩이가 얼마나 껌껌 컷노? 농문에. 가도 안 하고 퍼질고 앉았거든 어떤 영감쟁이가. 그래갖고 마 영감이 마마,

‘뿔이 털꺼거리노?’ 싶어서 이래 카이께네, 저저 아부진줄 모르고 어떤 낫선 남자가 와가 있거든. 고마 마 껌딩이가 마 톱 나오마 주마를(주머니를), 꺼먼 좇을 썩 내갖고 마 이래가 ‘직인다’ 이래 찼거든. [웃음] 그래,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이래 카이께네, 이 저저 아버지가 얼척 없을 꺼 아이가? ‘아이고! 답답해라. 우리 딸이 잘 산다고 컷다, 저 껌딩이를 델고 살고, 낮에도 저래 응 붙들고 저래가 있는 갑다.’ 싶어,

“야야, 내 갈란다.”

카거든.

“아부지, 인제 해 다 진데 인제 문 갑니다. 차, 저저 기차도 시간이 넘었고.”

“그래도 간다.”

카면서, 저저 아버지가 나온다꼬 나와노이, 갈 데가 어디 있노? 걸어서 걸어서 인자 옛날에는 여인숙이 와 합판으로가 이래 노이께네 저저 오래 되면은 문 저기 찼지거든 벌어져가 그자? 뿔이 옆에 방에서러, 여인숙에 드가노이 옆에 방서 쿵덕쿵덕 해쌌거든. ‘이 뿔이 쿵덕거리노?’ 싶어서, 눈을 살- 이래가 보이께네 침대서 한다 마 디립다 마 젊은 놈이 난리거든.

오데 그따가(그곳에) 쳐박아갖고 죽죽죽죽 빨아썩거든.

‘하이고 알꽃어라, 저것도 어데 먹을 끼 있는가?’ [청중 웃음] 저도(저것도) 어데 묵을 끼 있는가 싶어가 이래 쳐다보거든. ‘아이고! 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갖고, 밤새도록 걸어서 걸어서, 해샐다가 우째 첫차를 탔어. 그래 집에 온다고 오이께네,

“봐라, 봐라, 봐라. 니 빨리 들어온나, 빨리 들어온나.”

“와 이카는교? 딸네집에 가 하룻밤도 자도 안 하고 이래 왔는교?”

“그나저나 누우라, 누우라.”

그래갖고 늣히놓고 할마씨로 어 대고 빠이께네, 코가 마마마 냄새가 나거든. 아이고 그놈 서울놈들은 코도 아닌갑다 싶어서러, 그래 저거 아버지가 이래 턱 있다 그날 아침에 떡 나가 이께네, 이웃집 사람들이,

“딸이 잘 산다고 가더마는, 그 뭐 하룻밤도 안 자고 올랬기사 쫓 빨로 갔디나?”

이카거든. 그란께네,

“그게 벌써 신문에 났더나?” [일동 웃음]

“아이고, 니 그게 벌써로(벌써) 신문에 났더나?”

“어, 그거는 그렇구나. 니 그꺼정 가갖고 뭐 하러 그래 딸네집에 가갖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래 왔노?”

“말도 마라 이 사람야. 내 희안한 거를 다 봤다. 껌덩이가 마마 한 바리 나오는데, 그년이 영 뭐 정신이 돌았어. 껌덩이가 나오는데 마침 몽덩이같은 거로 내놓고, 내 씹겁을 하고(깜짝 놀라) 왔다.”

그래 그기 소문이 났더란다. 와이당 끝.

[금정구 설화 168]

단칸방에서 몰래한 사랑

임채엽(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옛날에 피난 갔다 와갖고 전부 한 방에 안 자나? 아들하고(아이들하고) 한 방에 자이께네, 옛날에는 남자들 바지를 이래 꾸게갖고(접어서) 매가 안 입나? 아들은 줄줄이 눅었제, 영금영금 할마이 생각이 나서 영금영금 기이 간께, 주우개(중우개) 끄내려가이께(끌려져 내려가니), 아들 입에 꼬치가 줄줄줄 줄 끌리가거든.

“이 니기미 씨발, 쫓 땡기는 길가?” [일동 웃음]

그라이께네 저거 아버지가 꿈쩍 놀래갖고 뒤로 퍽 주저앉아 뿌거든. 주저앉아 뽀께네, 물이
턱 쏟기거든(쏟아지거든),

“그것도 잔치라고 겠다.”

이칸다 안 카더나?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169]

독버섯 잘못 먹은 사람 놀리는 소리

박경연(여, 1948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뭐 나물을 캐, 나물을 캐 오는데, 인자 버섯을 따러 가서, 버섯을 이래 따다 묵고,
버섯을, 독버섯을 잘못 묵어가지고 독버섯을 이렇게, 그 물을 이려 간게,

“히죽삐죽 당다쿵, 히죽삐죽 당다쿵.”

그런다고. 버섯을 묵고는 물을 이려 가서,

“히죽삐죽 당다쿵, 히죽삐죽 당다쿵.”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으이.

[금정구 설화 170]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경연(여, 1948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꽃감 이야기? 그런 거는, 아들이 와 우니까, 아들 달개다가 달개다가 아가 하다 울어짚께나,
“호랑이가 온다.”

캐도, 아가 그냥 울고 이러카이, 바깥에 호랑이가 와서 앉았다가 아로 보고,

“아나 꽃감.”

이라 하니까나, 얼른 아가 달개지이,

“와이고! 꽃감이 호랑이 내보다 무서운 갑다.”

감서, 호랑이가 달아난다 안하던가배.

[금정구 설화 171]

나무꾼과 선녀

박경연(여, 1948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사슴을 잡으러오니까나 나무꾼이 사슴을 숨카주고. 포수가 사슴을 잡으러 온께 나무꾼이 숨카주가지고, 그래 그 나무꾼을 숨카주고난께 포수가 지나가고 나서 그 사슴이 하는 말이,
“어느 웅덩이에 가면은 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니까나 그 옷을 하나 훔쳐오몬, 선녀가 문 올라가서 각시로 삼는다.”

그랬지. 그랜께 그 나무꾼이 그 참 샘물에 그 가니까나, 웅덩물에 가니까나, 선녀들이 모욕을 해서 그 옷을 하나 감춰놓고 그 있으니까나 그래 뭐 여자가 문 올라가갓고, 아를, 옷을 자꾸 줄라 캐도 안 주고, 아 셋 놓으몬 주꾸마 캐가, 그런께네 아 셋 낚아갓고 그 옷을 주니까, 그 옷을 입고 하늘 아 서이까지 다 덕고(데리고) 올라갔다.

[금정구 설화 172]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원종수(여, 1930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이우제(이웃의) 할머니가 나물을 뜯으러 갔는데, 그래 인제 훨 깊은 산으로 산으로 이래 올라 갔는데, 예쁜 뭐 호랑이 새끼가봐. 그런 게 있더라네. 그래서,

“하이고! 예쁘다.”

고 인자 고걸 만졌는데, 안에서 ‘어흥’하고 [청중: 지 새끼 이쁘다 컨께네 좋아가지고.] 좋아 가지고. 놀래가지고 바꾸니고 뭐고 다 집어내빠리고 인제 집에를 왔어. 집에를 왔는데, 그 이튿날 여럿이 갔는데 집집마다 그 바꾸니를 갖다가 물어서 하나씩 다 걸냈더라(걸어놓았더라). 호랑이가. [웃음]

[금정구 설화 17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최정순(여,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경주 에밀레종 예전부터 내려왔잖아. 늦게 늦게 인제 참 자석이 없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를 하나 낳았는데, 아로(아이를) 이래 쳐들다가 어느 시님이, 그 종부사를 하러 댕기는 시님이 시주를 하러 가이께네,

“뭘 주꼬? 뭘 주꼬? 우리 봉덕이를 주까? 뭘 주꼬?”

이래. 아를 안고.

“우리 봉덕이를 줄까? 뭐로 주꼬? 우리 봉덕이를 줄까?”

이러이께네, 그 봉덕이를 줄 수가 있나? 그래 그냥 갔는데. 종부사를 해가지고 종을 맨들 어가지고 치니까나(치니) 소리가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시님이 인제 그래,

“새로 종을 부야 된다. 그 아를, 봉덕이를 갖다가 종에다 열어서 쳐야 된다. 종을 부야 된다.”

이래서, 그래 뭐 나라 어명이니께네 인제 아를 데리다가서는 무쇠를 녹쿠는데(녹이는데) 한 테다(같이) 열어 녹카가지고(녹여서) 종을 치니께네 에밀레종인 기라.

“에밀레~, 에밀레~.”

거린다고, 그래 인제 에밀레종이라고 인자 나는 그래 이야기를 들었거든.

[금정구 설화 174]

수숫대가 빨간 사연

최정순(여, 1940년 생)·박경연(여, 1948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최정순 구술] 그 이야기는 없는 사람이 떡을 해갖고 다라이(대야) 이고 강께, 한 고개 넘어 강께,

“떡 한 개 주문 안 잡아묵지.”

개가 한 개 주는데, 또 한 고개 넘어가이,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묵지.”

이래가 또 한 고개 넘어가이, 그 떡을 다 뺏기고는 껌국에는 그 저 잡아먹혔다 안 하던 가배. 그 떡을 다 주뿌고 없어도 [조사자: 호랑이가 자식들도 잡아먹으러 왔더라던데에.] 자식을 잡아먹으러 와갖고 저,

“엄마다 문 열어라.”

이라니까나,

“손을 한 번 열어보라.”

간께나, 그 호랑이 손에다가 밀가리를 항거(많이) 문혀갖고,

“엄마 손이다.”

하고 들이넣는다 안 하던가배 [조사자: 그래가 어찌 됐는데에.]

[박경연 구술] 문 열라고 하이,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께네,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런께네.

“손을 보자.”

건께네. 손을 이래이래 보이께네 막 털이가 이래 마 문엿는 게 있거든 호랑이 털이가. 그래서 인자 아들이 쫓겨나와가지고서는 줄이, 쫓겨나오이께네 하늘에서 두룽박 줄이 내려오이 그 두룽박 줄을 타고서는 아들이 올라가는데, 또 줄이 하나 내려온께네 썩은 줄이라. 그거 인제 호랑이가, 타고 올라가다가 널째가지고, 찢리가지고, 수꿏대에 찢려가이고. 그래 수꿏대가 빨건 게 그래 호랭이 피라고. 그래 예전에는 그랬다.

[최정순 구술]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아들을 저,

“하느님, 살려주이소. 살릴라면 수수, 저 줄로 동앗줄을 내리주이소.”

카이, 동앗줄을 내려간 동앗줄을 아들이 타고 올라간께, 그 호랑이도 살려주라꼬 동앗줄을 내려준께, 반은 새 줄이고 반은 헌 줄이라서 반은 올라가다가 똑 떨어져서 수시낭개(수수 나무) 궁디를(엉덩이를) 찢리가 피가 나서 그래 수꿏대가 빨경다 했다. 빨경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금정구 설화 175]

아버지 목숨을 구한 바리데기

최정순(여,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바리떼기, 그 저 예전에 그 바리떼기. 딸을 둘, 서이를 놓으이께네 아를, 인제 잘 사는 집인 모양이대. 컸는데 아버지가 아팠잖아. 아파가지고 어느 저그도 못 살아 그래 곳을 하는데,

“어데 가서 인제 뭘 물을 가져와서 아버이를 먹이야만은 인제 살린다.”

근께네, 딸들이 다 안 가는데 그 바리떼기, 그 막내이가 인제 마 남북을 하고 짚어지고 갔어. 가다가 가다가 막 가다보이 도깨비도 나오고, 막 귀신도 나오고, 막 물에 빠져. 빠진께네 막 그 저 막 고기들이 막 이래 받들어줘가지고 나오고 이랬는데.

가다 가다 보이께네 어데 무슨 샘이 이래 있는데, 물을 이래 떠먹어 보인께네 막 뿔이 나고 도깨비겉은 거 영설곳은 거 와서,

“그거 왜 묵노?”

하이, 묵숨 가지고 와야 되는 거라. 그런께네,

“아버지가 아파서 그렇다.”

이러이께네

“이 물을 갖다 먹여야 된다.”

근께네,

“그래 말을 들어 달라.”

이래. 그래 그 사람하고 사자(살자고) 거이께네, 영설곳은 도깨비 이러이께네, 안 살라해도 안 살 수가 없지, 아버지가, 아버지를 살려야 되이께네. 그 그거를 그 살아가지고 인제 나무를 해다 때고 마 나무를 해다 때고 밥을 해먹고 살았는데, 그래 애기를 낳았어. 애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둘인가 낳았는데, 그래 놓고나이 크고나이께네 인제 그래 물을 좇어. 그 물을 주고. 인제 또 솜살이, 솜 붙은 그걸 또 꽃을 주고, 또 살, 살 붙은 또 그 살살이꽃을 주고 이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집에 오이께네,

아버이는 하마(벌써) 썩어가지고, 마 납골이 됐어. 고마 해골바가치가 됐는데, 그래 거 인제 물을 뿌리고 인제 그거를 인제 숨을 붙이고, 인제 살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마 멀쩡하게 일어났잖아. 그래 나는 그런 얘기를.

[금정구 설화 176]

은혜 깊은 두꺼비

최정순(여,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그 예전에 곳집에다가 처녀를, 일 년에 처녀를 하나씩 갖다 놔. 갖다 놔야 그 동네가 편한 거라. 그레이께네 내중에(나중에) 참 이 말따나 뚜깨비를 부엌에 온 걸 막여 키우고 키우고 했디만은. 그 처녀를 그 곳집에다 갖다 영는 거 곳집이라 그러는 거는 행상. 생이 갖다 영는 집인데.

안 그러면 동네가 안 되는 거라. 처녀를 하나씩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 그 처녀가 가면 그 죽을 판인데. 지네라 지네. 지네가, 막 큰- 지네가 인제 처녀를 잡아먹을라꼬 이레이께네, 뚜깨비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래 처녀를 살리고 지네를 뚜깨비가 직있다(죽였다) 커대. 그 곳집에서, 그 행상 영는.

[금정구 설화 177]

대자구와 다자구

김진태(남, 1938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아버지경로당]

그때 그 무슨 난 때라. 난 땀데, 그 인자 쪼매난 할마씨가 말이지. 인자 그 전부 산성에 경비하고 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쪼매난 할마씨가 오디만은,

“우리 아들 만나 보러 왔다.”

이카는 기라. 동네 산성 그 전부 묘지기가 다 있다 아이요? 그러이,

“아들 이름이 뭐고?”

이카이 말이지,

“아들 하나는 ‘대자구’고, 하나는 ‘다자구’다.”

이카거든. 그래가 인자 그 인자 그 할마이, 쪼매난 그 할마이 안에 달라보냈어. 이래 돌아 땡기매 인자,

“대자구. 대자구.”

카거든. 근데 그 경비는 인자 덜 잔다 이 말이지. ‘덜자구’. 인자 그래 인자 그래 ‘다자구. 다자구’ 다 자거든.

“다자고, 다자고.”

커이 습격을 해뿌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예. 나는 그런 이야기백에 문 들었어.

[금정구 설화 178]

호랑이를 속인 토끼

김학규(남, 1945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아버지경로당]

옛날에 저저 호랑이가, 호랑이하고, 호랑이가 말이 그 산에 짐승을 다 자아먹는(잡아먹는) 기라. 호랑이가 짐승을 안 자아묵는가배. 자아묵으니까 그중에서 인자 제일 제일 말이지 못된 기 토끼거든. 토끼가 머리가 좋은 줄 모리는교? 토끼가 머리가 겁나게 좋거든. 그런께네 짐승을 전부 다 자아묵고 호랑이가 마지막에 토끼 한 바리를 자아몰라 하니까,

“행님, 행님요, 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으이께네 오늘 저녁 기다려보소.”

이라이께네, 넘어 가는 기라.

“그라면 어떤 기 있노?”

“여어 계곡에 물이 요 내려오는데, 계곡에 내려오는 물이 여 있는데 여 잉어 큰 기 몇 마리 있는데, 오늘 저녁 꼬리를 딱 담아가지고 물에 한 세 시간만 딱 기다려 보라.”

는 기라. 그래 세 시간 있으니까 꼬리가 마 얼어갓고 마 이 몬 나가거든. [청중: 울지. 울지.] 호랑이 몬 가는 기라. 꼬랑당이 짝 얼어갓고,

“앞으로 니 자아몰래? 안 잡아몰래?”

카이,

“아이고 토끼님, 안 잡아 묵겠습니더. 짐승 일절 안 잡아먹겠습니더.”

그래 버릇때기를 고쳤다는 기라. 토끼가 머리가 좋다는 기라 그래.

[금정구 설화 179]

임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

김학규(남, 1945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아버지경로당]

암행어사 시험 치는 것도 보면, 그 뭐뭐 그 뭐꼬? 임금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 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계랄(계란) 딱 열어가지고, 솜을 탁 싸가지고 박스에 탁 열어가지고, 임금 앞에 탁 갖다 뵈는데,

“이 각(괵) 안에 뿔이 들었노?”

임금님이 탁 고마 과거 시험보러 온 사람들을 탁 치니까, 유달시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모르지 한 사람 가지고 탁 땡겨 보니까 말이야,

“이 안에 병아리가 들었습니다.”

이라거든. 임금은 지는 분명 알을 열었는데 병아리가 들었다 하거든. 그래 개봉을 하니까 병아리가 딱 뚫는 거라. 왜냐? 안에서 그 솜을 싸가 계란을 열나이께네 따시니까 부화가 뚫다 이거라. 글쎄,

“과연 과연 나는 내보다 더 머리가 좋다.”

[금정구 설화 180]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학규(남, 1945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아버지경로당]

아가 하도 울어싸서, 호랑이가 말이지 집에 와 딱, 집에 마 아가 울어싸서 와가, 호랑이 떡 마당에 와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가 울어싸서,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아무리 꼬아도 안 우는데,

“꽃감 주꾸마.”

카이까 아가 탁 끄쳤다 이기라. 그때 호랑이가 바깥에 듣고보니, ‘하-, 내가 이래 와가 있어도 우는데, 꽃감을 갖다가 꽃감 주꾸마 쿠니까 탁 안 우는 거 보니까, 꽃감이 내보다 과연 무섭구나.’ 싫어서 그래 도망을 갔다 안 하는교.

[금정구 설화 181]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

장기봉(남, 1933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아버지경로당]

그 뭐 옛날에 뭐 그러대. [청중: 개좌골이 어디고?] 개좌골이라는, 여 89번, 99번 종점 저 넘어가는데, 철마 넘어가는데 그게 개좌골인데.

옛날에, 옛날에 사람이 개를 하나 데리고 그 고을로 넘어오다가 사람이 잤는 거라. 잠을 요래 자는데, 불이 일어나빠렸어. 불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개가 그 뭐야 마 주인을 마마 돌아가매 마 깨물고 이라고, 일어나보이 저게 마 불이 확 타디마(타더니만) 불속에 들어앉았어. 그래 개가 마 불에 타죽어 부렸어. 그래가지고 개좌골이라 하더라. 그래서 개좌골.

여어 거기 철마가는 데서 예기하대 그래서 내가 알지 뭐. [조사자: 지금도 비석 있다. 아입니까?] 비석 있어요 거게. 저 올라가몬 있어.

[금정구 설화 182]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다 겪은 난리

권영자(여, 1943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옛날에 그 호랑이 그 나물 하러 가가지고 바우 밑에 호랑이 새끼, 인제 무슨 강아지 새끼 줄 알고, 저 뭐 더래끼다(다래끼에다) 담아가지고, 나물 하는 거다 담아가지고 집에 오이께네, 호랑이가 새끼 따라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마구 물어재끼고 마 난리 나가지고 이웃 어른들이가,

“호랑이 그것 때문에 동네 마 절단난다 갖다놔라고.”

감을(고함음) 질러가지고, 날이 새가지고설랑 직접 고 갖다놔단다. 고 갖다노이까 호랑이 안 오더라.

[금정구 설화 183]

양반과 상놈을 중매하다 틀어진 사연

금숙현(여, 1939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양반하고 상놈하고 인자 사돈을 했는데, 이 상놈 집에는 인제 왜 버드나무 가지고 인제 소

쿠리 걸은 거 이런 맨들어 팔고, 양반집에는 글로만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 인제 어예 해가지고 중매, 뭐 거짓말 했든 뭐 했든 양반하고 상놈하고 중매를 하는데, 해가지고 가마를 타고 갔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면서 사뭇 부탁하는 기라.

“니는 가가지고 절대로 버드나무 말은 하지 마라.”

캐서.

“버드나무 말은 하지 마고 그냥 거,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카이,

“예.”

카며 가나놓고는, 가다가 버드낭개(버드나무) 척척 늘어진 참 좋은데.

“에- 그 버들 좋다.”

그캐가지고. 가마 타고 가마 타고 가다가 다부 빠꾸질(‘뒤로 돌아 간다’는 뜻) 가버렸단다.

[금정구 설화 184]

상객 가서 실수한 친정아버지

김용자(여, 1946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친정에서 하도 너무너무 문 살아가 맨날 쫄쌀죽을 먹었는데,

“아이고! 야를 시집을 보내가 밥도 먹고 쫄 저거한 데로 보내야지.”

커며 떡 시집을 보냈는데. 보내가 아버지가 상객 따라간다 아인교? 따라가니까 그 집에도 너무너무 못 살아 시집에도.

그래가 또 하이고 그날 또 죽을 썬가 주더라네. 영감쟁이가 묵고 저녁에 배가 고파 도저히 누버있으이 배가 고파가 못 있어가, 정지에 떡 상투를 인자 들렸는데, 정지에(부엌에) 뭐 있나 싶어가 쫄 초두배이 묵으러 간다고 가니까, 이 할배가 이거 있잖아? 허리끈. 이것도 안 메고 쥐고 갔어. 가가지고 인자 부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 상투가, 그거 옛날에 와 그쟈? 물 이고 가면 와 걸어 낚는 거 있다아이가? 그래 그게 걸려가, 이 상투가 걸려가 아무리,

“사돈 내 잘못했심더. 사돈 내 잘못했심더.”

카며 인자 붙들여가, 그게 붙들려가 있는데. 근데 이걸 지고 있으니까 중우박은 인자 내려 가뿐다아이가? 꼬치고 뭐고 다 나왔는 기라 서가 있으니까. 그래가 인자 안사돈이 또 나왔어. 나와가 물 뜨러간다고. 바깥사돈이 그라고 있는 기라. 아이고 기가 차가지고 며느리한테 가가,

“야야, 야야, 저 너거 아버지가 와 절로(왜 그렇는가) 저저 한 번 나가봐라.”

캐나이 나가보니까 저거 친정아버지가 그라고 있는 기라. 그래 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아버지를 인자 올려주면서,

“아버지 저래갖고, 딸 그거 해가 우사시키면 잘 산다 그래. 그래가 아버지가 이래 나를 우사시키느냐?”

하면서 막 좋은 말로 올려가 그걸 그래가 모면, 저거를 모해지더란다(모면했더란다). 아이고 내사 그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금정구 설화 18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용자(여, 1946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저거 아버지 돌아가시가 지계를 지고 인자 거다 엮져가 갔어. 가가 인자 물어놓고 돌아서는데 저거 할배가, 할배가 참 돌아가셔가 인자 아버지가 할배를 인자 짚어지고 가가 물어놓고 돌아오는데, 칠순 옛날에 칠십에 고려장아이가? 그래가 그거를 인자 지계를 딱 내놓고 오더란다. 아들이,

“아버지, 빨리 이거 가(가지고) 가야 된다.”

이카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지계에 담아가 갖다 인자 그거 한다.”

그런 전설이 다 있어.

[금정구 설화 186]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올어쫘는데 암만 달개도(달래도) 안 끈쳤어. 밖에 호랑이가 그 아 잡아몰라 딱 문 앞에

서가 있는데,

“호랑이 왔다.”

캐도 겁을 안 내고 뭐,

“무스운 거 왔다.”

캐도 겁을 안 내는데, 꽃감 카며 주이께네 아가 울음을 끈쳤으이, 호랑이가,

“야! 내카마 더 무섭은 기 있구나.”

카고 도망을 갔다대.

[금정구 설화 187]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뭐꼬? 시오마씨가 매느리한테 되게 독하게 했는갑대. 독하게 해가 이래 있는데,

“고기 묵고 싶다.”

이래싸서 뭐 고기 해줄 돈도 없고 그래갖고 수채 가가 파디비가지고 지령이를 그래 폭 고아 가지고, 폭 고아는 게 국물도 보양고. 그걸 주니까 이거 맛있다고 마 자시는(잡숫는) 기라. 그래 자시는데, 그래가지고 고기를 남는 거를 참 자리 밑에 넣어놓고 이래 했는데, 아들이 왔는 거로,

“날로 이거를 사다 줘가, 내 요새 너무 좋다.”

하이까네,

“아이고 엄마요 지령인데. 지령이를 주던갑네.”

하이깔레(하니), 놀래가 눈 떴다 이카더라. [웃음]

[금정구 설화 188]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방구를 몬 꺾가지고 요 이렇게 사람이 노라이(노랑게) 그런 기라. 그래가지고,
“왜 그래 사람이 그렇노? 노래이 오르노?”
카이까네,
“방구를 몬 끼가 그렇다.”
해나논께네,
“함(한번) 꺾뿌라.”
해노이까네, 꺾뿌이 집이 흔들 흔들 흔들 한다 해쌌더라. 모르겠다 나도 인자.

[금정구 설화 189]

아이를 물어간 짐승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마당에, 옛날에는 덩어놓이(더우니) 여름에 마당에 덕석을 펴놓고, 아를 델꼬(데리고) 딱
눅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실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잠이 살- 들어가
있는데 아가 속- 빠져 나가더란다.

놀래가 보이 아로 막 깨물고 가는데, 마 동네 사람들 일어나가 마 이래 말강 따라가이까
아는 내 울고 가는데, 여 언덕 위에 올라가가, 언덕 위에 올라가가 언덕 위에서 마 따양(땅)
풀썩 뛰내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 아이가? 저 둘러가 올 탄아(동안) 아 물어직이뿌
고, ‘깨깁’ 하며 물어직이뿌고. 그 우리 어릴 때, 아 옷은 그 집 뒤에, 채소밭이 찍매난 게 있
는데 그 옷이 있고, 거서 뜯어묵었어 아가. 그런 건 진실이라 우리 클 때.

[금정구 설화 190]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할머니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큰아들은) 짊신장사고, 작은아들은 나무, 그거 비올 때 신는 거 [조사자: 나막신.] 나막신

장사고. 그래 비가 오마,

“아이 우짜고, 우리 짚신 장사 오늘 망했다. 몬 팔고.”

그래 걱정하고. 또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나무 그 저 뭐 무슨 신고? 저 나무 가지고 맨들은 신. [청중: 나박신(나막신).] 나박신.

“나박신 오늘 안 팔리겠다.”

하고, 그 할매는 걱정을 짚어지고 산다 하더라.

[금정구 설화 191]

바닷물이 짠 이유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소금장사는 소금을 지고 오다가 너무 무겁아가지고,

“아이고! 내일 와가 가(가져) 가야겠다.”

싫어가지고 누가 도둑질해가 갈까봐 또랑물예다가 쥐엿가 돌로 누질러놓고 이튿날 가지러 가이께롱, 인자 뭐 자리만 딱 있고 소금은 하나도 없더라. [웃음] [조사자: 그래갖고 바닷물이 짜운가예?] 응. 그래가 바닷물이 짹다 카던가 뭐라 카더만은 모르겠다.

[금정구 설화 192]

나무꾼과 선녀

허필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나무꾼이 나무 하러, 이 나무꾼은 참 몬 사는 사람인데, 산에 나무를 해가 팔아가 사는 사람인데 나무를 하러 떡 갔디만은, 그 또랑물에 마 빛이, 빛이 나서 본계네 선녀가 목욕을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를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싫어가 옷을, 옷이 너무 좋은 기 있어서 옷을 마 숨겨놔노이, 옷을 숨겨노이, 몇 시까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 몬 올라가는 기라. 옷을 숨기(숨기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선녀하고 같이 사는 기라. 사는데 저 뭐꼬? 아로(아이를) 둘로 낳았는데, 아 서이만 놓고 그 뭐 옷을 줬으나 문 갈 낀데, 아 둘로 놓고 옷을 줬뿌노이(쥐버려) 양쪽에 찢라가(끼고)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뵈다 안 캡니까?

[금정구 설화 193]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박선례(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메놀로(며느리를) 봐가 일단 자꾸 씻어도 얼굴이 노라지거던. 그래 놓은께네, 참 아까 말따나 그,

“야야, 니가 와 그래 먹는 거를 문 묵나, 와 그래 노라지노?”

카이,

“무슨, 머한데(뭔데) 와 글노?”

카이께네,

“어무이, 내가 방구로 잘 꺾는데 방구로 못 끼가 그랬심더.”

“그라몬 방구 꺾라 마.”

“그랄라 카몬 큰일인데요.”

카이,

“머시(무엇이) 큰일이고?”

“저 내 한테(밖에) 가가, 저쪽 귀통이 가가 방구로 꺾끼카네(꺾 테니까), 이쪽에 가가 집을 단디 잡아라.”

카네. [조사자 웃음] [청중: 단디 잡아라 카더라.] 기둥을 단디 잡고 안고 있으라 췌거던. 그래 안고 있으이까네, 저쪽에 가가 인자 마 방구를 통 꺾이카네, 집이 마 [청중: 히~떡.] 넘어가.

“아이고, 야야! 이쪽에 와가 또 방구 꺾라. 내 저쪽에 가 잡으께.” [일동 웃음]

그래 이쪽에 와가 또 잡고 있으인까네, 또 이쪽에 와가 마 방구를 끼. 또 이쪽이 히떡 넘어가. [일동 웃음]

“아이고, 그라몬 이래몬 또 안 된다. 또 이쪽에 와가 해라.”

네모쟁이 다 개(해). 마 집이 둥 뺏뺏더란다. [일동 웃음]

“아이고, 꺾지 마래. 빵구로 우리 집 날라 갔다. 꺾지 마라. 방구 꺾지 마라. 니 노랑던 방구

뛰지 마라. 우리 집 날라 간다.”
네 군데로 가가주.

[금정구 설화 194]

내 방귀 고소하지요

박선례(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그저는 인자 그때 점심인강, 그래 가주 가가 점심 묵고 일로 또 마저 하고, 그래가 안자 메느리는 저녁 한다꼬,

“아버님 내 먼저 갑니다.”

카고, 그 소쿠리를 이고 오는데 방구가 팽팡 나오거든. 나온께네 저거 신랑 따라, 뒤는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면서,

“여보, 내 방구 참 꼬시지요?”

대답을 안 하거든. 또 한참 가다가 또 방구를 딱 끼.

“방구 뛰가 꼬시지요 됐는데, 대답도 안 하는교?”

카이까네, 그래 또 암말도(아무 말도) 안 하거든. 세 번만에,

“꼬시지요?”

카이 대답을 한다.

“야야, 내다.”

그래 돌아보이까네 시아바시(시아버지)거든. 그래가 놀래갓고 마 광주리도 다 떼지뿌고 담말아(달려서) 집에 왔단다. [조사자: 담말아 집에 왔는강?] 그래요. 그러몬 그거 얼마나 그래 했겠노? 세 번이나 그랬이이까네, 시아바시 얼마나 미안했노 그자? 메느리가. 그래가 마 엉겁질에(얼떨결에) 마 소쿠리 마, 저염(점심) 소쿠리꺼정 마, 빈 거지만은(것이지만은) 마 떼지뿌고 마 집에 와가, 부끄럽아가 마 시아바시 앞에 내 요래 부끄럽아가.

그래가 인자 어데 가도 절대로 ‘방구 꼬시지요?’ 안 할라 칸다. 안 할라 카더란다. 안 하더란다.

[금정구 설화 195]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박선례(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 갖고 이틀이가 소름, 소름 다 해 갖고 곱 안에 열었다 아이가. 그랬는데, 마 하리 저녁에는 마 탁 카는 기라. 그래 널이 튀이뻘어요(터져버렸어요). 널이 마 터지뻘어요. 그래 갖고 우리 엄마가 확실히 그랬어. 그래가 우리 엄마가 내보고, 우리보고 이야길 하더라꼬.

그래 인자 살았어. 그런데 요 이것도 요리 묵아 났는 거도 다 터지고, 또 인자 널도 터지 뿌리노이 딱 일어나대요. [조사자: 그러고 저승에 갔던 이야기는 안 하던가?] 그런데 일 났는 기라. 그런데 참 그거 죽장을 짚고 할배가, 허헌(허연) 할배가,

“니는 올 때가 멀었는데 와 왔노? 어석(어서) 가거라.”

커더란다.

“그래가 가만, 나가모 강아지 한 마리, 하얀 백강아지 한 마리 줄 끼다. 어석 가라. 싸게 해가 안 된다. 그리고 강아지가 고 타고 가라.”

카더라 카네.

“강에, 강을 건널 적에는 물이 오거던 고거 강아지로 타도 니 태아가(태워서) 갈기다(갈 것이다).“

타고 오다가 보이 복판에 아가(와서) 마 폭 빠져버렸다. 그래가 놀래가 깨이까네 그렇더라. [조사자: 살아났는가베.] 살아났는데, 그런데 요 손목도 졸록졸록하이. 그래 삼일만에 오너라 카더라대. 삼일만에 오너라 카는 기 거기 하리라(하루라). 일년이다 하로가. 삼년만에도 틀림 없이 걸어라 카대요. 삼일만에는 오라 캐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삼년을 더 살았어요. 삼년을 더 살았는데, 요게도 졸록하고, 요 묵았는(묵었던) 데마다 졸록졸록 다 해. 그래가 삼년을 사다가, 그래가 마 딱 살아난 그날 딱 가대요.

[금정구 설화 196]

우렁각시와 살려고 하다 실패한 총각

박선례(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이 팔발 저 팔발 쪼져갖고,

“누하고 먹고 살꼬?”

그라 하면서 팔발을 쪼주이(쪼니),
 “누캉 묵고 살어 내캉 묵고 살지.”
 ‘이상하다’ 또 쪼주면 또 그래. 또 그카고, 그 이튿날 또 가가 또 그리 하이 또 그래 하고.
 그래가 사흘만에 가갔고, ‘이상하다’ 파보이까네, 우렁이 하나 있더란다. 그래가 그걸 가와가
 인자 그걸 판 우에 딱 얹어놓고,
 “니가 우째 말로 그리 했노? 잘 있으라이 내 또 팔발 쪼져놓고 오꾸마.”
 그카고 지는 가가 팔발 쫓고 또 오이까네, 참 밥을 이상케, 그래 해가 덮어뵈더란다.
 그래가 제법 한참 그 밭 다 쫓고, 다 장맛고 쉬고 그래 하자 카몬 그 제법 시간이 가는 거
 아이가. 그래 한 날에는 안 가고 딱 숨어가 보이, 그래 예쁜 처녀가 나와갔고 딱 밥 해놓고는
 고동껍데기 잘에(겉에) 가더란다. 가가 탁 마 붙잡아뿌. 사흘만 참았다 아인교.
 “사흘만 참으시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긴데, 참 아쉽슴더(아쉽습니다).”
 그래 마 살 사라지가 고동이 돼뿌더란다. [조사자: 아이고 아수버라(아쉬워라).] 얼마나
 아쉽노, 사흘만 참을 거 아닌교. 사흘만 참으시면 같이 살 낀데.

[금정구 설화 19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양자(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저거 아들이 저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거 아버지가 저거 할배로 지게에다 지고 가서,
 저게 시체로 지고 가가 묻어놓고 지게를 놔 놓고 올라 카이께네, 저거 그라몬 할배이께네,
 손자 아이가. 손자가 저거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지게를 갖고 갑시다.”
 카이,
 “와?”
 카이,
 “아버지도 돌아가시몬 지게 지고, 내가 지고 와야지요.”
 칸다 카대. 그라고 고려장 없었다 카대. [웃음] 할매들 그래췄데.

[금정구 설화 19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양자(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아 옛날에는 못 살아갖고 언자 시어머, 자기 엄마캉 자기 부인캉 집에 놔놓고 먼데 돈 벌러가가 뭐 몇 달이, 일년 있다 왔다 카든가, 오이카네 저거 모친이 살이 붕통하이 찌가 있더라 카대.

그래 저거 할매가 며늘로 해주는 거로 하두(하도) 맛있어갖고 켜디기를 켜지가 자리 밑에 딱 삶자리 밑에 열어놔어. 한 마리 한 손가락을 열어놔디만은, 저거 아들이 와가 카는데,

“엄마는 뭐를 먹고 요래 얼굴이가 좋는교?”

카이,

“야야야, 메느리가 여 뭘 해주는 걸 묵고 있다. 이기 뵈고 봐라.”

카매, 자리 들쭈고(들추고) 내주이,

“아이고, 어무니요 이거 꺼시네요!”

카이께네, 엄마가 뭐 놀랜다 카더나, 뭐라 카더나, 그 카대. [웃음] 그래가 눈이 떨어지더라 카대. 눈이 어둡운데 눈이 부쩍 떨어지더라 카대. [웃음]

[금정구 설화 199]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며느리

김영선(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아부님요 소씨가 유두씨를 자싯시니 개씨가 공공씨를 하십니다. 아부님 조동치예(조동이, 즉 입에) 밥씨가 [웃으며] 붙어심더 카든가. 그래 끝말이 잘 몬 땀어.

[금정구 설화 200]

선동과 선두구동의 내력

신병철(여,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우리 선동마을은 그 뭐 신선이 옛날에 살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선동이라 불렀고, 현재 와서는 인자 마 그냥 그런 뜻으로 선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선동은, 우리 여기가 조선 중기 후에 선리라는, 선리하고 소산리가 두 개 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제국시대는 현리와 하정리하고 2개 동으로 분리돼가 있었고, 그 인자 그 이후에 현리, 하정리, 선리, 또 저 우에 신천하는 신천리는 행정 동으로 인자 개편됐거든요. 그래 인자 우리 선리로 합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1963년도에는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었고, 부산시에 편입되어가지고 북면출장소 관할에 여 있었거든요. 1966년에 선리에서 선동으로 개칭되었고, 1973년에는 동래구로 소속되어 있다가 1988년에는 금정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인자 1998년 한 11월경에 선동하고 두구동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선두구동이라고 현재 칭을 하고 있고요.

[금정구 설화 201]

선동마을의 자부심

신병철(여,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거 우리가 선동역이 있고, 이곳이 아래선동하고 웃선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거기 아래선동은 하현이고, 예 우리 인자 선동은 웃선동이라 해가지고 상현이라 했습니다. [조사자: 그래서 상현이구나.] 예. 그래가 지금 현재 1942년도에 회동수원지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 하현마을은 이미 인자 수몰되었고, 없어지고. 상현마을, 지금 현재 상현만 남아있죠.

그리고 인자 우리 이 동네에 조금 자랑거리는 임진왜란 때, 동래에 거 저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그런 우리 마을의 출신이, 저 공신이 있거든요. 그 공을 세운 24인 중에서 김정서 장군님, 그 다음에 정승현, 정순이라는 분이 그런 공신은, 이 마을의 주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자 자칭 우리 마을서 인자 충절의 마을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 하고, 지금 현재 또 예로부터 우리 마을에는 거 서당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가 지고 또 우리가 학문을 또 숭상했다는, 그런 우리가 선조 때부터 오는 유래의 역사가 있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 동넵니다. 그래 우리 마을은 그 지금 현재 수영강의 그 중상류에 지금 위치해가 있고요. 그래 마 자연환경 속에서 청정한 공기가 이 마을에 항상 머문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원주민으로서 그래 한 가족처럼 생활하는, 마 인정이 많은 토속의 마을이라고 우리가 그래 또 칭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설화 202]

빛자루로 변하는 도깨비

정옥임(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술을 실컷 먹고 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실-컨 싸우고 나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빛자루더라대. 빛자루.

빛자루로 갖다가, 부엌 빛자루에 여자가 깔고 앉으며는 안자 안 된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인자, [청중: 맨스가 돼가 묻으면.] 그래가 아주 아침에 가보이까네 빛자리가 있더라대. 빛자루가.

[금정구 설화 203]

꼬꾸랑 이야기

정옥임(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꼬부랑 할머니가 꼬꾸랑 짹대기를 짚고 꼬 뭐꼬? 꼬부랑 길로 가다가 꼬꾸랑개가 [조사자: 꼬부랑똥이.] 아 꼬꾸랑개가 똥을 누니까 그 떡 꼬꾸랑 깹깹, 꼬꾸랑 짹지로 가 때리뿌이까네 꼬꾸랑개가 꼬꾸랑 깹깹.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204]

수내마을의 유래

천복자(여, 1949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수반이라고도 하고, 또 숲 안, 숲 안, 요 인자 숲자, 나무 숲자 그지예, 숲안이라 하기도 하고예, 수내라기도 하고 이라대. 이 마을을예.

수내잔데, 숲 안이라 카는 거는 왜냐면, 여 그때 숲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자 숲이 있으니까 숲이, ‘숲이 있어야만 수반 동네가 잘된다.’ 이래갓고 수반이라고 이랬어.

[금정구 설화 205]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천복자(여, 1949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언니가 부암동에 살아계셨는데, 거서 인자 그거 뭐이고 돌아가, 돌아가신는, 돌아가셨다고 인자 하는데, 이상해 숨은 안 떨어지더라 하대예. 그래 일주일을 인자 놓어 계시는데, 막 인자 곳을 하고 뭐로 하고 마 대나무를 씨담고 머 어짜고 이란께네, 한 일주일인강 열흘인가 있다가 마 눈을 뜨더라 하네예. 그래서,

“엄마, 엄마.”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니까 물어봤어. 물어보이까네, 고양이, [말를 바꾸어] 강아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자꾸 따라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 어디로 어디로꿈 내 인자 일주일 동안 가는 거라. 일주일 동안 인자 마 계속 가는데, 큰 강이 이래 나오더라네예. 나오는데, 거 인자 강아지는 그 강을 팔딱 띠 넘어 갔는데, 할매는 거 강아지 따라 팔딱 뛰다가 마 물에 빠져버렸는 기라. [웃음] 그래가 살았다고 이래 이야기가 있어요.

[금정구 설화 206]

내버렸지만 살아서 효자 노릇한 애운애기

임달연(여, 1918년생) 구술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임달연 제보자 댁]

그래 애운애기 그래, 전부 딸만 낳아가지고, 그래 딸로 몬 키운다고 언자 내빨라고(내버리려고) 대비랑밭에(대밭에) 내, 저 밭에 갖다 내빼리뿌거든.

내빼리빼데이, 하늘에 낮에, 낮에는 하늘에 해 해, 해님이 내려와가 품고 있고, 밤으로는 또 달님이 내려와가 품고 있고, 그래 그래 키안(키운) 아가 난죽에(나중에) 아가(와서), 아바이 죽고 나이카네 아가지고(와서) 마 소자(효자) 지칠로(짓을) 하더란다. 소자 노릇 하더란다.

[금정구 설화 207]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권갑례(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그래 지령이를 잡아 삶아 넣어놓고, 만날,

“어무이 잡수라.”

카고 드렸는데, 아들이 갖다 오인께네,

“야야, 며느리 뭘 날 맛있는 걸 만날 주거든. 그래 여 있는 거 이거 주더라고, 맛있더라.”

쿠고, 자리 걸어본께, 지령이 말란 기라.

“아이구! 어머니, 지령이네요.”

카고, 그래가 ‘어이 야야’ 카고 놀래가 눈을 버쩍 뜨더랍니다.

[금정구 설화 208]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말출(여, 1927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하도 얼굴이 노래서,

“니 와글노?”

카이,

“마, 그런 일이 있음더.”

캐서.

“와 글노?”

카이,

“마 그 말은 어른잘에(어른에게) 몬 하겠네요.”

카이,

“마 괜찮다 해라. 해라. 니 얼굴이 마 곤쳐지몬(고쳐지면) 개안다(괜찮다).”

이러카이, 그리 시아바이 그래 카이께네,

“시어마이는 저짜 지둥(기둥) 잡고, 시어마이는 저짜 지둥 잡고, 신랑은 이쪽에 잡고, 양 사방 잡으라.”

캐서, 막 끼기 시작을 하는데, 이짜서(이쪽에서) 끼이 이쪽 기둥 넘어 히떡, 저짜서 끼이 저짜 히떡하고, 저서(저기서) 끼이 이리 또 히떡하고. [청중 웃음] 그래가 결국 몬 살고 쫓기 갔담더(쫓겨서 갔다 합니다). [조사자: 아하, 너무 마이 빵구로 끼서.] 예. 그 얼굴은 안 곤쳐 지고. 우리 애릴 때 거 들었어요.

[금정구 설화 209]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김말출(여, 1927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기계를 사가 오다가, 눈 때는 기계요, 처음 나고. 이를 빼노이 말이 옳게 안 된다. 사가 오다가 양탄에서(양산에서) 오다가, 저쪽에(저쪽에) 금정산 저쪽으로, 도랑쪽으로 가이께네, 저저 또깨비가 자꾸,

“따라오라.”

캐서 가이, 따라가이께네, 금정산 있는 저쪽에 양산에, 양탄에 거서 넘어갔는데, 큰 도랑을 가이,

“저저 맨 까시밭이라고 이 다리로 걸어라.”

카고, 또 인제 까치밭에 가이. [청중: 물이라 카고.]

“물이라.”

카고,

“내루라.”

카고 그라더랍니다. 그래가 밤새도록 흘키(흘려서) 땡기다가 새벽에(새벽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마 인성만정하이.⁸⁾

[금정구 설화 21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말출(여, 1927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저저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 인제 산에 지계에다 담아가 할매를 갖다 인제 거 고래장 시길라고 갔는데, 손지 머시마가 그래 인자 할매로 거 내라 노인께네,
“아버지, 거 지계는 여(여기) 나뚜지(놓아두지) 말고 가(가져) 갑시데이.”
이래 카이,
“와 가 가자 카노?”
카이,
“아버지 칠십 되몬, 또 아버지 저다 내빼리야 안 되는교? 그래이께네 이거를 가 가야 됩니더.”
가만 생각커이, ‘이거 이래 하는 기 아이구나. 이라다가 나도 이 모양 되겠다.’ 싶어가,
그래가 마 할매도 다부(도로) 지고 오고, 그래 손지 때문 할매가 살았담더. 살아가, 그래 아가 (와서), 그래 아가지고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더.

[금정구 설화 21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말출(여, 1927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그래 아들이 어데 과개(과거) 하러 갔다 카등(카든가), 뭐 일하러 갔다, 거는 오래 돼가 몰
라요. 이래 갔는데, 갔다가 뗏 해 이따가 오이께네,
“아이고 야야.”
어마이가 살이 찌가 보하이 해가 요래가 있거든요.

8) “인사불성이 되어”의 뜻으로 말함.

“하이구 예, 엄마,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찌노? 이 없는 곤석(식구) 당코(당하고) 무울(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기 살이 졌노?”

이래 카이,

“몰라. 메느리 일천 때로 보신탕이라 카매 주는데, 무이(먹으니) 마 너무 맛있어가 내가 묵고, 하나씩 언제라도 꺾지가 열어, 샅자루 밑에 열어 났다. 함 봐라.”

이래 카이, 들씨(들추어) 보고,

“와이고! 마. 이거 거새이 아이가? 지렁이다.”

이러 카이,

“어억!”

카매 눈 뜨더람더.

[금정구 설화 212]

남녀의 성기를 사타구니에 붙인 사연

김숙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옛날에 조물주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거 뭐 다리캉 다 오만 거 다 만들었는데, 여자 거시기하고 남자 거시기하고 어데 붙일 데가 없는 기라요. [일동 웃음]

그래가 하다하다 이매에(이마에) 갖다 붙이놔도 물이 나가 안 되겠고, [웃음] 여 중간에 붙여놔도 또 웃을 베리가 안 되겠고, 그래 마 안 되겠다' 싶어가,

“아이 마. 골로 빠지라.” [일동 웃음] [조사자: 어더로?] 골에, 골에. [조사자: 골로 빠진다고.] 야. 골에 빠진다고 골에. [일동 웃음] [조사자: 그래가 거 붙어있구나.] 예.

[금정구 설화 213]

내 방귀 달지요

김정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참을 이고 갔는데, 옛날에 광주리 있잖아. 광주리, 커다란 광주리 참을 이고 갔거든. 그래 가지고 방구를 꾸고 시아바이 오는지 모르고, 옆에 오는지 몰랐지. 모르고 이래 오는데, 덜렁 덜렁 오는데, 방구가 붕붕붕 나오거든.

“내 빵구 달지요? 내 빵구 달지요?”

신랑인 줄 알고.

“내 빵구 달지요? 달지요?”

한끼,

“니 빵구 뿔았나(볶았나)? 달구로.” [일동 웃음]

“니 빵구 뿔었나? 달구로.”

“어허, 거 참 썰 데 없는 소리한다.”

그걸 보고 돌아보이 시아바이더랍니다.

[금정구 설화 214]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유문자(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헛개비가 보이는데, 그래 그 헛개비 따라 자꾸 산을 올라갔어. 올라가지고 막 씨름을 이래 하는데 보가지고, 정신이 인자 희미해졌뿐다 아이가 사람이.

그래가지고 흘끼가지고 그래 낸중에(나중에) 눈을 떠보이카네, 그래 돼있다더라 카대. 헛개비한테 흘끼가지고.

그런데 모지랑 빗자리도 아인데, 태희 저거 할배가 그랬다 아이가. 그 할배가 그 남낙 고서 내려오다가 그 영천 고 한천공장 뒤에 고서러(그곳에서) 고래 따라 올라갔다.

“오라.”

카더란다. 그래 따라 올라갔다 카대. 올라갔지만은 마 영감쟁이가 마 형편이 없이 해가이고 내려왔더라 카대.

옛날 사람들은 술 취해가 그란 사람들 더러 있어. [조사자: 그래가 도깨비한테 홀리가지고.] 예. [청중1: 도깨비 아이고 허재비지(허깨비지) 뭐.] [조사자: 허재비가 귀신인가?] [청중1: 아니. 그거는 술로 무이 헛기(헛것이) 보였겠지.] [청중2: 환상, 환청.] [청중1: 환청이고.]

[금정구 설화 21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명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옛날에 하(하도, 매우) 문 살고 남편은 저 돈 벌러 가고 없는데, 할매가 눈이 어둡어 장님 이라. 시아마시가. 그래가지고 이 메느리 반찬은 없고, 뭐 해줄 끼 없어서러 맨날 때마다 지렁이 이눔을 캐 잡아가지고, 그거를 끓여가 이래 반찬에 내 해주놔노이카네, 이 시아마시, ‘무슨 고긴고 우찌 이래 쫘득쫘득하이 맛있다’ 캅시러, 옛날 샅자리 방 아이가. 고 밥을 한 때 묵으몬 한 마리를 또 살 들씨가 고 밑에 여넣고, 또 한 때 고래 되모 살 밑에 열어놓고, 그래 저거 아들이 오이까네,

“그래 아이고 이, 저 메느리가 고기반찬을 때마다 해주서러 그래 내가.”

[말을 바꾸어] 아,

“어무이 참 얼굴이 좋고 좋네요. 아무것이 엄마이가 그래 밥은 제대로 해주든교?”

이러 카이까,

“그래. 그래 돼가지고 내가 참 잘 묵고 그래 해주더라. 그래 내가 니 오몬 비밀라꼬(보여줄 라고) 내가 여 열어놔다.”

고. 샅자리 이거 다 들씨이카네(들추니까) 지렁이가 빼짝 말라가 마 수복이 들어앉아 있어. 놀래가지고 아들이 놀래가,

“어무이, 이기 무슨 일인교?”

저거 마누라를 뭐라 캬더니만은, 놀래가 시아마시가 마,

“뭣이라 카노?”

놀래는 바람에 눈이 떠졌다 카대. 고래 그런 이야기는 들었다. 들었어 옛날 나만 사람들이 그래 썼대.

[금정구 설화 216]

도깨비가 되는 모지랑 빛자루

이명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우리 클 직에(적에) 여자들은 멘스가 있잖아요. 그라몬 멘스 있고 기간에는 빗자리 모지랑 빗자리같은 거 이런 거, 부엌에 빗자리 쓰는 이런 거 절대 못 깔고 앉으라 카대, 어른들이. 그거 거기 물어뽀몬, 그라몬 그기 토깨비가 돼뽀나 카대. 흐리거나 비오면.

그래 따라 가가지고 그 실랭이 하다 보몬 낸중에 정신 채리보몬 그기 모지랑 빗자리다 이라대.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데나 몬 앉으라 해요, 어른들이. [조사자: 도깨비 된다고.] 예, 어른들이.

[금정구 설화 21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미타암

이명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미타암 절에, 그 불법당에 그게 가몬 지금 물이 툽툽 떨어지잖아, 물이. 근데 그기 옛날에 쌀이 한 알씩 툽툽 떨어졌는데, 스님들 안 굶을 정도로, 밥이 해물 정도로 툽툽 떨어졌는데.

스님, 한 스님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쌀이 하나씩 툽 떨어졌는데, ‘저 쌀 저래 하지 마고 내가 마 이거 짝대기로 콧 쭈시뽀몬 좀 마이 안 널찌겠나.’ 싶어 쭈시뽀터만, 마 그 다음부터는 쌀이 안 나오고 물이 툽툽 떨어진다 하거든.

그래 미타암 절, 불법당 지금도 물이 툽툽 떨어지잖아. 그래 우리 학교 때 되몬 인자 소풍 가면, 그래 인자 스님들이 이야기해주고 그래 썼대.

[금정구 설화 218]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필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말만 하몬,

“호랑이 온데이.”

카몬, 절대 안 끈치는(그치는) 기라. 이놈 호랑이가 안 끄치이카네, 호랑이가 탁 내려와가지고,

‘지보고 무섭다 카나?’ 싫어서 가만 문 밖에서 들으니까네, ‘호랑이 온다’ 캐도 안 끈치고, 아로 보고,

“아이고, 야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꽃감 줄게.”

이러 카йка네, 호랑이가 ‘꽃감이 내감 더 무섭는갑다’ 싫어가 달나뿌더라 안 하는교. [웃음]
[조사자: 꽃감이 지보다 더 무섭는가.] 꽃감 준다 카이 울던 아가 똑 끈치뿌йка네.

[금정구 설화 219]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정필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너거 옛저녁에 너거 제사가?”

이러 카йка네,

“옛저녁에 제사 지냈습니다. 와 아는교?”

이러 카йка네,

“옛저녁에 너검마가(너 엄마가) 우리 가게 아가지고(와가지고, 와서) 빵을 사묵고 갔다. 너거 제사 멧 시에 지내노?”

이래 됐는 기라. 그라이카네,

“우리 제사 아무 멧 시에 지냈다.”

이러카이,

“너거 제사 그래 지내놔노니까, 먼데서 온다고 제삿밥을 문 얻어묵다 아이가. 그래가 배고 프다고 우리 집에 아가(와서) 빵을 묵고 갔다.”

이러카더란다.

[금정구 설화 220]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정필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우리 아저씨가 대우 집에 댕길 때 술로 마이 묵거든. 뭣는데 암마야 열두 시가 넘어도 안 오고 안 오는 기라. 우쨌는고 보이카, 그 술로 잘 묵고 어데꺼지 갔는가 카이 저 신천이, 저가가 산으로 산으로 댕기다가 집에 왔는데요. 이제 다 끄집히고 마 허재비인테 흘린 거매꺼(것처럼) 마 정신이, 그리 어디 있다가 막 돌아댕기다 정신이 차려졌겠지. 그래가 집에 왔는데,
“어디 갔든교?”

카이,

“몰라. 내 정신을 차리리카네, 저 신천 산이더라.”

카네. [청중: 암마야, 그꺼지 갔던가.] 그래. 우째 흘키갔는지 신천 산이엇더라. 산에 가가지고, [청중: 도깨비 흘키모 불 따라 간다.] 어. 막 인자 무섭는 기 없는 기라 그럴 때는. 그래가 따라갔다가 집에 왔는데 보이, 온데 다 끄히고 옷캉 다 끄히가 그래 집에 왔다. 그래 그기 오래 끄히게 되몬 죽는 기라. [청중: 맞아.] 그래가 집에 왔더라 카니께요. [조사자: 그래가 다행히 정신을 차렸네.] 정신을 차리가 집에 왔는데, 물귀신매꾸로(물귀신처럼) 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왔더라니까요.

[금정구 설화 221]

바보 아들을 가르쳐 부인과 합궁하도록 한 어머니

정필순(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아로 갔다가 장개를 못 보내가 마 일을 치다가 장개를 보냈는 기라. 보내리카네, 인자 아를 몬 만드는 기라. 그래 마 암마가 어째 어째 해가 아로 낳았는데, 아 하나 놓고 나리카네 마 이 바보가 마누라인데 안 가는 기라.

‘아이고 이 큰일났다’ 싶어서 할마이가 이 머리가 좀 좋든 모양이쥬 그쥬. 마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인자 팔죽을 끼리가지고 팔죽을 불 때고, 아들을 불로 떼라 카는 기라. 그래 불로 떼리카네 팔죽이 끓그몬(끓으면) 폭 했다가 또 오마지고 폭 끓거면 폭 했다가 오마지고 안 그러는가베? 그라니까 아들 보고,

“니 이거 함 봐라.”

카이께네,

“저 봐라. 팔죽 끓고 저 공간이 오마진다 아이가.”

그러니까네 아들 보고,

“니 할마이가 마누라인데 가도 안 빠져죽는다. [일동 웃음] 그래 가라.”

카이카네,
“엄마, 저계서로 저처리(저토록) 컷는데, 아 서이 낳는데 내 저 가몬 빠지서 몬 간다.”
그러이카네, 이래 쪽 퍼졌다가 오마지고, 쪽 퍼졌다가 또 오마지고.
“저 봐봐라, 저래 하몬 니 안 빠져죽는다. 저것도 괜찮다. 오마진다 아이가. 그 가도 괜찮다
함 가봐라.”
이래 카이께네,
“그래 참말이까?”
이라 카이께,
“참말이다.”
카저든. 거 나도 어디서 들은 얘가지 그러이카. 그런카네, 아이고 이놈이 참말인가 저거
엄마가 거짓말 했는가 참말했는가 싶어서 함 가봤어. 가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 뒤로는 마
아 또 놓고 또 놓고 그래 살더라 안 하는교.
머리 안 좋나. 팔죽을 끼리가지고 떡 벌어지고 나이카네 떡 오마지고 떡 오마지고 하이까네,
아들 보고,
“저거 봐라. 저러니까 저거 오마지이카네, 너거 마누라한테 가도 안 빠져죽는다. 가 봐라.”

[금정구 설화 222]

호랑이 도움으로 삼년상을 지낸 효자[뚝골 전설]

강두성(남, 1948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묘 옆에 그 집을 지아 놓고 삼년상을 치고 내리오는데, 아 삼년
상을 내리오는 기 아이라, 거 인자 산에 가서 하는데, 그날 호랑이가 내리와가 내 같이로 삼년
동안 잤어.

자고 나가가 삼년을 지내고 산에 내리오니까 호랑이가 돼지로 한 마리를 잡아주는 기라.
그 골짜기가 ‘뚝골’이라. [조사자: 아! 뚝골이 어디 있는교?] 요(여기) 두구동.

[금정구 설화 22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종철(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애기로 안고,
“뭘로 주꼬? 뭘로 주꼬?”
아, 애기로 어루면서로 그 엄마가 애기로, 지 애기를 어루면서로,
“뭘로 주꼬? 뭘로 주꼬? 뭘로 주꼬?”
이름이 봉덕이(봉덕이)든강,
“봉덕이를 주까? 봉덕이를 주까? 뭘로 주꼬? 뭘로 주꼬?”
카이카네, 스님이 마,
“줄라.”
카더라 카대요.
“그 봉덕이를 줄라.”
카더라 카대요.
그래가 그거 우째 [청중: 아 그기 종에 돼갓고.] 그래 씻물로 끓이가지고 종을 맨드이, 그래
‘에밀레’ 칸다. 말이 우리 옛날에 듣기는 그래 들었는데, [청중: 에밀레, 에밀레.] 그래, 그 아
로 씻물에 끼리가지고 종을 맨드이, 그래 에밀레 에밀레 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
는 몰라요.

[금정구 설화 224]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종철(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애가 우이카네 [웃음] [청중: 꽃감 줄게. 꽃감 줄게.] 암만 달래도 안 되이카네,
“꽃감 줄게.”
카니까네, 호랑이가 문앞에(문 앞에) 아가(와서) 있는데,
“꽃감 줄게.”
카니까네, 아가 마 털럭 울음이 그친다 카이, 호랑이가 ‘와이고 호랑이카마 꽃감이 더 무섭다.’
카고 돌아간다는 그말.

[금정구 설화 225]

여우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김종철(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불병을 떼지이카네, 야시가 몬 따라오고 까시녕쿨도 헤치고 오는데, 불병을, 빨간 불병을 떼지이카네, 그 호랑이가 [말을 바꾸어] 아, 거 야시가 마 불이라노이(불이라서) 못 오고, 참 그 얘기 있더라, 참 옛날에.

물라요 무엇인지 그것도. 이야기는 듣기는 들어도 [조사자: 어데 그 여시가 어데 딸인가요?] 딸이, 딸이. [말을 바꾸어] 아 엄마지 엄마. 딸이 인자 내빼고, 엄마가 딸 자아몰라꼬(잡아먹으려고). [조사자: 엄마가 딸 잡아몰라꼬? 여시가 돼가?] 여시가 돼가.

그래가 딸이 병으로 세 개로 가지고, 뭐라 카더라. 누가 주더라 카더라. 그래 하나는 물병 이라도 물 헤치가 오고, 하나는 떼지이카네 까시, 까시녕쿨이 돼도 그 까시로 헤치가 오고, 하나는 마 불로 탁 떼지이 불이 나논 거 몬 오고. [다시 말을 바꾸어] 딸이, 딸이 그래.

[금정구 설화 226]

호랑이 도움으로 삼년상을 지낸 효자[뚝골 전설]

김종철(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그게 아이고 옛날에 몬 살았대요. 그래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매일 인자 묘지에 가가지고, 머리는 이만침 질어도(길어도) 안 깎고, 삼년을 꼬박 묘지에 가가지고 부모강 같이 살았는 기라요.

사이 내일이몬 날로 쳐야 인자 삼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마 아무것도 무울(먹을) 끼 없는 기라요. 그래가 걱정을 하이카네, 호랑이가, 호랑이가 어느 날 그래 인자 저녁에 내일은 치야 되고, 오늘 집에 온다꼬 오이카네, 그거 그렁이 이름이 '뚝골 그렁이'라 카는 데가 있어요. 그케 큰 마 호랑이가 돼지를 한 마리 물어다가 마 칭가갓고(끼어서) 놔났는 기라요.

그래 그놈을 가(가져) 아가지고(와서) 그래 날을 쳐노이, 그래 거기 '뚝골'이라 카고, 그래

그 지금 효자비, 비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우리.

[금정구 설화 22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미타암

박귀필(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저저 명곡 미타암, 주남이가? 원래 주신이다, 거기. 주신 미타암에, 옛날에 쌀이 푹푹 떨어졌는데, 그거를 스님이 좀 많이 떨어지라고 구멍을 탁 그거를 쑤, 딱 뚫으니까 거서 물이 나오더라네예.

[조사자: 더 이상 쌀은 안 나오고?] 예. 욕심을 부리면 그리 된다 이 말이겠지.

[금정구 설화 228]

고래장이 없어진 내력

정봉화(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저저 아버지로, [말을 바꾸어] 아 저저 할배로 지게로 담아 지고 고래장을 시겼는데, 저저 저 저저 아버지가, [조사자: 손지가.] 아! 손지가,

“아버지요, 이 지게 이거 가 갑시다.”

“지게 필요 없다 가 가지 마자.”

카이,

“후제(후에) 아버지도 고래장 해야 되지 안 되는교?”

그러칸다. [조사자: 그래서 내려올 때 지고 내려왔는가?] 야 지고 내려와.

[금정구 설화 229]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봉화(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꽃감 주께.”

카이, 범이 와이고, 아가 ‘꽃감 주께’ 카이 덜컥 근치이카네, 호랑이가 마 ‘와이고 꽃감이 내카마 무습는갑다.’ 싫어서 도망가뵈다.

[금정구 설화 230]

바닷물에 갈치가 들어온 갈치제

정봉화(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바닷물이, 저 저 ‘갈치제’라고 있심더. 갈치제라고 있는데, 기장 가는 갈치제라고 있는데, 바닷물이 이 넘치(넘쳐) 아가지고(와서) 갈치제꺼정 바닷물이 넘어오이, 갈치가 바다 거꺼정 갈치가 넘어 왔더람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갈치제라고, 갈치제라고 지았어. 그런, 그런 것도 요요 요렇게. [조사자: 맞아. 저 끝 또 기장 가이 미역바위라고 있던데. 보이카네.] 미역바위는 모르겠고. 물이 바닷물이 갈치제꺼정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갈치가 넘어왔는데 갈치가 넘어 와노이, 그래 갈치제라고 정했어.

[금정구 설화 231]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홍정희(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옛날에 안자, 그래 안자 제사라고 안자 그래 읍는데, 오이카네 안자, 오이카네 언제 제사를 초지녁에 지내뵈어.

그래노이 불이 캄캄해 꺼지가 있으니까네, 그래 딱 데 떡 돌아가가지고 어디 주막에 가가 빵을 그래 하나 사묵고 그래 가더라 카대.

안자 제사로 일찍이 지내지 마라 카대. 너무 일찍 지내지 마라 카대. [청중: 시간 되문 지내라 한다 아이가.]

[금정구 설화 232]

여자 말이 무서운 이유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또 이야기 하나 할까? 옛날에 옛날에 저저 아들 돌이고, 아들 돌이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이가 조금 농사 짓고 단란하게 살았는데 단란하게 살았는데, 그래 여자 말이 무섭다 키는 그기라.

그러가 인자 아빠는 눈 갈러 가뿌고 없고. 엄마가 인자 아들 돌이 델꼬 있는데, 부엌에 뭐로 하는데, 형제간에 노다가,

“엄마, 엄마, 아무것이가(아무개가) 오줌 썩다.”

이래 카이까네,

“아이고 그놈 자석 마 고치를 싹 끊어뿌지.”

마 이래 이래 말로 했는 기라. 그계 환근인(화근인) 기라. 그래놓이 이 머스마가 저저 새이가 (형이) 모르고 막 고추를 싹 끊어뿌이 마 죽어뻘거든. 그래가,

“엄마, 엄마, 고치를 끊어뻘게네 마 아무것이가 죽어뻘다.”

이카이, 그래 지거 엄마가 불로 때다가 부지깽이로 가지고 들와가지고(들어와서),

“이놈우 자석, 우뻘근데(어찌 했는데) 그라노?”

쿠마 큰아 머리를 탁 때리니까 마 머스마가 또 죽어뻘네. 팍 꾸불어져 죽어뻘네. 아 돌이 다 죽어뻘네. 이 여자가 인자 큰일인 기라. 남편은 일해가 올 때가 됐고. 그래가 마 소 마굿 간에 가서러 마 목을 매 죽었는 기라.

그러이 남자가 일하고 오는데, 일하고 오이 막 소가 배가 고프이까네 소가 막 뛰가거든. 인자 지 죽 물라고 뛰가이까네 허영이 죽어가 있으이까네, 소가 마 놀래가지고 튀 나오거든. 튀 나오는데 그 아저씨는 인자 훌치이, 훌치이 내룬다고 소마구 문 앞에 탁 내루이간에(내리니), 소가 마 튀나와가 마마 아저씨도 받치(받혀) 죽어뻘렀다.

[금정구 설화 23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에, 에밀레 그거는 인자 그 저 종이 동양을 하러 갔는 기라. 에밀레종 할라고. 새로(쇠를), 새로 인자 사가(사서) 할라. 집집마다 인자 동양을(동냥을) 하러 가이께, 어느 집에 가이께 알라로, 딸아를 하나 안고 이래 있으면서 그래 동양 줄라하인께네.

“아이, 우리는 동양 줄 거 없다. 몰라 동양 줄라 하면 우리 에밀레를 주면 줄까.”

이래 했는데 고 입이, 여자가 여자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카고 갔는데, 이 저저 절에서러 아무리 에밀레종을 맨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기라. 이래가 어디 가 물으이 에밀레로 삶아 열야 된다 하거든, 그래가 에밀레를 사가 가가 그래서 종이 덩- 치면,

“에밀레~.”

애미 때문에 죽었다고,

“에밀레~, 에밀레~.”

[금정구 설화 234]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소리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엄마 본 지도 까망고, 제수씨 본 지는 더욱 더욱 까망고. [청중: 보리타작 하다가.] 보리타작 하다가. 그래가 뭐 제수씨 보지는 더욱 더욱 까망고. 저놈우 자식이 내 보지는 지가 나올 때 봤지만은, 제수 보지는 언제 봤던고 [일동 웃음] 까망다 카노?

“제수씨도 내 좃만 바라고. 내 좃만 바라고. [조사자: 형수님도 내 좃만 바라고.]

내 손만 바라고를 갖다가 새가 짚으이(짚으니).

[금정구 설화 235]

혀 짧은 시어머니의 말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그래 옛날에 손님이 가 갔는데. 시어마씨가, 시어마씨가 싸가(혀가) 좀 짧라노이까네.
“아이고, 우리 집에 메느리는 좃님 하나만 오면 짹을 하고, 둘이만 와도 짹을 하고.”
[일동 웃음] 짹이 있었거든. 밀가리로가 이래가지고 짹을 하는데 그래 씨아마시가 싸가
짧라노이까네.
“아이고, 우리 집에 메느리는 좃님 하나만 오면 짹을 하고, 둘이만 와도 짹을 하고.”
그라더란다.

[금정구 설화 236]

아이들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옛날에 아들 둘이를 델꼬 엄마 아버지가 살았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그래 인자 뭐
촌사람 뭐 바양(방) 들어가 앉아가 있으니, 불이나 뜨뜨하니(따뜻하게) 떼놓고. 비는 부실부실
오고 하니 할마이 생각이 났어. 그래 아들 둘이로 인자 내 보내야 되는데. 그래 인자 이 잇아
뻘다. 큰아들이는 저 요새 치면 인자.
“동에 가서 뭐 공문이 뭐라꼬 왔는공 함 가봐라.”
이카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은 또 뭐 어째 했는공 이래 했는데.
그래 인자 저거 집에 인자 옛날 토담집은 뒤에 봉창이 요마이 있거든. 그래놓고 인자 아,
작은아들은 미꾸라지를 잡아가 오라 캬다 카더나? 그래 그랬는데, 그래 저게 머스마 둘이서
로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 뭐 하는고 본다고 이래 봉창문에 보고 있으이까네, 저거 엄마캬
저거 아버지캬 참 재밌게 해샀거든. 그래 인자 그거를 보고 난중에 인자 저거 아버지가,
“너거 저 공문이 뭐라꼬 왔더노?”
커이까네, 저게 아이고 뭐 재밌는데.

“그 공문이 뭐라꼬 왔더노?”

쿠이까네, 저게 미꾸라지, 미꾸라지 말인데. 아이구 그 공문을 잊어뵈네.

“무슨 공문이 왔더노?”

쿠이까네, 미꾸라지 밑에 그 올라가 이 무슨 말이더라. 그 안 나오네.

[조사자: 그래가 그 다음에는예?] 그래 인자 아들이, 아 저 아버지가,

“너저 무슨 공문이 왔더노?”

쿠이까네,

[조사자: 저거 엄마 아빠, 아버지 하는 거 본 거, 그 이야기를 했구만예.] 응. 그 이야기를 했어. 그 이야기를. [조사자: 그게 문자가, 그 대목이 재밌는데 그지예?] 그게 문자로 있는데 아,

“낮에 낮거리 하는 놈 잡아들이라.” [일동 웃음]

“공문이 왔는데 낮에 낮거리. 아버지요 낮에 낮거리 하는 놈 잡아들이라 쿠대요 공문이.”

[금정구 설화 23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저저 아버지가, 손자는 손자는 아이(아직) 어리고. 저저 아버지가 저그 아버지가 저저 할배가 돌아가실 때, 저저 나이 많으니까네.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갖다 뵈어. 산에 갖다가 내뻘리고 와가 지게를 문 앞에다가 딱 놔두이까네, 손자가 지게로 만지거든.

“니 손자, 그 지게 와 만지노?”

쿠이,

“아버지 돌아가시몬 할배맨기로 저다 내뻘릴라꼬.”

[금정구 설화 238]

똥떡 구워 팔았던 할머니

장귀안(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그래 옛날에 우리 할매, 우리 친정 할머니 올케가 있었는데, 만날 그래 이야기를 한대. 우리가 일본 있을 직에. 아이고 아무것이 저거 엄마는 저 조선에 국회 다리 밑에 똥떡을 끓여가지고, 우리 할매 그 올케가 만날 그 우리 집에 오몬 그 이야기를 하네.

똥떡을 끓여가 파는데, 꼬치에는 쫄갑지를 열두 개를 달아놓이 그저 이리 가도 조롱조롱 왈가락왈가락 저리 가도 왈가락왈가락. 그게 귀에 익었어. 그 할매가 하도 어릴 적에 해사놓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귀안이 잘 있는교?”

똥떡을 끓고 꼬치에다가 쫄갑지를 열두 개를 달아가 왈가락왈가락 하몬서도.

“아이고 우리 아무것이, 잘 있던교? 잘 있던교?”

한다꼬.

[금정구 설화 239]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윤순필(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알라가(아기가) 우니까, 달개니까(달래니까) 암만(아무리) 달개도 안 달개지거든. 그래서 호랭이 온다 카문 겁을 내가 안 울까 싶어서,

“호랑이, 뒷동산에서 호랑이 내려온다.”

카이 아가 더 울거든. 그래 호랑이가 밖에 있었던 말이다. 있으이,

“호랑이 온다.”

카이 더 우이까, 그래 인자 달개다 달개다 호랑이 온다 캐도 더 우니까,

“그러면 저 아버지 그거 자양(장애) 가서 꽃감 사오거든 꽃감 줄게.”

카이까네 아가 안 울거든. 그래 호랑이가 달나면서,

“어데 가노?”

한께네,

“왜 그래 도망을 가노?”

카이,

“내보다 더 무서운 놈, 꽃감이 있다.”

호랑이가 저 호랑이가 온다 캐도 안 그치고 우는 기가 꽃감 준다 카이 그치거든.
“아, 내보다 더 무서운 놈 있는갑다.”
그래 도망가더란다.

[금정구 설화 24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애식(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노래소리가, 저 인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루고 있는데 스님이 시주로 오니까 그 시주를 하라꼬 인자 그거를 하나까.

“아무것도 줄 끼 업꼬.”

어루면서 그래,

“우리 딸이나.”

딸인강 뭐 아들인강 그 인자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어루면서,

“주까, 아무것도 시주할 게 없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 난중 결국 종을 만들어놓이 종이 소리가 안 나더란다. 안 나서, 그 종이 소리가 안 나니까 인자 그거로 몬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난중(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주 그거 한 데서 덜 받은 데가 있어가지고 종소리가 안 난다.’ 이래 돼가 그래 그 집에 가가,

“그 시주를 줄라 했으이까네 바치라.”

캐가 그래 인자 자식을 바치어. 바치가 그래 난중에 결국 인자 그 종을 만들어 논까네 (만들어 놓으니), 종소리가 그래 엄마가 그거 해서 그래 댘다고 에밀레 종소리가, 에밀레 하는 종소리가 났다 카대.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할매들이 이야기를 그리 해사쌌대.

[금정구 설화 24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애식(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고려장은 나가 많으면 그 집에 안 나두고(놔두고) 한데 처소를 맨들어놔가 해놓고, 그 쌀로 여놓고 물도 여놓고, 그래가 거기다가 그 사람을 여놓으면. 그 물이, 뜨물이 안 내려 오면 죽었다 인자 초상을 치렀다 캐. [조사자 : 그 지게 지고 가가지고.]

지게 지고 엄마를 그 가가 내 빠리가가지고 그래 집을 지아가, 쌀하고 거다 물하고 들라 쥐가 그거 물고 그 뜨물이 안 내려오면 죽었다꼬 초상 치는 기라.

[조사자: 그래갖고 할머니를 떡 내려 지게를 지고 올라이께네, 버리고 올라이께네. 그 손자가 그 지게를 지는 거.]

지게 놔두고 간다. 손지가 만약에 인자

“와 할매 버리노? 나도, 아버지가 할매를 버렸으면 나도 인자 아버지를 버린다. 지게를 버리지 마라.”

카는 거.

[금정구 설화 242]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애식(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호랑이가. [조사자: 옛날에.] 아 그래,

“꽃감 주꼬.”

카이, 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되고. [조사자 : 애가 울 때. 울 때.] 응. 안 달개지고.

“꽃감 줄께”

카이, 달개진다 카대. 뭐 그리 샀대.

[금정구 설화 243]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 영동할매

이애식(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영동할매 아시지예?] 영동할매는 모른다. [조사자: 바람할매.] 아하 이월, 영동. [조사자: 이월 영동할매가 딸 데리고 오면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메늘(며느리) 델고 오몬, 딸 데리고 오몬 비 오고. 베로 짜몬 비가 오몬 이 베가 (벼가) 요가(여기가) 잘 짜지고. 바람 불몬 베가 안 되거덩. 그니까 메늘 데꼬 오면 바람 불고, 딸 데꼬 오모 비 오고 그랬다. 이월 영동할매 그래.

[조사자: 할머니, 이월 영동할매가 까타로와가지고 나락같은 거 흘려놓고 새가 먹으몬 죽고. 고 이야기 좀 해주이소. 나락을 어떻게 합니까?]

나락을? 나락을 비가지고, 비가지고 손도 안 대고 손 문 문힌다. 자리를 깨끗하게 해가, 찢어가 저 단지에 얹어 놓는다. 시주단지에 얹어 놓는다 아이가 고 모시났다가 맹년 이때 되면 고사, 가을 되몬 또 비우고 또 나락 흘터가 찢어가 놓고 그란다.

[금정구 설화 244]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소리

이에식(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조사자: 보리타작 하면은, 형수도 내 좇만 바라고.] 내 좇만 바라고. 뒤쪽에 형수도 내 좇만 바라고. 앞집에 제추도(제수도) 내 좇만 바라고. 내 손만 카는 기. [조사자: (웃으며) 그 보리타작 할 때.] 응. 보리타작 할 때.

[금정구 설화 245]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보기(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옛날에 그런 뭐 어린 애기가 산골에서러 살고 이래 있는 한 집에서러, 산중이 되노이 그래 애기가 한 번 울기 시작하면은 오래 오래 그 자꾸 안 가이께네, 어데 오만 거를 다 주도 다시 안 달개지고(안 달래지고) 하이께네, 하다가 하다가 안 되서 난중에는,

“꽃감(꽃감) 주꾸마(줄게).”

하니깐 떨걱 그쳐뿌랴. [청중 웃음]

응,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맞춤, 고때 마춤 문 앞에 딱- 와가 바라코(바라고) 있으이께네,
그 와 호랑이가 들으이께네 고마 그거 꽃감 주꾸마 카이 얘기가 탁 그쳐뿌이까네,

“하, 이 내가 최고 무서븐 줄 알았는데, 꽃감이 더 무섭은(무서운) 기구나.”

카고 마, 지가 마 몬 이기고 마 내빼뿌니까네(도망가니까), 그래가 그기 인자 ‘꽃감 주꾸마
울지 마라.’ 카는 이야기가 돼뿌렸어.

[금정구 설화 246]

가짜 상투 만들려다 죽은 스님

박영자(여, 1944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그래 옛날에 스님이, 스님을 내- 하다가 장가를 갈라 카니까네, 이거 상투를 쪼사야(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뽀뽀 깎아빼이 상투를 몬 쫓는다 아이가. 그래갖고 그 스님이 인자 형제간한테,

“내가 장가를 갈라 하는데 요래 쫘 상투를 만들어 달라”

이래 카거든. 그러니까네 인자, 이따다가(이곳에) [머리를 가리키며] 못을 박아야 되는
기라. [청중: 음음.] [조사자: 음.]

이 못을 박아야 되니까는 인자 딴 사람들이 잡고 못을 딱 요래 하는데, 망치로 가지고
때리니까, 탁- 때리몬 아프다 아입니까 그지예? [청중: 못이 그 들가몬 죽어뿌지.]

“아야!”

이래 카거든. 그래도 인자 다른 사람이,

“참아라.”

카거든. 또 세 번째 탁- 때리이,

“아야!”

이카거든. 또 세 번째를 탁- 때리니까,

“아야!”

이래 카거든. 그래 네 번째 때리께네 마 ‘아야!’ 소리도 안 하고 다 죽어뿌렸어. 장가 갈라
하다가 죽어뻘은 기라. 그리고 아들이 오면은 그 소리 이야기 해달라고 캐, [청중: 아야, 손지가.]

[조사자: 애들이 어르신들이 옛날이야기 해주시면 그렇게 정겨워 한답니다.] 그래. 지도 들어
가지고 유치원에 가면 한대. [청중: 음음.] 그래 할머니 확실히 모르겠다 카면서, 만날 오면

이야기 해달라고 카더라.

[금정구 설화 247]

자기 새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촌에, 아주 깊은 산중에 나물을 뜯으러 떡- 갔는데, 이 참 이래 굴에 보이께네, 오물오물하이 호랑이 새끼가 이래 오물오물하이 있었어. 근데 거기 곱다고 마 나물을 뜯어가 마,

“하이구 예쁘다!”

캐사며 요래 시담고(쓰다듬고) 좋다고 보듬고 이런께네, 큰 호랑이 애미가 저거 새끼 좋다 칸다고, ‘허허’ 웃었는 거라. ‘허허’ 이래 웃은 기, 이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소쿠리고 뭉고 다 집어던져뿌고 집에 왔는 기라. 다리야 날 살리라 카고. [청중: 와 아이라.]

그래 오가지고서나(와서) 겁이 나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이 그 소쿠리 지쭈 소쿠리, 지쭈 문 앞에 딱딱 다 물어다 냈더래요. [청중: 호랑이가?] 응. 호랑이가. 그레이께네 자기 새끼 좋다 칸다고 ‘허허’ 웃었는데, 그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마 마 소쿠리도 내 던지뿌고 달아나가 집에 왔는데, 그 호랑이가 우째 이 사람 소쿠리인 줄 우째 알고 요 사람 소쿠리, 지쭈 소쿠리, 지쭈 소쿠리 문 앞에 딱딱 다 갖다 물어다 냈더래. [청중: 똑똑한 호랑이다.]

그래 나는 옛날에 클 적에도 꼭 나 만나이 많은) 어른들 집에 잘 놀았거든. 그 가서 옛날 얘기 듣고 놀고 이래서러 내가 고걸 쪼깨이(조금) 알았어.

[금정구 설화 248]

‘호박죽 묵고’라 하면 달아나는 명태구신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명태구신. [청중: 명태구신도 있나?] 응. 그래가지고 비가 되게(많이) 오는데, 이래 저 어른이 어디 갔다가 옴시로(오면서) 삿짝, 옛날에는 삿짝문을 이래 달아놓거든. 삿짝문을 열어줄라

카이께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인자 명태구신이라. 다 그기라꼬 저저 구신이다, 명태구신이라 카몬 달아난다 카네, 그기 겁이 나서러. 그래 명태구신이라고시는(명태귀신이라면서) 그래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이,

“내가 명태구신이 아니다. 문쫘 열어 돌려.”

캐도, 그리 캐도 마,

“호박죽 묵고, 호박죽 묵고.”

캄시로 이래 자꾸 캐가, 그 사람이 그래 끝끝내로 아침까지 비로 맞고 그 삽작께로 서가 있는 그기 역사가 있다 카더라고.

[조사자: 할머니, 명태귀신이 뭔대예?] 그러게 나도 모르지. 명태구신, 응 명태구신이라 카대. [조사자: 전 그 귀신 이름은 처음 들어 봤네예. 그게 켈 무서운가봐예.] 그래 무섭다 카대, 그래 그거 구신은 ‘호박죽 묵고’ 카면은 달아난대요. 호박죽. [조사자: 아아 그 말만 하면 귀신이 달아난다고.] 응. 몰라 나도 옛날에 할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

[금정구 설화 249]

개로 환생한 어머니의 세상 구경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옛날에 고려장할 쟈는(때는), 아 인간 칠십 고려장이라 카거든. 인간 칠십 고려장이라 카는데, 그때는 무조건 칠십을 묵으면은 인자 고려장을 해야 되니까, 그 이 뉘 안에다가 굴로 이리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목을 꺼하고 그릇하고 다 영어놓는다 그라대.

[청중: 그 영어놓고 째어지고 간다 안 카나 나 많은 사람들.] 어. 그래 영어놓고, 나이 많은 사람을 그기에다가 영어놓고 이 앞에 문을 달아 뽀다. 그런 얘기는 들어 봤어요.

[조사자: 그래갖고 인제 엄마가 그 할머니가 이제 칠십 되니까, 아들이 지게 지고 갔다 와가지고 지게를 헤딱 버리고 오니까, 따라갔던 손주가 나도 아버지 지고 가야 되니까, 그 지게 버리지 마라고.]

아아, 그 얘기는, 고 얘기하고 내하고는 쫘 틀린데. 어머니가 참 어데, 참 어데 구경도 몬 가보고 집에서 내- 이래 있어가, 근데 참 절에로 가고 싶어도 절에도 몬 가보고 이랬는데, 참 인자 엄마가 편찮해가지고 이래 참 병중에 늙어있으니까네, 아들이 지게에다가 째어지고 이래 팔방곡로 댕기매(댕기며) 지게를 지고 구경을 시키는 기라.

이래 시키다가 그게 인자 우째 뉘냐면은, 그 할매가 참 돌아가시기가 개가 뉘는 기라. 개가

돼가지고 절에 인자 법당 뒤에 개가 한 마리 딱 눕어가 있었는데, 그 개가 그 아들이 짹어지고 이래 땡기면서러 팔방 구경을 시키날아놓이께네, 스님이 그 인자 말하자면 우에 저거 스님이 참 효자 자석이라 카미, 그 사람이 개를 태어나가 법당 뒤에 눕어있더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조사자: 환생해서.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금정구 설화 250]

허벅지 살을 베어 남편을 살린 아내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옛날에 아-주 참 있는 집에 이 집을 시집을 보내 놔놓이께네, 총각이 그래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좋을 수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이께네 딱 이 문디병 있죠? [조사자: 세상에.] 그기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러 이 참 새덕이가 생각다가 문 해가(못 해서) 옛날에는 인고기 좋다 카는 소리를 듣고, [청중: 인고기가 사람고기, 사람고기.] 응, 사람고기. 그래서러 인제 이 젊은이가 시집을 갈 적에 이거 명주로 한 두 필씩 옛날에는 가지 간답니다. 이 명주 베를. 그래가 인자 있는 집에 시집을 가이 곳간에도 보니까 마 이 솥도 있제, 뭐 별기 다 뭐 곳간에 뭐 없는 게 없이 있으이.

그래가 가만히 생각다가 자기 이 허벅지 이 다리로 싹- 빠지는 기라, [청중: 아이구 무시라.] 이거를 싹- 빠지고, 그거 그거 그거 명주 그거를 한 필을 여다 다 감았는 거라. 피 나오지 마라고. 딱 감아놓고 고기를 인자 솥불을 피워가 끓어 주니께네,

“참 이 고기가 무슨 고긴고 간도 요래 맞고 참 맛있노?”

이래 카미 그거를 다 묵고 난 뒤에, 차차 보이 좀 낫는 거 걸어서러(갈아서) 또 한 번 이쪽 다리를 또 빠지가지고 그거를 끓어가 먹이고는(먹이고는), 또 한 필로 여다 다 감고 이라고 놓이께네, 그 신량이 허물을 싹- 벗고 새 사람이 됐는 거라.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이 참 서로 부부생활하고 인자 좋아가 보이께네, 여 보이 흉터가 너무 있어 노이께네, 이 신량이 마 정이 떨어지는 기라. 자기가 그런 병을 앓았는데다가 ‘이 사람은 또 무슨 병을 앓아가 이런 흉터 있노?’ 싶어가지고 마 정이 떨어졌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시아버지가 메느리를 불러 안차놓고(앉혀놓고) 물었는 거라. 그래 인자,

“우째서 그래 니가 이런 흉터가 있노?”

이래 물으니까, 그 메느리가 자청을(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는 거라,

“아버님, 이차저차 하고 그래서 저 허벅지를 빠지개(저며) 끓어가(구워서) 드렸습디너.”

이래 카이,

“그래가 또 이쪽 다리마자 빠지가 그래 꼽어가 드렸습니더. 그라고 나서 이 허물로 벗고 새 사람이 됩디다.”

인제 이래 카이께네, 그 정신에 시아버지가 신랑을 갖다가시는 저 마당에다가 덩석 피이 놔놓고(펴놓고), 인자 메느리는 마리에(마루에) 이 마 참 마 이 마마 방석을 이래 좋게 해가, 비단 방석을 해가 안차놓고,

“니가 거서 절로 골백번, 니가 절로 해도 해라.”

이래 캐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가 그 병을 낫아가 끝에는 잘 살더래.

[청중: 아들이 그 저저 저그 마누라 잘 산다.] 그래 그래 허물로 벗고 새 사람이 돼가 그리 살대. 그래이 옛날부터 이 이 문디병이 오며는, 길가 땡기면 아를 잡아가, 간지래가(간질러서) 간을 키아가 간을 빼묵는다는 이런 소리도 있거든. 이 뜻이 그 인고기 풍병에 좋다 소리 듣고 그리 해 먹있는갑대. 그래가 낫았단다.

[금정구 설화 251]

조치원역이 된 내력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내가 나도 여계 들은 얘기거든, [청중: 함 해보소 마.]

아 이 나가(나이가) 많으문, 이기 이 나 많은 할배들이 이 성관계가 잘 안 된다 아이가. [청중: 하이고! 문디 같은 거 또 할라고.] [일동 웃음] [조사자: 아 그거 해주이소. 우린 더한 것도 듣습니다.]

그래가 성관계를 할라 커니 안 되거든. 힘이 없어가 안 되이께네, 이놈우 마음은 있어가 성관계를 할라 카는데 이거는 물건은 안 되제 이러이께네, ‘에이 빌어먹을 되지도 안 하는 거 놔둬가 뭐하겠나?’ 싶어가지고 철뚝에 갔는 기라. 열차 그 철길에 가가 이 턱- 내놓고 있었는 기 갈아뺄라고 있으이, 열차가 저기서 쪽 온다 아인가배? 오미(오며) ‘뻑뻑’ 해도 이걸 치아뿌 지를(치우지도) 안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암만 ‘뻑뻑’ 해도 소리를 질러도 안 치아가, 낸주는(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거 거거 운전하는 사람이,

“거 좃 치아라.”

깟는 기라. 그래가 그 조치원역이 [조사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조치원역이 됐답니다. [조사자: 아 어디서 들은 듯한 느낌이 오네.]

[금정구 설화 252]

이 빠진 할아버지의 사랑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그래 이 할배가 참 이 할마이 절애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서 이 젖을 빨았는 기라, 이놈우 젓꼭대기가 안 붙었을 때는 몰캉하다 아이가. [조사자: 음.] 그래가 요 딱 들어가 쫄쫄 빨다보 이 젓꼭대리를 물어가지고 이 안 빠지는 기라. 인자 이기 요요 이빨새에(이빨사이에) 들어가 지고. [청중: 하이고! 인자 고마 해레이.] 하이고, 마 저녁에 인자 며늘하고 같이 다 한 방, 한 집에 사는데 시어마씨가,

“아야! 아야! 아야!”

케싸이 ‘하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데 저리 편찮는공.’ 싶어가 들다볼라 캐도 시아부지도 있제, 하 그래가 또, 할 수 없어 또 인자 또 이 영감은 또 빨라고 씨게(세게) 그라다보이께네, 하나까 더 아프이께네,

“아야! 아야! 아야! 아야!”

하이께네, ‘하이고 알긋어라. 우리 어무이가 어데 저리 편찮는고?’ 싶어가 낸중에는 살쩍이 문을 열고 들다보이께네, 이놈의 이 젓꼭대이가 이 새이에(사이에) 킁기가 그놈 빨라고, 아 이렇게, 빠지지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께네,

[청중: 이제 고만.] [청중 웃음] 함부리 이 빠지려는 요새는 다 빨리 해영야 되니까, 마 해 영이께네 괜찮해. 응응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

[금정구 설화 253]

사돈집에 가서 실수한 이야기

홍희정(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옛날에는 이래 이 사돈을 맏아면은(맏으면), 저쪽 사돈도 청하고 또 이쪽 사돈 저쪽 청하고 안하는가배. 인자 사돈 온다고 촌에서 술로 동동주를 담았어. 아주 맛있게 담았는데, 그래 인자 마리라(마루라) 카는 기 인자 옛날에는 그 대나무, [조사자: 네네.] 대나무 그거로 영성영

성하이 이래가 마루로 했거든.

그래가 인자 그 할배가 이리 앉았는데, 이 영감이 자기 옷을 안 입고 오고, 할마이 이 와 옛날에는 이 속곳, 이 가재이(가랭이) 벌어지는 속곳, 단의 그거를 입고 왔는 기라 모르고. 그래가 인자 마루에 척- 하고 이래 앉아있으니, [청중: 앞은 안 벌어지는 거, 이렇게 앉아가.] 아이다. 앞으로 벌어지는 ‘단의’가 있다. 그거 ‘단의’라고 있어. 저 행님들은 안다. 단의.

그래가 마 물건(‘남근’을 가리킴) 이기 이 마리 새(마루 사이)에 대나무 새(사이) 밑에 빠졌는 기라. 빠지놓이께네 개가 그 밑에서 돌아 탈탈탈탈 훔았는 기라. 훔다보이 난중에 그걸 물었어. 물으이 얼마나 아플 끼고? 그러니께네 술을 한 잔 따라주고, 바깥사돈을 물을, 이래 물로, 술로 따라 주니까, 이래 마시며 콧- 찡그리더라 카는 기라. 그놈, 밑에서 개가 그걸 물면 얼마나 아플 끼고? 아파서 찡기렀는데, 그 사돈 온다고 술로 맛있게 담았는데, [청중: 거짓말도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돈 술 씨요(씹나요)?”

이래 카이,

“야. 씨요(씹습니다.)”

이래 카이께네, 난주(나중에) 한 잔 더 따라 주이께네, 밑에서 마 개가 콧- 물어뽀는가봐, [청중 웃음] 되게 아프거든. 그런께네,

“아이고 사돈, 술이 그리 씹니까?”

[큰 소리로.] “야. 씨요.” [청중 웃음]

카며 뒤로 혈떡 넘어지는데, 기기 연장이(남근을 말함) 마.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봤어. 행님 들어보지도 았아. 이 새덕이로 어데 듣나 어데. 우린 늙어놓으이 듣지 뭐.

[금정구 설화 254]

개가 교미하는 것도 모르는 교장선생님

김순남(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내 전에 이야기 안 하더냐? 개가 암놈 숫놈이 교미를 딱- 하고 있는 거라. 그거는 실화다. 교미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인자 공께 그 하룻길에는 교장이 나와서 교장이나 교감이 아이들 하교할 때 딱 보는 거라. 그래 교장이 딱 인자 교문 앞에 서가 있음께 오학년 학생이 머스마가 하나 그 교미를 하고 있는 그 개를 보고,

“교장선생님, 저 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래쿤께, 못 참는 기라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몰라.”
이캉께,
“그것도, 개 뭐하는 것도 모르면서 교장 하요?” [일동 웃음]
그 머스마가 그리 말했다고. 그래 이 선생님들끼리 앞아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해가 마이 웃었어요. 나 그거뿌이(그것밖에) 몰라요. [웃음]

[금정구 설화 255]

구렁이를 잡아먹어 망한 녹천탕

김순남(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그 소나무는 나도 알아 그 소나무를. 큰 소나무 이래 요 두 그루 있었거든. 양쪽에 이리 마주 보고 있었는데, 요는 담이고 요 소나무 두 그루 요래요래 있었거든. 그 인자 그거를 호텔로 짓기 위해서러 인자 그거를 베뿌는(베었는) 기라. 베가지고 이거를 포크레이(포크레인)가 파는데 구렁이가, 이래 큰 구렁이가 나왔는 기라. 큰 구렁이를 그거를 가급적 낚뒤야 되는데 그 녹천탕 사장이,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그 아버지가 그 구렁이를 잡아가 고아 먹은 기라. 고아 묵고 나니까 고마 집이 폭삭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영감 죽고, 할멈 죽고, 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큰아들 죽고 인제 그 대는 다 끈치뿌(끊어진)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다시 인자 그 재생을 해가지고, 번창을 해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 기라, 그거는 그거는. [조사자: 녹천탕은 유명했는데요.] 어. 그거는. [조사자: 학교 다닐 때도 녹천탕에 목욕하고.] 그래 녹천탕 유명했어. [청중: 그래갖고도 또 와 사람 안 죽었나.]

[금정구 설화 256]

밭에서 온천이 나와 생긴 녹천탕

김순남(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원 사장 본마누래가 죽고, 아 저저 본마누래는 살았었고. 후처가 들어와 여 그 녹천탕 지을 때는 [청중: 지금 후처가 하잖아 그래.] 후처가 들어와 녹천탕 지었거든에.

본마누래가 살았을 때 그 밭을 매니까, 밭을 이리 매다가 본께네 그거 뽀얀 김이 이리 밭에 나더라네. [조사자: 아아.] 뽀얀 김이 밭에 나가지고 그래가 녹천탕이 그래 생겼다 하더라고.

파보니까 그 온천물이 생겨. 그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인자 녹천탕을 짓다 하대. 녹천탕이 그게 진(지은) 지가 진짜 엄청 오래 됐거든. [조사자: 예. 그 유명했다 아입니까.] 어. 유명하고.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또 지뜯고 그 저저 모텔로 짓거든(지었거든). 모텔로 지가, 모텔로 지어가 사용하다가 또 본체는 또 본체 놔두고, 이쪽에 지을 끼라고 인자 소나무 그 벤 게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래가 자식대까지 부모들 하고.

[청중1: 집을 허물었는데 현 집에서.] [청중2: 늘 집안에 돌아 땡겼다대. 현 집에서 나왔단다.]

[금정구 설화 257]

정성으로 모신 당산제

김순남(여, 1947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와 저 그 당산제 지낼 때는 집안도 깨끗하고, 대대로 그 뭐 누가 자식 죽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깨끗한 사람이 지내거든. 나는 우리 엄마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봤어. 하는데 하여튼 그 정월 달에 그 축인데 그 목욕 목욕재계 인자 그 찬물에 그 얼음을 깨가 찬물에 목욕재계를 하더라고. 목욕을 하고 인자 일주일로 딱 정성을 들이는 기라, 일주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저 당산에 가가 하대.

그런데 음식을 뭐 콩나물이고 뭐고 떡이고 뭐고 해도, 딱 소복하고 입 인자 흰 수건으로 입 딱 두르고 이렇게 음식을 하대. 그러니까네 인자 그 제 지내는 남자들도 다 깨끗한 사람, 뭐 흥사 길사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인자 제를 지낸다. 딱 지내고 나니까 그래 인자 그 음식을 갈라먹고 이라대.

당산나무 보면 여름에 보면 당산나무에 큰 구렁이가 [조사자: 고향이 어디신데요.] 의령이다. 큰 구렁이가 이리 돌돌돌돌 감아갖고 이이 양쪽에 이리 있고 이랬거든. 우리 클 때 실지로 보고 했거든. [조사자: 부산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데 부산은 450개 마을에서 당산제 지냅니다.] 응 지금. [조사자: 지금도 지냅니다. 없어진 데도 많은데 다 조사하면 450개 정도 가.] 지금은 지내도 형식으로 지내지 옛날처럼은 안 지내겠지. [조사자: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안 지내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노인분들이 몇 분 가가지고 분장하고.] 그렇지. 술 놓고

이래가 옛날에는 그라고나서, [조사자: 산성에는 아직까지 크게 지내고.]

그래 그라고나서 집집이 인자 풍물 치고 댕기고 이랬거든. 그 당산제 지내고 나서 그리 했거든. 당산제 지내기 전에는 거 안 했고. [조사자: 그라고 그 당산나무 째라가지고 동티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에.]

그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조사자: 불도 못 떴고.] 그런께네 당산나무라 하면 일체, 일체 그 손을 안 댔다 아이가. 당산나무는 인자 손 댔다 쿠면, 나무는 하나 꺾어도 그 집안이 망한다는 이런 말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조사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금정구 설화 258]

아기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시골에서 사람이 이래 사는데, 그 저게 얘기를 젓을 물리고 앉아 있다. 그 그림을 바니까네 (보니까). 젓을 물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인자 중인가 누가 와가 시주를 왔는데 줄 게 없다고, 너무 가난해가 줄 게 없어가지고, ‘머를 주꼬 우리 아무것이를 주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인자 나중에는 그 어떻게 알게 돼가. 그 애가 이 도자기를 맨드는데 그 불을 때면은 그 그 도자기를 맨들며는(만들면) 소리가 난다. 이래가 도자기 맨드는 데서 불을 때갓고 종을 맨들었다 하더라고. 내,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불 때는 데 그 애를 넣어갓고 불을 땀다 하대. 그래갓고 종을 맨들어갓고 그 종을 절에 가서 치니까, 애미 때미래(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 종이 에밀레종이라고, 소리가,

“에밀레.”

하고, 소리가 났다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나는.

[금정구 설화 259]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들었어. 저기 엄마가 참 봉사는 아닌 갑던데, 그때 아들이 봉사 갑던데 나는. [청중: 아들이 봉사가 아이다. 엄마가 봉사다. 엄마가 봉사다.] 엄마가 봉사였나? 아- [청중: 엄마가 봉사다.] [조사자: 할머니 아시는 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그래갖고 그걸 내는데 말하자면은 놀래가지고, 놀리는 통에 엄마가 눈 떴다. 나는 그래 들었는데 모르겠다. 니가 알면 니가 얘기 해라. [조사자: 옛날로부터 해주이소.] [청중: (웃음) 잊어뻘지 뭐.] [조사자: 빨리 해주이소. 할머니 아시는 거 해주셔도 됩니다. 아들이.]

어 그래갖고, 어 참 해줄 게 없어갖고, 이 호미를 가지고 가갖고(가서) 그 인자 텃밭에 가서 이래 캐니까, 이슬 온 뒤에는 거기 나오더라 하대. 그 뭐 이래 기 땡기는(기어 다니는) 거. [청중: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도 있지마는 [청중: 굼뻥이.] 이렇게 이렇게 와 그 고동같이 생겼는 거 [조사자: 달팽이?] 응. 달팽이도 있고, 그것도 있고, 퍼런 벌레도 있는데 그중에 인자 ‘지렁이 이기 인자 좋겠다.’ 싶아가 지렁이를 뺏아갖고(볶아서) 시어머니 드렸는데 맛있다고, 그거를 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딱 감쌌다(감쌌다) 하더라고. [청중: 자리 밑에 여 났다데.] 응. 자리 밑에 감춰가지고(감춰서) 나났다가(나두었다가) 아들이 오니까,

“참 엄마 얼굴 좋네요.”

케이,

“며느리 맛있는 거 마이 해줘갖고 내가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

하면서,

“니 줄라고 감춰냈다.”

하면서 내는데, 아들이 놀래갖고 펄떡 뵈 때 엄마 눈을 떴다. 난 이렇게 들었어요. [조사자: 맞아요.] 어.

[금정구 설화 260]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인자 와 밤에 이렇게 놀 때(누울 때), 옛날에는 호랑이가 내려온다 안 합니까 그쵸? 호랑이가 내려오며는 그 저저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대. 호랑이가 내려오며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래 불이 요렇게 뻥하게 썬지고, 호롱불을 썬놓고 있으이 바깥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을라고 요로케(요렇게) 드러다보고 있는데, 그래 인자 꽃감으로(꽃감으로) 이거는 누가 인자 아들이 꽃감을 달라 커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인자 애기를 주야 된다. 아무도 줄 수 없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데 꽃감을 니를 주겠노?”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 꽃감이 그렇게 무섭은(무서운) 거구나.’ 이러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안 잡아먹고 도망간 적이 있다. 요런 것도 들었어요.

[조사자: 맞아요.]

[금정구 설화 261]

여자 밑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그것도 있어. 강원도 어느 산골짜인데 이 빼알[비탈] 밭에서 여자가, 옛날에는 그 팬티를 안 입고 여거가[여자 밑을 가르키며]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거를 꼬쟁이(고쟁이)라 그래. 꼬쟁이 바지를 입고 산에서 인자 비탈길에서 밭을 매니깐, 호랑이가 이상하다고 그걸 따라댕겼대잖아요.

따라댕기다가 새카만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저게 뭔가 싶어 따라댕기다가 나중에 빨건 게 이래 확 벌어지이까네, 무섭다고 도망갔다 안 하요. [웃음] [조사자: 맞아요.] [청중: 호랑이 지 잡아먹는다고 도망갔다고 하네.] [조사자: 이게 무섭게 생겼다고, “세상에 이렇게 무섭은 거 처음 봤다고.” 하대 호랑이가.]

예. 그래갖고 도망을 갔다고.

[금정구 설화 262]

저렇게 냄새나는 것 처음 보았다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또 중이 저거 이래 가다가 보니까네, 어떤 여자 하나가 밥을 이고, 참을 이고 가는 건지, 점심을 이고 가는 건지, 밭에 가다가 오즘이 누렵아가지고(마려워서) 어데서 이래 오즘을 누니까네, 그거 뭐가 물었는지 꼬치를 물었다. 물었는데 중이 보니까, 이고 발딱발딱 뛰니까, [조사자: 일어나서지도 못 하고 그지예?] 예예. 그래갖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마 발딱발딱 성질을 부리고 이래가 있으이, 중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네 [일동 웃음] 그래 냄새가 나더라 하대,

“저렇게 냄새 나는 거 처음 봤다.”

하면서, [웃음]

“빨갭게 익어가 냄새가 나는가?”

하면서러 중이 그랬다 안 하나. 나 그런 것도 듣기는 들었어요. 맞는 가 틀리는 가 모르겠어. [조사자: 맞아요.]

[금정구 설화 263]

뱀을 낳은 여자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등산을 갔는데 그 호수에 내려오는 물을 마셨대요. 물을 마셨는데, 그리고 부부생활도 물론 했겠지만은 그것도 열 달 돼갖고 낳았다 하네, 뱀을 바글바글하게 마니(많이) 낳다 하더라고.

[청중: 어이구 무섭아라.]

사람이 뱀을 낳았다 하더라고. 그게 진짜지 가짜지는 몰라도 뱀을 낳다는 소리는 들었어 예.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맞는 건지 틀리는 거는 몰라도. [조사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지예.] 예. 그 깨구리알도 있고, 산에 가면은 가랑잎 밑에 깨구리 알도 있고 까제 알도 있고 그런 거 있거든예. 그런데 물 마시면 안돼예. 뱀의 알을 먹었기 때미래(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금정구 설화 264]

누룩장사가 다녔던 조병창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조사자: 조병창이야기는 뭐 어떤 건데예?]

제게 저 나는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 이사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집 짓기 전에 조병창이 저기 있었다. 포랑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쪽 살았는데, 그때는 저 산성에서 차가 없어가지고 누룩을 짚어지고 글로(그곳으로) 그 댕겼대요. 댕겨가지고 참 새벽부터 하루 점들(하루 종일) 누룩을 지고 이고 그리고 팔러 댕겼다고 인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병창이라는 데가.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개울가였는데 포랑가라 하더라. 포랑가였는데 지금은 인자 아파트를 다 지었뿌라(지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고 차가 다니고 그런다고.

[금정구 설화 265]

애장터가 많았던 옛날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애기 애장터는 우리가 그런 거는 마이(많이) 봤어요. 나물 뜯으러 다니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죽었어요 애기들이. 흥전(흥진)하다가 죽고, 마만가(마마) 뭐 그거 하다가 죽고, 열이 삼십 칠 도 정도 되면은 애가 죽더라고. 열이 많애갓고(많아서), 그래갓고 한 집에 한 열 명도 놓고 아홉 명도 놓으면은 한 여섯 명 뭐 다섯 명 요래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믄 산에 나물 뜯으러 가보면 돌로갓고(돌로) 요로케 해냈는데, 거기 산에 많아요. 거기 전부 다 애장터라 하던가? 애장이라 하던가? [청중: 애장터, 애장터.] 애장이라고 하더라라고. 그런 게 많아요 산에 가면은. [조사자: 무섭지예? 거기 가면.] 근데 거기 보통이라 하도 봐췌어. 그거는 보통인데 요새는 그런 거 산에 안 가이 안 보이대요. 뭐 산에도 안 가서 그런가.

[조사자: 요새는 애장터 없습시다.] [청중: 요새 안 한다.] [조사자: 요새는 애도 다 장례 하고 하는데, 애장터 안 합니다.] [청중: 장례식장 다 간다.] 그거 많았어요. 한 산에 열 개도 더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금정구 설화 266]

아이를 흠치려 했던 문둥이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우리 아는 집에, 아재집인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인자 너무너무 이빠가지고 방을 안 비우는데, 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거 와 이 옛날에 문디들이 뭐로 이 등거리 같은 거를 짚어지고 휴지를 이렇게 편지고 이렇게 땡겼거든. 땡겼는데, 맨날 봐도 그 집에는 아는 마 이쁘다고 이래 싸이까네, 무슨 안가 싶어가 맨날 지키고 봐도 그 아를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런데 어째 방을 딱 비웠는데 퍼뜩 들어가 아 등거리를 잡아가 짚어지고 갔는 거야. 가는 동안에 아가 우는 소리에 동네 사람이 봐갖고 뛰어가가 붙잡았다고. 안 그랬으면 그 아 죽었어. 그 문디들이 그 아를 어떻게 해갖고 저거가 낫는다 하더라고. [조사자: 그러니까 옛날에 간 빼먹는다고.] 어어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동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사자: 실제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구촌 아지매라고 애기를 낳았는데 그리 됐어요.

[금정구 설화 26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아들이 엄마 칠십 살 됐는 아들을, 아들이 엄마를 업고 산에를 올라가잖아요? [청중: 업고 가기는 지계를 지고 가는데. 저거 아버지하고 지계를 지고 가는데. 그래 인자 갔다 물어놓고 인자 지계를 저게 뭐고? 가져올라 칸께네 아 저거 손지가.] [조사자: 고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이야기 다른 이야기.] [청중: 손지가 인자 내나 저게 지계를 이게 지고 가니까네, 저거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니 지계 뭐 할라 가오노(가져 오나)?” 하이까네. “아버지도 칠십만 되면 업고 가야 됩니다.” 하이까네, 그 질로 이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더라.].

[조사자: 할머니는 다른 거 아시지예.] 할머니는, 그거는 나는 하는 거는 [조사자: 나뭇잎 뜯는 고 이야기.] 가면서 아들을 보고,

“니 내려 가다가 길 못 찾을까봐 솔잎을 하나씩 따갖고 하나씩 딱딱딱딱 표시를 해는 거라.”

가면서 그래갖고 갔는데 아들이 돌아보고 올 때, ‘그기다 인자 열어놓고 열흘만 있으면 먹을까 열어놓으면 죽는다.’는 그 생각에 인자 아들이 하 그래가 오는데 보이까네, 고개를 숙여가 이래 오이까네, 그 솔잎이 있더라 안 하나.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뒤돌아가서 엄마를 도로 업고

왔다 안 하나.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갔다 버린다.’ 말은 그래더라. 그래가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조사자: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금정구 설화 268]

가을 닭이 오지지요?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아들이 저거 장가를 보내 노이까네, 그 인자 며늘(며느리) 들어왔는데, 친정에서 친정아버지가 딸 집을 갔는데, 가을인데 인자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들이 인자 고기를 마이 들었는 상으는 친정아버지 꺼라고 인자 담았는데, 아들이 들고가면서 아버지한테 돌려봤다요. 상을 돌려뿌리갖고 인자 장인은 빼간지가(뼈가) 만코(많고) 아버지한테는 고기가 많잖아. 그러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사돈요, 사돈요. 가을 닭(닭) 오지지요?”

카이께네.

“개뿔 오져.”

카더란다. [일동 웃음] [조사자: (웃음) 너무 재밌다. 딸은 요래 들고가는데 그지예? 아들이 요래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웃음] [청중: 아 가을 닭키 오지지요? 이라더라대.] [조사자: 가을 닭케 오져진다구요?] [청중: 가을 닭이 오지지요.] 살코기가 마이 있으니깐 똑같이 인자 살코기가 많은 줄 알고,

“사돈요, 사돈요. 가을 닭이 오지지요?”

카이.

“개뿔로 오져.”

카더라 안 카나. [웃음] 뼈따구 뿐이라고. [웃음]

[금정구 설화 269]

방귀 많이 끼는 며느리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우리 친구 하나는, 시집을 가면은 저거 그 집에 중신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방구를 많이 편다.”

고 얘기를 했어 친정엄마가. 그래도 좋다고 괜찮다고 그래 인자 결혼을 시켰는데, 시도새도 없이 내 ‘뽕뽕뽕’ 하는데, 해필이면 시아버지 앞에 밥상을 들고 앞에 서가지고 뽕뽕거리니까, 내려놓지도 몬 하고 올라서지도 몬 하고 그놈을 들고 찢찢매고 흔들고 있었다 안 하나. [웃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는.

[조사자: 아 진짜로?] 어. 진짜 실화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조사자: 시아버지가 답답하겠단 그지예?] 그러면은 아 이 놓지도 몬 하고(못 하고) 들고가지도 몬 하고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찢찢매고 섰더라 안 카나.

그래갖고는 요새도 안죽 살아있을 꺼구마는. 그래도 뭐 우짜노 안 쫓겨나고 산다아이가. [일동 웃음] [조사자: 쫓아 낼 수도 없고 그지예?] [청중: 날아가는 방구 잡고 시비할 수는 없다 아이가.] 어. 그것도 병이랴요 그거는.

[금정구 설화 270]

밑 없는 독에 물 붓게 한 계모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옛날에 그 인자 항아리를 커다란 거 놔두놓고 밑 없는 독에, 여자를 인자 시어머니가 벨라 갖고(별나서) 인자 며느로 보고 자꾸 물을 여다가 그거 빈 독에다 부아라 하는 거라. 계모 시어머니데 하루 점들(하루 종일) 부아도 그게 부아질 택이 있나? 밑 없는 독에. [청중: 그게 돼나? 밑 없는 독에 물 붓는다 안 카나.]

그래서 한 분어는(한번은) 인자 참 두꺼비가 들어와가지고 고 앞에 딱 앉아있으면서 물을 부아라 하더라. 물을 갖다 항거(가득) 채이더라 안 하나. 두꺼비가 들어와갖고. 그래갖고는 그 시어머니가,

“어떤 우렁각시가 와갖고 이렇게 했느냐?”

고 따지더라 안 하나. 그런 것도 있었어.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

[금정구 설화 271]

쌀만 찾는 치매환자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옛날에는 이런 데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쌀)이 없어갖고 내도록(늘) 다른 거 풀같은 거 뜯어가(뜯어서) 해묵고 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인자 노인네가 치매가 딱 들었는데, 맨날 자식들이 가면은 ‘쌀(쌀) 없다’ 카는 거라. 쌀이(쌀이) 없다고.

“우리 자식이 부도가 나가지고 쌀이 없다. 쌀 좀 주가. 쌀 좀 주가.”

카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치매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한이 맺혀서 그게 치매가 됐는 거여. 그래갖고 맨날 죽을 때까지.

“쌀 좀 주라. 우리도 쌀이 없다. 쌀 좀 주라.”

고. [조사자: 근데 그때 기억이 쥔 많이 남는대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버리고.]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실화라.

[금정구 설화 272]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인자 세가(혀가) 짧은 남자가 도민 여러분 소리로 ‘도민 여러분’ 카면서, [청중: 조민 여러분] 조민 여러분 오늘은 소매 하는 날인데, 쪼매하는 날인데, 말하자면은 그거 소매하는 날인데, 농사 지아갖고 이렇게 그거 하는갑대. 그러문 그거로.

[청중: 매석하는 날.] 매석하는 날 매석하는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리가 인자 좋은 거. 통날을 가져 오라고. 보지가 쪼개진 건 안 된다는 뜻으로. [청중 웃음] 그런데 보리가 쪼개진 거는 안 받아 준다고. [청중: 자리. 진 자리나 께진 자리나 걸 자리 하지 마라고.] 그리고 인자 보리가 좋은 거 통보리, 그거로 인자 존(좋은) 보리, 그 존 보리 갖고 오라고(가져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 [웃음]

[청중: 존 보리?] 어, 좋은 보리 소매하는 그런 거는 받아주고 말하자면 인자 쪼개진 보리는 안 받아준다는 뜻으로. [조사자: 쪼개진 보지.] 어. 안 받아준다. 인자 어 혀가 짧라갖고(짧아서).

[금정구 설화 273]

군에 간 아들의 그림 편지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조사자: 군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했는데, 그 이야기 아시지예? 엄마 본 지도 까망고 형수 본 지도 까망고.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청중: 엄마 본 지도 까망고 형수 본 지도 까망고.] [청중 웃음]

아, 글로 몰래가지고(몰라서), 그 사람이 세도(혀도) 짧고 글도 모르고, 그래갖고 그거로 글자로 쓴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렸다 하대. [조사자: 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인자 엄마 본 지도 까망고(오래되었다는 뜻) 형수 본 지도 까망고, [청중 웃음] 그런 식으로 그림을 해갖고, 그래 보고싶다는 그런 뜻으로 인자 편지를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일 거야. [청중: 다 거짓말.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형님. 노래는 진짜랍니다.]

[조사자: 아 그래갖고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래 했더만은 엄마가 이게.] 어 내 곁 언제 봤느냐고? 그 얘기까지 했다고? [조사자: 내 꺼는 지가 태어날 때 봤는데, 형수 꺼는 언제 봤는고?] [일동 웃음] 어. 형수 꺼는(것은) 언제 봤나 카던가? 형수네 꺼. [일동 웃음]

[금정구 설화 274]

귀 어두운 사람의 영똥한 대답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그래 뭐 와 그런 것도 있더구나. 뭐 아주버님 꼬치도 [조사자: 장에 팔러 가가지고.] 어. [조사자: 장에 꼬추를 팔러 가가지고 떡 넣어 노니까, 제수가 “아따 아주버님 꼬치가 잘 익었네.”]

어. 그래갖고 인자 꼬치, 저그, 칼치를 인자 다섯 마리를 샀어. 사갖고 이 사람이 귀가 되게 어두운 어두분 거라. 꼬치를 팔아가 칼치를 다섯 마리 사가 인자 오잖아? 올라, 자기 집에 올라가면서 누가 있다가 묻는 거야.

“저거 장에 갔던교?”
커니까네,
“혈체!”
그러거든. 장에 ‘가셨던교?’ 카고 인사를 허니 ‘혈체!’ 그러거든. 그래 저거 저,
“집에 가십니까?”
커이,
“다섯 마리다.”
이러거든. [웃음]
“집에 가십니까?”
“다섯 마리다.”
그러는 거, [청중: 자랑한다고.]
“어 혈체”
커고,
“장에 가셨던교?”
커이,
“혈체”
커고,
“그래 저거 얼마 줬느냐”
커이,
“다섯 마리다.”
이라고.
“집에 가셨는교?”
커이,
“맛있겠제.”
커더란다. [웃음] 귀가 어둡어가지고 그랬대.

[금정구 설화 275]

지킴이 뱀을 죽여 화를 당한 녹천탕

오옥분(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녹천탕에, 지금 있는 녹천탕 앞에 탕 짓기 전에 원탕이 있는데 하얀 집이 있었어. 거기에 집이 적어갓고 혈어가 다시 지았거든. 지었는데 거기에 뱀이가, 찌깁이(지킴이)가 커다란 게 있었대요. 그 커다란 게 있어가, 찌깁이가 있어가 참 부자로 잘 살면서도 인자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허물어갓고, 다시 지을라고 허물어 가 앞에도 짓고 거기도 지었는데.

이거 실환데, 그 뱀이를 아들이 두드러 잡았뻤는 거라, 잡고 나이까네 영감이 죽고 할말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서이가 죽었는 거야, 죽고는 지금으는 인자 그 또 손주택이지, 손주택인데 두 군데 인자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는 실화라. 녹천탕에 그렇게 됐어. [조사자: 업을 죽이면 안 되는데.] 응.

[금정구 설화 276]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

이봉주(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그 옛날에는 그 저게 그거 한다 하대. 시오마이가, 옛날에는 요새는 뭐 시집살이 안 한다 아이가.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옥수로(굉장히) 마이(많이) 했는갑대, 해나놓이께네 마 쌀도 내-시집가만(시집가면) 요새서(요즘은) 전부 다 지줌(제각기) 퍼묵듯이 지 맘대로 한다 아이가?

하는데, 그전에는 탁 시오마씨가 전부 쌀을 떠가지고 내준다 아이가? 내주이께네 그거를 인자 밥을 인자 해나놓이 자기 주머니 밥이 작다 아이가? 그러이께네 쪼끔씩 쪼끔씩 이케 놓이까네, 그 할매가 죽어가지고, 시오마이가 죽어가지고 구렁이 되나이께네 만날 집에 농 우에 올라앉아가지고,

“쪼끔씩, 쪼끔씩.”

이래 칸다 안 카더나. [웃음] 그래. [청중: 희한하다.] [조사자: 고 집착 때문에 그지예.] 응.

[금정구 설화 277]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이봉주(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그거 수수빚자루 안 있나? 수수빚자리. 마이 이래 하거든. 수수빚자리 그거를 여자들을 생리 있을 적에 못 깔고 앉았구라 하거든. 그거 깔고 앉아놓으마 그기 저게 밤에 빚자루 그기 토깨비가 돼가 그걸 그래 한다 하대.

[조사자: 월경이 묻으면.] 어 묻으면은 묻으면은, 그런 때미래(때문에) 여자들 빚자루 못 깔구로 한다. 옛날에부터 빚자리 못 깔구로 한다. 그거 깔고 앉으면은 그래 그거 한께네 밤새 도록 그래 빚자루라 칸다 아침에 보면은.

[조사자: 그래 그래 뭐 도깨비한테 흘리면 마 안 좋다 하데예.] [청중: 불이 버뜩 버뜩 그래요 촌에는.] 그러께네 그 도깨비는 아니고, 빚자리에 피가 묻으면은 그기 마마 자꾸 토깨비로 빈해 가지고(변해서) 그기 그래 하는갑대. 그래가지고 마 싸우다 보면은 날 새고. 빚자루다. 가보면 빚자루다.

[금정구 설화 278]

그림을 그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한 아내

이봉주(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내가 수수께끼로 한 개 낼게. [조사자: 예. 예.] [청중 웃음]

저게 그 남자가, 같이 이제 저 신랑각시 살다가 남자가 뭐 군대를 가뵈어. 군대를 갔는데, 그래 인자 저게 그 첨번에(처음에) 할 때는 깊고 깊은 내, 깊고 깊은 내가 있는데, 깊은 산이 탁- 있는 기라. 엄청 깊은 산이 있고. 밑에는 내가 짹- 걸리가 있는 기라. 내가 짹- 걸리가 있고, 밑에는 또 저게 뭐꼬? 깊은 산 쪽에는 산이 있고 쪽- 밑에는 냇물이 내려오고, 그래 깊은 내가. 밑에는 또 병이 다섯 개가 있나? 병 병- [조사자: 병이?] 병이 병, 병, 저런 거. [조사자: 예예.] 다섯 개가 딱 놓여 있거든. 다섯 개 쪽- 놓여있으문.

이 저게 뭐꼬? 또 그 밑에는 또 낫이, 낫을 한 개 딱 뉘나 놓는 기라 낫을. 그 글을 모르는 기라. 옛날에는 그 여자들 글 모른다 아이가? 그래가 낫을 딱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또 저게 뭐꼬? 낫니께네 그래 뉘놓고. 그래 인자 또 그 밑에는 또 말을 두 바리(마리)를 딱 그렸어. 말을, 말을 두 바리(마리) 딱 그리노이께네, 그래 저게 뭐꼬? 그걸 그리놓고(그려놓고), 또 저게 뭐꼬? 아 말을 두 마리 그리놓고, 또 밑에는 소를 한 마리 그렸는 기라. 소를 그렸는데 그래 그 해석이 뭐고 하면은,

“깊고 깊은 내가 병이 났으니, 병이 났으니 병이 다섯 개아이가. 병이 났으니 두 말 말고 오소. 이래가 오소.”

[조사자: 어머 세상에.] [청중 웃음] 그러이께네 고 보면 인자 그림 딱 인자 산 기리고(그리고), 내 기리고, 뭐 기리고, 병 기리고, 이 다 기려놓코 요거를 해석하라 카는 기라. 해석을 하면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 아는 기라.

그래가지고 ‘깊고 깊은 내가 병이 났으니 두 말 말고 오소.’ [청중: 응, 두 말 말고 오소.] 그래 그 옛날에는 글을 모른다 아이가 여들 글을 안 갈친다 아이가? [청중: 해석으로 인자.] 그러이께네 해석으로 탁- 그래 그렸어, [청중: 보고 인자.] 어. 여자가 그거를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짝- 그려가 저 인자 보냈다. [청중: 남편한테 보냈다.] [청중: 그리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제? 알아채는 사람도 대단해.] 그래 대단해.

[금정구 설화 279]

집 지킴이 구령이

정영실(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경로당]

나는 피난 왔을 때 우리 저기 전라도로 피난 왔는데, 그 큰 저 집에 인제 작은 방을 줘서 갔는데, 그때 한 이 년 살았는갑다. 이 년 살고 추석이, 추석이, 추석명절이 다 올 땐데, 우리 친구가 그 뒤에 살아서 놀러간다고 나가니까, 그 집이 이제 돌담이 이렇게 있거든.

그 이 실화다. 내 눈으로 봐 거다. 돌담이 이렇게 있는데, 구령이가 하여튼 이 팔뚝만 해, 이렇게 큰 게 마 돌돌 말고 있는 걸 이거 말고도 아래도 이렇게 걸치 있는 거라. 담에 척 걸치 있는 거라. 놀래가지고 집으로도 못 들어가고 친구네 집으로 쫓아가서,

“하이구야, 우리 저저 담 있는데 구령이가 막 큰 게 걸쳐 있는데, 아이구 무섭어서(무서워서) 못 보겠더라.”

근께,

“가보자, 가보자.”

하면서 친구들하고 가보이께 없어졌는 거라. [청중: 그래 없어졌지.] 어. 없어졌어. 그래 내가 거짓말 한 것 같더라,

“하이구 진짜 있었다. 있었다.”

“니가 잘못 봤지.”

“아니다. 나 구령이 안다.”

이래.

[금정구 설화 280]

귀신에 홀린 사람

김순내(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노포경로당]

구신(귀신)한테 홀키(홀려) 가니까 신을 안 신어요. 올 아버지는 밤에 그때 몸이 쯤 되기(매우) 아팠어. 그래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어릴 때 한 열 살이나 이래 무을 땀데, 한 열 몇 살 무을 땀데, 어머니가 밤에 자다가 나가건데, 화장실이 멀거든 시골에는. 아래채가 있고 우채가 있고, 아래채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 오줌 거 뭐 화장실 간 줄 알고 있어 암만 해도 안 들어서(들어와서) 엄마가 나가 하도(아무리) 기다리도 댄소(변소) 간 사람이 안 와. 흑시 빠졌, 옛날 변소는 역수로 크거든. 거 물 퍼다가 똥장군 쳐다가 전부 밭에 농사 짓고. 그래 흑시 빠졌뻤는가 싶어서 가께, 신이, 고무신이 들어올 때 신은 그대로 마루 밑에 딱 그것 축담에 있더라.

그래 아이구 이상한 마음이 싹 들어서. 가정 무서운 기가 싹 들어서 불로 켜갓고 마 촛불로 켜가 화장실에 가 봐도 엄고(없고), 그래갓고 인자 우리 거는 한 동네 마 사촌, 육촌까지 한테(함께) 살았거든. 전부, 형제간들이. 아버지 형제간이 사형제간 육촌이 많아요. 사촌도 많고. 보통 한 집에 열 맹(명), 여덟 맹, 적기(적게) 낳으면 일곱 맹 막 이래 논께, 사촌들 모이몬 한 삼십 명 금세 모이, 한 삼십 명 모이빼고 그래. 우리 잔치에 가모. 더군다나 김해 김가들 더 많고 또. 그래갓고 우리 큰집에랑 막 작은집에랑 막 전부 연락하고 이웃집 막 연락하고 이래갓고 마.

“아무개 아버지가 구신한테 홀키갔다.”

이래. 인자 날이 새도록 안 들어야갓고, 날 새갓고 동네 사람들꺼지 마 전부 산을 마 찾아 올라갓는 기라. 우리 뒷동네만 산, 당산도 있고, 뒷동네 거 인제 또 나무 해가 오몬, 그 중간에 오다가 지게 받치(받쳐) 놓고 쉬는 데가 평평한 데가 있거든. 그래서 올라가고 거 또 늑대 오몬 잡으러 올라, 하도 그것 그 돼지를 물고 가서 늑대가. 그 또 잡으러 올라가몬 동네 사람들 다 올라가고, 산에 거 산이 가까워갓고 뭐 잘 내려와요. 마당에 뭐가 밤에 부시력 부시력 해서서 뿔이 뿌시력 뿌시력 해서 보몬, 늑대가 마루 밑으로 슬슬 땡기고 마 이랬다 쿠고. 누 집에 엄소 삶는다 하모 늑대가 내려와 마. 냄새 말고.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개요. 아무개.”

하고, 우리는,

“아부지. 아부지.”

하고 울고 막 산을 막 들쳐 올라가서 마 산 찾는다고, 동네 사람들 다 온께 언간하면(어지

간하면 찾아지거든. 워목(아무리) 찾아도 엄서(없어). 사람들 다 포기하고, ‘어디 가서 죽었는가? 우쨌는가?’ 하고 집에 아가(와서) 불로 켜놓고 전부 있는데, 우리는 인자 우리 집에 안 있고, 큰집에 좀 뭐 일 있으믄 큰집에 가서 전부 다 모이거든.

큰집에 가갖고 전부 있는데, 아래채 거 드들방애(디딜방아) 누릴, 발 디딜, 더들, 더들방애 있는 거 뿔이 뿌시력 뿌시력 해서 큰집에 또 바로 우채 뒤에 대밭이 있는 기라. 대밭에 사람 하나 땡길 정도로 길이 딱 돼가 있고, 그 뒤에는 우리 큰집에 밭이고, 대나무가 엄청 많고, 그 집은 인자 별명이 대밭집, 대밭집이래. 호랭이도 내려오고 이랬어요. 대밭 있는 집에는, 전에. 호랑이 막 눈에 불을 켜갖고. 소 잡아 물라고 그란가 소마구 있는 데 불을 켜가 호랭이도 내려오고, 거 우리 큰집에.

우리 집은 짜그만하고 아버지가 막내이가 돼논께 이렇다. 큰집하고 우리 작은집하고는 크, 집도 크고 거 숲도 많고 동네서 좀 거하게 살았는데, 아래채 전부 방은, 사랑방 뭐 갖방 이래가 거러지들 오몬 인자 재아(재워) 보내는 사랑방이 또 있어요. 아래채에. 오몬 밤 채릴 장에 채리갖고 거러지들 오몬 갖다주고 이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있을 때. 그리고 또 마루에 전부 막 나와가지고 아래채 그 인자 부엌에 나가 내려가보께네 우리 사촌 오빠가 인자 뿔이 거 방앗간 가서 부시력 부시력 이리 싸서 우리 사촌 오빠가 인자 나가보께네, 챙이를 둘러싸고 울 아버지가 거 대밭에, [웃으며] 산에서 대밭으로 내려아가지고 인자 또 숨는다고 거 가가자고 챙이를 딱 둘러싸고 방앗간에 거 더들방애 있는 데 이래갖고 별별별 떨고 있더라. 그래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한창 아팠거든. 그랜께 구신이 붙었는 기라.

[금정구 설화 281]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랭이

김순내(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노포경로당]

호랭이가 인자 잡아 물라꼬 왔는 기라. 인자 뭐 개로 잡아 목든지 뭐로 짐승을 잡아 목든지 뭐 소도 잡아 목고 했거든. 큰 소는 같이 싸우고 이래도 잔잔한 거는.

그래 인자 뭐 잡아 목고 마루 밑에 떡 숨어갖고 호랭이가 있는데, 아가 하도 울어, 어마이가 배를 짜다가 하도 아가 울어 사니까,

“울지 마라. 호랭이 온다. 울지 마라.”

또 그래도 우는 기라.

“순사가 잡아간다. 울지 마라.”

이란께, 또 울고, 오만 거 다 해도 자꾸 우는 기라.
“꽃감 주께. 울지 마라.”
이란께 딱 끄치뻘께(그치니까), 호래이가, ‘허이고 호랭이보다 더 겁난 기 꽃감이구나.’
싫어갓고 마 도망가뻘다.

[금정구 설화 282]

존댓말만 하는 며느리

구말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마을 대룡경로당]

시집 가가 안자 아버지보고 존대한다 그랬겠쇼 뭐. [조사자: 어째 말을, 어째 말을 했는데?]
“아버지씨요 조동씨씨에 밥풀이 붙어있으시십니다.”
한다 카대. [웃음]

[금정구 설화 283]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춘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마을 대룡경로당]

눈이 어둡어서, 눈이 어둡어서 뭐를 갖다가 메느리가 저 저게 인자 지는 잘한다고 시아마
시를 이래 고웠는(고운), 뭐를 해가 주는데, 하루는 뭐를 해가 주는데, 이래 무이 너무 맛이
있고 구시고 해서,

“야야, 이거 오늘 니 반찬 해주는 기 무슨 반찬이고, 이렇게 맛이 있노.”

이카이끼네,

“아이고, 어무이 죄송합니다. 내가 하다가 하다가 할 끼 없어서, 뭐를 어무이 대접할라 카이
할 끼 없어서, 저 저게 앞에 논독에 가서 거시를 잡아가 그거를 물에 씻겨가지고 삶아가,
어무이를 드렸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카며 그래 인사를 하이, 어 그카이끼네, 시아마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야야, 고맙다. 니가 날로 보약을 시키주네. 보약이 이런 보약이 어딴노(어디 있노).”
이카이, 내제(나중에)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받아가 오이, 엄마가 그래 이야기를,
“아이고, 야야, 니 처가 날로 어제 날로 보약을 시켜주더라. 보신을 시켜주더라.”
이카니까네,
“무슨 보신을 시켜주더냐?”
고, 이래 물으니까,
“그래, 저 발독에 거시를 파가 씻거가 삶아가 나를 주는데 그기 그래 맛이 있더라. 닌도(너도)
한 문 무봐라(먹어보아라). 해돌라 캐서.”
이카이께네, 그래 아들이 가마히 생각하이께네,
“이상하다. 우리 집사람이 뭐를 해졌길래(해주었기에) 저렇기 맛이 있고 구시하고 그카느냐?”
고 이래 물으이께네, 거게 그래 인자 시아마시가 저거 아들잘테(아들에게),
“야야, 이름이 거시란다.”
할매는 눈이 어둡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시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삶아가 주는데, 그리
맛이 있고 몸에도 보약이 되더래요. 그래 그라니까 아들이 그카던데,
“아이, 그러몬 난도(나도) 저 발에 발독에 가가 캐가 올테니까 날 삶아 둘라.”
이카던데. 그래가 삶아가 묵고 가이, 저 천장에 가가 통수하이,⁹⁾ 그래 기운이 나더랍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대. 응 그란다 커대. [조사자: 꺼시로 봉양을 했다 그죠?] 예. 예. 그걸로
큰 마, 참 마 오새같이(요사이같이) 소고기로 삶아가 주는 것마치 그래 맛이 있고, 눈에도 그리
보약이 되더래요.

[금정구 설화 284]

팔을 떼 달라는 호랑이를 피해 온 어머니

박춘자(여, 1940년생) 구술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마을 대룡경로당]

얘기하대, 할매들이 와 저녁에 자문, 이래 양쪽에 이래 떡 눕히놓고, 이래가 온 저녁에
얘기를 해주꾸마. 여 눕어라 카모 눕어몬,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너거가 눈 있게 참, 귀로 다물어가 하문(한 번) 들어봐라. 그래 인자 쪽- 양쪽 아들로 눕히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매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어디 가다 가이께네, 무슨 짐승이 나왔는데 나를 보고,

9) 통시에 가서 오줌을 누니. 통시는 화장실을 말함.

“니 팔 하나 띠주몬(떼어주면) 내가 니를 안 잡아묵지!”
이카더래. 그래 그카이,
“그래 내가 내 팔로 띠가 주문 내가 몬 살 거 아이오. 내가 팔을 띠주몬 우째 사느냐.”
이카고, 그거를 이래 오다가 팔을 띠돌라 카이께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 이래 올싸고
마 이래 막 쫓아오이. 집에 온다고 오이께, 집에 아들이,
“와 할머니 그래가 와요?”
이카더라.
“그래, 야야, 내가 오늘 큰일 날 뻔 했다. 날로 자아물라꼬 큰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카길라
내가 이래 도망 오는 질이다.”
이카니께, 그래가,
“그럼, 할머니 그럼 요 와가 있으면 요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고 이카니까네,
“아이고, 찾아오면 너거도 있고, 아 아바이도 있고, 다 마 말기(말려) 안 주겠나? 그래서
내가 이래 뛰왔다.”
이카매, 그래 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카는데, 옛날 사람이 얘기사(이야기야) 우리 옛날에도
우리도 듣기사 들어도 ‘아이고, 그기 무슨 얘기고.’ 이래 싫어요. 옛날에 그래 진짜 그래가
살았는강 그래 싫어예.

[금정구 설화 285]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김상금(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둘이를 재아(재워) 놓고 신랑각시 신나게 놀았거든. 놀다가 인자 끝나고 턱 보이 아들 둘이가
없거든. 불로 턱 캐보이, 이 구석에 하나 저 구석에 턱 서가 있거든. [청중 웃음]

“뎃끼 이놈들.”

하이께네, 큰 기, 작은 기 큰 거 보고,

“뵈라 새이(형아), 늙어서도 잘 비는데(보이는데) 일어서자 캐가 야단만 안 맞았나.”

[금정구 설화 286]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김상금(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8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메늘(며느리) 보몬 영감은 아래채 아랫방 사랑에 내려가고, 할마는(할머니는) 손자 데고(데리고) 큰방 자고 메느리는 신랑각시 인자 작은방에 자고. 고거는 마 메늘만 보몬 영감은 사랑 내려가거든. 이놈의 할마이가 암만 눈치를 줘도 안 오거든. 그래 약속을 했는 기라. 영감강 할마이강.

“오늘 몇 시 돼가지고 내가 축담에 와가 ‘꼭꼭꼭꼭꼭꼭’ 카몬 사랑 온나.”

이랬는 기라. 그래 참 몇 시 되이까 축담에 와 ‘꼭꼭꼭꼭꼭’ 캐샷거든. 그러몬 영감 말이 라꼬, 젊으이까네 할마이도 영감 생각이 있었겠지. [조사자: 그렇지.] 그래서 사랑에 내려가서 사랑에 내려가고, 내려가이까네 새끼들이,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

카고 따라 내려오더란다.

[금정구 설화 287]

개구리 눈과 지렁이 띠가 생긴 사연

장민순(여, 1924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청룡할머니경로당]

띠가 우찌 있냐몬, 옛날에 깨구리가(개구리가) 띠가 있고 눈이 없고 지렁이는 눈이 있고 했는데, 그 지렁이가 그 깨구리 띠로 부럽다고,

“그럼 내 눈허고 니 띠허고 바꾸자.”

이래가지고 바까가지고(바꿔서), 그래 뭐 지렁이는 눈이 없어지고 깨구리는 눈이 있고, 그래 됐답니다.

[금정구 설화 28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지덕순(여, 1924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청룡할머니경로당]

고래장 하는데, 자기 모친이 돌아가가지고, 그래 인자 고래장을 했는데, 거 인자 거 아들이 어무이를(어머니를) 덕고(데리고) 고래장을 시겼는데. 그래 내 이야기 확실인가 아인가 모르지 마는 그래 들었어요.

근데 그 애가 하나 따라갔어요, 아들이. 그래 지계를 내빼리고 가거든에. 그 아버시가 그 어마시를 거 인자 고래장 해놓고 지계를 내빼리고 가이꺼네.

“와 아버지 지계를 와 내빼리고 가노?”

이러더란다.

“원래 이거는 내빼리고 가는 기라.”

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그걸 지고 오야(와야) 될킨데 와 지계를 내빼리고 가노?”

이래. 말은 그래 내 들었심더. 그 말이 참말인가 아인가 그는(그것은) 모르겠는데,

“아! 글타(그렇다) 참.”

감시러 지고 왔는데, 그라고부터는 고래장이 없어졌다 카대요.

[금정구 설화 28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지덕순(여, 1924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청룡할머니경로당]

나라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말키(말이) 두 바리가 딱 같은데, 애민동 새깃둥 몰라가지고, 그래 인자 고래장하는 엄마한테 살 물었어. 물으이꺼네,

“그걸 모르문, 풀로 후보문 안다.”

카거던.

“풀로 주모 새끼가 앞에 묵고 애미가 뒤에 묵는다.”

고래가지고 고래장이 엄서졌다 캐샀대.

[금정구 설화 290]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지덕순(여, 1924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청룡할머니경로당]

그 아로 갖다가 인자 머스마로 불 좀 열어라고(넣어라고) 칩다꼬, 나가라 캐놓고 인자 단칸방이라노이 참 마 그거로 못 했겠지. 그래 장난을 몬 했겠지. 그래,

“나가라.”

쿠고 그런데, 작은 기 드가디만은, 불로 좀 떼고 쪼금 있다가 드가디마는,

“형(형), 저저 머꼬 방에 가이꺼네 아버지가 너무 방이 뜨겁아서러(뜨거워서) 엄마 배 우에 올라 앉아 있더라.”

이래 카더란다.

2. 동래구 설화

[동래구 설화 1]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복자(여, 1934년 생)·박순분(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박복자 구술]

저게 옛날에 아주 가난한 데로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남자는 공부만 계속 앉았고, 배 깔에(밖에) 피 그거 뽑아다가 이래 해놓으난 데 그거 떠내려가도 걷지를 았더라. 그래 '내가 저 남자하고 살며는 절대 못 살기라'고 인자 재가를 했,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 그렇ندی 거기 가서도 그 남자가 인자 과거를 봐서, 과거를 땀는데, 그 과거 보고 오는데, 그 눈에서 피를 뽑더라.

니 팔자가 그렇다고 그래. 그래 가면서 인제 이름을 부르니까는 쳐다보더라네. 그래서,
“당신 내 아느냐?”

고 한께, 마 눈물 흘리더라. 그 소리는 내가 옛날에 들었어예.

[조사자: 팔자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가지예.] 예, 예, 예.

[박순분 구술]

이라 자랴 하고 장원급제해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부인이 딱 보고,

“옛날에는 말이지 널로, 내- 공부만 하고 말이야 피 덕시게(덕석) 떠내려가도 본동만동하던데.”

“훅적시야, 나를 따라 올라면은 모래밭에, [전화가 울리자, 다른 청중에게 자신의 전화를 좀 받아달라고 한 후에] 모래밭에 물을 한 동이 이고 버리라.”

인자 이라니까, 그 모리밭에 물을 버리면은 딱 빨아 땡기가고 없어졌부거든. 한 통 다부(도로) 이렇게 많이 해갖고,

“그러면은 니를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물이, 되나 안 되지? 그래 못 따라 가더랍니다.

[동래구 설화 2]

소를 죽인 머슴과 죽은 소의 복수

박순분(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남의집에 머슴이 살았는데, 그 머슴이 얼마나 지독한지, 소를 그제 막 부러먹으면서 막 두드려 패면서 부러먹었는디, 그러니까 소가여 만날 두들겨 맞으니까 그 때에 못전디가(못 견디서) 죽어뿌렸어요. 죽어뿌렸는데 죽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 머슴도 죽었어요.

머슴도 죽었는데, 그게 소가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서러 태어났는, 다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남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돼가 커가지고 그 둘이 인연이 됐는 거여. 인연이 되노이까네 거 거 신랑각시다 아입니까? 그러면은 머슴은 여자로 태어나고, 소는 남자로 태어나고.

그래 태어나가지고는 부부간에 사는데, 이 남자가 우야노(어떻게 하느냐) 카면은, 과거에는 소지, 과거에는 손데, 남자가 여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오면은 무조건하고 여편네, 여자를 두드려 패는 거라. [청중: 두드려 패.] 갔다가 오면 두드려 패고, 어디 갔다 오면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이 여자가 매에 맞아서 못 살 지경인데. 거 한날에는 스님이 턱 목닥을(목탁을) 치고 왔는 거야. 목닥을 치고 염불 하러 왔는데, 그래 인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 시주는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내가 우리 사정이 그렇다. 이거 우째 이거 풀리도록 해줄 수 없나?”

이러이까네, 그래 절에 주, 스님이 하는 말이,

“아하! 둘이서 고가 걸려가 그런데, 이 고를 풀라 카면은 남자가여 나무 해가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패면은, 그 패는 숫자를 평생을 맞아야 되는데, 그 평생을 맞는 숫자를 세알리가(헤아려서) 할라 카면은 수가 많다.”

이거지.

“많으이까네 그거 현 명지짜리(명주 실로 짠 빗자루) 있지요. 촌에. 명지짜리 다 떨어진 거, 낡은 거를 갖다다가 여 구직에(구석에) 세아(세워)놓으라.”

이거라.

“구직에 세아놓으면 그걸로 매로 가지고 두드려 팬다.”

이거지 인자. 그러면은 한 번을 패문 그 명지짜리 요 가는 대가 몇 개나 안 됩니까, 수 천 개 안 됩니까? 그래가 마 어디 갔다 오면 명지짜리 그놈을 갖다가 두드려 패고, 지 힘 달는데 까지 두드려 패다가 편져뿌리고 그래 또 세아놓으이까네 또 두드려 패고. 나제에는(나중에는) 그 명지짜리 그게 다 떨어지고 나이까네 안 패더랍니다. 인자 고가 풀려가. 그만침(그만큼) 팠다 이거지 인자.

[동래구 설화 3]

개로 환생한 어머니의 세상 구경

박순분(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만날 방에서 살고 일만 하고 이러니까네, 개가 되가 있어노이까네, 그걸 알고 그 구경을 조선팔도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 캐놓이까 구경, 업고 업고 업고 구경을 막 조선 팔도로 아들이, 아들이 업고 온(온갖) 데를 다 땡기고 나이까네 개가 죽어뿌더라 카네.

죽어뿌리이까네 그 개를 갖다다(가져다가) 명산에 갖다다 무덤을 해놓는 거야. 무덤을 해주고 나이까네, 그래 개는 개대로 마 극락을 가고,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동래구 설화 4]

복 없는 사람의 팔자

박순분(여, 1936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모녀, 모자가 사는데 너무 너무 못살아. 너무 너무 못 살아가 아들이 나무를 한짐 해가 와가 팔아가 근근히 죽을 끼리 묵고 사는 거야. 근근히 죽을 끼리 묵고 사는데, 아들이 가만 생각 한께네, '하루에 두 짐 해가 올 것 같으면 밥을 묵을 낀데.' 싫어서 한날에는 산에가 두 짐을 해가 왔는 거야. 두 짐을 해가 와가 딱 놔놓고, 그 이튿날 장에 팔러 갈라고 보이 짐이 한 짐 어디 갔부고 없어. 어디 갔부고 없고, 잃어버렸다(잃어버렸다) 아입니까. 그니까 하나만 짚어 지고 시장에 가 팔아가지고 그걸로가 양식을, 죽을 짚이묵고. 메칠로 그라는데, 만날(매일) 자고 나몬 짐이 어디 가고 없어. 어디 가고 없어가, 그래 인자 저(자기) 검매보고는(엄마보고는),

“엄마, 내가 갖다놓으모는 이 도둑놈이 내 나무를 똥쳐(훔쳐) 가는데, 이 어떤 도둑놈이 똥쳐 가는공, 내가 그 똥쳐 가는 집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내 요 나뭇단 속에 묶아가지고 빨끈(단단히) 묶아 나라.”

요래 된 거라. 그래 나뭇단 속에다가 아들로 열어가 빨끔빨끔 묶아노이 밤중 되이까 뭐가 울렁출렁 울렁출렁 걸디만은(같이 하더니만) 나뭇단이 휘-떡 올라 갔부는 기라. [조사자: 하늘로?] 아. 하늘로 올라갔부는 기라.

하늘로 올라갔부이, 그래 인자 이 나뭇단이 속에서러 그냥 내 있으면 깡깡다(깡깡하다) 아입니까? 사람 살려라고 고향을 지르이까네, 하늘에서러 옛날에 옥황상제 카는 그 이야기 있지요? 옥황상제 부하들이 와가지고 열어보이 사람이 있거든.

“그래 니는 지하의 사람인데 왜 이래 하늘에 올라왔느냐?”

이래 질문을 하이까네,

“여하고 그래가 내가 왔다.”

이래 되는 거라. 그래 인자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날로 복을 좀 주세요. 내가 하도 목지 문해가지고, 그래가 밥이라도 한 분 묵어볼라고 그랬는데.”

탁 이르이카네,

“니 복이 까진데(이것까지인데), 밥을, 죽을 묵고 살아라 카는 팔잔데, 밥을 물라 카이까 되냐? 그러이까 니 복이 까지이까 내가 여 니가 가진 건 없어도 그냥 밥만 묵고 해주꾸마.”

이랬는데, 어디 방에 어디 가이까 복주머니가요 이름마다 써가지고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마 꼭 얹히가 있더라 캐. 이 세상 사람들 복주머니가 옥황상제 천정에 다 있는 거라. 그래가 지골랑, 이래 지 복점이나,

“니 복점이나 요거다.”

카매, 딱 따라붙어가 쪼매난 게 딱 붙어가 있거든. 그래 이거를 빼껴가지고는(벗겨서는) 저 어디 댕기다가 커다란 복주머니 옆에 턱 붙여 놓는 거야. 그래 붙여놓고,

“그래 이래 나아지니까네, 니가 어디 내려가가지고는 너저 어매하고 둘이 어디든지 가다가 발길 닿는 데 가가지고 정착을 해라.”

이래 됐는 거라. 그래 내려와 저저 엄매하고 까지것 막 오두박살이 그거 뭐 다 던져뿌시뿌고 단뫼집 싸가지고 가다가 가다가 해가 빠지이 갈 데가 없어. 부잣집에 인자 대문 앞에 인자 그게 떡 갔는데, 부잣집에 대문 앞에 가가,

“요기 좀 시켜줄라.”

고 인자 그 인자 애원을 하거든. 애원을 하이까네, 그래 인자 주인이 한다는 말이,

“거 거지 밥 좀 줘라.”

이래 됐는 거야. 그 밥 얻어먹고는,

“내가 요 집에서러 밥만 얻어묵고 일할 테니까 제발 날 여그(여기에서) 좀 일하게 해줄라.”

이래됐거든. 그러이까 밥만 얻어묵고 카이까네, 그 말에, 그 밥만 얻어 묵는, 행랑채에 살도록 해라 이래 됐는 거라. 그러이까네 그 사람이 인자 그 뒤로부터는 밥을, 거서 밥만 얻어먹고 일해주고 사는 거야.

그러이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라고 각(많이) 노력해도 내 복이 적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 복이 어느 정도까지 복이 크문은(크면) 그양 있어도 우연히 저 뭐 땅덩거리 아이라 물대접이 하나 사놔도 그 물대접이가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 되니까네, 사람이 억지로 부자 될라고 부귀영화 할라 카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순리적으로

인자 지 복이 닿은 데까지 원리적으로 살며는 잘 살아지고 억지로 하몬 안 되는 거야.

[동래구 설화 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유말순(여, 1934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아들이 돈 벌러 갔는데, 그래갖고 미느리가(며느리가) 해줄 게 없어서, 인자 시어마이가 봉산데, [조사자: 아, 봉사지.] 거새이를(지렁이를) 인자 파갖고 국을 끼리준께(끓여주니까) 하도 맛있어서,

“야야 이거 무슨 국이고?”

이러 칸께네, 그래 거새이, 지렁이국이라 칸께 눈을 퍼떡 뜨더라고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옛날에 그래 썼데. [웃음]

[동래구 설화 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종도(남, 1939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아버지경로당]

옛날에 무슨 뭐 죄로 지았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로 풀이를 했는데, 이거 젊은 사람은 몬(못) 풀고 나이 칠십 된 사람이, 인자 고려장 할 때 된 사람이 그 문제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인자 나 많은 사람도 이런 문제를 푸는, 젊은 사람 몬 푸는 문제를 나만(나이 많은) 사람이 푸니까,

“나만 사람도 쓸 때가 있다.”

이래서 그 뭐 저 옛날 걸으몬 임금시대에 임금이 그거로 하사 해가,

“고려장을 폐지를 해라.”

그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동래구 설화 7]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종도(남, 1939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아버지경로당]

내 이야기 듣기로는, 이래 남매가 있었는데, 옛날에 다 문(뭇) 사니까 어마씨가 언자 모친이, 모친이 인자 장사 나가가지고, 뭐 이거 인자 이거쯤, 예로 들어서 뭐 떡 곁은 거 이런 거 담아가지고 팔러나가고 집이 비잡아요. [조사자: 아, 그렇지.]

거 비니까 저 호랑이가 와가지고 애를 인자 자아물라(잡아먹으려고) 이라니까 거기 애들이 기도로 했대요. 기도로. 기도로 해가지고,

“하느님, 우리 살리 주세요.”

하고 이러니까, 그리 그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 와가지고, 동앗줄이 내려 와가 그거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동생은, 여동생은 무서우니까 여자니까 무서우니까 해가 되고, 남자는 밤에 땡겨도 무섭을(무서움을) 덜 타니까 달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듣기는. [조사자: 아, 그 참 유명한 이야기네. 호랑이는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갔, 문 올라 갔는 모양이지예?] 그렇지. 하늘로 올라가뿌니까 호랑이는 문 올라가죠.

[동래구 설화 8]

명당자리에 몰래 쓴 김해 김씨 묘

이종도(남, 1939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아버지경로당]

거 통도사가 상당히 너르잡아요. 통도사 상당히 너르는데, 그 아래 옛날에 내(계속) 명당이 있었다는 거요. 통도사 절 거 인자, 사찰 거 산 내, 임야 내 명당이 있었는데, 누구도 묘를 문 쓰는 거라요.

거 인자 밤에 예를 들어 가묘로 모르게 인자 명산 좋은 데 써가 부자 될라고, 모르게 이래 쓰면은 거 주지스님이 밤에 자면은, 그 말이 그렇습디다, 인자 통도사 근처에 있으이 들었는데, 그리 자면은 꿈에 어느 등에 어떻게 모가(묘가) 써져가 있다 카는데, 그래 꿈을, 꿈에 선물을 한대요. 통도사는. 그래서 인자 그 꿈을 꾸고 나문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 스님들이

창을 짚고, 산에도 이런 가묘 해놔 놓고 뭐 혈도(흙도) 표 안 나게 해놓고, 나뭇잎 걸은 거 깔아놓으론 모르잖아요? [조사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자 그 지금도 보몬 그 산에 봉양(복령, 버섯의 일종) 캐러 땡기는 사람 이래 침을 찔러보고 봉양이 여어 묻어 올라오몬 그 봉양인 줄 알고 파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 모를 찾고 그랬다 카대요.

그런데 그 보몬, 지산리 카는 그 옆에 보면은 묘가 한 쌍 있어요. 이기 전에 그 김대중이가 자기 인자 김해 김씨 저거 조상들 모다 카고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모는 밤에 한 분 쓴 거라요. 모는 밤에 썼는데, 사찰에서 알고 모로 파낼라꼬 오니까, 마 이래 날 좋은 날도 마 벼락을 치고 뇌성을, 비로 퍼붓고 이래 접근을 못하는 기라. 모 파러. 그래서 몬 파내고 지금 까지 있거든예.

근데 그 옆에 동네가 좀 떨어져 있는데, 거 지산리 카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인자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묘만 비고 나몬 그 해는 다른 사람은 승년을(흉년을) 만내도 풍년이 되가 농사가 잘 된답니더. [조사자: 아하, 그 명당인갑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고향 올라가가 이야기 들어보몬, 일년에 그래 별초를 몇 번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 비난데 와가 또 깎고 또 깎고, 농사 잘되라고. 지금도 아익(아직) 그래 내려가고 있어요. [조사자: 아, 거 재미나네.] 거기 그 명당, 명당인 모양이지. 그래 인자 그 모 쓴 사람하고, 그 인자 그 명당하고 거기 인자 맞으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와가.

[동래구 설화 9]

풍수 말을 몰래 듣고 명당에 묘 쓴 나무꾼

이종도(남, 1939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아버지경로당]

자그마한 산이 있어요. 마을이 있고, 인자 산이 이래 안 높고, 야산이 이래 있는데. 그래 거 마을 사람이 그 산에 가가 인자, 옛날에는 나무 해가 때고 전다(전부 다) 이러니까, 나무 하고 갈비 끌고 이래 나오니까,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쑥 이래 둘러보디만은, 옛날에는 그 인자 명산도 찾고, 이래 명산 풍수들이 지리 보러 땡기는 기라. 그래 와가 두 사람이 확 둘러보디이.

“아이고 여는 묘 써봐야 한 백, 백 석밖에 몬 한다.”

옛날에 촌에 부자들 백 석, 천 석, 만 석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아, 요는 묘 써봐야 백 석밖에 안 된다.”

이래. 둘이 갓부리는 기라. 그래 묘, 인자 나무하는 사람이 그 소리로 들었어요. 듣고 자기가

고 자리에 묘를 써가지고 그 자손들이 백 석까지 하고. 백 석은(‘천 석은’이라고 해야 할 말을 실수로 이렇게 함) 문 하고. 예. 백 석까지 했다대. 그래 옛날에는 그런 명당이 있었던 모양 이죠. [조사자: 예, 그러니까 풍수들이 있었지요.]

[동래구 설화 1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지택(여, 1928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고려장을 할라꼬요 저검마를(자기 엄마를) 지고 갔걸랑, 할매로(할머니를). 손자로 맏기가. 가다가,

“아부지요 이거로 와 할매로 지고 갔노?”

카이,

“할매로 고래장 시키놓고 집을 맨들어가 영어야(넣어야) 된다.”

글로 고려장을 해가, 집을 해가 여어 냈거든요. 영어 놓으니까네,

“이 지계로 우짜꼬?”

그래.

“고마 내빼리라.”

“아, 집에 갔다왔다가 아부지도 그래 해조야 된다고. [일동 웃음] 아부지도 이래 지고 가야 됩디.”

이러더란다 아들이. [조사자: 그래가 인자 고려장이 없어졌네.] 야.

[동래구 설화 11]

어릴 때와 클 때가 다른 성기 명칭

김지택(여, 1928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며느리가 이래 밑에 감을 받는데,

“아부이요. 아부이요. 아부이는 총각 때 뭐라고 불렀는교.”

카이까네,

“야야, 저 나도 클 적에 꼬치라고 불렀다.”

카이,

“아이고 그런교? 나도 애릴 직에(어릴 적에) 보지라 카디마는 요새는 씹이라 캬더.”

[일동 웃음] 그거 시아바이가 감낭구더러(감나무에서) 하이까네 그 삼베옷 입으노이 덜렁덜렁하이 비거든. [조사자: 감나무 위에 올라갔는가배. 감 따다고.] 야. 감 따다고.

[동래구 설화 12]

눈 빼먹을 세상이란 말에 눈만 가린 바보

변명임(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인자 소를 풀러(팔러) 갔는디, 가면서러 아들을 데고(데리고) 갔어. 아들 이름이 무걸이라. [청중 웃음] 갔는디,

“나 술 한 잔 목고 오꺼인께, 이 세상이 눈 빼 목을 세상이니까 소깨빼를(소고빼를) 꼭 잡고 있어라. 나 찌가(저기 가서) 술 한 잔 목고 오께.”

[조사자: 소깨빼 뭐?] 소꼬빼, 꼬빼.

“그거를 꼭 잡고 있어라.”

이랑께,

“예.”

이 세상이 눈 빼 목을 세상이다 이거라. 지 눈만 꼭. [일동 웃음] [조사자: 그 바보다.] 응. 지 눈만 개루고 소깨빼 가지고 있는께, ‘아 저놈이 어디서 눈 빼 목을 소리를 들었구나.’ 그라고 어떤 놈이 소깨빼를 찢라 가뿌렸어. 아버지가 온께, 소깨빼만 쥐고 있어.

“아이고 무걸아 이놈아 소 어따 뒀냐?”

이런께

“내 소 쥐고 있는대요.”

“어딤냐?”

이런께,

“아버지가 눈 빼간다 캐서 내 눈을.”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13]

신식으로 하다가 다 죽겠네

변명임(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우리가 전라도 인자 장흥이라고 카는데 산디(사는데), 그 동네 인자 결혼해갔고 그 우리 시집간 새마을지도자라. 그때는 함문(‘당시’의 뜻인 듯) 대통령, 여 박대통령 나가지고 새마을 그걸 많이 했어. 그래 한다, 그 지도잔디, 아따 안자 자기들끼리,

“모다(모두) 나가서 넘우(남의) 각시도, 술집 각시도 보고 그란다. 우리도 여수로 가갔고 놀러 가갔고 술집 여자 조금 데고(데리고) 놀아보자.”

그러고 갔는데, 해필 내복을 갖다 떨어진 것을 입었어. [일동 웃음] 옛날에는 마이 줍어(주워서) 입었어. 이런게 내복이 떨어지면. 다 차고 나갔는데 옷을 벗을라고 본께, 차고 데고 나가서 본께, 내복을 떨어진 것을 입어도 너무 떨어진 것을 [웃으면서] 입었는 기라. 그래 인제 할 수 없이 그양 옷을 안 벗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그러고 막 저거들끼리 인자 이야기를 한께 저도 그 여자하고 놀았다고 말은 그랬는데. 집에 아갓고(와서) 옛날에는 우리 각시 때는 찬장 우에다 막 노랑, 노랑 바캐쓰니 찜통이니 막 냄비니 막 요래 연저났거든(엎어놓았거든). 그랬는데, ‘신식 것을 한다는디.’ 그라고는 자기 집, 거그서 못한 것을, 자기 집에서 부인을 갖다가 세아(세워) 놓고 해필 찬장 밑에다 세아 놓고 했던강, 아들이 자는디 기냥 노란 그릇이 그냥 팍 팍, 그릇이 와장창 떨어졌뻘어. 그랑께 저 저 인자 아무 소리를 안 했으몬 쓸꺼인데(좋을 것인데),

“내가 여수를 가본께, 여수를 가니까 서서 하는 것이 신식 거라 하더라.”

인자 이 소리를 애기들이 들었던가봐.

“하이고 우리 아버지 당최 어디 보내지 마라꼬. 신식 거 하다가 우리 다 죽을 뻘 했다.”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14]

성기 보여주고 호랑이를 물리친 여인

변명임(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그 인자 호랭이를 만나갖고, 옛날에 아래 고쟁이가 다 터졌대요 [가랑이 양쪽을 가리키며] 요렇게. 맨스가 한참 있을 땐디, 막 그 호랭이가, 호랭이를 만나갖고 어차도(어떻게) 못해갖고 마, “나 잡아 목을라몬 잡아 묵고 알아서 해라.”

하고 요라고(요렇게 하고) 벌려놔더니 기냥 [청중: 우짜꼬!] 호랭이가 기절해뿌고 내빼고. [일동 웃음] 어. ‘아! 이거는 나보다 더 징한(징그러운) 걸 잡아묵었다고.’ [일동 웃음]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다고.

[동래구 설화 15]

피난지에서 나는 사랑

진삼순(여, 1932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육이오 사변 때 우리 고향에서 영산읍내 사람이 밀양으로 전부 피난 넘어갔거든. 밀양으로 가고 우리 제종 시누부가(시누이가) 그래 얘길 하나, 제주도 가가,

“희야 내 피난가서러 고생한 이바구좀 하꾸마.”

개.

“그래 해봐라.”

캥께네, 밀양으로 피난을 가갖고 빈집이 하나 있어갖고 그걸로 인자 동래 이장한테 이야기 해갖고 그 집에서러 전부 자기로 했는데, 시숙캥 동시캥 시동생캥 전부 인자 피난 가가 그제 마루에서 쪽 자는 기라. 자는데 부역에 인자 개로 요래 한 마리 매놔터란다.

그 밤에 점두룩(저물도록), 그래 영산 읍내에서 칠십 리거든 밀양이, 걸어서 갔제 배 고프제 마 눈도 뜨기 싫는데, 신랑이 마루 밑에 기드가갖고(기어들어가서) 손을 오군오군 땡기터란다 이래. 마루 우에다가 손을 올리갖고 시숙도 아프고 눕어가 있제, 전신에(모든) 동시들(동서들) 눕어가 있제, ‘이 일로 우째 하노’ 싫어서러 할 수 없어가 살모시(살며시) 빠져나가서러 인자 일어나서 나간께네 부역으로 끌고 들어가터란다.

부역에 솔가지로 이래 재(재워서) 들라놔는데. 솔가지 밑에 거 기드가서러 [조사자: 인자 볼일 봤네.] 거서 장난을 치는데, 개가 처음에는 솔가지가 쪼깨(조금) 흔든께네 공공공공공, 자꾸 드다보이 솔가지가 많이 흔든께네 공공공공공공. [일동 웃음] 신랑은 놔주도 안 하제, 식겁했다 개 마. 그래 마루에서 전부 잠이 다 깰을 낀데 눈치를 챘는가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 안 카나.

[동래구 설화 16]

복방귀 소리에 마음대로 방귀 끼는 며느리

진삼순(여, 1932년 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시집간 지 삼일만에 시아바씨 인자 첫, 첫 밥을 해갓고 상을 들고 간께 방구가 나올라
캐가 마 근근히 참아갓고 그란께, 방구소리가 막 ‘뽕~’ 커민서 이상하게 나오거든. 그런께 인자
무안할까 싶어서 시아바씨가,

“아이고 야야, 이기 복방구다.”

이리 췌는 기라. 마 가만 있으몬 될 것 아이가.

“아이고 아버님, 그럴라고 그렇든가 저럴라고 그렇든가 혼수 받은 그날부텨 칠락팔락 나옵
디더.”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17]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김순조(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신랑은 과계 공부한다고 역수로 가난한 집인데, 먹고 살 기 없어가 마누라는 갱피(강피),
갱변(강변)에 가가지고 피를 훑어가지고 만날 인자 밥을 해가 먹고 사는데, 그 피 훑으러
간 적에 뜰어다 훑아 널어난 기 마당에 널어난 기 떠내려가도 그 공부하는 신랑은 그거로
거두지를 안 하고 떠내려가는 거 그양(그냥) 있으이까, 이 여자가 사다가 사다가 못 살아서
딤 데 인자 갔는 거라.

딤 데 재혼을 해가 가고, 이 남자는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과계 시험을 봐가 인자
출세해가지고, 인자 감사가 되가 내려오는데, 이 여자가 또 시집을 갔는데 거 가서도 못 살아가
또 갱피를 훑게 됐는 기라. 그러이 인자 그 남자가 인자 과계로 해가 내려오가, 말로 타고
내려옴시 하는 말이가,

“부인, 부인. 이 부인야, [웃으며] 저 넓은 갱변에서러 훑던 갱피 다시 훑나.”

카더라. 그런 전설이 있었어.

[동래구 설화 18]

고래장을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김순조(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고래장을 하러 아버지로 지게에 얹어가지고 가는데, 나뭇 이파리로 푹푹 끊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와 그럽니까?”

카니껴네,

“니가 올 적에 길을 잃어뿔까봐 길을 잘 찾아오라고 내가 나뭇잎을 끊어놓는다.”

[약간 머쓱해 하며] 나는 고 소리만 하겠요. [조사자: 고래장 하러 가면서도 그래 자식 걱정 하고.] 예. 자식을 생각하는 거라.

[동래구 설화 19]

며느리가 꺾는 방귀

김순조(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며느리가 참을 이고 인자 나가는데, 가다가 빵구름(방귀를) 뽕 끼가지고, 자기 남편인(남편인) 줄 알고,

“내 빵구 꺾시지요?”

카이, 녀우(남의) 남자더래.

“당신 방구 볶았소?”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20]

본처와 첩이 다르게 느끼는 남편 방귀

김순조(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또 인자 신랑 각시 작은어마이를 두가지고 서이가 어데 가는데, 남편이 가다 방구로 뽕
끼니꺼네, 작은어마이는,
“아이고 씨암탉 삶는 내야.”
카니꺼네, 큰어마이는,
“살면 살고 몬 살면 몬 살고, 내사 꾸릉내야.”
카더란다.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21]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순조(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안 그치고 우니까,
“꽃감을 주꾸마.”
개. 꽃감을 주이께, 덜컥 근치이까(그치니까), 호랭이가 듣다가, ‘저 꽃감이 호랭이보다
내보다 더 무섭구나’ 카맨서노 호랭이가 도망을 갔다. 그래 되는 거여.

[동래구 설화 22]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정수(여, 1929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울어사서 아무리 달개도 안 달개져서, 꽃감을 주고 달개도 안 달개진꺼네, 꽃감, 꽃감 캐도
배곶에(밖에) 호랑이는 듣거든예.

그런데도 안 달개진께, 호랑이가 있다가, ‘화파! 꽃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저게 꽃감도 안 끈이듣노?’ 이러이 호랑이가 도망을 가뿌더랍니다.

[동래구 설화 2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 오래 사시니까, 아드님이, 두 내우(내외) 인제 이래 상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아버님을 못 모시겠다. 우리 어디 갔다 다른 데 갔다 모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제 상의를 해고선 아버지를 짊어지고 어디 갔다, 굴에 갔다 놓을라고 좀 이래
음식하고 싸가지고 인자 가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손주지, 손주가 뒤에 딸딸 따라오더랍니다.
그래,

“니, 거 니 왜 따라오느냐. 집에 가거라.”

하니까,

“으응, 나도 가야 돼요.”

“왜?”

그라니까,

“나도 가야 내중에(나중에) 아버지가 많이 연세 들몬 나도 갔다 아버지를 모셔다 여 갔다
놓을 거 아니냐.”

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 가다가 중간에서 마 다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답니다.

[동래구 설화 2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정승이거나 이런 사람이 참 이래 그걸 해 있고서, 가다 보니까, 도론도론 얘기 하는 소리

듣고, 지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래,

“왜 이래 아버지를 모시고 이래 지계 지고 땡기느냐?”

하니까, 그래,

“이만큼 이만큼 아버지를 고려장 할라고 가다가, 우리 아들이 댕중에 나를 갖다 또 이래 대신 해준다 해서, 다부 모시고 온다.”

이카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걸 갖다 상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인제 그 고려장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동래구 설화 25]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얼마나 방구가 니가 그래 세기 때문에 뭐가 날라가니?”

그러니까,

“아이고 셉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게 세가지고 안 됩니다. 못 끝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럼 꿀까요? 그러면 아버님은 지등을 잡고 어머니는 [웃으며] 저 부엌에 가서 솔뚜껑을 잡고, 신랑은 또 어디 뭐 마룻간에 가 뭘 잡고 하라.”

하더랍니다.

“오야, 우리 다 준비했다. 한 번 꺾봐라.”

해놔놓으니까, 꾸니까 고마 지동이 말랑말랑, 솔뚜껑이 들딱날딱, [웃으며] 아유 내 어디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야, 고만 꺾라. 고만 꺾라. 인자 됐다. 우리 인자 다 날라간다. 고만 꺾라.”

해서 그래 고만 안 꾸고, 실컷 꾸고 나이 얼굴이 제 얼굴이 돌아오더랍니다. [웃음]

[동래구 설화 2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눈이 안 보이는데 두 내우 연구를 했어. 아들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갔지.

“여보.”

자꾸 미워라 하더라.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자시니까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는 마누라한테,

“여보, 우리 엄마를 잘 거둬가지고 장에 갖다 팔자.”

고 이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래,

“저 지렁이를 파다가 어머니를 드리면은 살이 찌걸랑 우리 장에 갖다 팔자.”

했어요.

“아이고, 얼싸 좋다.”

해가지고는 참 메느리가 땡기며 지렁이를 파다가 참 뽕양게 고아다가 인지 참 디렸어. 그러니까 뽕양기 살이 찌가지고는 일도 잘 거들어주고, 눈은 그렇더라도 일도 잘 거들어주거든. 그래 아들이,

“어머니, 와 이렇게 근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뭘 보신을 해다 줘서 그걸 먹고 나니 이렇게 내가 몸이 건강해졌다.”

그래 땡기며 뭘 거들어주고 인제 이래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나 어머니 안 갖다 팔래요. 나를 이만치 도와주는데 이제 안 갖다 판다고.”

그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로 살렸답니다.

[동래구 설화 27]

할미꽃 전설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자: 꼬부랑 할무이가?] 아니 그 딸네 집에 간다고. 그래,

“인제 내 딸네 집에 갔다 오께.”

하고 나간 게 참 지팽이를 짚고 가. 한 고개를 또 넘어가이 또 또 고개가 나오고, 또 고개가 나오고. ‘아이고! 딸네 집에 가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거 못 살겠다.’ 가다가 넘어가다 넘어가다 밧등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 밧등에 가서 고마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고마 그질로 고만 돌아가셨는 기라.

그래서 시방 할미꽃이, 고래서 할미꽃이라고 한다 하는 거 같더라고. 예 할미꽃이. 예 그래 꼬부랑 할머니, 할미. [조사자: 딸네 집에 가다가.] 예, 딸네 집에 가다가. 그래 그래 할미꽃이 그래서 늙으면 고만 하얀 머리를 왜 요래 하얗게 내마정(나처럼) 고래가지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녹이라고 한다 이러카는 말이 있더라고.

[동래구 설화 28]

저승 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

안상식(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참 삼일장을 하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칠일장들을 했다 합니다. 그래 삼일장을 했는데 인제 각중에(갑자기) 돌아가셨다요. 우리 외숙모가.

그래가지고 참 옛날에 이랬으면 염을 하면 일곱 개 묶잖아. 이래 묶어가지고 그래 인제 평풍을(병풍을) 이래 치고 해놓잖아. 그런데 인제 다들 가고 상주 한 분이 이래 인제 곡을 하고 있다 앉아서 쉬고 쉬고 하는데, 자꾸 평풍 뒤에서 툇닥툇닥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여 쥐도 안 들왔일긴데. 왜 그럴냐?’ 하면서, 저 그 상주가 인제 평풍을 이렇게 여니까 염해논 거기서 툇닥툇닥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짖는 일인가?’ 싶어서 막 사람들을 이래 불러와가지고는 평풍을 이래 하고선 이래 보니까, 요 한 게 툇닥툇닥 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민서 다 이거 제끼고(젓히고) 하니까, 그래 인제 우리 외숙모가 인제 깨어났는 기라.

그래서 지금 우리 외숙모가 시집을 적에 요기 요기 맥기, 묶은 맥기가 있더라고요. 손도 요래 묶은 맥기가. 옛날에 염 하기 전에 요래 묶어놓는대요.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그래 가지고 요기가 이래 짜우가(자국이) 있고, 요래 짜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외숙모 이마에 맨날 요겨 뭐 머리띠 한 거만 있는데,

“왜 그라?”

하니까,

“그게 내가 죽은 표시다.”

이러하시더라고.

“그 왜, 왜 죽었어요?”

그러카이.

“내가 이만큼 만큼 저승에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래 참 인제 말씀하신 거매이로(것처럼), 어딜 가자 해서 참 큰 스님을 한 분을 따라서 가니까, 요래 가다 말고 스님이 어디로 간 데가 없고,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더니만은 마 외나무다리 요래 가더니만은 가다말고 풍당 빠지더랍니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 강아지 따라서 풍덩 뛰고 보이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래 요게 염이 탁탁탁 튀가지고 그래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외숙모는 그래가지고 팔십 몇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실화요. 실화.

[동래구 설화 29]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떡 장사 어머니[해와 달이 된 오누이]

조갑선(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침에 그래 떡 장시를(장사들) 했는갑더라고요. 엄마가. 그래 떡장시를 고개 넘어가가지고 떡을 팔다가 팔다가 남은 기 있어서, 인자 아(아이) 갖다 줄라고 이고 올라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어흥!’ 커며 자아물라(잡아먹으려고) 카기네,

“내 떡 하나 주꾸마.”

“떡 하나 주문 안 잡아 묵지.”

또 저저 가다가 또 잘에 와가 그래.

“떡 하나 주문 내 안 잡아 묵지.”

그러구로 그러구로 집까지 와가 떡도 떨어지뿌고, 그래가 그 호랑이가 어마이 역할로 했는갑더라고요. 그래가,

“손하고 울 엄마 목소리가 아이다.”

하면서 문을 안 열어조이까네, 그라몬 자꾸 저검마라고(자기 엄마라고) 속이사서,

“손 한 번 내보라.”

하니까네, 손을 내가 만지니까네 털이 아납니까? 그래,

“울 엄마 아니라.”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줬다 하대요. 그래가 저거 아들이 살았대요. 그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릴 적에.

[동래구 설화 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임출(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아부지로 짚어져다가 거기다가 고래장 해놓고, 지게, 지게에 짚어지고 갔다 아닙니까. 그래 지게로 버리뿌고 오이까네, 손지 거기 짚어지고 오몬서, 그래,
“와 지고 오노?”
커이까네,
“나도 난재(나중에) 아빠 짚어져다가 내빠릴라고 지게 지고 온다고.”
그켰더라(그렇게 하더라).

[동래구 설화 3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임출(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못 살아가 시어마시로 죽으라고, 죽으라고 지렁이를 자꾸 삶아 먹이이까네(먹이니까), 할머니가 지렁이로 묵고 살이 썩가지고, 자리 밑에다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건지 열어놨다가, 아들이 오이까네,
“야야,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함 보라.”
커이,
“엄마, 지렁이다.”
커이 눈을 펴뜩 뜨더랍니다. [웃음] 예, 그래가 눈을 띄 뜨가 효부 며느리가 되더랍니다.

[동래구 설화 32]

우렁각시와 결혼한 총각

최임출(여, 1932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자꾸 총각이 팔밭(팔밭)으로, 옛날은 팔밭 띠진대(뒤집는다) 아닙니까, 그래
“이 팔밭을 띠지가지고 누캉 먹고 살꼬?”
만날 그카면서 띠지이카네,
“나캉 묵고 사지.”
또, 또 그카면서 띠지이까네,
“나캉 먹고 사지.”
그래가 우렁각시가 되어가지고 같이 잘 살터랍니다.

[동래구 설화 33]

꽃감이 무서워 도망간 소도둑

김상현(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세실경로당]

애가 자꾸 울어서서, 그래 자꼬 우니까네, 그래 뭐 ‘호랭이 온다’ 캐도 울고, ‘너 뭐를 준다’ 캐도, 응 ‘순사가 온다’ 캐도 울고, 그래가 ‘꽃감 주끼(줄게)’ 카이 안 울더라 안 카나.
그런데 이놈의 ‘꽃감 주끼’ 카이께네, 소도둑님이 왔어. 소도둑님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인자 주인이 자는가 안 자는가 덜다(들여다) 보니까, 그라고 있으니, 마 ‘꽃감 주끼’ 카이까네 안 울고 인자 애가 그치. 이기 무섭어가 마 소 마구간을 쫓아드가뵈어 도둑놈이. 인자 꽃감이 디기(매우) 무섭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소도둑놈이 마 쫓아 나가가지고 소 등에 타고 있이이, 소가 마 그 소도 꽃감이 붙은 줄 알고 [웃으며] 실고(신고) 도망갔부더라 안 카더나.

[동래구 설화 34]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김상현(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진기명기 넓은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래

나 싫다고 가더만은 갱피 훑는, [말을 바꾸어] 훑던 갱피 다시 훑네.

[조사자: 그 얘기 우뚝 이야긴공?] 거기 지그도 전라도 진개들 명개들 안 있나 거기서 나왔어.
[조사자: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결혼을 해노이, 선비가 결혼을 해노이, 목을 거는 집에 하나도 없어도 맨날 글만 디리고, 마누래가 나가가지고 갱피라 카는 거 있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인자 이렇게 훑어가지고 한 말씩 훑어가 집에다 이렇게 가져 오몬, 그래 이래 다 넣어 놓으몬 그거로 말라가 찌어가 물라꼬 이러노이, 때꺼리가 있든지 굶든지 남자가 그거는 신경을 안 써.

그 인자 그 글에만 그래노이 신경을 안 써고 그라지. 넣어놓고 이렇게 저 또 훑으러 갔다 오이 비가 디기(매우) 많이 왔어. 그래도 그 비가 와도 그거로 안 치아쫓어(치워주었어). 안 치아주고 그기 마 떠내려가뻘어. 그래놓으니 떠내려가뿌이까 이 여자가 참고 참고 살아볼라 캐도 못 살아가지고 마 도망을 가뻘어. 도망을 가가 탄 데 가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는 또 뭐 혼자 내빼리고 가가 우째 또 공부를 해가 과계를 해가 오고, 여자는 갔는, 그 집에서도 가도 또 그거를 훑어야 돼. [조사자: 아하! 갱피를.] 그런 따매(때문에). 아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는 우야든지 죽든 살든 그 집에 가서 늙어 죽을 대로 살았으몬 그 남자가 저게 과계 해가 왔으몬 잘 살지. 지금도 한 가지라. 어지간 하몬 참고 살아야 돼.

근데 그래가 말로 타고 오니까네 여자가 갱피를 훑다가 이래 보이, 또 인자 그래서 선비가 말로 타 오니까 거카더란다. 이래 처다 보고, 인자 그 선비가,

“진자맹자 넓은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래 나 싫다고 가더만은 훑던 갱피 다시 훑느냐고.”

그래 가 봐도 그래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남자캉 그 남자 밑에서 살아야 돼. [청중: 맞아.]
[조사자: 복이 그거밖에 없다 그지?] 응 그런, 아니야 우야든지 여자는 지금은 한 가지라. 어짜든지 그 남편 밑에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그 뜻이라. [조사자: 그래 따로 살러가도 또 그냥.] 어 가도 그 복밖에 안 돼. [청중: 지 복이 그기다. 지 복이 그기다.] 응. 그케가 남자가, 여자가,

“이제 따라 가까?”

카이께네,

“물로 한 동이 이고 땅에다 부어가 도루 한 동이 되거들랑 이고 따라오자, 따라오라.”

카더라 안 카나. 그 우째 그 물 한 동이 옹은 거 그거로 어데다 땅바닥에 있는 거 한 동이 맨더노. 안 되는 일이지. [조사자: 그렇지.]

그래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

[동래구 설화 35]

술 취한 사람만 흘리는 도깨비

김상현(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세실경로당]

여자 몸에 그기 머 묻은 도깨비가 된다고 그런 소리 있었어. [조사자: 그래 옛날에 영감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도깨비들 하고 뭐 씨름 하고 이래 뭐 그랬다고 하던데.] 아니야. 저기 보릿짚을 여 안에다가 막 촌에 농사지었는데, 장에 갔다 온 사람이 보이까네 술이 취해가지고 도깨비가 열었다 카지. 그래가지고 들은 사람도 있어. 뭐 열어조가지고 요게다가.

[조사자: 장에 갔다 온 그기 도깨비가 들어갔다고.] 응 도깨비. 도깨비가 술 찬한 사람만 그러지, 옳은 사람은 안 그래. [조사자: 그래 술 취한 사람이 뭐 뭇이 들어갔노? 보릿짚. 보릿짚.] 보릿짚을 자기가 열었는가 모르지. 도깨비가 어째 손이 있나 우째 거게다 넣노.

[조사자: 그걸 도깨비가 열어줬다고?] 그래 토깨비가 넣어줬다고. 그래와가지고 털고. 또 장에 갔다 온 사람이 집에 안 오고는 개울로 자꾸 또랑을 누가 델고 가지고, 델고 가더라 카디 공동미(공동묘지) 가 누우자고(누워 자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알아. 어릴적에(어릴 적에). [조사자: 흘리가 그렇네.] 흘리가. 술이, 술 찬 사람만 그러지 여러 사람은 안 그래.

[동래구 설화 36]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박복자(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읍성경로당]

시집을 떡 갔는데 남편이 만날 책만 드다보고(들여다보고) 있는 기라. 밥상을 인자 채리놓고 책만 드다보고 있던께네, 목을 기 없어가지고 동네 빨래로 갖다가 전부 다 마 거다가(거두어서) 오가 빨아주고, 보쌀(보리쌀) 한 대씩 받아가지고 묵고 살았어.

묵고 살았는데 도저히 마 갱변에(강변에) 인자 경변에 가야 갱피로(강피로) 훑는 기라. 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 인자 찌가 삶아가 말라가 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자 묵고 살았어. 목을 기 없어서. 그래 그거를 묵고 있는데 고마 마 이 할매가 가마 생각해보이, '남편 믿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 마 가뵈어. 집을 나가뵈어.

집을 나가뵈었는데, 나가뵈고 난 후로 이 남자가 공부로 만날 하다가 그 암행어사 그 인자 출두해가지고, 거 가야(가서) 그 어사가 돼가지고 말을 타가 그 인자 동네로 오니까, 옛날에 그 말이지 내 아내 뵈던 그 사람이 갱변에서 그냥 갱피를 훑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데 가도, 어데 가도 인자 갱피 훑는다. 그래 인자 말로 타고가면서,

“옛날에도 저 분은 갱피 훑더만은 지금도 갱피 훑네.”

이라면서 말을 타고 지나갔다는 그런 낭설이 있어. 낭설이 있어.

[동래구 설화 3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복자(여, 1939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읍성경로당]

인자 아들하고 인자 손자하고 그 인자 고려장 하고 물어놓고 오는데, 오다가 아버지가 마 지계로 갖다가 탁 어데 버리는 기라. 그래,

“아부님 그 지계를 갖다가 버리면 되느냐? 가지 가서 아부님이 또 칠십이 되면 내가 그 지고 갈 낀데 왜 버리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자 법에 없어졌다.

[동래구 설화 3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정인열(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읍성경로당]

스님을 어디 가서 그 인자 동냥하러 갔는데, 아로(아이를) 갖다가 아무것도 줄 기 없다 하면서 아를 갖다가 줬다 하던가.

[조사자: 아 맞아. 맞아. 동냥하러 갔는데.] 그래 그 아를 갖다가 에밀레종에 넣었는갑데.

[조사자: 그러니까 에미 찾는다고 에밀렐레 에밀렐레 한다고.]

[동래구 설화 39]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와 쌀 나오는 구멍이 있는 절¹⁰⁾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그 참 시어마시를 그래 없어가 모시는데, 저게 개가 참 보리쌀을 묵고 보리쌀을 내난 그걸 씻어가 밥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만날 그래가 부모를 모셨는데, 한 분은 마 인자 모를, 모를 송그려(심으려) 갔어. 갔는데 마 천동이 우르르르 마 천동이 마 치고 번개가 치고 해논까네 (해놓으니),

“여게 아매(아마도) 여기 논바닥에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죄 지은 사람 나서라.”

카이까네, 자기가 인자 시어마시 그 똥을 그래 해쫘는 그거로 자기가 죄라꼬 그래 나섰는데, 낸재(나중에) 그래 하늘에서 뭐 쌀이 또닥또닥 떨어, 그거는 어덴고 하이께네, 우리 울산에 어른암¹¹⁾ 절이 있는데, 우리 울산 쪽에. 그 절에서, 절에서 유래가 나왔어.

그 거게 인자 절에 물이, 쌀이 그전에 또닥또닥 떨어지더라 카대. 그런데 그거를 또 인자 그래가 인자 고래 떨어져가 참 어른들은 어른 밥을 해먹이고 했는데, 인자 저게 고거를 마이 (많이) 나오라꼬 구멍을 콧 썬시노이 마 쌀이 안 나오고 물이 막, [웃으며] 그래가지고 그래 쌀이 마 안 나오더라 카대. 그 마이 나오라꼬 콧 썬시놓으이카네. 구멍 크몬 쌀이 나온다고 그래 했디만은 마 그래 물이 나오더라. 그래 맞아 욕심을.

[조사자: 거거 개똥해서 해가 쫘는데 뇌성벽력이 치가지고.] 예예. 그래 인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인자 하도 번개가 치고 해사이까네,

“여 아매 죄 지은 사람이 이 논바닥에 있다.”

이래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나서라.”

캐노이 자기가 그럼 나섰다 카대. 그러니까 쌀이 그 구멍에서 내 떨어져가지고 고거로 가 (가지고) 밥을 해쫘는데, 그래가지고, [조사자: 아 그걸 하늘이 인자 그걸,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는지 알고.] 예예. 인자 좋은 일로 했다고 인자 부모를 봉양 잘했다고 나왔는데. 인자 그래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마이 나오라고 구멍에다 더 크루로 인자 더 크몬, 예 크몬은 그게 마이 나오지 싶어서 구멍을 고마 콧 썬시놓으이카네 마 물이 나오더라. [웃음]

[조사자: 거기 그 절이 울산에.] 울산에 어른암 절이라고 거 있어예. [청중: 지금도 물이

10) 이 설화는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이야기와 <쌀 나오는 구멍이 있는 절> 이야기가 합쳐진 형태로 구술되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국사봉 동편에 위치한 암자.

나오고 있어요.] 어른암 절. [조사자: 어른암 절?] 예예. 어른암 절. 물 있으면 그 뭐 내 나오겠지.

[동래구 설화 4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그래 고래장을 하는데, 아들이 인자 저기 손자가 그걸 지고 갔다 캐. 아들은 인자 만날 다 고래장 하이까네 마 가가 거 했는데, 그래 손자를 보고,

“할매 인자 고래장 하는데 지고 가가지고 그래 고래장 하고 오너라.”

캐논까네, 지계를 항상 고래장을 하면 거다가 얹어놓고 오는데, 지계를 도로 가(가져) 왔더라 캐. 그래가지고 저게 가 와가지고,

“야야, 지계를 와 가오노?”

케이,

“아버지도 낸재(나중에) 지고 가야죠.” [웃음]

캐노이카네, 그 그림을(‘빌미가 되어’의 뜻) 그래 고래장이 없어졌다 카대.

[동래구 설화 41]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여느 침에 여느 그래 시집 와가 인자 얼굴이가 노래져가지고, 그래가 참,

“와 그러노?”

카이까네, 그래,

“방구를 안 끼가 그렇다.”

캐노이, 그래 시아버지가 참,

“끼라.”

캐노이, 집이 넘어가도록 끼더라. [웃음]

아이고, 우리 그 영감쟁이가 약간 하몬 그런 소리로 잘해쌌대. [웃음] [조사자: 아 그래가 저 빵구 하도 오래 참아놓으니까네(참았으니까) 힘이 세던 모양이네.] 그래갖고 한 쪽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 또 이쪽에서 끼이까네 바리(바로) 서더라. [웃음]

[동래구 설화 42]

내 방귀 고소하지요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메느리가 참 그래가 인자 이고 가다 방구를 낀는데,

“내 방귀 꼬시지요?”

커이, 여 인자 저거 신랑 차 따라온다고 그카이까, 신랑이 있다 뭐라 카노 하이카네,

“당신 빵구는 뷔았나?” [웃음]

[동래구 설화 43]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한 부부[산삼동자]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그래 병이 나가지고 참, ‘사람 고기로 묵으몬 산다’ 캐가지고 인자 그래 했는데, 그래 참 인자 참 아까 저 말씀 말따나, 저기 부모는 한 문 돌아가시면 못 오시고, 인자 아는 놓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인자 의논을 해가 인자 신랑각시 의논을 해가지고, 인자 그래가 참 가마 솔에 그래 물로 끼리가지고, 그래가 참 아를 그래 그거로 했는데, 그래 참 낸재(나중에) 보이, 낸재.

낸재 그래 인자 그 아가 그래 인자 들오고, 그래 낸재 그거 솔뚜뱅이로(솔뚜경을) 열어보니 까네, 그래 그 산삼이, 산삼이 환생을 해가지고 인자 그거 원판(워낙 많이) 효도를 하니

까, 하니까 산삼이 인자 환생을 해가지고, 예 그 사람 눈에 인자 그 저거 아같이 비있는(보인) 기라. 그러니까네 인자 그 가마솥에다가 열어가지고 그랬는데, 난재 자기 아는 그래 그대로 살고, 인자 또 부모는 부모대로 곤치고(고쳐지고).

[동래구 설화 44]

누가 아이의 부모인지 판단하는 명판결

박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아(아이), 아를 이래 낳아가지고 인자 큰어마이, 저거 다른 사람이 인자 아를 키우고 그라는데, 난재(나중에) 인자 자기 안(아이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인자 둘이가 부모들이 싸우는데, 막 아가 막 완전 다치도록 막 짜질듯이 양쪽 팔을 잡아 땡기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그래 나라에서 인자 그거로 내루키로(내리기를),

“그래 싸우는데 인자, 누가 머여(먼저) 놓느냐 그거로 봐라.”

인자 이래 됐는 기라. 그러니까네 자기 부모가 머이(먼저) 놓더란다.

“와 그노(그렇게 하노)?”

하이까네,

“이거 다칠까봐 싫어가.”

부모 아닌 사람은 막 짜지거나 말기나 지 아라고 잡아땡기도. 그래가지고 판단을 내렀다 카대. 자기 낳은 부모는 마 아이고 애처롭아가지고 지절로 마, 지 아 안 되거나 말기나 인자 지절로 그기 애처롭아가 나아뿌는(놓아버리는) 기라. 그래가 판단을 내라가. [청중: 그기 천륜 이라 이 말이다.] 그래 맞아.

[조사자: 그 명판결이 낳다 그지요?] 그래 맞아요.

[동래구 설화 45]

강피 훑는 팔자의 부인

반득연(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옛날에 어느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내 공부만 하고 돌보질 않아서 이 여자가 인자 녀의 눈에 가서 갱피, 갱피라 카대요, 갱피를 훑어갔고 인자 죽을 써가고 먹고 이려는데, 한 번은 갱피를 훑어가 오니까 덕석에 넣어놓고 갔는데, 비가 장대같이 왔는데, 거기 다 떠내려 가도 공부만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마 ‘아 도저히 이래갖고는 저 사람이랑 못살겠다’ 싶어서 인자 참 집을 나가서 딴 데 가서 사는데, 또 한 번은 눈에서 또 인자 딴 데 가도 갱피를 훑는 기라.

훑어싸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타고 신사 꺼떡꺼떡 가면서,

“저기 갱피 훑는 저 마누라, 간 데 족족 갱피구나.”

아이고 그래 보니까 자기 남편이라. 말 다리를 안고,

“마 내가 말죽이라도 끼리주고 갈란다.”

캐도,

“한 번 사발에 물을 한 컵씩 떠가 부어봐라. 길에다 부어봐라. 그거를 주어담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라는 기라. 그래도 물로 주어담을 수 없거든요. 그니까 그래 그래가 갖비더랍니다. 팔자가 그 그니까 복이 그거뿐인 기라. 그 마누라는. 그니까 그렇게 간 데 족족 갱피만 훑고 살아.

[동래구 설화 4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반득연(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인자 고려장을 했는데, 한 집에서는 어무이를 아무래도 못 갖다 내빼리겠는 기라. 그래서 이제 뒷간에다 굴로 파놓고 딱 숨카 놓고 때 되면 밥을 드리고 이렸는데, 그런데 그 집이 조금 벼슬깨나 하는 집인가 우쨌는고.

그래 인자 나라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로, 그 인자 ‘머리가 뿌리가 어데냐? 끝이 어데냐? 그거를 알아내라.’ 카는 기라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애나면 뿌, 이 끊어진 거는 뿌리가 어덴 쪽인지 끝이 어덴 쪽인지 모르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어무이한테 가갔는 기라.

“어무이, 나라에서 이거를 이리 뿌리가 어덴 쪽인지 알아오면 벼슬을 준다 카는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

고 이라니까,

“그래 야야, 물에다 담그면 가라앉는 쪽이 뿌리다.”

이러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올리갖고 마 큰 벼슬 하나 얻더랍니다. 그래서부터 아 나만(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 말도 있대요.

[동래구 설화 47]

개똥 보리쌀과 지렁이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반득연(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그런께 남편은 언제 어데 가고, 홀로 있는 어무이를 인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 인자 먹을 건 없고 시어머니는 배가 고포데, 그래 어데 길가 가니까 개가 똥을 썼는데, 그 개가 보리쌀로 집어먹고 보리쌀을 수북하이 놓아놔더랍니다.

그래 고거를 굶어와가 그거를 씻어가지고 또 시어마이 밥을 해가 먹이고, 그래도 또 안 돼 가 먹을 게 없어가 지렁이를 땅에서 파가이고 그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국을 끓여갖고 내 그거를 드렸답니다. 그런께 이게 양분이 많은가 봐. 살이 시어마이가 살이 찌가지고 통통하이 이래 있는데, 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자기 어무이가 살이 찌가 허여이 그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인자 그 시어머이가 ‘똥이 이래 맛있는가’ 싶어서 한 개씩 건져서 자리 밑에 숨겨 놔더랍니다. 그래,

“이 어무이가 똥을 묵어서 요래 살이 찌고 우리 어무이가 이래 건강해졌노?”

카이,

“야야 이게 똥인고, 국을 끓여주더라.”

카매, 하나 보이 지렁이거든요.

“아이고! 어무이 지렁이네요.”

카이 깜짝 놀래가 눈을 퍼뜩 떠버렸다. [웃음] [청중: 그래가 눈을 떴는갑다.] 그게 심봉사 눈 뜬 기라.

[동래구 설화 48]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아버지가 엄마 위에 자요]

반득연(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실지로 우리 초량 살 때 그런 그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몬 살았잖아요. 그래 인자 국민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땐 텔레비 있는 집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네 집에 뭐뭐 있노?”

카니까, 그래 인자 우리 집에 텔레비 있는 아, 없는 아 이래 인자 다 말로 했는데,

“너네 집엔 방이 몇 개고?”

인제 물었는 기라. 이란께,

“우리 집에는 하나가 있다. 우리 집에는 방이 한 갠대요. 방이 비잡아서(비좁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우에 누워자요.”

그래 카더라. [웃음] 실지로 그건 그래 했어요.

[동래구 설화 49]

서로 힘자랑 하는 삼형제

반득연(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옛날에 어느 고을에 인제 그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해마다 머슴을 갖다가 열 명을 델이 야(들여야) 되는데, 그 해에는 한 번도 머슴 살려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 하리(하루) 아침에 대문간에서 인자,

“머슴 델일라꼬 인자 그해(그렇게 해) 났냐?”

쿠거든.

“그렇다.”

쿤께, 그라몬.

“우리 집에는 해마다 머슴을 열 명씩 들이는데 올해는 한 명도 못 들였다.”

쿠니까,

“아 그라몬 내가 열 명 밥을 먹고 열 명 일로 다 할게요. 내만 하나만 델이몬 된다.”

쿠더래요.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을 델이었는데, 아 인제 어느 하루는 인제 눈을 갈러 보내는데,

“어느 고을에 그거를 다 우리 논이니까 가서 갈아라.”

이러 쿠고 보내나(보내놓아). 그래 주인이 우짜는고 싶어서 가마 간께께, 소하고 흘찌기하고 인자 보냈는데, 아니 가더만은 흘찌기를 탕탕 때리 뽀사가이고 소를 한 마리 잡더만 그 꾸우

(구워) 무뻐는(먹어버리는) 기라. 소를 갖다가. 소 한 마리 다 무뻐어.

‘아이! 저 어짜는고 보자’ 하고 있은께네, 아니 그거를 다 묵고 나디만은 발톱을 가지고 눈을 갈기 시작하는데 마 띠댕기니(뛰어다니니) 눈이 다 갈아지더라요. [일동 웃음] 그래 마 열 마지를 싹 다 갈아빠거든. 그래 인자 점심도 열 명이 먹겠지 해가 이고 갔는데 또 다 묵더랍니다.

아, 그래 있은께네. 아 열 명의 밥을 갖다 냈는데,

“그 놔두고 가라.”

쿠고 갔는데, 어떤 놈이 하나 오더만은, 아이 그 열 명의 밥을 갖다가 안자 한 고랑만 다 왔다 갔다 하면 다 가는데, 그 한 바쿠 돌아올 동안 다 먹고 저만치 달나는(달아나는) 기라요. 그래서 안 되겠는 기라. 고마 ‘지가 암만 캐도 내보다 세다’ 싶어서 뒤에서 행지고 불렀는 기라.

“행님! 행님! 같이 갑시다.”

이라니까, 아 그래 뛰, 잡으러 뛰가니까 길에 있는 정자나무를 하나 쑥 빼더만은, 말로 타고 가다가 그 말 구멍 말 궁디이다가(궁둥이예다가) 그거로 끼어갓고 말로 올려 메고 달나거든요. 그러니 ‘아 이놈이 내카만 세구나’ 싶어서 그래 행님 쿠고 불렀어요. 그래,

“행님 같이 갑시다.”

그래. 그래 인자,

“내보당 더 세니까 내가 행님으로 불러줄게.”

이라이, 인자 둘이서 이제 갔는 기라. 저 어디로 바닷가로 갔어요. 가니까 아니 뵈이 저 언덕 밑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 내리다보니까, 아마 집채만한 집동한 남자가 하나 앉아갓고 손톱으로 갓고 구두로 뜨거든요. 구두를 뜨는데 뭐로 가 이 징도 있고 해야 구두를 뜨는데 손톱으로 갓고 구두를 뜨는 기라. 또 ‘아 이놈은 내카만 더 세구나’ 이래가 또 바리 고마 행님 하고 불렀어요. 그래 행님 행님 불러가, 그래서 서이가(셋이서) 삼형제를 맺었는 기라. 의형제를 맺어가이고 물 건너로 갔어요. 물로 건너가 갔는데 가니까 한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가, 할무니 혼차 살고 있는데,

“이 집에는 다 오데 가고 할머니 혼차 삽니까?”

이러쿤께,

“아 내가 아들이 삼형제데 전부 그 짐승 잡으러 갔다.”

쿠더랍니다. 그래,

“짐승을 잡아 한 분 가면 사흘씩 있다가 오는데, 그래 좀 있으면 올기라.”

쿠더랍니다. 그래 인자 앉아 있으이께, 뵈이 머리 위로 핑핑핑핑 날라가는 소리가 나. 이래 보이 마 사슴도 날라오고 뭐도 날라오고, 짐승이 마 딱 그 집에 내려오는, 널썬서요(떨어뜨려서요). 그래 온께 좀 있인께 아들 삼형제 왔는 기라. 그래 인자 막 불에다 꾸우가 묵고,

“인제 시험을 하자.”

캐요. 그집 아들 삼형제하고 이 삼형제하고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노 쿠몬,

“산에 나무가 막 이래 카악(꽉) 들어서 있는데, 나무 이 뽑기를 하자.”

쿠거든. 그래 이제 뽑기, 막 도둑놈 서이 하고 이 그래 도둑놈이라 이 사람들이. [일동 웃음] 그 이 삼형제하고 저 삼형제하고 뽑기를 하는데, 아이 이것들은 막 쿨쿨 누우자고 있어요.

이 도둑놈들은 막 뺨다고 애로 묵고 이라는데, 아 그래 한숨 자고 일어나더만.

“아이고 행님요. 저지는(저쪽에는) 다 빼가는데 우짚기요?”

쿤께네, 아 그래 이름을 짓기로 그 인자 그 정자나무 빼가 들고간다 그거는 정지손으로 이름을 짓고, 이 돌로 인제 손톱으로가 돌 떼다고 이거는 돌패손인 기라. 돌패손이가 썰 형님 이라요. 그래 돌패손이가 자다가 일어나더만은 마 온 산에 땡기매 쟁이 지리이 싹 다 넘어가뵈는 기라. 그래 이깃어요. [일동 웃음] 이깃는데.

[조사자: 오히려 그 그 집에 동물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을 이깃뵈네.] 응 그 사람한테 이깃뵈는 기라. 그래 인제 좀 나무도, 그 사람들,

“재기를 하자.”

쿠는 기라. 그래 재기를, 또 이거 쿨쿨 자고 있다가,

“아 그래 너거가, 너거는 우에 올라가서 바다(바닥에) 재고 우리는 밑에서 올리주꾸마.”

도둑놈들이 그러쿠거든요.

“아 그래 하라.”

고. 그래 착착 다 재아놓고 나닌께네 마 밑에다 불로 질러뿌는 기라. 그래서 이 돌패손이가 있다가 납주머니를 끄집어내갓고 낙동강 물을 착 빨아들이갓고 팍 터자뿌인께네 도둑놈이고 나발이고 싹 다 떠내려가더라.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50]

자기 새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한 호랑이

손순덕(여, 1931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이거는 실환데. 우리 클 때, 우리가 저 진주 그 너머에 옥동서 컸거든. 시골인데. 내 고때 열다섯 살로 뉘어요. 머스마들이 열 일곱 살 문(먹은) 머스마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호랑이 새끼를 두 마리(마리) 잡아와 왔는 기라. 호랑이 새끼로.

그래가 옛날에 이래 삼이 있는데, 길쌈하는 삼. 그거를 인제 이래 쳐다가 이래 몽카가지고 (뉘어서) 이래 한 댕복을 이래 놓고 양쪽서(양쪽에서) 불을 때가 그걸 익히거든. 그게다 잡아 넣고 아들이 불로 때뵈는 기라. 호랑이 새끼 두 마리 잡아다 갖다놓고. 그래 불로 때고 나이께네 호랑이 새끼 죽을 거 아이요? 연기에 치이서러.

호랑이가 밤에 밤새도록 집을 도는 기라. 이 집에 가서 ‘컹컹’ 하고 돌고, 저 집에 가 돌고. 자고 나이께네 한 집에는 그 요리요리 촌에, 시골에 가면 웅동이(웅덩이) 하나 있거든. 거 빠져 죽어뿌고, 한 집에는 아버지가 멀거이 바양에(방에) 자는 사람을 도둑놈이라 갖고가고. 그 래가지고 그 인자 ‘호랑이 새끼 그래가 야단이 나가지고 그랬단다.’ 소문을 듣고.

그래 인자 그 불 땀 데 나와가지고 함 디다(들여다) 봤거든. 딱- 죽어가 있더라. 그래 끄집어 내 놓을 꺼 아니야? 끄집어 내 놀 낀데, 낮에 와서 걸(그것을) 물어다가 이 집 하나 갖다놓고 저 집 하나 갖다놓고. 그래 하나는 물에 빠져죽고, 아버지는 도둑놈을 몰리가고. 호랑이는 밤새도록 땡기며 이 집 뒤로 돌면서 울고 그렇더라. 호랑이 그것도 지 새끼 직있다고. 난 고거뿐이다.

[동래구 설화 51]

도깨비로 변하는 빛자루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엄마가, 옛날에 촌에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

“아들아”

우리 클 적에.

“너거 그 정지(부엌) 불 땀 적에 정지 빛자리 그 깔고 앉지 마래이.”

정지빛자리, 정지빛자리. [조사자: 정지빛자리.]

“정지빛자리 깔고 앉지 마라.”

이래. 해남은 저게 인제 우리가 옛날에 처녀적에는 다 뿔이 있다 아이가? 그래 그 그기, 그거로 묻으면은 도깨비가 된대요. 응, 그런 말이 있드라. 그기가 인자 날이 총총하고 이라 면은 그게 인자 도깨비 돼가지고 인자 땡기는 기라. 그렇다고. 난중에 누가 그거로 막 하믄, 도깨비가 하도 땡기사서 뿔인가 싶어서, 그걸 잡을라고 애를 써가지고 난중에 그래 잡아가 보이까네 빛자리 몽디더라.

[동래구 설화 52]

준 돈을 다시 뺏는 도깨비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도깨비 그리 홀리가지고. 도깨비는 오나이(おに, 일본의 도깨비) 도깨비는 신사다, 신사. 옛날에 날이 충충하고 이라문. 우리 옛날에 저저저 어릴 적에 할매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 쪼깨날(조그만 할) 적에 들어서 나는 밑도 끝도 모르고 인자 기억만 하는 거라. 기억만 하는데. 도깨비는 아주 신삽니다. 이래 가방 들고, 나카오리모자(중절모) 턱 씨고(쓰고). 이래 가지고 땡기는데. 나는 어릴 적에 한 번 봤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런 큰 널따란 그 거렁이(개울이) 있는데. 거렁에서 뿔이 그 넓은 거렁어를 펄떡 뛰넘더라고. 그래,

“엄마, 이만저만한 그런 신사가 저 거렁을 넘던데, 저거는 뭐가 저래 크기에 그 거렁을, 그 너른 걸 건너지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게 또깨비다.”

이러는 기라.

그래 또깨비는 인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나, 오가(와서) 뭐 갖다 주고, 돈을 또 갖다 주고. 돈을 갖다줬다 하면은 그 돈을 다시 뺏들어 가야 되는 기라.

그래서 또깨비가 주는 돈은 뭐로 하노 카몬. 땅을 사야 돼. 논이나 밭이나. 그래 사마(사면) 그기 언제든지 다부(다시) 뺏들어가거든 도깨비는. 그래가 그 돈을 마이 줘요, 마이 줘는데. 그래가 누가 하나 논을 사봤지만은. 밤새-도록 와가지고 파더란다 그거로. 암만(아무리) 파도 암만 파도 띠지나 그 논이 떨어지나?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떡 날이 새가 가보이까네, 며칠 파다가 안 되이께네, 마 자갈로 인자 성성직인다고(성질부린다고). 돌로 갖다가 마 논에다 마 들이부아놨더라 카대. 그래,

“또깨비가 주는 돈은(돈은) 그래 야들아 땅을 사라.”

이라더라고.

“다른 거는 하면 뺏긴다. 다부(다시) 언제든지 뺏들러 온다.”

이런 그기 있더라. 안 되는 기라. 못 가져간다고. 그래 땅을 사는 거는 못 뺏들어간다.

[동래구 설화 53]

백말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또깨비가 무서워하는 거는 인자 옛날에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부잣집에 딸로 키우는데. 그 인자 말이 있잖아? 옛날에 ‘연당 안에서도 연애를 한단다.’ 이런 말이 있거덩.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하노 카이까네, 그 또깨비뿌이 문 들어가는 기라. 인자 담을 넘고 뭐 이래가 넘어 들어 가는데. 그래 연당 안에 인자 별당 안에 이래 처이를 키우는데, 참 아주 좋은 남자를 이래 알아 가지고 그래서러 보니까, 난중에 어른들이 보이까네, 거기 또깨빈 기라.

“그래 니 안 된다. 절대 그거는 또깨비다.”

인자 이래가지고,

“그걸 떠야 된다.”

이래. 그래가지고 인자 하루는 어데 갔어. 어데를 갔노 카면은 인제 큰- 지금은 이래 과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리 추운 겨울에 눈캥 있는데 거게 천도복숭이 있나? 없지. 그래 처이가,

“뭣이 묵고 싶노?”

인자 신랑, 총각이 그러(그렇게) 카니까.

“나는 천도복숭이 먹고 싶다.”

이래. 그래 그 또깨비가 천도복숭 구하러 가이까네. 거기 있어야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마 있다가 이래 오이까(오니), 그래 어디 가서 구했는지 그 구해가 왔는 기라. 구해가 왔는데, 이 집에서는 그거 또깨비를 떠야 되니까 백말, 그거 흰 말 그 피가 좋다 카는 그거로 인자 백말로 잡아가지고 온- 담에다가 이래 인자 걸치 놓으이까네, 또깨비 드갈 수가 있나.

“그래 나는 니를 그마이(그만큼) 사랑해가, 좋아가 이래갓다가 몇 며칠을 이래가 왔디만 니는 날로 이래 났나?”

카니, 그래 그 담 넘에서 그 떠지(던져)주고 가더란다. [조사자: 아이구 세상에.] 그래 툭 떠 지주고 가더란다.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동래구 설화 54]

아이를 잡아가는 호랑이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호랑이가 옛날에는 아들로 이래, 그거로 뭐라 카더노 옛날에는? 호석. [조사자: 호석.] 호석

한다 카더나? [조사자: 아 잡아가는 거 있지예.]

나는 옛날에 잼혀갈 줄 알았다. 뻔 했다. 옛날에 촌에 이래이래 문 뭉 이래 잡아땡기면 문 아이가? 근데 여름이 다 됐는데, 그래 나는 젤 끄티(끝에) 여 잤는데. 이래 '꼰끄등, 꼰끄등.' 이래 잡아땡기더라고. [조사자: 호랑이가요?] 호랑이지. 그래도 무섭은 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 가지고 마 이래 잡아땡기네. 나는 그냥 파고 들어가 살았지.

[동래구 설화 55]

사람 잡아먹는 매구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애릴 적에 들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이라 카든강 며느리라 카든당 뭉이 있었는데, 며늘이라 했다든강. 그래가지고 뭉 자고나마 사람이 하나씩 없어지고 없어지고 글트라(그렇더라) 카대.

그래서 하리는(하루는) 오빠라 카든강 누가 고 잠을 안자고 딱- 살피고 봤다 카대. 보이까네 자기 여동생이라 카든강 자기 마누래라 카든강, 그래가지고 마누래라 췌지 아마.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보니까, 하리 저녁에 가마아(가마히) 앉아 보니까. 그래 밤중 땡께 나가더라 카대. 나가디만, 밖에 나가디만 하얀 옷을 갈아입고 그래 다 그거 하고.

다 잡아묵고 식구가 있나요? 식구가 없으니까 인자 소가 남아서 소막에 들어간다 아이가. 그래 소막에 드가가지고 소로 잡고 간을 빼가 묵더라 카대. 그 사람으는 간만 빼가 묵는 기라. 여우는 간만 빼가 묵는데 그래가지고 난중에 보고 또 가마있은께네, 메에(묘에) 가서, 메도 다 파더라는데, 메도 파고 념의(남의) 메도 파가꼬, 그래가지고 구신 인제 영장 그거 간도 빼 먹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썩대밭이 돼가 그래 망했다.' 카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조사자 : 그 여시는, 그 매구는 못 잡았는가예?] 그러지. 그래가 결국은 인자 그 사람은 잡았지. 잡아가지고 인자 그 사람을 없앴지. 없앤께네, 때리(때려)잡고 나이께네 사람이 아이고 역시(여우) 더란다.

[동래구 설화 5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그래 옛날에는 칠십만 되면 고래장 했다아이가. 고래장 한다고,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 얘기로 해했는데. 그래 하도하도 인자 거의 칠십 돼가 매고 올라가니까, 대가 내려가이까네, 인자 자꾸 자꾸 그래 매고 가니까, 그래 인자 자기 아들이 인자 아버지를 올라가, 지고 올라가다가 가는 데마정(곳마다) 이래 솔가지로 하나씩 찌가 이래 버리더라 카대. 그래,

“니가 와 이래 버리노?”

칼 적에 인자 너무 질로(길로) 가니까네, 가니까 그 내려올 적에 질(길) 잇아빨까 싶어서 그 사람이 그래 인자 그 질로 그카는 기라.

“질로(길을) 말라(뺏하러) 알라 카노?”

카니까,

“나도 다음에 인자 아버지가 그거 하면, 늙으면은 늙으면은 이래 갖다 버릴라고 그래 토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임금이 알아가지고 그거로 없앴다 카든강, 고래장을 없앴다 카든, 뺏이라 캐샀더라.

[동래구 설화 57]

명당자리를 스스로 찾았던 아버지

손효득(여, 1930년생) 구술
2017년 2월 15일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손님 오는 집이. [조사자: 마 쫄딱 망했다 하대예.] 사람이 오다가, 하도 사람이 와사이까네 (오니까), 구찮아(귀찮아) 놓이까네. 그래 그 사람 없앨라 그래 했다 카대. 그래 해서 했디만 그래 마 집구석이 망하더라 카대. 그래 사람이 마이(많이) 드나들어야만은 집이 되는 기라.

그래 옛날에 그 어떤 그 이우지(이웃), 옛날에는 촌꼴짜기 여 살면은 집이 저게 하나 있고 여게 하나 있고 이렇지. 따객따객 이래 붙어 여기 지금맨키(지금처럼) 이래 안 살았잖아요? 그래노이까네 뭐 전깃불이 있나, 호롱불 켜놓고 사는데. 그래 저저 뭐 뭐라 카더노? 뭐 할라 카더노?

그래 사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참 몬 사는 기라. 너무너무 가난하게, 옛날에 잘 사는 사람 굉장히 애럽거든. 몬 살아 가지고 그래,

“내가 어서 죽어야 너거가 잘 살킨데.”

이래 캐샀더라. 그래서,

“아버지, 별말씀 다 한다.”

꼬 아들이 뭐라 카는 기라. 그래 하리는(하루는) 몸이 아파가 돌아가실 때가 딱 됐는데, 그래,
“아들아, 아무 절에도(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니만 딱 알고.”

아들 절에 맹세를 했는 기라.

“뒤에 저게 못이, 커다란 못이 물이 시퍼런 게, 그계갓다가(그곳에다) 날로 물어라. 명산이,
내가 명산이 그계다. 내가 죽으면 그따(그곳에) 물어다오.”

카이, 대답은 해놓고나이 저 시퍼런 못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묻노 싶어서.

“그래하문은 너거가 묵고 살고, 내 죽으면은 괜참을 끼다.”

인자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밤새도록 생각하이까네. 그 이튿날 가보이 물은 시퍼러이
있고. 인자 내일이면 영 인자 거 갖다 물어야 되는데, 밤중에 가이까네 물이 몰랐있더라요
(말랐더라요). 물이 짝- 없어졌더라.

그래서 인자 부랴부랴 가가지고 파고, 근데 거따가(그곳에다) 묻었는 기라. 그래 묻고는, 묻
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삼오를(삼우제를) 지내고 딱 가보이께네 물이 새-파라이. 그래 참 차츰
차츰 있으니까네 때부자가 되더라. 때부자가 돼.

그 말을 언제나 인자 ‘자숙들 그래 죽을때까지 그 말을 하지마라.’ [조사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탁을 했는 기라. 부탁을 해. 참 뭐 사다가 뭐 몇 십 년 지내고 나이 사다가 부자가
되니까, 그 말이 어디서 튀나왔는 기라. 인제 그래가지고 그래 넘우 자개(자기) 명상자리로
(명당자리를) 자개가 찾아갔고 할배는. 근데 그 넘게(넘어) 할배는 명상자리도 몬 보는 사람인
기라. 근데 그 뿐을 보고 인자 그 강이 있는 데 갖다 물어놓이 그 사람은 망하고 그렇더라요.
그래 그기 전설택이지. 뭐뭐 그런 기 있겠나?

[동래구 설화 58]

쇠미로의 유래

홍성배(여,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쇠미경로당]

[조사자: 근데 왜 여기 마을을, 쇠미로라 불렀는가예?] [청중: 이 동네가, 여기가.] 물구디기
(물웅덩이)거든. 예. 지금도 물구디기라요. 예. 지금도 여기서 저까지 내려가몬, 지금은 겨울
이라서 그러는데 인자 여름 되면은 전부 다, 대게 보면은 방안애가 물이 처벅처벅하이 방바닥
이 그렇다 캐 [조사자: 그래서 쇠미로구나. 물이 많다고.]

아 그런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인자 그 할 때 우리 여계가 물구더기라, 물구더기.

[동래구 설화 59]

금도끼 은도끼

홍성배(여,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쇠미경로당]

도끼를 빠췌는데(빠뜨렸는데) 나무꾼이. 도끼를(도끼를) 빠췌는데 그 도끼를 갖다가 그 도끼가 없으니 나무를 못 하잖아? 그래 마 울고 있으니까, 그래 저 뭐야 산신령이 와갖고,

“그래, 왜 그리 우느냐?”

물을 때, 그래 카이 그 나무꾼이,

“내 도끼를 빠져서 그렇다.”

그래까네 내 도끼를 빠져서 그렇다. 그 산신령이 그 들어가가 도끼를 하나 주워왔어. 받아 왔는데 보이까네,

“이게 니 꺼냐?”

물을 때,

“그게 내 꺼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 꺼 아이라고 그래고. 그래가 또 들어가갖고 또 그리 해가 보이니까네,

“이게 그럼 니 꺼냐?”

하이까네.

“아이라(아니다).”

그래가 세 번째 들어가가 좇은 거 그거는 내 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네 우리가 인생이 사는, 그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인생이 살면서 아 욕심이 없어. 내 꺼를 챙겨야지 녀의 것도 좋다고, 금과 은을 주도 아이고, 그 저저 뭐야? 새도끼(쇠도끼)가 내 꺼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금도끼 은도끼는 내놓고, 새(쇠)도끼 지 꺼를 잡아다 가더라. 그래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로 내가 한 번 들었어.

[동래구 설화 60]

영동할매에게 바람 올린 이야기

홍성배(여,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쇠미경로당]

부엌에다가, 부엌 옆에다가 찰밥 해놓고 나물 해놓고, 거기다가 대를 하나 세와놓고, 그 대에다가 무엇을 부치냐며는 빨간 색깔에 노란, 파랑, 마 주홍. 이렇게 해갖고 마 형겘을 잔뜩 붙이는 거야. [청중: 그것도 점쟁이 집 아이가?] [조사자: 아니 다 그래 붙입니다. 소지 장에도 붙이고.] 아니 아니 다 그래 했어. 그래 이리이리 붙이갖고 거기서 인자 이월할마씨 올라가고 그래하니까 와 저 우리 창호지 있잖아? [조사자: 예예. 소지 올리고.]

창호지 그다가 인자 불을 붙여가 막- 이름 불러가미 막- 이래 하더라고, [청중: 소지 올린다고.] 그래 하고 나니까 그거를, 그 쪼가리를 우리를 주면서 [조사자: 바느질 하라고 그러지 예.] 응. 이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을 잘한다. 바느질로 잘하니까 요걸로 해라. 또 뭐냐면 이 달밤에, 달밤에 나가갖고 바늘로 꿰잖아? 그 달밤에 그 바늘로 꿰이갖고 그거를 갖고 그거를 꾸매면 바느질로 잘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조사자: 그래 그 종이로 글 쓰면 또 글도 잘 쓴다고.] 그래 그렇다 카더라고. 그래 우리 어릴 때는 뭐 좀 커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릴 때 우리 언니 보이까네, 우리 언니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 그래 하면서 그래,

“야, 니 이거 가져가갖고 그 해가 저녁에, 달밤에 그 바늘 꿰가 그거를 갖고 뭐 좀 꾸매봐라.”

그래샀더라고. 그 진짜 그랜가 찢으면할 때 그거로 갖다가 꾸매보기도(꿰매보기도) 하고 그랬어. [청중: 우린 또 그런 거는 모른다.] 우리 여여 경상도는 그리 하더라고. [청중: 그래 하더라 그래 하대.] [조사자: 요새는 바람 안 올리시예?] 요새는 모르겠어예. [청중: 요새도 하는 사람은 하겠지.]

[동래구 설화 61]

정월 대보름날 금줄 치는 우물

홍성배(여,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쇠미경로당]

보름날을 위해서 그러니까네 인자 그러니까네 정월 한 초열흘이 되니까, 그 인자 우물이 요새는 수도가 있고 다 그리 있지만은 옛날에는 동네 물가가 있었잖아? 그 우리 언지 그 보면은 옷샘이 있고 아랫샘이 있고 샘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샘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여튼 닷새 그러니까 닷새 안으로 그거를 해도, 닷새 그러니까

열흘 안으로 물을 길어다 묵고, 열흘만 넘으면 그걸 대나무로 이렇게 그걸로 해갓고 전부 다 [조사자: 금줄로 치네예] 예. 금줄로 쳐갓고 물 못 먹게 해.

그런데 인자 거기서 제사 지낼 사람이, 동네에서 제일 인자 뭐 그러이까네 착하고 마 더럽은 (더러운) 짓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인자 나이 많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구로 인자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보름날까지는 절대 넘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도 못 하게 하고, 그 하도 안 하고. 그러이까네 정월 대보름날 그러이까네 제일 먼저 가갓고 그 샘이에 가갓고 물로 퍼고. 그래 그날 제일 먼저 가면은, 거다가 뭐 제사 지낸 기 있고 뭐.

[조사자: 용알뜨기 하는 거, 용알뜨기.] 먼저 그 뭐 갓다 먹는 사람이 뭐 뭐 복을 받고 뭐 그라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는 안 해봤는데, 그냥 물 이리 금구를 치놓고 그 물 못 뜨러 가라 해갓고, 그러이까네 그 그거는 알아. 알고 뭐냐면은 보름 딱 되니까 인자 그거를 다 열어 주더라고. 그라고 그 사람도 말하고 그래가.

[청중: 말도 문 하고, 문 들어가라니까는.] 그래. [청중: 부정탄다고.] 그러이까네 그러이까네 [조사자: 그 그래. 제준가 보내네예? 제주.] 모르지. 하튼 그런 기기 어릴 때는 기기. [조사자: 그 사람들 화장실 갔다 와도 목욕재계 해야 됩니더. 옷 갈아입고.] 어 그래여?

[조사자: 예 그래갓고 그 대변 보면 목욕재계를 해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싶다대예. 목으면 화장실만 들어 갔다 오면, 소변만 누면 머리 감아야 되고. 대변까지 누면 옷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 그런 기. [조사자: 여름옷까지 다 나온다 아입니까.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다고.] 몰라, 옷 나오는 거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갓고 우리 저기 뭐야 [청중: 그만큼 정성을 다한다.]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같애. [조사자 웃음]

[동래구 설화 62]

금줄을 타고 온 구렁이를 죽여 부정 탄 아이

홍성배(여,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쇠미경로당]

우리 그 충청도는, 그 우리 이우지에(이웃에) 딸을 하나 놓고, 우리 바로 옆에집인데, 딸을 하나 놓고 인자 아들 놓을라고 공을, 공을 들이갓고 인자 아들로 인자 낳았는데, 예수재이들이 금줄 안 띠지마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와 금줄 띠잖아(치잖아)? [청중: 그래 친다.] 금줄을 띠는데 이 금줄로 타고 구렁이가 그 아마 집 찌끄미든가(지킴이든가) 봐. [청중: 그래.] 이 이렇게 그 금줄로 따고 인자 아들로 낳았으께 얼마나 좋을 꺼여? 그래 좋아 죽겼는데

금줄로 타고 이래 그로 왔는 기라. 오이까네 그 아저씨가 거 뱀이로 잡아갖고 죽이뵈는 기라. [청중: 아, 그래 안 좋다.] 죽이고 나이까네 아들이 항상 그 뱀 짓을 하대요. [청중: 응. 그래 안 좋았다.]

그러이까네 이 뱀짓을 하대요. 이 살이 마 뱀처럼 더덜더덜더덜하고. 이렇게 비가 올라카몬 똑- 뱀 행새를 해 눈도 보이께 똑 뱀갈애. 애가. [조사자: 허도 내밀고 다니고.] 예. 그래 하 더라고 그래 뱀갈고 그러니까. 그런데 비가 올라카몬 카 막- 막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 라대예. [청중: 그 뱀이가 칠안에(삼칠일 안에) 그거 죽이면 안 된다.]

[조사자: 그래갖고 어째했습니까?] 예? 그 애 그냥 살고. 사는 거 보고 부산에 왔는데 모르지 인자. [청중: 칠 안에 그거 죽이면 안 된다.] [조사자: 칠일 안에 그라몬 안 된다대예.] [청중: 칠일 안에 그라몬 안 된다.] 그라이까네 뭐뭐 하이튼 아들 나가(날아) 너무 좋았는데 그래 갖고 그래니까 아를 병신으로 만들어 놔. [조사자: 그 왜 죽였던고? 그냥 마 놔두지.] 그래 놔둘라 카는데 그것도 그래 될라 카이 그래겠지.

[동래구 설화 6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필남(여, 1937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우리가 또 듣기로는, 그래 인자 부모가 인자 그래갖고 고려장 시기러 가는데 지계를 지고 갔다 카대, 옛날에. 지계를 지고 갔는데, 지계 인자 내려놓고 인자 돌아서매 지계로 갔다가 오다가 내빼렀다 하더냐? [청중: 그래 내빼리고.] 버리고 온께, 그래 아까 아(아이) 그기 따라 갔다 안 하던가베.

아가 따라갔는데, 그래,

“아부지, 와 지계를 버리고 가냐고?”

컨께네,

“그래 인자는(이제는) 지계가 필요 없어서 그래 간다.”

칸께,

“그라몬 갖고 가자.”

카더라 카네.

“와 가가노?”

물은게네, 그래 그 아가,

“나도 뒤에 아부지 갖다 버리야 될 거 아이가.”

그래갖고 [청중: 그 소리 나고 고래장 없어졌다.] 그 지게로 갖다가, 그래 댘는가.

[동래구 설화 64]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던 경주 석굴암

김필남(여, 1937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불국사 석굴암에 그래. [조사자: 어쨌는교?] 스님 한 키(한 사람) 오몬 한 사람 끼(것) 나오고, 한 사람 끼 나오고 고랬는데, 쌀이. 인자 그역 때고 인제 손님 오면 돌이던 두 뭇이나 썸이고 요랬는데.

욕심 많은 시님이(스님이) 돌아가(들어와서) 마 그래 콧 썸뻤어. 그래가 거기 좀 마 이래 없어졌다 카든가. [조사자: 없어졌뿌고 물이 나오는강?] 물이 나왔다 카든강 하여튼 그런 기 있대예. 하이튼 경주 석굴암, 예. 거서 그랬다.

[동래구 설화 65]

무조건 존댓말 하는 며느리

손운선(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시집 가면 야야, 다 존대를 해야 된다. 아나(아이나) 어른이나 다 저 저기 뵈이거나 다 존대를 해야 된다.”

이랬거든. 그래 캬는데, 시집을 가이께네, 그 인자 송아지가 꺼시기로(거적을) 씨고 마당에서 훌쩍훌쩍 뛰샀거든. 뛰이께네 개가 따라댕기, 따라가면서 멍멍 짖었거든. 그랬는데 그래, 문을 열어보 보이께네,

“아버님.”

이래 불러.

“왜?”

이카이께네, 그래,

“송지씨가 꺼시씨를 씨시고 풀쩍풀쩍 뛰십니다. 개씨가 따라 노을목을 지이십니다.”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6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손운선(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그 얘기는 어예 됐냐 하면은, 저 저게 인자 자기 남편은 과거 보러 갔는 기라. 과거 보러 갔는데, 눈은 어둡고 지렁이를 갖다가 또 잡아갖고, 그 지렁이 거를 무니께(먹으니까) 맛이 참 있었던 모양이라. 맛이 있어가지고 지렁이를 묵고 난 뒤에 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리 밑에다 넣어(넣어) 났어.

영여 났는데 자기 남편이 갔다 오가지고, 그래 저저 그거를 갖다가 봉사니까, 봉사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가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남편을 주이께네,

“이기 뭐꼬?”

카이께네,

“그래 이거를 묵고 그래 우리 가족이 참 좋았다.”

캐.

“아이고 지렁이네.”

카이 껌쩍 놀래가지고 눈을 버떡(번쩍) 떠뵈다(떴다) 카대.

[동래구 설화 67]

온 방에 사위 좇이다

손운선(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또 가난한 집에, 여하튼 처갓집에 왔는데, 마 저저게 처남 마 처지(처제) 장인 장모 마 한 방에 이래 자는데, 그래 한 방을 자는데, 그래 처갓집에 온다고 오이끼네 마니래(마누라) 생

각이 나가지고, 보이끼네 마누래가 저 저저게 안쪽에 자고 있어. 안쪽에 자고 있는데, 그래 인제 이놈 또 저 사위라는 놈이, ‘이놈의거 가기는 가야 될긴데 이거는 벗고 가야 되겠나? 그냥 가야 되겠나?’ 싫어가. 그래 ‘암만 벗어놓고 가야 잘 가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가고 그래 옷을 다 벗어 놔놓고 하나하나 넘어갔는 기라.

넘어가는데 해필 연장이 장인영감 저저게 입에 시쳤뿔어(스쳐버렸어). [일동 웃음] 입에 시쳤뿔는데, 그래 저놈의는, 인제 저 사위는 인제 가가지고 저저게 가서 일로 봤는 기라.

보고 또 안자 이 또 장인영감 이거는 말은 몬 하고, ‘저놈 저기 또 하고 나몬 또 지나가만 시치겠다’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쪽 옆에 가서 벽에 딱 지대고(기대고) 앉아있었어. 앉아 있는데, 고마 이 사위놈은 또 가다 가다 감각이 좀 이상했는데 싫어가지고 일로 치고 인자 살살 이리 요래 옆으로 오는 기라. 벽을 인자 그래 해서 오는 기라. 오는데, 이 장인영감은 피해서 요 앉아갖고 이 사위는 이것도 [조사자: 돌아서 온다꼬.] 돌아서 안자 돌아서 오는데, 오다가 보이 또 시쳤뿔어. [일동 웃음] 또 시쳤뿔이끼네 마 장인놈이, 장인영감이 마, 마 성이 뿔따구 나가지고 식구대로 다 깨움시로(깨우면서),

“온 방에 사위 좃이다.”

이리이까 다 일어나더란다.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68]

병어리와 봉사 부부의 대화

손운선(여, 1941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버버리하고 봉사하고 그래 살았는 기라. 살았는데 그래 저 안에 동네에 저저게 불이 났다 켜어. 불이 났다 켜는데, 이기 저쪽에 그래도 말은 몬하니끼네, 말은 이게 저, 말은 몬해도 눈을 볼 수가 있으이끼네, 그래 여자는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이 남자는 저저게 몬하이끼네, 그래 그래.

“그래 어느 집에 불이 났더노? 어 불이 났더노?”

카이끼네, 저 복숭이집에 저게 불이 났더라고 저저 복숭씨를 이래 실실 만짚다 캐.

“그래 불이 났으면은 불이 얼마나 탔더노? 얼마나 탔더노?”

카이끼노, 남편 저저게 기동을 이래 이래 만지이끼네,

“아, 기동만 남았어.” [일동 웃음]

[조사자: 다 타고 기동만 남았어.] 기동만 남았어. 아, 내 다 잊어뻘다. [조사자: 그래 맞아

그런 이야기라.] 다 잊아뺐어.

[동래구 설화 6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분갑(여, 1930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아바이 죽어서 매고 지게 지고 간께네, 가서 뒀을 썼거든. 썩께네 손자가 지게를 다부 지고,
“아부지, 이거 다부 지고 갑시다. 지게.”
“야 이놈아 냅뚜라. 그건 말라꼬.”
헌께,
“후제(후에) 아부지도 내개 지게 저다 이래 내빼리지.”
커더란다.

[동래구 설화 70]

모심는 소리로 부르는 첩 노래의 이야기

조분갑(여, 1930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다가 물꼬 철철 혈어 놓고 주인 한량 오데 갔소?”
“등 넘에다가(등 너머에다) 첩을 두고 첩의 집에 가고 없소.”
“무슨 첩이 그래 대단해서 낮에 가고 밤에 가노?”
“낮으로는 놀러 가고 밤으로는 자러 가고.”
그래 그래서 고마 본처가 그만 창칼을 품에 품고 첩의 집에 가는 기라요. 이등 저등 삼제
등을 넘어서 첩의 집에 간께네 샅쪽에 썩 들어선게 첩의년이 딱 나서디 하는 말이,
“어서 오소 배피(빨리) 오소. 큰어무니 어서 오소. 마루 끝에 올라서소.”
마루 끝에 올라강게네, 첩이 연다리비 불 뜨고 가족설대 내놓으매,
“앉으세요. 앉으세요. 담배 한 대 큰어무니 태아시오(태우시오).”

그카거덩.

“요 내 눈에 조만한데 우리 님의 눈에 오죽해.”

카면서 다부 가던 질 돌아왔어, 큰어마이는.

[동래구 설화 7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문칠네 복 이야기]

조분갑(여, 1930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문칠네복이라. 본남편한테 살아본께네 참 쟁피만(강피만) 훑어야 되지 아무 것도 없거던. 그래 따라 영감은 어데, 신랑을 얻어서 갔어.

가서 인자 또 거(그곳에) 가(가서) 쟁피로 훑는 기라. 훑은께 남자가 지내치다가,

“저 날 마다고(마다 하고) 가디마는 저 분은 간 데 쪽쪽 쟁피 훑네.”

간단한데. 그게 복이 없다. [조사자: 복이 거기 그거밖에 없다.] 복이 까잡이라(그뿐이라) 그 소리라. 그래 문칠네복이라 거기(그것이).

[동래구 설화 72]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차삼연(여, 1933년 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야기는(이야기는) 지리이를(지령이를) 아들이 온께,

“아이고 야야, 며느리 똥이 저 해주는 기 맛있더라 니 함(한 번) 무볼래(먹어볼래).”

카며 지리이로 자기 구들막에 떡 하나 여냈다가, 아들 오이 그걸 척 내놔께, 어마이 눈을 퍼떡 뜬다 안 카대요?

“엄마 그거 지령이요.”

함께, 그 어마이 눈을 퍼떡 뜨더래요. 그래 호자(효자) 됐다 안 카대요.

[동래구 설화 73]

콩과 쑥을 먹고 잘 지낸 시아버지

강일필(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임진왜란 때가 그때 전쟁 때, 전쟁이 들어와놓으니까 피난을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혼자 살았는데 못 모시고 가가지고 콩을 한 가마니 놔두고 왔대요. 그래 몇 달 있다가 다부 집에 오니까 마 얼굴이가 뿌에 살이 찌가지고 그래 얼굴이 그래 건강하고 좋더라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에 어째 살았느냐고?”

물으니까네, 쑥을 캐가지고 쑥하고 콩하고 삶아가 내 그거를 묵으니까네 건강에 좋더라입니다. [조사자: 오오 콩을 놔두니까 쑥하고 콩하고.] 예. 콩하고 쑥하고 계속 그거를 묵고 살았어요.

[동래구 설화 74]

자기 새끼 이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강일필(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그 저 뭐 나물을 캐러 가가지고 호랑이 새끼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쁘다’고 만지고 막 안고 그래 싸니까네, 그래 싸터라니까네, 저 방구 위에서 호랑이가 딱 널다보고 ‘어흥!’ 이러니 놀래가지고 나물 캐던 거 보따리, 보따리 내놓고 다 도망을 가뻘어.

그래 집에가 자고 일어나니까네, 아침에 일어나니까네, 보따리 보따리 집 집 딱 자기 꺼 다 갖다 났더라 카대.

[동래구 설화 7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형숙(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인자 저 서울 가가지고 인자 그 공부를 해가 시험을 쳐가지고, 인자 그 그거 되는데 과거를 보러 가는데, 과거를 보러 가가지고 인자 시험을 쳤는데, 인자 그 임금님이 하는 소리가, 인자 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로,

“이거를 아래 우예를 맞차가 오는 사람은 과거 급제를 한다.”

해가지고, 참 이 대감집에서로 엄마를 갖다가 밑에다가 토굴을 해놔놓고 있는데, 할매가 있는데, 손지가 그거를 하는데,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런 시험을 봤는데, 그기 그거를 맞차가 가야하는데, 그래 인자 할매한테 인자 밥을 가지고 가니까, 할매가 밥을 잡숫고 손지를 보고,

“그래 과거는 잘 봤나?”

이라니, 그래,

“과거를 보기는 봤는데, 이 막대기를 주면서로 이거를 아래를 우를 봐가 오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보겠노? 저게 알겠노?”

했는데,

“내가 알 수가 암만 봐도 알 수가 없다.”

하니까,

“그라면은 물로 한 다라이 떠가 온나.”

그래가 물로 한 다라이 떠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물에다가 띄우니까, 물에다가 띄우니까 밑에는 꼬랑뎡이 저게 뿌리 짝은 가라앉고 인자 꼭대기는 인자 이래 뜨더랍니다. 그래 놓으니까네 그래 인자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자 과거를 또 보러갔어예. 보러가니까 전부 다 몰라가지고 그거 하는데, 야는 그거를 알았는 기라. 알아놓으니까 과거 급제를 했는 거라예.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이,

“니 우째 그거를 알았노?”

물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칠십 살이 되면은 고래장을 시키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도 안 갈라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토굴로 마리 밑에 파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래 할머니한테 인사 하러 들어가니까 ‘니가 그래 그 시험을 잘 쳤나’ 캐서 ‘시험을 치기는 쳤는데 이거를 알아오라 하는데 알 수가 없다’고. 그래 물에다 담가보라 해서 담구니까 이쪽은 꼬랑뎡이고 이 뜨는 쪽은 꼭대기다. 아 그라면은 급제를 했는 기라요.”

그라고 그 할매는 인자 할매들은 인자 칠십 살 넘어 묵어도 인자 고래장을 안 시킨다. 이래가지고 인자 그래 인자 고래장을 안 시켰답니다.

[동래구 설화 7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형숙(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저게 시어마시 어서 죽으라고, 저게 뭐꼬 꺼시(지렁이), 꺼시 그거를 만날 국을 끓여가지고 주니까네, 이 할매가 어짜든지 그걸 묵으니까네 살이 찌고 건강하고 하니, 이 할매가 너무 건강해서로 이기 뺏기고 싶어가지고 그래 국에서로 한 마리씩 빼가 여 밑에 넣었거든예. 자리 밑에 넣었는데, 그거를 넣어놓고, 아들이 소금장수 해가 한 일 년 있다가 오니까 엄마가 어찌 건강하고 좋은지, 그래 엄마를,

“어째 엄마가 이래 건강하십니까?”

하니까네,

“아이고, 메느리가 날로 건강한 거를 국을 만날 끓여주고, 내가 잘 묵고 이래가지고 이래 건강하다.”

카니까네, 그래,

“그 비결이 뭣이냐?”

하니까네,

“내가 그 비결을 안다.”

카면서로 그 자리 밑에서로 그 꺼시, 그거로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를 아들한테 이래 비주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로,

“아이고! 이 어째 이런 거로 엄마를 해줬노.”

하면서로 아들이 막 신경질 부리더라 카대.

[동래구 설화 77]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김형숙(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그래 인자 뭐꼬 큰 집을 하나 지가지고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이거를 딱 걸어놓고 오면은, 걸어놓고 오면은 쌀을 한 가마니 준다.”

이러니까네, 이 친구들이 한 여난(여덟 일곱) 명 모아가지고,

“누가 갈래?”

카니까네, 그래 한 사람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내 우리 집도 못사는데 내 그 가가지고 이거를 걸어놓고 오꾸마. 저 붙여놓고 오꾸마.”

해가, 그래가 인자 친구들은 다 집애가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암만 친구들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로 가니까, 환한데 여기다가 저 뭐고 명지(명주), 명지, 명주 짠 그거를 갖다가 여자가 딱 걸어놔놓고 거 목을 매 죽을라 카거든. 그러니까네 이 남자가,

“아이고, 저 사람은 목을 매 죽으면 안 된다.”

고 가가지고 탁 풀어줬대요. 풀어주니까네 이 여자가,

“나를 갖다가 살려줬으니까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참 부잔데, 우리 아버지도 부잔데, 그래 가자.”

해서로 그래 따라갔대요. 따라 가니까, 인자 저게 큰 채 있고 작은 채 있고, 그래 인자 딱 가가지고 신랑 각시 이래가 있는데, 그래 아버지가, 저기 장인어른이,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면은 니는 인자 크게 된다고. 인자 공부를 해라.”

카니, 그래가지고 인자 말로 태아주면서로,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가다가 보니까네 막 친구들이 아침이 날이 새도 친구가 안 오거든요. 딱 가니까 찾아가니까 빗자리 몽디로 타고 앉아가지고 막 가자고 때리고 막 말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인자 토깨빈가 뭔가 훌리가지고. 그래 요요 저 뭐고 절 넘어가는 길에 큰 집이 있었다 카대. 회관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기는 인자 사람들이 못 가고 하는 덴데, 그래 이 사람이 가서는 이걸 붙이고 오면은 돈을 만, 쌀을 한가마니 준다 하니 그래 가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 인자 여자가, 여자가 인자 빗자리 질을 하다가 정지에 불로 땀 때, 뭐가 이래 있어 몸에 뭐가 있는 기 그 빗자리 몽디에 묻으면은 거기 토깨비가 된다 하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데고와가지고 치료를, 막 치료를 해도 그 인자 그 사람이 그 토깨비한테 훌리가지고 그게 되니 오래 못살더랍니다.

[동래구 설화 78]

가난도 모르고 글공부만 하는 사람

이맹숙(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학자 어른이 되노니까 만날 한문 공부만 하시고 한의원들. 소나기가 암만 와도 양식이

없어가 배가 고파서 가족들은 힘이 없어도, 그때 왜정시대라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래 공부하시는 어른들은 식량이 없어도 가족 어찌 되는 거 모르고 내 공부만 하시는 기라. 갱피, 갱피라고는 내 피 뽑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훔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거기(그것이) 다 떼내려가도 글귀신은 몰라. 내나 그런 이야깁니다.

[동래구 설화 7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맹숙(여, 1936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고 저 고개를 넘어가서, 넘어가시니까 거 가서 인자 할머니를 내려놓고, 마 고려장을 할 모양이지. 그러니까,
“거도 지게도 거 벗어놓고 왜 고마 할머니는 거 나두고 가시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들이 그럼 지가 인자 지게를 가져가면서,
“왜 니가 지게를 여 놔두라 캐도 가져가느냐?”
아빠가 물으니까,
“난주(나중에) 아버지도 저다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기라요.

[동래구 설화 80]

갱피 훔는 팔자의 부인

정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경상도에서 살다가, 그래 하도 하도 못해가 가뿌렸는데, 전라도로 가뿌렸는데, 그 선비가 말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전라도로 가니까네 마누라가 갱피를 훔고 있더라요. 그래가 참,
“이 마누라야. 경상도에서 갱피 훔더니 여 와서 갱피를 훔네.”
그카네. 그래 사연을 하더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 갱피 안 훔을라고 갔는데

거 가 또 못 살아가 갱피를 훑었어요. [조사자: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 말이지.] 네네.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 소리 내 들었습니다.

[동래구 설화 81]

쌀 나오는 구멍

정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쌀이 하도 또닥 또닥, 저 좀 많이 나오면 많이 푹 쑤셔가 밥을 많이 해 묵고. 내가 좀 더 디게 먹을 건데. 푹 그 분량만 또독또독 흐르니까, 애가 터지가 마 막대기를 가지고 마 쿡 쑤셔뿌렸어요. 쑤셔뿌니 마 물이 찰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전설은 나도 들었어요.

[동래구 설화 82]

삼일운동을 하는 사람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호랑이

정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삼일운동을 하는데, 밤만 되몬 저녁 일찍 약속꺼져(약속해서) 산에 가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일본놈이 잡으러 와서서. 그래 탁 나가 한 분 가고, '내가 왜 이럴고?', 한 분 가고 두 분 가이, 강을 건너가는데, 촌에는 시골에 갱변이(강변에) 안 있습니까, 물이.

탁 가이 턱 호랑이가 오도록 기다리는 기라. 할무이 오도록. 할무이도 애이지(아니지). 그때는 아이지. 막내이(막내) 아들 업고. 그래가 떡 가몬 호랑이가 커다란 게 불을 켜가 앞에 서가 길을 비추주는 기라요.

길을 비추주몬, 저 산골이라 카는데, 저 영천 보현산 천문대 있지요, 그쪽인데, 거기 가가 천문대 밑에 골에 가몬 탁 마, 확 없어짚비는 기라. 저녁만 되몬 문, 싸랍문, 그 싸랍이거든요, 옛날 대문이 아이고. 싸랍에 와가 턱 앉아 나가도록 앉아있는 기라요. 그래 인자 그 할매는 애기를 업고, 업고 나가몬 마 불을 비추 철렁 철렁 철렁 쿠이, 마 물 없는 데로 마 그래가, 인도를 해주고 그래. 그래가지고 삼일운동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 그 할배가 예.

[조사자: 그 저 호랑이가 그래 길을 이래 안내해 주는 거는 효성이 지극해야 안내해주는 데.] 예, 예. 호랑이가 벌을(불을) 비차 척척척 가고 그 뒤에 애기를 업고 따라가. 그래 멧 일 하이 나가몬, 없이몬 역수로 기다려지더랍니다. 그 애길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듣고.

[동래구 설화 83]

호랑이 새끼를 주웠다 돌려준 사람

정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물이 마이(많이) 이래 내려가는데, 버들강아지가 쪽- 피가(피어서) 있대요. 그래 버들강아지 사이에 그 인자 썩이 요래 나풀나풀 하이 있더라. 그거 뜯으러 인자 이래 걷어가 드가이, [두 손으로 크기만큼 모양을 그리며] 요거마이 하나? 호랑이 새끼가 큰물에 떠내리 와가요, 그 버들나무 쪽지에 떡 얹드려, 열매나 예쁘던지요. 그거로 마 썩도 안 뜯고 마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버리뿌고 그거만 안고 마 집에 뛰(뛰어)왔거든요 내가. 뛰와가, [청중: 큰일날 뻔 당했다.] 아, 뛰와가, 말 들어보소. 뛰와가 안자.

“엄마, 고양이 새끼 잡아왔다.”

우리 어머니본테(어머니에게) 이러 카이,

“아이고! 이놈의 손아 오늘 저녁 잠 다 잤다. 이거 호랑이 새끼다. 큰일났다.”

이카는 기라. 나는 그러이 그카기나 말기나 짚을 맨 봉태기(봉지) 안 있습니까, 짚 열은 인자 고다가 현웃을 깔아 딱 그러고 내 방에다 구직에다(구석에다) 딱 나뉘거든요. 나뉘디(놓아 두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데 갔다 오시더만,

“아이고! 큰일, 이놈의 손, 잠 못 잔다. 동네 잠 못 잔다. 빨리 저 내놔라.”

그래 짚 봉태기 께로 요래 내놓고. 하이고 열 시나 되이 마마 큰 호랑이가 문 앞에 와가 으르렁 울어재끼는데 봉태기 께로 편지뿌렸어요. 그래 마 탁 타고 갔부대요. [청중: 큰일난다 아인교 그래.] 아이고 역수로 이뿌디다. 요런 게 마마 참 예쁘대. 그 내가 꺾은(겪은) 일입니다.

[동래구 설화 84]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엄마 빨리 좋다 해라]

정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웃 참, 사랑을 문 해가 풀을 빼득하게, 하문(한 번에) 이불 다 덮는다 아입니까? 그래가 아이고 하고, 호불이불(흠이불) 덮어썩몬 영감 신랑이,
“좋으몬 좋다 캐라.”
“좋으나? 좋으나?”
카이, 아들이 저 자다가,
“엄마, 좋다 캐라. 우리 목 날라가겠다. 여어 실척거리가.” [일동 웃음]
[조사자: 삼베 천이.] 예 여 목에 대가 실렁거리가. 좋다고 그거는 사랑을 하는데, 애들이 ‘엄마, 좋으몬 좋다 캐라. 우리 목 날라 간다.’ 이카더라. [웃음]

[동래구 설화 8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이 고려장을 없어졌는 기, 이 얘기 내가 들은 거는, 고래장을, 어무이를, 고래장을 시켜가, 아들이 어똥기(어찌나) 효자든지 어무이를 고래장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는 마루 밑 에다가 방을 파가지고 어무이를 거 모시놓고, 법에서 인자 고래장을 보냈다 카고, 밤낮 주야로 엄마가, 저 저 아무도 눈 피해가지고 밥을 갖다 한 술씩 넣어주고, 그래 어무이를 그래 키었는데.

한날에 아들이 거 참 시내를 나강께, 옛날에는 방이라 카맨 요새 걸으몬 광고지에. 옛날엔 방이라 카대. 그에(그곳에) 대통령이 그 방문을 써냈는데, ‘새끼로, 짚으로 새끼 꼬고, 또 뭐 하나는 들어도 잇아뿌렸다. 뭐 거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몬 큰 상을 니룬다’고 대통령이 방을 써냈는 기라. [청중: 임금, 임금이겠지.] 그래 임금이. 그래 인자 붙이 났어. ‘이렇게 아는 사람을 있으몬 상을 큰 상을 니룬다’ 카이께, 이 아들이 ‘저거를 알만 좀 이 돈을 상을 받으면 쫘 잘 살킨데.’ 싶어서, 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걸 몬 깨우치는 기라예.

그래 저러가지고 어마이 밥을 이래 가지고 갖다 주맹 한께, 어머니가 본께, 아들이 얼굴이 걱정을 각(가득) 채있어(채여 있어). 그래 어머니가,

“머슨 걱정이 그래 니가 있노? 얼굴이가 그래 안 좋네.”

이칸께, 그래 사실 얘길 했어요 아들이. 그래,

“시내 나가이 그런 방이 붙었는데, 그런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어떻게 하몬 상이, 큰 상을 내린다 카는데.”

카이, 그래 그 어무이가 거 가르키(가르쳐) 좇어요. 그 고려장 헐는 할매가. 새끼를 파가지고 소금물에다가 각- 절여가지고 또 절이고 절이고 해가지고 그걸 태우만 안 흐트러진다네. 고대로 새끼가 고대로 있다 카네. 그래 하고 두 가지로 이 할매가 가리키 좇어 아들을. 그래가 큰 상을 받았는 기라. 그래 나라 대통령이, 참 임금님이,

“그래 이거를 당신 머리로 했나? 누가 가리키 주더나?”

인제 임금님이 이 얘기를 한께, 그때사 바로 말 했어.

“사실 내가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차마 몬 보내서 마리(마루) 밑에다가 방을 하나 쪼맨하이 만들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한 술씩 넣어주고 그랬다고. 내가 죄를 짓고.”

한께 그때부터 해제되었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함]

[동래구 설화 86]

지령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엄마가, 자기 저 모친이 눈이 당달봉산데, 그래 너무 어렵어서(어려워서) 아들이 저 어데 돈 벌러 갔어요. 먼 데 가나놓으이, 메느리가 먹을 건 업고 이런께, 거 새이(거시, 지령이) 그거를 잡아가지고, 땅을 파가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시어마이 봉산데, 그 국을 끼리준께, 눈이 어둡우이 머슨(무슨) 국인지 모르고, 참 맛이, 맛이 있더라 캐.

맛이 있어서 먹고, 우리 아들 오만, ‘이기 뵈이 이래 맛있는고?’ 싫어서 비이준다고(보여준다고) 건너기를 하나 건지가지고, 옛날에는 살자리(섯자리), 자리 깔아놨다 아인교? 자리에다 함 한 닷만큼 인자 아들 오만, ‘이기 뵈이 이렇게나 맛있는고’ 인제 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넣었는데, 할매가 그걸 먹고 나이 몸도 좋아지고.

그래 아들도 아가지고(와가지고), 그래,

“이게 뵈인동 어마이가 해준 기 이래 맛있어 내가 몸도 좋아지고, 그래 그렇다.”

카매 비인께(보이니까), 거새이더랍니다. 그래 거새이, 그기 어 사람한테 몸에 좋다 카네.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대. [청중: 땅 밑에서 크거든.] 특히 그기 저저 거거 오염된 데는 안 큼 니더. 없습시다 지령이가. [조사자: 그래 그 거새이라서 이래 했는데, 뭐 엄마 이거 거새이라 하이께네 놀래가지고.] 어. 놀래가지고 눈을, 눈을 뿔다 카대. [조사자: 고래 그 이야기가 더 있는데.] 예.

[동래구 설화 8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청도 사리암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어 내내 좀 마이(많이) 나오라고 꼬장개이로(작대기로) 콧 쭈시가지고 고마 안 나온다 카던데.
[조사자: 아, 더 이상 안 나온다.]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이기라. 주는 대로 먹어(먹어야) 하는데, 마이 욕심이 많아서, 마이
가지고 짚어서 그래 댘다고 그러대. 나는 이 이야기만 들었어예.

[동래구 설화 88]

저승 갔다 온 사람[삼일장의 유래]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이 삼일장이 왜 생겼나 하면은, 삼일까지는 저승에 갔다 올 시간이 있다 카네. 그래 뭐
저승이 어데 뭐 우리 꿈같이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데 간께,

“거 안징까지(아직까지) 여는 오면 안 된다.”

카매 후주쳐가지고(쫓아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 물 건너서 어예가지고(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그래 뭐 들은께, 그래 거기 저저저 인제 죽었다고 삼일장 할라꼬, 염 해났는 기, 염 하문
일곱 마디를 다 묶우대. 삼비로(삼베로) 가지고 마 또 문쫓우로(문종이로) 묶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요래 참 다 요래 묶아 내려가대. 거기 막 투두딱딱 하고 터져가지고 살아났다 카매 꼭
꿈 꿨는 거 같다 카대. 저승에 간께. 그래,

“안징까지 너는 여 오면 안 된다.”

카고.

[동래구 설화 89]

남의 몸에 들어간 달마스님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이 달마시님이(달마스님이), 저게 원래 달마시님은 참 인물이 좋았다 하대. 달마시님 인물 좋은데, 지금 달마시님은 이거 그림에는 참 영설긋고 쯤 무섭게 생겼잖아요. 우리 집에도 딸이 요래 이렇기 해가지고 평풍(병풍) 맨들어가지고 버릴라 캐서 아깁아서 내가 우리 집에 갖다 놔거든. 배도 뽀록하게 이래 나와가 있고 이렇거든.

그래 우리 손자가 글캐(그렇게 말해). 원래 저 달마시님이 아이고, 달마시님이 돌아가시가지고 저승엘, 저승에 간께,

“니는 안주까지(아직까지) 여 올 때가 안 됐다.”

고 쫓아내서 오닌께, 이미 자기 시체는 치웠기 때문에 영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바빠서 아무 데나 드갔다 카네. [웃음] 그 영이 마 사람 몸에 아무 데나 드가서, 그래 저래 못한 사람한테. [조사자: 아, 거 들어갔는가?] 예. 그 영이 그 드가가지고 살았어. 그래 그 달마시님이 영설긋고 쯤 막 배도 이리 나오고, 그림에는 그렇게 돼가 있대. 그렇다 카대.

[동래구 설화 90]

치매 때문에 손자를 삶아먹으려 한 시어머니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그래 어느 가정집에 내오간에(내외간에) 사는데, 그래 그 할무이가 요새 걸으면 이기 치매라. 정신없는 할매가 있는데, 얘기를 낳았는데, 아 아랜 보 늙히놓고 영감, 저 젊은 사람 들에 잠깐 일하고 왔는 기라예. 일하고 온께, 정신없는 할매가,

“야야, 내가 너들(너희들) 대다꼬(힘들다고) 닭 한 마리 꺾아놨다(고아 놓았다).”

[청중: 아를 고운 거 아니가?] 그래,

“저저 그거 가봐라. 부엌에 가봐라.”

칸께, 가본께 아를 삶아놔더라 안 카더나. [조사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시어마이가 노망이 들리가지고, 지금은 거기 치매지. 옛날에는 노망이라 캬거든. 노망. 아를 삶아놔는데, 어찌 아들이 효자던지, 그거를 어무이한테 카몬 어무이가 놀래가지고 그거 한다꼬, 쥐도 새도 모르게 내오간에 싸가지고 산에 갖다 묻고.

[조사자: 옛날에 애장터에 그 뭐 있지.] 예. 그래 갖다 묻고, 부모한테는 요만한 포도(표도, 표시도) 안 내고, 그런 효자를 해가지고. [청중: 거기 전설이겠지. 전설이지 사실이겠나?] 아주 옛날에 그럴 수도 있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달키라고(닭이라고) 그래 삶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상도 받고, 어는 고을에, 그래 그런 얘기, 그래 마이 해주대에.

[동래구 설화 91]

쥐가 되어 코로 드나드는 영혼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옛날 말은, 우리가 사람이 자만(자면) 코에서 영이(영혼이) 나와가지고 막 딱 간다 하대에. [조사자: 어디 가는데 쥐가(쥐가).] 찌(쥐) 걸은 뭐 요런 게, 쥐새기 같은 기 나온다 카대. [조사자: 코에서 쥐가 나온다.] 어 나온다 하대.

옛날에 내오간에(내외간에) 사는데, 한 여자는 바느질 한다고 앉았은께, 신랑이, 그땐 각신께, 신랑이 여자 여 저저 다리를, 무릎을 비고 누우자는데, [청중: 옛날에 신랑들은 그래 했다.] 그래 이래 바느질을 하다 보니, 신랑이 한참 자디만은 코에서 시앙쥐(생쥐) 같은 고런 기 한 마리 나오디만은 솔솔솔솔 막 처마 끝으로 이래 막 가더라 카대.

그래 여자가 막 따라가봤다 카네. ‘이게 뭣이 나와서 이래 어디로 가는가?’ 하닝게, 처마 밑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졸졸 내리는데, 그걸 문 건너지고 막 살살살살 요리 가까 조리 가까 막 난리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그카다가 남자가 깬는데,

“그래 무슨 잠을 그래 많이 자요?”

인제 그 마누라가 그칸께,

“아따 오늘은 어디 가는데 강물이 맥히가지고, 그래 내가 요걸 보고 건니도 못하고 애를 묵고, 그래 갔다 왔다.”

이카더래. 그러니께 그 아주머이가 본께, 코에서 쥐가 나와 가지고 땡기는 게 그게 영이라 캐. [조사자: 영이라?] 예.

[동래구 설화 92]

소는 조상이다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꿈을 꾸니까, 우리가, 우리 커다란 막 황소가 있거든요. 촌에, 우리 친정에. 황소가 있는데, 큰 황소가 막 논들로(논길로) 밭들로(밭길로) 가다가, 가다가 막 탁 쓰러지죠 그 소가에. [청중1: 황소가 조상 아니가.] [청중2: 원래 소가 조상이다.]

그래 소가요, 누런 소가요 막 이래 촌에 논두렁이(논두렁이) 안 너르고, 보통 사람 땡기는 길뿐이 없거든요. 그래 비틀비틀 가디만은 막 소가 탁 쓰러지고. 그래 또 어데로 간께, 산에 막 산길로 막 이래이래 올라가고 이래. ‘꿈도 희한하다’ 카고 있으이, 딱 부고가 왔는 기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참 가가지고 우리가 인제 옛날에는 문 살아도 마 인제 중년에 쯤 해가지고 산판도 많이 샀어요. 선산을. 옛날에는 다 산소를 자기 산 사가지고 썼다 아납니까. 아주 없는 사람만 저 공동묘지 가고. 그래 마 부잣집 한 사람 망해는 바람에 그 산을 좋은 걸 샀어요. 내가 간께, 꿈에 본 그 길이라요. 야 희한하대. 뭐 산 사도 뭐. [조사자: 어데 꿈에 조상이 돼가 선물을 했다, 희한하게.]

그 아버지가 그 소가 쓰러져가지고, 그래 내가 그 산으로 어두로(어데로)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아버지 초상이 나가지고 여자들은 머 옛날에는 그런 데도 잘 안 따라가고 이랬어요. 젊은, 임신하고 이라몬 [조사자: 안 가지요.] 여자들은 안 가거든. 그런데 내가 안자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그 우리 산소, 산 사났는데 우리 외할무이도 거 모시고 뭐 이랬는데, 아버지 산소 가이 내 꿈에 본 그 길이라. 야 꿈 그것도 참 희한하대. 야 그래 내가 소는 보면 참 조상이다 싶으대. [청중2: 그래 소는 조상이다.] 응. 그래 그런 꿈도 꾸어.

[동래구 설화 93]

유기그릇 장사의 돈을 탐내다 자기 자식 죽인 사람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 마을에는 이거 늦그릇 밥그릇 맨드는 공장이 많이 김천에, 지금도 김천 거는 하고 있거든요. [조사자: 옛날에 유기그릇이다.] 예, 유기그릇. 방짜라꼬(방자라고) 막 두드려 맨드는 그거는 더 비싸고. 그런게 우리 마을에 거는 전 여자들이 그걸 멧 불씩 해가지고 팔러 다녔어요, 아주머니들이. 그걸 장사를 마이(많이) 했어요. 유기그릇 그걸 팔러. 공장이 많은게 그거는 큰 공장도 아이고 마 가정집에서 그래 다 하대. 녹하가지고(녹여가지고) 두드리가이고.

그래 그 시절인데, 그래 그 어떤 아주머이가 참 촌에 가서 장사를 하고 오만, 주인을 정해 놓는다 캐요. 한 집에다가. 언제 뭘 좀 주고 뭐 자기가 늦그릇을 한 볼 주던지 이라문, 언제 라도 그 집에서는 잠을 자게, 인자 여관 맨들어 자게 됐는 기라. 그래 그릇을(그릇을) 팔고 그 집에 가서 누우잔께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가만히 누우가 있은께, 마 밖에서 속닥 속닥속닥 하고, 주인이, 집 주인이 막 낮을 살살살 갈아쌓고, 행동이 이상한 기라. 이 유기그릇 할매가 장 들어보이. ‘온(오늘) 저녁에 무슨 사고가 나도 나겠다’ 할매가 이래서 그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 할매가 그릇을 팔아가지고 돈이 많은 걸 아는 기라. 가(가지고) 있는 걸. 그래 할매를 없애고 그 돈을 할라꼬, 할매를 직일라꼬 연구하는 기라예. 그래 할매가 잠이 들만 직이가지고 저 마 갖다가, 촌이니께 갖다 내던지도 모른다고 그랬는 기라.

이 할매가 마 잠은 안 오고, 보이 마 낮을 삭삭 같고 이래서, ‘저 온 저녁에 큰일 났다. 꼴두 없이(꿈작 없이) 내뺨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싶어서 가만 있다가 보이, 저쪽 방에 아들이, 아들이 애법(제법) 큰데 잠을 마이 자고 있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마 잠이 들어가지고 한 잠 자는데, 그래 마 시간이 마 열두 시 다 돼갈 때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 들다가 자기 누웠던 자리 딱 높히 놔놓고 이불을 폭 덮어놓고, 자기가 그 방 가 누우잖다, 누웠었다 카네.

누웠은께, 열두 시가 넘은께, 아버지가 낮을(낮을) 들고 들와서 할마이를 쫓았어. 쫓사가지고 막 안고 나가더라네. 안고 나가는 거 보고 이 할매는 그질로 도망을 와가지고. 그래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카는 기라. [조사자: 아이고 지 아를 직이뻘네.] 어 지 자석을 직있는 기라예. 그 그런 일이 있었어예. 그 옛날에. [청중: 그럼 거기 실화란 말이가?] 그거는 실화라 캐. [조사자: 그리 뭐 실화겠지.]

[동래구 설화 94]

여우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이순녀(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어느 대감 큰 사대부 집에 사는데, 아들만 뗏이 놓고 막내이 딸을 낳는데, 그 막내이가, 대감이 뭐 죽고, 그래 인자 아들네들이 뗏이 서이라 카든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커가지고 고만 무슨 야시로 변해가지고, 말이 막 뗏 필이 있는데, 언캉(워낙) 부자가 되니 옛날에 말이 큰 재산이라. 말 타고 댕기고 요새 자가용 한 가지라. 어디 가면 대감들 그 말, 별건 말 타고 저벽저벽 가고 이랬거든.

말이 막 뗏 필 이래 되는데, 필, 옛날엔 필이라 카대. 하룻저녁 자고난께 말이 한 마리씩 죽고 죽고, 이래서 막내이 아들이 가마이 보이 마, ‘여 있다간 자기도 죽겠고.’ 이상하이 집안이 막 없어지는 기라. 말 같은 게. 그래서 이 아들이, 막내이 아들이 고마 말을 한 필 타고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여 있다간 내가 죽겠다’ 싫어서. 멀리 가서 뗏 년을 살다가, ‘이 집안이 어예 됐는가?’ 싫어서 와보이, 전 동생이 야시가 돼가지고 집 안에 말이고 뭐고 다 자아묵고 (잡아먹고) 오빠도 자아묵고, 다 자아묵고, 사람 인간이라는 거 다 자아묵고 혼차 오만이 앉아있더라 카네.

앉아가지고 그래, [청중: 전설이겠지. 진짜가?] 그 얘기가 있어. 그래,

“오빠 저저 어데 갔다가, 오빠 인제(이제) 왔냐?”

카매 막 기갑을 하더라 카네. 오빠 문 자아무서 저거 마. 그래 눈치를 본께, 집안은 마 다 쓰러졌고, 어떡 해서, 그래 저저,

“그래 야야, 그래 어째 사노?”

카고 이래 안부를 묻고, 그래 가만 보이 사람이 아이고 야시더란다. 새복에(새벽에) 그래, [말을 바꾸어] 어 그카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가만 동생 하는 걸 잠을 안 자고 밤에 동생 하는 걸 본께, 밤중 된께 딱 나와가지고 막 손에다가 지름을 착착착착 바르디만은, [청중: 기름을?] 어. 지름을 막 바르디만은 말, [청중: 간 빨라고.] 거 마구로 드가디만은 말 똥구멍으로 마 손 싹 넣어가지고 간을 싹 빼가지고 먹은께, 간 빠지몬 말이 죽제. 그래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라더란다. 그래서 이 오빠가 도망을, 동생인가 오빠가 도망을 갔는데, 그래 온께, 그래 다 자아 묵고 혼차 있더란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청중: 야시다.] 야시가 됐더란다.

그래 이 자석도 너무 몬 날아가지고 그제, 그 집에도 아들만 놓은께, 돈은 많고 딸 하나 놓고 짚어서 마 공을 공을 들이가 그 딸 낳은 게 그렇다더래. 그래 그런 것도 너무 [청중: 이게 전설이겠다, 전설.] [조사자: 그래 전설, 예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어무이 이야기.] [청중: 옛날이야기는 전설이지 실화는 아니거든.] [조사자: 본대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그래 가가지고, ‘여 있다간 안 되겠다’ 싫어서, 그래 그 오빠가 그래가지고 어느, [조사자: 병을 세 개 어데 뭐.] 예. 어느 도사님이,

“니가 거 갈라 카면은 그거 병을 요런 걸 세 개 주매, 되게(매우) 급할 때 니가 이걸 사용 해라. 니 목숨이 떨어질 때 되거든 하나씩 사용을 해야 되지. 그래 니가 그 집에, 본집에 가문 안 된다.”

카더래요, 어느 도사가. 그래,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카니께,

“그래 그러면 제일 급할 때 사용하라.”

카며 병을 세 개 주는데, 그래 참 가인께 동생이 그래가 있어서, ‘거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막 말을 타고 온께, 막 동생이 막,

“오빠 왜 갔나?”

카매 막 따라 오더란다. 따라와서 병을 하나 탁 던진께, 가시밭이 막 착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 뛰와서 보니께, 그 까시밭을 헤치고 또 따라와서, 또 하나는 탁 던진께 물이 막 강물이 막 착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 또 한참 못 오디만은, 그래 또 인제 마지막에는 인자 또 따라온께, 마지막에는 던진께 불이 확 나가지고, 그래 그 도사가 그런 해가지고, 그런 전설이, 그 얘기는 들었어요.

[동래구 설화 95]

꿀 장사들이 하는 이상한 곡소리

장수자(여, 1942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화현할머니경로당]

어릴 때 꿀 장사들이 마이 다녔어예. 꿀 팔러 딱 다니몬 돌이씩 이래 댕기대. 돌이서 다니몬 똑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 집이 좀 컸어예, 똑 우리 큰 방에 와가 자고 이랬어예. 그래 갈 때는 꿀로 좀 주고, 그 사람이 마 꿀 팔러 댕기다 보면은 딱 가는 단골집에 온다고요. [청중: 그래 정해놓고 온다.] 응 그러는데.

옛날에 꿀 장사 돌이가 떡 댕기다가 허름하이(‘어둑하니’의 뜻으로 말함) 저녁이 돼가 컵커 무리한데(깜깜해지는데), 우리 동네 말고 탄 동네 이거는 애긴데, 그래 떡 댕기다 보인께네, 큰 대감집이 마 마 옷채도 큰 이런, 아래채도 집을 잘 지이가지고, 참 배고픈 사람 오몬 밥도 주는 이런 집이라. 그래,

“꿀 사이소.”

하고 들어가이케네, 할머니 돌이가 들어가이케네, 이 그 할아버지가 호불애비였답니다. 호불애비였은께네 할매 돌이가 꿀 사소 카이까 종이,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꿀 장사가 와가지고, 할매들 돌이 왔습니다.”

이라이께네,

“그 할머니를 내보내지 말고 저녁을 잘 채리드리가지고, 그 아래채 방에다가 주무시게 해라.”

이라더랴요, 대감이. 그 집에 옛날 어른들보고도 대감이라 하는 사람 대감이라 하거든요.

[청중: 사대부집에는 다 대감이라 해.] 그래가지고 저저 영감쟁이가 안자 거 할마이, 할마이 둘이 있는데, 그래 그란께네 밤에 내려오가지고 할마이 이래 더듬었는 기라. [조사자: 아이고.] 더듬어가지고, 어째 마 영감이 죽었다 뭐 하든가? 거서 더듬어가 밤에 할마이 건들일라고 더듬어가. 그라이께네,

“당신이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절대 몬 나가고, 오늘 내일이 초상 칠 때 전부 오가지고 치마를 전부 다 입고 곡을 하라.”

이라더랴요. 그런께 곡을, 자석들이 곡을 하라 카니까네, 할마이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꿀 장사 둘이가 아니라 서이라, 아까 언자 금방 잇아뵈는데, 서인데. 울어라 카이, 짝대기 들고 울어라 카이께네,

“아이고 알곶이라. 아이고 알곶이라.”

이래 울고, 아 알곶이라, 한 애는 또,

“아이고 별일이다. 별일이다.”

카고, 한 애는 또 어째 우냐 카몬,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래 울더랍니다. [조사자를 보고] 그 말이 되지예? 별일이다 별일이다, 알곶이라 알곶이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울어가지고 그래 그 집에가 초상을 쳤다요. 그런 전설이 있대요.

[동래구 설화 96]

다리 다친 황새가 나왔던 온천

고재분(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거기 다리를 뿌았더라대, [조사자: 음.] 황새가 [조사자: 네네.] 다리를 뿌았어. 저 온천, 옛날에 저 내려가는 물도 있었고, 요새는 목욕탕 한다고 이리 생겼기만. 황새가 와가지고 온천 거 내려가는, 옛날에는 밤에 그 뿔고 큰 영암 그거 안 있나? 그게 물도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청중: 지금 우리 클 때는 그기 저 있지? 지금 농심호텔 자리가 못이었어.] [조사자: 아, 그게.] 그래. 그게 못이 있다. 인자 뜨신 물도 나오고 막 [조사자: 네네.] 거기 그래 맞다 못이 있었다 그자? [조사자: 그래가지고.]

근데 황새가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온천물에 와서 물에 딱- 담구고 날라가고, 그래 물에 딱- 담구고 날라가고, 난중에는 황새가 마 발을 쭉- 들고 날라가빠더란다. [조사자: 아하, 그래갖고 온천이 있는 줄 알았는 가배.] 어. 황새가 다리를 어디서 뿌질렀는데,

날라와가지고 [청중: 그 온천물이 그만큼 좋다는 거라.] 날라와가지고, 황새가 요래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요리요리 보이 근근이 날라오더라대. 그라이까네 내나 옛날에 농심, 백정 농심 거 있다. [청중: 농심자리가 못입니더.] 그게 물이 내려오고, 뜨신 물이 못에도 있고 이랬거든. 우리 클 때. 우리는 범일동서 크다 목욕하러 오면 거 있어. [조사자: 여까지 오셨구나.]

그래 거기 와서 담갔다가 날라가고 담갔다 날라가고 그라더란다. 그라이께네 난중에 보께네, 할아버지가 본께네 다리를 쭉 펴고 마 거진 날으더라대. 그래서 그 황새로 만들어 났어. 이야기를 하더라. [조사자: 유래가 있다 그지예?] 옛날 노인, 옛날 노인이 그런 이야기로 하더라.

[동래구 설화 97]

병도 고치는 신기한 돌

고재분(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우리 엄마한테, 옛날에 [제보자: 들으셨어요?] 우리 일본서 크가 나왔는데 엄마가 이라더라. 돌로 뿌안 거를(부순 것을) 일본서 나오면서 그거를 요만큼 갖고 품안에 안고 왔어 엄마가. 그 무슨 약이고 나는 그래 인자 우리 할아버지 그거 있제? 때피 그거 와 제사 지낼 때 그거로 갖고 요래 안고 모시놓은 거 띠가(떼어서) 엄마 품안에 안으면서, [청중: 위패.] 응, 위패.

“아버님, 아버님 인자 우리 고향으를 가입시다.”

그래 딱 때가 안은 기라. 근데 이거 쪼그마한 게 가루가 요만한 게 있는데, 저게 뭇이고 클 때는 몰랐어. 엄마가 탁 올려놓고. 우리 이웃에 야가 다리를 하나 뿌아가 왔어. 그러이께네 엄마가 그걸 크- 갈아가 광목에 받치가 또 받치고 또 받치고 먹이니께네(먹이니까), 다리가 똑 그런 기 그기 무슨 돌이라대. 그기? 내 또 잊어뭇다. 그 돌이 효험이 있는 기라.

그 돌이 우째서 뻤나 하몬 저 근간에 내려오지, 물 내려오는 데 안 있나 그자? [조사자: 네.] 황새가 다리를 뿌아짓는 기라. 다리를 뿌께네 근간 그 물 내려오는데 와가지고 돌로 쪼사 묵고 가고, 뭇를 쪼사 묵고, 찾아 쪼사 묵고 가더라대. 뻤뻤뻤하이 그런 기라. [청중: 아, 돌이 파삭파삭하이 이래요. 반들반들 해도.] 어. 그랬다. [청중: 우리 엄마가 빨래 씻거러 가몬, 이 물살이 쪼끔(조금) 요래 췌 데는 요래 물이 흐르면은 모래가 요렇게 요래 약간 흘러 가면서 보이는 그기, 그 돌이 가벼워. 그건 우에(위에) 뜨더라. 그기 항상 우에 있으이까네 우리 엄마가 고걸 똑똑 깨 묵더라고. 장수밥이라, 장수밥이라 하대 그제.]

그거, 그래 엄마는 인자 그거 인자 일본도 탄광이 있잖아 그자? [조사자: 네네.] 우리는

동영사 하지만은 탄광도 거 있고. 이거 그 후지산에 거도 우리가 오빠가 장가로 가서 올라갔는데, 이래 근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근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황새가 다리를 뿌아가 지고 날라와서 이래 헤지빼이 주아 먹고 주아 먹고 하더란다. 그레 난중에 보이까네 황새가 다리 쪽 펴고 앉아. 그레놓이께네 금강돌이라 그기. 돌이라. [청중: 금강석이네.]

그 뿔인데- 잇어뿔다. 그레 엄마가 그 일본서 요만치 요래 호지머니에 딱 단디 넣어가 오는 기라, 그 귀하잖아? 그기. 그레가지고 우리 이웃에 우리 범일동 살았거든. 다아(다섯) 살 여섯 살 묵은 아가 다리를 다쳤어. 근데 엄마가 고 깡가(끼워 넣어) 뵈다가 그레 갈아가지고 믹이대. ‘야야 데꼬 온나’ 하면서. 그레 우리 엄마도 가만 보면 반 또 의사맨키로(반 의사처럼) 아들들 잘 나습고(낮게 하고) 그랬제. [청중: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레가 나쌌다(낮게 했다.) 아이가.] [조사자: 그레 그런 할머니 한 분 또 계시고 마을에.] 그레 요래요래 갈아가지고, 광목 안 있나? 그런 데 또 받치고 받치고 이라대. 그거로 그 받치가 한 서너 번 해먹이노이까네, 마 다리가 붙었어.

[동래구 설화 98]

존댓말만 하는 며느리

고재분(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옛날에 말이 [청중: 혀가 짤라가.] 혀가 짜르고 그라잖아? 긍께네 시집을 가면은 소도 보고 우하고 우대라 이기라. 그 인자 개도 보고 우애고, 누이제 시동상들을 보고도 말을 존대하고 나(낮추어) 하지 마라. 인자 옛날에는 그레 했다 아이가. 평당당 놔야 안 한다 아이가. 인자 그레 해라 이래께네. [청중: 중우 벗은, 중우 벗은 시동생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라고 인자 이래께네 개가 막- 짓거든 개가. 그 시아버지가 있다가,

“야야, 저 개가 와 그리 짓어섰노?”

꺼께네,

“아버님 손지씨가 꺼지씨를 물고, 소가 꺼직을 물고 흔들께네, 개씨가 보시고, 개가 보고, 개씨가 보시고 지씨가 합니다.”

우대시 하는 기 욕이 아니라 그거는 그 말이제(말이지) 그자? 우대는 그러더란다,

“손주씨가 꺼지씨를 물고 흔들씨를 하니, 개씨가 보시고 지씨러 합니다.” [조사자 웃음]

우대는 말이라.

[동래구 설화 99]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고재분(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아니 우리 여러 가구 사는데 살았거든. 사는데 인제 식구가 많다. 그집 딸이 허썬데 허 씨, 허씨 영감. 여러 가구 사는데 짝- 딸도 다 늙히고 인자 할마이가 한 번씩 오는 기라 영감은 하고 싶은데 이거 할마이 안 들어오면, 들어오면 마 방에 있는 거 같으몬 저 자는 기라. 저게 저게 자고, 할마이가 저 짝 구식(구석)에 자고.

그러이께네 할마이한테 갈라 한까네, 뽀쓰는 늘은(넓은) 거를 입고 그 건너 갈라 하이까네, 막내이가 왔다갔다 하이께, 마 꼬치로 마 저거 입에 마 대있던(달았던) 기라. 근께,

“아버지 그만 땡기소. 꼬치가 내 입에 대이요.”

[동래구 설화 100]

아이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

고재분(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아가 비가 오는데, 이제 영감이 자꾸 올라 캐서러 비 오는데 했든 기라. 인제 그래 파자를 (과자를) 사가 들어오거든. 들어온께네 마 할마이가 마 중우를 입을 개가(여력이) 없는 기라.

그래 인자 바지 그 매미치마를 입고 인자 앉았는 기라. 불 땡다고 이래. 부엌에 불 안 떴나 요래 그자? 불 떴이께네 인자 솔이 밥이 불으면 씻거야 안 되나? 닦아야 안 되나? 솔은 드러 워. 그래 요리 부뚜막 높은 데는, 옛날에는 요래가 부뚜막 닦고 그라는데 우리도 그랬거든.

그라이까네, 아(아이가) 빌어먹을 것 파자를 사와서 불로 이래 땡다아이가. 불이 불 쭈이 잦아 이래. 그래 찌우께네,

“엄마, 보지도 감기 하나?”

카더란다. 물이 줄줄 흐른다네. 그라더란다. [웃음]

[동래구 설화 101]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소리

송구자(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청중: 무슨 보리는?] 수매를 하는데, 시골에서 타작을 해가 수매를 하는데, 보리타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또 말이 안 나온다, [조사자: 동민 여러분.] [청중: 아 좏민 여러분. 좏민 여러분.] 동민을 좏민, [청중: 어 그라대, 그 다음에는.] [조사자: 어, 오늘 보리를.]

오늘 보지수매를 하는데 [청중: 자리에.] [조사자: 자리에. 자지에 넣어갓고.] 이제 짜진, [청중: 좏민 여러분.] 저 형님 잘한다. [청중: 어. 그래가.]

성한, 성한 자지는 새 보지에 열고. [청중 웃음] 아이다. 새 보지는 성한 자지에 열고, 현 보지는 짜진 자지에 열고. [청중 웃음] [청중: 오데 그런 이야기가 다 있더노?] [일동 웃음]

[동래구 설화 102]

목욕 가기 싫은 아이의 이유

송구자(여, 1943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옛날에 육이오 사변 나고는 여기에 온천장에 마 이거 뭐 공동터에 군인들이 항상 줄 서가와. 줄서가지고 맨날 모여. 가문 그때는 너무 물이 뜨겁아. 너무 많아노이 몬 드가라 캐나 노이, [청중: 뜨겁었다. 옛날에는.] 우리 이모부가,

“예월아, 오늘 목욕 가자.”

“다시는 안 할랍니다.”

카며,

“가자 목욕했는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가자.”

카이,

“가이까네 아저씨들 자꾸 자지가 내 입에 물리샀어.”

이런 군인들이 벌거벗고, 마 한창 때 군인들이 발 디딜 데 없고 요래가 앉아가 목욕한다. 그래노이카네 입에 자꾸 물릴라 캐사서로. [웃음] [조사자: 키가 딱 고만하니까 그지예.]

[동래구 설화 10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서화순(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어 그래 동냥치가 온께네, 그래,
“뭘 주꼬? 이거를 주까? 저거를 주까? 우리 얘기를 주까?”
이렇게 해논께네, 그래 종을 맨날 만들어도 깨지고 깨지고 한께네, 그래 그 아이를 갖다가
가가서 녹이가 종을 맨든께네 인자 종이 됐어. 그래 팡- 뚜른께네(두드리니),
“에밀레~.”
엄마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청중1: 아를 갖다가 종 속에 넣었네. 글캐서 종을 맨들었네.]
예. 그래 인자 그 아를 가져가 녹이가 종을 맨들은 기라요. 그런께네 인자 종을 이래 친께
네, 엄마가 잘못한께네. [청중1: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그래, 그제 에밀레종이래요. 그래 옛날에. [청중2: 기억도 좋다.] 어 그리. 그리 그때는. [청
중1: 산 제사 한다고 사람을 죽었으니까 그렇제.] 그래 인자 엄마가 저 스님 온께네, 저 스님
이 독경을 한께네.
“뭘 이거를 주까 저거를 주까”
이래니께, 그래 인자 [청중1: 귀엽어서.] 귀엽어서 아를 보듬고
“우리 얘기를 주까?”
이런 기라요. 그런께네 인자 자꾸 인자 쇠를 녹여가 만들어도 안 되고 깨지고 깨지고,
결국 인자 이 아로 인자 참 보듬고 가서 녹이가 종을 맨드니께네 종이 된 기라요. 그래논께네
인자 팡 치면 인자 엄마 땀에(때문에) 자꾸 그랬다고,
“에밀레.”
한대요. [웃음]

[동래구 설화 10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서화순(여, 193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그 신랑이 어데 가면서, 어머니가 저저저 눈이 멀었어. 봉사가 돼가 있는데 마누래를 보고 돈을 주면서,

“우짜든지 어머니 봉양 잘해라.”

쿠고 인자 갔어. 일 년이나 있다 온께네 엄마가 살이 썩어서 뽀하이 얼굴이 좋더라고. 그래, “아이고 어무이, 저저저 누가 이리 고양을 잘 했는 가배요?”

그런께네 이 저저저 며느리가 거싱이를 인자 자꾸 사다가 이리 준 기라. 그런께네 목으면서 인자 한 젓가락씩 한 젓가락씩 자리 밑에다 영었어. 인자 맛있다고. 그래 인자 저 아들이 왔어. 그래,

“엄마 저저 고양 잘했다. 그래 고맙다.”

그래. 그래 인자 참 그 그런께네,

“야야, 이거 봐라 얼마나 맛있노. 뼈도 없는 고기를 어찌 잘해주는지 내가 이리 좋다.”

해논께, 이 자리 밑에 본께 거싱이가 항거씩(많이) 있더라고. 거싱이, 인자 말란 게 항거씩 있어논께, 그런께 저저 엄마는 눈을 뜨고 며느리가 눈을 감았다 쿠더라. 그런 말이 있대, [청중: 나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그런 말이, 그런께네 저저 돈을 쥐논께 자기가 다 씨고(쓰고), 인자 거싱이로 시다가 인자 자꾸 인자 할매를 준께네, 눈이 멀어논께네, 그런께네,

“뼈 없는 고기가 맛있고 살이 이래 쯤는데, 내가 하다(하도) 하다 맛있고 좋아서 니 오면 준다고 인자 자리 밑에다 쪼끔씩 쪼끔씩 이리 하루에 한 번씩 영나(넣어) 난께네.”

그래 아들이 보고,

“무슨 고기가 그리 맛있노?”

께네, 이리 자리 밑을 든께네 거싱이가 항거씩(가득) 있는 기라. [웃음]

[동래구 설화 10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조사자: 고려장 하던 이야기.] 어 고려장. 옛날 아들이야 어머니 죽은 거 지계에다 지고 가서, 쪼끔 가는데 그냥 솔나무 있으면 빠삭 꺾어가지고 갔던 모냥이라. 그 오보니까(와서 보니까) 지계에 산 것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는, 보내놓고는 메칠 있어도 아들이 안 오거든.

“오 나를 이렇게 산에다가 묻을라는구나.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찾아갈래니 길을 몰르지만 오면서 그 살까치(솔가지), 소나무 꺾은 자리가 있잖아? 고걸 따라서 따라서 저(자기) 집을 찾아간 거라. [조사자: 오머!] 그때는 아들이,

“야 우리 어머니가, 저런 어머니를 깃다가(가져다가)잉- 아들이 저 죽일라고, 죽으라고 산 속에다 내버리고 왔는데도 찾아왔다.”

고 그때부터 효도를 했더라. [웃음]

[동래구 설화 106]

콩쥐 팥쥐와 수숫대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콩쥐가 자기 어머니가 죽고 이붓(의붓)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이붓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또 팥쥐 하나 낳았네. 콩쥐 팥쥐 똑같이 자라는데, 엄마가 자기가 훗엄마니까는 자기가 낳은 팥쥐인데다 딱 그냥 고기에서 고기 골라먹어요. 고은 옷 주는데. 이 전처 딸은 콩쥐는 미워서 그냥 오데 가면 야 그 그 하리가 있잖아? 물 뜨는. 그 바닥에 그 바닥을 새가갓고(새서) 바닥도 없는 하리에다가 물 채와놓고 놀래다가 넘어진 거라. 그래 하루 쟁일(하루 종일) 물을 기르다가 그 하리 다 차니 물이 다 바닥에 흘러내리니까 나 몰라라. 그래서 그래 그런 소리. 좌우지간 그 말도 못해요. [조사자: 그래가 어째 됐는데예?]

그 이붓엄마가, 그 이붓엄마가 그 전처 딸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런 거 그따 좌우간 콩쥐 팥쥐가 옛날에 할머씨들이 많이 해줬어. [조사자: 그래갓고 끝이 어찌 됐는데예?] 예? [조사자: 그래 구박 받아가지고예?] 구박 받고, 한 번은 또 그거 요새 그것도 나오대. 이제 구박을 뭐 한두 번 받질 않았어. 그런데 한 때 저 엄마하고 인제 그 팥쥐하고 인제 놀래간다고 놀래갔는데, 이거 어디 오데 가서 밭을 매랬다나? 밭을 매고 있는데, 좌우간 이제 너무 오래 돼서 다 잊어빠렸는데, 뭐 좌우간 그때 요새 그 신식으로 나오는 거, 뭐 공주가 그 여데 가서 왕자하고 놀다가 뭐 신발, 신발 잊어빠리가 그거나 비슷하게 나오대. 그럼.

[청중1: 마지막에 인자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는데.] 그래 내려왔어. 그래. [청중1: 줄로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 인자 설움 받은 공주는 하늘에 올라가고. 그 설움 저저 안 받은 애지중지하는 그 저저 저저 줄은 가다가 떨어져가.] 그래 그래. [청중1: 널찌가면서 수숫대를 내려가고 그래 수숫대가 빨근 물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대.] 그래 그래. [청중1: 썩시가(수수) 불잖아요? 그러께네 쌍줄이 내려왔는데 인자 저저 이 설움 받고 큰 인자 공주는 고마 하늘로 올라갔

는데, 그래 이 저저 설음, 저저 큰 공주는.] 썩은 밧줄을 내려놔서. [청중1: 썩은 줄이 내려와가 있고, 그만 반치나(반쯤) 올라가다 떨어져 내려오면서 수수가 수수밭인 데로 수수밭에 로 인제 쓰러져가 내려온께, 그 핏물이 들어가 수수가 뿔은 기다.]

[동래구 설화 107]

선녀와 나무꾼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선녀가 그냥 이 지하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와서 보니까 한 보따리 옷 보이거든. ‘옳다. 내가 저 옷을 훔쳐가갓고는, 저놈의 옷을 찾으러 자기를 찾아오갔지’ 하고, 그러고 그냥 그 옷을 찾아다가, 그냥 숨키놓고 있으니까난, 아 이 선녀들이 내려와서 옷을 입을려니 옷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그 옷 찾느라고 그냥 한참 헤매다가, 그 나무꾼이 옷을 주면서, 그때 옷을 찾아서 그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갔다든가 좌우간.

[청중: 한 스님이 옷을 놔둔 기라요. 그래가 저 그 저 살았는데, 아들로 둘, 아로(아이를) 둘로 낳았어. 둘로 낳았을 때 인자 하늘에서 인자 하나 낳았을 짝은(때는) 그 옷 도라(달라) 캐도 안 줬어. 그래 두 개 낳았은께 옷을 줬는데, 그래 두 개 낳은 인자 안 올라갈 끼라꼬 두 개를 지아논께네, 그 옷을 입고 아(아이) 양쪽 찌고(끼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그래.

[동래구 설화 108]

금도끼 은도끼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나무꾼이 와서 그만 나무를 찌다가 그만 도끼를 못에다가 던져서 잊어빠린 거라 했더니, 아니 그 못에서 그냥 하얀 영감이 도끼를 갖고 그래,

“이거 니 도끼가?”
이제 그러니까나, 맨 처음에는 너무 금도끼 좋은거니까나, 이제 아마 나쁜 도끼라서,
“아니라고.”
제 도끼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나 아 그런가 그랬어. 낭중에는
(나중에는) 너무 정직하니까.
“금도끼 이게 니 도끼가?”
“그게 내 도끼다.”
그 좀 녹이 쓴 도꾸를 이거 가지고,
“이게 니 도끼가 하니까?”
“예. 그게 내 도끼라.”
하니까는,
“너 참 정직 정직하다.”
하면서, 그때 산신령님이 그때 많이 보태줘서 잘 살았다 이려대. [웃음] 뭐 옛날 얘기지
좌우간.

[동래구 설화 109]

피난길까지 따라온 이북 토깨비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토깨비, 이건 실제 얘기라. 우리 시집에를 갔더니 둘(담) 안에 이만큼 막을 재냈는데, 토깨비
당이라 하면서, 그냥 뿔이 푸속하고, 토깨비 환장을 해가지고 똑- 애를 재워놓곤, 밤낮 오데서
이제 무슨 손님이 와서 물건을 가져와도 그렇고, 딸네들이 시집온다고 뭘 해와서 그 토깨비
당에 놓고 해냈는 모양이라.

근데 한 번은 며느리, 딸이 친정 오면서 이제 냉면을 한 소쿠리 삶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만 집안 식구들이 먹고 토깨비당에다 안 냐대. 아 그 이튿날 보니까나 둘 안에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에다가 그냥 그 국수 오레기를 널-널 걸쳐 냐더라요. [조사자: 토깨비가.] 토
깨비가 그렇게 용하든 모양이라. [조사자: 맞아요. 나 그 이야기도 어데서 들어본 것 같다.]

그 실지라(실제라). [조사자: 네네네.] 실진데 그놈의 토깨비가 얼마나 용한지, 그 피난을
왔거든. 피난을 와가지고 있는데, [조사자: 황해도입니까?] 어. 이북에서 왔어. 피난을 와가
있는데, 우리 맞동세네가 그렇게 장손이니까나 토깨비도 잘 위했거든. [조사자: 어어.]

근데 하루 아침에 그냥 아들이 그만 자고 일어나더니 오록을 못 쓰고 아파서 하더라. ‘야야 그 이상하다’ 왜 그래 나와서 그때 내가 그걸 업고 동산병원에 가니까나,

“뭘뭘 아무 탈이 없다 하며, 가 있으면 낫겠다.”

그래서 나는 약만 지어줘서 먹고 갔는데, 그 땀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뭤라는지 아냐? 이복에 있는 그 촌도깨비가 따라 왔대는 거라. 따라왔는데 ‘왜 너 와 내가 따라왔는데 날 몰라보느냐’, 이래서 벌 주느라고 아를 그렇게 죽였다는게 병을 고쳤다. 니 여 가가지고는 그냥 돼지 머리를 사다가 놓고 그냥. [웃음] 그 실지 얘기라.

[동래구 설화 110]

꿈 이야기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좌우간 나는 실제 얘기도 다 해요. 우리 또 조상이, 조상이 우리 시아버지가 일찍하니 열 아홉 살 때 면장노릇을 하고, 좌우간 되게 어려서도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그냥 출세를 했던 모양이대.

하루는 면장회의를 한다면서 그냥 거기 청천강 구룡강 그 쌈세기 집에 있었거든. 그러 청천강 구룡강 거기다가 천막을 패놓고, 이제 텐트를(텐트를) 패놓고 이제 각 도에서 이제 면장 군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라. 뭐 잔치하면서 닭 잡고 소 잡고 뭐 다 잡고 잔치를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그만 부잣집 아들이니까나, 이게 보니까 눈에, 눈에 쓰는 총 그런 걸 갖고 만날 댕겼든 모양이라.

그날도 그냥 그 총을 메고 가서 흔들다가, 요만한 그 큰 강인데, 요만한 바위가 있는데, 고 바위 위에 오리가 한 마리 짝 앉아 있더라. 그걸 톱 쏘니까나 그게 털링하고 떨어져서 떨어 지더라. 그걸 붙잡겠다고 좌우간 그걸 건지겠다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빠져 죽었대는 거라. [조사자: 쫓쫓쫓.]

그전에 우리 시엄니(시어머니) 꿈에 이게 이제 학교가 멀어서 이제 넘너골에 하숙집을 정해 놓고 학교를 댕겼는데, 이놈아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학교를 안 가고 그 하숙 할머니 보고 할머니,

“너 왜 학교 안 가니?”

하니까는,

“머리가 아픈 게 어제 꿈자리가 수송수한(뒤송송한) 게 이상하다고.”

그랬어.

“무슨 꿈을 꿨나?”

하니까난, 사당간이라는 데가 있거든. 조상들 모시는. 고기 인제 고성군이 조상들이 쪽 있는데, 그 사당간에 인제 그 인제 고성군수라고 옛날에 뭐 사모각대하고 아주 [조사자: 네네.] 그런 군수가, 군수 알지? 벼슬하는 데 나와가지고는. 그 옆에 인제 구록, 참다리 땡기 느라고 이제 구록들을 많이 매달아 놔시오. 그 구록을 짊어지고 가더니 자기 아버지를 안 들어 가겠다는 거를 억지로 팔아먹어가지고, 바다에, 강에 그 옆에 바닥에다 띄우더라 글썄. [조사자: 꿈에.] 꿈에. 근데 그 이튿날 알세나 꿈이 이렇게 나왔는데, 알세나 시골에서 머슴이,

“도련님, 도련님 업히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집에 나가보면 알거라고.”

해서 나가니까는 알세나 통곡을 하더라. 그때 삼대 과부가 살았거든. 시할머니 과부지, 시 어머니 과부지, 줌줌 어머니 과부지. 그래 어떻게 해? 꿈이 그렇게 험험 하더라요.

[동래구 설화 111]

개로 환생한 어머니의 세상 구경

조병담(여, 1925년생) 구술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온천1동경로당]

옛날 죽어서 개로 변하는 이제 조상님이 있었어. 뭐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죽었는데 개가 희안하게 그 아들만 그래 따라땡기고 너무 그랬어. 낭중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혼이 들렸다 이리더라(이렇게 하더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혼이 저렇게 개로 됐구나.”

해가지고 그 개를 끌고 조선팔도를 다 그 절, 절마당 다 땡기면서 구경시키고 낭중에는 그걸 갓다가(가져가) 해인사에다가. [조사자: 아아.] 해인사 있잖아? [조사자: 네네.] 거기다 열다가 묻었어. 그것도 무슨 전설이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조상이 그 개무덤이 있다’ 이리 된 거라.

[동래구 설화 112]

산적이 나타났던 만덕고개

박명환(남, 1945년생) 구술
2017년 2월 13일 채록
[온천2동 동원빌라경비실]

저기 이제 지금은 신 길이 새로 굴이 두나나(두 개) 뚫혀가 이리 있지만 전에는 없었어요. 길이 없어가 어디로 오나 하몬, 지금 현재 이리 내려오죠? [조사자: 네네. 만덕 이(2)터널, 일 (1). 이터널 일터널?] 아니, 아니고. 지금, 방금 요 길로 내려와가지고 이리 쪽 올라가면 금정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로 쪽 올라가면 도로가 나와요. 이렇게 쪽- 산 쪽으로 이 래가지고. 그 길이 옛날 구 도로예요.

여기에 인자 뿔이 있었노 하면 여기에 옛날에 산적들이 있었어요. 산적이 있었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산적이 그때만 해도 캄캄하니까, 산길을 이래 걸어가면 캄캄하다 아입니까? [조사자: 네네.] 캄캄하니까 이 옛날에 왜 중국 사람들 칼이 마 청룡도라 해가 이래 생긴 그 칼을 양철로 가지고, 옛날에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양철로 만들어노니까 별빛 곁은데(별빛 같은데) 이런데 번쩍번쩍하고 불이 표시가, 칼 끝이 표가 나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이리 넘어갈 때는 여러 명이 모이야, 한 그룹이 돼가 모여야 이 넘어가는 거라 만덕고개를. 근데 어짜다가 뭐 용감하게 혼자 가던 사람이 그게 마 그 물건도 뺏기고. 그때서야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곡식 아이몬. 그래 그런 거는 있어도. 그런 거는 전설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이라.

[동래구 설화 113]

자기 새끼 예뻐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김노미(여, 1933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나물 하던 얘기 하까? 내. [조사자: 예예.]

옛날에 우리가 인제 너이가 나물 하러 갔거든. 산골이라 참 깊으거든. 갔다가 오다가 이놈우 바우 밑에, 이 도랑물을 이래 물을 바우 밑에. 바우 우에서는 호랑이가 ‘영 영’ 커고, 우리는 그거를 모리고(모르고) 요 새끼로 이쁘다고 살살 만졌거든. 만지다보이 호랑이가 우에서러, 늘에서러 이래 이래 손을 치고 울어. 발로. 그래가 놀래가 보따리를 싹 다 놔놓고 왔부렀어요.

아침에 자고나야 문 앞마다 다 갖다 놔대. 자기 보따리를. 이거 거짓말 같지요? 우리가 그런 꼴에(꼴짜기에) 살았어. 꼴자기. 이 보따리로 마. 호랑이 새끼가 지 새끼 구경한다고 이 놈이가 웃었거든. 우리는 거 모르고 놀래서러 집에 달려오이께네 저녁에, 아침에 자고나야, 자기 집 앞마다 그 나물 보따리 다 갖다놔어. 신기해 호랑이. 거짓말 같지요?

[동래구 설화 11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두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스님이 시주를 가가지고, 시주를 가니께나 엄마가 아들로 좋다고,
“우리 아무개를 주까? 시주를 하까?”
이리 했는데. 그 스님이 가가지고 종을 맨드니까 종이 안 됐어. 안 돼서 인자 그 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그 인자 대중들이 그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께나 인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인자 가가지고 아를 델고 와서 종을 맨들었다고 안 합디까?
[청중: 종만 드는 데다 넣어가지고, 아를 넣어가지고 종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대. [조사자: 그래갖고 에밀레종.] 그래가 에밀레종이라고, [청중: 종이 에밀레 그래 한다 하대.]
엄마 땀에 인자 자기가 인자 그리 희생을 했다고 그래가 에밀레라 카는.

[동래구 설화 11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두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그 인자 아버지를 지계에다 지고 가가지고 인자 손주가 따라갔든가봐. 손자가. [청중: 저 끝에부터 하소.] 응? [청중: 끝에 하소.] 그러게.
손자가 따라갔는데 그 인자 그래도 고 어데 산에 가가지고 인자 할머니를 내려놓고 인자 아버지가 인자 지계를 내비리고 인자 오니까,

“아버지, 지게 저거로 가지고 가야 된다.”

고, 그카니까네,

“그래 왜 그러냐?”

쿵께네,

“아버지도 나이 많으면은 [청중: 칠십 되몬. (웃음)] 내가 저가 내빠야(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게가 필요하다.”

그래가 지게를 되래(다시) 가왔는데(가져왔는데), 아아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반성을 해가지고 엄마를 업고 왔다 안 하더냐? [청중: 도로 업고 왔다 하지 그지?]

그런 말이 있어. [조사자: 아이고 참 그지예.] 그래.

[동래구 설화 116]

도깨비와 싸운 사람

이두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 딸이 한 거리가 한 십리는 넘을 끼구만은, 한 이십 리 정도. 한 십 리정도 넘었는데, 그 중학을 땡겼어. 걸어서 걸어서 중학을 땡겼는데 [청중: 보통 이, 삼십 리는 걸어 땡기거든 학교를.]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이래가지고 인자 저 학교를 갔다가, 저 학교 갔다오니까, 중학생이니께는 좀 어득했어(어두웠어). 어득했어. 그래 들로 이리이리 내려오는데 무엇이 보릿대모자를 쓰고 아래우로 도포로 하얗이 입고 파란 재끼를(조끼를) 입고 이래가고 저저 두름을(두렁을) 타고 오더라 캐. 오더마는(오더니) 앞에 와서 탁 막후더라네(막더라네). 그래가 이 딸아가 서인데,

“아이고, 엄마야!”

카면서 주저앉아뻘어. 주저앉아뻘는데 나중에 본께는 안 보이더란다.

그래서 또 인자 걸어서 걸어서 산길로 산길로 이래 올라오는데 앞에 와서 또 그래. 그래가지고 하 또 그 해꼬지하는 그 사람만 자꾸 해꼬지를 하더라네. 그라면 인자 둘이서 그 아를 무엇이 하는 거를 보고 저거는 쫓아가서 막 불렸어. 인자 ‘오빠야!’ 쿠고, ‘엄마야!’ 쿠고 마 불렀는데 그 아가 뒤따라 왔어. 그거는 실화라. 따라와서러 인자 그래가지고 저저 그 아가 뒤에 와서 서더라네. 그래,

“니 우찌 왔노? 안 잦히고 우찌 왔노?”

쿵께네 마,

“한참 싸움을 하다본께 없어지더라. 없어지더라.”

이라네. 이라더란다. 그래가지고 인자 서이서 집에 왔는데, 안날[다음날] 아침에 서이서 학교를, 이리 걸어 산을 넘고 마 들을 넘고 이래 걸어서 가는데, 그 오니까 보릿대 모자가 하나 있더라네. 보릿대 모자가. 그래 그거를 저 아들이 주어다가 덤병, 옛날에 저 그 우물이 있었거든. 덤병이라고. [청중: 논 가에 덤병이 있었어. 물 댈 수 있는 곳.] 그래 그여다(그곳에) 주여빠리고(넣어버리고) 갔다 캐. 그래 그 확실히 그거는 저거가 줘온 일이라.

[청중: 시골에서 불을 떼면 빗자루 그거 있제? 그거이 깔고 앉아서 떼기도 하는데, 거기 그래 몸엿기(월경을 말함) 있으면 그냥 그걸 깔고 앉아서 묻고 하몬, 거기 그 빗자루 몽디에 그 뭐이 묻으면 그리 된다아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기 [청중: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 중학교 때 땡길 적에 그래 줘었어.

[조사자: 그 흘리면 몸이 안 좋지요? 도깨비한테 흘리면.] [청중: 우리 아버지는 참 장손이 썬데도 걸리가이고, 장손이 약한 사람 같으면 그날 저녁에 죽었을 거야. 그런데 장손이 세기 때민에 살아난 거라.] [조사자: 음-.]

[동래구 설화 117]

개로 환생한 어머니의 세상 구경

이두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저저 뭐꼬? 아들이 소자(효자)였던가봐. 소자였는데, 엄마가 이 살림을, 옛날에는 살림을 살면서로 저저 구경을 몬 했다아가? 만날 살림만 살고. 그래갖고 인자 엄마가 세상을 비렸는데(‘죽었다’는 뜻), 엄마를 갖다가 바지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딱- 짚어지고, [청중: 개를, 개가 저거 엄마 죽은 뉘이라 했어.] 그랬어요. [조사자: 그래갖고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땡기다가 어데 이 받쳐놓고 쉬는 동안에 거기 저저저 뵈이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거기 죽어서, 엄마가 죽어서 개가 됐다고.

[동래구 설화 118]

도깨비에 홀린 사람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 친정 부친이, 우리 집 하고 큰집하고 좀 이래 떨어져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사라. 그래 이제 친정 부친이 제사 지내러 오신다고 오셨는데, 오시는 도중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 쪼끔 이래 동네가 동떨어지고 그래 있었는데, 내가 큰집에서 인제 그때 어릴 때니까 열한 몇 살, 열 두 서너 살 먹었을 꺼라.

인제 음식을 낮으로, 낮에 다 해놓고 저녁에 이래 있으니까, 우리 친정 부친이 해소 기침이 좀 있었거든. 그래 기침소리가 나는 기라. 그렇더만 고만 조용해. 그래가이고 얼마를 있어도 안 오셔. 지금 같으면 한 두어 시간 지났을 꺼라. 그러니까 들어오시더라고, 막 온 몸에 땀이 탁 배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까 저기 아버지 기침소리가 나더마는 왜 인제 오세요?”

이라니까 막 뭐라 하는 기라.

“그렇거든 좀 나와보지.”

외딴집이라. 좀 나와보지 안 나와봤다고 되게 뭐라 하는 거라. 그래,

“아버지 왜 그러시는데요?”

하니까는, 도깨비한테 홀리가지고 어디까지 저게 인제 이래 길이 요래 있는 거 같은 요래 요는 학교고, 요는 농사짓는 논이야. 가을인데 정신없이 내려가가고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데, 발을 요래요래 해보니까 정신이 좀 돌아와 나락 핀 끄트레기 그기 발에 밟히더라 해. 그래서 ‘아차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인제, 자꾸 발로 더듬었어, 그는 그믐 되면 캄캄하이 옛날에 저기 전깃불도 없었잖아. 캄캄한데, 발로 더듬어서 논을 한 다래이(한 다랑이) 올라와도 또 그렇고. 그래 논을 한 서너 마지기 올라오니까 길이 나서더라 해. 그래 들어오니라고 시간이 이래 걸렸다고 이러더라고.

그러고 지났는데. 그 이튿날 지나고 그 하루 더 지내고 들으니까, 바로 그 들에서 어떤 옛날에 저게 시골에서 일꾼들, 남의 집 사는 일꾼들이 있었거든. 그 일꾼하는 사람이 점دم 서가이고(하루 종일 서서) 논을 갈고, 가서 술을 한 잔 먹고는 고마 도깨비한테 홀리 가버렸어. 그래가이고 거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동래구 설화 119]

귀신 소리를 들은 소금장사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그 저게 소금장사하는 사람이 소금을 지고 땡기다 땡기다 시골에 땡기면 여관도 없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 잘 데가, 인제 밤은 되고 그래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암만 생각해도 '묘 많은데 그런 데 가면 쟈 편하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 그래가이고 인제 쌍봉이 있는 묘 있는 데 찾아가가지고 복판에 이래 자다 보니까, 뭐가 시끄러이 하더라 해. 왜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제산데, 한 사람이 나오더마는 말 하는 기, 귀신이,

“가니까, 제산데 저그 싸움을 하고 지랄병을 해싸서, 그 제사를 속이 시끄러워서 못 먹고, 저게 작은아들집에 가니까 시래기국을 끓여가이고 먹고, 시래기죽을, 시래기죽을 끓여가이고 먹고 선반에 한 그릇 얹어논 거, 그거 그놈 먹고 왔다 하더라.”

이라더러네. 그래가이고 '아, 귀신이 참 밥을 먹으려 진짜 가기는 가겠구나. 그래 생각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동래구 설화 120]

목탁을 치는 소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우리 어데 절에 가니까 소가 세 마리 있어. 그런데 소 세 마리가 [청중: 내나 저저 사천에 있어.] 목탁을 치더라고 헛바닥으로. [조사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조사자: 저도 봤습니다.] 봤어요? [조사자: 예예.] 응. 그 스님이 하나 밑에 누웠다 하네. 그래 인제 조종을 하는 거라. 그러면 혀로 돌려가이고 딱 치고, 딱 치고. [청중: 우리 본계네 소가 세 바리가 있는데, 그 저저 사렘이 하나, 사렘이 하나 놓어가 있대.] 스님이 하나 누워가 있으면서 누가 오면 이래 건드리는가봐 하라고. [조사자: 음.] 혀로 어째 돌리니까 딱 딱 소리가 나더라고. [조사자: 소리가 영락 없더마는.] 맞아.

[동래구 설화 121]

개로 환생한 어머니의 세상 구경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매이로(지금처럼) 여행을 못 다녔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할마이가. 그래 살다 죽었는데, 죽어가 개가 됐는가봐. 그래 이제 어디 가서 물으니 까는, [청중1: 조상님이 개가 됐다고요?]

어마이가 죽어가 개가 됐는데, [청중2: 그집을, 옛날 집 지키라고 내려와논개로 집 지키라고 개가 됐지.] 그래 이제 그 죽은, 그 죽은 저 저세상의 임금을 뭐라 해요? [조사자: 옥황상제.]

옥황상제 앞에 가니까 어디 구경을 갔는가 묻드라 해. 그래,

“난 애들 델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데도 못 가봤다.”

고 이라니까 그래,

“당신은 그러믄 어디 가서 구경을 하고 오라”

고 함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내 보내빼렸어. 뭐 죽고난게는 육신이 없으니까는 어디가 붙을 때도 없잖애.

그래 꿈에 아들이 선물을 댔다 하지. 그래,

“내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개가 돼서 나왔다고. 너거 집에 지금 내가 있다”

고 이래니까는, 그 개를 어마이라고 업고 짊어지고 조선팔도, 그때는 조선이 여 한국이 팔도였대. 조선팔도를 다 땡기면서 구경을 시켰다 하네. 그래 시키가지고 그 사람이 효자라고 이름이 나고. 그래 그 소리만 들었지. 죽었다, 어째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어.

[동래구 설화 122]

복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업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 부잣집에서, 아주 부잔데 이제 그 집 진(지은) 집이 좀 높았든가봐. 높았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툭툭 털고 방에 앉아서 말 한 마디만 하면 아무도 꿈쩍을 못 하는 거라.

그리 한 날은 날이 충충한데, 비가 올라 그랬던지 가마이 앉아서, 사랑방에 앉아서 마당을 이래 내려다보니까, 쪼깨난 아가 마당 복판에 저 가를 뱅뱅 돌고 있더라네. 그게 그 집의 업이 었어. 업이었는데, [조사자: 아가?] 응.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 집이 재산이 망하더라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 복이라 그 업이. 그런데 업이 구렁이도 있고. 구렁이가 벌써

그 집이 안 좋으라 하면 나와서 설치는 거라.

[조사자: 아,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기, 그 사람 눈에만 보이네예.] 어. 그 사람 운이지. 그러니까 그 집이 잘 사는 거.

[동래구 설화 123]

오래 참다 꺾는 며느리의 방귀 힘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시골에 메느리를 봤는데, 이놈의 메느리가 만날 노래가(노랑게) 있더라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보다보다 못해서 며느릴 불러다놓고 물었어.

“니 얼굴이 맨날 노랑는데 왜 그런가?”

물으니까는,

“아버님, 죄송하지마는 제가 방구를 못 꺾어서 그렇습니다.”

이라더라네. 그래서,

“그럼 니 원대로 방구를 한 번 꺾봐라.”

이라니까,

“제가 방구를 끼면 집이 날라갑니다. 집이 날라, 집이 날라가서 그래 아버님은 저거 저 상지등을 잡고, 저거 신랑은 뭘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제가 방구를 한 번 끼볼게요.”

이라더라네. 그래서,

“그러면 니가 원이 그거고, 니가 얼굴이 그리 그란 게, 노란 게 없어진데면 한 번 해볼게.”

그래고는 인제 아바이하고 아들하고 그 상지등 하고 집안에 기등을 끌어안고 있는데, 메느리가 옆드리더라는 방구를 ‘퐁-’ 끼니까 마 집이 흔들리더라.

그래 시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며느리 가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에 가라.”

그카이, 그래 델꼬 가는데, 도중에 얼마마이 가니까 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주렁주렁주렁 열어가 있는데 높아서 못 따먹겠더라. 그러니까,

“아버님, 잠깐만 기다려보이소.”

하더만은 옆드리가이고 거다 대고 방구를 끼니까는 배가 막 우수수 떨어지더라네. 그래가,

“이 방구는 복 방구다.”

하면서 안 델다주고 도로 델고 왔다 하잖아.

옛날이야기 거짓인지 참이지 몰라도, [조사자: 옛날이야기는 거짓이라 하대예.] 거짓인지 참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동래구 설화 124]

삼천갑자 동방석이 잡힌 이유

정형순(여, 1937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삼천갑자 동방석이 솥을 씻다가 누가 지내가니까, 아무도 삼천갑자 동방석을 잡을라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못 잡았는데. 솥을 씻고 앉았다가 누가 지내, 누가 저 삼천갑자 동방석이 지내갔다니까 솥을 가 씻고 앉았더라. 해. 그래가이고,
“삼천 년을 살아도 솥이, 껌은 솥이 흰 솥이 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그래는 거라. 그래가 짹짹대요.

[동래구 설화 125]

문수보살이 점지한 어사 박문수

홍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인자 아주 부잣집에 인자 이래 사는데 아들이 없는 기라.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원해서 원해서 이래 하는데, 그래 인자 어느 스님이 한 분 가시다가 그 집에 저 할아버지로 만나가지고,

“그래, 그래 하지 말고 그래 저 가거들랑 오늘이 어느 장날이니까네 뭐를 갖다가 이 집을 보고 가서 팔아라.”

이러케 하는 기라.

“뭐를, 물건을 오늘 장야(장에) 가서 그거를 다 팔고 그래 주인을 보고 오라”

이카는 기라. 그카이, 그래 그 집이 암만 그래도 머슴하고 주인하고 그 물건 많은 거로 팔으러 장에 가 있어도 다 문 파는 기라. 문 파는데, 해가 컴컴하이 질라 카이 아주 문둥이

가 피가 철철철 흐르고 하는 그분이 와서러 인자 그 물건을 살라고 이래 하는 기라.

그래 하니까네 인제 그분이 주무실 때가 없는 기라. 그라이까네 아무도 다리고(데리고) 안 가는 기라. 그래서 인제 그 집에서러 그 분을 모시고 왔어. 거기 모시고 인자 이래 와서 잘 주무시고. 인자 대접해가 노자 해가 그래 드리고 가면시나(가면서),

“그래 만약에 내가 가고 나서러 이 집에 태기가 있고, 아기, 아들을 놓거들랑 문수라고 지아라. 문수라고 이름을 지아라.”

딱 그럭(그렇게) 하고 가시뵈는 기라. 그러니께네 이 사람들이 뜻을 모르는 기라. 그래놓은 께네 딴 사람들은 아무도 피고름이 철철 흐르는 분을 아무도 안 재아주는데, 이 집에서는 그 사랑방에 할아버지가 기꺼이 그 요자리를 패가지고(펴서) 주무시게 하고, 가시도록 이래 노자 꺼지 이래 드리놔놓으이, 그 인자 그 여사가, 가신 그 분이 가시면시는(가시며) 고래,

“만약에 태기가 있어가 아들로 놓거들랑 문수라고 이름을 지아라.”

이래 카더란다. 그래가 인자 참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태기가 있어가 아들을 놓았는데, 그래 인자 성은 박씨고. 문수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이, 그 피 고름 짙짙 흘린 사람이 문수보살 이라. [조사자: 아아.]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이 집에 어떻게 하나 그 시험을 해본다고, 그래 내가 이래 피고름을 흘리고 [조사자: 그래서 문수보살.] 어. 그래 문수. 그래 내가 이래 피고름을 흘리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나? 인자 그래가, 인자 그래노이, 거기 인자 문수가 돼가, 박문수가 거기 여사가 됐는 기라.

[동래구 설화 126]

정묘를 차지한 피 많은 딸

홍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정묘사가 거기 인자 본시 인자 정씨들, 저 정씨들 땅인데 그는 아주 명산이라. 명산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인자 아무도 못 쓰고 그래 이거는 정씨들이 그 해야 산수예(산소를) 쓴다 이랬는데.

그 집 딸이, 피가 많은 딸이 있었어. 정씨 집안 딸인데. 저 풍수가,

“저는(저곳은) 오늘 저녁에 달갈을 갖다, 갖다 물어놓으면 널 아침에 닭이 화를 치고 나올 꺼다.”

글썩는데, 이 사람이 저거 자기가 인자 ‘우리 시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여 물어야지.’ 카고 썩알, 썩알로 탁 물어놓으이 자고나이 화를 치나? 그래노이까네 명산이 아니다 이러케노이,

그 딸이 자기 시아버지 죽은 거로 거 다가 묻었어. 거 그렇게 명산이라 캐. 거 쓰가 거 썩은 알로 묻어놓으니 거 회를 치고 나올 수가 있나? 그래 거기 정묘사, 정묘사. 거래 거 정묘사 씨고 동래 정씨들이 얼마나 번창했노? [조사자: 그렇다데예, 그 땅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동래 정씨들 문으려는 도깨비들이 밤에 시체를 다 빼내는 거라예.]

응. 그 명산에는, 그래 저게 명산에는 자기의 망령에도 좀 복이 있어야 거 문힐 수가 있제 못 놓는 기라.

[동래구 설화 127]

활과 천리마의 대결

홍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그 옛날에는 그 천리마, 천리마. 저게 활을 쏘면 활이 먼저 오나? 말이 먼저 오나? 그런 게 있었는데. 천리마 그게 천리만데. 그래 인자 딱 시합을 했는 기라. 말이 저게 먼저 오나 활이 먼저 오나. 그래가지고 딱 그거로 쏘이까네 말이 먼저 와. 말이 먼저 왔는데도. 그 자세 히 모르겠다.

[조사자: 아 그래가지고 죽이고 나이께네. 화살이 그때서야 날아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화살이 그로 세상 저 뒤에 왔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이까네 화살이 뒤에 오더라 하더라. [조사자: 화살이 날아오더라.] 응. 그 다음에 말이 빨리 왔는 기라.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

[금정구 설화 1]

시집살이 이야기

구연자: 강두이(여, 72. 무학)

채집일: 1993. 7. 16.

채집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옛날 흠애비가 딸로 키와가 시집을 보내면서, 그래 귀머거리 삼년·버부리 삼년·봉사 삼년 석 삼년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라(살아라) 캐나놓이, 이게 옛날 사람이 돼놓이, 하도하도 어질고 순해가주고 시어마이가 뭐라 캐도 말도 안 하고 시아바이가 뭐라 캐도 말도 안 하고, 신랑은 보고 밤으로 말도 하고 이랬는데, 신랑은 복장만 앓고 이랬는데, 버부리라고 못 덧고(데리고) 산다고 인자 가매를 태와가 친정에 보내거든.

그래 근근이 고개 너머 오이까네, 보리밭에 콩(꿩)이 한 마리 펄 날라가이까네, 그래 각시가 시집을 못 살고 오이까네, 기가 찬다 아이가? 콩이 한 마리 날라 나오이까네, 그래,

“누런누런 보리밭에 펄펄 나는 저 콩 보소. 저 콩을 잡았으면, 꼭꼭 찢는 저 조당이는 우리 시어마이 주고 짚고, 싹싹 헤비는 저 발은 우리 시누부 주고 짚고, 턱 덮는 저 날개는 우리 시아바이 주고 짚고, 저 허연 가슴은 우리 신랑 주고 짚다.”

이래 카더란다. 그래 캐가, 그래 버부리 아이라고 다부 태와가 왔다. 태와 와가주고 그래 그러카이, 시어마이가 꼭꼭 찢는 조당이 그 뭐 먹을끼 있다고 날 줄라 카노 카며 시어마이가 이러썰이, 자꾸 신랑한테 입을가주고 쫓아가주고 말 못 하는 저거 못 델고 산다고 보내라 캐가 보냈다고 그래 쫓고, 말 못 한다고 살살 헤비고 시누부가 자꾸 발로 헤비싸이까네 그래 콩밭로 시누부 줄라 쫓다 카고, 그래 해도 날개로 턱 덮어 있는 시아바이는 날개가 턱 덮어 있다고 콩날개를 그래 시아바이를 줄라 쫓고, 신랑은 말하는 줄을 알아도 뭐 시집와서 말로 안 하이까네, 가슴만 앓고 있었거든. 그래놓이까네 가슴은 신랑을 주고 싶다고 쫓다 카고. 그래가 버부리가 아이라고 그래 인자 와가 살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3~164쪽.¹²⁾

12) 김승찬은 금정구 두구동과 금성동(산성마을)에서 현장조사를 한 설화와 민요를 엮어서 『금정구 변방 마을의 설화와 민요』로 편집한 바 있다. 이하 이를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이라 한다. 이 수고본에는 제목이 ‘쫓겨난 머느리’로 되어 있다.

[금정구 설화 2]

쫓겨난 며느리

구연자: 이용약(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한 처이가 시집을 가는데, 저그 어무이가,
“우짜든동 니가 눈 어둡아 석 삼년, 귀 어둡아 석 삼년, 버버리 석 삼년을 살아야 시집을
옳기 산다.”

카거든.

그래 참 시집가서 뭐 봐도 안 본겜고 말을 안 하고 이라거든.

이라이 버버리(병어리)라고 저그 집에 보내라 카거든. 보내는데 신랭이 텃고 간다. 그래 한
고개 넘어가이, 까마구가 까약까약 짓으인까네.

“가리가리 갈가마구 깎는 줄은 알건마는, 내 속을 와 모르노? 나는 말도 천지이건마는 할
말을 못하고, 날로 버버리라고 날로 쫓는다.”

이래 카이, 그래 신랭이 다부 텃고 가 잘 살더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

스님과 상좌

구연자: 강두이(여, 72)

채집일: 1993. 7. 16.

채집장소: 금정구 두구동 죽전마을

스님이 상좌를 텃고, 한 사월 달이나 됐던가, 어데 불사하러 간다고 슬슬 가인까네, 앞에
좋은 색시가 하나 가는데, 해가 다 저가는데, 색시를 보고 말로 한분 걸어볼까 하는데, 다시
(도무지) 말이 안 나와.

그래 색시가 한 곳에 가디마는, 짚뽕까리 옆에 거다가 (거기에다가) 오줌을 누고 가는데,
그래 스님이 오줌 눈 데, 해나(혹시나) 뭐 흘렸는가 본께네, 오줌 눈 데, 짚에, 거(거기에)
오줌발이 흘렸거든. 스님이 짚을 주와가지고, 스님이 돌아서가지고 꼬치에 살살 감으이까네.

상좌가 이래 내리다 보면서,

“스님! 스님! 감고 남거들랑 내 좀 주이소.”

이래 카거든. 그래 카인까네,

“땡지 이놈의 자숙, 나도 모지래 가지고 드문드문 감는데, 니 즐기 어디 있노?”

카더란다. [웃음] 놀로가문 우스운 이야기도, 희안한 이야기도 다 있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4~175쪽.

** 김승찬, 『육담과 해학담』, 도서출판 양업서원, 2017, 60쪽. 제목은 ‘여자의 오줌 묻은 지푸라기와 스님’임.

[금정구 설화 4]

매미 전설

구연자: 강두이(여, 72. 무학)

채집일: 1993. 7. 16.

채집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옛날에 부부가 사는데, 집은 가난한데, 남편은 내 글공부한다고 만날 옆드리가 있고, 마느래는 쟁피를 훑어가 와서 말리고 이라는데, 하리는 비가 오는데, 집에 와 보이 쟁피가 빗물에 떠내려 가도 남편이 글공부만 하거든.

그래 마느래가 어데 떠 데로 살러갔던 모양이라. 그런데, 전 남편은 글공부를 해가지고 과거해가지고 말로 타고 가면서 보이, 전에 마느래가 쟁피를 훑고 있거든. 그래 전 남편이,

“저 건너 저 아줌마는 훑던 쟁피를 다시 훑네.”

카며 노래하고 가이까네, 마느래가 보이, 저그 옛날 서방이거든. 그래

“당신네 집에 가서 말죽이나 끓이주고 소죽이나 끓이주고, 그래 당신따라 내 갈란다.”

카인까네,

“올라 카거들랑 물 한동이 이고, 나막신 신고, 말뽕땡이 붙잡고, 따라 오라.”

카거든. 그래 물 한동이 이고, 나막신, 비 올 때 신는 거 높으다 아이가? 나무신 신고, 말뽕땡이 잡고, 따라갈라 카이 따라가지나. 가다가 옆어지가 죽었다. 죽어가지고 그기(그것이) 매래미가 돼가 ‘멤멤’운다 아이가?

“니가 과거를 하면 ‘매냥’하나.”

카고 ‘매얌 매얌’하고 그래 울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3~164쪽.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목이 ‘매미 유래 이야기’임.

[김정구 설화 5]

뱀 이야기

구연자: 강두이(여, 72. 무학)

채집일: 1993. 7. 16.

채집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저그 어매가 죽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이래 사는데, 누나를 갖다가 고 앞에 마실에다 치아놓고, 지는 엄마도 없고 누나도 시집가고, 이래 가지고 쪼갠 암자를 하나 지아놓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래 사는데, 한날은 가을에 배추를 절 앞에다 송가가(심어가) 뽑아 낫으로 딱딱 치 인까네, 뱀이 하나 낫에 딱 걸리가 쳐지더란다.

그래 이 사람도 살라 카이, 도사가 되이, 그런기 보였는지, 뱀이에서 안개가 사알 나가디마는 저그 누나 집으로 소울 드가거든. ‘이아고 저 뱀이가 낫 원수 갓을라고 저래 하는갑다.’생각 하고 몇 달 있으인까네 저그 누나가 알라를 가졌다 캐. 그래 놓으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 저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누나! 후제 알라를 놓거들랑 누나하고, 요번에 낳은 아들을 날로 달라.”

고 그래 카인까네, 그래 참 저그 누나가 아를 너덧살 먹도록 키아가 동생을 조윽거든(주윽 거든). 그래 동생이 더불다가(데려다가) 절에서 그 아를 키았어, 한 열 몇 살 묵도록.

그 스님은 지가 뱀이 대가리를 탁 쳤으인까네, 뱀이 지로(자기를) 원수를 갓을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내 살피인까네, 그래 한날은 학교 갔다 오디마는 ‘외삼촌 갔다옵니더’카도 안하고, 저쪽으로 가디(가더니), 칼로 쓱쓱 갈아쌍거든. 칼로 쓱쓱 갈아쌍는데, 그래 ‘아이고 올 때가 왔는갑다.’싫어가지고 법당에서 딱 사람겉이 요래 기리가지고, 머리 맨들고 손 맨들고 이래가지고 법당에 눕히 놓고 법당 침상 밑에 가서 딱 보인까네,

“이놈이 어데 갔노?”

카면서 찾아쌍디마는,

“별씨로(별씨) 자구나.”

카고, 칼로 가지고 목을 탁 치거든. 그래 쳐 놓고는 뱀이도 지 원수를 갓았으이, 뱀이 화성을 해가 갈 거 아이가? 그래놓고, 학생이 자물싯다 아이가? 저그 외삼촌이 침상 밑에서 나와가지고 아를 깨비인까네, 아가 깨서,

“외삼촌 내가 어째 돼서 이렇느냐?”

고 물어. 그라이 아 몸에서 뱀이 나와서 가고, 아는 완전히 화성을 벗었다 말이다. 남동생은 아를 뱀의 짐승을 벗기고 해가, 그래 저그 누나 집으로 돌려 주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6~177쪽.

[금정구 설화 6]

스님을 승천시킨 상좌

구연자: 박무성(여, 71. 무학)

채집일: 1993. 7. 22.

채집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옛날에는 심심산곡에, 걸어가 몇 십리를 걸어가 심심산곡에 더 가문 쪼끄만크로 오마놓고 요런 절이 많거든. 이런 절이 많은데, 그래 이 절은 이름이 있던 절인가봐. 큰 절인데, 그 스님, 지주 스님이 욕심이 상당히 많아. 욕심이 많애가지고 상좌(상좌) 하나 들놓는데, 이 애가 저그 집이 어찌 못 묵고 살아가지고, 봄 되믄 쑥 뿌리·참이 뿌리·송기 소나무 껍디기 벗기가지고, 보리쌀도 아이고 보리를 껍데기채로 뽕사가지고 쪼깨씩 열어 죽을 짬이 묵고 이라인께, 그 중에 또 계모라. 이 계모가 한단 말이,

“식구가 많으니까네 자숙들을 좀 내 흘쳐뿌라.”

카거든. 흘쳐뿌라 카이, 아버지는 안 그렇다 아이가? 엄마 없는 것도 불쌍하는데, 그 아들 내보넬라 카이 참 마음이 씨라리고 아리구마는. 할마이 말로 안 들어믄 집 구석이 또 안 되는기라. 저 여자가 내조를 하이까.

그래 할 수 없어서, 일곱살 묵는 거로 아무데 그 절에 가므는 상좌(상좌)를 구한다 카는데, 그 절로 가거라. 이래가 그 아바이가 그 절 중턱머지꺼정 절 짬이는 정도까지 데러갔는기라. 데러가가지고, 그래,

“저 절에 올라가며는, 처음에는 나무도 해 다 나르고, 불도 때고, 마리(마루) 청소도 하고 이래 시킬기다. 시키더라 캐도 할 줄 몰라도 물어가미 하고”

이래 아바이가 가르치가지고 올리 보내 놓고, 아바이는 저 아 안 듣는 데쯤 내려와 울고 돌아왔는데, 이 애가 대인이라. 그래 거(거지) 스님이 어찌 욕심이 많아 동네마중 하주(화주)한테 가서 열매 줄라 캐라? 아무데 가서 열매 줄라 캐라? 자꾸 이라거든. 그 아가 한단 말이가,

“아이구! 스님 공도 안 디리고, 우리 묵고 사는 것도 풍족하는데, 그렇기 자꾸 욕심만 부리까 됩니까?”

이래 카이까네, 그 스님이 매차리를 들고시는

“큰 스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어문(엉뚱한) 소리한다”

고 대기 호통을 치거든. 호통을 치이까네 그러나 저러나 저그 집에서는 못 묵고 살아 아버지 타이르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아브지 말을 거역할 수 있는냐? 이래 가지고 거 가서 일터로 (이를테면) 오새(요사이) 한 십만 원쯤 요구를 했는 거 같은 한 만 원쯤 요구를 했는기라.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이래 하이까네, 만원 가 온 사람 만원 가 오고, 만원 더 가 온 사람 더 가 오고 이라는데, 그러구로 세월이 흘러이끼네, 야가 열일곱 살 딱 묵었거든.

그래 십 년 채 안 나는 가배. 그래 시님이 뭐 어데 보살 어떻게 어떻게 이래 비판을 하고 자꾸 뭐 권신(권선)을 해 오라 카고 이래쌓이,

“시님! 나는 그런 짓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래 앉아서 농군들이 피땀 흘리가지고 농사를 지아가지고 절에 권신하는 거 자기 성의로 가 오는 거 거기 성심이고 정신인데, 앉아서 노력도 안 해 주고 왜 무리한 부탁을 하느냐?”

아가 이래 카거든. 이래 카йка 시님이 가만이 보이 ‘저 녀(놈)이 소인이 아이구나, 대인이구나. 저 녀은 우리 절에 오래 놔 뒀다가는 내가 생목숨 죽겠다’카는 그런 생각이 드는기라, 시님이. 아가 생목숨을 안 직일긴데. 그래 내 쫓는기라. 그 절에 십 년을 있었으이 바랑이 있고, 권신하러 댕기이꺼네 바랑도 있고, 목에 거는 염줄도 있고, 팔(팔)에 거는 단줄도 있고, 나무 바가지, 바랫대 그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 바랫대하고 바랑집하고 전부 지꺼(자기것) 소지품을 딱 내주미(주면서)

“나가라.”

카거든. 그래 할 수 없어서, 도리 없어서, 내가 허욕을 저마치 지기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나도 하나 배울 것 없고 내 갈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 어데라꼬 심심산곡 들어가이꺼네, 쪼끄마한 외통집에 방 하나 부처님만 딱 모셔놓고 비이가 있거든. 거 들어갔는기라. 거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자기가 가야 간 거 없어도, 권신해가지고 부처님 마지 고양(供養)을 지아 올리놓고,

“부처님 우짜든동 모든 중생을 금생에 이 중생들 모리는 거는 깨우쳐 주고, 병든 자는 즉석 쾌차를 시켜주고, 그래 자숙 없는 무지 중생은 자숙을 마련해 주시고, 나라 편하구로 국태민안해 줄라.”

꼬, 내(계속) 이렇기 빌거든. 가아는(그 아이는) 고양 지을 거 없이므는 천수 물이라도 깨끗이 자기 목욕 싹 하고, 물로갓다 닻(독)에 딱 뜨다가 부처님 앞에 바치 놓고, 절로 하고 이라거든. 이라는 데, 그러구로 그러구로 한 오 년 된께네,

“자숙 없는 사람이 아무데 절에, 암자에 그 산세가 참 좋는데, 거게 가서 불공을 하면 아들을 놓을기다.”

모두 다 이래쌓거든. 그래 쌓이꺼네, 그래 거기 사람이 절이 비가 있다 카는 소릴 듣고서 갔는데, 가이꺼네 수자가 하나 있는기라. 시님이 있어서러,

“시님! 나는 다른 소원이 아이고, 자숙이 없어서 자숙을 하나 부처님한테 태 줄라고 왔습니다.” 이칸께로,

“그래요? 그러머는 찬물에 가 목욕재계하고 그래 와서 비라.”

카거든.

“염불은 내가 할끼이꺼네 지극 지성 내 마음 속에만 ‘날로 아들로 씨로 하나 주시이소’카고 그래 자꾸 절로 하라.”

카거든. 옛날에는 강목, 옥양목, 조선 베, 손을 짜가지고, 그런 버선을 신고 가가지고 절로 하구, 종일 절로 하고 나이, 버선 요 코가 닳가가지고 다 빠졌는 기라.

그래 공을 디리고, 그래 그 사람이 공 디리러 올 때, 쌀을 한 되를 가져왔는기라. 가져왔는 걸 고양이 지아 올리놓고, 천수를 갈아 놓고, 그 부인은 인자 절로 내 내 하고 나이까네, 해가 다 저가이 그 시님이 이래 카거든.

“백일 동안으로 이 절에 와서, 오늘과 같이, 가 올 기 없으은 안 가 와도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까, 마음만 가지고 와서 목욕재계하고 천수 고양이 올리놓고, 그래 정신을 드리라. 그래 드리므는 내가 부처님한테 목탁 두디리고 빌어 즐기이꺼네 그래 하라.”

이카거든. 그래 그 부인이 석 달 열흘 동안으로, 백일이 아인가배? 그래 한 일 주일 있다가 가고, 일 주일 있다가 가고, 내 백일 동안 기도를 했는기라.

기도를 하고 나이까네, 그래 백일동안 기도를 하며는, 신랑이 있어도 내우간에 접촉을 안 하고 그만(거기에만) 일단 정신을 채리가 이랬는데, 백일 끝나고 오니까, 절하기 얼마나 되노(힘더노)? 피곤하노?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기가 가당찮이 되거든. 그래 곤해가지고 누워 잠이 곤히 들어가 있어까네, 그래 신랑이 부인한테 접촉을 하는기라.

그래 그 달부터 태기가 들었는기라. 태기가 들었는데, 열달 배슬라 놓으이 아들인기라. 그래 아들인데, 앞가심에 크다란 사마구가 하나 찍히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복두칠성이, 별이, 별매치로 사마구가 까만 기가 똑 지정(기장) 알 만씩한 기가(만한 것이) 일곱날이 지어가 있거든. 천상에서 점지했는 애라 카는 표적인기라. 그래 여러 사램이,

“아이구 그 집에 그 자숙 못 낳아 그렇기 애를 씨쌍디마 는 아무데 그 산에 가서 수자 시님이 빌어가지고 백일 정신을 디리고 아들로 낳았단다.”

카이, 요새는 테레비가 있어서 서울 한 일도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육로를 걸어 땡기꺼네, 차츰차츰 소문이 나고 이래가, 여러 사람이 공을 디리가주고 자숙을 다 낳았는기라. 놓고 이랬는데.

하리는 가마이 앉아가지고 있으이꺼네, 제일 첨 먼저 갔던 그 시님이 죽었는기라. 허욕 많이 하던 그 시님이 죽었는데, 가마이 생각해 보이, ‘내가 일곱 살 묵어서 그 절에 가가주고 십 년으로 있었는데, 시님이 어떤 말로 했더라 캐도, 십 년만 지내면 강산도 변한다 카는데 그 이연(인연)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그 시님이 지금 구리가 돼가 있는데, 그 허물로 뱃기가 주고 저승으로 보내야 안 되겠나?’ 이래 카민시러 바랑 딱 짚어지고시는 그 절로 갔는기라. 그 절로 가니꺼네, 전자에 있던 상재들도 있는 사람은 있고, 또 탄 데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데, 그 있던 사람이

“아이고! 이 절에서 일곱 살 묵어 오가주고 열일곱 살에 간 시님이다.”

이래 카거든. 그래 인사를 하고, 구일장을 하는 기라. 아흐레 장사를 하는데, 모두 각처 화주들한테 부우(부고)로 공문을 띄어 놓고, 이래 있는데, 그래 내일이면 출상할 날인기라. 출상할 날인데, 그래 시님이 한단 말이가 [사래나무라 카은 자네들은 모를꺼다. 사래나무라꼬 잘 안 뽀사지는 기 있거든. 산에 가문, 칠월달에 꽃이 피아가주고 쪼로록 커 올라가는 사래나무.]

“사래나무(싸리나무)를 갖다 깎단 두 단을 해 오라.”

카는기라. 그래 두 단을 해오라 카이까네, 탄 시님이 또 탄 시님을 보내가주고 두 단하고,

그래 정제(부억에) 고양주를 불러가지고 풀(밭)죽을 한솔 짚이라 카는기라. 풀을 한 서너 되 넣어가지고, 폭 삶아가주고, 걸러가지고, 죽 한 동우 될 만큼 쌀로 조금 옹고, 뽕뽕하구로 짚이가주고, 그래 그 스님이 어찌 이 상재 나가고 나서, 참 허욕을 지기가지고 탄 사람 많이 시이가(시켜서) 십만 원 가져오라 칸 데 십만 원 가져오고 이라인꺼네, 곡도장(穀庫)도 있고, 작은 도장도 있고, 논도 사가지고 탄 데 많이 있고 이렇커든. 그래 풀죽을 다 짚있다 카이까네 동우에다 퍼라 카거든. 그래 사기동우에다 퍼 가주고 큰 곡도장 그 복판에 갖다 놓으라 카거든. 그래 갖다 놓고 있이까네, 곡도장이꺼네 뭇이 항상 많이 들어 있이까네, 항상 잠구거든. 잠구는데, 그래 잠가 놓고 있이까네, 그래 이 시님이 이튿날 출상하는 날인데, 신체를 들어낼 거 아인가배? 꺾으로 들어 내는데, 그래 그 스님이 사래나무 회차리 그거로 두 단을 양쪽에 끼고 딱 나오디마는,

“곡도장 문을 열라.”

카이까네, 그래 섯대 가 있는 사람이 와서 도장 문을 똑 끼룬다 말이다. 끼루이까네 풀죽 이 하나도 없어. 한 동이 있던 기 없어. 그래 이 시님이 양쪽 손에다 깃던 거로, 왼쪽 손에다가 두 단을 딱 끼고서는, 빼가 들고시는 풀죽 놔논 땅을 딱 치민시는 시님을 부르거든. 무슨 시님 나오시라고 호통을 치거든. 호통을 치이까네, 구리가 나오거든. 거기 시님 죽은 혼령이 거든. 그만치 허욕을 많이 했으이까. 그래, 시님 이름을 부르민시러, 구리가 나타나이,

“가자.”

카는 기라. 가자 카이 앞으로 가거든. 가는데, 나무똥구리걸이 꾸물꾸물 가는데, 깃단 두 단 회차리 거기 뿌사지도록 때리는 기라, 그 구리로. 뿌사지민 내빼리고, 또 한 개 빼가지고 뚜드리 패거든. 그래 패고 패고 해서러 사래나무가 하나가 딱 남았는기라. 하나가 남았는데, 질로 이수로 치면 한 삼십 리 정도 심심산곡에 들어 갔는기라. 그런데 천동을 하는기라, 하늘에서. 노성백락이 와당탕거리는데, 그 우에 보이 맞보고 있는 큰 바우가 있는데, 이 바우가 딱 벌어진께네 그 속으로 쑥 들어가고, 무지개가 버쩍 서는기라. 천상에 득천을 했는 기라. 그래 그 시님을 누명을 벗기가, 그래 환성(還生)을 시켜 주더래요. 지끔이라도 절에 가문 제하고 이랄 때 풀죽을 짚이는 거는 죄를 사하라 카는 때문에 풀죽을 짚이는 기라.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7~182쪽.

[금정구 설화 기

지략 많은 제자

구연자: 도광수(남, 87.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이전에 이 서재(書齋)가 지금 학교라. 요 중년에 우리나라를 왜놈한테 뺏기고 나서 학교라 카는기 생겼지. 전에는 그한다 캐야 한문 이거 서재 이거뿐이거든. 이것뿐인데, 전에는 인자 과객(過客)이라고 못 살아가 땡기는 사람치고 무식한 사람은 없었지. 다 그 사람 글이 선뵈데 (선비인데), 마 살림이 빈곤해가 모양 없이 그해가, 그 얻어묵기로 탄 데는 얻어묵도 못 하고 똑 서재에 땡기면설랑 찾아가면 그리 팔시(팔세)를 못 하고. 그런데, 그런 과객에 한 접쟁이 있었거든. 그 접쟁이 시기기로 밑에 제자들한테,

“오늘 저녁에 밥을갓다가 오늘 저녁에 니가 해라. 내일 아직(아침)에는 누가 해라.”

그래 돌림밤을 시기가주고, 그래 묵고 땡기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 인자 과객이 하나 그래 한 서재에 있다가, 지(자기)도 오래 있다가 보인까네, 아들(아이들) 보기도 미안코, 이래 가주고, 막 탄 데로 자리를 땡겼어(옮겼어).

어느 마실(마을)을 이래 뵙 도이까네, 그 어느 거가(巨家)서 집을 지아가지고, 깨끗하이 해 놓고 착실히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그집에 딱 찾으이까네, 그 집 주인이 하필 있어요. 그래,

“내가 이래 살기가 어렵어가지고 이래 과객질로 하고 땡긴다.”

고 이려 카인까네, 그래 그 영감님이 주인님이 하기를,

“우리 집에 열라가 쪼깨는 기 하나 있는데, 저거 글 갈치고(가르치고) 우리집 사랑채 당산 누워잘 사랑도 있고 만장걸으인까네, 우리집에 내캉 친구 삼아 있어라.”

고 이려카거든. 그 팔자 곤찻단 말이다.

그래 이래 있으이, 그래 글로 갈치고 있으이, 야(이 아이)가 재주가 있기로 한도 없이 있고, 재미가 있다 말이다. 여계 오래 있으이, 그래 야가 좋은 데 글로 배우고 몇해 있다가 하이까, 선생 접장 어른라고 지하고, 제자하고 선생하고 장이(매우) 만만해졌단 말이야. 만만해졌는데, 야가 한단 말이,

“접장 어른 혼차 이래 계시는 걸 보이까네, 영 내가 보기가 안 됐다고. 안 됐는데, 어째 장개를 안 갈라느냐?”

이가라.

“장개 갈 형편이 되나?”

그래도 속은 공심이 있네.

“그래 내가 장개 갈 형편이 되나? 지금 이 모양으 날로 보고 누가 딸로 줄 사람 있으며…….”

사실 이야기로 그 제자한테 했거든.

“당신이 장개만 갈라고 카며는, 내가 소개는 내가 해 드리겠다.”

이기라. 그 은근히 공심으로, 그 장개 가고 싶은 생객이 있어.

“그래 보라.”

고, 이래 했다 말이다. 그래 인자 저그 집에 저가부지 몸종이가 둘이가 있거든, 몸종이. 그때 다 밥술이나 먹고 지낼 만하다 카문, 몸종이 다 그래 있거든. 그래 있는데, 그래 인자 접장한테 간다.

“당신, 우리 아버지 지금 종이 둘이가 있는데, 큰 기 있고 작은 기 있는데, 큰 기 마음에 드는기요? 작은 기 마음에 드는기요?”

묻는다. 이 사람 마음에는 다 아무끼나 좋구마는.

“큰 걸 마음에 택하소. 택하든 내가 그래 알아서 중신을 하겠습니더.”

이래.

“그래, 음.”

그래 그럼 장개로 저놈한테 갈라고 했다. 해놓니.

“넬(내일) 아직(아침)에, 아직을 퍼가주고 집에 아버지 상을 채릴 때, 수저를갓다 내가 어델 갓다 숨카(숨겨) 놓을끼(놓을게), 밥 담아 퍼덩거리(퍼담고 해)쌍을 때, 그 아부이 몸종한테 내가 아릿방에 접쟁이가 뭐를 많이 아는데, 거 가 한 번 물어보라고. 말하자면 점바치다. 거 한번 물어보라고 보낼끼까네, 그래 알아서 점을 치라.”

“그래 물건 네 어데 갓다 영는고(넣는가)?”

물어보이까네.

“어데 갓다가 아무데 아무데 갓다 영어 놓를끼까네, 고래 당신이 알라.”

고 마추아가(말맞춰) 하는 그기야 안 되겠나?

그래 몸종이 아직(아침) 상을 퍼가주고 인자 수저를 놓을라꼬 보이, 엇저녁에 딱 갓다 수저한테(한곳예) 놔는 수저가 없네.

“아, 희한하다.”

기이(기가) 찬다. 양반의 집안에 어쨌기나 조심없이 어른의 수저가 없으면, 기가 찬다 말이야. 그래 이놈아가 지가 시기놓고, 또 거 가가, 그래 가가지고,

“뭐, 온아직(오늘 아침)에는 뭐하는냐?”

고, 정지에 썰 갔거든.

“엇저녁에 여게 갓다, 저녁 자시고 다 수저를 갓다, 셋님(주인님) 수저를갓다 간이해(갈무리 해)났는데, 지금 상을 채릴라 카이까네 수저가 없다.”

고 이래 얘기를 해. 그래,

“아, 그렇거든랑, 저 아릿방에 날 글 갈치고 있는 접장 어른이가 뭘 그런 걸 많이 아는데, 거 가 함(한 번) 문의를 해보라.”

고 이리 했거든. 그러이, 저놈하고 지 접장하고 다 마추어 놓은 언액(言約)이 있거든, 수저를 갓다 어데 갓다 딱 해 놔을기라는. 그래 가서 물으이까네, 그 접쟁이 하기로,

“돌오라(들어오라).”

고 이러 카더이마는, 그래 뭐 뭐 손가락 꾸불치고(구부리고) 뭐 아는 체 지랄하고 그래쌍아. 하더이,

“그 수저가 아무데 담 굽게(구멍에), 담 밑에 있다. 거 가 함 찾아 보라.”

고 이래. 거 참 뒤비이 그거 나와. 검마가(그놈이) 해놓고 그래 시기거든. 그래 이제 찾았다. 그래 인자 그날 아직에는 그해가주고 말쌍(말쌍)없이 잘 해졌는데. 고 뒤에 또,

“내가 니일이는(내일에는) 아부임(아버님) [설명하며: 저 매고 대이는(다니는) 띠라고, 저 허리, 웃웃 우에, 도포 우에 매는 띠가 있다.] 띠를 갖다가, 내가 어데 갖다 간이(갈무리)를 해 놓을끼까네, 어데다 놔 둘끼까네, 그것도 점하로 오거들랑, 그래 띠를 갈치(가르쳐) 주라고. 아무디 아무디 있으이까네.”

그래 또 그날 아직에, 아직을 자시고 지금 어디 행교(鄕校)에 출입을 할라 하이, 웃은 도포는 있는데, 매는 띠가 없다 말이라. 없어서 하(대단히) 걱정 무수히 하고 지금 야단이 날끼거든. 아죽(아직) 셋님한테 없다 말은 안 했는데, 걱정이 태산겘다 말이다. 그래,

“먼저도 와(왜) 안 그렇더냐? 그 밑에 접장한테 가가, 접장 어른한테 함 물어보라.”

고 이라카이까, 그래. 그 접장 어른이,

“뭘 똑 바쁜 일 있으믄 똑 내한테 와가 묻고, 나는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믄 올키(올게) 안 들어 즐끼고.”

카며, 그래 색시를 ‘들오라’고 해가지고, 저그꺼지(자기들 끼리) 작란을 함 했어요. 그라고 나서는 내우간(內外間)이 안 됐다. 셋님 멀리(몰래) 서리(서로) 내우간이 됐거든. 그래 인자 도복(도포) 띠를 찾아가지고 그 해가주고 매고 나갔다. 그래 이 어른이가 그거로 뭐 그렇다고 접쟁이 그마이(그만큼) 안다 커는 걸갖다가, 그 정지 몸종이 얘기로 해가지고 셋님이 알고, 저 행교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번식(繁殖)을 시깃네.

“우리 집에 있는 몸종 둘이, 어느 큰 몸종이가 아는 기 많고, 그렇기 그하다.”

고 이얘기를 했네. 이얘기를 해놓이까, 이기 차차 이얘기가 별머가지고(퍼져서), 이얘기가 별머가지고. 그 언비천리(言飛千里)라 카는 기 그래가 별머나가는기라. 서울 가셔도 서울꺼정 통과가 되고, 그 말쌍이 대국(大國)꺼정 말이 별머갔단 말이다. 그때는 대국이 큰집이고 우리 한국이 작은 집인데.

그래 인자 대국서 천자(天子)님이 옥새를 잃어뿌리믄 안 된다. 옥새라 카는 거. 자기 앉인 자리에 옥새 그거를 거머줘야 그 임금질을 하지 옥새를 누구나 자기가 자리를 비워뿌고 옥새를 탄 사람이 거머쥐믄 그 사람이 임금질하지, 지는 임금질할 자격이 없어요, 옥새를 탄 사람한테 뺏기뿌믄.

이런데, 하리(하루)는 대국 천자님이 자다가 보인까네, 옥새가 없어요. 아 크기(크게) 노탄(怒嘆)을 하고 걱정을 한도 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기중(其中)에, 조선서, 조선 나라가 나라는 적어도, 그런 이인(異人)이 난다 소문은 났거든. 났는데, 그런 뜰꼬지(피똥어 아는 이) 곁이 많이 아는 이인이 있다고 소문이 대국 천자님한테 말이 듣기 왔단 말이다. 그래 그 천자가 사신을 불렀거든. 그때는 대국 가는 사신이라 이랬거든. 그래가 잃어뿌 곁 잘 찾아 주고, 또 뭐 아픈 데를 이원(의원)이면 잘 곤치(고쳐) 주고 이래야 무사히 돌아오지, 못 그해 주는 죽이뿌거든, 그 자리에. 직이뿌는 기거든.

그래 인자 사신을 가게 됐네. 그 대국 천자가 조선에 그런 이인이 있다 카니까네, 지금 옥새를 잃어뵈었는데, 이것 좀 찾도록, 말하자면 초대를 했던 말이다. 한국에다 초대를 했어. 그래 인자 대국을 갔다. 사신을 가야 될 형편인데. 그 셋님한테 아들 외동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내가 요번에 대국 사신을 가문, 저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카이, 저그 셋님이 천불사 만불사라(천부당 만부당이라).

“길이 그 어딘데. 길이 수만 리 수천 리 넘는데, 그걸 데려간단 말이가?”

이놈아도 저가배한테 그러 칸다.

“아부지 걱정하지 마소. 내가 접장 어른캉 같이 갔다 땡기와야지, 내가 접장 어른만 혼자 보내가 안 되겠다.”

고 이래. 지가 갈라 카이, 어린 기라도 저가밴들(자기 아버지인들) 어떻게 하겠노? 그래 딸리 보냈거든. 딸리가 가도록 했다. 가기로 할 때, 저가부지 몸종 큰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저가부지는 모르지마는 실지(實際)는 지금 서로 내우간이 돼가 살거든. 내우간이 돼 사는데, 그래 약속을 했다.

“우리가 지금 사신을 받아서 제자캉 선생캉 아뭇날 떠나니까네, 떠나고나서 대국 가가지고 아뭇날 저녁에 열 두 시에 딱 [설명하며: 집에, 다 부잣집 그전에 지낼 만하문, 개모(家廟)라 카는기 있구마는. 개모라 카문, 웃대어른들 신(神)을 모신 개모라 카는 사당이(祠堂) 있거든.] 열 두 시 정각 열 두 시 돼가지고, 그 개모에 불로 질러뿌라.”

고, 그 여자한테. 그 저가부지 몸종 큰 종한테 부탁을 해놓고. 그 내우간에 수책이(수작이) 그래 돼 있다 말이다. 그 아는(알고 있는) 저놈아가, 아(아이)가 전부 기안(起案)을 틀거든.

그래 대국으로 갔다. 한 메칠 이력저력 머물다가 가니까네, 저 대국서 옥새 갖다 숨꾼(숨긴) 놈들이가 장(늘) 나와가 밤에 순탐(巡探)을 하네. ‘그래 조선서 이래 이인이 왔다 카이, 이기 어찌 된 사실가? 이기 헛소래가?’ 이래 장 순탐을 하거든.

하릿 저녁에는 둘이 순탐하다가 보이까네, 열 두 시 정각, 열 두 시가 되이, 제자캉 선생캉 밤에 회(懷)울음이 디리났어. 저가배 죽은 거매이로(것처럼) 회울음을 짜더러(아주 심하게) 울거든. ‘이기 어찌 되는고?’하고 그 이튿날 말로 들으니까네, 저그 개모에 열 두 시에, 아뭇날 열 두 시에 불이 나가주고 웃대 어른들 전부 이름 성명 백이고(박혀 있고, 모셔져 있고) 사진 백이가 모다(모두 다) 그래 놓은 것 전부 솔뻑 불에 다 타뵈어. 옥새 숨꾼 놈 둘이 가만히 보이, ‘와이구! 저마이(저만큼) 아는 사람들이 다 견네와가이고 이카는데(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있다가 결국 짹히고 말끼다. 우리 목숨이나 살구로 내뺌자.’고, 그래.

“옥새는 앞에 연당(蓮塘)에 물로 퍼뜨는 옥새는 거 들었다.”

카고, 그래 두 놈이 자지가 빠지도록 내뵈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 잘 돌아왔지. 돌아올 때, 인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 오거든. 제자캉 선생캉 돌아올 때, 사신이라 카는 건 아무리 지가 뭐로 알고 하는 뱅이(방이, 方策) 있어도, 불고자(不具者)는 본래, 병신(病身)이는 사신으로 부르는 뱍이(法이) 없거든. 제자가 있다가 ‘이거 백주

(공연히) 내 힘만 믿고 이래 돌아댕기다가, 지금 대국 들고달고(들락거리고) 했는데…….’ 그러이 이 제자가 저그 선생 눈을 하나 빼뿔구마는, 내중에는. 불고자는 사신을 부르는 뱀이 없어요. 저그 제자 아(아이), 가(그 아이) 덕택으로 대국 가가 일 잘 보고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85~191쪽.

[김정구 설화 8]

효성스런 부부

구연자: 김금순(여, 68.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못사는 신랑 각시가 있는데, 아주 못살아가지고, 저 두메 산골에 가서, 산에 가서 칩뿌리 캐고 나물 뜯고 이래갖고 먹고 살았어. 먹고 사는데, 그 시아버지가 한 분 있는기라.

시아부지가 계시는데, 그래갖고 살문서도 내(늘) 술로 받아다가, 신랑 각시 나물 뜯고 나무 하고서 팔고 이래갖고 시아버지로 인자 고기 반찬을 해서, 또 술 받아서 매일같이 이래 드리는기라. 드리는데, 그 도중에 아이로 낳았어. 아이로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가지고 방에다가 눕혀놓고, 시아버지를 술대접을 잔뜩 해가지고,

“참, 아버지! 우리 들에 가 일하고 오께, 집 보시이소.”

카고 나갔는기라. 신랑 각시 나갔는데, 그래 인자 참,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주무시다가 다리로 이래 엎었어, 아(아이)한테. 다리를 이래 엎어논께네, 아가 목이 졸리가 죽어뿌렸는기라. 죽어뿌렸는데, 그래 신랑 각시 오이까네, 아가 죽어가 있고, 아버지가 다리로 척 걸쳐놓고 주무시거든.

그러이, 아버지 알까봐, 아버지 모르게 아를 포대기에 싸서 신랑 각시 산으로 댜고 갔는기라. 산으로. 인자 신랑은 팽이하고 삽 들고 마누라는 아를 싸서 안고, 아버지 알은 안 된다고 말이지, 그래갖고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을라꼬, 땅을 대기(매우) 짚이(깊이) 팠는기라.

짚이 파인까네, 그 안에서 옛날에 다듬잇돌(다듬잇돌) 같은 돌이 하나 나오더래요, 예쁜 돌이. 그러이 그 돌 캐는 동안 아가 살아났는거라. 돌 캐는 동안에, 돌 캐는 동안에 아가 살아났는데, 묻을라꼬 본께, 아가 살았거든. 살아놓으인까네,

“예고! 우리 애기 살았다.”

이래 카면서 인자,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시라꼬 산신령님이 도왔는갑다.”

이래 캄시로(하면서) 아로 안고, 돌맹이로 내빼리고 올라카인께네 너무나 좋거든. 그래놓이 돌맹이로 신랑은 지게에다 짊어지고 집으로 왔는기라. 와가지고 쪼그만한 오두막살이에, 옛날에 방을 올라댕길라 카른 신발을 벗고 댕기는 돌맹이를 놓거든, 신방돌(신발돌, 댕돌)이라고. 고거로 딱 났어, 그 돌로가주고. 났는데, 그래 놓고 열매나 살다 보인까네, 나라에서 임금님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너라.”

카며 신하를 내보냈어. 내보냈는데, 그 요새로 말하든, 인자 그 방송국에(T.V에) 모도(모두) 패링이(패랭이) 같은 거 입고(쓰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딱 나와서 보인까네, 그기 순(순전히) 돌맹이가 아이라 보석이라, 그 돌맹이가. 그래 아버지한테 효성 있게 하인까네 산신령님이 돌봐갖고 그 보석을 줬어. 그래 인자, 보고 가가지고 나라 임금님한테, ‘아무데 아무데 가이꺼네 그런 보석을갖다 돌로 놓고 있더라.’ 그러이,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 오너라.”

갬어. 불러 오너라 카인까네, 딱 신랑 각시 불리 갔거든. 불리가가 사실 얘기를 쭈욱 했는 거라. ‘이래 이래 해서 그 돌이 나왔다.’ 이러카이,

“그러면, 그 돌맹이를 가 오라.”

갬어. 가 오라 캐서, 짊어지고 갔어. 보인까네 아주 좋은 보석이라. 그래 그 임금님이 상을 많이 내리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도 잘 키우고 그랬대요.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1~194쪽.

[금정구 설화 9]

용 못된 이무기

구연자: 김금년(여, 85.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용 못 된 깡철이. 이전에는 이래 그거한다 카대. 밤에 날라 가모(가면) 뚝 채이(키) 걸은기 날라간다 카대. 녀쩍하이 날라가는데, 별경이 이래 날라가가 그기 어디 못둑에다가 앉아가 심술을 지기. 그기 못둑에 앉으믄, 그놈이 심술지기가(심술부려서) 못둑을 터주고(터지게 하고) 그렇다 카대. 용 못 된 그걸 깡철이라고 한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4쪽.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0]

애기 장수 웃도리의 죽음

구연자: 권숙자(여, 70.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어마이가, 아버지는 없고 어마이가 사다가, 살로(再嫁하여 살기 위하여) 넘우 집이 (남의 집에), 옛날에는 못 묵고 살아서, 영감을 얻었던 모앵이지. 영감을 얻었는데, 알라(아기)를 낳았어. 알라를 낳았는데, 아랫도리 없는 웃도리만 있는 아를 낳았는기라. 아랫도리는 없고 웃도리만 있어.

그래 낳아놓은께 장궁(늘) 녀(남)이, 뭐라 카는고 하이,
“웃돌네, 웃돌네.”

이리(이렇게) 이 어마이를 부르는기라.

그런데, 옛날에 장수가 지(제) 상(相)을 본께로(보니까), 웃도리라 카는 그 사람을 마누래로 얻어야 지(자기)가 살겠는기라. 그래 그 사람을 얻어야 살지 그 사람을 안 얻으면 지가 죽겠는기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라꼬 온 세계에 훑어(뵈어) 땡기는데(다니는데), 그래 한 군데에 가인께로 ‘웃돌네 웃돌네’라 커는 사렘이 있었어. 그래 이웃사람한테,

“어째서 저 사람 ‘웃돌네’야?”

이러컨께,

“알라 낳아 놓은께로 아랫도리는 없고 웃도리만 있어서 그래 ‘웃돌네’라.”

이래 커저든. 그래 인자,

“그럼 그걸 날로 중신(중매)를 해 달라(달라).”

이래 카는기라. 그래 모를 송구다가(심다가), 그래 그 사람을 말을 했는기라.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 살라냐?”

이래 물은께로, 그래 인자 없인께(살림이 곤궁하니), 어마이가 없인께로, 모로 송귀 주고 넘우 심바람(심부름)해주고 사인께로, 그래 그런 영감을, 장순강(將帥인지) 그런 높은 사람인강 그것도 모르고 얻을라 카는기라. 얻은께로 뭐라 카는 게 아이라,

“그래, 그 아가 어데 있노?”

이젠 사다 본께로 인자 꼬치꼬치 묻는기라, 그 영감이. 말하자면 영감 아이가? 그제. 영감이 물은께로,

“그래 우째서 웃도리냐?”

이러인께네,

“얼라를 낳아놓은께 아랫도리는 없고, 웃도리만 낳아놓은께 그래 웃돌네라.”

이래 카네. 그래,

“그 아가 오데 있나?”

이래 묻는기라.

[수정하여] 처음에 아랫도리는 없고 웃도리만 있는기.

“날로(나를) 저 건네 깡분(江邊 냇가)에, 돌도 썩고(맴고) 그런 데 날 업어다 놓으라.”

카는기라. 아랫도리도 없은께로, 웃도리만 있은께 견지를 못한께. 그 아가 하는 말이,

“저, 엄마 미물(메밀) 한 말, 묵해 묵는 미물 한 말, 서숙 한 말, 말하자면 조비 한 말, 쌀 한 말, 그리 날로 서(세) 말로 구해갖고, 거 가자.”

카더라 캐. 그래 인자 서 말로 구해가주고, 깡분에 큰 돌이 있는 데 가인께네,

“거 니라(내려) 놓으라.”

캐. 그래 니라 놓은께로 그래 저구매를 찍일라 카는기라. 찍일라 캐서,

“아이고, 날(나를)?”

“살라 놓으은 엄마가 말을 하는 때문에, 이 소문을 내는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기라.

“엄마를 찍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이기라. 그래 엄마를 찍일라 한께로 그래,

“내 한 번만 봐 도라(달라). 내가 다시 그런 말 안 하께, 소문 안 날 긴께로, 그래 봐 도라.”

이러 카는기라. 그래 살라졌는기라. 참 어마이가 하도 애원해쌍아서. 그래 살라졌는데, 그래 돌에 대고, 말하자면 반석인데, 이 돌에 대고 뭐라꼬 뭐라꼬 쿠는기라, 웃도리가. 그러 쿤께 그 돌문이 싸악 열리거든. 열린께 웃도리가 메물 한 말, 조비 한 말, 쌀 한 말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기라. 들어가뿌고 문은 딱 댕기는(달히는)기라. 댕긴께로 그래 그 어마이가 참 영감을 얻었인께, 그 영감을 믿고 그런 사람인 줄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런 이바길 하는 기라.

그런 이바길 한께 그 영감이 ‘아! 인자 됐다.’ 싶어서, 가는기라. 마느래 할마이 몰리(몰래) 가는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세계에 뵈은 뵈이가 어떻다 카는 거 다 알고 앓은 사람이 라서, 거 가서 뭐라 카인께로, 돌문이 사르르 열리는기라. 열린께, 그 아랫도리가 없고 웃도리만 있는 아가 큰 과제(과거)로 해갖고 나갈라꼬 말로 타고, 한 쪽 다리는 말로 떠억 얹어놓고, 한 쪽 다리는 땅에 있는데, 고만 그 문을 열어뵈어. 뒤로 사그라져뵈어(사라져 버렸어). 죽어 뵈어. 그래 이 사람이(영감은) 살었어. 그래 죽어뵈더란다.

그런께 이 여자라 카는게 입이 날래어서, 그런 때민에 큰 사람이 날라 카문, 저구매(자기 어머니) 옆구리를 뚫고 나온다 안 카더나? 그런 이바구를 들었어.¹³⁾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4~167쪽.

13) ‘웃도리’란 전설적 인물로 지리산 산신령이 보호한 아기장수이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아기장수 우투리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성계와 왕위 다툼을 하다 죽었다. 아기장수 ‘우투리’ 또는 ‘울떼기’ 설화를 이 설화에서는 아랫도리가 없는 웃도리만 있는 사람으로 형상화하여 구연하고 있다.

[금정구 설화 11]

개 각시

구연자: 양이순(여, 73.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한 각시가 일 잘하다가, 시집살이하다가, 그래 신랑 품에 열 한 시꺼정 자다가 열 두시만 딱 되면 옷을 싹 갈아입고 나간단다. 산에 가든, 콩지가 나고 야수(여우)가 돼가 법석을 치든 이상한 각시가 돼가, 닭만 꼬꼬 울면 또 집에 온단다. 각시가 돼가 그 옷을 입고.

지녁마중(저녁마다) 그러믄, 신랑이 밍어서 조고(저것) 값을라꼬 따라댕기며, 몽딩이(몽둥이)로 가주고 쇠몽딩이로 뚜디리(두들겨) 잡아놓으믄, 그기 개더란다. 개가 그래 도술로 해가 그라 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7쪽.

[금정구 설화 12]

죽은 어머니가 맺어준 인연

구연자: 양이순(여, 73.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저가부지(자기 아버지)가, 저검마(자기 엄마)가 죽었거든. 죽었는데 각시를 하나 아빠가 정했거든. 그래 한 해 가이(가니) 인자 알라(아기)를 서거든. 오동지 선달에 산 미나리가 어데 있노 그제? 알라 선다고 산 미나리 캐 오라고 시깃거든. 시기(시켜)놓이, 저거매 산소에 가서 내(늘),

“엄마! 어데 가든 산 미나리 있노? 어데 가든 산 미나리 있노?”

저거매 뫼(묘)에 가서 몸을 하대를 하고(엎드려 절하고), 하소연하고, 애원하이 한 열흘 되이까네, 어데서 이상한 총각이 하나 나오디마는,

“애기가 날로 따리라(따르라).”

고.

“내 따라오믄 산 미나리 구해 줄 터인까네 따라오라.”

카더란다. 그래 따라 가이, 돌문을 사알 열고 들어가이, 청기와집이 여섯 채가 있어. 있는데, 이기 하늘 옥황 선녀가 사는 집이라. 그래 가인까네. 그래,

“내일 지녁(저녁) 이맘 때 또 오라.”

카더란다. 그래 다음날 지녁에 가이, 하늘에서 무슨 새파란 물뱅이로(물병을) 확 뿌리이(뿌리니), 미나리가 오목히 서더란다.

“이 미나리를 비다가(베어다가) 당신 계모로 주고, 사흘만에 지녁에 내한테 오문, 내강 백 년 언연(인연)을 정해가 살기라고. 오라.”

카더란다. 고 시간에 요 돌문을 열고 들어오라 카더란다. 드가인까네 그 총각이 있어. 그래 멀건 날에(날씨에), 구름이 오새매이로(요새처럼), 둥둥둥 뜨디이(뜨더니) 쇠바가치가 하늘에서 쇠줄에 두 날이 내려오더란다. 내려오디이 그래 인자, 그 총각은 요(요기) 타고 처이(처녀)는 여(여기) 타고, 하늘에 신선 선녀 몸을 받아가, 배필이 돼 올라가더란다. 그 저거매가 도와가지고. 그래가 잘 살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7~168쪽.

[금정구 설화 13]

인연 찾아 결혼한 이야기

구연자: 양이순(여, 73.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서울 총각으는 살림이 억대(億代)로 있고, 시골 총각으는 살림이 없어 상태백이고, 인제 서울에는 살림이 있어 사대백이거든. 그래, 처녀는,

“시골 상태백이가 지 아무리 살림이 없어도 거 시집가고 접다(싫다).”

카고, 부모는,

“서울에 사대백이 집에 시집을 보내고 접다.”

이래 뒤거든. 그래 인자 처녀는 할 수 없이 부모 명령대로 했거든. 서울 사대백이한테 시집을 갔거든. 가이, 시어마씨 쇠대(열쇠)를 한 날(하나를) 내주메(내어주면서) 사대백이 살림을 보라 카거든.

“너그 신랑 살림살이 일단 한 분(번) 보라.”

카는데, 아무리 봐도 탐이 안 나거든.

그래 인자 시골 상태백이가, 그 사대백이한테 시집을 간 그 각시를 애통(哀痛)해서, 무정

하다고, 사대백이 집에 와가지고 높은 담장을 넘어사보메(넘어다보며),

[옹조리는 창조(唱調)로: 순질(신 길) 천성(天城) 높은 담장 키대로도 비치본다(비춰본다)고,]
 상태백이가 그 각시를 못 잊어서, 그래 메칠(며칠) 그래 보다 보다 못 만나고, 인제 사대백
 이한테 시집을 가이, 빼돌리도 못하는데, 그만 병이 들었거든. 상태백이가 병이 들었거든.

병이 들었는데, 저거마씨(자기 어머니)가 행주 처매를 입고, 뒤축 없는 신을 신고, 앞 없는
 처매 입고, 짜박머리 머리를 엮고 [설명하며: 옛날에 머리를 웅치(움켜) 엮거든.] 그래 서울
 사대백이 집에 찾아왔어.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 있다. 각시를 불러내라.”

카이, 그래 각시가 대반(대반에),

“어무이요, 왔는기요. 내가 가문 살기인까네 어무이는 뒤에 오시이소. 나는 앞에 가서 상태
 백이를 살릴기인까네.”

카며 그래 가서, 상태백이를 이름을 인자 부르이,

“서울 사대백이는 아무리 백만장자로 살아도 싫고, 상태백이 병들었다 카이 내 낮아(낮게
 하여) 살라고 왔다.”

카거든. 왔다 카이, 상태백이가 소겔이(소처럼) 앓다가 일어나더란다. 병이 낫더란다. 그래
 낮아가주고 그래가 백년 배필이 됐는데, 삼년만에 첫아들 낳아가주고. 평양 감사하고, 경상
 감사하고, 아들 서이 놓고. 딸아(딸아이)는 낳아가주고 아홉 골(고을) 사우(사위) 정코(定하고)
 잘 사더란다. 잘 사더란다. 그래 언연(인연)이 있어.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68~170쪽.

[금정구 설화 14]

두구동 방귀쟁이와 충청도 방귀쟁이

구연자: 손관익(남, 65. 고졸)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두구동 방귀쟁이가 남자라. 이래 수소문해보이까, 충청도에 있는 방귀쟁이가 굉장하다 카거든.
 이놈이 시험하러 갔어. 어디로 갔나 하며는 구포(龜浦) 저리 넘어가주고 쪽 올라갔다 말이야.
 그래 가가 추풍령을 넘어가 충청도 들어 갔거든.

들어 가가 방귀쟁이 집에 찾아 갔단 말이야. 찾아 가이, 어린애가 있거든.

“엄마는?”

그러니까,

“아이구, 엄마 시장 갔심디.”

이란다 말이야. ‘잘 됐다.’ 싶어가주고 부엌에 사알 들어가가고, 솔뚜껑을 사알 열고, 방귀를 한방 똥 끼웠는기라. [웃음] 그래 딱 달아났거든. 그래 달아났는데, 저검마(자기 엄마)가 시장 갔다 떡 와가고 밥을 할라꼬 떡억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솔밑이 딱 빠져똥단 말이야. ‘야! 이놈이 어떤 놈이 남의 솔밑 똥나?’ 차차 알아 보니까네, 웬 남자가 와가 그랬단 말이야.

‘하하! 요거 부산에 두구동 있는 놈이 그랬구나. 예라 요놈 기양(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가 쫓아 들어 가가고, 흥두개 그거로 궁디다(궁둥이에다) 딱 대어놓고 쏘거든(쏘았거든). 박격포 쏘듯이 썩액 쏘다 말이야.

이 사람이 한참 오다 보니까네, 뒤에서 뭐가 하나 날라 오거든. 놀래가 보니까 한님이(하나가) 날라 온단 말이야. ‘하하! 요거 여자가 그랬구나.’ 싶어가, 이 남자가 짝 돌아서가고 다부(되레) 반격을 했는기라. 방귀를 ‘파양’편다 말이야. 그님이(그것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지금 [손으로 작다는 시늉을 하며] 요그만하대. 아직 돌아댁기고 있어. 함(한 번) 가볼래? [웃음] 엑스포도 겸해 함 가볼래? [일동 웃음]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0~171쪽.

[금정구 설화 15]

천석꾼이 된 솟장이

구연자: 도광수(남, 87. 무학)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대국(大國)은 산서(山書)를 잘 하는 이가 갈핑이거든. 갈핑이라 카는 사람하고, 우리 한국은 이성기라 카는 사람이 산에 환한(흰하게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 두 분이 서리(서로) 한 번 만나기로 의논을 하이, 해후이(邂逅가) 돼가지고, 대국 갈핑이하고 우리 한국 이성기라 카는 이하고 만났다 말이야. 만내져가이고(만나져서) 그래 서리 수인사로 하고, 그럼 우리가 만났으 인까네. [머뭇거림]

대국 갈핑이는 제이(지맥?)를 잘 하고. 이성기 조선 사람은 주룡(主龍) 내룡(內龍)을 봐가지고 어데가 명산(名山)이다 카는 그걸 잘 알거든. 그래가 돌이가 산을 밟고 땡기다가 그럭저럭 해가 다 저물었네. 해가 다 저물어가이고 사람이 배가 고파서 기진(氣盡)한다. 그래 해는 다 됐는데, 배가 고파가 갈 수가 없어.

그래 어느 골짜기를 들어서 지내가인까네, 어떤 사람이, 엄두리총각아(아이)가 숲 낭글(나무를) 쳐여. 그때나 지금이나 나무 저걸 비이가(베어서) 끊어가이고(구워서) 팔아가이고, 곡석 도배기(곡식 되)같은 거 팔아가(사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말이여. 그래 어찌 배는 고프고 급해 났든지, 숲 나무 치는 총각한테 물었어.

“총각, 총각! 지금 우리가 딱 시장한데, 어디로 가면 요구(療飢)를 좀 하겠느냐?”

이리 물었어. 물으이까네.

“아이고, 여기는 요구할 때가 없습니더. 없는데 내가 아직(아침)에 밥 싸다 놓은 기, 뱀이(밥이) 밥걸쫘거마는 뱀이 안직(아직) 낭께 걸리 있으이까네, 시장하거든 요 골짜기에 물이 있으이 저걸 거 가지고 가가이고 돌이가 조개금(조금씩) 띠(떼어) 자시이소.”

이러 캐여. 그래 어렵은 사람 밥을 갖다가 돌이가 해갈(解渴) 면했거든. 그 돌이가 그 어렵은 사람 밥을 얻어묵고 공을(공짜로) 갈라카이 미안하고. 인자 그 사람들은 ‘어데다가 뫼(묘)를 씨믄(쓰면) 몇 해만에 부자가 된다’. ‘어데다가 뫼를 씨며는 자손이 평양 감사가 난다.’ 다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돌이가 의논을 했어.

“우리가 저 어렵은 사람 밥을 얻어 묵고 이래가이고 금방 기갈(飢渴)을 면했는데, 우리가, 저가부지나 저검마 나 어데 뫼를 못 씨고 있는가 물어보고, 그 뫼터나 하나 구해 주고 가자.”

그래 뻘어.

“그래. 그 좋은 이야기다.”

고, 이래가이고, 그래 인자,

“너그(너의) 어무이나 아부지나 지금 시상(世上)을 베리가(버려서) 장사(葬事)할 이가 없느냐?”

물으이, 저그 아부진강 장사할 이가 있다 이기라. 그 때는 어찌 뻘기나, 사램이 죽으면 죽은 신체(屍體)를 갖다가 생장(生葬)을 저런 높은 산말랭이(산 봉우리)에 못 가져가고, 인간 이부지(이웃에, 주위에) 여(예) 갖다가 채봉(草墳), 채봉이라 카는 기 이래 집을 지어가이고 비가 안 드가도록 이래가이고,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유골 뼈만 저 산만대이에 올라갔지, 그 생신체(生屍體)로 무겁은 거 메고 못 올라 가거든.

그래 뫼터를 못 잡아가이고 저그 아부지 신체가 지금 채봉을 해놓고 있어요. 있는데, 돌이가 의논을 하기로,

“씩 좋기는 메칠(머칠) 시일이 걸리 그렇지, 쪼끔 오래만 있으믄 삼 정승 육 판서 날 자리, 평양 감사가 서넛이 날 자리가 있고 몇 만 석 할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 일로 봐서는 지금 일시가 바쁘데, 삼 정승 육 판서가 난다 하는 그런 자리는 시일이 며칠 걸리는데, 운신(우선) 어째끼나 응급조처로 뱀이나 수울키(수월하게) 먹고 할, 그래도 천석꾼 날 자리를 하나 택해 주자.”

그래 뻘어. 그래 그 총각한테 켜어.

“우리가 너그 어른 묘 드릴 자리를 하나 잡아줄끼인까네, 그래 뫼를 아무데 고 씨라.”

그래. 그 아가,

“참 고맙다.”

고 애길하고, 그래,

“장을 참 봐가이고 아뭇날 뗏 시에 장사를 하라.”

고 그 사람들이 그라거든. 그래서 장에 가가이고, 장을 대강 봐가 이래 오이까, 해필 대수(大水)가 디리퍼붓는데, 비가 디리퍼붓는데, 눈을 못 뜨겠어. 그래 보이까네 어느 집에 불로 뽀한 켜(켜) 놓고 있거든. 찾아 드갔다 말이야.

“내가 장을 봐가 오다가, 아버지 초상장을 봐가 오다가, 지금 비가 어찌 퍼붓는지 눈을 못 뜨고 해서 내 여 좀 피해 갈라고 들왔다.”

카이,

“아이고 잘 들왔다.”

“고맙다.”

이카거든. 그래서 한데(바깥)에 있으이 그 색시가 자꾸,

“방에 들오라.”

이기라. 그래서 방에 드가이까네, 색시가 한다는 말이야,

“나도 이 너른 집에 혼차(혼자), 내 혼차 징키고(지키고) 이래 있는데, 당신도 보아한께로(보아하니) 마누래도 안중(아직) 없고 장개(장가)도 안 가고 지금 장이(많이) 어려운 형세고 한께네, 내강 어불려가이고(어울려서) 살자.”

고 이래 카거든. 그 얼마나 반갑겠노? 그 맥네가 천석꾼이라. 천석 하는 집이라 말이다.

“그러믄 그래 하자.”

고 했는데, 지 장사할라고 장 봐가 온 거는 내뚜고(놔두고), 그 안날(다음날) 그 맥네강 장을 보로 새로 갔어. 가가이고 장을 잘 봐가, 장사로 잘 했어.

지 점슴(점심) 가야가(가져가서) 그 사람들 요구(요기) 시기주고(시켜주고) 대반에 천석했어. 천석꾼 해가이고 그 사람 그래 잘 살더란다.

삼 정승 육 판서가 날 자리를 봐줄라 카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래 그 사람이 일시가 바쁜 사람인데, 천석이믄 뽀뽀하단 말이다. 그때 천석을 하자믄 일(한) 고을로 쳐도 조매(좀처럼) 없었는데, 대반에 이 거지가 천석하이까네 팔자 고쳤단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해주고 갔어.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71~174쪽.

[김정구 설화 16]

쥐를 겁내는 머슴

구연자: 박소남(여, 80)

채집일: 1993. 7. 21.

채집장소: 금정구 두구동 임석마을

이전에는 밀기이(밀구멍)도 안 대고 가색이 타진 경우가 있는기라. 그래 한 집 메느리가 빨래를 썩거이까네, 쥐란 놈이 사람 그걸 지(자기) 구멍이라고 사람 살타리에 드가뻘어. 그래 드가가주고 등신겜은 총각이 하나 머슴을 그 집에 살았거든.

머슴을 사는데, 그 집 메느리가 쥐가 드가 물고 디리져놓이까네, 총각이 자지를 거어(거기에) 떠억 주아넣어뻘어. 주아넣어뻘게네, 쥐가 자지를 디리몰어 주뻘이, 빠져 나왔거든. 빠져 나와서 그 바보겜은 머슴도 살고 안들(여자)도 살았는데, 그래 머슴 저거매(자기 어머니)가 저 그 집에 와서 장개를 가라 카인께, 머슴아 이기 바보겜은기 얼마나 거(거기에)놀랐는지 장개를 안 갈라 카더란다.

“어매 난 장개 안 가요. 장개 안 가요.”

“아이구 이놈아! 장개가라. 장개를 안 가문 우리 씨종자가 없으면 지사(제사)를 누가 지낼 라노? 장개를 가라.”

카인께, 이놈이 쥐한테 얼마나 씨겁먹었는지 장개를 자꾸 안 갈라 카거든.

“아이구, 장개를 가야 된다. 이놈의 자식아! 우리가 지사도 몬 지낸다.”

카이, 지사 안 지내도 안 갈라 카거든.

그래 우째 근근이 꼬아가주고 장개를 보냈는데, 장개를 가서 첫날 저녁에 각시를 보고 쥐가 또 물가봐 각시의 밑을 들바다보고 안들 눅였는데, 해나(혹시나) 또 물가봐,

“또 물래, 또 물래.”

카더란다.

* 김승찬, 『육담과 해학담』, 도서출판 양업서원, 2017, 15~16쪽.

[금정구 설화 17]

비단을 판 바보

구연자: 엄옥남(여, 60. 무학)¹⁴⁾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옛날에 나(나이) 스무살 먹은 총각이 하나 있는데, 늘 아랫목에서 밤만 먹으면 옷목에서 똥

14)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보자가 ‘손관익(남, 65)’, 채집일은 ‘1993. 7. 13’, 채집장소는 ‘두구동 조리마을’로 기록함.

싸고 내 이랬거든. 그래 저검마가,

“아이구! 야야, 너는 어째서 나이 스무살 될 때까지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고 그런 짓을 하느냐?”

고 엄마가 애를 많이 태웠거든. 태아 있는데, 한 날은 아들이 저검마 보고,

“엄마 엄마.”

카고 부르더란다. 그래,

“왜 그러느냐?”

고 엄마가 그러 카이께네,

“다른 게 아이고 엄마 내가 오늘은 돈을 좀 주면은 장사를 하겠다.”

고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 하이까네, 그 말이 하도 기특해 가지고,

“그라면 돈을 얼마나 주꼬?”

카고 물으니까,

“닷 냥을 달라.”

켰거든. 저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부자집에 가서 돈을 빌리가지고 갖다 주이까네,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비단을 띠가 왔거든. 바지기에 비단을 한 바지기 해가 왔는기라. 그래 저검마가, 그 아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팔지 말어라.”

이래 켜거든. 아들이 그 말을 명심하고, 그래 아침밥을 먹고 그 비단을 짚어지고 산너머로 마을을 찾아 갔거든. 가이까네, 동네가 하나 나왔는기라. 거 가가지고,

“비단 사소. 비단 사소.”

왔거든. 외니까네, 아줌마들이 쭈욱 나와가,

“이 비단이 얼마요, 얼마요?”

카고 물었는기라. 그런데 이 총각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고 또 횡 가뿌는기라.

“이 사람이 왜(왜) 비단을 살라 하면 말을 안 하고 가느냐? 이상한 사람이다.”

카고 사람들이 막 웃고 이랬거든. 또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비단 사소. 비단 사소.”

이러카인까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우우 나오이까네, 또 비단을 안 팔고 또 판 데 가뿌는 기라.

그래, 이래다 저래다 비단 한 끄트리도 못 팔고 해가 다 졌거든. 그래 집에 오야만 되는데, 비단을 한 바지기를 지고 저그 집으로 온다고 등너머로 막 땀을 흘리고 지계를 지고 오는데, 비석이 하나 있더라 카네, 비석이. 그 비석 짚에다가 바지기를 딱 받쳐놓고,

“비단 사소. 비단 사소.”

카이까네, 비석이 말을 안 하거든. ‘아 울다. 여기다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비석 앞에다 비단을 탁 부라놓고(내려 놓고), 자기 집으로 와뻐는기라. 그래 저검마가 하는 말이,

“아이구 야야! 비단을 어찌 그리 다 팔았노?”

카이 아무 소리도 안하거든. 그래,

“돈은 어쨌노?”

카이,

“돈 안 받았다.”

고 이러 카인까네,

“아이구 야야! 빨리 가서 돈 받아 오너라.”

카면서 엄마가 야단을 쳤거든.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묵고, 그 비단 부라는 자리를 찾아가йка네, 비단이 하나도 없는기라. 뿔이 다 가가뿌고, 그래가 그 비석을 보고 막 ‘돈 내노라’고 미트렸거든(밀었거든). 막 미트니까네 비석이 ‘꽝’하고 넘어가뿔는기라.

옛날에 비석을 세울 때는, 부잣집에서 그 비석 안에 돈을 가득 채아가지고 비석을 세웠는기라. 그래 ‘꽝’하고 넘어가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노? 바지기에다가 돈이 있는 대로 좇아가지고 한 바지기 무겁도록 짊어지고 저그 집으로 왔더란다.

그 돈을 가지고 빗 갠고, 논 사고, 밭 사고, 기와집을 그래 잘 지아고 잘 살더란다. 그래 사람은 때가 있는기라. 바보도 때가 왔는기라. 그래 가지고 그래 잘 살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83~185쪽.

[금정구 설화 18]

지령이로 시모 눈 뜨게 한 효부

구연자: 문말덕(여, 60. 무학)

채집일: 1993. 7. 16.

채집장소: 두구동 수내마을

옛날에 목을기 없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신랑이지. 신랑이 어데 멀리 돈벌이 갔는데, 석달 열흘을 눈이 오더라네. 그래 목을기 없어가지고, 눈이 먼저 녹았는데 가보йка네, 처마 아래 눈이 먼저 녹았는데, 호미가지고 사알 끌어 보йка네, 지령이가 나오더라네.

그래 지령이로 담아왔단다. 담아와가지고 푹 삶아 할마씨를 막이 놓йка네, 어떡끔 맛있는지 할마씨가

“이기 야야 뿔이고?”

카이, 지령이라 말로 못했단다. 그래 가마이 있으이, 옛날에 샷자리, 대로 만든 샷자리 거다가 할마씨가 자시다가 한 마리 넣어뿔어. 그래 할마시가 눈이 어둡더라네. 봉사라 카네. 그래 아들이 오인께네

“아이구 야야 메느리가 무슨 고기인지 이치리(이처럼) 맛있는 거를 해줘서 내가 목고나이, 참 기운도 나고 좋더라.”

카면서 그래

“이거 한분 봐바라.”

카면서러 할마씨가 내 줬거든. 지령이를 구들 밑에 영어놔논께 빼짝 말랐지. 아들이 놀래가 “아이뭐야 꺼시다.”

캐노이까네, 지령이를갖다가 옛말에는 꺼시라 카거든.

“꺼시다.”

캐논께, 마 놀래가 할마씨가 눈을 퍼뜩 뜨더란다.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3~194쪽.

[금정구 설화 19]

도(道) 통한 상좌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 저 천 년 전에 동래 범어사 절에서 어떤 스님 한 분이 신도들이 주는 돈을 가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세(稅)로 받아다가 고바아(庫房)에다가 한 고방 영놓고 묵고 사는데, 하로는 보이까네 어떤 아이 하나가 알긋은 것이 머리가 꿀방시(꿀밤송이)같이 해가지고 부석 앞에 와서 앉아 불로 찌이거든. 그래 스님이

“야야, 니가 와(왜) 거서(거기에서) 그래가 있노?”

이러 카이,

“예, 내가 밥을 얻어 묵으로 왔심더.”

이러 카더란다. 그래 밥을 좀 주고

“니가 내 상재(上座)가 되거라.”

이러 카이,

“예, 그래 하지요.”

그래 데비다가(데려다가) 그 아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기가지고 밥을 먹이가 났두고, 그래 그 이튿날,

“니가 뒷산에 가서 나물로 좀 뜯어 오나라.”

카이, 갔다 오디마는,

“스님요, 나물로 몬 뜯겠습니다.”

이러 카이,

“와 그렇노?”

카이,

“나물로 뜯으이, 나물 줄거리에서 자꾸 피가 올라와싸서 몬 뜯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럼 나무 해가 오나라.”

이러 카이, 낭글 하러 보내놓이, 똑 가지 뿌사진거 썩은거 쪼개이 주아가 오거든.

“와 이런 거로 해가 오노? 그 나무 술한거 좀 비가 오지.”

이 카이,

“낭글 빌라 카이 다시 나무 비는 거서 피가 올라와싸서 몬 비겠습니다.”

이러 카더란다. 이래 캐서 ‘아 이거 뭐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 인자 공부를 시깃단다. 시기 이까네, 하로는 오대산에 공부하로 갈라 카가든. 갈라 캐서 인자 공부하로 보냈는데, 노자(路資)로 좀 조가(주어서) 보냈는데, 상재가 가서 공부로 엄치이(엄청나게) 하다가, 저그 스님 델로(데리러) 왔어. 와가이고 저그 스님 보고,

“스님요! 갑시다. 인자 여서 고만 살고 내캉 공부하로 갑시다.”

이러 카이 그래,

“공부하로 가자.”

이러 카이, 그래 간다고 일주문 밖에 나오다가, 범어사 절로 한번 돌아보이, 지(자기) 나락 짝 재놓은 고바아 불이 붙어 활활 붙어쌓거든.

“야야, 내 고바아 불이 붙는다.”

이러 카이,

“아이고 우리 스님 아직 죄를 더리(덜) 사(捨)했구나. 그럼 절로 다부 돌아가쇼.”

그래 저 혼차 갔단다. 가서 공부로 하이까네, 그래 지(자기) 마음에 그 스님이 죽었지 싶우거든. 이래서러 범어사로 오이까네 죽어가 재(齋)로 하더란다. 재로 하는데, 상좌는 옷을 노두 디기(낱은 누더기)로 입고 알긋게 해가 왔어. 그래 일로 거들라 캐도 아무도 몬 거들구로 하고, 아무것도 몬 하구로 해. 이래서,

“그러면 그룩이나 좀 씻겨주고 가겠심더.”

카이,

“그룩 좀 씻겨라.”

그래 대바지계를 채래놓고 청대 사발인데, 그룩을 한 짐 징가가지고(짚어지고) 와 물이 내려오는 거 돌호박에다 물로 받아가 씻는데, 거계(거기에) 야불대기(옆에)에 좌르르 갖다 부얏어. 그룩을 부아가지고 도곳대로 열어가지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젖어가지고, 맑은 물에 헤아가지고 건지이까네 그래 중들이 다 보이까네,

“야, 저 사람이 도가 터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갖다가 첫째는 들오도(들어오지도) 몬 하구로 하디이,

“여기 오라.”

카고 이러더란다.

그래가 그날 저녁에 저그 스님 고바아 들다보이까네, 저그 스님이 죽어가 구리(구렁이)가 돼가 있더란다. 딴 사람 눈에는 안 비(보이)는데, 지 눈에는 구렁이가 돼가 있거든.

그래,

“여기 풀죽을 좀 짚이(끓여) 줄라.”

카이, 풀죽을 짚이가 양도오(양동이) 좀 내놓는 거로 서늘으이 식카가이고 거(거기에) 달라 놓고,

“스님요, 이거 자시쇼.”

카며 달라놓고, 문을 툇 닫아놓고 나왔디이, 그 이튿날 이직에 보이 죽 다 목어뿌고 없더란다. 그래서러 지가 가면서러,

“스님 나셔쇼.”

이러 카이까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쌍거든.

“나셔쇼.”

카이 큰 구리가 나오더란다. 콩지가 몽텅한 구리가 나오이,

“앞 서쇼.”

카이, 앞에 설렁설렁 가는데, 일주문 밖에 나오다가,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스님 저 돌 가서 툇 깨쇼.”

이러 카이, 그래 거 가서 두(頭)를 두드리 켜는데, 피가 주올 흘러 내리도록 깨놓이, 새가 한 마리 풀 날아 나오더란다. 그래 그 새로 바람 안에 잡아 열어갠어. 그 상재가 잡아 열어갠어 그래 걸어가는데, 짐승들이 교미하는 것만 보면 그곳으로 가려고 퍼덕거리는 것을 꼭 잡고 가다가다가 과각(과객) 치는 집에 자고 가게 됐는데, 과각 치는 집에 가이, 이놈의 새가 나올라고 어찌기(어떻게나) 안에서 퍼덕 퍼덕거리쌍아도 기어이 꼭 참고 바람에 열어 놓고 이튿날 또 짚어지고 가다가 또 어느 과객 치는 바아 가서 자이까네, 어느 장자집에 장자가 그 날 밤에 큰바아 올라가는 기미가 있더란다. 그래 사알 끌러가 그 바아 달라쫘단다. 달라쫘디이, 그래 그날 밤에 얘기가 생겼어. 그래 상재가 나가면서

“집에 얘기가 하나 올해 나지 싶은데, 만약 놓거들랑 그 얘기를 날로 주소.”

이러 카거든.

“날로 안 주면 당신네들은 빛만 보고 맙니다.”

이러 카거든. 그래 카고 갔는데, 그래가 세월이 흘러서 한 7년 지내고 그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동냥 줄라 카이까네, 일곱 살 목은 엘라(아이)가 쌀로 담아 나와서러, 스님을 주고 그만 스님의 아랫도리를 딱 틀어 안더란다.

“스님요”

카면서로, 그래서

“애기로 날로 줄라.”

이러 카이, 그 집에도 자식이 기럽는데(귀한데) 그 어마이캉 아바이캉 울며 주더란다. 빛만 보고 말겠다 카이, 울면서 댕고 가라 카더란다. 댕고 가라 캐서 댕고 와서 지(자기) 상재(상좌)로 삼아가 공부로 시기는데, 문구여다(문구명에다) 바늘로 꼭 찢러 주면서러,

“내가 공부로 심하게 하면 문구여서 황소 목이 썩 들어올끼다. 그러면 황소의 목을 틀어 잡아라.”

이러 카고, 그래놓이, 그래 참 그 상재가 공부로 어찌 지극하게 하이까네, 참 바늘 구여에 황소 목이 들오거든. 들어오거로 마 지가 보담고 틀어졌단다. 틀어져가 눈을 버이 뜨고 뒤로 탁 자빠지이까네, 마 도가 탁 터져가주고 천하 일을 다 알아. ‘아 내가 상재의 상재가 됐구나’ 그래 그 스님이 새가 돼가 나와 상재에 상재가 돼가 그래 도가 터졌어. ‘내가 상재에 상재가 됐구나.’ 그래 알더란다. 알고 그래 하더란다 카데 그 뒤 상재가 불도에 정진하여 뒷날 큰 스님이 됐더란다.¹⁵⁾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03~207쪽.

[금정구 설화 20]

시주했다가 죽어 환생한 여사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어느 곳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절이 허물어졌어, 허물어져서 알긋는데, ‘이 절로 곤치야 될긴데, 우째 곤치겠노?’카고 스님이 대단히 걱정을 이래 하이까네, 그래 그날밤 꿈에 그러더란다.

“니가 내일 마실로 내려가봐라. 내리가면 기중 첫눈에 뵈는 사람 하나 있거든. 그 사람한테 걱정을 해라. 하면 그 절로 곤쳐 줄끼다.”

이러 카더란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직에 그 꿈꾸었다고 헐레헐레 내려 오이까네, 지게로 지고 일꾼이 하나 노래로 부르면서 올라오거든.

“아이고 보소, 보소, 우리 절이 저래 허물어져가 있는데 절로 곤치야 될긴데, 우째 해서 곤치겠는기요?”

15) 범어사의 明學(혹은 매학)스님과 영원조사(靈源祖師)의 설화. 명학스님은 뒷날 우운조사(雨雲祖師)가 됨.(미간, 『부산전설집성』의 ‘모라동 운수사와 우운대사조’를 참조.).

이러 카이,

“아이구, 걱정하지 말고 내 따라 오소.”

카면서, 그 사람이 뺨 돌아서거든. 돌아서디 그래 그 집에서 여러 해 머슴살이를 했었는데, 세경을 받으라 캐도 세경도 받도 안하고 장개가라 캐도 장개도 안가고 몇 년을 있었는데, 그날 아직에 중을 떠억 댕고 오디마는,

“내 세경쫄로 주소. 이 스님 주소.”

이러 카더란다.

“절 곤치구로 주소.”

이러 캐. 그래서 뭐 지(자기) 주라 카는 대로 주지 어짜노?. 그래도 지가 여러 해로 있으면 서러 자꾸 절에 갖다 주고 이래가 있는데, 마 그러하자, 절도 다 곤치고 잘 해놓고 있는데, 마 그 사람이 병이 나서 아파. 아파가주고 나오도 못하고 통통 부아가지고 이래놓이 모두 이봇 사람이가.

“저 놈이가 지가 돈이나 모다났으은 병중에 썰긴데 말케(말끔) 절에 중 다 갖다 조뿌고 돈 다 씨도 못하고 병도 문 곤친다.”

이러카이, 그래가주고, 이 사람이 부애(부아)가 나서러, 절에 도치로 가 올라가서 부처님을 딱 짱고리(頭上) 패이까네 도치가 짱백이 딱 백이가 도치 자루도 뿌아지고 도치가 안 빠지더란다. 그래 패놓고 내려왔거든. 내려와놓이 그 질로 아파서 통통 붓고 눈도 어둡고 그 질로 죽어빠렸어. 죽어뵈는데, 그래 그 장자집에서 자식이 귀해서 낳을라 카다가 얼라로 하나 낳았는데, 머슴아로 하나 낳았는데, 아가 밤낮 주야로 중중(중얼)거리고 울어. 어찌 울어싸서 그 절에 가가 ‘스님을 한번 와보라’고 카이, 그래 스님만 오이 아가 안 울고, 스님이 가고 나면 울고 그래. 스님이 와서러 손을 살살 문치가 한번 폐보이까네 죽은 사람 이름이 딱 적히가 있더란다.

이름이 딱 적히가 있디마는 그 스님이 보고나이 사알 이름이 삭아져뿌리더란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가 괜찮는데 키아가주고 서울 과게로 하러 보내났는데, 과게로 해가주고 암행어사가 돼가 내려오는데, 오다가 웬지 마음이 씩어놔놓이 그 절로 들릴라 카거든. 저그 집으로부터 머여(먼저) 안 오고. 들리라 카이 중이 숨어뵈단다. 부처님은 도치로 이고 있제 ‘내가 이래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스님이 숨어가 있는데, 그래 이 암행어사가 오디마는 부처님을 문치고 도치로 빼이까네, 마 쑥 빠지더란다. 그래가주고 도치로 빼고, 절도 잘 되고 지도 살고, 지가 업보로 받아가지고 고생으로 한 거로 갖다가 시주로 마이(많이) 해놓이 지가 그 업보로 받아가 모두 한참(한꺼번)에 다 사(捨)해뿌고 그래 가주고 지도 어사가 돼가 잘 살고 그 절도 좋더란다.¹⁶⁾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08~209쪽. 제목은 ‘시주하여 잘된 일꾼’임.

16) 조선 영조 때, 조엄(趙暉)에 대한 설화.

[금정구 설화 21]

세 명인(名人) 이야기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사람 서이가 있었는데, 짐승말 잘 알아 듣는 사람이 하나 있고,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하나 있고, 사람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고, 서이(셋)거든. 그래 나랏님이 올라 오라 캐서 올라갔다. 그래 나랏님이 재비(제비) 새끼 낳아놓은 거를 두 마리 잡아다 통 안에 열어가 앉아 있으니까, 재비가 지 새끼가 없어놓이 짹짹거리잖거든. 그래 한 사람이 듣다가 재비가,

“내놔라. 내놔라. 죄없는 내 새끼 왜 잡아갔노? 왜 잡아갔노?”

이래쌍는다 카거든.

그래, 재비 말을 잘 알아 들으니 새끼를 놔줬어. 한 사람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갖다가 술을 한 잔 주인까네, 술을 마시보더니만,

“이 술은 틀림없이 사람 뒤편(墓) 파낸 데 모(벼의 싹)를 송갸든지 뒤편 파낸 데 나는 물로 누룩을 만들었는지 사람내가 난다.”

카더란다. 그래 그기 맞더란다. 그래 사람 잘 알아 보는 사람은,

“사람 하나 걸어오는 저 사람이 중아들이다.”

이카거든. 이라이, 중아들이라는 사람이 시퍼렇게 성이 났거든. 저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라이 이 사람이,

“당신 모친한테 물어보라. 당신 아버지가 틀림없이 중이다.”

카거든. 그래,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검마(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중의 아들인가? 바른말 하라.”

이라이, 그래

“이전에 산에 나물 캐러 가서 중한테 덮쳤다.”

카더란다. 그래, 사람을 잘 알아보더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김정구 설화 22]

누명 벗은 신부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본처가 낳아놓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후처가 대로 들어왔는데, 남자가 부자고 정승이라. 이런데, 그 아들로 장개를 디리는데, 첫날밤에 이웃사람을 돈을 조(주어)가 시기(시키)가지고 그 아들 모간지(목) 비(베)어 오라고 시겼어.

그래 이웃사람이 돈을 받아 묵고 가서 아들 모간지를 비가 저그 집에 가 오인까네, 그걸 단지에 열어가지고 다락에다가 얹어놔거든.

그래 각시가 첫날밤에 소박을 당해놓으이, 각시가 간부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덮어썼어. 그래도 시집을 가이까네, 들어가지도 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질로 쫓겨나가지고 방물장사로 댕기는데, 바늘.실을 파는 방물장사로 온데를 댕기다가, 온 고을고을이 다 댕기다가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걸으면 나이 한 삼십 넘어 됐지.

각시가 그래 고향을 오다가, 고개 만데이에 산적이 집이라고 외딴 집이 있었거마는, 그 산적이 집에 좀 자고 가자 카고 자이까네, 그 집 남자가 자면서 기지개를 뿌두시 하다가 소리 지르길

“아이구, 내사 비(베어)오라 캐서 안 비 왔나? 머리 비오라 캐서, 내가 비췌다. 내 잘못된기 없다.”

잠꼬대를 이래 해쌓거든. 그래 각시가 옳지 들었다 하고, 저그 시가에 오인까네 저그 시가에서는

“저년이 또 온다.”

카면서 계모가 들오도 못하구로 이래쌓는데.

“니가 아무데 산적이하는 그 사람을 두(頭) 비 오라고 시겼지.”

카이. 그래 시아바이가 듣고 마누라를 보고,

“니가 두 비가지고 어쨌노?”

카이

“두 비다가 다락에다 열어놔다.”

이 카거든.

그래 시아바이카 다락을 디빈까네, 두가 다락에 들었는데, 썩도 안 했더란다. 그래 두를 찾았는데, 그년이 그 집에 와서 아들로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로 살림 다 주고 할라고 그렸는데, 결국 그 아들하고 어마이하고는 직있다 카데, 정승이.

정승이 직이고 지(자기)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살림을 다 파해뿌고 이라더란다. 그래 했다 카더라.¹⁷⁾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5~226쪽.

[금정구 설화 23]

고려장 없앤 사연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나라에서 인간 칠십 살 목은 사람들을 다 고려장 시키라 카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쯤 됐던기라. 그래 지가 땡기면서 전부 고려장 하라고 했는데, 저거매(자기 어머니)는 당추 인정적으로 시킬 수가 없었어. 그래 집 뒤에다가 굴로 파놓고 낮으로는 굴에 열어놓고 밤으로는 내놓고 이랬는데, 나랏님이가 숙제를 내주는데.

“소나무로 공을 다듬었는데, 물에다 띄우면 어느 부분이 밑으로 가고 어느 부분이 위로 가겠노? 알아오라.”

카거든.

그래 그 사람이 수심을 해쌍이 저거매가 나와서

“니가 와 수심을 하노?”

카이, 그래

“어무이, 나무로 공을 다듬어가 물에 띄어 놓으면 어느 쪽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그것을 알아오라 카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다.”

카이,

“뿌리쪽이 물에 먼저 들어간다. 위에 올라오는 거는 끈티이쪽이고 뿌리쪽이 먼저 들어간다.”

이래 카더란다. 그래 나라님자테 그대로 카이,

“맞았다.”

카고, 또

“말로 많이 키우는데, 새끼를 낳아 키우고, 새끼를 낳아 키우고, 이래 한 울타리에 키우는데, 어느것이 에미인지 모르거든. 우째하면 에미와 새끼를 알겠노? 그걸 알아오라.”

카더란다.

17) 이 설화는 이종익의 소설 『사명대사』의 출가 동인을 듣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 그날 저녁에 또 와서 저거매자테 이바구를 한께,
“언제라도 말이 풀을 주면 에미가 먼저 입을 대야 새끼가 입을 댈다. 먼저 입을 대는기
에미다.”
이래 카거든. 그래 가서 나랏님자테 고했다. 고해놓이,
“그러면 니가 우째 알았노?”
이 카더란다. 그래 지가 내려가 옆드리갖고 절을 하면서,
“지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자테는 고래장 시키라 캐 놓고 우리 어무이도 고래장을 못
시키서, 집 뒤에 굴로 파놓고 낮으로 열어놓는데, 내가 가서 걱정을 한께 갠차주더라.”
이래 카이, 그래
“사람도 나 많은 사람 썰 수가 있다.”
카고, 그래 인간 칠십 고래장하는 거로, 그라고부터 고래장을 안 했단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2~223쪽.

[금정구 설화 24]

죽은 고양이 새끼의 일흔

구연자: 박사례(여, 63)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어떤 사람이 문 살아서 녀의 집 머슴을 사는데, 옛날에는 소죽을 새벽에 끓였거든. 그래
새벽에 끓이는데, 덩기 섬에 덩기 폭 퍼영는다는기 괴내기(고양이) 새끼 시 바리 낳아났는 걸
퍼영었어. 어둡어 소죽을 끓이가 어둡어 소한테 퍼주놓이 괴내기 새끼가 드간지 뵈이 드간지
몰랐어.

그 뒤 머슴을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가 장개를 가놓이, 아를 한 텃줄에 서이를 머슴아를
낳았거든. 이 머슴아들이 참 인물도 좋고 잘 크는데, 어떤 도사가 지내감서러 동냥을 하네.

“동냥 왔습니다.”

카이, 그 머슴아 저그 엄마가 동냥을 주거든. 주는데, 휘익 돌아보이 아들 서이가 달덩이
같거든. 그래

“저 아들 서이는 참 좋거마는……”

카고, 꺄꺄 쎄(혀)를 차고 가거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자꾸 달아붙어가 물었단 말이다.

“동냥을 더 주께 갈차 달라.”

고 물으니까네 그래,
 “저 아들로 구석방에 갇아놓고 뗏날 메칠을 밥을 주지 말고 갇아 놓아라.”
 카거든.
 “냉정하이, 어마이도 아바이도 그 아들이 죽는다 카더라도 물도 떠 주지 마라.”
 카거든. 그래 도사가 시기는 대로 아들 서이를 구석방에 갇아 뒀디마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캐쌩디마는 나중에는 한 일 주일 되이까네,
 “아웅, 아웅.”
 싸거든. 또
 “저 원수를 우째 갇을꼬, 저 원수를 우째 갇을꼬?”
 이래쌩거든. 그리이 소름이 끼치거든. 그래 맨날 메칠 놔둔께네, 그만 아무 소리도 없거든.
 없어서 가보이 죽어 있거든. 그래 도사를 불러
 “우째면 좋겠노?”
 카고 물으이,
 “그놈들을 둘이서 뒷산 큰 돌 밑에 묻어놓고, 엉개나무 가시를 석달 열흘 해가 쳐동개놓고,
 사흘 뒤 가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들어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라.”
 카거든. 그래 도사가 시기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 사흘 뒤에 가서 들어본께
 “나는 인제 뚫고 나왔다. 뚫고 나왔지마는 나는 문 나가겠다. 엉개나무를 석달 열흘로 쳐재
 났는데 우째 우리가 나가겠노?”
 “그럼 할 수 없다.”
 카면서 탁 말이 끄치더라 카데. 그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 카데.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38~240쪽.

[금정구 설화 25]

명 풍수 이야기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직에 산 지리를 잘 보는 풍순데, 그래 공부로 해도 다시(도시) 자기 기술이 모자라서,

그래 저 서울 우에 오대산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 산을 샅샅이 훑아서 내려왔거든. 공부로 해가지고.

산 지리로 훑아 내려와가 저 어데 한 군데를 오이까네, 참 명산이 좋더란다. 명산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명산에 뫼(墓)가 들었더란다. 뫼가 들었는데, 야시(여우)가 구무(구멍)로 뚫어 파서, 그 뫼에 큰 구무가 있는데 구무로 인대구리(人頭骨)가 나와 있더란다. 산은 명산인데 명산에 묻혀 있는데, 인대구리가 나와 있어서, 그래 작대기로 가지고 인대구리 눈에다 푹 꺾 놓고, 동네 한번 내려가보이까네, 동네 내려간다고 내려가보이까네, 정승 집에 가이, 막 야다(야단)이거든. 사람이 디갔다 나왔다 해쌓이,

“이 집이 와(왜) 이렇느냐?”

이러 카이,

“정승이 아직(아침)에 금방 눈을 앓아가 이래쌓는다.”

카거든. 그래,

“내가 한 번 보면 안 되겠느냐?”

카이, 다 보라 말로 안 하는데, 그 집 할마이가,

“한번 와 봐라.”

카더란다. 그래 그 사람이 가서 눈을 문치고(만지고) 이라이,

“덜 아프다.”

카더란다. 그래 낸중에

“소변하러 나온다.”

카고 나와가지고, 뫼가 바로 고 동네 우엔데(위인데), 올라가서 눈에 꼽아냈는 그 작대기를 빼뿌이 마 안 아프더란다. 안 아프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풍순데 선산을 함(한번) 보자.”

이러 카이, 그래 저그 선산에 댕고 가더란다. 가는데, 선산을 아주 잘 해냈거든. 잘 해냈는데, 보이 그집 선산이 아이라. 그 남자 저그 선산이 아이라. 그 남자는 딴 사람이라. 저그 옷대 선산이고. 그래 인자,

“선산이 당신네 선산이 아이다.”

이러 카이, 그 사람들도 시퍼렁이 성을 내거든.

“와 우리 선산인데 아이다 카노?”

“당신이 그래 카도 천없이도(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 선산 아이다.”

이러 카이, 그래 저그 선산을 찾아 줄라 카더란다. 이전에는 말로 타고 댕겼다네, 말에 돈을 한 바리 실어 주더란다. 그 풍수는 벌써 그 사람들 선산을 찾아냈거든. 그래 돈을 싣고 말로 타고, 그 돈을 실어가 저그 집에 갖다 주 놓고, 메칠 있다가 그래 가서 또 문 찾았다 카고, 또 나와서 메칠 댕기다가 가서,

“동네 뒤에 선산은 이 집 선산이다.”

카이까네, 그래 그 밑 사람들이가 그 사람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오디마는,

“이거 우리 삼촌 댜데.”

이러 카거든.

“우째 그렇노?”

카이,

“우리 삼촌이가 이 동네에서 그 전에 죄로 짓고 온데로(여러 곳으로) 돌아댱기고, 살림도 안 살고 돌아댱기다가, 죽게 돼가 와서러, 그래 여(여기) 물어났다.”

이러 카거든. 선산 잘 해났다 카는 정승 그 집이 그 남자가 저그 어마이자테(어머니에게) 달라들었거든, 그 사람들도.

“어매, 바른 말 하라고. 어짠 일이냐?”

이러 카이, 그래.

“이전에 너그 아버지 벼슬하러 가고 난 뒤 연당 안에 별당 짓고 각시가 들앳아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들앳어(들어왔어). 돌아가(들어와) 덮치고 나서 그 질로 죄로 지아가 저그 동네 몬 살고, 온데 돌아댱기다가 들앳어. 거(거기에) 뵈로 섰터란다. 섰는데, 그 선산이 그 집 선산이다.”

그래 그 뵈로 잘 써놓고 나서 그 집 손들도 잘 살고, 이 집에도 그래 잘 살터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9~201쪽.

[금정구 설화 26]

도깨비로 부자된 처녀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이전에 처이가 하나 앳아가주고 문을 열어놓고 장(늘) 바느질로 하고 앳아있으니, 도깨비란 놈이 가며 오며 자꾸 보고 그 처이자테 와가이고,

“니는 무엇이 제일 좋노?”

카이,

“나는 돈이 제일 좋다.”

카이, 어찌 돈을 갖다 주는지, 돈을 참 마이(많이) 갖다 주거든. 돈을 갖다 주고 이런데, 그래 도깨비 친해 사이까네, 처이가 얼굴에 혈색이 지고 떨라(떨려고) 카이, 다시 떨 수가 없어서러, 그래,

“당신은 무엇이 제일 무섭는지요?”

이러 카이까네.

“백 암세이(염소)하고 삽살개하고 제일 무섭다.”

카저든. 그래 인자 도깨비란 놈이 그 처이자테,

“너는 무엇이 제일 무섭노?”

카이, 처이가.

“나는 돈이 제일 무섭다.”

카이, 그래 도깨비란 놈이,

“돈이 첫째는(처음에는) 좋다 카디 인제는 무섭나?”

카이,

“무섭다.”

께다. 그래가 백 암세이를 저기 집에 짜다라(매우 많이) 몰아놓고 삽살개로 몰아다 매놓고
이래 놔놓이, 도깨비란 놈이 집 안에는 몬 들어오고,

“돈 봐라. 돈 봐라.”

카면서 돈을 짜다라 던져 주면서는 그라더란다.

“무정하리. 무정하리. 여자같이 무정하리. 니 안 보면 내 안 오지. 날면 보고, 들면 보고,
니 안 보면 내 안 오지. 여자같이 무정하리.”

카면서 노래로 부르고 떨어지더란다. 그래 그 처이가 도깨비 친해 가지고 부자가 됐단다.

(구연자의 첨가)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땅을 사놔놓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카이, 돈을 내 놓을 수 있나.

“땅 사놔다.”

카이, 땅 씨러(쓸어) 간다고, 도깨비란 놈이 땅에 말뚝을 박고서러,

“여차 여차.”

그래썩다가, 땅을 땡기썩다가, 간다 카데.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01~202쪽.

[금정구 설화 27]

피 많은 아들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아들로 댕고 살민서 나랏돈을 썼는데, 나랏돈을 쓰면 이자라도 딱딱 갖다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시(도시) 가난해갖고 나랏돈을 돈 갚으이께네, 나라 임금이가.

“돈 이자로 안 가올라 카거들랑 황소 젓을 구하고, 동지선달 죽순 나물로 구해가 오고, 또 제 새끼로 서 발 꼬아가 오나라.”

이러 카더란다. 그래 저그 아바이가 걱정을 하면서,

“돈을 돈 가가서 어짜꼬?”

카이꺼네, 아들이가 나라 임금님자테 가겠다 카거든. 그래 인자 그 아들이가 새끼로 서 발로 꼬아가이고 뭉치가이고 나라 임금자테 가더란다. 그래 아들이 가이, 나라 임금이가,

“야 너그 아부지가 안 오고 니가 오노?”

카이.

“우리 아부지가 순산(順産)하고 늣어 있심더.”

이러 카이,

“이늣 자식 남자가 우째 순산하노?”

카이,

“그러면 나랏님은 황소가 젓이 어디 있습니꺼?”

이러 카고, 또.

“동지 선달 죽순 나물이 어딴는기요?”

카더란다.

그라고 뭉치가이고 온 서발 새끼는 나랏님 앞에서 태아놓이, 고 자리에 가마이 고양(그냥) 재 새끼가 되더란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저그 아바이 화급한 일을 면하게 하더랍니다. 시건(識見) 있어놓이 아바이는 그래 걱정을 하는데, 지가 가서 아바이 할 말로 지가 하고 그라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02~203쪽.

[금정구 설화 28]

젯밥 얻어먹지 못한 죽은 아비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사램이 하나, 할배가 다시(도무지) 자식들이 맛있는 거를 안 사다 줘서,
“아이구 아들이 너그(너희들) 날 맛있는 거 좀 사다 도고(달라). 내 죽거든 제가 지내지 말고,
맛있는 거 좀 사다주거.”

이러이께, 그래 참, 자식들이 맛있는 거 마이(많이) 사다 주거든. 사다주는데, 그 지랄들이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 ‘제사 지내지 말라 칸다’고 애비가 죽고 나이 제사를 안 지냈어.

염래대왕이 가마이(가만히) 보이까네, 모두 제사지낸다 카모(하면서) 가더마는 명태제독(명
태조각)이라도 한 쪼가리 가오고(가져오고), 찌집이라도 한 쪼가리 가와가 염래대왕을 주는데,
이거는 뭐 생진(생전)에 안 가거든. 그래,

“니 와 제사지내는 데 안 가노?”

이러 카이,

“나는 전세에 제사를 못 지내라 캬입니더.”

이러 카이,

“아 그기 아이다. 내가 글을 한 자 써 주꾸마.”

글을 한 자 써 주면서러,

“니 가가서(가져가서) 너그 아들한테 딱 붙이나라.”

이러 카거든. 그래, 가와서 아들한테 딱 붙여놓이, 아들이 죽는다고 구불고 굿이 빠졌거든.
그래놓이 메느리가 대가 차든가(기질이 역세였던가) 재로 후리가지고 내리 퍼흘고 칼로 돌리고
이리하는데, 애비가 다시 이기지 못 해, 그 놈을(글자를) 띠가(떼어서) 다말라(달려) 와뻘단다.
염래대왕이,

“니 와 왔노?”

이래 카이,

“와이고 재로 덮이씨겜고, 칼로 내둘리쌍아서, 칼에 찔리 죽으까 겁이 나 내가 왔입니더.”

이러 카이,

“에라 이 사람.”

이라 카고, 또 글을 한 자 써 주민서러,

“아나, 이거를 가아가(가져가) 방아실(방앗간)에 붙이 나라.”

카민서 주거든. 또 방아실에 갖다 붙이놓이, 빈 방아가 자꾸 찍히 쌓이, 나락을 갖다영어놓이,
쌀어 영기만(쓸어 넣기만) 쌀어 영으이 되고, 흥재빠까리(횡재덩이)거든.

“야, 그것도 안 된다. 또 띠(떼어) 오라.”

또, 띠 갔다.

“임마, 니 그라지 말고, 저 질(길) 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그럴듯한 사람한테 붙이 놓지. 한
상 얻어 묵구로.”

이러 카이,

“아, 그렇다. 참.”

그래 가와가 질 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참 해가 가는 것이 부자 버털같이 해가 가거든. 그 사람한테 딱 붙이놓이, 그 사람이 저그 집에 가서 죽는다고 구불어썰이, 그래, 장을 봐가 주고, 온 마리 괴기(고기)에다가, 대국 놓고 해가 한 상 잘 채리놓고, 손을 비비고 이라거든. 그래 잘 얻어 묵고, 그래 저그 염래대왕 갖다 줬어.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0~211쪽.

[금정구 설화 29]

지령이 자식을 낳은 선녀

구연자: 박사례(여, 63)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한 옥황상제님이 딸을 낳아가 저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모시놔거든. 그런데, 이 옥황상제 딸님이 달밤에 똑 화초밭에 물을 주거든. 낮에는 애인 만낼까 봐 겁이 나서. 그래 물을 주는데, 물을 주다가 오줌이 내렵으면(마려우면) 화초밭에 그 노뿌고(누어버리고), 또 그 이튿날도 달밤에 물로 주다가 또 오줌을 노뿌고, 달 있을 따라(동안에는) 내(늘) 오줌을 늦어(누었어). 그래 오줌을 눈 그 죄백에 없는데, 이 딸님이 아를(아기를) 가졌어.

하늘에서 굿이 났거든. 난리가 났거든.

그래 아(아이) 가진 옥황상제 딸로 지하로 보내뵈다. 지하로 보내놓이, 그래 지하에 있다가 알라(아기)를 낳아놓으이, 달덩어리 걸은 아들로 낳았거든. 낳아가 인제 키운다, 키우이, 잘 크고 인물도 좋고, 이래놓이 참 잘 크고, 잘 사는데, 한 대사님이 지내가먼시러 동냥하러 왔거든. 그래 동냥을 떡 줬다. 주고 나이, 나가먼시러 또 썩로(허를) 끌끌 차고 나가거든.

“그래 어째서 남우(남의) 아들로 보고, 달덩어리 걸은 아들로 보고, 썩로 끌끌 차고 나가느냐?”

고 물으이, 그래 훗분(뒷번)에 와서 꺾차(가르쳐) 줄라(주겠다) 하거든. 그래 훗분에 와서 꺾차 줄라고(달라고) 대사님한테 빌었다. 빌어놓으이, 그 다음에 또 왔는데, 그래 자꾸 빌면시는(빌면서) 물으이까네.

“내 시키는대로 할라냐?”

고 그래. 뻗분(뻗번)이나 다짐을 받거든.

“그래 하겠다.”

고, 그래 카이,

“참먹을 수 십 자리(자루) 갖다놓고 버지기(자배기) 물로 한 버지기 담아놓고 그 먹을 거다 (거기에다) 갈아 다 풀어가, 그래 우짜느냐 카문, 알라를 뺨기벗기(발가벗겨) 그 안에 열어라.”

카더란다. 그래서 먹을 멧날 메칠로 갈았다. 갈아가 그 물에 알라로 열으니까네, 커다란 지렁이가 희떡 뒤비져 돼뿌더란다.

그래서 화초밭에 오줌을 누이까네, 지렁이 그 걸림밭을 적에 거(거기) 누고, 누고 해서, 그래 그 신기(腎氣)가 올라와서 그 아가 됐어. 그래 옥황상제 딸이 애면(누명)을 벗더랍니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1~213쪽.

[금정구 설화 30]

거짓말 잘하는 사위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사우를 하나 보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우를 봤거든. 그래 사우를 세아(세워) 놓고,

“니 거짓말 안 하노? 안 하노?”

카이, 사우가,

“거짓말 못 합니다.”

카디마는, 한날(하루는) 나무하러 가자 카거든. 쟁인하고 산에 올라가, 앞에 올라가주고,

“아이구, 뭐 잊어뻘네.”

카고 나무터 가가주고 다부 산 밑으로 내려가더란다. 집에 내려가서 장모를 보고,

“아이구, 나무를 비(베)다가 쟁인 어른이 남게 받혀서 죽었습니다.”

카이,

“아이구, 우짜꼬, 이놈의 영괘이 왜 죽었노?”

카면서러, 장모가 산으로 다말라(달려) 올라오고, 지(자기)는 다말라쳐 머이(먼저) 올라와가 쟁인자테 와가,

“아이구 쟁인어른요 쟁인어른요, 집에 불이 나가 지금 야단입니다.”

카이,

“이놈의 권석들이 우짜다가 불로 냈노?”

카며 다말라쳐서 내려오고, 여서 울고 올라가고, 그래 쟁인하고 장모하고 마주치가주고, 그래 혼이 나고는 사우자테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카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3~224쪽.

[금정구 설화 31]

도둑질 잘하는 며느리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며느리를 하나, 도둑질 잘 하는 며느리를 하나 봤거든. 봤는데, 다시(도무지) 도둑질을 안해. 안 해서,

“야야, 니가 도둑해가 온다더니, 왜 도둑 안 해가주고 오노?”

카이,

“아부이요, 뒷 감당 잘 할란교?”

이래 카더마는, 누가 명지를 한 필 씹겨(씻어) 넣어놨는 거를, 물 이로 나가서, 흠쳐 왔거든.

이웃이 명지를 찾아서 굶이거든. 그래,

“이 집 춘다(뒤진다).”

카고 들오인까네, 시아부지가 나오지도 않고 벌벌 떨어쌍거든. 며느리가 명지를,

“아부이요, 도둑질 하라 캐 놓고, 예(여기) 있소. 간수하소.”

카고 명지를 주이, 받아들고 벌벌 떨어쌍거든. 떨어싸이 며느리가 다부 뺏들디마는 착착 접치가주고 쌀 앞치 논 솔에 쌀을 들어내고 그 밑에 앞치놓고 그 우에 쌀 앞치 놓고 불을 때 이까네, 이웃이 와서 암만 찾아봐도 못 찾더란다.

그래, 도둑질하는 사람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도 없이 며느리를 보고 도둑질해라 해라 카는 거는 잘못 시킨대(시킨다) 아이가?(아니냐?)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4~225쪽.

[금정구 설화 32]

어리석은 범 이야기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저 어느 산중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이 빗어. 그래 종이 하나 가가주고,

“절이 빚으니 내가 여기에 살까?”

한께,

“못 산다.”

카거든.

“왜 못 사노?”

카이,

“밤중만 되면 범이 와서 물고 가고, 물고 가고 그런데, 자기 하나 있는데, 나는 집단만데이 다락에 숨어 있는데 오늘 지녁 내 죽을 차례다.”

이래 카거든. 그래서

“내가 살아보자.”

그래 그 사람이 그날 지녁에 방에 균불을 데기 열고 숯불을 한 화로에 담아가주고 그 다락 우에 갖다 놓고 지(자기가) 앉아 있거든. 밤중쯤 되이가 ‘우두두’ 하더이 큰 범이 하나 오거든. 오는걸로 화로 숯불로 콕 덮어씌우니까네 온 털이기에 불이 붙어가 두굴두굴 구불다가 못 견디서 죽더란다. 죽어놓이 그래 거서(거기에서) 사는데, 그 이튿날 되인까네 또 범이 하나 오거든. 또 하나 오인까네 이 사람이 피가 아주 있어서 범을 달래서,

“사람을 잡아 목지 말고 내캉 가문 토까이캉 새캉 마이(많이) 잡아 줄꺼이까네 내 따라가자.”

“그래 가자.”

카면서 따라 오거든.

따라 오는거로 그래 인자 데기 추울 때인데,

“내가 괴기를 후칠(훤일)테니 거랑에 앉아 입을 딱 벌리고 있거라.”

카이, 범이 거랑에 앉아 입을 딱 벌리고 한참 있으이, 범이 콩대이(꼬리)가 얼어 붙어가 못 따라 오더란다. 얼어 붙어서.

그래 그 사람이 내빼이 흘쩍 띠가(떼어가) 또 범이 따라 오거든. 오는 것을 한 동네에 가다가 대밭에 앉차(앉히어)놓고 새 후쳐 영는다고,

“새가 여 마이(많으니)까네 후쳐 영어 줄터이까네 그 가마이 앉아 입을 벌리고 있어라.”

카인께, 범이 입을 딱 벌리고 풀쩍 앉아 있으인께, 대밭 가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새 드간 다.’고 가암(고함)을 지르고 이래놓이 불이 붙어가 그 범이 죽어뿌리더란다. 그래 그 산에 범을 두 마리 다 잡아뿌고 절을 잘 해가더란다, 이전에. 범 때민에 (필자주: 절을 유지하지)못하다가.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3]

지혜 많은 처

구연자: 윤필순(여, 71)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예전에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바보고 한 사람은 똑똑한데, 바보 이 사람 마누래가 아주 미인이라. 인물이 잘났어. 이래 놔놓이, 똑똑은 그 사람이 바보 마누래를 빼뜰라고 하리(하루)는.

“아무거이 아무거이.”

부르더란다.

“왜 그라노?”

칸께네.

“니강내강 수끼지름(수수께끼)을 하자. 수끼지름을 해가 지고 진 사람 마누래 주기로 하자.”

이라거든. 축구같은기, 하도 못하는기, 알아 맞히지도 못할기.

“그럼 하자.”

그래, 똑똑한 기가.

“내 먼저 할끼이 니 알아 맞히라.”

그 카거든.

“그럼 해 봐라.”

카이.

“저게, 콩 하나 가주고 열둘이 갈라 묵고 주묵띠이(주먹덩이)만치 남는기 뵈꼬?”

이카거든. 콩, 그거 한 알이 주묵띠이만 하지도 안하는데, 콩 하나 가주고 열둘이가 갈라 묵고 주묵띠이만치 남는기 뵈꼬 카이, 알아 맞힐 도리가 없거든. 이레가.

“난 모르겠다.”

이라이,

“그럼 니 마누래 내 주기다.”

언약을 해놔놓이 할 수 있나.

“좋다, 준다.”

“아무날 너그 마누래 더불로(데리러) 간다.”

“그래 해라.”

바보가 돼놓이 시긴 대로 하는기라.

그 질로 집으로 와가지고 걱정을 한다. 밥도 안 묵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가(누워서), 암만(아무리) 마누래가 밥을 묵어라 캐도 밥을 안 묵거든. 그래,

“와(왜) 그렇느냐?”

고 자꾸 물어쌓이,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

“아무거이가 수끼지름 해가주고 이긴 사람잘에 마누래 주기로 하자 캐서 그래 내가 했디이,

수끼지름이 어찌 어려운(어려운) 거를 하는지 내가 못 맞췄다.”
카이, 마누래가 뭐라 카는기 아이라,
“수끼지름을 우째 하더냐?”
고 카거든. 그래,
“콩 하나로 열두이 갈라 묵고 주묵띠이만치 남는기 뵈꼬?”
이카더라. 카이,
“걱정하지 마소, 아이구 대장부가 돼가지고 어찌 그걸 해석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느냐? 어느날 올라카더냐?”
고 물은께,
“아무날 그날 더블로(테리러) 올라 캬다.”
이라이,
“걱정하지 말고, 밥 자시고, 그날은 어데 저 어데 저 멀리 낚시나 하로 가소.”
카거든.
그래, 그 날은 여자가 한복단장을 하고, 더 인물을 미인맨치로 내가지고, 마리끝이 걸쳐
앉아 가지고 바느질을 하거든. 바느질을 한께, 이놈이 삿짝거리에 와가지고,
“아무거이 아무거이”
찾은께, 여자가 바느질하던 것을 내라 놓고 일어서면서러,
“우리집 양반은 끈 없는 낚시로 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고기 낚으로 갔소.”
이라거든. 이놈이 무릎팍을 탁 치면서,
“거짓말도 여간해야지!”
이라거든. 그래, 이 여자가 나가면서,
“애 이놈, 니 놈은 우째서 콩 하나 가지고 열두이 갈라묵고 주묵띠이만치 남노? 니는 거짓
말이 아이가? 니가 거짓말해가 념의 여자 빼틀라 카는 놈이나, 내 남편 안 뺏길라고 거짓말
하는기나 마찬가지 아이가 이놈아!”
저기 코를 우다싸고(움켜쥐고) 달아 빼뿌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누래를 안 뺏겼다요, 마누래가 똑똑해서.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6~229쪽.

[김정구 설화 34]

장님 영감과 병어리 할멈

구연자: 김복련(여, 80)

채집일: 1987. 9. 20.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할마이는 버버리고 영감은 봉사거든. 봉사가,
“어디서 왁작하게 시끄럽노?”
카이, 버버리 할마이가 영감 손에 나이타를 쥐어주더라. 쥐어주어,
“아, 불 났나? 어데 불이 났는고?”
카이, 영감 등더리를 툇 때리거든.
“아, 등 너메 불 났구나! 등 너메 누 집에 불이 났는고?”
카이, 영감 입수구리를 쿡 찌알라 주어,
“아, 등 너메 입술네 집에 불이 났구나.”
이래 카더라.
“뭇 하다가 불을 냈는고?”
이러 카이, 영감 불알로 쿡 찌알라 주어,
“아, 감자 삶다가 불로 냈구나!”
카더라.
“얼마나 탔는고?”
카이, 낭신을 쿡 찌알라 주어,
“아, 좃지동만 남았구나!”
카더라.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9~230쪽.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목이 ‘봉사 영감과 병어리 할멈’임.

[금정구 설화 35]

별난 시조부를 길들인 이야기

구연자: 윤필순(여, 71)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예전에 한 영감이 어떻게 별나든지 제사가 들면, 손부들로 도저히 말도 못하도록 하고, ‘말 하면 음식에 춤(침) 뛰어(튀어) 들어간다고 말하지 마라’ 카고, 음식을 해도 제사지내기 전에는 징손(曾孫)들이 꺾떡거리도 쪼매 못 뛰(떼어) 주도록 하는기라. ‘제사지내고 나야 음식을 논놔

(나누어) 주라' 카고, 뭐 쪼개 잘못하면, 그걸 흠집으로 잡고 있다가, 제사 파제날, 똑 굴겘이 땅을 파놓고 손부들을 꼭 옥(獄)매이쳐로 거다 간아뿌리는기라. 간아뿌고 석달 동안 주묵밥을 주고 옥을 비(뵈)는기라.

그러인께, 그 소문이 나이 막내이 손자 하나가 있는데, 장개를 디릴 수가 없는기라. 이러이 매자(중매자)를 내세워 온 데를 땡기이, 어데 한 산골짜에 본판은 양반인데, 못 살아서 참 구차한기라. 이 양반집에 딸이 있다 캐서 가보이, 마지(맏)딸이 있는데, 중신하는 사람이 가서,

“논 닷마지기 태아줄끼께 딸을 거게 치우라.”

고 카이,

“내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딸자식을 생지옥에 보낼 수 없으이, 나는 그런 혼인 안 한다.”

고 이란께, 딸이 가마이 문 앞에서 들으이, 귀가 솔깃하거든. 그래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아바씨 듣는데,

“지를 그 집에다가 혼인을 시키주이소.”

카거든.

“나는 그런 짓 못한다. 자식을 키와가 지옥에다가 우에 넣노?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아부지 절대 그기 아인께, 매자를 보내서 혼인을 하이소.”

카더란다.

그래 딸이 하도 권해쌓인께, 혼인이 돼가 시집을 떡 가서 기일(忌日)날 제사가 딱 드는기라. 남 몰리 살짝 정지 가서 칼로 가지고 손가락을 쪼개 비(베)는기라. 피가 날 정도로 쪼개 썩 비가 딱 형겘으로 싸매고,

“제사 음식이 깨끗한 음식인데, 암만 새 손부지마는 손에 피가 나는 때민에 음식을 못한다.”

카거든.

“그래 못한께 올 개(해) 잘 배와가, 형님들 하는거 잘 배 와가, 내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카면서 일부로 손을 빚는기라.

그래 음식을 하는데 보이, 참 엄하거든. 전부 입도 딸씩 안 하고, 징손이 암만 꺾떡거리도 조금도 안 띵(떼어) 주고, 그래 하거든. 그걸 보고, 이듬해가 되자, 새 손부가 제사 때 음식을 들차고 하거든. 들차고 하는데, 음식을 해가 제사에 쓸 거는 딱 제놓고 조카들한테 음식을 쪽 갈라주는기라. ‘자손 없는 조상이 어디 있느냐’고 카면서 ‘조상 자실 거 먼저 채려놓고 그 밑에는 자손들에게 주야 한다’ 카면서 떡같은 거를 툇 띵주고 이라인께네, 우에 동서들이 벌벌 겁이 나는기라. 저 사람 내일 죽어났다고 이래 겁을 내고 있는데, 제사를 툇 지내고 나서, 새 사람이기 소복단장한 채로 잔을 쳐놓고 한참 엇디리가주고 있다가 일어나마는 시조부한테 음복을 채리가 묻거든.

“할아부지!”

시조부는 지금 앵꽂아가주고 있으면서 그래,

“왜 그라냐?”

한끼

“할아버지 갓망이 두 갓니꺼?”

이래 묻거든.

“한 개지.”

이라거든.

“아이고, 할아버지 그래놓이, 옷대 조상들이 와서러 할아버지를 그렇기 야단치는깁니다. 갓을 한 개를 씨고, 념의 굿은 일도 보고 좋은 일도 보고, 또 그 갓을 씨고 제우를 모셨으이, 옷대 조상들이 우째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꺼? 갓망이 두 개가 돼야 되지, 어데 나갈 때는 언제나 그 갓망을 씨고, 제사지낼 때는 새 갓망 장만해 났다가 그 갓을 씨고 제사를 지내고 이래야지, 안 그렇다고 우에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더.”

이라거든.

영감쟁이가 그 소리를 들으이 참 그럴 듯하거든. 또,

“할아버지, 장을 일 년에 몇 독 답습니꺼?”

“장을 여러 독에 담으면 맛이 없기 때민에 큰 독에 한 독우 담지.”

“그래놓이 조상들이 난리가 났습니더. 만날 떠 먹던 그 장 떠다가 제사 음식하고, 그란다고 난리가 났습니더.”

그라디마는 시조부가 음복을 다 먹고나이, 떡 오디마는,

“할아버지, 지한테 업히이소.”

카거든. 그래,

“왜 그라노?”

카인께,

“옷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귀양보내라 갑디더. 저 구덩이에다가 귀양보내라 갑디더. 업히이소.”

이래 카거든. 지가 한 일이 돼놓이 할 수 있나. 손부 말을 들으이 옳기 맞거든. 그러이 할 수 없이 업혔다. 업히가가 굴 안에 들어가 한참 앉아 있어보이 죽을 지경이라, 영감쟁이라도.

그래도 어른이 돼놓으이 구무(구멍)밥은 안 주고 밥을 채리가 갖다 주는데도 갑갑해서 죽겠거든. 젊은 것들이 열매나 고생했겠노 싶어거든. 그래 하리를 지내고,

“할아버지, 저그들이 잘못했으면 석달로 살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어른인께 할 수 없이 사흘만 기시다가 나오이소.”

그라고 사흘이 된께 업으로 가더란다.

“할아버지 나오이소. 지한테 업히이소. 할아버지 이래도 또 손자들 못 띠(떼어)주라 카고 음식할 때 입 봉하라 카고, 그랄깁니꺼?”

카이,

“이제 절대, 절대 안 그랄깁께. 인제 손부 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집에 손부들이, 동서끼리 술키(쉽게) 잘 지냈단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30~233쪽.

[금정구 설화 36]

효부 이야기

구연자: 박사례(여, 63)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 늙은 시어마이가 있었거든. 그래 시어마이가 살다가 노망을 했는데, 노망을 한 어른을 집에 놔두고 모 숨구로 다 가가주고 있다가 며느리가 모밥하로 집에 왔거든. 점심밥 하로 와가주고 보이, 열라가 없거든. 그래 열라를 두리두리 살피보이 아(아이)가 없어서 밥할라고 소두뱅이를 연께네 아를 떡 삶아놔거든. 시어마이가 닭이라고, 시어마이가 노망을 해놓으이 닭 기기(고기)가 자시고 싶던 모앵이라. 그래 닭이라고 아를 삶아놔거든.

그래 그 며느리가 암말도(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끄집어 내가주고 아를 뒷산에 묻어 빼고, 그래 그 솔 싹거가주고 밥을 했다.

그러이 모 송구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가 났거든. 그 집 양반은 ‘저거(자기 처) 오면 팽이로 가주고 대갈몽대이(머리) 썰리가(때려) 직이뿌지’ 카고 마음을 묵고 있는데, 그래 밥을 오후 세시나 돼서 이고 왔거든. 그러이 그 집 양반이 팽이로 들고 썰리라 카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

카거든. 그래,

“얘기를 해보라.”

카거든.

“어무이가 닭이라고 아를 삶아놔서 내가 아를 뒷산에 묻고 그 솔을 싹거가주고 밥 해오이, 이래 늦습니다.”

카이까네, 그 남자가 데기(되게) 별라던 모앵이라. 늙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마누래를 때리 는가 우째는가 본다고 쪽 서가 봤거든. 보이, 마누래로 등을 툭툭 두드리거든. 그래 그 밥을 다 묵고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란다.

“오늘 낮에 점삼 늦은 것은 우리 어무이가 노망끼가 있어가주고 닭 삶는다는기 아를 삶아 가주고 그걸 치아뿌고 밥을 해 온다고 점삼이 늦었습니다. 그래 용서하시오.”

카더란다. 그래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하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33~234쪽.

[금정구 설화 37]

초립동 신랑과 은혜값은 도둑

구연자: 윤필순(여, 71)

채집일: 1987. 9. 25.

채집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옛날에는 전부 나이 어려서 장개를 보내거든, 한 열두 살이나 열시 살이나 요래 무서(먹어서) 장개를 보내는데, 마누라는 우째 돼노 카면 열여덟이나 돼서 다섯 살 차나 더 먹는기라.

이렇는데, 그래 새파란 초립딩이를 장개를 디리는데, 처녀쪽도 부자라. 그래 친정도 잘 살고 시집도 잘 사는데, 시집을 오이, 마누라는 나이가 지긋하이 걱정이라 말이다.

그런데, 저 초립딩이는 천지도 모르고 누우서 잠만 자쌍거든. 그래 마누래가 가마이 생각하이 ‘어른이 천만 년 안 살끼고, 세상을 떠고 나면, 저 나이 어린 가장을 데리고 내가 이 큰 살림을 어째 감당을 해나가노?’ 카고 걱정을 하이 잠이 안 와.

그래 잠이 안 와 있으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로 왔어. 부잣집 딸이 돼놓이, 패물을 많이 가져왔지 싶어서 도둑질을 하로 왔는데, 너무 일찍어서 마리 밑에 들어가서 딱 옆드리가 있다 아이가? 잠 들면 패물 훔치 갈라고 그런데, 이 마누래가 잠을 안 자고 걱정을 하고 몸을 뒤척거리다 가마이 보이, 마리 밑에 도둑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자기 패물함을 끄내가 문을 열고 훑 집어 던져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밤이슬 맞고 땀기지 말고, 논 사고 밭 사고 이래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 이런 일 다시 하지 말고 살아라.”

카고, 패물함을 던져 주었어. 그래 도둑놈이 그걸 가져가서 논 사고 밭 사고 사는데, 빌어 목을거, 근성이 안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자빠져 놀고 하인께, 밋 년 안 가서 논밭을 다 팔아 목었어.

그래 이 마누래는 시집을 와가지고, 첫 애기로 아들을 낳았어. 아들로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서 장개로 디리는데, 이 빌어목을 놈이 또 근성이 남아가 어데로 도둑질하로 갔나 카면 이 초립딩이 장개갈 처녀 별당에 도둑질하로 갔어. 가서 별당 마리 밑에 가마이 배를 붙이가 옆드리가 있으인께, 별당에 간부가 있었던 모앵이지. 간부가 벽장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너는 좋겠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날 밤에 내가 벽장 안에 들았았을끼께, 쇧대로 문만 까라 주면, 내가 뛰어나와서 칼로 초립딩이 목을 쳐놓고 나캉 도망가자.”

카거든. 도둑놈이 그 소리를 딱 들으이, 신랑이 지(제)가 처음 도둑질하로 간, 패물 준 그 집 아들인기라. 그래 ‘아이구 옳지 댘다’ 싶어서 이번에 한분 은혜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집을 좇아갔어.

그런데, 옛날 이 집 마누래가 패물함을 이 도둑을 주고도, 남편한테 안 그러카고, 부모한테도

안 그러카고, 집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기라. 감쪽같이 모르는기라. 그래 그 도둑이 사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을 찾으니까, 우엔 사람이냐고 묻더라.

“지는 밤이슬 맞고 땀기는 사람입니다.”

“밤이슬 맞고 땀기는 사람이 낮에 왜 왔느냐?”

이라니까,

“아무 때 연분에 이 마님 패물을 훔치로 와가, 마님이 하도 잠을 안 자고 해서 내가 마리 밑에 숨어가 있었다이, 패물함을 던져주서 날로갓다가 논 사고 밭 사고 자숙 덧고 잘 살면서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 카면서 던져 주서, 내가 그걸 가주가는 논 사고 밭 사고 이래 사는데. 내가 근성이 남아가주고 내가 또 어데 도둑질 하로 갔느냐 카면 이 맥 사돈네 집에 처녀 별당에 가서 보이 약차약차 그러하니까, 그리 혼사 파혼하고 하지 마라”

이카거든. 그래 초립딩이가 가마이 앉아 듣디마는, 이제 나이 열두 살 묵은 초립딩이가 “걱정하지 말고 그리 혼사하라.”

카더라. 그리이 도둑놈이 펄쩍 뛰거든. 가면 죽을 터인데, 안 된다고 못 하구로 하이, “그 감당은 내가 할끼게 아무 짓 하지 말고, 그리로 혼사를 하라.”

카더라.

그러구로 날이 떡 돼서, 장개질을 채리가 가는데, 도둑놈이

“꼭 그리 장개를 가고 싶으면 지가 하인으로 따라가야 된다.”

카거든.

“그러면 따라 가자.”

캐서, 이 도둑놈이 따라갈 때 몽딩이 하나 가주고 그 집에 가서 별당 마리 밑에 가 숨었거든.

그래 예(禮)를 하고 첫날 저녁에 별당에 들었는데, 이 초립딩이가 자는 치(체)하고 눈을 감고 누웠으이, 인물이 열매나 옥골(玉骨)이고 좋든지, 이 년이 가마이 보이 기도 안 차거든. 저 간부 저그는 늙었지, 그렇는데 이 초립딩이는 인물이 열매나 잘 나고 옥골인지 그만 색시가 한숨을 수루루 쉬더라.

이때 초립딩이가 눈을 퍼뜩 뜨고 일었다마는,

“내가 자꾸 잠을 청할라 캐도 잠이 안 오고, 저 벽장만 쳐려(쳐다)보이, 자꾸 눈이 뜨이고 잠이 안 온다.”

고 이라면서 일았거든. 그래 일었다마는 한다는 말이,

“원측으로 할라 카면 우리가 첫날밤을 자고 내일 장인 장모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천상 온지녁(오늘 저녁)에 장인 장모를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잠이 오지, 도저히 잠이 안 온다.”

고, 하도 이개쌍이 할 수 있나. 그래 장인 장모를 불렀어. 장인 장모를 불러가 인사를 하디 마는,

“원측이 법은 온지녁에 내가 자고 내일 장인 장모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짤지 온지녁에 내가 장인 장모한테 인사를 하고 여쭙 말이 있어서 그런다.”

고 이라이,

“왜 그러느냐? 말 좀 해 보라.”

고 이라이,

“저 벽장문 끼루기 전에는 내가 못 자겠다.”

카더란다.

그라이, 이 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것 아인가베. 그래 장인이,

“어서 바빠 저 벽장문을 끼라라. 누 영(命)이라고 거역할 것꼬? 끼라라.”

안 끼루고 자꾸 있거든.

“안 끼루느냐?”

고, 고태를 지르인께 할 수 있나?

부모가 그러쌓인께 끼를라고 일어서는데 초립딩이가 퍼뜩 일어나마는 두통베개에다가 지 초립을 벗어 씨아놓고 장모 큰 치매를 훌쩍 들시고 그 안에 쑥 들어가 엎어져가 있거든.

그래 이 년이 문을 끼루이, 저 놈이 눈에 불이 중발띠이만하이 해가주고 뛰나오면서 칼로 베개 그걸 탁 쳐뺐어. 그걸 초립딩이라고.

그라고, 별당 바깥으로 뛰나온께, 마리 밑에서 징키고 있던 도둑놈이 몽둥이를 가주고 아랫 두리를 때리주이, 두 재죽도 못 가서 그만 펍 엎어지거든.

초립딩이는 장모 치매 밑에서 나오는데, 땀이 나서 옷이 훌쩍 다 젖었더란다.

“장모님 보이쇼. 이런 놈이 벽장 안에 있는데, 내가 벽장을 쳐다보이, 잠이 오겠느냐고. 그래서 장인 장모를 내일 봐야 되는데 청했다.”

고.

그래 상객으로 따라간 저그 아바씨가 그걸 알고 대번에 초립딩이를 데고 돌아가고, 처이는 애비가 목을 쳐가 직이뿌고, 그래 그 질로 가서 도둑놈 한 살림 채리주서, 도둑놈은 그 질로 가서, 그 짓 안 하고 잘 사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34~238쪽.

[금정구 설화 38]

뱀 서방 이야기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적에 부인네가 자식을 못 낳가지고 불공을 드리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놓이 구리를

낳았어. 큰 구리를 한 마리 낳았어. 구리를 한 마리 커다란 걸 낳아놓이 뒷집에 장재 집에 처이가 서이가 있거든.

“어무이요, 어무이요, 뒷집에 장재 집에 낳 장겜 안 보내주면 어무이 나왔던 궁기에 칼 들고 도치 들고 다부 들어갈랍니다.”

카거든. 그래, 그래 카는 걸로,

“내가 그 집에 가서 어째 말로 할꼬? 우리, 없는 사람도 어덴데(딱한데), 구리한테 누가 시집 올라 카겠노?”

이러 카인까네

“어무이 한번 가보라.”

카더란다.

그래 그 집에 가서 말이 안 나와가이고 삼작거리 가서 팍 한번 엮어지고, 마당 복판에 한번 엮어지고, 마리 끝에 한번 엮어지고, 말이 안 나와서 그래 엮어지이, 그라이 장재 영감 쟁이가 나오디마는,

“왜 이래 엮어지느냐?”

고 묻거든. 그래 인자 이바굴 했어.

“내가 불공드려 우리 아들을 낳아놓이 구리를 한 마리 낳아났는데, 이 집에 장개 안 보내 주면 나왔던 궁기(구멍)로 도치(도끼)하고 칼하고 들고 다부 드갈라 칸다.”

카인까네 노인네가,

“거기 앉아라.”

이러 카더란다. 그래앉아가 있으이, 큰 딸을 불러가이고 물으이까네,

“아버지는 어찌 사람을 구리한테 시집을 보낼라 카는기요?”

이러 카는기라. 복판 딸도 그리고, 막랑 딸에게 물으이까네,

“아부지 마음대로 하라.”

카더란다. 아부지 마음 실릴(쏟릴)대로 하라 카더란다. 그래 막랑 딸이가 시집을 갈라 카거든.

그래 날로 받아가 잔치를 한다. 크기 동네 잔치를 하이, 구리가 장개를 가는데 간지깨이(큰 장대)로 큰 거로, 굵은 거로, 타고 가거든. 타고 가서 떠억 대리청(대례청)에 가서, 처이강 예를 했다. 예로 하고 첫날밤에 구리강 처이강 한데 드갔다. 처이가 드가가이고 구리강 있는데, 구리가 말로 하거든.

“처자야, 처자야, 너그 집에 묵은 밀가리 있나?”

이러 카이,

“부자 장자 집에 밀가리 없을까요?”

이러 카거든.

“너그 집에 묵은 간장 있나?”

이러 카인께네,

“부자 장자 집에 묵은 간장도 있다.”

카거든. 그래,

“간장 여기 큰 대통같은 데 향겨 가오너라. 그리고 밀가리도 많이 가오너라.”

이러 카거든.

첫날밤에 처이가 일어나 종을 불러 가이고 밀가리하고 간장하고 앞에 갖다 났다. 바아(방에) 갖다놓고 있으이, 구리가 간장에 두굴두굴 구불디마는 밀가리 거게 또 두굴두굴 구부이, 세상에 그런 인물이 없어. 하늘 사람이라. 그래가 첫날밤에 각시하고 그래 잘 자고, 며칠 동안 동상 레하고, 장난도 하고, 노다가 구리가,

“내가 하늘 사람인데, 하늘 올라간다. 이 허물로 니가 언제라도 징겨야 내 얼굴로 보지, 허물로 안 징기면 내 얼굴도 못 본다.”

이러 카거든. 그래 딱 허물로 각시로 주거든, 구리가.

“언제라도 니가 징기라. 니 머리에도 쪼개이 꼽아 있거라.”

카는기라.

“니가 이 허물이 없을 때 하늘에서 북을 뚜드리거들랑 니가 그래 알거라.”

이래 카며, 그래 신랑은 어데 가고 없고, 각시가 그래 있으이, 구리가 하늘사람이라놓이 어찌 돈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 부자가 났어.

늙은이가 부자로 잘 살고 이라이까네, 저그 형제간에도 게살(질투)이 나거든.

“보래, 아무것아, 이 잡아 주께 여 옆우레라(옆드리라)”

카거든. 저그 동세이로, 처이가, 저그는 시집도 못 가고, 그래 옆우리이까네 머리에 있는 허물로 싹 빼가지고 부석에다 사래뿔거든. 이를 잡은께 무슨 재미가 있나?. 그러이께네 잠이 잘 안 오나?

잠이 들어서 자이, 하늘에서 북을 등등 세 번 뚜드리거든. 활딱 놀래 일어나보이 노랑내가 들어차. 그래 부석 불을 휘적거리이까네 쪼개는 쪼가리가 하나 남았더란다.

그래 남았는 거로 또 종우에 썼다. 싸가지고 이전에 우태(혼수) 받은거 한 폭 따서 바랑 짓고 한 폭 따서 수건하고 곁빵해가지고 지이(정처)없이 뒀다. 찾아간다. 질로질로 찾아가이, 딸아가,

“후여! 후여!”

이러 카며,

“내일은 정대룡(정도령) 장가가는데, 콩깍데기 얻어묵고, 오늘만 까 묵고 묵지 마라.”

이러 카거든. 그래 가족신하고 반지하고 물건은 지가(자기가) 다 징겼던기라.

“야야, 야야, 내 신 한 커리(컬레) 좋은거 줄께, 니 정대룡 장가가는 데 좀 갈차주가”

이러 카이께,

“요게 가면 웅달샘이 하나 있을끼라, 고(거기) 폭 빠지면 정대룡 장가가는 데를 불끼라.”

이러 카더란다. 가다가 다 가가인께, 질로 잊어뿌고 재미도 없는데, 또 요년의 가시나가

“후여! 후여!”

카며,

“오늘만 까 묵고 내일은 정대롱 장가가는데, 콩깍데기 얻어묵고, 오늘만 까 묵고 묵지 마라.”

이러 카거든. 또 그래 보물을 전부 다 주고 갈차줄라 켜거든. 그래 갈차주는 데로 고 가이 까네, 새파란 옹달샘이가 하나 있더라. 고 폭 빠지라 카더라. 그래 그냥 폭 빠지인까네, 거 가이 세계가 어찌 좋든지 별천지라. 그래 거서(거기에서) 지가(자기가) 쯤살로 한 되 팔아 갔다(사갔다). 쯤살로 한 되 팔아가지고 정대롱 장가는 그 집에 가이, 떡방아 뿜고 집안이 육신덕신하더라네. 그래,

“동냥 왔습니다.”

이러 카인께네,

“그래, 동냥은 뭐로 주꼬?”

이러 카인까네 쯤살로 동냥했다고 비이(보이)면서

“우리 절에 스님은 쯤살로 조야(주어야) 된다.”

고 카는기라. 그래, 쯤살로 한 되를 갖다 주거든. 그래 지가 부로(일부러) 보자기 밑귀이(밑구멍) 사알 뚫어가지고 마카(모두) 따아(땅에)다 흘렸다.

“썩썩 손을 가이고 썰어 열어가이고 가라. 바쁘데 뭐 샅작거리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절에 스님은 손을 가 주운 거는 안 묵는다.”

카고, 제까치(箸)를 한 모 줄라 카더라. 제까치로 주이, 그거로 쯤살을 줍고 앉아서이까네 달이 환하는데, 밤에는 쯤살이 눈에 보지도 안 하고, 그래 눈물을 흘리고 앉아가지고, ‘달도 좋네, 달도 좋네, 저 달은 저리해도 정에 정대롱 보겠구마는’ 카거든.

인제 정대롱이 장개를 가가 처이랑 첫날밤에 앉아 술로 물라 카이, 참, 저그 마느래 소리 같거든. 그래 종을 보고,

“여봐라, 샅작걸에 스님, 바아(방에) 오라 캐라.”

이러 카거든. 그래 바아 오라 캐서, 바아 드갔다. 드가이 턱 손목을 잡고 울었어. 울고 돌이 다 뒹고 잤어. 한 쪽 풀에 하나씩 끼고 돌이 뒹고 자고나서, 신래이가,

“너그 돌이 다 뒹고 살지. 내빼리지는 안 한다. 그러이까네 너그가 어짜든동 물도오(물항아리) 물로 이고 오며,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고 오고, 그래야 큰어마이를 정한다.”

그래 나막신도 신고 가라 카는 거로, 저거마이(정도령의 어미)가 큰어마이는 나막신도 더럽은 거로 주고, 새어마이는 좋은 거로 주고, 그래 큰어마이는 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막신도 하나 안 깨지고 물로 이고 머여(먼저) 오고, 또,

“너그가 또 한 가지 할끼 있다.”

이러 카더라.

“뭐로?”

카이,

“범의 눈썹을 빼오라.”

카더라. 그래야 큰어마이 한다고. 그런데, 나막신 그 놈을 신고 첩첩한 산골짜기로 가이 늦가온 새어마이는 나막신을 들고, 구불고 뭐 하도 못하고 가고, 큰어마이는 하늘이 동해 조

서(주어서) 첩첩한 산골짜에 가이까네 웬 늙은이가 하나 나오거든. 그래 자사이(자세히) 이바구를 하이,

“아이고! 우리 영감도 범이고, 우리 아들도 범인데, 보면 큰 일 나이 단지 안에 드가라”
카더란다. 그래 커다란 단지 안에 드가 앉아 있으이, 밤중 되이 아들 범이 들오면서,
“아이고 엄마, 인내(사람 냄새)가 자꾸 나노?, 인내가 자꾸 나노?”

이러 카는기라.

“아이고 나한테서 안 그렇나.”

이러 카면서,

“눈썹에 뭐 올라간다.”

카면서 눈썹을 짝 빼고 영감 것하고 두 나(날)를 빼주더란다. 저그 영감하고 다 자고 나서,
영감범강 아들범강 나가고 난께,

“이 길로 가면 우리 영감범이 있고, 요길로 가면 사람 길이다.”

고 요래 할마이범이 갈차 주더란다. 그래 눈썹을 싸가지고 오이까네 석 달이 됐더란다.

그래 그 눈썹을 저그 신랑에게 갖다 바치고, 새어마이는 눈썹도 몬 빼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해가지고 오고, 그래 인자 거게도 어마이가 있더란다. 그래 저그 어마이한테

“어무이요, 어무이요, 묵은 장이 좋은기요? 햇장이 좋은기요?”

“아무래도 햇장이 좋지.”

“어무이요, 아무래도 묵은 장이 안 좋습니까? 오래 있으면 맛 있고.”

그래 그 사람으로 큰어마이로 세우고, 저그 엄마도 다시 찾아가이고, 그 고을에 와서 고을
부자로 돼가지고 저그 세이(형) 못된거 ‘다 봐라.’카고 잘 살더란다. 그런 이바구도 있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85~190쪽.

[금정구 설화 39]

부지런한 며느리와 산삼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처이가 시집을 가는데, 저그 어무이가 화리불로 하나 담아 주면서,

“시집가서 이 불로 꺼주지 말고 계속 잇우고 살라.”

카거든. 그래 처이가 만날 불로 일어놓이까네, 엄두리 총각이 저녁에 오디마는 화리불을

꺼뿌고 가고, 사흘 지녔을 꺼뿌고 가거든. 이렇게 하이 그 뒷날 지녔에는 불로 일아놓고 우리 어무이 시킨 대로 하는데, 엄두리 총각이 또 화리불을 꺼뿌이 밤중에 그 총각 따라 산중에 올라가이 총각이 첩첩한 산골짜기 거기 가디마는 사라지고 없거든. 없는데, 처이가 지(제) 치마끈을 뚝 따가지고 그 산에다가 묶아놓고 왔거든. 묶아놓고 와가이고 그 뒷날 가이까네 전신에 삼(蔘)이라. 전신에 삼인데 그래 그 총각이 나오거든. 나와서,

“니가 너그 부모 말로 원창 열심히 들으이 우리가 복을 주는데, 사흘 있다가 사람을 댕고 와서 다 파가 가서 묵고 쓰라.”

이러 카더란다. 그래 와가이고 사흘만에 사람을 얻어가 산에 있는 삼을 말키(모두) 다 캐가지고 저그 집에 갖다놓이까네. 그 이봇 사람이가

“아이고! 어쩐 일로 부자가 됐노? 이래 삼이 많노?”

카거든. 그래 지(자기)가 이바구를 했거든.

“우리 엄마가 시집오면서 이 불로 화로에 담아서 이 불로 끄지 말고 내 잇우라 카는 불로 총각이 불로 끄서 내가 산에 따라가니 그렇다.”

이봇 사람이 자기도 인자 그라이까네. 참 그런 총각이 또 있거든. 그래 총각을 따라 산에 가이 없어지거든. 산에 치마끈으로 묶아놓고 왔거든. 이튿날 가보이 또 삼이 산에 천지로 있거든. ‘사흘만에 파 가라’ 카는 거로 그 뒷날 가서 파이, 뚝 떼니까네 피가 나고 피가 나고 이렇더란다.

그래 이봇 사람은 못되고 욕심이 많아서 실물(失物)을 거두고, 인자 앞에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3~194 쪽.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목이 ‘불씨 지킨 며느리와 산삼’임.

[금정구 설화 40]

효자와 체장사

구연자: 이용약(여, 78)

채집일: 1987. 9. 13.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예전에 과부가 아들을 하나 댕고 사는데 어찌 없든지 아들이 나무를 한 짐 해와야 죽이라도 한 그릇 썬아 묵고, 어마이는 질쌘을 근근히 해 집안에 살림을 도와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리는 체 장사가

“체 사소, 체 사소.”

카면서 온 거로, 해가 지긋지긋 지는데, 그래 방에 들오라고 그래 들온께 죽으로 쭈아가이고 한 수갈씩 물로 쪼개 타가이고 그 영감쟁이를 한 그릇 주고, 그 과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네 그릇을 맨들아가이고 묵고.

그래 영감쟁이가 방이 뜨뜻하이 찌꺼끼꺼하이 시일 잠이 들어 자거든. 자는데, 그래 저그 마느래를 집접거리려 나가고 엄마강 한테 재았다. 재아가이고 그래 자고나디마는 할마이가.

“앞발에 호박 따고 뒷발에 가지 따고 우리가 한 사날 고생시럽더라도 밥을 한 상 잘 해가 오라.”

카거든. 그 영감의 밥으로. 그래 저그 며느리 힘대로 밥을 해가 갖다주이 영감이 다 묵거든. 다 묵고 체를 짚어지고 갔거든. 가고나이 늙은이가 질쌘도 안 하고 그 영감이 보고싶어서 소리를 하고 미치거든. 미쳐서 할 수 없어서 아들이 오늘은 나무하러 못가겠다 싶어서 영감 찾아갔다.

영감 찾아 저 어디루 떨썩떨썩 가이까네, 저 어디 등구나무 밑에 가이, 그늘에 영감이 체로 받쳐놓고 누우자거든. 체짐 받쳐놓고 자는데, 그래

“어르신!”

카면서 절을 너붓이 하이까네,

“니가 날 찾아올 줄 알았다. 조래짐 이거를 너그 집에 지고 가문, 너그 어무이가 날 생각 안 할까다. 조래짐을 가 가라. 너그 집에 지고 드가문 너검마가 날 생각 안 한다. 조래 짐을 가 가서 다른거 아이라 이거로 두 내(개)를 떠억 빼가이고 너그 성주(成造)네 걸고, 시주(世尊)네 걸어놓고 자아(장애) 지고 가서 ‘누가 사자’카거든 ‘금지 금대로 주고 돈 마음대로 주고 사가라’ 캐라.”

이래 카거든.

그래 조래짐을 참 지고 가가이고 바치이까네 저검매가 통 영감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 조래를 두 나를 빼가지고 걸어놓고 조래짐을 지고 자아 가서 가마이 있으이, 누가 조래 사자 말을 하나? 아무도 사자 안 하거든. 해가 그룸하이 어떤 할바이가 도롱삿갓을 씨고,

“조래 이거 한 짐에 언매고?”

“당신 줄라 한 대로 내 따라 갈끼요.”

카이까네, 그래 조래짐을 지고 그 집에 가이 큰 부자라. 그래 돈을 많이 주더란다. 그래 가와서 저그 형편이 풀렸어. 조래 한 짐을 팔아가이고, 그래놓이 할마이가 영감 생각도 안 하고.

그기가 죽은 아바이(애비)가 죽어 태어가이고 아들이 어찌 부모질에(에게) 잘 하이까네, 어찌 잘하고 온창(워낙) 없어놓이, 아들 살릴라고 그래. 그기가 구신(귀신)이라. 그래 잘 살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7~199쪽.

[금정구 설화 41]

얼어붙은 영감과 할미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13.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영감 할마이가 떡 살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한 분 왔어.

친구가 한 분이 떡 왔는데, 그래 점솨밥을 해야 되겠는데, 얼음이 얼어가 짱짱 있는데, 그래 이 할매가 물을 가주로 샘엘 갔는데 도저히 안 오는기라.

영감재이가 돌이가 앉아 암만(아무리) 기다리도 안 오는기라. 영감이 할마이를 찾아서 샘에 떡 가인께, 샘에 물 가주로 갔다가 오줌을 누구싶어 누다가 털이 콩콩 얼어붙어가 앉아 있거든. 콩콩 얼어가 쪼구리 붙어가 앉아 있거든. 이 영감이 가서 세임(수염)을 끌고 땡기면서 불어서 녹칼라고(녹이려고) 불다가 자기도 세임이가 딱 얼어붙은기라. 돌이 다 얼어붙어가 있는기라. 찾아간 영감도 안 오거든.

그래서 이 영감이 살살 찾아가이, 샘이 가에 있거든. 하나는 세임이 얼어가 붙어 있고, 하나는 치매 밑이 얼어가 붙어가 딱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째할 도리도 없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네, 내년 이삼월에 보세.”

카면서 가뿌더란다.(구술자: 왜 웃지도 안 하노?)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2]

집안 망친 돈 도깨비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적에 한 사람이가 과게로 간다고 가이까네, 이전에는 서울에 과게를 할려면 걸어갔거든.

어둡은 데 가이까네, 첩첩한 산중이라. 산중에 드가이, 아주 좋은 처이가 총각이 가이 오죽 좋나 반갑에 가이고 절로 하고 돌오라(들어오라) 카더란다. 집은 큰 부자집이더란다. 그래 드

가이까네, 처자가 밥을 한 상 잘 해 주더란다. 그래 밥을 묵고, 처이랑 이바구 하고 있다.

이런 이바구 저런 이바구 하는데, 처이가 그러 카더란다.

“이바구는 하고 있으이 좋구마는 오늘 저녁(저녁)은 내 차례라.”

카더란다.

“구신이 잡으로 오면 오늘 저녁은 날 잡아갈 차례라.”

카더란다. 저그 어마이 아버지 다 죽어가이고 저 바아(방에) 동계(쌓아)났다 카더란다. 그래 총각이 과게가는 총각이 재주도 좋거든. 온갖 부(符)로 다 써가이고 방문에다 쭈욱 붙여 놓고 처이랑 떠억 이래 있으이까네, ‘우리두리 우리두리’ 하더마는,

“자, 저 가스나 저 잡아내라.”

카거든. 처이는 자물쳤어(기절했어). 그래 총각은 안 죽고 있으이까네, 이놈들이 한 서너 놈이 들어오디마는,

“아따! 우리카매(우리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있어 문 들어가겠다.”

카더란다. 또 한 놈이 들어오디마는,

“와이고 우리는 겁난다.”

카면서 어디로 다 가고 없더란다.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 처이로 물로 떠 맥이가이고 살리가이고, 저그 집에 온 수채궁기 보이 엽전, 그기(그것이) 다 구신이라. 수채궁기 보이, 엽전이 찡기찡기(틈사이에 끼어) 썩어 있거든.

그래 총각이 팽이로 그걸 말키(모두) 다 끄아내고 집안에 돈 있는 거 전부 다 사라뿌고, 돈도 너무 마이(많이) 있으면 사(邪鬼)된다고 다 불로 질러뿌고, 엽전다 끄어내가 배 띄우고 불로 다 질러뿌고, 그 뒷날 밤에는 총각랑 처이랑 자이까네 아무 것도 안 오거든. 그래 인자,

“여(여기) 몇 십 년을 살아도 괜찮다.”

고, 그래,

“혼자 살라.”

고 카면서, 총각은 과게로 가거든. 총각이 과게로 가는데, 안만 따라 갈라 캐도,

“나 과게 가는데 여자가 문 따라 온다.”

카거든.

“내 후제(후일에) 과게해가 오면, 내 일로(이리로) 오면 니한테 덜다보께.”

이러 카이, 죽어도 따라 갈라 카거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라이까네, 처이가 몇 층(집의 몇 층) 위에 올라가서 총각 가는 뒷 걸음만 본다. 총각 발걸음이 안 뵈이까네, 그 널썬서(떨어져서) 자살로 해가 처이가 죽더란다. 처이가 죽고, 총각은 과게를 해가 웃고, 그렇더란다.¹⁸⁾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1~192쪽.

18) 『해운대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의 「신립장군의 죽음」과 같은 유형의 설화인데, 주인공의 신분 화소와 끝부분의 모티프가 다르다.

[금정구 설화 43]

매구 이야기(1)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어떤 사람이 아들로 일곱이로 낳아가이고 외동딸로 하나 낳았거든. 낳이까네. 말키 다 자아(잡아)묵고, 그래, 고날 지녔에는 저그 친구가 하나 그 땡기로 간다고 가이까네 딱 자아 묵을라고 있거든.

있는데, 그래도 저그 어마이 아바이는 내(계속) 안 자몯자나(잡아 먹었잖아)? 저그 오래비로 저그 딸로 이매(허물)를 입히거든. 안 입히고 저그 아들로 다 그러했다 카고, 외동딸이라고. 소 천 바리 자아묵고 온 권구(식구) 자아묵고, 동네 사람 전부 다 자아묵고 할마이 혼차 그래 가이고 있는거로 그래 인자 조년(저년)의 가시나 오래비가 하나 남아가 있었다 카더라.

“아이고, 해오라바. 해오라바, 너캉 내캉 사자.”

카면서, 따라오는기라.

그래 인자 저그 엄마 아바이를 야시가 돼가이고 말키(말끔) 다 자아묵고, 동네사람 다 자아 묵고, 동네는 썩대밭이 돼가 있고. 그래 인자 참바로 묶아가이고, 그 년을 자아몰라 키는거로 웡당샘에다가 풍 빠자뻘다 카데.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2~193쪽.

[금정구 설화 44]

매구 이야기(2)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13.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저그 모친이가 아들만 놓고 딸을 못 낳아서 공을 들여 딸로 낳아놓은게 키아 논께, 저그 집이 큰 부자인데, 소 천 바리 간 내 묵고, 말 천 바리 간 내 묵고 짐승이라는 것은 다 간 내 묵고, 저그매(자기 어머니) 저가배(자기 아버지) 간 다 내 묵고, 저 오래비 간 내 묵고 그 라이, 오래비 하나가 그걸 보고 도망을 쳐 어데 갔거든. 탄 데 갔다 오이까네, 그 동네가 썩

대밭이 됐거든. 거기 다 잡아 묵고. 그래 인자 썩대밭이 됐는데, 돌아온 저그 오래비를 보고,

“아이구 해오라바, 해오라바.”

따라 올라고 이라거든. 그래,

“야야, 내 따라 올라거든 여기 승마(升麻)줄에 목을 매라. 내가 뗏고 갈게.”

그 사람이 승마줄로 목을 매가이고.

“내가 따라 오라면 따라 오너래이.”

“예”

이카거든. 따라오는 거로 웅당샘에다가 풍당 빠자뻘어. 그래 죽는데 보인까네 꼬랑데이가 열다섯 발이나 되는 여시(여우)가 돼가이고.

그래 그 동네 다 잡아 묵고, 탄 동네 갈거로 그래 직있다 카데.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5]

게으른 아내 길들이기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날에 어떤 년이 어찌 켈곳은지(게으른지) 집구석에 물로 안 여다 놓는기라. 밤에 물이 묵고 접어(먹고 싶어), 죽어도 밤에 물 떠 물(먹을) 물이 없는기라.

남자가 가마이 생각하이 ‘저래도 욕심이 많아가 부자는 되고 집고(싶고), 집구석에 물은 한 방울도 없애 놓는기, 애래이 질로 좀 디래야 될따.’ 카고 떠억 한 날 데리고 앉아가,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보래.”

“예?”

“우리 저 부자 될라 카거들랑 오늘 자아(장애) 가가 콩을 한 서너 되 팔아온나.”

그래 콩을 서 되로 팔아오거든. 콩을 서 되로 팔아오이까네.

“볶아라.”

카이, 볶았다.

“이 콩 서 되로 오늘 우리가 다 묵어야 부자가 된다.”

이라거든.

“나는 ‘양양’ 카고 묵고, 나는 ‘복궁복궁’ 카고 무꾸마.”(구연자 설명 : ‘양양’하면 콩 잘 씹히고 ‘복궁복궁’하면 콩 잘 안 씹힌대이)

그래 년이 부자될라고 ‘양양 양양’ 콩을 뿌쌌는기라. 얼마나 뿌사 묵었던지 콩 서 되를 둘이서 다 뚫는기라(먹었는 것이라).

해가 시일 지이까네, 마 설사가 나고 물이 묵고 집어 죽을 지경이거든. 물을 갖다놔어야 묵지. 비는 인자 추적추적 오는데 처마 밑에 뭐 소죽 짙인다고 꾸정물통 같은 거 있었다 아이가? 촌에.

“물이 묵고 집어 죽겠거든 꾸정물이라도 퍼 무라.”

그래 년이 나가서 한 바가지 퍼 묵었다. 퍼 묵고 또 그래도 못 있겠거든. 똥이 마 자꾸 나오거든.

“아이고 무서워서 똥 구디(구덩이) 문 가겠다.”

카거든.

“아무데나 가 누라.”

꾸정물통 거도(거기에도) 똥 누고, 부석 앞에도 가서 싸고, 콩쫂가리조차랑 똥을 짜더라 싸재치는기라. 싸재치고, 꾸정물을 퍼 묵고, 싸재치는데.

이우제(이웃에) 또 호부할마이가 하나 사는데, 그 때 성냥이 없을 때여. 그래 새복만(새벽만) 되면 그 집에 부싯돌 얻어로 오는기라.

“아이고, 이 집 새복에 불 땀나? 어쨌노? 불 좀 도고.”

이러 카거든.

“오늘 새복 뭐 짙이(끓여) 뚫는데(먹었는데) 부석 앞에 한 번 가보소.”

부석에 가서 썩썩 까래비이(휘저으니) 불이 안 보이거든. 손을 가이고 휘적이가 뚫이 물컹 물컹 하거든 꾸리한기라. 뚫이 꾸리하이.

“꾸렁내만 나고 불도 없다.”

이러 카이까네.

“꾸정물통에 거(거기에) 찌거소.”

카이, 거 또 찌고 말아봐도 그냥 꾸렁내가 나는기라.

“꾸렁내가 나싸서, 뭐 찌거도 꾸렁내가 난다.”

이러 카이까네.

“부싯돌도 어디로 갔노 없는데, 새복에 밥하러 나가디, 뭐 짙이로 나가디 부싯돌도 바아(방에) 없고, 모르겠소.”

“아이고, 비가 따라서(내려서) 문 가겠다.”

이러 카거든.

“우리 저 헛간에 가면 돌미삿갓 거(그것) 하나 있을끼요 그거 덮어 썩고 가소.”

카거든. 돌미삿갓을 헛딱 뒤비(뒤집어) 놓고, 거도(거기에도) 똥을 싸놔는기라. 국물은 빠지고 콩쫂가리만 소비기(소복히) 들어있는기라. 뒤베저가 있으이끼네, 탁 덮어썩는기라. 콩쫂가리를

온데 다 덮어썼는기라. 집에 가서 이불 밑에 눕었으니, 자꾸 꾸령내가 나서 일어나보이(일어나 보니) 전시 콩쫂가리고. 그래,

“아이구, 불 얻으러 다시 안 가야지. 불 얻으러 갔다가 꾸령내만 나고.”

그 호부할마이는 똥 감투만 썼고, 이 년은 콩을 묵고 열매나 물 묵고 집어 밤에 옥을 봤던지, 그 이튿날부터는 사발도 빈 기 없어. 물로 퍼다 놔서 인자 질로 싹 드리가지고 살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194~197쪽.

** 김승찬, 『옥담과 해학담』, 도서출판 양업서원, 2017, 1~3쪽.

[김정구 설화 46]

지략 많은 외손자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영감, 할마이가 아들로 못 놓고 딸로 하나 낳거든. 딸로 낳아이고 치아(시집보내어) 놓으니 죽고, 거서(거기에서) 손자가 하나 낳는데, 어찌 똑똑했던지 요새 걸으면 장관이라.

그래 송년이 저가이고, 영감이 할마이를 보고 외손자한테 돈 얻어러 보냈다.

“할마이 한번 가 봐라. 올해 송년인데, 우리가 뭐로 쪼깨이 얻어 먹구로 한번 가 봐라.”

캐서. 외손자한테 할마이가 간께네,

“할매 왔는교?”

이러 카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송년에 방앗고를, 디딜방아에 방앗고를 하나 주거든.

“할매 이거 가가이고, 할아버이한테 나무로 따듬아가이고 방앗고를 맨들아가이고 송년에 뭐 뿌아(뿌아) 묵어소.”

이 카면서, 방앗고를 하나 주거든.

“아이고 이걸 어째 이고 갈꼬?”

카이, 외손자가,

“할매 이고 가이소.”

그래, 할마이가 이고 왔다. 이고 오이, 질로 질로 오이까네, 도둑놈이가 손자한테 갔다 온다고 만신을 터는기라, 돈 있다고.

“아이고 그 놈이 어찌 송악하던지 송년에 방아 짚어 묵어라고 방앗고백이 안 주더라. 우리 외손자가.”

이래 카고, 질로 질로 피해 가주고 와서, 방앗고를 마당에다 툇 널쭈이까네, 그 영감이야,
“뭘 얻었노?”

이래 카이, 할마이가.

“그 놈이가 아무 것도 안 주고 방앗고 이거로 승년에 방아 품들어 묵어라고, 영감 할마이
방아 찼어가고 뭘 뽀사 묵어라고 뭘 방앗고 하나를 주더라.”

이래 카거든.

“그라치는(그렇게 하지는) 안 할구로?”

카면서 그 영감쟁이가 방앗고에 고를 빚다(베었다) 카데. 비 놓이까네, 거게 돈을 한겨(가득히)
넣어 놓았더란다. 큰 인물이 될 사람은 보(마음보)가 다르더라고. 붓장이 다른데, 그래 그걸
가이고 잘 묵고, 방앗고는 없는 사람 조(주어) 가이고 방아 찼어 묵어라 카고, 그 안에 돈이
영감, 할마이 생전 묵겠더란다. 그래 아(아이) 놓으면,

“외손자 방앗고 뭘 할라꼬, 방앗고 뭘 할라꼬”

이라거든. 그기 거게서 나온 말이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3~214쪽.

[금정구 설화 47]

외가와 방앗고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방앗고라는 그 이야긴지, 아들 하나 쪼맨한 것을 델고 친정을 갔는기라. 친정을 갔는데, 참
안 델고 친정을 갔는데, 그 때 보리 방아를 찼어 먹을 때 아이가? 방아를 찼어 때 저놈이 우째
왔는지 저거매(자기 어머니) 뒤를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그래,

“니가 우째 왔노?”

카인께로

“엄마 찾아왔다.”

이러 카거든. 그래 왔는데, 그래 방아를 찼으면서 방아를 찼는 사람들이 그랬는가? 외갓집
사람이 그랬어. ‘방앗고보다 못한 놈이 왔다.’ 이랬어. 가(그 아이)가 듣는데다가, 가가 오성대
감(이향복)이라 카지 암매(아마). 그 소리를 한 마디 떠억 듣디마는, 그 때 비가 어찌 와가주
고 청천강에 강물이 뽕떡 물이 한겨 니러가더라 카데.

그를 적에 이놈이 저거매 방아 찧는데 왔어. ‘방앗고’라고 카는 소리를 듣고, 그 질로 도망을 갔어. 그 강물을 어찌키 건넜는지 저그 집으로 가봤는기라. 가봤는데, 강가에 아무한테 물어 도 그런 아이를 몬 봤다 하는기라. 몬 봤다 캐서 ‘이상하다’싶어서 집에 쫓아 왔어. 와서 보이 아가 집에 와 있어. 그래.

“우째 왔노?”

카인께, 그래 시험(혜엄)을 쳐서 왔다 카는기라. 그 큰 강물을 시험을 쳐서 왔다는기라.

그래서, 그 아이가 크기 돼가주고, 뭇을 해도 그 천리 사람을 다 벼슬을 주도 저그 외가에는 벼슬을 하나 안 쫓아, ‘방앗고보다 못 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8]

지혜로운 아들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어떤 할마이가 영감은 죽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둘이 사는데, 옆에 대감의 집이 하나 있는 기라.

호불할마이 사는 집에 감남글 딱 하나 송가났는데, 감남기 대감 집에 반튼 가 있고, 또 호불할마이 아들 사는 집에 반튼 있고, 이렇거든. 이렇는데, 감이 열리면 대감 집에 여는 것은 다 따 묵는기라. 저쪽으로 여는 것은 호불할마이라고 알보고 다 따 묵는기라.

이 개구쟁이 쪼끄마한 님(놈)이 차차 차차 크면서 보인께, 감이 열며는 언제든지 저그 집에 고만 있지, 저쪽에는 없는기라.

한날은 저거매(자기 어머니)한테 딱 물었어.

“엄마.”

“와?”

“감나무 이기 누구 것이냐?”

고 묻거든.

“우리끼다. 너그 야부지 살았을 때 송군 우리 감나무다.”

이러카이,

“그라면 감을 저쪽 대감 집에서 다 따 묵느냐?”

이라거든.
“대감 집에서 따 목는 걸 니가 말하면 볼기 맞는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라거든.
“해참, 내 감나무를 내 마음대로 못하면 되느냐?”
한날 아직에 새복에 일찍 일어나디마는 옷을 한 개 주 입고 쫓아나가더란다.
“애 이놈 어데 가노?”
“내 대감 집에 갔다 오겠다.”
카는기라.
대감 눕어 자는 방문 앞에 가가주고,
“대감님요!”
“와? 이 아침에 웬 일이고?”
문 구멍에다가 주먹을 푹 쑤시며,
“대감님, 이 주먹이 누 주먹입니까?”
“애 이놈, 니 주먹이지. 누 주먹이냐?”
그러카인께,
“그러면 우리 감나무의 감을 대감님 집에서 말키 따 묵습니까?”
‘아 저놈이 크기 난 놈이다.’ 대감이 가마이 생각해보이 ‘값지도 못할 놈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 감을 손도 안 대더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9]

상객 가 실수한 사돈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날에 한 영감쟁이가 딸로 치아가주고 딸로 집에 상객을 갔거든. 갔는데, 저그 집에 없던 음식을 짜드라 채이(차려) 주인까네, 이 놈의 영감쟁이가 그걸 다 묵고 밤에 똥을 쑤는기라. 똥을 싸가주고 우째할 도리가 없어서 봉창문을 열어 벽장인가 싶어서 똥 묻은 옷을 거기다 열어뽐기라.

열어뽐는데, 개란 놈이 한데(바깥)에 똥 묻은 옷이 있으인께 물고 가뽐어. 개가 물어가뽐고,

아침에 떠억 보이 옷이 있어야 일어나지? 봉창문을 열고 보이 옷도 없고 방을 두릿두릿 살펴보이 입을 거는 없고, 그래 이불을 둘둘 감고 문을 잠가 놓고 안에 있으이, 그 집 사돈이,

“사돈요, 사돈요, 일어나소. 아침 자시구로 일어나소.”

다시(도무지) 입을끼 있어야지 일어나지. 그래 있으인께, 그 집 사돈이,

“문이나 좀 열어보라.”

카인께네, 그래 할 수 없이 문을 근근이 떠억 열었는기라.

그래 드가인께, 사돈이 이불을 둘둘 감고 앉아 있거든. 그래,

“사돈, 와 이랬는교?”

카이, 밤새 똥 찼다는 소리는 안 하고,

“벽장인 줄 알고 옷을 벗어가지고 거게 열었더니만 뭐가 가가고 없다.”

이기라. 어쩔 수 있나? 사돈이 옷을 한 벌 준다. 그래 주어서 입었다. 입고, 그날 또 하로 쉬가주고 왔던 모양이라. 또 찼다. 자는데, 또 감주야 뭐야 짜드라 쳐묵어놓이 또 똥을 찼다. 또 똥을 싸가주고 인제 옷을 똥똥 뭉치가주고 바깥에 나가가주고 놔 둘 데가 없어가주고 뒤 안에 가이 오장치(오쟁이)가 하나 있거든. 거게다 열어 놓고, 돌아와 문을 열어 보인께, 옷을 짜드라 벗어 났거든. 좇어 입는다 카는기 안 사돈 속곳을 하나 좇어 입었다.

좇어 입고 떠억 니리(내려) 오면서 보인께, 안사돈 옷을 입었으이 그냥 내려올기 아이가? 녹그릇을 번들번들한 것을 찻겨서 청에다가 수비기 놔 났는데, 생전에 못 보다가 보이, 어찌 탐이 나던지, 둘러 보이 망태가 하나 있더라네. 그 망태에다가 녹그릇을 한 망태 주(주어) 열어가주고 짙어지고 일어나다가 망태 끈이 툇 터지가주고 마당에 우루루 쏟아뿔어. 그래 뭇이 녹그릇 다 뿌순다고 나와 보이 사돈이 그라거든.

딸이 나와 보이 열척없이 저그 아버지가 그라거든. 그래 저그 아버지는 사돈이 사랑으로 데리고(데리고) 가고. 딸이 어찌 미안하든지 아침에 볼 낮이 없어서 말로 하기로,

“우리 아버지가 금년에 세상을 베린다고(버린다고) 어데 가서 물어보이, 나를 데리고 가서 우사를 실컨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수명을 잇운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래(저렇게) 실수를 했다.”

고 변명을 했거든. 변명을 하이,

“아이구, 사돈 수명 잇운다면 그래야지.”

카고, 안 사돈은 그래썩고.

그래 그날 저녁에 영감쟁이도 가마이 생각해 보이 내가 왜 실수를 했는고 싶고, 딸도 우리 아버지 그라는 거를 보이 미안해 죽겠고 이런데, 그 이튿날 간다고 터억 나간께, 옷을 그래가 갈 수가 있나? 그래 명지 바지 저고리 한 벌을 깨끗이 해 놓은 거로 입히가주고, 그래 잘 입히서 보내 주더란다.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4~216쪽.

[금정구 설화 50]

기갈이 센 아내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동네 처이가 부잣집 처이인데, 처이가 인물도 좋고 쾌안인데(괜찮은데) 동네에서 버지기(心機가 매우 거친 사람)거든. 만고 버지기라.

한 총각이 내가 부잣집에 장개로 한번 가서 그 처이를 내가 질(길)로 들어가 살겠다 싶어서, 그래 장개로 갔다. 장개로 가가고 저그 집에 각시가 왔는데, 콩죽을 누그럼하이 두서너그릇을 쏘아 놓아라 카더라. 그래 쏘아 놓으이, 첫날밤에 처이로 술로 권해 가이고 많이 먹있다(먹었다). 먹이가이고 처이가 늙어 자는데, 중우 밑기이(밑구멍에)다가 콩죽을 부었다. 속곳에다가 부어 놓아인까네, 그래 인자 식전 아직(아침)에 신랑이 일어나,

“각시가 취해서 똥을 많이 싸구나.”

카이, 처이가 하 기가 차거든. 그래 신랑이,

“이걸 가져 나가도 못하고 이 똥을 내가 다 묵어야 되겠다.”

카면서 신랑이 그 똥을 말키 훑아 묵었거든. 다 묵고, 그 뒷날 저녁에는 참말로 신랑이 지(제) 중우가래이다가 똥을 짚어. 그라고 신랑이,

“옛저녁에 내가 자네 똥을 묵었으이 오늘은 내 똥을 묵어라.”

카더라. 참말로 똥을 어찌 그래 묵어 내겠노? 묵고 죽겠더라. 그래 묵고 자숙 놓고(날고) 살면서 지내는데, 한날은 남편이 콩죽 이바구를 하이까네 여자가 영감강 안 살더라. 그 똥 묵는데 어찌 응결이 나가이고. 저 놈이 구리이(구렁이)라고. 그런 이바구가 있어.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7쪽.

[금정구 설화 51]

호식을 면하고 세 정승 딸에게 장가간 총각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이전에 한 사람이 아들로 못 낳아서 근근이 공을 디리가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 그래 아들로 하나 낳아가이고 공부로 시기는데, 중이가 동냥을 오더이마는 허를 꺾꺾 차면서러,

“자아(저 아이)는 수물 세 살 목으면 범 호석(虎食)을 할킨데, 자아가 죽는다.”

이 카거든.

“그라면 양법(禳法)을 갈차(가르쳐) 주이소. 우리가 돈을 많이 디릴끼요?”

그러 카이까네.

“야(이 아이)로 서울 김 정승 딸 짚(결)에 하고 이 정승딸 짚에 하고 박정승 딸 짚에 장개로 가야, 야가 명을 잇운다.”

이래 카거든.

그 소리를 듣고, 이전에는 차(車)가 있다. 돈으로 부자는 부자지. 돈을 한 바리 싣고, 야가 지향없이 뒀다. 서울로 갔다. 서울로 가가이고, 첩첩한 산꼴짜기로 드가이까네, 쪼맨한 집이 있어 드갔다. 그 집에 드가이고 돈도 많이 주고 그라이까네, 그 집이가 살림이 없어가이고 딸 야가 김 정승 집에 몸종으로 있다 카거든. 그래, 총각 보고,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카거든. 그래 인자 처이를 불렀다.

“이전에 죽었던 너그 오래비가 살아왔는데, 한 분 보러 오라.”

카인께, 그래 인자 김 정승 집에 몸종으로 있는 처이가 왔거든. 참 저검마(자기 엄마) 말마 떠나 참 저그 오래비인 줄 알고 인사를 하네. 그래 저검마가,

“야야 너그 오래비가 오기는 오도, 김 정승, 박 정승, 이 정승 세 정승의 집에 장개를 가야 너그 오래비가 명을 잇우겠다 하이 어짤나노?”

카이,

“엄마 내 힘대로 해 보겠다.”

이래 카는기라. 그리고,

“엄마 찻쌀로 팔아(사아)가이고 누른밥으로 세 뭉티기하고, 좋은 술로 세 병하고 이래 도라(달라). 그리고 내 치매(치마)다가 풀로 뺏뺏하게 해 놓으라.”

카더란다.

그래 저검마가 해놓이까네, 부자가 돼놓이 이 아들을 저그 아들만치로(처럼) 살릴라고 치매 다가 풀하고 누른밥하고 술하고 해놓이, 딸아이가 풀 먹인 치매를 입고 술과 누른밥을 가 가서, (구연자 : 문이 세 문이라 카든가 열 두 문이라 카든가 그건 잇아뻘다.) 열 두 대문에 문직이헌테 말키(전부) 다 술을 먹이고, 또 대문을 징키는 불개로 누른밥을 먹이고, 저그 오래비를, 풀로 먹이가 뺏뺏한 치매 밑에다 열어가 살살 드갔다.

드가가(들어가) 대감 방을 지내야 별당을 드가거든. 이전에는 큰 집 안에 연당 짓고, 연당 안에 별당 짓고 이랬는데, 정승 딸이 ‘우리 아버지는 자문 눈을 버이 뜨고 쿨쿨 자고, 눈을 감으믄 안 잔다’ 이카거든.

대감 방에 가마이 들다보이 대감이 눈을 버이 떠가 있거든. 그래 사알 대감 방을 거쳐 드

갔다. 또 저그 엄마 자는 방이 또 있거든. 그래 저그 엄마 자는 방도 지냈고, 저그 오래비 방을 지나며,

“이 일을 어쩔꼬?”

카며 드간께,

“이 애가 어째 인제까중(지금까지) 잠을 안 자고 뭐한다고 이라노?”

카더란다.

“오빠요. 오늘 지녁 내가 청소하는 걸 덜 해서 인제 합니다.”

카고, 저그 오래비를 방을 넘구고, 저그 올키 방을 넘구고, 그래 연당 안에 드가가이고 배(船)로 땡기인까네. 배가 시일(슬슬) 오거든. 저그 오래비를 태았다. 태아가이고,

“어짜든동 오빠가 이 안에 가서 오빠 이견(의견)대로 하라.”

카거든. 그래 배를 땡기가주고 별당에 들어가 보이, 참 달덩어리 곁은 처이가 책을 짜악짜악 읽거든. 그래 들어가 인적끼를 내인까네,

“날심승도 못 날아 들오는데, 어째 이런 좋은 총객이 왔느냐?”

고 이래 카거든. 그래 처이한테 이바구를 다 했어.

“내가 아무집 몇 대 외동인데, 명 잇을라고 왔다.”

고 이래 카인께네, 처이가 한참 생각더니마는,

“벽장 안에 드가라.”

카거든, 그래 뒷날 식모 처이가 알고 밥도 많이 담고 뭐도 많이 갖다 주거든. 또 처이가 식모 처이한테,

“뭇이라도 많이 가져오라.”

카거든.

그래, 김 정승 딸 처이한테 이 정승, 박 정승 딸이 놀로 오거든. 놀로 오이 이 처이가 이바구를 하거든.

“아무집 총객이 몇 대 외동인데, 우리가 몸을 하리 밤씩 주면, 명을 잇운다 카는데, 그래 하겠느냐?”

카고 물으인까네,

“명을 잇운다 카이 그래 하겠다.”

카거든.

“그라든 내한테 손장을 찍으라.”

카인까네, 손장을 딱딱 찍거든. 손장을 찍고 나이, 김 정승 딸이 식모처이한테,

“술도 많이 가이 오고 뭇도 많이 가이 오라.”

카더란다.

식모 처이는 버이(벌써) 눈치를 알고, 술도 많이 가 오고, 온갖 음식을 많기 갖다 주거든. 그래 떠억 판을 채려놓고, 벽장 안에서 총각을 끄아내거든. 끄아내이 저꺼정(저희끼리) 음식도 묵고 술도 묵고, 그래 그날 밤에 처이 서이(셋)를 저그 처로 삼았어. 첫머이(처음 것)를 큰

처로 삼고, 이래 사는데, 큰 처이가 배가 또닥또닥 부르네. 부른게 처이가 식모처이한테,
“호메이(호미)를 하나 갖다 둘라.”

카거든. 갖다 준께네, 옛날에는 세이미(시멘트)가 없고 담장을 흙으로 쌓았는데 호메이로 몇 달로 담장 수채구석을 파가이고, 그 총각하고 그 처이들하고 도망질로 가 가이고, 총각집으로 갔어. 가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이 얼마나 반갑겠노? 그래 동네 잔치를 하고 그래 잘 살더란다.¹⁹⁾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17~221쪽.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목이 ‘세 정승 딸 얻은 단명 소년’임.

[금정구 설화 52]

효자 이야기

구연자: 박수식(여, 67)

채집일: 1987. 9. 6.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날에 저구매(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달고(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놈이 어데 가서 들은께네 ‘기집(계집)을 살(사흘)만 안 뚜디리 패면 야시(여우) 돼 나간다’ 카거든.

그래서 이 놈이 산에 가서 나무만 한 짐 해가 집에 와서 부들끼(부러 또는 내려) 놓으면, 저구매를 째대기를 들고 패는기라.

이 놈이 나무만 해가 오면 저구매를 패는기라. 그래, 나라에서 어떤 양반이 순찰하로 시골에 왔는데, 보인께네, 그 놈이 나무만 한 짐 해가 집에 와서 부들끼 놓으면 저구매를 패거든. 그래,

“너가 왜 너굼매(너의 어머니)를 자꾸 뚜디리 패노?”

이래 카인께네.

“단 모자간에 살다가 우리 엄마가 야시 돼가 나가뿌면 나는 어찌 사느냐? 그래서 우림매(우리 어머니)를 팬다.”

이라거든.

그래 그 놈을 나라에서 불러 올리가이고 상을 주서, 그놈이 부자가 되고, 나무도 안 해 팔고 살더래.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21쪽.

19) 『호식당할 총각과 세 정승 처녀의 결연』 유형의 광포설화.

[금정구 설화 53]

게(蟹)와 여자와 중

구연자: 이용악(여, 78)

채집일: 1987. 9. 13.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여자가 길을 가다가 오줌을 딱 누이까네, 끼(게)가 보지를 짹 물었거든, 끼가 궁계서(구멍에서). 그래 중이 하나 지나가거든.

“여보소, 여보소, 여기 와서 이거 한분 띠(떼어)주소.”

카이, 중이 그걸 띠라고 입으로 무이까네, 중도 짹 물렸다. 그래 근근이 끼라(떼어)쫘다.

그래 중에게 무슨 이바구를 하라 카이,

“꼬랑내야, 꼬랑내야, 기집 두덩에 꼬랑내야.”

카고, 여자에게 이바구를 하라 카이,

“꺼끄러네(꺾끄럽네), 꺼끄럽네, 중의 대가리가 꺼끄럽네,”

라 카더란다.(웃음)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54]

산성 지명유래

구연자: 이조원(여, 81)

채집일: 1987. 9. 13.

채집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옛날에 해일할 때 북바아는 북 한 디이(덩이) 놓을 만동(만큼) 남가 놓고 다 짹기고, 칼바우는 칼 한 자리 놓을 만동 남가 놓고 물이 다 짹기고, 샷갓골은 샷갓 하나 놓을 만동 짹기 해일 하고, 인자 짹기바우는 포리 한 마리 앓을 만동 남고 물이 다 짹기는 해일을 하더랍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55]

불현이 고개 이야기

구연자: 허현임(여, 58)

채집일: 1990. 5. 29.

채집장소: 금정구 부곡동

이 이야기는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오래 된 이야긴데, ‘불견이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거든. 그 고개를 어데 어느 마을에 사는 소경 한 사람하고, 또 어느 마을에 사는 앓은뱅이 한 사람하고 이 둘이서 그 고개를 인자 넘어가야 되는데, 소경은 눈이 어둡어서 고개 넘어가기가 어렵고, 앓은뱅이는 다리가 온전치 못해 기어 넘어가기가 힘이 드는 기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소경을 보고 앓은뱅이가

“나는 다리가 온전한이까네 내 다리가 되어 다고.”

또 소경은 앓은뱅이를 보고,

“나는 니 다리가 되어 줄 거인까네, 니는 눈이 밝은이까네 내 눈이 되어 다고.”

이래 가주고 둘이서 의형제를 맺은 택이라.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해 가주고 둘이서 그 고개를 참 사이좋게 하나는 눈이 되고 하나는 다리가 되고, 그래가 인자 고개를 넘어가는데, 한참 둘이서 가다가 보인까네 어데 이래 큰 우물이 하나 있는기라. 있어서 그 우물에 인자 앓은뱅이는 눈이 밝은이께네 그기 보이거든. 하 드다(들어다) 보인까네 누런 빛이 나서 보인까네 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기라.

그래 이 앓은뱅이가 하는 말이 소경을 보고,

“여기 금이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금덩어리를 자네가 가지게.”

이라거든. 그러인께네, 이 소경이 카는 말이

“나는 소경이라서 보이지를 안 하는데, 자네가 눈이 있어서 보였으니까네, 자네가 하게.”

이래 소경은 앓은뱅이를 보고 해라 카고, 앓은뱅이는 소경을 보고 해라 카고, 서로 인자 이걸 서로 가지라고 다투다가 그래 소경이 하는 말이

“정 그러믄 우리 둘이 다 가지지를 말고 이걸 저 우에 올라가믄 절이 하나 있으니까네, 그 절에다가 우리가 시주를 하자. 우리 둘이가 이런 불구자가 되었는데, 절에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가 둘이 인자 의견을 모았지. 그래가 절에 인자 올라갔어. 그래 인자 스님을 보고 하는 말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인까 저 아래 큰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안에 금덩이가 하나 있는 걸 갖다가

거게 놔놓고 왔으니까네 스님이 그 금덩이를 가지고 와가주고 절에 필요하신 데 쓰십시오.”

그러이까네,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럼 감사합니다.”

카고, 그 우물에 인자 가르쳐주는 우물에 갔는기라.

그래 스님이 가서 떡 우물 안에 이렇게 보인까 그 금덩이가 스님 눈에는 큰 구렁이로 보이는기라. 그래 ‘이 사람들이 날 갖다가 속였구나’ 이런 마음으로 스님은 화가 났거든. 그래서 스님이 짚고 간 지팽이를 가지고 구렁이를 갖다가 썰리주인까네 구렁이가 두 동가리가 나뉘는기라.

그래 놔놓고 인자 자기는 화가 나 절에 올라 와가주고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얼마나 벌을 받으라고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가서 보이까네 그것은 금덩이가 아이고 큰 구렁이더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한 대 치니까 구렁이가 두 동가리가 났는데, 당신들이 가 봐라.”

그러이까네, 소경하고 앓은뱅이는 볼 적에 틀림없이 금덩이였는데 스님이 구렁이라 카이 이 사람들도 놀래키거든. 그래 가주고 인자 떡 내려가서 그 구렁이가 두 동가리가 났으면 어떻게 해가 있노 싶어서 그걸로 인자 가 보러 인자 소경하고 앓은뱅이하고 둘이 갔는기라. 가서 떡 보이까네 아까 올라올 적에는 한 덩어리였던 금덩이가 누런 금덩이가 두 개가 돼가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는 자네가 하고, 하나는 내가 하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이것은 우리 몫에 비친 거이까 할 수 없는 기다. 그래 우리 둘이서 가주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 가 의 좋게 둘이서 하나씩 나뉘는기라. 나눠가주고 ‘그래 참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는갑다’이라고 내려와서 저 중간에 내려오이까네, 어데서러 해도 안 뺏는데 광선이 비치거든. 그래

“참 이상하다. 어째서 저런 광선이 비치는고? 우리가 한 번 가 보자.”

그렇게 인자 거기를, 광선이 나는 곳을 찾아가이까네 역시나 다름가 부처님이

“너거들은 너무 마음이 착하고 천심(天心)이 곱으이까 너거들 눈에는 그기 금이지만 남들 욕심 많은 사람 눈에는 금으로 안 보인다. 그러이 그 금덩이를 가지고 언제든가 영원히 너거는 그 금은 남에게 줄 수도 없는기고 내가 너거에게 복을 준 것이다. 가주고 가서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 좋겠다.”

그래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의문하기로 ‘이 금덩이를 이미 우리 것이 아이니까 절에 갖다가 부처님께 시주를 하자.’ 그래가주고 이 금덩이를 들고 둘이서 그 절을 다부 올라갔는기라. 올라가,

“스님, 이 금덩이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로 스님이 여게 두셨다가 절에 무엇에 쓰시든 간에 쓰시도록 우리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카면서 탁 이래 불라 칼 적에 고마 바로 서졌부는기라. 앓은뱅이가 서졌뿌고, 서져이까네, 소경은 안 보이잖아. 그러이,

“아니 어디 보자, 그럴 리가 있나? 분명히 우리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실 적에 금덩이인데, 스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렁이라뇨?”

카문서로 탁 눈을 크게 뜰라 칼 적에 이 소경은 눈이 떠졌뵈는기라. 앞을 보게 되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절 고개를 자기네들이 내려오면서 ‘불견이 고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지금도 전설에 내려오고 있어.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

1) 금정구 설화²⁰⁾

[금정구 설화 1]

신천마을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GG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귀근, 남,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마을 명칭에 대한 유래를 묻자 옛날에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마을의 하천이 쪽 뺏은 형세를 보고 '펼 신'자를 써서 신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천이라 하는 거는 지금 여 우리 '신' 자가 펼 신(伸)자거든. 펼 신. 인 변(人)에 나비 난자. 그 지금 하천에 쪽 뺏었, 뺏었다.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 옛날부터. 이거, 이, 이거 이 '신' 자가 아니고, 인변에 '납 신'자 있습니다. 이게 '펼 신'잔데, 하천이 쪽 뺏었다. 그래서 신천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조사자 : 하천이 쪽 뺏어가지고 신천이라는?)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금정구 설화 2]

용두봉과 용발톱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GG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귀근, 남,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신천에 유명한 전설이 없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바위가 용과 같이 생겼다면서

20) 이하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27~172쪽.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마을 앞에 바위가 있는데 요즈음은 돌굴바위라 하지만, 옛날에는 용 발톱이라 했다. 그것은 선동의 산이 용 머리에 해당하는 용두봉이고, 그 바위가 용의 발톱에 해당해서 용 발톱이라 했다.

지금 여 우리 여여 바위 있지요? 요계.

(조사자: 무슨 바입니까? 그계.) 바위 이거를 그... 저 우리 여 이... 요새는 이제 돌굴바위 카는데...

(조사자: 돌굴바위?)

예. 앞에 그 바위가 그 용발톱이라 하거든, 옛날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선동 산 24번지가 그 용두봉 카는데, 이름을. 그 용머리를 그래 용두봉 카고, 요계 용발톱이라는데 옛날 노인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금정구 설화 3]

호랑이산의 유래

자료코드: 04_21_FOT_20100123_PKS_KGG_0003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2010.1.23

조사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김귀근, 남, 73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구연했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멋쩍게 웃었다.

줄 거 리: 신천마을 뒷산의 모양이 호랑이와 닮아서 호랑이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라고 우리 뒤에 산 요 저, 저 뒤에 산 저거를 인자 그 소이 호랑이산이라 하거든요.

(조사자: 아! 호랑이산. 원래 산 이름은 뭐니까?)

원래 산은 우리는 뭐 그거 잘 모르쥬.

(조사자: 이름이 나 있는 건 아니지만 호랑이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호랑이상이래요, 호랑이상. 이건 호랑이고 저쪽 저게는 용, 용이 이래가지고. 용이 물 보러 내려오는데, 발톱을 거치는 호랑이 때문에 이랬다요, 옛날부터 [멋쩍게 웃으면서] 말이.

[금정구 설화 4]

도깨비에게 흘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707_PKS_K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보자 : 김복실,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옛날에 겪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예전에 동네에서 있었던 도깨비에게 홀린 할아버지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구연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었고, 머쓱한지 스스로 웃음기를 머금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커서 녹음이 깨끗하지 못했다.

줄거리 : 할아버지가 새벽에 눈에 물을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만 도깨비에 홀려버려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동네를 찾아다녔다. 나중에야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도깨비에 홀려서 진이 다 빠진 터라 몸골이 말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를 홀린 그 도깨비는 피가 묻은 빗자루였다.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 일찍 눈에 인자 물 보러 간다고, 가시가지고, 그 물 [웃음] 거 도깨비가 나왔던가 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홀려가지고.

(조사자 : 새벽에 나갔다고요?) 새벽에. 일찍 나가 하루 점도록(종일) 그 사람이 안 돌아오고 새벽에 나가, 이러니까 걱정이 되가지고, 집에서는 기다리고 '이상하다' 카고, 뭐 기다리고 일했는데, 그 질로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그래 다니다가, 다니다가 뭐, 사람이 똑 뭐, 뭐 알곳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 [웃음] 인자 찾아댕긴다고 이래 찾아다니는데, 보니까는 그거 도깨비 인자 뭐 귀신(귀신)도 나오고, 도깨비도 불 키아가 그거 하고 이란다꼬.

그래가이고 이래 가보니 빗자루를, 이래가 딱 빗자루 그런데 피 같은 거를 묻으며는 그런 일이 생기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나무에다 이래 매 났더라카네. (조사자 : 빗자루를 매봤다고요?) 응, 빗자루로.

어떤 할아버지는 인자 이래 눈에, 인자 물로 고여가지고, 물 퍼먹고 하는 인자 이런 연못 같은 데가 있었어. 그래 거게다 또 빠져났더라 카네.

(조사자 : 예?) 빠지가 있더라 카네. (조사자 : 연못에요?) 응. (조사자 :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눈에 저 저 뭐꼬, 들에 일하러 가가지고 밤 어두무리 할 땐가 봐.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니 물에 빠져가 죽은 일도 있고 이래. 그런 일도 있었어.

[금정구 설화 5]

금정산의 금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SD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소돌, 남,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금샘에 대해 묻자, 제보자는 말을 약간 더듬었지만, 매우 자신감 있게 금샘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금정산 밑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그 굴에 호박 크기의 샘물이 있다. 그 물을 보면 금빛이 뜨는데 손으로 퍼내면 금빛이 사라지고, 또 물이 고이면 금빛이 보인다.

금빛, 뭐, 물고기가 놀던 금샘이라 카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금빛 물고기가 노는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저 산에 보이는 묘덤, 청덤, 그 밑에 들어가모, 굴이 쪼꼬만한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몬, 거기 호박새미만치 물이 있는데, 그게 싸악 들바다 여 보면 (들여다 보면), 그 금빛이 뜬다고, 물 우에.

물우에 뜨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뽕또로 가지고 쌀 떠보몬, 뜨몬 없고, 또 그 물로 다 퍼내뿌고, 또 한참 있으몬 또 물이 고이면, 또 금이 뜨고 그랬다고. 거기 금샘이지.

[금정구 설화 6]

청룡마을의 당산나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SD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소돌, 남, 78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던 도중 제보자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산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청룡마을에 몇 백 년 된 당산나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버이날마다 당산제를 지낸다.

이 당산나무는, 옛날에 요기에 저 5일장이 섰어요, 여기에. 5일장이 섰는데, 장턱걸(장이 서는 어귀)에, 장턱걸 한 모퉁이 서가 있는기, 현재 저 자리라. 저 자린데, 그 밑에 왜정 시대에 보면, 내가 국민학교 일학년이나 이학년 땀데, 그 밑에 껌동물 들인다고, 저 나무 밑에 솔을 걸어놓고, 그때는 그 촌사람들 전부 다 광목 치마 이런 거 입었거든.

광목치마 그 추주뽕(더러움) 많이 타이까네, 그 인자 껌동물 달이러 왔는 기라. 내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저 치마에 물 달이러 오는 거 따라 와가, 요 나무 밑에서 물 달이는 거 봤다고.

그 나무가 저리 됐으니깐 저거는, 뭐 몇 백 년 됐는데, 몇 백 년 됐는데, 저 그전 때(그 전

에는), 저 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를 내(내내) 그냥 있었는데, 지하철 바람에 저기 알로(아래로) 널(내려) 앉았다고. 널 앉아가 그래 마, 우리 동네에서도 그양 마 별로 그거로 안 했는데, 우리가 몇 년도부턴고 저거를 인자, 우리가 인자, 노인네들이 우리 노인정에서, 5월 8일날, 어버이날.

우리 애들은 우리를 어버이라고 섬기는데, 우리 늙은 사람은,

“이 나무를 인자 우리 동네보다 먼저 생겼다 캐도 과이(과언이) 아닌 우리 나무를 섬기자.”

이래가, 몇 년도부터 5월 8일날 언젠지(항상) 제를 지냅니다. 그래가 지금 금년께 6년째, 7년째 제를 지내고 있다고.

[금정구 설화 기

벼락으로 만들어진 벼락덤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SD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소돌, 남,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기억력도 좋고 입담도 좋은 편이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어가며 이야기를 계속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금정산 아래에 벼락이 쳐서 큰 웅덩이가 생긴 곳이 있다. 어릴 때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놀았는데, 그 곳을 가리켜 벼락덤불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그곳을 침수고온이라 한다.

이, 요 요 침수고온 카는 데가 있어, 요 요 가문. 침수고온 카는 데가 있는데, 그 침수공, 그 자리가 옛날에 벼락덤불(벼락덤불)이라고 이랬거든, 벼락덤불.

와 벼락덤불이라고 하노?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 큰 웅덩이가 생기는 기라.

웅덩이가 생겨가 그, 그 수원지 바로 밑에 있는데, 웅덩이가 생겨, 그 밑에 우리가 어릴 적에 목욕도 하고 내 그랬는데, 어릴 적에 머라 카는고 하몬.

“벼락덤불에 목욕하러 가자.”

이래자 그 웅덩이에 목욕했는데, 벼락을 쳐가지고 웅덩이가 생겼다 이래가 벼락덤불이라고.

그기(그것이), 기기 지금 침수고온 그 자리라 침수. 응. 요 위에 침수고온이 있어.

(청중 : 옛날에 벼락이 돌맹이로 때리죠 돌맹이가 뽀아지뽀어. 뽀아지고, 그 웅덩이가 생기가지고, 그 우리 요, 우리 다 친구들인데, 쪼때끔 할 때(어렸을 때) 빨가(벌거) 벗고 목욕하러 갈 적에, 그 웅덩이에서 목욕을 했는데, 기기 벼락덤불이라.

고기 전설이 하나 있어.

[금정구 설화 8]

청룡동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SD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소돌, 남,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마을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줄거리 : 예전에 팔송정에 도로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동네라는 의미로 '신리'라고 불렀다. 그곳이 지금의 청룡동이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청룡동 개도(해도), 청룡 본동이 있었고 범어사 밑에 상마, 하마가 있었고, 고 밑에 내려오면 용성리라 카는 데가 있었고 그래.

그래, 지금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옛날에 회장님이 얘기하듯이 팔송정이라 카는 동네도 울씨(본래) 없고, 술집만 몇 집 있었고, 거기 있었는데.

그래가 인자, 이 도로가 생기고부터 인자 사람들이 자꾸 도로가 옆에 집을 지으니깐, 새로 생긴 동네라고 해가(해서), 이 동네 이름이 '신리'라고 했어요. 신리라고 붙어가 있지. 신리라 카는 기 인자 청룡동이 됐고.

그 외에 인자 뭐 옛날에 장터가 있었다는 거, 5일 장터가 있었다는 거. 그건 뭐 오래 됐으니카 젊은 사람들 다 모를 끼야. 옛날 5일 장터가 있었다는 고(그것) 하나 하고.

[금정구 설화 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SD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소돌, 남,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구연하는 고려장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려장 이야기가 있다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고려장으로 아버지를 산 속의 굴에 데려다놓고 나오려는데, 죽음을 앞 둔 아버지가 아들이 어둔

산중을 잘 내려가도록 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으니 그것을 찾으려 내려가라고 아들에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차마 아버지를 고려장으로 죽게 할 수 없어 다시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고려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칠십 고려장이라 캐가, 나이 칠십이 넘으면, 저그 아버지도 저 산에 갔다가 굴로 뚫버가지고, 굴로 뚫버가 굴 밑에다가, 저그 아버지고 저그 엄마고 갖다 여나 놓고, 그 한달 쯤 묵을 만 양식을 여놓고(넣어 놓고) 그래가 마, 양식 떨어지뿌몬 그 안에서 마 나오도 모하고 그 안에서 죽어뿌거든. 기기(그것이) 고래장인데.

고래장이 와 없어졌는고 하몬, 한번 인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를 말할 거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한 칠십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낮에는 몬가니까네 밤에 짊어지고 인자 저 산에 올라갔는 기라. 인자

낮에가 굴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을라꼬(집어넣을려고) 양식하고 짊어지고 딱 올라가이께네, 저그 아버지가 저 지게 우에 따라가민서로 손에 자치는 대로(닿는 대로) 나뭇가지를 뿌사가 흘리놓거든.

자꾸 나뭇가지를 뿌사 흘리 흘리놓고. 그래 인자 저그 아버지로 인자, 그 안에 굴로 만들어났는데 그 안에 모시놓고,

“아버지요, 잘 계시이소.”

카고, 인사를 하고 나오이카네, 저그 아버지가 머라 챜는고 하몬,

“야야, 이 밤중에 길로 단디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오민시로(오는 길에) 니 가라고 표시를 단디(확실히) 해놨다.”

카거든.

“어떤 표시를 해놨노?”

카이,

“내 나뭇가지로 뿌아가 좌아 흘려놨시간, 나뭇가지 뿌안, 고, 고 길만 찾아가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래 아리키 주놔노이카네, 아, 저 이놈 가만히 생각해 보이카네, ‘내 우리 아버지로 갖다가 고려장 시키려 내빼리고 갈라 카이, 우리 아버지가 저러개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를 내빼리고 가겠노.’ 싶어 도로 가서 저그 아버지를 짊어지고 왔는 기라. 그 질로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단다.

[금정구 설화 10]

도깨비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S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순남, 여, 72세

구연상황 : 도깨비불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제보자가 옛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조사자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옛날 북한군이 내려와서 죽은 시체에서 인이 나와 감나무에 붙었다. 그것이 비가 오면, 멀리서 보면 도깨비불로 보였다.

옛날에 우리 클 직에, 우리 여남살 목을 직에, 빨, 빨갱이라 카면서 많았다 아인교?

근데 와가지고 파출소가 불 찌르고 달나고 그러몬 인자 또 우리 이쪽에 순경 총 쏘아가 죽고, 그 피가 막 가면서 흐른다 아인교? 근데 거기 인이라 하데. 거기 그래 감나무 현재 붙어가지고. 그래 거기 주르르르 비가 오몬 인이 돼가, 멀리서 보몬 불이 주르르르 갔다가, 우리 보기에는. 또 이래 이래 보면 또 줄 - 내려오는 걸고, 줄로 지아(지어서) 땡기는 걸데요.

(조사자 : 본 적 있습니까?) 그 비, 비 오고 꾸름 하면 우리가 보지. 꾸름하고 해가 지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좀 애릴 때는 무섭어가(무서워서) 한 데도 못나왔지.

[금정구 설화 11]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S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순남, 여,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도깨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제보자가 외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외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밤길을 가다가 잤다. 그러면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서 얼굴을 때렸다. 또한 도깨비와 싸우기도 했는데 아침에 가보면 빗자루가 있었다.

우리 외할, 외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도 되게 골짜기 살았섯거든.

근데 밤에 가. 가몬 인자 술에 취해 가. 가다가 이래 인자 방긔돌 이래 있는데, 주무시몬 그 인자 범도 내려 오가지고 꼬랑대기, 꼬랑땡이 물로 묻히기 얼굴로 때리고.

그래 술이 취해가 가몬 밤에 이래 가몬, 참, 또깨비라고 밤에 마 싸움을 했는 기라. 싸움은

하고 나뉜 아침에 그 자리 가보든 빗자리, 거신 빗자리더라 카대.

[금정구 설화 12]

아기 업은 귀신을 본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KL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이선, 여, 7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하자,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밤중에 집으로 내려오던 도중 어느 한 사람이 아기를 업는 것을 보고 같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은 사라져 버렸다. 이틀 날 다시 그 곳에 가보니 아무도 온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자리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온차 골짜기거든 우리 외갓집이. 근데 인자 우리 집에는 아들만 놔두나 놓고 갔다가 아버지가 그때 인자 빨갱이 시대는 저기라 카이카네, 동네 지대장을 봤거든.

그래 동네 일이 있어 밤에 내려오는데, 저 고 못이 큰 기(것이) 있어요. 병산이라 카는 동네가 있고 내려오면 못이 큰 기 있는데, 고(거기에) 탁 오니까네, 마 허재빈지 구신인지 뭇이 알라를 업었는데, 아버지 귀에는 알라 소리 꿩꿩 앓더라 카는 거라.

그래가 뭐 그 사람은 앞에 가고 아버지는 뒤에 내려오는데, 따라 내려오는데 어딘가는 오다 보이 없어졌뿌더라 카대. 없어졌뿌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이고 마. 온차 아가 급하이까네 내가 못 미쳤다.”

내가 마 누 집에 들어갔는강, 거서 산길 쪽 내려와야 우리 동네거든.

그랬는데 이틀 날 아침에 병산에 가,

“누가 아팠나? 아가 아팠나? 우쨌노?”

카이 아무도 간 사람이 없더라 카는 기라.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 그랬는가 그런 현상 절실히 느꼈다 카모,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금정구 설화 13]

꼬꾸랑 이야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K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종순, 여, 8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아 조사자가 괜찮다고 하자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꼬꾸랑 할머니가 꼬꾸랑 작대기를 짚고 꼬꾸랑 질을 가니께 꼬꾸랑 개가 와서 꼬꾸랑 똥을 눈께 꼬꾸랑 개가 와서 주워묵은께 할매가 꼬꾸랑 작대기로 새리준께 꼬꾸랑 꺽 꼬꾸랑 꺽 하고 가뿌리더라.

[금정구 설화 14]

바구니를 물어다 준 범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MN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문남순, 여, 86세

구연상황 : 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제보자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어머니와 동서들과 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 범 새끼를 보고 귀여워서 집으로 가져 갈려는데, 범이 나타나자 놀라서 도망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니 범이 바구니를 각각의 집 앞애다 갖다 놓았다.

아홉산 골짜기에 나물 캐러 갔거든. 이전에 우리 엄마랑, 동시간에 그 이부지 늪이캥 서이가 (세 명이서) 갔거든.

서이가 가니깐, 그래 닭대비에 어데서 오글오글 무슨 소리가 나는 걸터란다. 방구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걸애서, 요래 들받아 보이(들여다 보니) 범이 새끼로 두바리로 날아가지고 요래 있는데, 어찌 좋는지,

“아이구, 이뿌다. 이뿌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 하매,

“이거로 가지고 마 우리 집에 가자. 니 한 마리 옹고, 내 한 마리 옹고 집에 가자.”

이래 카니깐, 그 먼데 앉았다가,

“으흠.”

하더란다. 그래, 이래가 쳐봐다 보니 마, 놀래가지고 마마, 그대로 기갑년하고 바꾸니고
뿔이고 다 내뻘리고 마, 물 건니 왔는데,

“그래 와 꼬치마을로 가서 와 빈 걸로(빈 몸으로) 왔노?”

이러카이까네,

“아이고, 아흠산 골짜기 가가지고 그러하니까 범새끼로 낳은 거로, 우리가 모르고 그래 좋다
캐디마는(좋다 그랬더니) 우리 자아물라 캐서 놀래서 왔다.”

이러 카고, 그래 카고 말았는데, 아직에 자고 나니깐, 고 박임지, 고 임재대로 딱딱 집집이
요집에 하나, 조 집에 하나 딱딱 갖다 났더란다.

[금정구 설화 15]

두구동과 작장의 한자 명칭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씨 덕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마을의 유래에 관련된 책을 살펴보며 기억을 더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자를 직접
종이에 써가며 자세히 설명을 곁들이며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두구동의 한자어 뜻이 콩이나 갈아먹고 입을 가만히 있다는 의미였는데, 동래부사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한자어로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었다.

옛날에는 어째 썼노 하면은, 옛날에는 그제 [종이에 한자를 쓰며]팥 두(豆), 이거 (조사자 :
예, 콩 두(豆)에다가.) 응. 팥 두(豆), 입 구(口). 콩이나 팥이나 갈아먹고 가만히 있, 있거라.

이, 이래 돼가지고 있을 때, 있을 때, 동래 부사로, 동래 부사로 있을 때 어느 부산고 영판
그거는 몰라도, 밑에 아전이, 박, 이름을 모르겠다. 박 무슨 아전이 있다가, 두구동을 갖다가,

“이거 콩이나 갈아먹고 입은 가만 마 가만 있고, 그냥 살아라 카는 이거 두구동을 안 되겠다.
이름을 좋은 이름을 바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무 목(木) 변에 말둑 두(斗)자로 써고, 구자는 언덕 구(邱)자, 언덕 구자.
대구라 카는 구자 말이야 이거. 이, 이렇제. 언덕 구자로 쓰가, 그래가 두구를 갖다가 바꾸고.

그때가 뿔이고 카몬, 우리 부락에도 노포동이 아이고 작장동이라. 작장, 까치 작(鵲)자 무까시.

예 석(昔)자 밑에, 예 석자 아이가. 예 석 옆에 새 조(鳥). 새 조한 자. 이 작, 까치 작자거든. 까치 발바닥이다 이 말이야. 까치 발바닥.

[금정구 설화 16]

흥년을 미리 대비한 동래부사 민영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 씨 댁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구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직접 인용과 묘사를 써 가면서 그때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새로이 동래부사로 부임을 받은 민영훈은 천기를 본 어머니로부터 동래에 흥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듣는다. 어머니는 몇 가지 계책을 민영훈에게 알려준다. 민영훈 부사는 어머니의 말대로 군량미와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지원받아 창고에 쌓아두고 흥년이 들었을 때 지역민들에게 곡식을 배급했다. 정치를 잘 한 민영훈 부사는 임기가 끝나 떠날 때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떠났다.

그 민영훈 부사가, 충청도에서 동래부사로 아주 거 한다 카이카네, 부사 중에도 대부사로 특별하게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찻는 모양이지.

그래 인자 하이카네, 저거 엄마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로 있는 엄마가 있다가, 내일이 같이 동래부사로 부임해가 갈킨데, 지녁에 천계를(천기를) 보이카네, 저거 엄마가 천계를 봤는 모양이라. 보이카네, 아이고 마, 동래 고을에는 마, 아주 말하자면, 큰 흥년이(흥년이). 옛날에는 뭐 비료가 있나. 안 글나 그제? 풀 비가지고, 풀 비가지고 소 밑에 열고, 소똥 거름하고 이래가 농사 짓고 이, 이랬다. 이래서 살던 시대데, 큰 흥년이 지겠거든. 그래서 있다가 저거 아들로 밤에 불렀어. 요새 걸으몬 한 열한 시나 돼가 불러가,

“아무 것이야.”

그래 인자 민영훈, 민영훈 부사로.

“어무이 불렀습니까?”

“그래. 니가 내리(내일) 동래로 행차로 못하겠다.”

카거든. 옛날에는 뭐, 오새 같으면, 와 몬 하는교?, 뭐, 국가에서 하는데. 대반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인테 그래 안 했거든.

“어무이 그래요. 나는 마 못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이카네,

“응. 지금 내가 보이카네, 내년엔 동래 고을에는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국민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니가 가몬 사람이 인덕이 없다 캐가지고 갈 수가 없다. 가지 마고 포기를 해 뿌리라 이기라. 포기로 하고 마 그양 관록을 마 못 하라 카몬 하지 마라 이기라. 백성들 원망을 어찌 듣고 있노?”

“예. 어무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는 부모인데 삼강오륜 카고, 응? 충효 카는 그런 그 공자님 그거를 받아가.

그래, 그래 카고 인자 이쪽 오이카네, 아들도 민영훈 부사도 잠이 안 오고, 자기 어머니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새벽에 한 세 시나 돼가 또 나가 하늘에 천기로 보이카네, ‘전라도는 경상도, 경상도라도 동래고을은 마 캄캄한 송년이 되고, 전라도는 뒤송송하이 농사가 되겠다.’ 천기로 보이 이랬어.

그래서 새벽에 또 불렀어. 아들로 불러가,

“동래부사로 그래, 부임을 꼭 가야 되고 국가에서 하이카네 가기는 가되 이기라. 내 시킨 대로 하라.”

“예. 어무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동래부사로 가거든, 그때는 수영은, 수영은 수상이거든. 해운이라 말이다. 수영 수상인데, 의논을 해라. 무슨 의논을 하노 하몬, 정부에 그양 흉년이 진다 뭐 진다 카는 그거는 사전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기라. 없이이까네 그래 하지 말고, 수영 수상인데 앞으로, 앞으로 전쟁도 우려가 있고 흉년도 올 수가 있으이카네, 군량미를, 군량미를 약간 양성해야 되겠다 하고, 국가에 돈을 좀 미리 선금을 좀 말하자몬, 요새 같으면 대부로 좀 하라 하이카네, 그래 수영 수상하고 동래부사하고 맹년에 시국도 그렇고 암만 카만 흉년도 올 것 같고 이래서 있다가 태세로 대비해야 된다.”

케가,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어데 했냐면, 전라도에 입도선배자금이다.

그때 말하자면 사전에 농사짓기 전에 돈이 없으이카네, 가져 가가지고 너거가 가가지고 일꾼도 치고 풀도 비고 탁 이리 해가 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하라. 그 대신 이 돈은, 돈을 받는 기 아니고, 너거인데 농사지아가 곡식을 주가 곡식을 주는 거는 국가에 요새 걸으면야 입도선배자금. 요새 매상 안 있나, 매상. 삼만원이니 이만원이니 칠만원 카고 올리고 내루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사들이가지고 해야 된다. 고 가격대로 주가 캐가지고 받아가지고 쟈어. 동래부사가 수영수상하고 곡식을 쟈다.

그해 참말로 보이카네 마 농사지을 땐데, 날이 춥어가지고 날이 가무다가 뒤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모를, 모가 크는데 날이 춥어가지고 모가 안 커.

그랬다가 인자 그래도 마, 모가 이거만큼 해야 되는데 근근히 썩어가지고 마 그양 꼽을 때 춥어서 여름에, 초여름인데, 흠바지를 여 흠바지를 입고 모를 숨겼다. 논도, 논도 맬 때 흠바지를 입고 논을 땀다. 이라이카네 이, 이 나락이 커가지고 곡식이 열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가 호박 송년이 돼뵈어. 그냥 쫓쫓하게 해가 마, 마, 풀매치로(풀처럼) 말랏뵈어. 그래 입도선배, 선배 곡식을 받아가 탁 그거를 국민들로 갖다가 배급을 태아졌어. 직접.

그래할 때 우리 노포동을 갖다가 양산 고을에서, 양산 고을에서 노포동은, 작장동은 민영훈 부사가 전부 다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배급을 준다. 우리는, 우리는 양산도 저 언양 쪽으로 우로는 쾌암지만은 밑으로는 흥녕이 막 저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기 있는데, 우리 동래 여 마, 작장이면 작장, 노포면 노포 들어, 들어 와가지고 밥 얻어 먹으로 오는 건 보통이고, 와가지고 죽을 끓이 놓으론, 두방이로 마, 솔두방이로 마 밀어뿌고 저거가 죽을 퍼가고. 심지어는 알라를 업고, 업은 아기부터 부모가 언제든지 죽을 식하가 믹이고 자기가 무을 낀데, 배가 얼마나 고프는지 자기부터 먼저 묵고 아를 주더란다. 그때 이야기라.

그 정도로 배가 고프는데, 그래가 인자 민영훈 부사가 배급을 갖다가 주고, 지금 작장동은 지금 마, 양산고을에서 전부 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와가지고 죽을 끓이 놓으론 그양 퍼가뿌고 마, 그거 하고 하이카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카이까네, 그래 동래부사가, 동래부사가 그거로 했어. 밑에 부하들 보고 인자 아전, 아전들 보고,

“곡식이 지금 얼마나 있는고 창고에 그거로 해라. 창고에 지금 파악을 해라.”

그래 인자 요새겉으론 마,

“백 석이 있습니다. 백 몇 십 석이 있습니다.”

“그라면 지금 얼마, 얼마 몇 달만 있으면 그거 되노?”

“지금 마, 한 두달 안 해도 보리고개가 옵니다. 그러면 보리가 익으면 마 안 묵겠습니까.”

카는 그런 보고를 해노이까네, 그래 양산고을에 호수를 전부 세알려가지고 줄로 서가 배급을 줬단다.

그 정도로 민영훈 부사는 그래가 인자 임기가 이 년 돼가지고 인자 동래, 옛날에는 어데 있었노 하몬 어, 동래부사가 그거 할 때 저게 있었다. 저, 저 동래시장. 동래시장 안에 드가몬 안주 집이 이래 이런 기 두 개 있어.

그래 거게 있다가 인자 딴 데로 부임해 간다꼬 인자 가이카네, 국민들이 문가라고, 민영훈 부사 문가라고. 그래도 국가에서 뭐, 왕이 특명 내루는데 이 년을 딱 정해논 바람에 안 갈수는 없고.

그러노이까네 국민들이 마 거서 동래시장에서 부곡동까지, 부곡동 고기 뭐시고 카몬, 옛날에는 오시개라. 양산서, 양산서 내려오몬 마중을 가는 기라. 마중을 가몬 선동, 선동에 저 하정리 부락에서 마중을 나가는 기라.

밤에 내려오몬, 조금 늦가 내려오몬 햇불로 들고 가가지고 햇불로 빠치고 이래 부사가 내려오는데 마중을 나가고, 또 올라 갈 때도, 올라 갈 때도 하정 부락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역동이라 켜어. 역동.

이 역마주(마다) 나와가 지킨다고 역동이라 켜는데, 그래 그 오시개라 카는 그게 오면은 열두 시라. 그래서 오시개라.

그래 그까지 인제 오는데 그제, 너무나 민영훈 부사로 여 안 보내고, 우리가 업어다가

서울까지 보내준다 카는 뜻으로 국민들이 그제 요새같은, 요새같은 잠바지만은 그때는 적삼, 적삼을 벗어가지고 길가다 갈아쫓어.

그래가 민영훈 부사가 행차를 했다 카는 그거, 그 전설이, 전설이 아니라 여 부곡동 문화에다 나와 있을끼거만은.

[금정구 설화 17]

까치발 형상의 작장마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씨 덕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매우 적극적인 성품으로 옛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작장마을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현재의 노포동 작장마을은 풍수설에 의하면 까치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의 형상이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작장이라 카는 것은 와 그랬나, 와 작장이라 지었노 하면은, 풍수설에 입각해가지고 까치가, '까치 작(鵲)'자йка네, 까치가 작장부락을 보고 걸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말하자면 걸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라몬 까치발이 어덴기고 하몬, 지금 지하철, 지하철 우리야 포(표) 타고 달고 하제. 거가 옛날에 양씨네를 뒷등이(묘가) 크기 들어와 있었어. 크기 들어와 있었고, 거가 까치가 걸어오는데 앞발이라. 앞발 바람에 크고, 뒷발은 여 우리집이라. 우리집, 발로 앞발 드리면 뒷발은 언제든지 이래... (조사자 : 서 있잖아요.) 안 비나(보이나)? 비는 그 바람에 손바닥 형태라 카는 기라.

[금정구 설화 18]

도깨비가 놀았던 작장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씨 덕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작장마을에 관한 전설에 대해 묻자,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를 자세하게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작장마을의 하천에는 도깨비가 나와서 팽과리를 들고 놀았다. 이곳은 원래 도깨비들이 집을 지어 산다는 풍수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이기, 이기, 이기 말하자면, 지금도 지금은 이기 그제 분모지가(불모지가) 돼가지고, 분모지가 돼가 묘지가 됐다가 그래 지금은 인자 대지가 됐는데.

이 분할 한 땅이 그제, 요기 팔백 이십 삼(823)번지에서 일, 이, 삼을 쪽 쪼개 영는데, 예, 여가 말, 말하자면 까치밭이라도 저, 저 그것으로 또째비설이라 칸다.

또째비설인데, 그거는 인자 우리 부락 사람들이 지금 여 복개로 뒤로 복개 해가 해놨지만, 저기 옛날에는 하천이거든. 지금도 하천인데 복개로 안 해놨나.

근데, 저리 지내가면은 어, 지내가면은 또째비가 ‘캥작작, 캥작작’ 카고 깡주로(팽과리로) 치고 논단다. 그라문 겁을 내가 사람들 안 지내가고 이, 이래, 이랬는데. 뒤에 풍수전설로 해 보이카네 말하자면, 여가(여기가) 또째비설 노다가 갔는데, 후천 터라. 마, 후천에는, 후천에는 집을 지아가 살끼다.

[금정구 설화 19]

기왓장으로 왜놈들을 물리친 아낙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씨 덕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예전에 충렬사 현관으로 지낼 때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세 아낙네가 기왓장으로 왜놈들을 맞추어 외적을 물리쳤고, 지금도 그 세 여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 그 여자가 그때 한데 그 서인데(세 명인데) 그제.

그 가문 하내이는(한 명을), 한 사람은 성을 거 써놨어. 써놨는데, 둘이는 성을 몰라가지고 마, 젊은, 젊은 가정부인이다 이런데.

거 말하자면 왜놈들이 오고 이라이까네 마, 도망갈 때도 없고 마, 기와집에 기왓장에 올라

가서 올, 올라 갔는데, 왓놈들은 무슨 총인가 하몬 그때는 소총 카는 그제. 그걸 가 쏘고 이라는데, 글치만은도 저거는 나아(나와야) 쏘지, 지붕 위에 있으이카네.

그래 그 아줌마들이 기왓장을 뺏기가(벗겨서) 자꾸 갖다 주는 기라. 우에서 인자 힘이 좀 그거 하이카네 밖에만 나오몬 기왓장 가지고 마 주아(주워서) 떼지가 마, 일본놈 머리를 맞차가 직이고 달고 핸 그기, 안자 아주 그제 있어.

그래서 그 해마주(해마다) 그제, 해마주 제간 지낸다.

[금정구 설화 20]

상마, 하마마을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PY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박용진씨 댁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용진, 남, 77세

구연상황 :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제보자가 다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며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범어사 주위의 상마와 하마마을은 삼을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범어사에서 도착하여 말을 타고 위에 내리면 상마마을이고 밑에 내리면 하마마을이라 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범어사에, 범어사에 오는 사람이, 말하자면 입찰도 보러 오고, 범어사 주지도 만나로(만나러) 오고, 범어사 상무도 만나러 오는데, 말을 타고 아가지고 우쪽에 내리면, 제일 우에 내리면 상마마을이고, 밑에 내리면 하마마을이다.

그래가 그거 하지. 삼을 거 전 돌밭인데, ‘쌈을 숨가가지고 옷베 삼을 했다고 상마, 하마가 아니다’ 이 말이라.

그래 전부 다 내 말이 맞다. 그래 와 나는 그걸 아노 하몬,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기지.

[금정구 설화 21]

동대, 석대, 운봉 사람들의 특징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AJ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안종네,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마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동대마을 사람들은 술을 잘 먹고, 운봉마을 사람들은 잠을 잘 자고, 금사동 사람들은 집을 잘 팔았다.
운봉마을은 골짜기라서 어두워 해가 빨리 지니까 잠을 많이 잤다.

돌대, 석대, 반송, 운봉, 동대.

동대는 술을 잘 먹고, 운봉은 잠을 잘 자고, 금사동은 집을 잘 팔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넘어왔다.

왜 운봉사람은 잠을 잘 자냐 하께네, 골짜기라서 일만 하고 어둡으몬(어두우면) 잠을 많이 자고, 해가 날래(빨리) 지이까 잠을 잘 자는갑대.

[금정구 설화 22]

가난한 동대마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AJ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안종네,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마을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요청하자, 마을에서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동대마을에는 들이 없고 돌과 물밖에 없었다. 동대마을에 시집을 보낸 딸이 걱정이 되어서 울었다.

이기 동대사 여는(여기는) 오이꺼네 들이 없대요. 여 동대 거릉(개울) 물만 있고, 들이 없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 와가지고 딸로 시집을 보내놔놓고 거금에(그곳에) 가며 울었답니다.

“뭐를 먹고 살꼬? 돌하고 물하고뿐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 석대 저 눈이 고개 넘어 다 있더라꼬, 오이꺼네. 그래 석대, 석대. 여는 동대. 자갈도 많다.

[금정구 설화 23]

바구니를 물어다 준 범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AJ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안종네,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다면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범 새끼를 보고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었다. 범이 나타나자 놀래서 바구니를 두고 집으로 도망왔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호랑이가 집집마다 바구니를 물어다 갖다 놓았다.

범새끼를 낳았는데, 그래, 범새끼로 이쁘다고, 이래 한 번 씨담아(쓰다듬어) 주는데 마, 범이 나와서로 마, 겁을 내가 바구니로(바구니를) 다 내빼리뿌고 집에 왔더마는.

자고나니까 말캉 물어다 집집마도 갖다 낚다라 카대, 호랑이가. 지 새끼 좋다고 이래 해코지를 안 해서.

[금정구 설화 24]

방귀 힘이 센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AJN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안종네,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줄거리 : 방귀 잘 끼는 할머니가 얼어붙은 요강에다 요즘을 샀더니 요강이 깨어져 버렸다. 요강이 얼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방귀를 너무 세게 끼니까 깨진 것이라며 놀렸다.

방구 잘 끼는 할매가 있고, 퉁퉁하이 해가지고 그래 앉으몬,
“아이고, 새이야(형아), 너는 와 그리 방구를 잘 끼노? 또 방구 편다.”

이래 카몬.

“이 사람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방구를 아무나 끼나.” [웃음]

“그라모 니 나무 하러 갔을 때, 그때 니 노래 하나 해 봐라.”

이래 카만.

“아이구, 그거를 어찌 하겠노 마.”

이래 카대.

이래 방구를 깬는데, 한 번은 인제 오즘을 누이꺼네, 청에다가, 청방아다가 요강을 놔 놓고 오즘을 내 놔대. 눈께네, 놀다가 와가지고 오즘을 누니, 요강이 탁 깨졌뿌더란다. 그래 놓으니까 인자 막 놀리는 거라.

“니가 방구를 새이 니가 얼마나 크게 깬으몬 요강이 탁 깨져뵈노.”

이래. 그래 난중에는 다 알고 보이까, 오즘을 노가 그 요강이 얼었던가 박요. 그런데 인자, 그기 금이 갔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뭇이 있는교. 그래가 마 그래가 인자 오즘, 뜨신 오즘을 누이까 마 요게 턱 갈라졌는데, 방구 시게 끼가주(뛰어서) 요강 갈라졌다 카민서러 그래 놀리 더랍니다.

[금정구 설화 25]

일하기 싫어하는 며느리를 칭찬한 시아버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AJN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안종네,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던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며느리가 밭을 매러 가기 싫어서 피를 썼는데도 오히려 시아버지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 칭찬하였다.

옛날에 시접을 가니깐, 시아버이가 자꾸 마마마, 밭만 매러 가자 카거든. 부애가 어찌 나는지, 맨날 시아버이가 메느리 밭을 매러 가자 캐사서,

“아이고, 요번에는 가거들랑 조비밭을 매러 가자.”

카더란다. ‘아, 이놈, 조비가 죽으면은 메느리로 안덥고 가겠지’ 싫어서, 말캉 끄립어 놓으니까네,

“와, 우리 메느리, 좌우시간에 잘한다.”

이라거든.

“그라면은 이제 두벌밭을 또 매러 가자.”

카더란다.

‘요놈의 영감아’ 싫어서, 가서 인자 복기를 살살 도와주이께네.

“니는 농사의 전문박사가 되가라.”

이라더래.

[금정구 설화 2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LG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광수,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술을 먹고 늦은 밤에 산을 넘어 집으로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었다. 결국 씨름에 이겨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다. 다음 날 너무도 기가 차서 다시 그곳으로 갔더니, 사람은 없고 방앗고가 칼에 찔려 있었다.

디딜방아 고(공이), 고가. 인자 한 사람이 한날(어느 날) 어디 갔다, 시장 갔다 오면서 밤에 왔는데, 술을 묵고 왔는데, 사람을 하나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자. 씨름을 하자.”

캐샀는 기라. 그래 씨름을 하는데 대구(계속) 졌는 기라. 지는데, 가도 가자 캐도 갔다보이께,

“물이다. 물이다.”

캐도,

“오줌 아랫도리를 벗어라.”

이기라.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그래 아랫도리를 걷어가 물을 건니는데 그기, 물이 아이고 까시랴요. 까시밭으로 가몬 물이라 카고, 물밭에 가몬 인제 까시라고 옷 입으라 카고.

이래가 산등을 넘었는데, 그 넘어가서는 객구(결국) 말이지 둘이 싸웠답니다. 싸워가지고 마, 참말로 회장님 말씀맛다나, 씨름을 해가지고 마, 우째 이겼는 기라.

이기가지고 칼로 찔렸는데, 이기가지고 고것 가 간구줄로(?) 집에 와가지고, 그 안날(다음 날) 자다 본께, 하도 기가 차가 그 안날 거기를 찾아가봤단다. 가인께(가니까), 방애짙는 고 안 있습니꺼 고. 고가 그 칼에 찔리가(찔려서) 있더라.

고. 고에 인제 여자들 맨스, 그기 약간 묻었던 모양이지.

[금정구 설화 27]

팔송정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LSW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상우, 남, 83세

구연상황 : 마을에 알려진 팔송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짧게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마을에 소나무가 여덟 그루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쉬어가는 곳이었다. 이를 팔송정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소나무가 여덟 피기(포기) 있었거든, 큰 기. 큰 기 있었는데, 여, 시외에서 들은 사람이 이 길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정자 지도 좋고, 뭐 싸이끼로, 거서 쉬가 가고 이래가 팔송정이라.

(조사자 : 지금은요?) 지금은 팔송정이라 카는 기 나무도 없어졌뿌고, 거기 어디 사라졌뿌고 없어.

[금정구 설화 28]

바위 밑에 살았던 용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LSW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상우, 남, 83세

구연상황 : 다른 조사자들의 마을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보자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큰 바위 밑에 고인 물에 용이 살았는데, 바위에 물이 말라버리자 용이 사라져버렸다.

배암 이야기는 요 우에 가면, 거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마 용이라 카까(할까) 이래 됐는 기라, 그기(그것이).

그랬는데, 그 지금, 농, 농사도 안 짓고, 그래 이래 노이 물이 말라뻐거든, 그 바위 있는데, 물이 말라뻐고 이래놓이, 용이 안 보이는 기라, 지금 어디 갔는지. 그 바위 밑에 그 있었는데, 그 용이 마 물이 없으니께로 그 용이 어디로 가뻐는지 없어예.

[금정구 설화 29]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1_PKS_LSW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상우, 남,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도깨비 이야기가 있다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비가 오는 날에 산을 넘어가면 도깨비가 나와서 길을 가로 막곤 하였다. 도깨비는 담뱃불을 켜면 사라지고, 그게 없을 때는 칼로 찢러놓고 집으로 오곤 했다. 그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보면 도깨비는 없고 빗자루가 칼에 찢려 있었다.

도깨비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맨손 이제 맨손. 맨손 나오는 그걸 닦아가지고, 닦든 이래 동뭍 숨가가지고(숨겨서) 버리나 놓이(버려두니까), 비가 오고, 뭐 하고 하몬, 거서 거기 나오는 기라.

그래 거기 인제, 거기 또 그래가지고, 저 산 고개 넘어가는데, 저런데 혼차 오고 이라몬, 나(나이) 많은 사람 짚에 앞에 와가 자꾸 짚을 가로 막고, 같이 가자 카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옛날에 인자, 그 당시에 담배 쫓는 사람 있으몬 담뱃불로 티가지고(켜서) 하몬 없어지고, 그렇지 안해가 칼로 내가지고 칼로 가지고 콧 찢러뺐는 기라.

콧 찢러놓코 난주(나중) 그래 그 이튿날 죽었다 싶어서 가보이께로, 빗자루가 칼에 거 찢리가 그래 있더라 카는 기라. 그래 그거 여자들이 맨손이가 뭐고 그랬는 걸 그걸 조심해야 돼.

그기, 참 그기 사람을 그 뭐라 카고, 기가 약하고 뭐한 사람같으몬 쓰러지던 동 머 하든 하몬 욱을 보는데, 이 사람이 간담이 크고 대담하이께로 그런 일이 뵈이 하고 있었어.

[금정구 설화 30]

도깨비에 홀려 죽은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LJA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점아, 여,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깨비이야기를 아는 지 물었더니,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어릴 적에 동네에 덕자라는 여자 아이가 늦은 밤에 공부하러 다녔다. 어느 날 산 언덕을 넘다가 갑자기 도깨비에서 흘러서 죽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니 빗자루가 놓여 있었다.

우리 클 때는, 거가 인자 좀 들이 너리(넓으니) 산이 좀 가깝고. 그런데 밤에는 무섭아서 어데 못 가는 데가 있는 기라.

(청중: 동네는 작고.) 예. 안쪽에 우리 사는 데는 내왕리라고 안쪽이고, 요 인자 저넘뎨이라고 카는 데가 있는, 이런 산이 둥그리하이 하나 있는데. 갓으로 요리 동네고, 요쪽에는 좀 동네가 떨어지(떨어져서) 외지고 이런데, 거게 우리 큰가집 커다가 이름이 내 잊어뿌도 안 한다. 덕잔데(덕자인데), 내카메(나보다) 한 살 작기 묵는데, 저녁에 그저 공부를 안해논께네, 저녁 야간이라 하나 뭐, 뭐, 그거 하러 가갓고, 거 허신(허깨비) 거한테 흘키가 죽었다 아인교.

허신이 도까비 난다고 거는 밤 되몬 잘 안 그래, 몬 땡기(못 다녀). 인자 위험하다 카는데, 이거는 그 인자 해필 우리 동네에서 그 한참 언덕이라고 나와갓고, 그 산을 동네같은 산이 있는데 고걸 넘어서 가는 기라. 그 인자 공부하러 가는 데가. 그래 가갓고 내(항상) 땡기도(다 녀도) 괜찮더마는 어느 날 그래 마 죽어뵈다 아이가(죽어버렸다).

그래 그래가 뒤에 강께나(가니)

(청중: 뒤가 흘키가 안 죽는다, 흘끼이한테는.)

그래 강께나 빗자리 몽댕이, 몽댕이 아있나(있잖아)? 거기 있더랍니다.

저저 부모들이 강께나, 오빠하고 강께나 아무것도 없고 뭐 흘치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때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빗자리 몽댕이 모지라진 거 거기 있더라 카대.

그 소리는 듣긴 들었다. 우린 보진 안 했어.

[금정구 설화 31]

고당지의 산신령 발자국

자료코드: 04_21_FOT_20100128_PKS_LJA_0002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2010.1.28

조사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이점아, 여, 72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산신령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동네 산골짜기에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당제를 지내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산신령이 지나가며 발자국을 남겼다.

고당지 저게도 진통 그전에 그거 하면은 진통 자국이 요래 있다 카대.

(조사자 : 어디요?) 저 우에 요 고당지라고 있어요. 고당지라고, 요요 골짜 올라가면은 있어요.

고 인자 고랑지 모시논 데 있는 집이 요래 쪼께난 기 요래 있고. 근데 거계선(거기에서) 뭐, 거 인자, 보, 보름 되면은 거 인자 요, 동네 인자, 정월 대보름날 되몬 인자 그 제를 그 모신다 아입니까? 그래 고거 인자 할 때.

(조사자 : 당제?) 어, 당제를 지내는데, 고 가가지고 인자 거, 거보다 먼저 가야 안 되나. 거 그리 하고 이라면은 거 정신을 되게 이래가지고 거 하는 사람 있제, 아무나 못 하거든. 가서 안 하거든. 그래 하면은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눈을 딱 감고 그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이래가 있으면, 옆을 썩 지내간다 하데. 지내가는데, 그, 그라고 나서 그 뒤에 안자 날 새가지고(날이 밝아져서) 당제 지내고, 인자 낮에 가몬 발자국이 있다 카대.

비가 안 오고 이라면 모르는데, 비 온 끝에는 이래 분명히 발자국이 이래 있다 하데.

거 인자 정신 디리는 인자 당제 모시는 사람이. 지금 저 우에 가몬 지금 살고 있다 아이가. 절로 지나놓고. 그래 거서 그런 얘기는 들었지.

(조사자 : 그럼 그 발자국은 누구란 말입니까?)

거 인자 산신령이라 카대. 산신령이 발자국이 이래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옆에 공을 들이고, 눈을 딱 감고 자기가 대기 기도를 지극정성 드리고 있으면, 옆에서 산신령이 썩 지내가는 거기 있답니다.

[금정구 설화 32]

방귀쟁이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LD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청중이 제보자에게 평소에 자주 해주던 방귀쟁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구연했다.

줄거리 : 방귀를 많이 끼는 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방귀쟁이 딸로 통하는 딸과 할머니가 방귀를 꺼서 술상을 치워버린 할아버지 이야기다.

전라도 아지메는 만날 방귀를 통통통통 끼사서러…。 우리 여 앉아 노이까네 올라가는 처녀가 한 명 올라가는데,

“저 올라가는 저 처녀는 누고?”

카이께네,
“방구쟁이 딸 아이가.”
이래 카더란다. 그래 저거 집에가 가지고,
“엄마가 방구를 열매나 깐거네, 내가 올라오니까 할매들이 앉아 노니까, 방구쟁이 딸 아이가 이래 칸다꼬.”
그래쌌대. 그래싸서 저거 영감이야 어, 저, 인자 동이지 새알로 비비이카네 새알수는 비비 이카네, 저거 영감이 뒤에 똑 놓여 있는데, 할마이가 앞에서 새알손 비비며 방구로 열매나 깐든동 끼이카네,
“방아 저 수지비(수제비) 안 물란다. 저 갖다 내빼리뿌라. 방구, 방구도 거 다 드가서 못 묵겠다.”
칸다 카대. 그래 칸다 카대.

[금정구 설화 33]

노포와 신천 방구쟁이의 방귀 시합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LD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 못한 방귀 이야기가 있다며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줄거리 : 노포동 방구쟁이와 신천 방구쟁이가 방귀 시합을 했다. 한 명이 끼면 또 한 명이 끼고 해서 막상막하의 시합을 벌이다가 결국 신천 방구쟁이가 승리했다.

미나리로 하러 갔거든. 가이카네 그 할매들이 한단 말이,
“방구쟁이는 와 안 오노?”
뭐 이래 샀대. 그래 내가,
“저, 할마이들이 저 우리 동네 방구쟁이인 줄을 우째 알고 저래, 저래셨노?”
이켰거든. 그리이 노포동 방구쟁이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인자 노포장 방구쟁이카
우리 신천이 방구쟁이카 인자 놀, 아한테 다 와서 하는데, 이래 인자 민원이 걸린다고 인자
궁디를 땅에 붙이놓고 하는데, 이놈의 마 방구를 마 깔라 카이까네 마, 부끄럽아 못 끼고,
차만 지내가이 방구로 한 차례 툭! 끼뿌데. 저 차마 지내가몬 방구로 한 차례 툭! 끼고.
나중에 마 할마이 둘이가 인자 방구 시합을 하네. 방구 시합을 하는데 마. 하네 끼이 하네
끼고, 우째 그리 나오노 야.

하내 끼이 하내 나오고, 하내 끼니 하내.

난주 결국 난주 끝티 가서는 우리 신천이 방구쟁이가 이겼다 카데. [일동 웃음] 신천이 방구쟁이가 이기가지고 얼마나 그날 웃었는지 말도 못한다.

[금정구 설화 34]

방구쟁이 아주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LD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방귀 이야기를 하자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또 구연했다.

줄거리 : 태이 엄마가 받을 땀 때 방귀쟁이와 짝을 지어 일을 안 하려고 했다. 방귀를 오십 차례 가랑 끼는 걸 세어봤다고 하자 다른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한분어는(한 번은) 밑에 점방에 그 아저씨 저, 저, 저, 요 우에 그 인자 그, 저저... 눈 안 있었나? 야 우에.

[다른 청중에게 물어보듯 이야기 하면서] 내나 너거 시아지방이 요 우에 여 눈 안 있었나. 그 생전에 하보, 하보. 하보 거 눈 서마지긴가 있었다.

그 인자 모 숨그러 갔, 아! 저저... 그거 당근 밭 매러 갔다. 당근 밭 매러 가가지고 땀는데, 그날 대기 춥었거든. 그래 딱 매니까네,

점심 때 돼서 인자 칩어가지고 인자 밥도 거 몬 가 오고,

“집에 가서 목어야 되겠다. 칩어서.”

이카고 있으이카네 그래, 태이 저검매가 한단 말이,

“나는 저녁 때 저저.”

방구쟁이강 태이 저거 엄매강 저거 한쪽에서 붙어가 받을 땀거든.

“나는 저녁 때 저저, 전라도 아지매강 짝을, 짝 안 할란다.”

이러카데.

“와 만다고(무엇 때문에) 짝을 안 할라카이?”

“아이고 마 온 저녁, 아지께 내 방구로 어찌나 끼는지 마마, 몇 오십 몇 초 낀다.”

“니 시아린다고(헤아린다고) 욱봤다.”

내사 그치려(그토록) 많이 끼서 인자 저녁 때는 내 짝지 안 할라 카는 기라. 짝지 안 할라 캐서 어찌나 우리가 그날 웃어났든지. 그래가 저녁 때는 짝지 안 할라 카는 기 어찌 우습운지,

저녁 때는 짝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 그 짝지 안 할라 카더라.
그래가 태오, 태이 저거 엄매가,
“니 거 세아린다고 내가 욱봤다.”
카니까네, 아이고 열매나 윗었는둥(우스웠는지).

[금정구 설화 35]

방구 시합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3_PKS_JD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정덕순, 여, 79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방구이야기를 하자 본인도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구술해 주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줄거리 : 두 사람이 방구시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지 엄매가 승리했다.

방구 시합을 하라 카는 거라. 방구 시합을 하라 카는데, 전라도 아지메 하는 말이,
“아이고 지랄로. 오늘 내가 보리밥을 안 묵어가 방구로 못 낀다.”
그래 캐. 그래 카는데, 또 저쪽에는,
“아이고, 우리 큰 방구쟁이 안 왔다. 오늘 시합을 못 한다.”
카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인자 이래 시합을 하라고 막 모도 그래 싸노이까네 시합을 했는 거라. 했는데
마 저 우에 사람이 한 차례 끼니 여 할매가 끼고 이래갖고. 결국 상지 엄매가 이겼다꼬 그날.
상지 엄매 방구 진짜 잘 끼요.

[금정구 설화 36]

도깨비에 홀려 혼이 빠진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JJM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주재미, 여, 86세

구연상황: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에 생각이 났는지 바로 이어서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구연했다.

줄 거 리: 어릴 적 고향에 큰 언덕을 넘어 아버지와 묘사를 지내러 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찾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옷이 물에 젖어 있고 두루마기가 다 찢어져 있었다. 알고 보니 허깨비에게 홀린 것이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아버지는 정신이 돌아와서 말을 하였다.

우리는 클 때 저 밖을저울(뜻을 알 수 없다. 제보자의 고향은 경상남도 의령이다.) 고향이 거든. 고향인데, 거(거기) 가는데 저 큰덕(큰 언덕)이 있다. 큰덕이 있는데 역시기(매우) 높으 거든. 높고 깊고 이렇거든.

거, 거 있는데 우리 인자 부친하고 내하고 그래 카는데, 나는 앞에 가고 저 묘사(묘사) 지내고 계울인께(겨울이니까) 묘사 지내 가지제. 묘사 지내러 간다 카는데 나는 머이(먼저) 가라 캐가 머이 가고, 다시 차림 하러 안 와서 올라가고 사촌들한테,

“오빠야, 아, 아버지가 오도 안 온다.”

“어데서 안 오노? 큰덕에서 안 온다.”

칸께네, 그래 내려가는 기라. 내려가는데, 00산에 들었다.

이튿날 자고 나서 제사 절할 낀데. 그래 간까네, 세상에 올때나 날띠났든지 두루마기가 다 떨어졌뻘어. 다 찢어뿌고, 옷이. 다 찢어뿌고 그래 죽지는 안 했더라.

그래가 사람 덕고(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마 물에 빠진 거 한가지라(마찬가지라). 알곳도 안 하는 기라. 그래가 참 안 갔으면, 우리 오빠가 안 갔으면 죽을 뻘 했어, 한참 홀기가지고.

그래가지고 덕고 오는데 사램이 납피나끼네(높혀놓으니까) 허새이보다(허깨비보다) 더 무섭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마. 혼이 빠지가. 그래, 멧 시간 있어 오고 마 그랬거든. 멧 시간 댕께네 그래 쪼매 말로 하데.

“내가 와 이렇노.”

이러쿠대.

[금정구 설화 37]

다시 지어진 복문 사당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산성마을에 관계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자, 범어사 복문의 사당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범어사 복문에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당을 헐었더니 범어사가 망해버려서 다시 사당을 짓게 되었다.

저, 범어사 생기고 저게 복문에 사당이 하나 생기가 있거든.

고래 인자 뭐, 사당 거 헐어뿌이까네, 범어사가 망해서러(망해버렸다) 그래가 다부(다시) 다시 지았어(지었어).

헐어뿌이까네, 없애뿌이까네 범어사가 망하더라.

[금정구 설화 38]

물이 마르지 않는 금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범어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금샘 이야기가 유명하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금샘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물이 마를 만하면 비가 와서 물이 찬다. 금샘은 그래서 마를 날이 없다.

옛날에 생겼는 거는, 바위가, 바위가 금샘이 되가 있거든. 그래 저 물이 마를만 하몬 또 비가 와서러 항거(가득) 차가 있고. 또 마를만 하몬, 또 물이 항거 차가 있고.

맨날 물은 항거 되가, 마를 여게가(틈이) 없는 기라.

그게 인자 전설 아이가.

[금정구 설화 39]

호식당한 아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아기 엄마가 불일 보러 간 사이에 자던 애기를 호랑이가 물고 가서 잡아먹어 버렸다.

저 한 이삼백 미터 가면 터가, 집터가 있는데.

고래 애기를 재워놔 놓고 저그 엄마가 잠깐 불일 보고 오니까네 마, 호랑이가 애기를 물고 가봤어. 물고 가 뜯어무가지고, 그라고부터는 거는(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살거든. 그 호석했다 (호석했다) 카대.

[금정구 설화 40]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지 묻자 외삼촌이 도깨비와 싸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외삼촌이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을 넘어 가는 중에 도깨비를 만났다. 사람들로 변신한 도깨비가 외삼촌을 발로 차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외삼촌은 언덕아래에 누워있고 그 옆에 비짜루가 있었다.

그래 외삼촌이 술을 좌시고 인자 잔치에 갔다가 오는데, 무엇이 자꾸 가자 카더라 카네. 그래 가이까네, 그래 산을, 산을 넘어 가더라 카네.

그래 따라가가지고 마, 또깨비 거기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마 언덕 밑에다 탁 찻뿌더라 카대.

차가 내리 꾸불러 내리가가지고 마,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깨보이까네, 옆에 빗자리가 하나 있고 자기가 그래 있더라 카대.

그래가 그 사람들 보고 거(거기) 가보자 카이까네 참말로 그렇더란다. 그래 혼났다 카대.

[금정구 설화 41]

논이 많았던 범어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범어사 관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구연해주었다.

줄거리 : 범어사가 가진 들이 워낙 많았다. 추수를 해서 쌀을 수레로 날랐는데, 소가 끄는 수레가 무척 많았다. 소가 수레를 끌다가 눈 똥이 너무 많아 소조차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때 뭐 뭐 범어사 뭐, 그래 마이, 증들 마이 있었고, 쌀도 여러 수 백 가마이, 수 천 가마이. 김해들 범어사 논이 김해들, 양산들, 여여여 동네들, 기장들, 다 거 범어사 논이 그래 많이 있었는갑데.

그라모, 그래가지고 인자 가을에 농사철 되가 농사지아가지고 신고 올라가몬, 얼마나 저 저기 그때는 차가 없고 구루마(일본어 <るま, 수레) 실었거든. 구루마 신고 올라가면, 마 앞에 차가 앞에 구루마 소가 똥을 누가지고, 뒤에 구루마는 못 올라갈 정도로 그래. 세로(세금율) 많이 봤다 카대.

(조사자 : 똥이 워낙 많이 싸여 있어가지고?) 그래, 그 자꾸 올라가면서 누가지고. 크다가 보이까네 인자 삼 고을 사 고을 저거 논이 다 있었거든. 범어사 논이 다 있었거든.

[금정구 설화 42]

계명봉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범어사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으로 구술해 주었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연에 임해주었다.

줄거리 : 범어사 앞 산에 닭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거기서 닭이 울어서 계명봉이라고 이름지어졌다.

범어사 앞에 저쪽, 저쪽 산이 계명봉이거든.

옛날에, 우리 백부님이 주지스님 되기 전에, 그 절에서러 중이 됐다 카대.

왜 저 그 계명봉이나 카모, 카노 카모, 우리 어릴 때 물이이까네, 거기서러 닭이 울더라 카대. 그 돌이 하나 닭같은 돌이 있는갑데. 거서 닭이 울어가 계명봉이라 카고, 그 절로 지었다 카대.

[금정구 설화 43]

모래를 파서 던지는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범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어서 호랑이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모래고개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모래를 발로 차고 던지고 하였다.

고 호랑이가 모래, 모래고개, 거는 호랑이가 나왔는데, 우리 우에 사람들끼징도 그래 아대, 알아.

거, 거마(거기만) 오면, 호랑이 나오더라 카대. (조사자 : 아 고 고개가?) 어, 고개가.

(조사자 : 거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모래로 가지고 발로 가지고 차가지고, 모래를 막 던지고 그러더라 카대. (조사자 : 아, 호랑이가?) 그렇지. (조사자 : 사람 지나가면?) 그래, 사람 지나가면 (조사자 : 모래를 막 던져가지고.) 던지고, 발로 파가지고 막 던지더라 카대.

글때 옛날에 누룩장사 마이 했거든, 산성에. 누룩장사 하러 갔다 오몬 그러더라 카대, 밤에. 그래 밤에. 그 저쪽에 서문 쪽에도 그라고.

[금정구 설화 44]

버들 유씨와 차씨가 동성동본인 이유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COJ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성동 중리마을 돌집식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차옥자, 여, 75세

구연상황 :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중에 제보자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갔는데, 범인이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다. 그때 경찰이 범인을 보고 “너의 성이 뭐냐?”고 묻자, 범인이 급히 생각나는 대로 ‘버들 유’씨라고 하였다. 이후부터 버들 유씨와 차씨는 동성동본이 되었다.

중국 황하강에 유역에 살았는갑대. 강 유역에. 살았는데 무슨 죄로 지았겠지.
그래가지고 인자 요새 치문 경찰이라. 그 잡으로 왔어.
잡으로 오니까네, 마 겁을 내가 막 도망쳐도 잡으러 오이까네, 퍼뜩(빨리) 버드나무 밑에,
버드나무에 올라가네. 그래 앉아가 이래 보고 있으이까네, 그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야, 이놈아, 너는 성이 뭐꼬?”
카더란다. 퍼뜩 생각난 기 마, 버들유씨라 캐뵈어.
그래가 버들 유가고 차가고. 버들 유씨하고 차씨하고 동성동본이다.

[금정구 설화 45]²¹⁾

산짐승 때문에 고생한 아주머니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1_PKS_LSW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상우, 남, 8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들과 도깨비 이야기를 하는 도중,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손석근의 아주머니는 소 수레에 나무를 싣고 팔러 다닌다. 어느 날 동래에 나무를 팔러 가는데, 소가 갑자기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대담하게도 소를 타이르며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가기를 부추겼다. 알고 보니 소 앞에 범처럼 생긴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 고생을 하였다.

그런데 손석근이 하고, 손석근이 아주머니하고 사는데, 그 나 아저씨는 부산 철도 공장에 일하러 다니고, 아주머니는 못 먹고 살아가 소 구루마(くるま, 수레), 소 구루마에다가 나무를 해가 싣고(싣고), 동래에 갖다 파는데, 동래 팔로 가는데,

그래, 이 아줌마가 일찍이 늙어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인자 가야되겠다 싶어가 소로 몰고 산 모퉁이라 일광에.

일광 산 모퉁이 이래 돌아나오니께로, 소가 안 가고 ‘쉬익’ 카민서, 소가 쉬익 돌아서는 기라. 밤은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대담시기(대담하게도),

“가자! 뭐고.”

카며, 아주머니가,

“머 있노?”

21) 현대 구전설화로 채록된 것임.

카민서 큰소리로 치고, 그래 인제 소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카민서 아주머니가 앞에 인자 끄고(끌고) 가이께로(가니까), 그래 그 납닥발이라 카까, 범맨 치로(범처럼) 생긴 저런거 있어요. 거기 모래를 덮어씌고 머로 하고 이라는 기라.

그래가, 그 아주머이가 고생을 하고 그래 당했다 카는 얘기로 들었어. 전에 여 우리 경로 당에 있다가 지금 일광 갔어. 일광경로당에 갔어.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27~172쪽.

2) 동래구 설화²²⁾

[동래구 설화 1]

내 방귀 고소하지요?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KC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를 부른 뒤 이야기가 생각났으며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면서 방귀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방귀를 끼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아주머니가 뒤따라 오고 있었다. 방귀를 끼고 무안해서 “내 방귀 고소하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아저씨 방귀 뉘았어요?”라고 반문했다.

방구를 통 끼놓고 뒤를 툇 돌아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따라오거든. ‘아따 참 잘 따라온다’ 싶어 하는 말이,

“꼬시지요?”

컨께는,

“아저씨 방구는 뉘았어요?”

22) 이하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63~410쪽.

컨께,
“안 뷔았거든.” [웃음]

[동래구 설화 2]

온천수에 치료가 된 학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MJW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사무실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문장원, 남, 9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본인의 체험담과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의 학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학이 다리를 다쳐서 동래 온천수에 다리를 담그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어 날라갔다.

우리 지금 뭐 온천장 카가저든. 그게 학이 에 모이고 그, 그 나머지 다리를 다치가(다쳐서) 여서(여기서) 온 동래 온천수를 가지고, 그 학이 아, 치료가 되자 자연지로 날라 갔다.

이런 설도 지금까지 요 동래 그 온천에 있는 이전 사람들이 아니고, 집안 토속이 아이고, 이전에 있던 그 전설 어데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인자 목욕탕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대부분 이 동네 고장에 와가지고 영업을 해가(하면서) 비로소 알았지.

[동래구 설화 3]

명륜동 관운묘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MJW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사무실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문장원, 남, 9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 지역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제보자는 옛 기억을 더듬어 구술했다.

줄거리 : 중국의 관운장을 모시는 묘가 명륜동에 있다. 어느 집안 사람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나 나쁜 징조가 있다고 했다. 이후 아이들이 병이 나면 잘 낫지 않는다고 했다. 관운장이 현몽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관운, 중국 관운장이라고, 그 소위 중국 장사 아닙니까.

이 중국 그 소위 장사가 있는 관운, 장비 카는 기 그때 그 소위 한 전설에 있는 건데, 그, 지금은 이 제사를 모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그 관운장의 그 위세가 대단해가 그 신위를 모시는 것이, 관운묘라 카는 기 여(여기) 우리 명륜동에 있어. 비석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왜 모셨는지 예, 모르지만은.

누 어는 집안사람이 밤에 꿈을 꾸이까네 관운장이라 카고 나타나가 이러킴 해서 그 딱 그 어던지 관운장에 대한 이력을 인자 조금 설명을 한 모양인데, 그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인자 그분이 나타나고 난 뒤에,

“아, 이기 병세가 나쁜 징조가 들어온다.”

고 하는 이야기가 되(되어서), 아들이 병이 나면 인자 잘 낫지도 안하고 이래가, 그래가 어 신을 인자 모시가지고 화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애릴(어릴) 때는 그런 기 있어가. 관운장 그 비석에 있는 거기, 어데가 있는지 지금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그때가 여 명륜동에서 그 저 제사를 지내고, 그 이러킴 해서 그 동에서 모아가 관운묘 카는 그 비석에 대한 인자 그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런 영험이 있더라 이기야.

중국 장사, 나는 그분에 대한 그런 현몽을 하는 바람에 그러킴 해서 제사를 지금까지도 아마 지내고 있지 싶습니다.

[동래구 설화 4]

상여소리의 풍속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MJW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사무실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문장원, 남, 9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상여소리>를 아는지 묻자, 노래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아서 부르지 못하고 대신 상여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상여를 매고 산으로 가는 중에 다리를 건널 때쯤 영혼이 가고 싶지 않아서 버틴다. 그럴 때 상주는 상여의 새끼줄에다 돈을 꿰고 행상을 매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

본대 여 저 행상이 나가면 행상소리에 그 하는 것도 인자 지방적으로 다 틀리오.

그런 걸 하는 것도 인자 그 슬픈 대목을 열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고, 어데 돌다리 같은 거를 지내갈 때, 그 못 지내가고 영혼이 그 안 갈라고 그래서 항상 버두고 있는 기라. 그래가

상재들이(상주들이) 돈을 인자 새끼에다가 꼽아주몬 그거가지고 그날 단가가 있어.

술과 안주를 장만해가, 또 행상이 매던 사람, 그런 사람 대접을 하고. 그래 그런인데, 지금 그런 거는 우리 대사면에 있어요.

[동래구 설화 5]

바보 아들의 첫날밤을 도와준 어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PM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말순, 여, 7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말을 듣는 중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앞 제보자의 구술이 끝나고 다음 이야기를 구술했다. 이야기를 구술하면서 제보자도 우스워서 몇 번이나 웃었다.

줄거리 : 옛날에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가게 되었다. 바보 아들은 첫날밤을 치르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 돌아왔다. 어머니는 바보 아들에게 첫날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 후 아들은 첫날밤을 잘 치렀다.

옛날에 그 할매가 아들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이 좀 바보여라.

바보라노이까네, 장개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 그래 장개를 가야 된다 이라이까네, 저 딱 들고 가디만은 장개 갔다 오디만 대개 마 갓을 빼딱하게 씨고 역수로 기분 나빠가 오는 기라.

“엄마, 엄마. 내가.”

“니가 우였더노?”

케이,

“엄마 암만 찾아도 그 고무가(구멍이) 없어 내가 못하고 왔다.”

이락거든.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이 가만 생각케이 기가 차는 기라. 자식도 손주도 못 보겠다 싶어가, 그걸 못 했다 케이까네.

재인캉(장인과) 간다 카는 걸 삼 일을 간다 카는데, 처갓집을 갔는데, 엄마가 인자 하는 말로,
“야야, 배꼽에서 한 뺨 반만 내리가봐라, 거 고무가 있다.”

이락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재인캉 갔거든. 가가지고 한 삼일만 오는데, 갓을 옛날 갓을 씨고 안 댕갔나, 갓을 씨고 두루마기 빼딱하이 혈레벌레 기분이 참 좋아가 오더란다. 오디만은,

“야야, 우예 댕노?”

케이,

“엄마, 엄마. 엄마, 니 십하는데 참 도사더라.”
이라더란다. 그, 그런 얘기다. [웃음]

[동래구 설화 6]

떼를 지어 넘었던 만덕고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PM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명철, 남, 76세

구연상황 :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해달라고 하자 다 아는 이야기라면서 멧쩍은 듯이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 옛날에 동래 사람들이 구포에 가거나 구포 사람들이 동래에 가려면 만덕고개를 넘어서 가야 했다. 그런데 만덕고개에는 산적들이 나타나서 한 둘은 가지 못하고 떼를 지어 가야 했다. 해가 지면 그곳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만덕고개 넘어가는, 옛날에 이 지금 터널이 있는 데가 아니고, 산 우에 글로(그곳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었거든. 그리 질이 험했다고.

그때는 구포장에 가몬, 동래 사람들 구포장에 가든지, 구포 사람들이 동래로 오든지 하몬 그 고갯 넘어 가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몬 강도가 나와 사서, 산적들이 나온다 말이야, 산적들이.

그래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런 인자 똑 사람들이 있, 있다가 한 여남이 모이갓고 한 떼를 지아가 간다고 넘어간다고. 장 보러 갈 때는. 그라고 해가 넘어가몬 또 많이 해도 잘, 잘 사람들이 안 댕기 그 시간에는. 그런 거는 있었지.

그런 거는 애릴 때 그런 이야기를 늘 해삿거든.

[동래구 설화 7]

도깨비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PM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 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박명철, 남, 76세

구연상황: 제보자가 이사를 가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도깨비불을 본 체험을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옛날 영천군 고경면이라는 마을에 이사를 가는데, 구루마에 짐을 싣고 40리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날씨도 흐렸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도깨비불이 가까이 지나갔다. 가까이 다가서면 그 불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멀리 떨어지면 보였다.

밤에 영천 거기서 40리를 안강이라 카는 거 못 가는데, 고경면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

거까지 그 속가를 갔는데, 그래 인자 가이께네 그 가이께네 저녁에 가는데, 거서 기차 내리갔고, 아버지하고 인자 엄마하고 인자, 막 이래 요새는 이사를 가면 트럭에 가지만, 옛날에는 말구르마 타몬 그게 큰 이삿짐이야.

말구르마 인자, 우리 이삿짐을 전부 싣고 인자 나는 그때 인자 국민학교 일제시대이께네, 국민학교 3학년인데, 인자 이래 나는 걸어갔고, 우리 누나는 내보다도 두 살이 많은데, 인자 못 걸어, 40리 머이(머니) 대이께네 여자들은 아무래도 약하잖아. 그래 걸어갔거든. 그래 걸어가고, 나는 걸어가고 누나는 업히 갔는데.

그래 머 밤에 가이께네 날이 좀 꾸름하고 밤이 어둡운데, 불이 마 번쩍번쩍 하는 기 토깨비불이. 허깨비불이 여기 있다가 거랑을, 거랑 이래 큰 거랑 거 있는데, 우리 애릴 때 해수욕도 마이 하고 했는데, 거기 글로 가이께네 불이 이래 불이 사르르르 왔다가 허깨비불 바로 잘에, 그래서 내가 겁을 내가 아버지 보고,

“아이고, 토깨비임더. 허째비입니다.”

카이께네, 그래 그 아버지가, 그래 한 분 그 카면서,

“겁을 내지 마라.”

카매 내 간을 키울라고. 그래갖고 내 간을 키울라고.

“저 가보자.”

스스로 가면서 그라고 가이께네, 참말로 거랑에 이 잘에 가이께네 없어졌부리. 그게 우습더라고.

먼데서 보몬 불이, 허깨비 불이 확 하고 또 뭐 장난치는 것맥구로(것처럼) 하나 둘이 아니고, 짹르르르- 갔다가 짹르르르 왔다고 이런다고.

그러고 오는데, 잘에 가이께네 또 불이 없어지고, 또 우리 오면 이쪽 오가, 먼데서 보몬 불이 오는 기라.

인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기 인자, 인자 내가 시비를, 참말로 허깨비다 그런 허깨비를 받 걸로 생각했지 애릴 때는. 그래 받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 그거는 인자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기 인자 비가 오고 습기가 있으이께네, 지름기가 사람 지름기라 카는데, 옛날에 참 공기가 좋으놓이께 기름기가 뭐 이리 흘러가몬 거기 비만 오몬 날이 오몬, 그랑 있는데 그 흘러가이께네. 먼데서 보몬 빛이가 불이 번쩍번쩍 하는 기라.

요새 맵크로 톡 저 여 뭐 환해 마. 낮맨쿠로(낮처럼) 환해짚다가 어둑지 이란다 마. 도깨비를. 싸- 가고 이란다. 도깨비불은 그걸 나는 직접 바로 짚에(근처에서) 가서 봤다고. 그래, 그래서 허깨비 그거를, 도깨비 그때 나는 애릴 때는 늘 도깨비가 있다.

[동래구 설화 8]

정과정곡(鄭瓜亭曲)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PH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향교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정다혜, 최수정

제보자 : 박희찬, 남, 66세

구연상황 : 옛날 이야기를 들려 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의해 제보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줄거리 :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정쟁에 휘말려 유배를 갔다. 의종이 얼마 후에 자신을 불러주기로 했으나, 무신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정서는 도저히 풀려날 방법이 없자 정과정곡을 지었다.

정종 때, 고려 의종 때 인제 그, 고려 의종 때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고려 의종하고는 처남 남매간이던가? 하여튼 인척간이, 고려 의종, 의종하고는. (청중 : 동서간이지.) 동서간인가?

하여튼 근데 그 정쟁에 휩쓸려가지고 고향으로 유배를 오게 된다고요. 그러이 고려 의종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불러 드리게.”

불러 드리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무신난이 일어나가지고 의종이 거제도도 유배를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서가 인자 풀려날 길이 없는 거지. 그때 나온 음악이 정과정곡이거든요. 정과정곡인데, 그 정과정곡이 충신연군의 곡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선시대도 이제 궁중에서도 연주될 정도로 오랫동안 그게 전해져 오고 있고. (조사자 : 그러니까 정과정곡을 지은 사람 이름이?) 정서.

[동래구 설화 9]

동래 정씨 시조의 무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PH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향교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정다혜, 최수정

제보자 : 박희찬, 남, 66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동래 정씨의 무덤에 관한 질문을 하니, 잘 아는 것이라며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줄거리 : 옛날에 호장 벼슬을 했던 정씨가 죽어서, 자식들이 시신을 묻을 곳을 찾고 있었다. 도깨비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한 장소라고 한 곳에 아버지의 관을 묻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관이 밖으로 올라와 있었다. 연거푸 이런 일이 계속되자 지켜봤더니, 도깨비들이 밤마다 이곳을 귀한 사람이 묻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없다며 밖으로 내민 것이었다. 그래서 관에다 금빛이 나는 보리짚으로 관을 덮어서 묻으니 관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동래 정씨의 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길지라고 한다.

동래 정씨 시조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동래 정씨 그 시조 전설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니까. (조사자 : 아니 모릅니다.)

동래 정씨가 원래는 호장이었는데, 호장이었는데 어느 날 거 무덤, 아버지 묻을 곳이 없어서, 호장이라고 그러면 요즘 같은 지방 서리 정도, 지방에 하급관리, 하급관리 정도였어.

근데 그 도깨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구. 묻을 곳이 없어서 그 도깨비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깐, '이곳이 아주 귀한 장소다. 여기에 맘대로 함부로 묻혀서 안 되는 곳이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묻었어요.

묻었는데, 다음날 가서 인제 그 저 제사를 올릴려고 가니까, 관이 올라와 있는 거라. 관이 올라와 있어. 관이 올라와 있어 또 묻었는데 또 올라오는 기라.

그래, '도대체 밤 누가 그래 놓노?' 싶어서 보니까, 역시 도깨비들이 이곳은 말이지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 묻힐 장소인데 이런 사람이 묻혀선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금은 없고 해서, 보리짚, 그 보리짚 그걸 가지고 관을 이렇게 금칠하듯이 해서 다시 묻었더니만, 도깨비들이 다시 그 관을 들어 내지 않았다.

그 뒤로 인제 그 영향 때문인지, 하이튼 그 동래 정씨 묘, 그 지금 우리가 부를 때 정묘라 그러는데, 정씨의 묘가 우리나라 최대의 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래 정씨가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동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데, 근데 전국에 어떤 성씨보다도 제일 정승을 많이 배출한 성씨입니다.

[동래구 설화 10]

동래 송공단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BT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곳 동래에서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송공단이 동래기생들이 전쟁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송공단(宋公壇)은 임진왜란 당시 순절했던 동래부사 송상헌을 비롯한 군·관·민의 선열을 추모하기 위한 제단이다.

줄거리 : 옛날에 동래성에서 전쟁이 났을 때 동래기생들이 처마에 돌을 싸서 갖다 주면서 협력을 했다. 그 결과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송공단은 동래기생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동래성이, 여기 칠산동에는 성이, 남북 사개를 성이 있다 아이가 여계 지금. 있는데, 여 대포산에 저거 지금 성을 싸놓은 여서러 옛날에 전쟁 할 직에, 여 저 동래시장에 송공당이 있어.

그거는 왜 있나. 옛날에 동래성에 저 동래전쟁 할 직에, 그 저거 성에서러 참 옛날 기생들, 참 그 요새 뭐 여 가정부인카마도 더 기생이라 캐도 참 멋지게 참 살았는 기생들인데, 그거는 공부한 기생들, 배운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처매에다가 돌로 싸가지고 전쟁 치는데 거 같이 싸움을 해줬고. (조사자 : 기생들이요?) 기생들이 전부 물로 끼래다가 퍼붓고 이래 쥐가지고, 그 동래전쟁할 적에 이래 우리가 이겼다 아이가.

그랬기 때문에 이 송공당이 저 서가 있는 이유가 글때 기생들 전부 나서가 전쟁을 쳤다고, 저 송공당이 그래 저 송공당이 서 있어.

동래전쟁 때 참 기생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 참 전쟁을 같이 쳐줬기 때문에 이 글때는 전쟁을, 동래전쟁을 쳤다고 해서.

[동래구 설화 11]

학이 놀았던 학소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BT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학소대에 대해서 아는지 물었더니,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지금은 법륜사라는 절이 서 있지만, 그 자리는 예전에는 산봉우리여서 엄청나게 학이 많이 놀고 갔던

자리여서, 그곳을 학소대라고 불렀다.

학소대. (조사자 : 학소대?) 지금은 절, 절이 있지.

동래 포구당 절이라고, 법륵사라고 이름이 바뀌어가, 법륵사가 되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 자리가 뭐고 카몬 동래 학이 노던 자리라 거가(그곳이).

(조사자 : 학이 나왔던 자리?) 학이 노던 자리. (조사자 : 그 자리가.)

그 마 학은 없고 마, 법륵사 절이 지금 서가 있어서 그렇지, 거가 지금 봉우리가 되가, 이 산봉우리 곁이 고래가 이리 있었는데, 그건 마 학이 얼마나 참, 남쪽 하늘 아래 학이라 카는 거는 거가 다 날라 와가 놀다가 가는 곳이라. 그게 학소대라.

[동래구 설화 12]

시어머니의 노래를 따라 한 며느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BT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구연하던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시어머니가 손주를 어르면서 하는 노래를 듣고, 며느리가 똑같이 따라 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노래는 할머니가 되어서나 하는 소리라고 했다.

저 시어머니시가 아들로, 열라(아기) 손지를 보고 어루며, 그래 할매가 안고 그래 어라싸니 카네, 그것도 메느리가 듣고 아무나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마, 저거 아를 안고,

똥도똥도 유간타

보지똥도 유간타

열매도열매도 유간타

[웃으며] 자지열매도 유간타

하고, 그래 저 어라싸이카네, 시어마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들야, 야들야. 그거는 너그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난죽에 저거 그 자석들 키아가 손지 보고도 안고 그래 그래 저 어라라”

[웃으며] 카더란다.

[동래구 설화 13]

우애를 지켜 부자 된 형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BT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노래를 부른 뒤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편이어서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였다.

줄거리 : 가난한 두 형제가 머슴 일을 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나왔다. 발이 닿는 대로 가다가 어떤 부잣집에 다시 머슴으로 들어갔다. 힘든 일을 맡아서 함께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훔쳐지고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다. 산을 넘어가던 중에 서로 욕심이 생기자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질 것 같아 금덩어리를 산 속에 버려두었다. 그러자 벼락이 치면서 금덩어리가 두 쪽이 나게 되었다. 서로 한 개씩 가지고 가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시골에 아주 아주 돈 살아서, 형제가 천날만날 머슴으로 살아가 일 년 넘게 세경을 돌이 꺼도(것으로), 그때는 일 년 살고 나면, 나락으로 세 가마니씩 이래 주면, 그래 그거로 가 집에 식구들 묵고 사라고 주고.

또 저거는 인자 머슴살이를 하이 도저히 암만 해도 몇 년을 살아봐도 안 되가, 둘이 형제가 마 보따리를 싸가 둘이 마 집에 식구들은 어예 죽든가 사든가 내빼리 놔두고, 마 걸음은 참 걸음 가는대로꿈 걸어가도 해가 빠져가지고 가만 보이까네, 불이 환하이 서 있는 참 큰 부잣집 앞에 가가 닿았어.

그래가 부잣집에는 옛날에는 아무나 오몬 다 재(재워) 줬거든. 그 사랑방 드가가 한 적 꾸지게(한 쪽 구석에) 놓어 잘 때가 없어가지고, 똥새가(어찌 무엇해서) 근근히 인제 찡개가지고 하릿밤을 자고. 그래 그 머슴들인테 이야기를 해가.

“우리가 도저히 갈 데도 올 데고 없어가지고 이 머슴살이로 하다가 안 되가 이래 나왔어, 우리 둘이로 머슴을 사도록 해들라고. 여기 촌카마는 좀 나오이카네.”

그래 그 인자 그 집에 머슴살이를 여러 수백 석을 하이, 머슴이 마 한 이십 명씩 되거든.

그래가 거서러 하는데, 근데 무슨 일을 시켰노 카모 그 둘이를 아주 험한 일을 시켰어. 저 고방 저거 아주 몇 십년 가도록 구지게 난 청, 손 안대는 고방으로., 그 안에 드가가 청소를 하라고 시키노이까네, 둘이 형제가 그 안에 그거 고방 안에 저 짚은(깊은) 뚝 굴 안에 마, 땃 백 섬이 드가는 저 고방이라 노이까네, 둘이 형제가 거 가가 청소를 하다가이, 뉘가 구직에(구석에) 마, 머릿방석이만한 이런 게 누런 게 하나 구지게서 있거든.

(청중 : 금덩저리다.) 그래가 그거로 보고 깜짝 놀래가, 두 형제가 가가 그거로 만쳐보이까네,

뭐가 누러이 번들번들하이 금뎡어리거던 그계.

그래서 그거로 두 형제가 인자 마캐(모두) 고방청소를 다 해놓고, 그거를 저거 보따리 붓짐 에다 그거로 인자 싸가지고 짚어지고 마 그 이튿날에 마 새벽에 마 질로 나섰어.

‘이게 이것도 우리 복이인까네, 우리 눈에 띄지(띄었지).’ 그래 두 형제가 인자 형이 짚어지고 앞에 서가, 옛날에는 길도 없고 산중으로 산으로 산으로 인자 넘어오는데, 한참 중턱에 올라 가다가 형이 그거 금뎡어리로 지고 가는 거기 동생이 따라가다가 보이 욕심이 나는 기라. ‘저 형이 저거를 지고 혼자 마 하몬 우짜꼬?’ 싶어가지고. 그래가 형이 있는데,

“형님, 형님. 그 짐으로 날로 좀 지케 달라고. 내가 좀 지고 가겠다고.”

그래 동생이 받아 짚어지고 앞에 서고 형은 뒤따라 가보이, 또 형님 욕심에 저거 안 되겠다 싶으거든.

저거 저래가 지 짚어지고 가고 지 발견했다고, 지 다 하는가 싶어가지고., 가만 형이,

“앉아가 쉬가 가자.”

이카매 인자 참 산둑 하도 중간에 이래 가서 둘이 앉아가 가만 형님이 생각허이까네, 이래 가지고 참 없이 사던 형제 우애만 있어가도 살았는데, 이 우애조차랑 없겠다 싶어가주, 그거로 마 보따리로 풀어가지고 형이 마,

“이거 우리가 가질 그계 우리 기 아이이까네 버리고 가자.”

그걸 꼴짝에다가 갖다가 집어 떤지이까네, 하늘에서 마마 막 각중예(갑자기) 막 노성을(뇌 성을) 치디 벼락이 가가 거 가가 딱 쳐가지고, (청중 : 갈라지던가베.) 그 벼락이 맞은 데 두 형제가 살살 내려가 봤어, 그거 골에. 내려가 보이까네, 고계 똑 같이 두 날이 딱 갈라 저가 있더라. 금뎡어리가 이만한 것이.

그래가지고 그 참 금뎡거리를 두 형제가 하나씩 갈라 짚어지고 와보이 마 아무 마음도 안 드거든. 형도 이거 뿌듯하고, 동생도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고. 그래 돌아가지고 그래 마마 논사고 밭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식구들 다 맥여 살리고 부자가 되가 사더라.

[동래구 설화 14]

초상 후 삼 일만에 묘를 찾는 이유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YJ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양재철, 남, 7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한 후에 연이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사람이 죽고 나서 삼 일만에 묘를 찾아가ندا. 묘에 묻힌 사람이 혹시 죽지 않았으면 묘가 벌어진다.

초상이 나면 삼 일만에 일부러 묘를 찾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삼 일만에 한 분씩 묘예를, 묘예를 간다는 것이, 옛날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그 무엇니까? 뭐 묘가 이리 벌어진답니다. 묘가 벌어져 살몬. 땅 속에 들어있는 묘가 삼 일만에 꼭 저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사는 사람 같으면 묘가 벌어져 부린 거라 이기(이것이). 묘가 짝 벌어져부린 거라.

그러면 뜯어서 보몬 살아있어. 사람이. 그 저 뭐야, 그럼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걸고 지금 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야. 삼 일만에는 꼭 한 번씩 초상 치고 묘예를 가고 한 것이 다 그게 나온다.

[동래구 설화 15]

귀신에게 흘려 죽은 함지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UT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엄태호, 남,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양재철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아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결혼식 할 때마다 함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함지기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나중에 바위 밑에서 찾았는데, 함에서 나온 헛것인지 여자 귀신인지에 흘렸는지 멍하게 있었다.

그 사람은 바보처럼 몇 년쯤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우리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에 안자 그 사람이 함만 저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함이라고 인자, 그 인자 장개 가면은 함을 짊어지고 따라가고 안 그래왔는가베. 인자 함을 신랑 따라서 인자 신부집으로 인자 함을 짊어지고 갔는데, 갖다 주고 또 도로 돌아온다 아이가. 함을 짊어지고 또 온다 말이야.

함에서 헛것이 나가지고. (조사자 : 네?) 함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아이, 이 사람이 동네 안 들고오 마 행방불명 되뻤는 기라.

이기 진실인 기라 요기. 해물며(하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 나섰네. 아니 찾을 길이 없어.

그래 인자 누가 저 바우돌 밑에 가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바우돌 밑에서 말이지 마, 발그레 마, 마 마당을 닦아놓고 말이야, 가시나 하고 놀아 났는 기라, 거서 인자 바우돌에서.

그 귀신이 가시나라. 그래가지고 이기 사람이 말이지 마 반푸이(바보처럼) 하고 그래. 그래

가지고서러 반푸이 하다가 몇 년 살다가 이 사람이 죽어뵈는 기라. (조사자 : 아. 그렇습니까?) 어.

[동래구 설화 16]

저승 갔다 온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UT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엄태호, 남,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함에서 나온 귀신에게 흘린 이야기를 구술한 뒤, 이어서 저승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옛날에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아직 올 때가 아니라면서 다시 이승으로 보냈다. 그 사람은 노란 강아지를 따라 강을 건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니 이승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미 염까지 마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니 모두 그 사람을 꺼리게 되었다. 그 사람은 결국 삼 년 뒤에 죽고 말았다.

옛날에 A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는데 저승에 가니까, 그 저승 왕이,

“너는 여 올 시간이 안 됐다. 도로 가거라.”

그랬는 기라. 그래 인자 간다고 갔는데,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주면서,

“이 강아지를 따라 가거라.”

하는 기라.

그래 강아지는, 재래 땅으로 강이 요 새가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야 자기 인자 깨어나는 기라 인자. 아이 노란 강아지 그거는 저래 땅으로 걸치 노니까, 노른 강아지 그거는 건네갔는데, 자기가 건너가니까 탁 뿌러졌부는 기라. 탁 뿌러지니까 이승인 기라. [웃음]

그래가지고 몸을 움직여 보니까 전부 다 막 묶어났는 기라. 그래가지고서는 수물이 마 상주들이 몸을 막 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살다가 한 삼 년 뒤니까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동래구 설화 17]

화장실에서 책을 보는 복 없는 며느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YN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유남순, 여, 7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처음에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별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재미나게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화장실에서 책을 가지고 볼일을 보면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다. 옛날에 한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보았는데, 얼굴이 복이 많게 생겼다. 그런데 부잣집 살림이 자꾸 없어졌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며느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책을 들고 가서 앉아서 볼일을 보았다.

아주 옛날에 그 부잣집인데, 메느리를 봤는데, 한 동네에서 봤다 카는 그것은 모르고. 거 메느리를 봤는데, 살림이 자꾸 없어지더라. 살림, 메느리를 봐노니께로 부잣집에서 메느리를 봐노이.

그래가지고 ‘이 메느리가 복시럽게 생겼는데 어찌 메느리보고 이리 살림이 없어지는고?’ 싶어가지고 메느리 뒤를 살피보이께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택을(책을?) 이래 가가지고 보더라 카네.

(청중 : 그게 안 좋은갑다 그자?) 그래 택을 이래. 옛날에는 재래식 아이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살피도 복 없는 데가 없어.

복 없는 데가 없는데, 왜 그런고 싶어가지고 뒤를 따라가 살피보이께로 화장실에 가서 택을 곱고 그래 볼일 보더라 카네.

그러노이까네 살림이 자꾸 간다 카더라. 그래 알아냈다 카대.

[동래구 설화 18]

개로 환생한 어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LB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이분남,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다음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줄거리 : 옛날에 시집간 가난한 딸을 위해, 어머니가 아들 모르게 자신의 집 식량으로 딸을 도와주었다. 어머니는 업으로 아들집 개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들의 꿈에 나타나서 절에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 절에 가서 업을 소멸시킨 뒤에 49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였다.

옛날에 그거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큰 부자로 살았는데, 거 살았는데, 딸을 치워 놓으니,

딸이 못살았어. 시집보내니 못 살고

엄마가 되어가지고, 집에는 곡식이 천진데(많은데), 부자라 노이 큰 집이라. 집이 확 이리 자지리 나오는데.

큰 부잔데 엄마가 되가 딸이 못 사이, 나는 살림 많고 이러이 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날 거 아이오, 그래. 안 그러요? 부모는 다 그런 거라. 글치요?

이래가지고 아들, 메늘(며느리) 모르게 가마이(몰래) 딸로 자꾸 식량을 대쫘는 기라. 대주이 깨네, 그걸 먹고 나이 업이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자식의 자식 가마이 준 것 업이랴요.

말로 하고, 아사리 하고 좀 주자 이래 줘야 하는데, 가마이(몰래) 모르게, 가마이 한 그거는 도둑질이라, 말하자문.

그래가지고, 인자, 거 인자 나이 많은 할매가 죽는데, 이 애주가 원을 했어.

이 집의 아들 있는데 도둑질을 해가 줘요이, ‘딸로 쫘으니, 내가 어예던동(어쨌든) 이 업을 소멸해야 될긴데’ 이래 생각했거든요.

생각하거나, 그래, 생각 업을 내 업을 소멸해야 될긴데, 업을 소멸해야 될긴데 걱정하고선 죽어가 개가(개로) 태어났어요.

개가 태어나 어이(어떻게) 됐노 카문, 그 집 집을 지켜 줄라꼬. 집을 지키조야 그 인자, 도둑을 지키조야, 도둑을 지키조야 업이 소멸이 되거든요. 소멸되이께네, 그래 지켜주고 올라 해요.

그래, 춤어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춤어가 도저히 못 자겠어. 그래 아들 꿈에,

“아이 야야, 내가 춤어 못 잤다. 나 집 가지고 집 하나 지이도가(지어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니 아들이다.”

이상하다 싶어 이상하다 싶어가 그 이튿날 또 그래는 기라. 삼일만에.

“인제 도저히 춤어가 안 되겠다. 집좀 하나 지이도가(지어줘).”

이랬다. 그래 참 집을 지어주고, 집을 집까지, 촌에 집 짓거든 개로. 집을 지어가 그래놓고 하낵이께네, 그래, 그 이튿날 꿈에는,

“아이구 야야, 내가 밤에 뜨시게 참 잘 잤다.”

이래이께네, 그래 또 뭐라 카나, 그다 몇 일 있다가는 또 인제,

“아이고 야야, 내가 여 밥을 해주는데, 겨울에는 찹어(차가워) 못 먹고, 여름에는 쉬가(쉬어서) 못 무웁다. 너 먹는 대로 좀 주라 캐라. 정지 부역에 가여.”

이래이께네, 이상하다 싶어. 또 그날 말 안 들어 조가 그 이튿날 또 그랬는 기라. 또 그래가, 마누래보고 그랬어

“내가 부역에 춤어가 드가이께네(들어가니까), 부지께이로 때리제. 부역에 춤어 드가지도 문 하고, 밥도 뜨신 거 문 먹고 춤어 도저히 못 베길다.”

이래이께네, 마누래보고 그래이께네,

“별기 있나 보지. 별것을 다 한다. 안에 부역에 가서 다 한다.”

또 소리 지르거든, 마누래보고. 이게, 신랑보고 마누래 소리지르이께네, 또 말을 모했다(못했다). 그 이튿날 또 엄마가,

“아이고, 야야. 니 마누래보고, 메늘보고 살살 타일러가, 달개가지고, 날 좀 뜨시게 하라 캐라.”

이래이께네, 그래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 마누래보고. 사실 이렇다 이렇다 카이께, 그래 참 개로, 식구매로 시어마이매치로(시어머니처럼) 봉양했는 기라. 순했는 기라. 그래 하고 나이,

“그래, 아이구 야, 인자 내가 뜨시게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뜨시게 잘 자고 좋다.”

이러거든. 열매나 있다가 어예 되노 카만, 열매 있다,

“내가 야 소원이 하나 있다.”

이러거든.

“뭘데요?”

그때는 개로 엄마이께로, 엄마로 대답하는 기라.

“뭘데요?”

카이,

“합천 해인사 거 가가지고 절 한 칸매도 나를 구경시키주모 좋을다.”

이러더라네. 그래 이상하다, 개를 절에 들어가몬, 옛날에는 개를 절에 안 데리고 갔거든요.

“개를 절에 데리고 가몬 안 되는데, 안 될킨데.”

하몬,

“안 되나?”

카매, 또 이튿날 또 그러거든.

“함 날 태워가 가자.”

이러더라. 그래 할 수 없어가 차에 태워가 갔어요. 가이께네, 시님이(스님이) 보기에 얘기하이 막 뭐라 하거든.

“절에 무슨 개를 들어오노.”

꼬 하고 막 뭐라 하거든. 그래, 아들 가만 생각커이 ‘엄마가 원했는데, 자꾸 그래, 가만히 생각해 줄라고’. 그래, 시님보고 사실대로 얘길 했어.

“요 스님, 고거는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개로 태어나가지고, 인제 여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원인데, 그래 지보고(저보고) 올라가이, 원을 좀 들어도(들어달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카이께네, 모시고 왔다 카이,

“그럼 할 수 없지.”

카고 인자, 놔 놓는 기라. 구경 다 하고 나와 차를 태가 와가지고는,

“인제는 아이구, 내가 인제는 소원 다 들었다. 소원 다 들었이이, 니도 내 소원 다 했이이, 내 원, 원대로 다 해도고(해 다오) 인자.”

이카자,

“뭘데요?”

카이께네,
“인제 내 업도 소멸되고.”
이래께,
“뭘데?”
카이,
“내 한복을, 깨끗하게 한복을 한 벌 해도가. 그래가 사십구제를 해도가.”
이러거든. 사십구제, 한복을 한 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해주고, 사십구제를. 그래 사십구제를 하고, 한복을 한 벌 해가지고 내놓이 깨끗하이 입고, 이것을 아들한테 춤을 너불너불 추더래요.
“내가 인제 소원 다 듣고, 인제 내 극락으로 간다. 극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노 카몬 난 부처님 앞에 간다. 부처님 앞에 가몬 말씀 다 드린다.”
부처님 안 개고. (청중 : 맞습니다.)
그래그래, 이래이래 그레이께네, 그래그래 가지고 끝났지 뭐.

[동래구 설화 19]

짚신 삼는 법은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JD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줄거리 : 옛날에 부자지간에 신발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 신발은 잘 팔리지만, 아들 신발은 잘 팔리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삼아야 잘 팔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저가베도(자기 아버지도) 신을 삼고, 아들도 신을 삼아 팔았는데, 파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신은 우찌 삼아서 그래 잘 나가는데, 내는 신을 잘 못 삼는가 안 나가는데, 께차 주소(가르쳐 주소).”

컨께네,

“내 죽을 때 께차 줄거라.”

그래가지고, (청중 : 그래 그 자식도 그렇다 말이다.) 부무도. 세상에 그 개차 주문 저 자석도 잘 풀고 할킨데, 그래 양심을 씨이 되겠나? 틀구로 매(꼼꼼하게) 뜯어라 카더란다. 그러면 굶아진다고.

[동래구 설화 20]

빛자루로 변한 도깨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J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정재복,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에 도깨비를 봤던 이야기가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옛날에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밤에 산으로 오는데 도깨비가 나타나 심하게 싸웠다. 도깨비를 나무에다 묶어놓았는데, 다음 날 가보니 빛자루가 묶여져 있었다.

그래 우리 동네 저게 시골짜기 살았는데, 저 둘이라고 내하고 동갑인데, 친구가 있어. 근데 저거 아버지가 인자 두루막을 입고 어디 갔다 왔어. 초상인가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오는데, 밤에 오는데, 그 산으로 이렇게 돌려 오는데, 뿔이 마 커다란 게 나타나가 파꾸 커지더란다 이렇게. 커지는데 그거 하고 싸웠어. 막 격투를 하고 싸우다가 인자 결국은 인자 영감쟁이가 이겼어.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무에다 이래 묶어뿔대. 나무에다가, 딱 세워놓고 인자 묶어뿔고. 그 이튿날 아침에 깨갓고 가니까 빛자루더란다 그계.

[동래구 설화 21]

영똥하게 알려준 염불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이야기를 한 번 하겠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어느 시골에 아들이 죽고 고부간에 일만 하면서 살고 있었다. 절에 갔다 온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만 계속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염불을 잊어버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염불을 했는지 묻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알미워서 “뿔집의 김서방.”이라고 영똥하게 가르쳐 주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염불을 했다.

어는 시골에, 노 할머니가 아들을 앞세았뽀는 기라(먼저 죽어버렸다). 아들로 앞세아뿌고 나이, 이 두 고부질에만 마, 죽어라 사나 일로 하여 생활이 돼.

죽어라 서나 고부질로 일로 하는데, 이 노 할머니가,

“다른 사람도 절에 가는데, 야야 나도 뒷 절에 한 분 가보고 올란다.”

카이,

“갔다 오이소.”

카거든. “그래 스님한테, 뭐라하몬 내가 사다가 사다가 인자, 염라대왕 좋은 곳으로 가겠습 니꺼?”

스님한테 이러카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거 부르라.”

카는 기라. 꼭 관세보살 찾으라 카는 기라. 일로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카는데, 이 할머니가 잇아뽀어 고마. 관세보살을 잇아뽀어. 그래, 미느리한테 물으니까네,

“야야, 내가 머라 카더노?”

머느리는 인자 신경질이 나는 기라. 일로 하다가 관세보살 한다고 일로 자꾸 못하는 기라 고마. 그래 노이,

“야야, 내가 머라 카더노?”

카이,

“뒷집의 김서방, 뒷집의 김서방, 이래 캡디더.”

카거든. 그래서 이 할매가 들었다 봤다고,

“뒷집의 김서방. 뒷집의 김서방, 김서방.”

그 한 가지만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만, 절로 가나 교회로 가나, 좋은 혜택을 받아요.

[동래구 설화 22]

독사지옥에 갈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O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죄를 지은 사람이 절에 가서 스님께 훗날 어디서 다시 만날지를 물었다. 그 스님이 독사지옥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독사지옥에 간다는

말이었다.

죄 많은 사람이, 저 절에 큰스님한테 가서, 그래, 스님 마, 성철스님이라 카자.
“성철스님. 어째가 또 스님을 다시 만나겠습니까?”

이러카거든.

“아, 독새지옥(독사지옥) 가몬 니를 만나지, 거 안 가몬 못 만난다”

이래 카이, ‘저 큰스님이 독새지옥을 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근데 지 말이라 하도 나쁜 짓을 해싸이카네, 독새지옥 같 사람이라 거는. 그래 이 사람이
인자,

“스님, 어데 가서 스님 만나겠습니까?”

하이께는, 지 말 행 거로,

“독새지옥 가몬 니를 만나리라.”

[동래구 설화 23]

며느리의 방귀 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O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들과 이야기 하는 도중,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는지 방귀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며느리가 방귀를 참아서 얼굴이 노랗게 되었다.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시아버지가 방구를 꺼도 된다고 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기등을 잡으라고 하고 방귀를 끼니 집이 비스듬히 넘어갔다.

방귀를 참아놓으이께네, 철새에 노랑병이 드는 기라. 노랑병이 노란이 드는 기라.

시아바이가 어떻게 보이

“야야 야야, 니 얼굴이 와 그래 노랗노?”

카이,

“방구를 몬 끼서 그렇다.”

카는 기라. 방구를 못껴서.

“야야, 그래모 안 된다. 방구 끼라. 니 얼굴이 안 되겠다.”

카이,

“아버님, 지동만(기동만) 잡으시오.”

카는 기라. 지동 안 잡으면, 며느리 방구에 집이 넘어가는 기라 고마. 그래,

“아부님, 지동만 잡으이소.”

카이 참 집이 빼뜻하도록 방구를 끼뿌더란다.

[동래구 설화 24]

빛자루로 변한 도깨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O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깨비 이야기가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며 다음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줄 거 리 : 옛날에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더운 여름밤에 녹두를 따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구운 콩을 주워 먹는 사람이 있었다. 도깨비라고 생각하며 칼로 찼다. 다음 날 가보니 빛자루였다.

할무니가, 옛날에 덩거든. 이것은 실린데(실제인데), 우리는 벌어 살았어. 저 밤 많은데.

이 할매가 워터키 벌어가(별명이) 순사라, 이순사라. 어디키 무서웠는지, 그래노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순사라고 하는 기라. 아이들이.

이순사 이순사. 이순사 밭에 다래를 한 분 따먹을라 카몬 ‘이순사 밭이다’ 카매 다래로 못 따먹는 기라.

우리 할무이가 워띠이 무서웠는지. 녹디를 따몬 덩거든. 덩어놓으이끼네 인자, 달빛에 가 까마히 따는 기라. 달만 뜨몬 인자 나가서 녹두를 따.

그래, 혼자자 실컨 따고 오이, 쪼개 설라 카이 여시가 한 마리 오는 기라. 오가지고 그 문 올로와서 알긋더라 카네.

“에 요놈!”

카면서 영강 무섭아놓이(무서워서) 가마로 후쳤뻐는 거라. 그러구로 또 녹두를 쳐매에 따가 지고 집을 가시는 기라.

가시이끼네, 개떡가 여 걸으몬 저, 온천장 저, 저런 데를 집을 이래 드가는데(들어가는데), 거서 인자 동네사람들이 콩을 꾸우놓고 먹는 기라, 거서(거기서).

콩을 꾸우놓고 막 주워 먹어. 뵈이 오디만은 마, 마, 너무 잘 주워 먹는 기라. 그거로.

그래서 우리 할매도 저걸 한 번 쥐이(주워) 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쥐이 먹는 기라. 쥐

무이께네 마 이상하게 어리리리 하이 알긋거든.

‘아, 이기 토깨비다’

카미, 자기 호주머니의 칼로 내가지고 포옥 쑤시뵈는 기라. 폭 쑤시뵈는 기라. 거기로 집을 가뵈는 기라. 우리 할매가.

그래 오가지고 그 이튿날 머슴을 보고,

“아무것이야, 그 아무데 거 가몬, 내가 칼로가 뭐 하나 찔러뵈는 기 도깨빈가 뵈인고, 칼로가 찔러뵈는데 한 분 가 봐라.”

이러카이께네, 모지랑 빗자루 포옥 찔러뵈더란다.

모지랑 빗자루도 가져 왔거든. 그래 할머니 이거 찔러뵈습니더.

“아이고 야, 그게 와 내 눈에 사람이더노. 사람이 하도 못뵈서 찔러 뵈다.”

캐니 모지랑 빗자루 찔러뵈단다.

[동래구 설화 25]

신부의 얼굴 크기를 쟀 신랑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O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입담과 기억력이 무척 좋은 편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어서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줄 거 리 : 시집오는 며느리가 낮이 빗자루 한 자 만하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이 밤에 얼굴크기를 진짜로 쟀었다.

그전에는 우리 나이 때는 열 여덟, 열 아홉 되몬 머리로 올랐다고. 결혼했다. 그라마 한 해를 묵하가지고(묵혀서) 시집을 보내는 기라, 한 해를 묵하가지고.

이래 시집가면, 신랑만 오면 밍는 기라. 마 밍는 기라. 자꾸 신랑이기 마, 집에 오면 거치 는(귀찮은) 기라.

그래가 이래가 떡 있는데, 하룻밤에는 인자, 그 방에 드가 자야 되는 기라. 신랑 짚에 자야 되는데, 몬 드가는 기라. 다시 마 그 신랑 방아 못 드가는 기라. (조사자 : 왜요?) 부꾸럽아서. 그래 우리 모친이,

“야야, 야야. 지금 밤중이 넘었다.”

여 자꾸 우리 엄마가 그러싸. 그래도 몬 드가는 기라. 밀어넣듯이 인자 그 방 신랑방에 밀어넣는 기라. 요새 사람들 같으면 우스울 기다. 밀어넣는데 밀리 드갔네.

그래, 밀리 드갔는데, 뭐 뭐 갖다 놔더라꼬. 신랑인가 뭐, 거 주무(주워 먹어) 샀더라고. 주우 무우싸매,

“술도 한 잔 치도라.”

캐. 아이고, 술이고 뭇이 낮도 못 드는데, 술주정 할 게 어딴노. 그냥 꼴시고(끓고) 앉아가 있다, 이래가지고. 앉아 있으이께네,

“인자 자자.”

카는 기라. 잔다. 근거이(겨우) 갖다 또 밀어 붙이는 기라, 눅우라고. 잔다꼬 꼬구라 자이께네, 신흔 전 이야기라, 이거는.

내 신흔 전 이야기라. 이거는 자는데 그 신랑도 내마치 축구(바보)던가 봐. 밤에 그래 누우서, 손을, 낮을 요래요래 요래 빼어싸는 기라. 내 낮(얼굴) 이거를. 면적이 넓어놓으니까네. 이거는 내가 지냈는데, 내가 하도 우스운 이야기 하라 카이 하는 기라. 요래 빛는 기라. ‘아이고 알꽃이라, 남의 낮을 빛는공?’ 그러고는 그러고 날이 샀다. 그래 일 년 있다가 인자 시집을 갔네.

낮에는 신랑 얼굴도 못 보는 기라. 부끄럽아서. 신랑인가 뭐신가.

그래, 일년 여 묵혀 떡 시집을 갔다. 시집을 가이께네, 내캉 한 날(같은 날) 그 시집가는 사람이 한, 한 집이 있었어.

이 할마이가 무당인데, 그 집 시오마이는, 자꾸 그래쌌더라 카네. 자꾸 그래쌌더라 카네.

“아이고, 한해덕이 메느리는 낮이 빛자루 한 자 된다.”

카더라 카네. 저그 메느리는 오독하이 있는데, 한해띠기(한해덕의) 메느리는, ‘내 낮이 빛자 그거로 한 자 된다.’ 카더라네. 그래 놓이 그전에 우리는 선보러 가는데, 그 시어머니는 편찮아서 선보러 못 오더라꼬. 우리 집에는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자꾸 아들 듣는데,

“야야, 낮이 열매나 즐거워야, 덕춘댁이가,

“우리 며느리는 낮이 빛자루 한 자 된다’고 동네 댕기며 그래 샀는다.”

그래 카는 기라.

한 자 된다는 게 듣기 싫는 기라. 우리 시어무이는. 그래놓이 이 멍티같은 신랑이 날 낮을 재봤는 기라.

[동래구 설화 26]

도깨비가 무서워 도망간 아이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CB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분이,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심스레 구술해 주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기장 송정에서 밤에 친구들과 과자를 사러 동네에 내려갔는데, 연곡에서 허깨비가 나타났다. 불이 퍼덕퍼덕 하더니, 불이 두 개, 세 개로 번지더니, 급기야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너무 놀라서 모두 고무신을 벗어 들고 뛰었다.

옛날에 저게, 우리가 열 네 살 이래 무을 짝에(적에), 저 우리가 클 때 기장, 기장 저서러(저곳에서) 컸는데, 인자 송정에 인자 놀러 왔는 기라. 딸아들하고 머슴아들하고, 송정에 그제 인자 머슴아들하고, 또 저게 기장에 또 머슴아들하고 딸아들하고.

어는 집에 인자 이래 까자를(과자를) 파는 기라 밤에. 인자 이거 혼차 있는 사람, 아지매 혼차 사는 사람, 집에, 방에다 이래 까자를 놔 놓고. 옛날에는 점방도 없고 팔았다꼬. 방에다 까자로 파는데 그 집에 오몬, 그 아지마가 좀 팔아묵을라고 마 이 동네 딸아들, 머슴아들 마 그기다가 붙있는 택이라.

붙있는 택인데, 인자 우리가 인자 그 동네 인자 놀러가자고 떡 갔는 기라. 저녁에. 갔는데, 서이서러(셋이서) 갔는데, 인자 기장 그 연곡이다 카는 연곡이 있다고. 기장에 여 송정에서러 기장 사이에. 연곡이다 카는 연곡이 있는데, 거게는 음, 밤에 나무 팔러가다가도 불로 보고 허재비를 보고 그렇다 카는 곳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거 기차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도 마이 죽고 이렇는데, 그렇다 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 인자 놀러 갔다가, 그때 요새 시간을 치면 인자 한 11시쯤 돼서 아침에, 아니 저저, 저녁에 밤 11시쯤 됐는 기라.

그래 인자 서이가 떡 왔는, 그때는 고무신 신고 땡겼다. 운동화도 우리같은 거는 못 신고. 신고 갔다가 이래 오는데, 아이 내 눈에 저 허재비가 철둑에서러 허재비가 떡 불이 퍼덕퍼덕 하는기라. 불이 퍼덕퍼덕 하는 기라. 불이 퍼덕퍼덕 하더만은,

“아이가, 저 아무것이야 저, 저, 허재비 섰다. 허재비 나온다.”

이러카이카네, 불이 마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가 네 개가 됐다가 막 그래 되는 기라.

그래, 그래서러 그래가,

“아이고 그렇다. 니도 비이나?”

카이,

“비인다.”

카는 기라. 아이고, 그라이까네 좀 있으이까네, 사람으로 변했뵈는 기라, 허재비가. 사람으로 옷을 하야이(하얏게) 입고. 하나 또 되더만은, 둘이 되더만은 서이꺼지(세 명까지)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질로 그 허재비 봤는 곳에서러 돌아서 가몬 죽는다 카대. 죽는다 커는 소리

듣고 안 가야 되는데, 가던 질로 다부 가야 되는데 무섭아가지고 가던 질로 우리 집을 갈라 카몬 산을 넘어 가야 되는데, 몬가고, 다부 왔던 질로 다부 돌아섰는 기라. 죽는 거는 뒷전이고 온신에(우선에) 무섭어이.

그래 가다 내가 달리기를 제일 몬해가지고 제일 뒤에 섰는 기라. 신은 벗어가 고무신은 벗어 들고. 그때는 도로도 요 기장서 송정 넘어가는 도로도 포장도로 이기 저 포장이 안 되가고, 자갈밭이다.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거다 맨발로 벗고 마, 우리 친구들 돌이는 저 뛰가는데 나는 제일 뒤에 뛰가가. 그 집에 가가 마리(마루에) 가가지고, 바리(바로) 서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전부 거서 마루서러 마 다 뺏어졌는 기라.

(청중 : 무섭아가지고?)

무섭아가지고. 아이, 그래 마 이야기 하매 오더라고 허재비가. 처음에, 처음에 불이 퍼덕퍼덕퍼덕 하더만은, 아이 좀 있으이까네,

“니 비나? 니도 비나?”

카이,

“빈다.”

카는 기라.

“니도 비나?”

카이,

“빈다.”

카는 기라.

“아이고, 저 하얀 옷 입고 나온다. 또 하얀 옷 입고 나온다. 서이다.”

마 이래 되는 기라. 이리이까네 마 신을 들고 뛰기를 시작하는 기라.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래 가 가다가 돌아보이까네 아직 따라오는 기라. 난 가다가 뛰지도 못하고 마 없는가 싶어, 없어졌는가 싶어 무섭아도 함 돌아봤는 기라.

돌아보니까네 따라오는 기라, 철둑으로. 그래가지고 그 집에 기 드갔다, 기 드갔어. 마, 기 드가가 마 뺏어졌다 거서 전부 서이다.

(청중 : 거 헛기 보이냐? 기기?) 몰라 그렇다. 헛기 보이몬, 침에 내가 머이(먼저) 봤거든. 내가 머이 봤는데 (청중 : 헛기 아이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께이더라. 죽께이면서 오더라.

뭐라고 뭐라고 하도 하도 하도 커고 마 말이 안 똑똑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저게 내 혼차 받 게 아이고,

“니도 비나?”

카이께,

“저 불 비제?”

“빈다.”

“사람 비나?”

카이,

“사람 빈다. 두나 됐다. 세나 됐다.”

다른 사람, 다른 아들도 다 그랬는 기라. 그리고 만날 그 이야기 하고 나는 켈 이쪽으로 서고, 걸어올 때 내가 앞에 왔는 모양이라.

그런데 저거는 뒤에 서고 있는데, 마 여 신을 벗어가지고 달려가자 소리도 안 하고 마 앞에 내뺐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대이.

[동래구 설화 27]

동래 녹천탕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CJW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최진욱, 남, 78세

구연상황 : 동래온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며 녹천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줄거리 : 옛날 집에서 담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서 호미로 파보았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바로 온천물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목욕탕을 지었는데, 유명한 녹천탕이 바로 그곳이다.

옛날에 우리가, 한 거기 한 삼십년 더 넘었나 모르겠네.

그때 정도 돼서 우리가 온천장에 살았는데, 온천장에 그때 목욕탕 마이 없고, 옛날 저 목욕탕 저 구목욕탕 그뿐이고, 고 옆에 보만 녹천탕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 녹천탕이 말이야, 옛날에 집 주인이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담 있는, 담 구석에서 말이야 짐이 풀풀 나더라 이기야.

그리 이기 똬고 싶어가 호미로 살살살 팠는게 물이 나오더라 이기라. 거기 바로 온천물이라. 나오는데, 그 후로 그 집에서 계획적으로 인자 목욕탕을 짓는 기라. 그래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것도 아마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그것도 세월이 가서는 한 오십년 이상 흘렀을 기거만은. 우린 거니까 그 집에 목욕하러 자주 갔어요.

(조사자 : 그 목욕탕 이름이?) 녹천탕이라고 야. 녹천탕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 안에 보몬 여관도 있고, 그 집에 돈을 벌어가지고.

[동래구 설화 28]

뫓자리 잘 써서 결혼하고 부자 된 효자 노총각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6_PKS_HNM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황노미,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선 제보자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기도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를 찬찬히 재미있게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옛날에 가난하지만 효자인 노총각이 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뫓자리를 잡지 못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대사가 와서 자신이 먹을 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해서 주었다. 대사는 고마움의 표시로 부모님 뫓자리와 집터 자리를 봐 주게 되었다. 노총각은 그 터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고 잘 살게 되었다.

옛날에 비가 안 오고 흉년이 자주 질 때 농사가 안 돼가지고 승년이 더는데,

그래 총각이 일꾼을 뽑는데 총각이 하마 나이 이삼십 살 근주(가까이) 돼. 예전에 그러면 노총각이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고 그 총각 몸은 혼자라. 다 죽고 친척은 멀리 있고 머머 오도가도 못 사니께 안 온다. 이 사람이 잘 살아보래, 친척도 자주 오거든, 못 살몬 안 와.

그래가지고 남의 집 머슴을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 벌써 돌아가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묻었고. 어머니는 안주 못 묻었어.

머리에다가 예전에 흰 땡개, 상투 쪼던 흰 땡개 여기다가 디리고서 머리끝에 디래고 뫓, 이래가지고 논을 갈았어.

논을 가이께네, 그해 승년이 지노이께네, 참을 가주 나왔는데, 흰죽 한 그릇을 썩가지고 죽에다가 요걸 요개하고 이래라 카고.

(청중 : 엄마가?)

아니 그 일꾼 그 집에서, 그래서 가져 오더라네.

갓다 논물에다 이리 갓다 놓고 덮어놓으면, 이거 뫓 요기가 될라 이러면 덮어놓고, 논 가라 카고 드갔거든.

그래 대사가 오다가 거 섰어, 그 죽그릇 절에. 쉬면서는,

“총각, 머리 보이(보니까) 흰 땡기 디래가(돌려서) 있는 걸 보이, 아즉 부모 장사는 안 지냈는가베.”

그래 뫓 스는 그 대사가,

“그래, 내가 이 죽을 날 주문(주면)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더래(이렇게 말을 하더래). 거(거기서) 논 가다가 그 죽 한 그릇 갖다 놓은 걸 그것도 또 대사가 달라 카네.

그래 마, 얼마나 절을 하몬.

“잡수세요”

카모 절을 했다. 그리 대사가 글썽 죽을 싹 닦아 먹어미빠고 빈 그릇만 있네.

그래 인자 죽을 맛있게 먹고, 자네가 마음을 이래 꺾어보이(꺾어보니), 이래 떠보이까네, 자네 마음을 이래 환하게 디다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어지고 어진 사람은 내가 오늘은 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는, 짝지(작대기)로 콧 짚으면서는, ‘요개는 어머이 산소들이라’고 밋자리 잡아주고, 머리 허영게 땀기 드린 거 보이 아직 장사를 안 지낸겄다고, 그래 밋자리 잡아주고, 요개는 집터

거 인자 그 총각이 일을 하면서도 집터를 하나 요래 잡아줘. 요기 집을 지라 카더래.

“아이고, 도사님요. 내가 이 형편에 거게 집 지을 행편이(형편이) 됩니까? 움막시리도 짓자문 힘들겄은대요.”

“암말도(아무 말도) 말고 내 시키는대로 꼭 그래 해라”.

이래더래. 그래, 엄마이 산소부텨 미리 들였대. 집도 안주(아직) 못 짓고 마실에 구결해가지고 쪼끔 쪼끔씩 해가지고서 얻어가지고, 그래 그 엄마이를 산소를 디렸어(들였어).

덜여놓고 지(자기) 집은 요게 거 도사 집 터 잡아준 데 거러구로 움막을 쳤대. 움막을 치고, 밑에는 짚을 깔고, 움막을 뺑 돌려 치고서는, 그래 낮에는 저가(저기 가서) 일을 하고, 남의 집에 있으이께네 일해야 될 거 아인가.

“일하고 저녁에 새끼를 꼬아도 여 움막 속에 와서 새끼 꼬아라.”

이러더래, 도사가. 그래 솔가지를 해가지고 불을 해 놓고, 한 짝에 불 해놓은 걸, 해 놓고 거서 하마 그래이께네, 제법 났대, 그래 하는 지가.

거 와 새끼 꼬고, 신도 삼고, 거게 마 여러 가지 거를 거기서 지 소원대로 거기서 다닥거리고 있는 기라, 지 집이라고. 그랫더이 한날 저녁을 먹고 와서, 그래 마 잘 자리를 보고, 그 짚을 다독거리놓고 잘 자리를 보고 있다이, 처녀가 다 큰 처녀가 뭘 한 당새기를 이고,

“여기 좀 쉬어 갑시다. 불빛이 뼈떡거리서 집인가 뵈요.”

카며, 움막 거 가마니 쳐 났는 거를 이래 들시가 디다 보더래.

“그래 여개는(여기는) 잘 수가 없고요, 요 마실에 내려가몬, 참 마실이 큼니다. 거 가면 대가, 대 뭍시기로 사는 집도 많고, 그리 거 가서 쉬라고.”

보내께네, 기어이 안 가고 빠직빠직 들어오더라네.

거 들와가지고 거게 앉아서, 그래 그 새끼 꼬고 앉었는데, 총각은 새끼 꼬고 인자 어마이 죽었은께 정상으로 머리 빗고. 인자 초상을 쳤거든. 그래 앉아 있으니, 그래 그래 이래 보디 마는,

“나는 먼 데서 서울서 내려왔다.”

카더래.

“부모가 이 당새기에 뭐가 들언동 나는 피(피) 보도 안했습니다. 이걸 주면서 이고, 니 발끝 가는대로 가라 카더래요.”

그래 부모가 내보내빠더래. 그래가지고,

“이 당새기만 하나 이고 내려왔습니다.”

이래모 피 보이께네, 아이 금은보화라. 큰 부잣집인데, 약혼해 놓고 죽으면, 사우가 죽으면 그집 귀신이라고 딸 그집 시집 안 보낸다네. 어덜 보냈뻘다네 고마.

옛날에는 그래 보내빠리노이끼네 귀신은 그 집 귀신인데, 그 젊은 청춘애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노이 어마이가,

“이 보물을 가주 가서, 니 마음대로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살아라.”

고 부모가 똬겨든. 그래 그 패물을, 그걸 가지고서는 그날 저녁에 인연을 맺었어.

맺고 그 패물, 그 이튿날 팔아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주 포이(포부가) 저가 농사짓는 포이 저가 그거부텀 샀대. 사고 집은 마, 우에던지 멧 칸짜리를 그 터에다 지어가지고, 그래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래 잘 살터랍니다.

부모한테 효성해서 안 되는 법이 없느니라.

[동래구 설화 29]²³⁾

결혼식 날 바뀐 신부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KI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김일연, 남,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마침 재미난 얘기가 있다며, 자신이 경험한 실제 이야기라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김해비행기장 앞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색시가 바뀌었다. 바뀐 색시는 앞뒷집에 살던 사촌간으로 얼굴이 서로 닮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가서야 신부가 바뀐 줄을 알게 되었다. 신랑이 바뀐 색시와 살 수 없다고 야단을 부렸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살지 못했다.

김해비행기장 앞에, 어, 이거 내 만덕 이야기라.

만덕 그 안에 그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내가 철도에 있을 적에 친구가 김해비행기장 앞에 결혼식에 갔는데, 앞뒷집에 결혼식에 색시가 바뀌었어요, 색시가. 앞 색시하고 뒤 색시하고 사촌간이라. 그러는데 앞 색시는 선을 보기는 봤는데, 사촌간이니까 얼굴이 닮았을 것 아니야.

23) 이하 현대 구전설화로 채록된 것임.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실제 시가가 이제 만덕 그 안에 산골에 있었는데, (청중 : 골짜기이지 거는.)어. 오기는 왔는데, 아, 그때 이제 색시가 바뀐 줄 알았어요. 아 이래가지고 첫날부터 마 색시가 마, 신랑이 색시하고 안 산다고 흔들어 가지고 야단났어, 야단나.

정말 색시가 본, 선 반 색시가 아이고 뒷집, 앞뒷집에 살았으니까 말이지, 사촌간이니까 나이도 똑 같은 거라. 아, 이래가 바뀌기(바뀌어서) 생 야단 났는데, 평생을 그 사람들 같이 못 살았어요.

[동래구 설화 30]

저승사자를 본 사람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PM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 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박명철, 남, 76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겪은 일이 생각났는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거리 : 택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60일 만에 깨어났다. 그런데 깨어나던 날,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저승사자가 소를 패듯이 자기를 때리며 가자고 끌어당겼다. 의식을 찾으니 의사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있었다.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몇 일만에 깨어났나모 내가 육십 일만에 깨어났어. 죽었어. 완전히 죽어갔고, 죽은 기 아이고, 숨은 붙어 있었는데, 죽, 죽었는데, 나는 인자 기절한 그거는 그 장면만 알고 있고 그랬는데.

내가 인제 개인택시를 하거든. 그때는 개인택시를 했다고. 그때는 개인택시를 하는데, 그 운전 중에 내가 인제 쓰러지갔고 병원에, 여 저 머꼬 동아대학병원을, 지금도 동아대학병원을 댕기. 동아대학병원 아직까지도 내가 팔 년째 댕긴다고.

그래 동아대학병원 실리 갔어. 앰블란스에 실리가 갔는데. 그래가 실리간 거 모르지. 나는 실리갔는지 뭐 우째 기억 그 쓰러질 때 그 순간만 우째 택시 타갔고 갔다 그것만 아는데, 육십일 만에 깨어났는데, 우리 마 친척들 다 오고 우리 아들 딸, 이거 마 죽는다, 죽었다고. 안 깨어나이께네, 도저히 안 깨어나이께.

이렇는데, 내가 인자 귀신을 받 기 어찌 봤나몬, 이 저 머꼬 똑 저, 저, 우리 애릴 때 만화책에 보듯이 이래 머 갓을 딱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이러 두루막걸은 것도 입고, 이래 갖고 내인테 와갔고 가자 카면서, 따라가 안자 이런 식이라.

따라가자고 나를 막 때리는 기라. 그래갔고 막 때리는데, 이놈 가만히 생각해보이 우리

할마이가, 할마이가 그때는 할마이가 내 지금 몇 년 안됐으이께네. 할마인데, 그리고 우리 할멈, 할마이가 옆에 가마 내 꿈에, 꿈이 아이라 그때는, 그때 느끼기를, 할마이가 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막 어디 다리갈라 카는데, 때리민서 소 패듯이 패는 기라. 메차리(회초리) 가지고 어깨를, 율로(요리로) 치고 일로 치고 하는 기라. 그래가 이거로 내가 이기 똑 할마이로 보고 쾌심하다 싶어더라고 죽으민서러. ‘우째 안 말기 주고 저 보고 뻘하이 보고마 있노?’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가 인자 그기 인자 육십 일만에 깨어나는 순간이라 거기. 꿈에서 깨나는 순간이라. 그래 내가 인자 깨고보이께네 그래 가마 전에 그 뭐 수술 여 여 수술했거든. 여 수술하고 찌고 이랬는데. 그때 의사 자국 해노이께네 여게 아프이끼네, 꿈에 때리는 기라, 나를 때리. 귀신이 때리갓고 가자 카는 기라.

하내이 둘이 아이고, 뗏키(뗏이서) 똑 무슨 수술하는 사람들매키로, 그래갓고 거기 인자 눈에도 뗏이 의식으로 왔는 기라, 머리에서는.

그 의사들, 깨보이끼네 참말로 의사복 안 입었나? 똑 의사복 입은 그런 거매로 비슷하이 그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다리 가자 카는 기라. 그래 탄 사람, 옛날사람들겘오 저승 갔다 왔다 카지.

[동래구 설화 31]

경주공방에서 온 동래기생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6_PKS_BT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에서 동래기생 이야기를 한 후에 연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서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래기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이야기라 생각해서 채록했다.

줄거리 : 옛날에 동래기생이라고 하면, 동래에서 제일식당을 한 할머니가 진짜 기생이었다. 그 사람은 경주공방 출신의 기생이었다.

동래기생들이 옛날에 여 저저 제일식당 파적 할매, 그런 사람이 동래옥 지 참 마담 할매강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경주공방 기생들이라.

경주공방에서 배아가 그 팔자가 시가지고(세어서) 자기들이 거서러 기생으로 불려가 나와가, 그 제일식당 할매가 참 진짜 그 사람은 공방기생이라. 지금 돌아가시고 없어.

그 옛날에 동래파적이라 카몬 다 알았다 아이가. 잡지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했는 거

할머니가 참 옛날에 기생이다. 기생이었고, 참 양반의 집 저 요새 경주 이가들, 저 대통령캉 (이명박 대통령을 말함) 그 한 집안사람들이라 그 할매가.

[동래구 설화 32]

까마귀 때문에 나무를 못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YJ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양재철, 남, 7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를 구술했다.

줄거리 :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달라 드는 바람에 나무를 계속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근처에 있는 묘에 가서 절을 했더니, 까마귀가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어졌다.

근데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가니까, 까마귀가 두 마리가, 그 고개를 넘어가야 나무를 해 오거든. 해올 수 있어. 그 고개를 넘어가니 지계를 짚어 지고 넘어가니, 이, 이 까마귀가 확 달라들어서 나를, 머리를 확 쳤부지, 또 이쪽에서 확 쳤부지, 이 고개를 못 넘어 가는 거라.

도저히 아무리 넘어 갈라고 해도. 어떻게 까마귀가 달라드는지. ‘야, 이거를 넘어가면 틀림 없이 뭐가 있어갖고 날 죽일꺼나.’ 죽기나 뭘 수가 있구나 싶어갖고, 그래도 밥을 얻어 물라니까 나무를 한 짐 해다 줘야 저녁밥을 먹거든. 그라 안 하면 몬 묵우니까.

나도 양갑니다만은, 양해식이 집에서 녀의집 살았습니다. 항렬로 말하자면 내 조카집에서. 근데 그 까마귀가 그렇게 나를 잡아 그래 치더라. 광광 짹대기로 하나 잡아갖고 때릴라 해도 때리도 못하겠어.

(청중 : 까마귀?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한테 달려들지?)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거, 인자 거 넘어갈라니까 묘가 있거든 묘. 묘가 있는데, 넘어가몬 묘가 하나 있다고. 중터막에. 묘에다가 내가 절을 했습니다. 지계를 벗어놓고, 까마귀는 달라 들어도 묘에다 내가 절을 하니까 까마귀가 어디 간지 모르고 가버리고 없더라고.

[동래구 설화 33]

호랑이에게 개를 던져주고 호식을 면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YJ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 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 양재철, 남, 7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입담도 좋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어서, 까마귀 이야기에 이어 계속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거리 : 한 여관 주인이 술을 많이 먹고 석곡에서 영천으로 가는 도중에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가 계속 불을 켜고 집 앞까지 따라 왔다. 여관 주인이 기르던 개를 밖으로 던지자, 호랑이는 개를 물고 사라졌다.

또 하루는 영천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영천마을을 가몬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일이면 삼일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모아 놓으면, 구르마가 와서 실어 갑니다.

그래 거 주인집에다가, 그 주인집에다가 양식, 내가 먹을 양식 갖다놓고 거다 밥 해주고 거서 밥 얻어 묵고, 밥 해주몬 묵고, 나무 해다가 쟁기놓고(쌓아 놓고) 이러는데, 그 주인하고 나하고 석곡여관이라는 데, 석곡여관에 석곡여관 집에서 내가 녀의집 사는데, 그 집이 여관에 가갖고 그 주인이,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 뭐야, 술을 입빠이 댘어, 그 주인이. 입빠이 자시 놓이 저녁에 안 올라갑니까 영천이라는 마을을. 십 리여 딱 십 리. 거기서 석곡에서 거기까지 갈라몬. 십리인데, 느닷없이 저 건너서 불이 황금불이 켜진 거라, 불이. 그래가,

“재칠야 가만 있어.”

이를 막 투들겨 내 뒤를 따르라 이거야. 어 뒤를 따르니까 저거는 호랑이다 이기야 호랑이. 호랑이가 불을, 불을 뻘하니 씨니 무조건 그따 대고 절을 한 거야.

여어 길은 이리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산이 짝 이리 있습니다. 그리 이리 길이 딱 되고. 둘이서 걸어가는데 계속 불을 쓰고, 거기까지 자기 집 있는 데까지 오더라고.

거 개가 한 마리 억수로 영리하고 싸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다. 자기 집 거 개를 길렀어. 주인이 가서 개를 그대로 묶고 그대로 던져 버리더라고 밖으로. 밖으로 던져뿌니까 거 호랑이가 개를 인자 물고 넘어갔는가 어쨌는가, 개가 없어져뿌지 인자.

[동래구 설화 34]

저승 갔다 온 사람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YJC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양재철, 남,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흔쾌히 또 다른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다.

줄 거 리 : 어느 날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죽은 고모의 삶이 이상하게도 뻗뻗해지지 않고 산 사람처럼 부들부들 했다. 그러다 삼 일만에 갑자기 깨어났다. 꿈에서 저승을 다녀왔다고 했다.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배를 태워 바다에 빠뜨리는 바람에 깨어났다고 했다.

몰랐는데, 우리 고모님이 살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온 전체가 다 뻗뻗해지거든에. 신경이 죽어뿌기 때문에 뻗뻗해지는데. 우리 고모님은 이 삶이 부들부들 해갖고 아, 부들부들 해가 색깔이 얼굴 색깔도 그대로 있고 숨만 못 쉬지, 전체가 그대로 있는 거라.

거 우리 고속이랑 말하자면 우리 그 저, 고모 자녀들이랑 유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 고모는 이분은 살아날 수가 있다. 두고 보자.”

그래가고자 있는데, 아이, 삼일만에 우리 고모가 살아났습니다. 삼일, 삼일만에 났는데, 우리 고모 얘기를 들어보면 저승이 있습니다. 저승이. 꼭 저승이 있습니다.

저승에를 가니까 하얀, 하얗게 생긴 노인이 떡 보더니,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못됐는데 어찌 들어왔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재철이라면 재철이를 잡아오라 이라면, 이름이 그래서 말하자면 똑같이 이름을 안 짓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철이를 잡아오라 하면 이 사람 잡아와야 되는데 나를 잡아왔거든 말하자면. 내가 재철입니다만은.

그런 수가 있다 이기라.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가니깐,

“너는 아직 들어올 때가 못 됐는데 왜 들어왔냐? 내보내라.”

해갖고, 근데 배를 태아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다가 배에서 빠졌부더라(빠뜨려버리 더라) 이거라. 바다로.

빠졌부러가고 퍼득 깨보니까 꿈 같이 태어나서 우리 고모가 살으셔갖고 아흔 다섯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도 안 아프고, 하루도 안 아프고 그 손지, 손자 밥 채려주고

“나 몸 아프다.”

하고 누워있디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살으셨습니다.

(조사자 : 너무 좋은 얘깁니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 고모가 그 저승에 갔다 오셨다. (조사자 : 저승에 다녀온 거 맞네요.) 저승에, 저승을 갔다 오셨다.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63~410쪽.

Ⅲ. 문헌 소재 설화

1. 김정구 설화
2. 동래구 설화

1. 금정구 설화

[금정구 설화 1]

금정산 범어사의 창건(1)

신라 문무왕 때 왜구가 대거 침범하므로 왕이 그 퇴치 방안을 아무리 생각하여도 묘책이 서지 않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대왕은 근심하지 마옵소서. 태백산 중의 의상대사는 금산보개여래(金山寶蓋如來)의 후신으로 항상 여러 신중(神衆)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대왕께서는 의상대사를 맞이하여 친히 함께 금정산으로 가시어 금정암(金井岩) 밑에서 주야 7일간 화엄신중경(華嚴神衆經)을 독송하고 정근(精勤)하시면, 미륵여래가 금색신(金色身)을 현현(顯現)하고 사방의 천왕이 각각 병기를 가지고 색신(色身)을 나타낼 것이며, 비로자나여래가 금색신을 나타내어 보현보살·문수보살·향화동자(香華童子) 등 40법체(法體)를 거느리고 여러 신과 더불어 각각 병기를 가지고 해동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병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후대에 어진 이가 이어나지 않아 왜적이 침입하고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거든, 또한 이 바위 밑에서 화엄정근(華嚴精勤)을 하시면 자손이 끊이지 않고 간과(干戈)가 길이 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의상대사를 불러 왜구의 침입을 미리 막고 또 침범한 왜구가 있다면,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금정산 밑에 호국사찰로 범어사를 짓게 한 것이다.

금정산과 범어사의 명칭 유래에 대하여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지23 산천조에 ‘현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산마루에 3장(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 자(尺)이며, 깊이는 7치(寸)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이렇게 그 산을 이름지었고, 인하여 절을 짓고 범어사라 불렀다.’라 하였다.

범어사(梵魚寺)의 사찰 이름 연기 설화와 관련된 금정산의 금정암(金井岩) 전설은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금빛샘에 내려와 놀았다는 금빛 물고기는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신으로서 사바세계를 주재(主宰)하고 불교의 보호신으로서 불교도의 존숭을 받고 있는 범천왕(梵天王)이 사는 세계에서 내려온 물고기인 것이다.

이 물고기는 신성어족의 계열로 이 물고기가 내려와 논 장소는 성역(聖域) 중의 성소(聖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²⁴⁾

24) 김승찬 교수(부산대 명예교수)는 금정구의 두구동(현 선두구동)과 금성동(산성마을)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지역 설화를 수집하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라 하여 원고본 형태로 가지고

[금정구 설화 2]

범어사(梵魚寺)

지금으로부터 約 1130年 前 新羅 第42代 興德王 때의 일이었다. 興德王께서는 어느 날 밤 꿈에 白髮神人이 구름 위에서 나타나, “왕이여, 나라 남쪽에 神靈한 靈山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 꼭대기에는 금빛 물이 짝 차 있고, 그 물에는 금빛 고기가 헤엄을 쳐서 다섯 가지 채색의 향기 있는 구름이 항상 그 위를 떠돕니다.”

하고 말한다.

왕은 꿈에서 깨어나 이를 이상히 여기고 곧 名僧 元曉를 불러들이시어 해몽하게 하였다. 元曉는 무릎을 꿇고 경탄하며 말하기를,

“그 꿈은 참으로 좋은 꿈이로소이다. 그 금빛 고기야 말로 梵天의 고기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왕도 크게 기뻐하시어 곧 남쪽에 있는 東萊 金井山을 찾아서 元曉에게 분부하여 세운 절이 곧 이 梵魚寺라고 한다.

(1930年 8月 東萊郡 東萊邑 나의 先親 談)²⁵⁾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29쪽.

[금정구 설화 3]

금정산 범어사의 창건(2)

지금으로부터 약 천 2백 년 전, 신라 흥덕왕 때의 일이었다.

흥덕왕이 어느 날 밤 꿈에 백발 신인(神人)이 구름 위에서 나타나 ‘왕이여, 나라 남쪽에 신령한 산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 꼭대기에는 금빛 물이 짝 차 있고, 가운데에는 금빛 고기가 헤엄을 쳐서 다섯 가지 채색의 향기 있는 구름이 항상 그 위를 떠돈다.’라고 말하였다.

왕은 얼핏 꿈에서 깨어나 곧 명승(名僧) 원효를 불러들이어 해몽하게 하였다. 원효는 무릎을 올리고 경탄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좋은 꿈입니다. 그 금빛 고기야말로 범천(梵天)의 고기입니다.”

라 했다.

그래서 왕도 크게 기뻐하며 곧 남쪽에 있는 동래 금정산을 찾아서 원효에게 분부하여 세운

있었다. 본 편찬자들은 김승찬 교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원고를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이 원고본에 수록된 설화는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으로 표시한다.

25) 이 설화를 게재하고 있는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1982)를 편찬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나의 先親’이라고 한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다.

절이 곧 범어사라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

범어사의 매학동자

임진란 때 범어사에 매학이란 중이 있었다. 이 중은 욕심이 많아 신도들의 재물을 탐내어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재에만 눈이 어두웠다고 한다.

하루는 매학이 지금의 화정,²⁶⁾ 그 당시 우리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蘇山 앞을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집에 서기가 돌고 있음을 보았다.

매학은 옷깃을 바꾸고 그 집에 들어서니 웅장한 소리를 내며 옥동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얼마동안 기다리던 매학은 산모에게 「이 아이는 불가에 인연이 깊은 동자로 보입니다. 잘 길러 주시면 몇 년 후 내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산모는 순순히 응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 매학은 이 아이를 절에 데리고 와서 상좌로 삼았다.

어떤 날²⁷⁾ 매학은 상좌를 나무하러 산으로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어디에서 놀다 오는 거냐? 왜 염치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느냐」고 노기를 띠고 나무랐다.

「스님! 놀다온 게 아니옵니다. 제가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낮으로 베었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생생한 피가 흘러나오기에 무서워서 도저히 나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매학은 노발하며 「고약한 놈같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배웠느냐? 나뭇가지에서 피가 나올 리가 있는가? 내 앞에서 당장 물러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상좌는 그 길로 절을 떠나 금강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상좌가 금강산으로 떠난 2년 뒤 매학은 범어사 절간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이때부터 이 절 고방에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았으니 절간 스님네들은²⁸⁾ 불안하였다.

그런데 이 구렁이는 이상하게도 팔죽을 잘 먹었기에 절에서도 구렁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금강산에서 매학의 죽음을 들은 상좌는 범어사로 돌아왔다. 그는 여장을 풀기가 바쁘게 즉시 고방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구렁이를 향해 정중한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독경하다가 「스님! 이 일이 웬 말씀이옵니까? 어서 허물을 벗어 승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서서히

26) 금정구 선동(仙洞)(『동래의 역사』, 183쪽).

27) 어느날(『동래의 역사』, 183쪽).

28) 스님네들은(『동래의 역사』, 184쪽).

밖으로 나오니 구렁이도 순순히 꿈틀거리며 상좌를 따라 나왔다.

구렁이가 냇가에 이르렀을 때도 독경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구렁이는 바위에다 머리를 한참동안 처박곤 하더니 길게 뻗으며 숨졌다. 이때 구렁이의 몸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나오더니 상좌의 품에 안겼다.

다음날 상좌는 새를 안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도중 이 새는 짐승들이 교미하는 곳마다 날아가려고 몸부림쳤으므로 상좌는 이를 막느라고 애를 태우곤 했다.

어느 날 해 저문 뒤 상좌는 인가를 찾다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쉬게 되었다. 상좌는 새를 주인에게 맡기면서 「열 달 후에 당신들 내외가 아들을 낳을 테니 잘 키워 주옵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불가에 인연이 있는 동자이오니 10년 후에 내가 다시 찾지요」라고 말하고 혼자 떠났다.

그 후 상좌는 다시 이집을 찾아와 동자를 얻어갔다. 상좌는 이 아이에게 열심히 불도를 닦게 했으니 차츰 고승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루는 상좌가 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하고 안타깝게 물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라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스님! 스님은 매학스님의 화신이옵니다. 정신을 차려 저를 보시옵소서. 원래 저는 스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하여 상좌는 다시 제자가 되고 매학 동자는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2~433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3~184쪽.

[금정구 설화 5]

스승을 제도한 상좌

임진왜란 때 범어사에 명학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원래 욕심이 많아 신도들의 재물을 탐내어 수도보다는 재물을 모으는 데 눈이 어두웠다.

어느 날 이 스님이 하정리(荷亭里)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초가집에 서기(瑞氣)가 돌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마침 아기를 낳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이 산모를 향해

“이 아기는 불가(佛家)에 인연이 있는 아이라 10년 뒤에 내가 와서 데려 가겠다.”

고 말하였다. 산모는 어린 아이를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나 명학스님은 그 아이를 범어사로 데리고 와서 상좌로 삼았다. 어린 상좌는 영특하게 스님의 말도 잘 듣고 부처님께 예불도 곧잘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상좌에게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다. 저녁때가 되어 어린 상좌는 빈 지게로 돌아왔다. 스

님은 어린 상좌가 놀다가 나무를 해오지 않은 것이라고 나무라니, 상좌가 하는 말이
 “나뭇가지를 베니 붉은 피가 나서 무서워 베지 못하고 왔습니다.”
 라 했다.

명학스님은 화가 나서 상좌를 내쫓았다. 할 수 없이 상좌는 금강산의 영원동(靈源洞)에 들어가 열심히 불도를 닦아 영원조사(靈源祖師)가 되었다.

조사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데 홀연히 시왕동(十王洞)에서 명학스님의 문죄(問罪)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조사는 출정(出定)하여 스님을 구하려고 신통력으로 명부(冥府)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스님은 탐욕이 심하여 죽어 구렁이의 과보(果報)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는 행장을 꾸려 범어사로 와보니 큰 구렁이가 고방에 도사리고 앉아 팔죽을 먹고 있었다. 조사는 구렁이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스님 이게 웬 일이십니까? 어서 해탈하여 극락왕생하시옵소서.”

라 말하며 밖으로 나오니 구렁이도 따라 나왔다. 조사는,

“이러한 업보를 받은 것은 전생에 탐심(貪心)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 말하고 큰 돌을 들어 구렁이를 내려치니, 구렁이는 죽고 거기에서 새가 한 마리 나와 조사의 품에 안겼다.

조사는 다시 금강산으로 향해 가는데, 이 새는 암수의 짐승이 짝짓는 것을 보면 그 곳으로 날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조사는 새를 놓아주지 않고 데리고 가다가,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 들러 조사는 주인에게 새를 맡기며,

“지금부터 열 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불가(佛家)에 인연이 있으니, 잘 길러 주십시오. 10년 후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갔다. 그 후 10년이 지난 뒤 조사는 다시 그 집에 찾아와 동자를 절로 데려갔다.

동자승은 영원조사 밑에서 불도를 닦아 스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원조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뒤

“스님! 저는 본래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저를 똑똑히 보십시오.”

영원조사가 목 메인 소리로 말할 때 스님은 전생을 보았다.

스님은 영원조사가 구렁이였던 자기를 죽였다는 그 원한의 숙업(宿業)을 풀기 위해 어느 날 밤에 조사가 잠든 사이에 도끼를 들고 조사를 죽이려 방에 들어가 조사를 내려치는 순간에 벽장문이 확 열리며, 조사가

“스님, 이제 숙업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라 했다.

그 뒤 스님은 착한 일을 하고 불도(佛道)를 바르게 깨달아 큰 스님이 되니 그가 곧 우운조사(雨雲祖師)라고 한다.²⁹⁾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29) 명학스님이 죽어 다시 태어나 영원조사 밑에서 불도에 정진하여 도통하여 우운대사가 되었다 하는데, 「영원조사5세성도기」에는 영원조사를 지오대사로, 명학스님이 죽어 다시 태어나 불도를 닦아 영원조사로 되었다고 함.

[금정구 설화 6]

영원조사(祖師)와 명학동지(明鶴同知)

옛날 조선시대 중기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래 범어사(梵魚寺)에는 명학동지(明鶴同知)라는 스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당시 절 집안에서는 강사(講師)³⁰⁾도 아니고 법사(法師)³¹⁾도 아니면서, 재산이 조금 많은 스님을 가리켜 '동지(同知)'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을에서 양반이나 진사(進士)³²⁾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명학동지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용이 물 속에서 나와 범어사의 보제루(普濟樓)³³⁾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보제루에 가보니, 웬 거지아이가 거적데기를 덮고 기둥 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자는 아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깨워서 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추하기가 이를 데 없던 거지아이는 막상 찢겨 놓고 보니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아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아이에게 상추를 뜯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아이는 한 손가락을 세우고 징징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왜 우느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손가락 끝 좀 베었다고 우느냐?”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추가 붙쌍해서 읍니다. 상추를 뜯으려고 줄기를 끊으니 아한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을 조금 베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몸통이 끊어진 상추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근기(根機)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명학동지는 아이의 법명(法名)을 영원(靈源)이라 지어주고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³⁴⁾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靈源)³⁵⁾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경문(自警文)³⁶⁾의 마지막 계송(偈頌)³⁷⁾에

30) 불경을 강의하고 설명하는 중

31)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통하고 설법하는 데 있어 모범이 되는 중.

32) 옛날 과거(科擧) 시험에서 소과(小科)의 일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던 말.

33) 대웅전(大雄殿)과 마주 보는 건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서 중생(重生)을 제도(濟度)한다는 뜻. 여기서 예불과 설법을 위한 크고 작은 불사(佛事)가 행하여짐.

34) 남자가 출가(出家)하여 중이 된 후에 처음으로 배우는 책.

35) 경남 함양 사람으로 성은 이씨라고 전해진다.

36) 스스로의 마음이나 행동을 경계하기 위한 글.

37) 부처님의 공덕(公德)을 찬미한 노래.

이르러 말했습니다.

“스님, ‘금생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세에는 반드시 크게 한탄하리라(今生若不從斯語 後世當然恨萬端)’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대로 도를 닦으러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이 그렇다는 게지, 지금 당장 어떻게 가란 말이나?”

“스님이 못 가시면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네가 여기서 컸으니 가려거든 너를 키워준 것만큼 떼어놓고 가거라.”

이처럼 명학동지가 못 가게 하자 영원스님은 몰래 도망을 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간 영원스님은 몇 해 동안 열심히 수도생활을 한 끝에 마침내 도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시왕봉(十王峯)을 바라보고 있던 영원스님의 귀에 염라대 왕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직사자야, 월직사자³⁸⁾야.”

“예.”

“범어사 명학동지를 잡아들여라.”

“예.”

‘아, 우리 스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영원스님은 바리때³⁹⁾를 타고 금강산에서 범어사까지 단숨에 날아와 명학동지를 찾아뵙고 말하였습니다.

“스님, 급합니다.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범어사의 뒷산인 금정산(金井山)은 ‘천 자라 만 거북’의 형세라고 합니다. 자라나 거북의 형상을 취한 집재만 한 바위들과 납작납작한 바윗돌로 이루어진 특이한 모습의 산입니다.

영원스님은 명학동지를 데리고 이 금정산으로 올라가 한 바윗돌 앞에서 주장자(拄杖子)⁴⁰⁾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담당스님 나오시오.”

그러자 시퍼런 구렁이가 한 마리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담당스님 후신입니다.”

또 다른 바윗돌 앞에 가서 쿵! 하고 주장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낙운스님 나오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누런 구렁이가 쓰윽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보십시오. 이것이 낙운스님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이번에는 한 돌 앞에 이르러 주장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구 계시오?”

여러 번 불렀으나 그 무엇도 나오지 않자, 영원스님은 명학동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님 자리입니다.”

38)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 간다는 저승의 귀신들을 말함.

39) 중의 밥그릇.

40)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온몸에 소름이 돋은 명학동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들어갈란다!”

“스님,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를 따라 공부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 가자.”

그날 저녁, 명학동지는 돈고방 · 쌀고방 · 무명베고방 · 삼고방 등을 단단히 잠근 다음, 사람들에게 잘 보살펴 줄 것을 신신 당부하고 상좌⁴¹⁾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도 안식루(安息樓)⁴²⁾ 근처에 가면 당시 명학동지가 쓰던 고방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상좌는 뒤주재⁴³⁾를 넘어가면서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상좌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명학동지였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여 고개를 거의 다 넘을 무렵, 그만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쌀고방이 불에 훨훨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쌀고방이 불탄다.”

명학동지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 내려갔습니다.

“스님, 불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영원스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명학동지는 듣지 않고 허겁지겁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일어난 욕심의 불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낀 영원스님은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원스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왕봉으로부터 ‘명학동지를 잡아들였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원스님은 다시 바리때를 타고 범어사로 내려왔습니다. 절집에는 진짜 상좌, 가짜 상좌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고 법석을 떠는데, 마치 잔치 집 같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부조(扶助)할 것이 없으니 설거지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원스님이 그릇들을 수곽⁴⁴⁾에다 가득 담아 떡메⁴⁵⁾로 마구 두드리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저 놈이 그릇 다 부순다.”

스님들의 꾸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원스님은 큰 삽으로 수곽의 그릇을 퍼내 선반 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것처럼 잘 닦인 그릇들이 대접은 대접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분류가 되어 가지런히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스님들이 한쪽으로 물러서자 영원스님이 말했습니다.

41) 불도(佛道)를 닦는 사람.

42)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지금 현판에는 안심료(安心寮)라고 하였음.

43) 금정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44) 여기서서는 크게 나무로 만든 설거지통을 가리키는 말.

45) 흰 떡이나 인절미를 쓸 때 쓰이는 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명학스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 흰죽이나 큰 솔 가득 끓이시오.”

흰죽을 쑤어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무쇠 그릇에 가득 담아 보제루 앞마당에 놓아두라고 한 뒤, 영원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가 지난번에 명학동지가 들어갈 곳이라고 한 돌 앞에서 주장자를 굴리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오십시오.”

그러자 흰 구렁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시장하시지요. 뭉뚱이가 그토록 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흰죽을 쑤어 놓았으니 드시러 가십시오.”

보제루 앞마당으로 구렁이를 데리고 와서 흰죽을 먹게 하니 그 많은 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무쇠 그릇에 머리를 찡고 죽으십시오.”

그러나 구렁이는 눈물을 똑똑 떨구며 그냥 있었습니다.

“그 징그러운 뭉뚱이가 무엇이 좋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물쭈물 대느냐!”

영원스님이 호통을 치자 구렁이는 무쇠 그릇에 머리를 세 번 찡고는 별별 떨다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 머리에서 푸른빛이 튀어나와 금정산을 넘어갔습니다. 영원스님은 주장자를 타고 푸른빛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푸른 빛이 김해벌판에 이르러서는 어떤 농가의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영원스님은 주장자로 후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푸른빛은 다시 마구간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번에도 영원조사는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그들은 금강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마침 그 곳에는 사십이 넘은 가난한 부부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부부가 방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은 그 집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영원스님은 조금 있다 밖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열 달 후에 사내아이가 태어날 것ियो. 그런데 그 아이는 당신 부부의 몸만 빌렸을 뿐, 이 집 아이가 아니니, 세 살까지만 기르다가 나에게 주시오.”

“정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리다.”

열 달 후, 스님의 말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중년의 부부는 어찌나 좋았던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저하고 약속하셨지요. 이제는 아이를 주시지요.”

“아니, 웬 중놈이기에 남의 아이를 함부로 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어 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부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이 못 이긴 듯이 그냥 돌아서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별안간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곧 숨이 넘어갈 듯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스님을 불러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영원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이 구멍을 오직 한 마음, 일심(一心)으로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황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뿔에 받쳐 죽을 터이니, 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나를 부르거라.”

그 날부터 그 아이는 영원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가자 스님이 말한 대로 황소 한 마리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황소의 뿔을 꼭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대오(大悟)⁴⁶⁾하였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 스님이 바로 내 상좌였구나.’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을 제도한 영원조사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 수도생활을 계속하다가 만년에는 지리산으로 옮겨 영원사(靈源寺)라고 하는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25~35쪽.

[금정구 설화 기

박권농의 아들⁴⁷⁾

임진란이 일어나기 직전 박권농이란⁴⁸⁾ 사람이 동래에 살았다. 그는 아무 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거들어 주고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비천한 몸이었다. 내일을 위한 꿈이라곤 손톱만

46) 번뇌가 없어지고 진리를 깨달음.

47) 이 설화는 보통 ‘동래구 설화’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설화 중에 박권농의 집이 현재의 금정구 서동으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금정구의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에서는 제목이 ‘박권농과 그 아들’로 되어 있다(편찬자 박경수 주).

48) 박권농(朴勸農)이란(『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치도 없는 권농에겐 술만이 약이 될 수 있는 벗이었다.

어느 날 만취가 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미남동(은천2동) 앞을 지나 지금의 서천교에 다다랐을 땐⁴⁹⁾ 술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 그는 드디어 강변의 모래밭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다.⁵⁰⁾ 얼마 뒤 권농은 깊은 잠속에서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어⁵¹⁾ 눈을 떠보니⁵²⁾ 검정옷을 입은 사나이가 자기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었다. 도둑은 남루한 권농의 바지저고리까지 모두 벗겨갈 작정이었다.

이때 역마차를 타고 이곳을 순찰하던⁵³⁾ 순라군이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고 소리쳤다.⁵⁴⁾

「이분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소인이 술에 취했기에 저를 집까지 업고가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라군은, 「응,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라고 말하고 지나갔다.⁵⁵⁾

이때 도둑은 감사한 어조로,⁵⁶⁾

「감사하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둑이라고 말했으면 내 손에 맞아 죽었을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쥐고 있던 돌을 던졌다. 그리곤, 「제 등에 업히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죠」하며 권농을 업었다. 집에 도착한 권농은⁵⁷⁾ 도둑을 방으로 안내하고 식사라도 같이 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권농은, 「내 슬하엔 어린것이 하나뿐이니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없을까?」하고 묻자 도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라고⁵⁸⁾ 사라졌다.⁵⁹⁾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권농을 찾아온 양아들은 「아버지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제가 돈 2백량을 구포 만덕고개에 묻어 두었으니 오늘 밤중으로 집에 옮겨 가용에 쓰십시오」라고 말했다.

권농은 처음에 사양했으나 간곡한 양아들의 말에 못 이겨 돈을 가져온 후부터 생계가 유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권농의 외아들은 속리산으로 피난 갔다가 전쟁 후 동래로 돌아왔다. 이때 동래의 명문 서동⁶⁰⁾ 김씨 댁에는 출생 시부터 얼굴에 보자기를 쓴 듯 껍질로 덮여 입만

49) 서천교(西川橋)에 이르렀을 때(『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0) 술에 너무 취하여 의식을 잃고 냇가의 모래밭에 쓰러져 잤다(『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1)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2) 그가 눈을 떠보니(『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3) 이때 이곳을 순찰하던(『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4) “그 곳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 물었다. 권농이(『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5) 하고 지나갔다(『동래의 역사』, 182쪽).

56) 감격한 어조로 고개를 숙이고(『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7) 권농을 업어다가 집까지 왔다. 권농은(『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58) 하고(『동래의 역사』, 182쪽).

59) 생각한 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라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내어 놓고 숨을 쉬던 괴물같은 딸 하나가 있었다.

사람의 형용을 갖추지 못한 딸 때문에 그 부모들의 근심은 말할 수 없었다.⁶¹⁾ 그런데 이 혼기를 노친 노처녀에게 박권농의 아들이 청혼을 했으니 그녀는 물론 부모님네도 반가운 마음으로 허혼을 했다. 결혼식 날 신랑은 대(竹)를 갈 모양으로 銳利하게⁶²⁾ 장만해서 그것으로 신부의 전신을 덮고 있던 껍질을 베끼니 놀랍게도 천하절색의 미인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부부 사이의 금슬도 좋았거니와 서동 김씨의 세력으로 박씨의 후계들은 모두 잘 살았다고⁶³⁾ 한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3~434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2~183쪽.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8]

박권농의 아들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래(東萊) 지방에 박권농(朴權農)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 집이거나 힘든 일 곳은 일 가리지 않고 남의 일을 거들어 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하루 살이의 비천한 몸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꿈이라곤 아예 손톱만큼도 없는 그에겐 오직 술만이 온갖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약이 되어 주었고 또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미남동(美南洞)(지금의 온천2동) 앞을 지나서 지금의 서천교(西川橋)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강변의 모래밭에 쓰러져 그만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박권농은 깊은 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서 눈을 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검정옷을 입은 낯선 사나이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둑은 남루하기 그지없는 박권농의 바지저고리마저 모두 벗겨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역마차를 타고 마침 이 곳을 순찰하던 순라군(巡邏軍)⁶⁴⁾이 이 광경을 보고,

60) 서동(書洞)(『동래의 역사』, 183쪽).

61) 근심은 말할 수 없이 컸다(『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62) 예리하게(『동래의 역사』, 183쪽).

63) 후손들도 모두 잘 되었다고(『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

64) 밤에 도둑과 화재를 경계하고 사람이 오고가는 일을 보살피던 군졸.

“그 곳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권농은 알고도 모르는 체하면서,
 “이 분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소인이 술에 취했기에 저를 집에까지 업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라군은,
 “응,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때 도둑은 정말 고마운 듯한 어조로,
 “감사하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둑이라고 말했다면 내 손에 맞아 죽었을 것이오.”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곤 다시,
 “제 등에 업히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죠.”
 하며 박권농을 들쳐 업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권농은 도둑을 방으로 안내하고 간단히 요기(療飢)라고 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한사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권농은 다시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럼 자네, 내 슬하에 어린 것이 하나뿐이니,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없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둑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아버지로 모시겠사옵니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양아들이 박권농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제가 돈 2백 냥을 구포 만덕고개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중으로 집에 옮겨다가 가용(家用)에 쓰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권농은 몇 차례 사양했지만 간곡한 양아들의 요청을 못 이겨 그 돈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생계가 유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얼마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권농의 외아들은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속리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동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동래 명문(名門)인 서동(書洞) 김씨댁에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보자기를 뒤집어쓴 것처럼 흉측한 곱질이 덮여 있어 입만 내어놓고 숨을 쉬던 괴물같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용을 갖추지 못한 흉측한 딸 때문에 부모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기(婚期)를 놓친 노처녀에게 박권농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물론이거니와 양가의 부모들도 더할 수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承諾)하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대나무로 깎아서 칼 모양이 되게 날카롭게 만들어서는 그것으로 신부의 전신(全身)을 덮고 있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신부는 천하절색의 미인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로 이들 부부 사이의 금실(琴瑟)⁶⁵이 좋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동(書洞) 김씨의 세력으로 박권농의 자손들이 대대로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9~22쪽.

[금정구 설화 9]

원효대(元曉臺)의 전설

멀리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면서 들판과 동해가 내려다 보였다.

원효대사는 멀리 금빛 물 반짝이는 고요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의 주름살 깊은 이마엔 근심 걱정이 역력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자문했다. (출가한 사문이 살생의 계를 범한다면)

원효대사는 살생을 저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출가한 사문이 살생의 계를 범한다면.)

(그렇지만 이놈이 미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더 큰 살생의 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문이 자기를 위해 계율에 충실함은 소승(小乘)이 아닌가? 대승(大乘)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이 악업을 짓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분명 사문의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야만 한다.)

출가(出家), 그것은 이미 자기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심정은 석연치 않았다. (우매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 몸의 손에 피가 묻게 한다면……?)

원효대사는 다시 생각에 사로잡혔다.

(사문이 계율을 파함은 다른 어느 누가 살생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 사문의 파계는 사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죄업보다 크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자기에게 집착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를 버리자!)

65) 부부 사이의 화락한 즐거움.

결정을 내린 듯 원효대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정좌를 하고서 사미승을 불렀다.

『효봉아!』

『예, 스님.』

『너는 이 길로 마을에 내려가서 호로병 다섯만 구해 오너라. 바빠 갔다 오너라.』

『호로병은 갑자기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암자에도 너댓 개는 있는데요?』

『줄배가 있어서 그러니 떠나도록 하라. 서둘러서 사시(巳時)전에 돌아오너라.』

분부를 받는 효봉 사미가 암자를 내려간 다음 원효대사는 선의 경지에 들었다.

가끔 멀리 동해를 바라보곤 하는 원효대사의 눈은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주위의 산과 암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바람 한 점 없고, 날짐승의 푸드득거리는 날개짓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선에 들었던 원효대사는 문득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얼마 동안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럼 목전에 박두했던 말인가?』하고 중얼거렸다.

원효대사의 시선이 머문 수평선에 까만 점이 하나 둘 나타났다. 그 점들은 가까워지면서 차츰 배의 형상이 되어갔다. 동해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배는 수십 척이 넘었다.

원효대사는 조용히 선에 들었다.

신라 신문왕 원년(元年).

대마도를 거점으로 한 왜구들은 때를 노려 신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을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살육을 감행하고 있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던 신라의 백성들은 그때마다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볼모가 되어 낮선 땅으로 잡혀간 후 소식이 없는 사람의 수가 굉장했다. 조정에서는 왜구의 침입으로 근심이 그치지 않았다. 화랑을 기르고 정예부대를 육성했다. 그리고는 왜구들이 침입해 올 만한 곳에 정예부대를 매복시켜 두었다. 그러나 왜구들은 첩자들이 풀어서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약탈을 자행했다.

급보를 전해 받고 군대가 출동하면 그 때는 이미 마을은 소실되어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곤 했다.

신라 조정에서는 마침내 해전(海戰)을 치를 준비를 했다. 수병을 기르고 병선을 만들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극성스럽던 왜구의 침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자 신라는 다시 안일에 흘러 문약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때 왜구의 대병력이 침입해 온 것이다.

5만 명의 왜구들은 전비를 갖추고 동래를 비롯하여 울산 앞바다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첩자를 물로 올려 보냈던 것이다.

신라인의 한 사람인 원효대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5만 병력에게 짓밟힐 무고한 백성들과 살육으로 죄업을 지으려 하고 있는 왜구 5만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출가한 사문의 자비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원효대사는 무고한 신라의 백성을 구하고 죄업을 지으려는 왜구들을 구하려는 길, 즉 자기를 버리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타인의 죄업을 막기 위해선 5만의 살생까지도 감수할 작정이었다.

원효대사는 효봉 사미가 가져온 호로병 다섯 개를 탁 앞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눈에 가장 잘 띄는 높직한 바위 위에 신라 장군기를 꽂았다. 바람을 받아 뚝뚝처럼 나부끼는 신라 장군기 앞에서 원효대사는 합장을 했다. (이것이 금생에 있어서 이 몸의 마지막 죄업이 될 것이다.) 원효대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원효대사는 이미 예수를 넘은 노년이었다. 진정 파란 많은 생애였다.

원효대사는 스무 살 젊은 나이로 청운의 꿈을 안고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도중에 만주 벌판에서 인가를 만나지 못해 노숙을 하다가 갈증을 못 이겨 허덕였었다. 그러자 물그릇이 손에 닿아 달게 목을 축였다. 그러나 날이 밝은 뒤 그는 간밤에 자신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그는 당나라 행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뒤 수도를 위한 고행의 행각, 그러나 공주와의 사랑도 도둑떼들과 또한 파락호들과의 생활도 그를 지금처럼 번거롭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란 없단 말인가? 인간의 생사가 허무하도다.)

원효대사는 장군기가 펄럭이는 바위를 떠나 암자로 돌아왔다. 다시 정좌한 원효대사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다.

『효봉아,』

『예,』

곁에 모시고 있던 효봉 사미가 대답하며 곧 앞으로 나왔다.

『네가 지금 산을 내려 마을 어귀에 이르면 낮선 길손 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가 보아라.』

『스님, 가기만 하면 되옵니까?』

『가 보아라. 자연 알게 될 것이다.』

효봉 사미가 원효대사의 말을 쫓아 마을로 내려갔을 때였다. 마을 어귀에 두 사람의 뱃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저들이 스님이 말씀하신 길손들이란 말인가?) 효봉 사미는 주춤주춤 다가갔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일본말이었다.

효봉 사미는 곧 몸을 숨겼다.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어디엔가 신라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이네. 이대로 그냥 돌아가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돌아가자니, 그래 대장에게 돌아가서 뭐라 할 셈인가.』

『그야 뭐 적당히 말씀드리면 될 것 아닌가. 절벽 뒤 성안에 신라 군사가 가득하더라고 하든지…….』

『하지만 여보게, 가까운 어디에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 길에도 군사가 다녔음직한 흔적이란 도무지 없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없지 않는가? 성안에 군사가 주둔해있을 리 없네. 우리 올라가서 저기 세워진 장군기를 자세히 살펴보세.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네.』

그렇게 하기로 한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그들은 당황해 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들의 눈에 효봉 사미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손짓해서 불렀다. 효봉 사미가 다가가자 그들은,

『너는 이 산속을 잘 아느냐?』

『예.』

『우리는 동래 뱃사람들인데 구경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려무나.』

그들은 이렇게 속이며 길을 물었다.

『가르쳐 드려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중인데요?』

『저기 무슨 기가 펼쳐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고 싶구나.』

그들은 원효대사가 장군기를 꽃아 둔 바위끼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아, 예, 미륵암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그 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지지요.』

『마침 잘되었구나. 그런데 얘야, 저기 저 깃발은 뭐야? 근방에 군사라도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능청스럽게도 알고 싶은 것을 물었다.

『군사라니요? 미륵암에는 군사 같은 것은 없는데요.』 효봉 사미는 속으로, (알았다. 이 녀석들은 왜놈들의 첩자들이구나. 우리 스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로구나.) 생각이 그렇게 들자 효봉 사미는 그들을 주의해서 관찰했다.

『얘야, 그럼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단 말이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산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허지만 아마 없을 걸요?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효봉 사미는 모르는척하고 속아 주었다.

『그래 군사들이 없단 말이지?』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 보라는 듯이 슬며시 동료의 옆구리를 찔렀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내가 뭐라든?』

『그럼 저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세.』

『그러세.』

수군거리다가 그들이 오던 길로 되돌아서려 했을 때였다.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왔다.

『잠깐, 두 분 길손은 발을 멈추시오.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찌 바로 가시려 하오?』

바위 위에 우뚝 버티어 서서 그들을 제지시킨 것은 다름 아닌 원효대사였다.

그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니, 스님. 뭐 불일도 있고 해서 그만 돌아가야 할까 봅니다. 다음 기회에 들릅지요.』
한 사람이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발뺌을 하자 원효대사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아니 먼 길을 모처럼 오셨는데 그런 서운 데가 어디 있겠소. 어서 오르도록 하시오. 효봉아,
두 분을 모셔서 암자에 드시도록 하라.』
그들은 더 이상 꿈무늬를 뺄 수가 없어서 암자로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원효대사를 바라보던 그들은 그 위엄에 놀려 무릎을 꿇고 말했다.
『두 분은 어디서 오셨소이까?』
원효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장에서 왔읍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면 두 분께선 왜군들을 보셨겠군요.』
『아니, 왜군이라니요?』
그들은 놀라 원효대사를 쳐다보았다.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완연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어물쩍하고 시치미를 떼려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 했다고? 아니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다니.
그래 그대들은 왜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효대사의 호통에 그들 중의 하나가 잼싸게 비수를 빼들고 원효대사를 겨누었다.
『네 이놈! 고이 있지 못할까?』
호통 소리와 함께 비수를 휘두르던 사람은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원효대사 앞에 그들은 꿇어 엎드려서 목숨을 애걸했다.
원효대사는 그들을 앉혀 둔 채 호로병을 내오게 하여 나란히 세웠다.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찍 물러나면 너희 목숨은 보존될 것이나 만일
여기면 너희 둘은 물론이려니와 오만대군의 목숨이 없어질 것이로다.』
원효대사는 말을 하면서 호로병의 잘록한 부분에 둥그렇게 금을 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목이 조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호로병처럼 선이 그어지고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다. 그들은 상대방의 목과 호로병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호로병의 목을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리라.』
『스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빌었다.
『정 그렇다면 살려주마. 한데 내 말을 듣거라.』
원효대사는 다섯 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 이것을 줄 것이니 가지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잘 이르도록 하라. 밤새 회군하지 않으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

그들은 기다시피 산을 내려갔다.

『장군님 말도 마십시오. 조선에는 신술을 부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둘은 목숨을 겨우 부지해 가지고 돌아왔나이다. 그 대사는 우리의 계획을 미리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우리 군사 오만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중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을 대장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

그리고 호로병을 대장에게 바쳤다. 대장은 노발이었다.

『맹랑한 소리라고! 이 따위 호로병으로 나를 속일 셈이란 말인가?』

대장은 긴 칼을 쭉 빼어 단칼에 호로병을 쳤다. 호로병의 목이 대장의 칼을 받고 깨지는 순간, 대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으악!』

『이크, 날벼락일세!』

흔비백산 왜군들은 그 길로 뺑소니를 쳐 돌아 가버렸다.

지금도 동래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을 오르다보면 중턱에 원효사가 있고 그 바위에는 원효대사가 장군기를 꽂았던 자국이 남아 있다.

그 곳에서 오 리쯤 금정산을 더 오르면 미륵암이 있는데 그 곳에서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다는 것이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41~444쪽.

[금정구 설화 10]

원효대(元曉臺)의 전설

멀리 동해(東海)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산등성이, 그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면서 차츰 너른 들판과 푸른 물결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원효대사(元曉大師)는 멀리 금빛 물결로 반짝이는 고요한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살 깊은 이마엔 근심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출가(出嫁)한 사문(沙門)⁶⁶⁾이 살생(殺生)의 계(戒)를 범한다면……’

원효대사는 살생을 저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이 미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더 큰 살생의 업(業)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문이 자기를 위해 계율에 충실함은 소승(小乘)⁶⁷⁾이 아닌가? 대승(大乘)⁶⁸⁾

66) 도를 닦는 사람. 중.

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이 악업을 짓는 것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것은 분명 사문의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출가한 몸, 그것은 이미 자기를 버린 것이 라고 원효대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심정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이 몸의 손에 피가 묻게 한다면 ……?’

원효대사는 다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문이 계율을 어기는 것은 다른 어느 누가 살생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 사문의 파계(破戒)⁶⁹⁾는 사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죄업보다 크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자기에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를 버리자!’

드디어 마음을 정한 듯, 원효대사는 암자(庵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좌(正坐)를 하고서 사미승(沙彌僧)⁷⁰⁾을 불렀습니다.

“효봉아!”

“예, 스님.”

“너는 이 길로 마을에 내려가서 호로병 다섯만 구해 오너라. 바빠 갔다 오너라.”

“호로병(壺蘆瓶)은 갑자기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암자에도 너댓 개는 있는데요?”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떠나도록 하라. 어서 서둘러서 사시(巳時)⁷¹⁾ 전에 돌아오너라.”

분부를 받은 효봉 사미가 암자를 내려간 다음 원효대사는 선(禪)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가끔 멀리 동해를 바라보곤 하는 원효대사의 눈은 형형(熒熒)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주위의 산과 암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날짐승의 푸드득거리는 날개 짓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의 경지에 들었던 원효대사는 문득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럼 이미 눈앞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원효대사의 시선이 머문 수평선에 까만 점이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그 점들은 가까워지면서 차츰 배의 형상이 되어갔습니다. 동해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배는 수십 척이 넘었습니다.

원효대사는 다시 조용한 선에 들었습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元年).

대마도를 거점으로 한 왜구들은 기회를 노려 신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을 침입하여 약탈

67) 대승과 더불어 불교의 두 가지 큰 파의 하나로 개인적 해탈을 위한 교법임.

68) 널리 인간의 전반적 구제를 목표로 하는 교법임.

69) 계율을 깨뜨려서 지키지 않음.

70) 불도를 닦은 지 얼마 안 되는 스무 살 이하의 어리고 미숙한 중.

71) 지금의 상호 9시에서 11시까지를 가리킴.

(掠奪)과 방화(放火), 살육(殺戮)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노래하고 있던 신라의 백성들은 그 때마다 곤욕(困辱)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불모가 되어 낫선 땅으로 잡혀 간 후 소식이 없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조정(朝廷)에서는 왜구의 침입으로 근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랑을 기르고 정예부대를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나 왜구들은 첩자(諜者)들을 풀어서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급보(急報)를 전해 받고 군대가 출동하면 그 때는 이미 마을은 소실(燒失)되어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신라 조정에서는 마침내 해전(海戰)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병(水兵)을 기르고 병선(兵船)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극성스럽던 왜구의 침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라는 다시 안일(安逸)에 흘러 문약(文弱)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왜구의 대병력(大兵力)이 침입해 온 것입니다.

5만 명의 왜구들은 전쟁 준비를 갖추고 동래를 비롯하여 울산 앞 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첩자를 물으로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신라인의 한 사람인 원효대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5만 왜구에게 짓밟힐 죄 없는 백성들과 살육으로 죄업을 지으려 하고 있는 왜구 5만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가한 사문의 자비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원효대사는 무고(無辜)한 신라의 백성을 구하고 죄업을 지으려는 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타인의 죄업을 막기 위해 5만의 살생까지도 감수할 작정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효봉 사미가 가져온 호로병 다섯 개를 탁 앞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눈에 가장 잘 띄는 높직한 바위 위에 신라 장군기(將軍旗)를 꽂았습니다. 바람을 받아 뚝뚝처럼 나부끼는 신라 장군기 앞에서 원효대사는 합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생(今生)에 있어서 이 몸의 마지막 죄업이 될 것이다.’

원효대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5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란 없단 말인가? 인간의 생사(生死)가 허무하도다.’

원효대사는 장군기가 펄럭이는 바위를 떠나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좌한 원효대사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효봉아”

“예”

곁에 모시고 있던 효봉 사미가 대답하며 곧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지금 산을 내려가 마을 어귀에 이르면 낫선 길손 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가 보아라.”

“스님, 가기만 하면 되옵니까?”

“가보아라. 가보면 자연 알게 될 것이다.”

효봉 사미가 원효대사의 말을 좇아서 마을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두 사람의 뺏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들이 스님이 말씀하신 길손들이란 말인가?’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소기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일본말이었습니다. 효봉 사미는 몸을 숨겼습니다.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어딘가에 신라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이네. 이대로 그냥 돌아가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니? 그래 대장에게 돌아가서 뭐라 할 셈인가?”

“그야 뭐, 적당히 말씀드리면 될 것 아닌가? 절벽 뒤 성 안에 신라 군사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든지…….”

“하지만 여보게, 가까운 어디에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 길에도 군사가 다녔음직한 흔적이란 도무지 없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없지 않은가? 성 안에 군사가 주둔해 있을 리 없네. 우리 올라가서 저기 세워진 장군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네.”

그렇게 하기로 한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해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효봉 사미가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짓으로 효봉 사미를 불렀습니다. 효봉 사미가 다가가자 그들은,

“너는 이 산 속을 잘 아느냐?”

“예”

“우리는 동네 뺏사람들인데 구경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려무나.”

그들은 이렇게 속이며 길을 물었습니다.

“가르쳐 드려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중인데요?”

“저기 무슨 기가 펠적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고 싶구나.”

그들은 원효대사가 장군기를 쫓아 둔 바위끼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습니다.

“아, 예, 미륵암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지지요.”

“마침 잘 되었구나. 그런데 애야, 저기 저 깃발은 뭐냐? 근방에 군사라도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능청스럽게도 알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군사라니요? 미륵암에는 군사 같은 것은 없는데요.”

효봉 사미는 속으로,

‘알았다. 이 녀석들은 왜놈들의 첩자들이구나. 우리 스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들을 주의해서 관찰했습니다.

“얘야, 그럼 뒷산 성벽 안에서 군사들이 없단 말이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산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없을 걸요?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효봉 사미는 모르는 척하고 속아 주었습니다.

“그래, 군사들이 없단 말이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보라는 듯이 슬며시 동료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내가 뭐라든?”

“그럼 저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세.”

이렇게 잠시 수군거리다가 그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서려 했을 때였습니다.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잠깐, 두 분 길손은 발을 멈추시오. 어려운 걸음을 하었는데 어찌 바로 가시려 하오?”

바위 위에 우뚝 버티어 서서 그들을 제지시킨 것은 다름 아닌 원효대사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스님. 뭐 불일도 있고 해서 그만 돌아가야 할까봅니다. 다음 기회에 들릅지요.”

한 사람이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발뺌을 하자 원효대사는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먼 길을 모처럼 오셨는데 그런 서운한 데가 어디 있겠소. 어서 오르도록 하시오. 효봉아, 그 분들을 모셔서 암자에 드시도록 하라.”

그들은 더 이상 꿈무늬를 뺄 수가 없어서 암자로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원효대사를 바라보던 그들은 그 위엄에 놀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분은 어디서 오셨소이까?”

원효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장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면 두 분께선 왜군들을 보셨겠군요.”

“아니, 왜군이러나요?”

그들은 놀라서 원효대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완연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어물쩍하고 시치미를 떼려 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했대구? 아니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다니. 그래, 그대들은 왜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효대사의 호통에 그들 중의 하나가 쩍싸게 비수를 빼들고 원효대사를 겨누었습니다.

“네 이놈! 고이 있지 못할까?”

호통 소리와 함께 비수를 휘두르던 사람은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원효대사 앞에 그들은 꿇어 엎드려서 목숨을 애걸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들을 앉혀 둔 채 호로병을 내오게 하여 나란히 세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찍 물러나면 너희 목숨을 보존될 것이나, 만일 어 기면 너희 둘은 물론이려니와 5만 대군의 목숨이 없어질 것이로다.”

원효대사는 말을 하면서 호로병의 잘록한 부분에 둥그렇게 금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로병처럼 선이 그어지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과 호로병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호로병의 목을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리라.”

“스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정말 몰라뵈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빌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살려주마. 한데 내 말을 듣거라.”

원효대사는 다섯 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 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이것을 줄 것이니 가지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잘 이르도록 하라. 밤새 회군하지 않으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엉금엉금 기다시피 산을 내려갔습니다.

“장군님, 말고 마십시오. 신라에는 신술(神術)을 부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둘은 목숨을 겨우 부지해 가지고 돌아왔나이다. 그 대사는 우리의 계획을 미리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로병을 가지고 우리 군사 5만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중(陣中)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을 대장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로병을 대장에게 바쳤습니다. 대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맹랑한 소리라고! 이 따위 호로병으로 나를 속일 셈이란 말인가?”

대장은 긴 칼을 쭉 빼어 단칼에 호로병을 찼습니다. 호로병의 목이 대장의 칼을 받고 깨지는 순간, 대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크, 날벼락일세!”

혼비백산(魂飛魄散), 왜군들은 그 길로 뺑소니를 쳐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동래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계곡을 오르다 보면 중턱에 원효암이 있고, 근처 바위에는 원효대사가 장군기를 꽂았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곳에서 오리쭈금정산을 더 올라가면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다고 전해지는 미륵암이 있습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00~113쪽.

[금정구 설화 11]

왜구의 침범을 막은 원효대사의 호로병⁷²⁾

원효대사가 범어사 미륵암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대사가 미륵암에 계시며 동해를 바라보았다. 5만의 왜적이 수십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해운대 앞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원효대사는 살생계율을 중히 여기는지라 배를 타고 온 왜적을 다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륵암 원효굴로 들어가 사미승을 불러

“빨리 마을로 내려가 호로병 다섯 개를 구해오너라.”

하였다. 사미승은 대사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내려가 호로병 다섯 개를 구해 빨리 돌아왔다.

원효대사는 독성각 오른쪽에 서 있는 부처님 같이 생긴 바위에 신라 장군기를 꽂고, 첩자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미승에게 마을로 다시 내려가 수상한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데려오라 지시하였다.

왜적의 대장이 살펴보니 신라 군사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탐군으로 두 첩자를 뽑아 신라인의 뱃사람으로 변장시켜 적정(敵情)을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사미승이 신라인으로 변장한 왜군의 첩자를 발견하고 데려고 오려고 하는데, 첩자는 사미승을 통해 신라 병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 가려고 하였다.

그 때 장군기가 세워진 바위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왔다.

“잠깐, 두 분 길손은 발을 멈추시오.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찌 바로 가시려 하오.”

바위 위에 우뚝 버티어 서서 첩자의 갈 길을 제지시킨 것은 원효대사였다. 원효대사는 첩자를 불러

“그대들은 뱃사람으로 변장한 왜인이 아닌가?”

라 호통을 치니, 첩자 한 명이 짹짹 비수를 빼들고 원효대사를 겨누었다.

“네 이놈! 고이 있지 못할까?”

라는 호통소리와 함께 비수를 휘두르던 첩자는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원효대사 앞에 첩자들은 꿇어 엎드려서 목숨을 애걸하였다.

원효대사는 첩자를 앉혀 둔 채 사미승에게 호로병을 다섯 개를 가져오라 하여 나란히 세웠다.

72) 주영택, 『그 사연이 숨쉬는 금정이야기』, 금정구, 2006.

『삼국유사』 제5권 신주 제6 혜통항룡조의 혜통이 정공(鄭恭)과 친밀 한 사이라 하여 혜통을 잡고자 하여 왕망사에 군사를 보내 에워싸니 혜통이 조그만 사기병과 붉은 붓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행한 주밀(呪密) 행위와 같다.

그리고,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찍 물러나면 너희 목숨은 보존될 것이나, 만일 어 기면 너희 둘은 물론이려니와 5만 대군의 목숨이 없어질 것이로다.”

원효대사는 말을 하면서 호로병의 잘록한 목 부위에 붓으로 동그랗게 선을 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목이 조여 들었다. 그리고 호로병처럼 선이 그어지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과 호로병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호로병의 목을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리라.”

첩자들은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빌었다.

“정 그렇다면 살려주마. 한데 내 말을 듣거라.”

원효대사는 다섯 개의 호로병에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어 그 중 세 개를 그들에게 주면서, “내 이것을 줄 것이니 가지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잘 이르도록 하라. 밤새 회군하지 않으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첩자들은 대사 앞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산을 재빨리 내려가 부대로 돌아가서 대장에게 그간 자기들이 당한 일을 사실대로 고하면서 호로병을 바쳤다.

“장군님, 금정산 미륵암에는 신술(神術)을 부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둘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 돌아왔습니다. 그 대사는 우리의 작전을 미리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로병을 가지고 우리 군사 5만 명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맹랑한 소리구나! 이따위 호로병으로 나를 속일 셈이란 말인가?”

하고 긴 칼을 빼어 단칼에 호로병을 찼다. 호로병의 목이 대장의 칼을 맞고 깨지는 순간 대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흔비백산한 왜군들은 대장이 죽는 광경을 보고, 그 길로 배를 돌려 뺨소니쳐 돌아가 버렸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2]

원효대사의 장군기와 호로병

금정구 금성동에 전해지는 원효대사의 일화다. 왜적들의 수영만 침입을 목격한 원효대사가 호로병 신술을 보이며 적군들을 쫓아냈으나, 그 신술의 위엄을 알지 못했던 왜장의 어리석 음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왜장이 죽자, 왜적들은 그 길로 뺨머리를 돌려 줄행랑 치며 돌아갔다.

원효대사(617~686)가 금정산 미륵암에 주석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동해를 바라보던 원효는 5만의 왜적이 수십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수영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살생계율을 중히 여기는 원효는 왜적을 다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효굴로 들어가 사미승을 불러

“빨리 마을로 내려가 조롱박 모양의 호로병 5개를 구해오라.”

고 시켰다. 그리고는 독성각 우측의 미륵바위에 신라 장군기를 꽂고, 사미승에게 마을로 다시 내려가 수상한 자가 있거든 데려오라 지시했다.

왜적의 대장은 신라 군사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우선 두 명의 정탐군을 뽑아 신라 뱃사람으로 변장시켜 적정(敵情: 적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고 시켰다.

왜군의 첩자로 의심되는 두 사람을 발견한 사미승은 그들을 미륵암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첩자는 이미 신라 군대의 방어 태세가 전혀 준비가 돼 있는 사실을 알고 뒤돌아가려고 하였다. 그 순간 장군기가 세워진 미륵바위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두 분은 길손은 발을 멈추시오.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찌 바로 가시려 하오.”

미륵바위에서 우뚝 서 첩자의 갈 길을 제지시킨 이는 다름 아닌 원효였다.

첩자에게 도착한 원효는 말했다.

“그대들은 뱃사람으로 위장한 왜적이 아닌가?”

라 호통을 치니, 그중 한 명이 잭싸게 칼을 빼들고 원효를 겨누었다.

“네 이놈! 고이 있지 못할까?”

라는 원효가 큰소리로 꾸짖자 칼을 휘두르던 첩자는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첩자는 무릎 꿇고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원효는 사미승에게 호로병 5개를 가져오라고 한 뒤, 건네받은 호로병을 나란히 세웠다.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찍 물러나면 목숨은 보존될 것이나, 만일 어기면 너희 둘은 물론이고 5만 명 대군의 목숨이 모두 없어질 것이로다.”

원효가 호로병의 잘록한 목 부위에 붓으로 동그랗게 선을 긋자 첩자 두 사람의 목이 조여 들었다. 그리고는 호로병처럼 목에 선이 그어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첩자 두 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목과 호로병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호로병의 목을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리라.”

첩자들은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빌었다.

“정 그렇다면 살려주마. 한데 내 말을 듣거라.”

원효대사는 5개의 호로병에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3개를 첩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줄 터이니 갖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여기서 본 것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 밤새 회군하지 않으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첩자들은 원효 앞에서 영금영금 기어 나와 산을 곧장 대장에게 달려가 자기들이 당한 일을 사실대로 고하며 호로병을 바쳤다.

“장군님, 미륵암에는 신술을 부리는 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습니다.

그 대사는 우리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로병을 가지고 우리 군사 5만 명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맹랑한 소리로구나! 이따위 호로병으로 나를 속일 셈이란 말인가?”

하고 장검을 빼 단칼에 호로병을 내리쳤다. 호로병의 목이 대장의 칼을 맞고 깨지는 순간, 대장 역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몹시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던 왜적들은 대장이 죽는 광경을 보고, 그 길로 뺏머리를 돌려 뺩소니치며 돌아갔다.

원효가 장군기를 쫓아 왜적 5만 명을 물리친 미륵바위를 필자가 1990년에 발견했다. 독성각 앞 미륵바위에 움푹 패인 구멍(깊이 60cm)은 호국 사찰의 전설이 서려 있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91~193쪽.

[금정구 설화 13]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

금성동 죽전마을에서 구포 쪽 길로 약 1km쯤 내려가면 마사(磨砂)로 된 모래고개가 있는데, 숲이 우거져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죽전마을에 흠어미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스무 살 되던 겨울에 어미가 병이 났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보니 변변한 약 한 첩도 쓸 수 없는 처지지만 아들은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성껏 했다.

그러나 어미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마침내 아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새벽마다 정화수를 마당가에 차려놓고 백일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백여 일이 되던 날, 눈이 펄펄 쏟아지는 저녁에 마당가에 정화수를 차리고 전처럼 기도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백발노인이 백호를 타고 앉아서 청년을 내려다보고 ‘나는 이 고을의 산신령이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특별히 너에게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알려 주겠으니 똑똑히 들어라. 이 마을 밑의 모래고개 위의 산꼭대기에는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을 것이니, 그걸 캐서 네 어미에게 달여 먹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하고는 사라졌다.

아들은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자기가 정화수를 떠놓은 소반에 엎드려 잠이 깜박 든 것이었다.

아들은 이튿날 아침 날이 새자마자 눈 덮인 모래고개 위의 산꼭대기를 오르기 시작하였으나, 눈이 많이 쌓여 한 나절이 넘어서야 겨우 산 중턱까지 도달하였다. 그 때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 앞을 가리고 서서 꼬리를 흔들며 자기의 등을 타라는 시늉을 했다.

아들이 자세히 보니 어젯밤 꿈에 본 그 호랑이라 산신령이 보내준 것이라 믿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커다란 바위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다.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 보니 겨울인데, 눈 속에 파란 약초가 나 있어 그것을 캐어 품으니 또 호랑이가 자기가 태워준 곳까지 와서 그를 내려 주었다. 아들은 집으로 내려와 약초를 달여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병이 나았다. 그 뒤 아들은 좋은 처녀를 만나 결혼하여 어머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4]

두구동의 효자 강성구

강성구(姜聖耆)는 진양 강씨로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를 봉양하는데 성심을 다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묘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기도 하였다. 3년상을 끝내기 하루 전날 밤에 그를 지켜주던 호랑이가 돼지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여막 옆에 가져다 놓으며 꼬리를 흔들고 눈동자를 굴리며 등에 지고 가겠다는 시늉을 하여 그 등에 지워주고 따라가니 자기 집에 도착하였다.

그는 감격하여 호랑이에게

“돼지를 제수로 쓰라는 것이냐?”

하고 물으니, 호랑이가 곧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다. 가난한 그는 대상에 돼지고기를 쓰게 되었다. 그 뒤 그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오륜행실록』의 효행록에 실리게 되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5]

삼밭골의 산삼

동래에 살림은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금실이 좋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노모의 오랜 병환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부는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길손이 잠간 쉬어가게 해달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길손은 마침

노모의 병 구완을 하던 부부를 보고

“지극한 효심에 감동을 받았으며 집 뒤쪽 골짜기에 효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수백 년 된 산삼이 있다 하니 한 번 올라가 보라.”

고 권유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노모 병세에 마음을 졸이던 부부는 귀가 번쩍 띄었다. 그 말을 듣고 골짜기를 찾아간 부부의 눈에 정말 산삼 잎이 보였다. 산신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한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합장 재배하고 소중하게 그 중 한 뿌리를 캐어내 바로 옆 바위틈에 흐르는 물을 떠와 정성을 다해 달여 드렸다.

그 이후 노모의 기운은 점차 회복되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아들내외랑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산삼을 발견한 곳이 지금의 금정산 산밭골 약수터라 전해지고 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6]

금정산의 삼밭골

금슬 좋은 부부가 병환으로 고생 중인 노모를 지극히 모시며 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효심에 감동한 길손 한 명이 효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산삼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부부가 산삼을 발견한 곳이 지금의 삼밭골 약수터이며, 노모의 병은 산삼 뿌리를 달여 먹고는 말끔히 나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효심 깊고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살림이 가난해도 언제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노모의 오랜 병환에도 부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길손이 잠깐 쉬어가게 해달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길손은 마침 노모의 병 수발을 하던 부부를 보고 지극한 효심에 감동을 받았으며, 집 뒤쪽 골짜기에 효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수백 년 된 산삼이 있다 하니 한번 올라가보라고 권유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노모 병세에 마음을 졸이던 부부는 귀가 번쩍 띄었다.

그 말을 듣고 골짜기를 찾아간 부부의 눈에 정말 산삼 잎이 살랑거렸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합장한 뒤 소중하게 그 중 한 뿌리를 캐내어 바로 옆 바위틈에 흐르는 물로 정성을 다해 달여 드렸다.

그 이후 노모의 기운이 점차 회복되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아들 내외랑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산삼을 발견한 곳이 지금의 삼밭골 약수터라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이곳을

잘 보존해야겠다는 후손들의 뜻이 모아졌다. 삼발골 약수터를 지금의 약수터로 개발한 김만수, 배석원, 김덕진 씨 등 세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김장수 씨는 아직도 약수터를 청소하며 잘 가꾸고 있다. ‘약수터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삼발골의 정취를 되살리고자 더덕, 도라지, 머루, 인삼과 장뇌삼을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심어서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2000년 태풍 예위니아로 유실된 주위를 말끔히 복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천이백여 만 원의 경비와 천 오백여 명의 일손들의 굵은 땀방울이 큰 몫을 차지했다.

또한, 장전1동 자취위원회가 지원한 책장과 금정문화원에서 지원한 도서로 삼발골 문고도 운용되고 있으며, 평일에는 하루 삼백여 명, 휴일에는 천여 명의 이용객이 이곳을 즐겨찾고 있다. 일 년 내내 가뭄이나 장마에도 물줄기의 양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으며, 또한 맑은 약수터로 수질을 인정받았으나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삼발골을 주제로 하는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 정취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행사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87~190쪽.

[금정구 설화 17]

남평 문씨의 효행

남산동에 산 효녀 문연옥(1889-1946)은 11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에 아버지가 목 바로 밑에 등창이 나 심하게 앓게 되었다.

어린 딸로서 홀로 된 아버지가 등창까지 나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처녀의 입으로 등창의 고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빨기를 밥 먹듯 하게 되자, 마침내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두 달이 지나자 등창의 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석 달만에 새 살이 돌아나고 감쪽같이 낫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등창 독이 옮겨와 입이 부어오르고 급기야 불러터지게 되었다. 천지신명도 이런 사실에 감동하였는지 어린 처녀 가슴에 독이 스며드는 정황을 두고 보지는 않았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씻은 듯 낫게 되었다.

향리(鄉里)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씨의 효행을 결코 묻어둘 수가 없어 효행상을 주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극구 사양하였다.

효녀 문씨는 17세에 복면 남산리 서거덤 송정조씨에게 시집을 갔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8]

열녀 김효문의 처

조선 정조 때 동래부의 진산(鎭山)인 윤산(輪山=구월산) 기슭의 기찰 마을에 김효문(金孝文)이라는 선비가 처 김해 김씨와 살고 있었다.

젊은 김씨 부부는 한 여름 밤에 더위를 식히려고 마당에 멍석을 펴고서 모깃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나타나 남편을 물고 가려는데, 잠결에 놀라 깨어난 부인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았다.

남편을 문 호랑이는 그 부인이 꼬리를 잡자 산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마을을 벗어나 논밭을 지나고 바위와 나무 투성이인 산속으로 호랑이는 남편을 물고 뛰는데 부인은 호랑이의 꼬리를 결코 놓지 않았다.

그만 호랑이도 그의 꼬리를 잡고 있는 부인에게 부대껴 남편을 그대로 놓고 도망을 쳐버렸다. 부인은 엽은골 입구에서 남편을 구출해 업고 집까지 내려왔으나, 남편이 곧바로 죽자 부인도 이내 절명하고 말았다.

날이 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발견된 김씨 부인은 열녀로 추앙을 받았다.

1789년(정조 13년) 10월에 ‘열녀학생김효문처김해김씨지려(烈女學生金孝文妻金海金氏之閭)’이라 쓴 비각을 세우게 되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19]

산성마을과 국청사(國淸寺)

지금의 산성마을이 폐허로 버려져 있을 때였다.

기장군 철마에 살던 힘이 좋기로 소문난 김 장사(壯士)가 이곳에 들어와 마을을 일구었다. 그는 한꺼번에 수십 명의 장정들을 상대로 힘겨루기 시합을 벌이기도 했고, 혼자서 팔 한 섬을 김해에서 지고 오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호랑이가 뒤에서 잡아당겨도 꿈쩍달짝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하의 김 장사도 처음 국청사 자리에 거주지를 마련했다가 밤마다 전쟁 중에 죽어간 이들의 신음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무서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국청사가 세워진 뒤에도 그 오열이 여전히 들렸으나 스님들이 지장보살 보은3층석탑을 세우고 떠도는 고힌들을 극락세계로 천도한 이후부터는 청정한 기도도량(祈禱道場)이 되었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0]

수내마을의 장자와 새청못

공덕산 기슭 부근의 두구동 수내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골칫거리가 되었다.

마님은 어떻게 하면 과객이 적게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지나가는 도사가 부잣집에 들르게 되었다.

마님은 도사에게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식량을 감당할 수 없어 못살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도사는

“좋은 방도가 있지요. 집 앞에 웅덩이를 파면 과객도 적게 오고 편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마님은 하인들과 소작인을 시켜 못을 파게 하였다. 골짜기의 거랑을 두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논 한 마지기만큼의 큰 못을 파니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는 후 과객은 끊어지고 3년만에 부잣집은 망해버렸다.

새가 날아갔다 하여 ‘새청못’이라 하고, 수내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새청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1]

회천리 허씨장자와 소머리 바위

고려 중엽 때 금정구 회천마을에 김해 허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부자였던 허장자가 살고 있었다.

허장자 집터는 명당자리로 서쪽으로 앉혀져서 오륜대쪽에서 냇물이 집 앞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나가는 물길은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동대(東臺) 아래에는 ‘애기소’가 있어 물길이 깊어 휘돌아 나갔다고 한다.

허장자는 화기산을 중심으로 꽃밭등과 빙고등에 얼음을 저장 관리하며, 부잣집 대가로 마을에서 울리고 당당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그 마을 앞에 있는 소머리바위에 소뿔같이 생긴 두 개의 바윗뿔이 솟아 있었다.

허장자 집에는 과객이 그칠 날이 없었다. 많은 하인들도 과객 치다꺼리에는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어느 날 어른들이 출타중에 그 집 며느리가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시주를 하면서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과객의 출입을 끊을 수
있는 비법이 없으신지요.”

라고 물었다. 스님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나 후회할 것인데……”

하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자 며느리는 안채에 들어가서 동전 꾸러미를 들고 와서 시주를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스님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고 재차 다짐하고는

“저 앞산에 이 집을 보고 있는 소머리바위의 소뿔 두 개를 모두 철거하면 된다.”

고 하였다.

허장자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어른들 몰래 하인을 시켜 소머리바위의 소뿔을 모두 부셔
흔적을 없애버렸다.

그 후부터 허장자의 부잣집으로 들어오던 물길은 홍수에 차츰 직선으로 물길이 나고, 집
안에서 보면 들어오는 물은 없고 나가는 물길만 보였다.

그리하여 허장자 부잣집은 해마다 가세가 기울어지니, 재산은 빠지고 집안사람이 자꾸 병이
들어 허장자는 망하여 어디론가 이주하고 말았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2]

남산의 이씨 집안

진한시대 하늘에서 표암봉(瓢巖峯)에 내려온 알평(諷平)의 후손인 경주 이씨가 범어사 창건
과 비슷한 시기에 금정구 남산리에 이주하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남산 기슭의 기름지고 넓은 들판과 범어천을 한 눈에 굽어보며 나날이 이씨 집안은 번성해
갔다.

그런데 이씨들의 눈에 남산 본동을 감싸고 돌던 남산 자락의 등성이가 눈에 거슬렸다.

마침내 이씨들은 마을의 장정들과 하인들을 동원하여 등성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남산과
이어지는 곳의 맥을 끊고 평지로 만들어갈 때쯤 갑자기 등성이었던 곳에서 흰 김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땅 속에서 새하얀 평 한 마리가 날라나오더니 남산 쪽으로 들어가버렸다.

일을 하던 장정과 하인들은 금정산 산신이 노한 줄 알고 급히 흙을 도로 매우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씨 집안은 발각 뒤집혔다.

“산신을 노하게 했으니 어찌 할까?”

하며 뒤늦게 후회하며 복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씨 집안은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결국 남산리를 한 집 두 집 떠나버리고, 대신 타성바지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3]

해월사의 노스님과 이무기

금정산 사시골의 계곡 중간 지점에 물 위에 떠있는 듯 보이는 너럭바위의 중앙에는 어린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만큼 되는 바위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이무기 동굴’이라 한다. 이 동굴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 더운 바람을 내는 이무기가 살았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날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히 깔리더니 마을사람들에게 “잘 들어라. 나는 천년 묵은 이무기인데, 처녀 백 명만 잡아먹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일 년에 처녀 한 명을 달 밝은 보름날 사시골 너럭바위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과 우레가 그치고 햇볕이 짹짹 났다.

이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마을에 큰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매년 처녀를 한 명씩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처녀 한 명씩을 이무기에게 바쳤다. 99명의 처녀를 바친 뒤 마지막 한 명의 처녀만 바치면 되는데, 마을에 처녀가 없어 마을사람들이 고민에 처해 있을 때, 해월사의 노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죽을 나이도 다 되었으니 이 몸을 마을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겠다.’라 생각하고, 이무기를 죽일 궁리를 한 끝에 달 밝은 밤에 노스님은 독약을 칠한 실을 절 당간지주에 묶고 손에 독실을 가지고 너럭바위 위에 알몸으로 앉아 있었다.

밤 자정경 드디어 동굴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기어 나와 이제 처녀 한 명만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생각으로 처녀인지 스님인지도 모르고 노스님을 덩석 삼켜버렸다. 그런데, 삼켜버린 몸에 독실이 매어있는 줄도 모르고 이무기는 독실을 따라 기어 나오며 독실을 삼키다가 그만 몸 속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4]

해월사 노스님과 이무기

옛날 금정산 사시골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사시골 너럭바위 위에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이무기를 죽일 궁리를 하던 해월사 노스님은 자신의 목에 독실을 묶었다. 처녀인 줄 알고 노스님을 삼킨 이무기는 독이 퍼져 죽었고 너럭바위만 천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시골에는 금정산성을 지키는 방어 사찰인 해월사(海月寺)가 있었다. 한때는 향불이 피워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와 묵탁, 염불소리가 어우러지고 많은 보살들이 드나들던 사찰이었다. 특히 이곳은 금정산성 내성(북문~서문)을 승군 100명으로 방어한 승영사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조차 전하지 못하고 풀숲에 묻힌 절터로만 남아 있다.

금정산 사시골의 아름다운 계곡 중간 지점, 파란 물 위에 떠 있는 살찐 웅장한 너럭바위의 중앙에는 어린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바위 구멍이 있다. 일명 '이무기 동굴'이다. 이 동굴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 더운 바람을 내는 이무기가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금정산 깊숙한 곳에 지금은 부산학생교육원(금정구 북문로 178)이 자리 잡고 있으나, 옛날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이 깔리더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라. 나는 천년 묵은 이무기인데, 처녀 백 명만 잡아먹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일 년에 처녀 한 명씩을 달 밝은 보름날 사시골 너럭바위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과 우레가 그치고 짙은 햇볕이 났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큰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매년 처녀를 한 명씩 바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 마을에서는 매년 처녀 한 명씩을 이무기에게 바치는 일이 가장 큰 행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처녀란 처녀는 바닥이 나서 바칠 처녀가 없어 마을 이장이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해월사의 노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처녀를 없애는 이무기를 잡아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섰다.

이무기는 사시골의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에 살면서 아흔아홉 명의 처녀를 잡아먹고 이제 한 명만 먹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돼 있었다. 해월사의 노스님은 '이제 죽을 나이도 다 되었으니 이 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무기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 노스님은 달 밝은 밤에 독약을 칠한 실을 절 당간지주에 묶고 손에 독실을 가지고 너럭바위 위에 알몸으로 앉아 있었다. 자정께 드디어 동굴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기어 나와 처녀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생각으로 처녀인지 스님인지 모르고 노스님을 덥석 삼켜 버렸다.

그 순간 학수고대하던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겼으나 이게 웬일인가. 삼켜버린 몸에 독실이 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무기는 독실을 삼키다가 몸속에 독이 퍼져 계

곡물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았다.

지금도 사시골에는 옥수가 흘러내리고, 용이 못 돼 한을 품은 이무기 동굴 위에 너럭바위 만 천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69~172쪽.

[금정구 설화 25]

금정산 미륵암의 용굴

옛날 금정산 고당봉 남쪽 양지바른 미륵봉 아래 자리잡은 미륵암은 금샘에서 기운을 받은 명당지라 한다.

미륵암 염화전을 불사하기 전에는 연못이었고, 그 뒤 동굴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동굴에 사는 이무기는 몸체에서 발광한 빛으로 그 주위를 밝게 하였다.

세월이 지나 이무기는 여의주를 얻어 어느 날 천둥, 번개, 비바람과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불덩어리의 용으로 변신하여 승천하고 말았다.

이무기가 살다가 용으로 화신하여 승천한 동굴을 용굴이라 하는데, 용굴이 있는 미륵봉 아래에 원효대사가 미륵암을 짓고 신통한 도술로 동래를 수호하였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6]

금정산 계명봉의 암수탉 바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금정산 부근에서 절터를 물색하던 중 한밤중에 느닷없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 그 곳에 암자를 세워 계명암이라 하고 그 봉우리를 계명봉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한다.

계명봉의 형국은 닭의 형국이고, 남쪽으로 멀리 보면 대마도의 모습이 지네의 형국으로 보인다. 지네의 천적(天敵)이 닭이므로 대마도의 지세는 움추려 들기 마련이었다는 것이다.

계명봉의 계명암 위에 수탉과 암탉의 모습을 한 큰 바위 한 쌍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대마도의 형국을 살리기 위해 두 바위 중 달걀을 낳는 암탉의 바위를 밀어 없애버린 뒤부터 호국사찰인 범어사의 사세(寺勢)가 크게 기울어졌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7]

금정산 미륵암의 쌀바위

옛날 금정산 고당봉 남쪽 양지바른 미륵봉 아래 자리 잡은 미륵암의 염화전 오른쪽 산신각으로 오르는 왼쪽에 신비스러운 바위굴이다. 이 바위는 구멍에서 쌀이 나왔던 쌀바위였다. 아침에 일어나 이곳에 가면 그 당시 바위구멍에서 한 톨 한 톨 떨어져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 쌀로 끼니를 이어나갔다.

그 뒤 사미승이 쌀이 나오는 양이 적다고 막대기로 쌀이 나오는 구멍을 쭈신 후로는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펴펴 나왔다고 한다.

이 석간수는 가뭄, 장마 등에도 사시사철 일정 수량이 나오며 맑고 차고 시원하며 물맛이 달아 정현덕이 동래부사로 7년 재임시 병이 나서 물 당번을 두어 미륵암의 약수를 매일 떠오게 하여 먹고는 병도 낫고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8]

금정산의 미륵암의 노적가리 바위

금정산 미륵봉 아래 자리 잡은 미륵암은 범어사 산내 암자다.

원효대사는 미륵암의 뒤편 산봉우리의 생김새가 미륵불과 같아 불사하여 미륵암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미륵암 입구 염화전 좌우 쪽에 한데(露天)에 쌓아둔 곡식더미 같이 생긴 집채만한 노적(露積)가리 바위가 있어 ‘양식 걱정 없이 절대로 굶어죽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 암자이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29]

묘전화상과 목조미륵보살좌상

범어사 중창주(重創主)인 묘전화상(妙全和尚)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미륵전의 목조미륵보살이 꿈에 나타나 ‘미륵전 터 땅속에 있었는데, 왜놈들이 도굴하여 나를 업고 가다가 바다에

팽개쳐 버렸으니, 꺼내 미륵전에 얹혀 달라.’는 것이다.

묘전화상은 곧바로 가르쳐준 바닷가로 찾아가서 보니, 미륵보살의 몸체에는 조개껍데기가 다닥다닥 붙은 채 얼굴 반쪽만 보이고 물에 잠겨 있었다.

광해군 5년에 묘전화상은 미륵전을 중창하면서 이 목조미륵보살상이 앉아 있는 그 방위대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는 방왜(防倭)의 뜻으로 일본을 등지고 돌아 앉아 서쪽으로 향하게 안치하였다는 것이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0]

관세음보살과 법정스님

옛날 신라시대에 법정스님이란 분이 범어사 사자암에서 저녁 공양을 하고 밤늦게까지 불경을 읽다가 한밤중에 허기를 느끼고 밤참을 먹기 위해 동자승을 불러 텃밭에 상추를 쑤어 오라 하였다. 동자승은 ‘예’하고 텃밭으로 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늦게사 상추를 쑤어 와 밥상 위에 얹어 놓았다.

법정스님은 동자승에게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상추를 쑤어 왔느냐?”

라고 물으니, 동자승이

“상추를 쑤어 개울에서 씻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화재가 나 곧 법당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한 상황이라 불을 끄느라 늦었습니다.”

라 답했다.

법정스님은 평소에도 기이한 행동을 하는 동자승을 꾸짖지 않고, 다만 동자승의 행위를 자기 일기장에 적어두었다.

법정스님은 범어사 종무소에 가서,

“해인사에서 오는 스님이나 사람이 있거든 사자암을 들렀다 가라.”

고 부탁하였다. 수삭(數朔)이 지난 어느 날 해인사 스님이 범어사 종무원에 들렀다가 법정스님이 있는 사자암으로 갔다. 법정스님은 해인사 스님에게 어느 달 어느 날 자정에 해인사에 불이 난 일이 없었는가를 물었다. 해인사 스님이 깜짝 놀라며,

“도대체 화재난 일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날 밤 자정 경에 화재가 크게 나서 불을 끄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동쪽 하늘로부터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며 뇌성벽력이 나고 소나기가 퍼부어 다행히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자리 여러 곳에 상추 잎이 떨어져 있어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부터 법정스님은 동자승을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자승은 법정스님에게 찾아와

“열심히 수양하여 불도를 깨우치면 훌륭한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불도를 가르쳐주시옵시오. 저는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스님의 불도 정진을 도우려 잠시 왔을 뿐입니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1]

도(道) 통한 상좌

옛날 동래 범어사에 한 스님이 신도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논을 사서 세(稅)를 받아 고방에 잔뜩 넣어놓고 먹고 사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부엌 앞에 와서 불을 짚거든. 그래 스님이

“야야, 네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앉아 있느냐?”

하고 물으니

“예,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스님이 밥을 주고

“네가 내 상좌가 되거라.”

이렇게 말하니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 새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주었다. 이튿날

“네가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너라.”

고 하니, 상좌가 지계를 지고 산에 갔다가 빈 지계로 돌아오더니,

“스님요, 나무를 못해 왔습니다.”

고 했다.

“왜 못해 왔느냐?”

고 물으니,

“나무가지를 끊으려 하니 자꾸 피가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래 스님이 이 상좌가 무엇이 되겠구나 싶어 공부를 시키니 잘해.

그런데 하루는 오대산에 공부하러 가겠다 하거든. 그래 스님이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상좌가 스님에게 와서,

“스님요!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제 여기에서 그만 살고 나와 공부하러 갑시다.”

라 말하였다. 스님이

“그래 공부하러 가자.”

하고 스님과 상좌가 공부하러 간다고 일주문 밖에 나오다가 범어사를 한번 돌아보니, 스님이 재물을 모아놓은 고방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다. 스님이

“야야 내 고방에 불이 붙었다.”

고 말하니, 상좌가

“아이고 우리 스님이 아직 죄를 덜 사(捨)했구나. 그럼 절로 다시 돌아가소.”

하고는 상좌 혼자 다시 공부를 하러 갔다.

몇 년 뒤, 상좌 마음에 스님이 죽었지 싶거든. 그래 범어사로 오니, 과연 스님이 죽어 제(祭)를 치른다고 야단이였다. 상좌가 누더기 옷을 입고 알갭게 해 와서 제사 치르는데 일을 거들려 하니 모두 거들지 말라고 해.

“그러면 그릇이나 좀 씻어주고 가겠다.”

하니 그것은 허락해주었다. 그릇을 씻고 저녁에 고방을 들여다보니 스님이 죽어 구렁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팔죽을 끓여 한 동이를 넣어주니 다 먹어버렸다.

이튿날 상좌가 다시 오대산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스님! 나와서 갑시다.”

하니, 구렁이가 따라 나오는데, 일주문 밖에 큰 돌이 있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스님! 저 돌에 가서 머리를 깨소.”

하니, 구렁이가 돌에 머리를 깨고 죽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 상좌의 품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상좌는 새를 잡아 바람 안에 넣고 가는데 새 짐승들이 교미하는 것만 보면 그곳으로 가려고 퍼떡이는 것을 꼭 잡고 가다가 어느 장자 집에 이르러 밤에 장자가 큰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새를 풀어주었다.

상좌가 한 7년이 지나 스님이 되어 그 장자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동냥을 청하니 일곱 살 되는 아이가 쌀을 가지고 나와 주면서 그만 스님의 아랫도리를 잡으며,

“스님요. 날 데려가 주이소”

라 하기에, 스님이 장자 부부에게

“이 아들은 불가(佛家)와 인연이 있는 아이이니 나에게 주면 잘 길러 드리겠다.”

고 간청하니, 쾌히 승낙을 하였다.

스님은 이 아이를 상좌로 삼아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는 스님이 바늘로 문구멍을 내어 상좌에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구멍에 황소 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황소의 목을 틀어잡아라.”

고 하였다. 상좌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문구멍을 보니 하루는 황소의 머리가 문구멍으로 들어오는지라 틀어잡고 뒤로 넘어지니, 그만 도(道)가 터져 자기 과거사를 알게 되었다. ‘내가 상좌에 상좌가 되었구나’하고는 불도에 정진하여 뒷날 큰 스님이 되었다.⁷³⁾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2]

낭백스님과 조엄

조선조 말엽 동래 범어사에 낭백(郎白=법호는 樂安)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였으며, 행인은 물론 금정산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심으로 많은 보시를 하였다.

당시 동래부사는 남달리 괴팍스러웠으므로, 관권을 이용하여 270종이나 되는 엄청난 잡역(雜役)을 부과하여 자기 분이 내키는 대로 스님들을 마구 혹사하였다. 절에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잡역으로 들볶이니, 이에 낭백스님은 남몰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하루라도 속히 이 생을 마치고 내생에는 큰 벼슬에 올라, 도 닦는 스님들로 하여금 관권 구속과 혹사 없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제가 보살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범어사로 올라가 한 행자를 만나,

“이제 나는 주린 범에게 보시를 하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간 후 24년이 지나서 절의 잡역을 없애고 불사를 위해서 애쓰는 관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알아라.”

고 하고는,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몸을 범에게 던져 보시하였다.

그 후 과연 24살 난 나이 어린 경상도 관찰사 조엄(趙曷)이 새로 부임하여 각 군을 순찰하고 범어사에 와서 한 스님에게 절의 사정을 물었다. 스님은

“절에 스님들이 여러 잡역으로 고생한다.”

고 하니 단번에 잡역을 면제하여 주고 많은 불사를 약속하였다. 그 스님은 하도 기이하여 조엄 관찰사에게 나이를 물으니 24살이라 하였다. 그 스님은

“낭백스님이 돌아가신 지 24년이 되는 오늘이 때마침 제삿날입니다.”

라고 하니, 조엄 관찰사는 그제서야 자기의 전생이 낭백스님이었음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평생을 통하여 많은 불사를 하였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73) 전설이 민담으로 구술되는 좋은 예임(구연자: 김복련, 여, 80. 채집 일: 1987. 9. 20. 구술장소: 금성동 죽전).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4..)

[금정구 설화 33]

낭백스님의 원력(願力)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6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동래의 범어사에는 낭백(浪伯)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범어사로 출가(出家)하여 공양주(供養主)⁷⁴ 소임을 열심히 살았고, 보시행(布施行)⁷⁵을 발원(發願)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베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동래의 기찰(機察) 큰길 가에는 행인의 눈을 끄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맑고 깨끗한 샘물이 있어 나그네의 갈증을 달래주었는데, 이 소나무와 우물은 낭백스님이 행인을 위해 손수 심은 나무요, 판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스님은 동래의 칼치재⁷⁶에다 오두막을 짓고 짚신을 삼아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동래에서 온천으로 가는 대낮다리 동편의 산기슭을 개간하고 참외 · 감자 · 옥수수 등을 가꾸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님이었지만, 당시 나라에서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동래부사(府使)들이 범어사에 대해 가하는 핍박은 극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것을 크게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서는 범어사에 갖가지 잡역(雜役)을 부과하였고, 관리들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스님들을 혹사(酷使)시켰습니다. 종이, 붓, 노끈, 짚신, 새끼, 지게 같은 것은 물론이고, 특수 곡물 등 온갖 농작물에 이르기까지 철마다 부여된 부역의 수만도 36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 승려들은 자신들의 공부는 전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로지 일생을 나라에서 부과된 부역에 종사하기도 바빴다고 합니다. 절에서도 할 일이 태산(泰山) 같은데 매일같이 잡역에 들볶이게 되니 어지간한 승려들은 범어사에 붙어 있을려고 하지도 않았습디다.

낭백스님은 동래부사를 찾아가 새벽예불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 승려들의 고달픔을 하소연하고자 했지만, 동래부사는 그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러자 낭백 스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중한 부역만은 면하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사 금생에 안 되면 내세에라도 부역을 면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낭백스님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는 나라의 고급관리가 되리라. 그리고 그 관리의 특권으로 범어사 스님들의 부역을 면해 주리라.”

그날부터 힘이 닿는 대로 복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기찰 부근, 그러니까 동래를 들어가고 나가는 길목 큰 소나무 밑에 샘물을 파서 행인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넓은 밭을 개

74) 절에서 밥을 짓는 중.

75) 욕심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일.

76) 칼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고개 이름.

간하여 참외, 오이, 수박 등을 심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한정 보시하였으며, 그런 여가에 짚신을 삼아서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신을 보시(布施)하는 등 온갖 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늙은 몸뚱이까지도 보시하기로 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생(來生)에는 큰 벼슬에 올라 공부하는 스님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나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낭백스님은 범어사 대중(大衆)⁷⁷⁾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몸을 보시하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간 후 35년이 지나서 절의 잡역을 없애주고 불사(佛事)를 위해 힘쓰는 관리가 오면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게.”

그리고는 절 뒤 금정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굶주린 범에게 몸을 던져 보시(布施)하였습니다. 범이 먹다가 남은 시체는 며칠 후에 나무꾼들에게 발견되어 다시 절로 옮겨서 화장(火葬)하였는데, 그때 사리와 영골(靈骨)이 나와 그것을 모신 탑이 지금도 범어사에 있습니다.

과연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나자, 당시 이조판서를 지낸 조상경(趙尙綱)⁷⁸⁾의 아들 조엄(趙曠)⁷⁹⁾이 마침 순찰사(巡察使)가 되어 범어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산천도 구경할 겸 범어사를 찾게 된 그는 동구(洞口) 밖을 지날 때 묘한 향수(鄉愁)를 느꼈고, 절에 이르러서는 마치 고향(故鄉)에 돌아온 듯한 감격에 젖으며 법당에 올라가 무수히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의 사정을 스님들에게 낱낱이 묻더니 승려들의 모든 잡역을 면제(免除)시켜 주었고, 많은 불사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너무나 기이(奇異)하여 순찰사(巡察使)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35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낭백스님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이 낭백스님의 35번째 제삿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조엄은 자신의 전생(前生)이 낭백스님임을 깨닫고 평생을 통하여 범어사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산교에서 5~600m 정도 내려가면 옛날에 사용하던 길 옆에 몇 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 ‘순상국조공엄혁거사폐영세불망단(巡相國趙公嚴革祛寺弊永世不忘壇)’이라고 새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42~47쪽.

77) 절에서 많은 승려를 가리키는 말.

78) 조선 영조 때의 문신. 170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승지·이조참의 등을 역임, 1725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 후 대사헌에 이어 병조·이조·공조·예조 판서 등을 지냈다.

79) 1719~1777. 1752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사서·수찬을 역임하고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1758년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고, 이어 대사헌·예조참의·공조판서·대사간·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763년(영조 39)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대마도에 들러 고구마 종자를 구입하여 이듬해 귀국할 때 그 제배 저장법까지 익히고 귀국, 동래와 제주도에 재배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 재배를 실현했다. 1777년(정조 1) 홍국영 일파의 무고로 유배되어 병사(病死)했다.

[금정구 설화 34]

야시고개와 백여우

오륜동 마을에서 말을 타고 동헌에 출퇴근하는 무관이 있었다.

하루는 밤 늦게 퇴근하게 되었는데, 퇴근길에 야시고개에 다다르자,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어

“말 좀 타고 갑시다.”

라고 하였다. 이 무관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말 위 자기 앞에 태우고 집으로 갔다.

집 앞에 도착하니 평소와 달리 개들이 유난하게 짖어댔다. 무관은 이 여자가 여우이란 것을 직감하고 땅바닥에 내려쳤다. 땅바닥에 내려친 그 여자는 백여우로 둔갑하여 무관에게 달려 들었다. 그때 마침 큰 개가 백여우를 보고 달려들어 한참 싸우더니 결국 백여우를 물어 죽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5]

금정산의 고당할매

지금으로부터 4백여 년 전 밀양 박씨가 결혼에 실패하고 불가에 귀의하였다. 범어사가 잿더미가 되자 망연자실해 있는 스님들을 위해 박씨는 마을을 동분서주하였다. 주민의 병을 고쳐주고 시주로 받은 쌀과 잡곡 등으로 스님들의 음식을 만들고 수발을 들어 사부중(四部衆)들 사이에 칭송이 대단했다.

죽기 전에 우람했던 범어사를 제 모습으로 중건하기 위해 혼신하였다. 몸을 아끼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주를 받아오고, 절의 살림을 도맡은 화주보살로서의 중책을 맡아 살림을 꾸려나갔다.

화주보살은 운명(殞命)의 날이 가까워 오자 어느날 주지스님에게 유언을 드렸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고 저 높은 금정산꼭대기 아래에 당집을 지어 고모제를 지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고모당을 세우고, 단오날 오시(午時)에 범어사 스님들이 고모영신제(姑母靈神祭)를 지낸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6]

녹동마을의 산신령인 뱀

1970년 사배야산에 부산컨트리클럽이 들어설 때 이야기다.

부산컨트리클럽 공사 당시 겨울에 녹동마을 동쪽에 큰 바위를 폭파하려고 하였다.

불도저 기사 꿈에 환한 굴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여보게 여기에서 대대로 살아왔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도저히 이사를 갈 수 없어 내년 봄에 옮길 수 있도록 일을 미루어 주게.'하고 사라져버렸다.

이 꿈 이야기를 동료에게 말하니, 쓸데없는 말이라 하고 공사 일정에 따라 다음날 큰 바위를 폭파하여 제거하니 땅 속에서 여러 토막 난 뱀이 나왔다. 그러자 불도저 기사가 죽고, 3층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다.

공사장은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산신령에게 제사를 베푼 뒤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고, 녹동마을의 15가구는 계명봉 아래 지경고개로 모두 이전하였다.

지금도 사배야산 7부 능선에 당산제당이 있어 매년 음력 정월 14일 저녁 8시경에 당산제를 지낸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7]

장전1동 주산당

옛날에는 제만비를 리인계(里仁契)에서 부담했으나 1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무속인 노삼순(여, 49세, 장전 1동 33통 1반 129-1번지 거주)이 제만비를 전담하고 있다.

노씨 부인이 이 당산신을 모시게 된 것은 당산신이 자기의 관절염과 자식의 첩장 파열 등을 낮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8]

노포1동 주산당산

주산신의 신력이 세서 마을에 굶은 일이 있으면 당굿을 한다고 한다.

옛날 제주가 주산제를 부실하게 지내어 제사를 지낸 다음날 제주의 두살박이 아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39]

범어사를 지키는 느티나무

범어사의 대성암에 천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는 호국사찰인 범어사를 수호하는 신목으로 절의 안녕을 지키는 노거수다. 이 노거수의 밑둥치에는 큰 구멍이 아치형으로 뚫여 있다.

옛날 청룡동에서 구포로 가는 스님과 구포에서 청룡동으로 오는 도인이 범어천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서로 수인사를 하고 스님과 도인이 각각 느티나무 가지를 꺾어 어느 나뭇가지가 살아나는지 보자하고 꽂아놓고 갔는데, 도인이 꽂은 나뭇가지가 뿌리를 내려 점점 자라 어느덧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었다.

이 느티나무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왜놈 군사가 범어사에 불을 질러 태운 후에 느티나무가 아름다리 굵어 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려고 이 나무에 톱질을 했다.

그 순간에 청명한 날씨가 갑자기 변해 먹구름이 덮이고 벼락이 떨어져 이 거목이 쓰러지면서 나무 주위에 있던 왜병 20여명을 즉사시켰다고 한다.

밑둥치만 남은 이 나무는 세월과 더불어 썩어가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수간(樹幹)에서 다시 새 움이 돋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0]

범어사를 지키는 느티나무

대성암 입구, 왼쪽 지장전 뒤에 자리한 느티나무는 천년 동안 범어사의 안녕을 빌어온 노거수이다. 수백 년 전 팔송진에서 구포로 가는 스님과 구포에서 팔송진으로 가는 도인이 우연히 마주쳐 기념으로 그곳에 나뭇가지를 꽂아놓았는데, 그것이 자라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었다.

범어사 조계문에서 서쪽 금정산성 북문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범어천 옆에 대성암이 나온다. 대성암 입구에서 왼쪽 지장전 뒤에 수령이 천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고목으로 늠름하게 서 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8m에 이르며, 밑둥치 둘레가 7.5m, 등지의 둘레가 5m인 거목이다. 밑둥치에는 가로 1m, 세로 2.1m 크기의 구멍이 아치형으로 맞물려 있어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호국 사찰 범어사를 수호해 주는 신목(神木)으로, 오랫동안 범어사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빌어온 역사를 간직한 노거수다. 수백 년 전 범어사 아래의 팔송진에서 구포로 가는 스님과 구포에서 팔송진으로 가는 도인(道人)이 범어천이 흐르는 대성암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스님이 도인에게 물었다.

“가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오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쉬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누더니 두 사람은 아주 반갑게 손을 잡고는 범어천 길목에 나란히 앉아 땀을 닦으며 휴식을 취했다.

이번에는 도인이 스님에게 물었다.

“길이 멍니까?”

“가깝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깝지도 멀지도 않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주 보며 껄껄 웃던 두 사람은 붓집에서 나뭇가지 한 개씩을 꺼냈다. 나뭇가지를 맞춰 본, 스님이 머리를 가웃하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이 나뭇가지 한 개가 남는군요.”

도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가지는 우리가 만난 이 자리에 기념으로 꽂아놓고 가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은 또 한바탕 웃은 후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스님은 구포로, 도인은 팔송진으로 각각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이 꽂아놓고 간 나뭇가지는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아나 점점 자라서 어느덧 커다란 대성암의 느티나무가 되었다.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보람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값진 것이 된다.

범어사 느티나무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왜적들이 범어사에 불을 지르고 느티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려고 노거수 신목에 톱질을 하려다가 천둥과 번개, 벼락이 떨어져 나무 주위에 있던 왜병 2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 상처를 입은 이 나무는 그 후에 등치가 썩어가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수간(樹幹 : 나무의 줄기)에 새로운 움이 돋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나운 풍설, 많은 사연들을 안으로만 품어서 가슴이 저리도 썩었을까! 몸이 저리 썩어도 어떻게 저렇듯 싱싱한 잎을 피울 수가 있는가! 대성암에서는 신목인 이 느티나무에 매년 퇴비와 약을 치면서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

“천년의 풍설/ 수다한 사연/ 새움의 역사 다시 만년 있도록/ 여러분 아낌에 기댁니다.”

이 느티나무의 변(變 : 갑자기 생긴 재앙이나 괴이한 일)이 깊은 역사를 느끼게 한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73~174쪽.

[금정구 설화 41]

두실마을 돌탑거리와 소나무

두실마을 사람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마을 뒤 금정산 용호봉에서 내려온 사천(絲川) 물이 마을을 빠져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이 보이지 않게 흘러가도록 비보(裨補) 석탑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나가던 과객이 소나무 한 그루를 석탑 옆에 심었다고 한다.

이 소나무가 자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당산제의 마지막 거릿대제를 지내는 곳이 되었던 것이다.

약 500여년 된 이 소나무가 1959년 태풍 사라호가 오던 전날 밤중에 우~웅 우~웅 우~웅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크게 여러 번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자고나서 보니 당산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쓰러져 죽은 당산나무를 건드리면 화(禍)를 입는다 하여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어느날 최씨라는 마을사람이 당산나무를 베어서 장작으로 시장에 팔고 그 자리에 범어사에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를 당산나무 대신에 심었다.

그 후 당산나무를 벤 사람은 물론 자식들까지 병이 나 죽어 집안은 망해버렸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2]

오룬대

오룬대는 동래부 북쪽 15리에 있는 내와 바위(川岩)가 기이하였다. 옛날 다섯 노인이 지팡이를 쏘고 유상(遊賞)한 곳으로 지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선감여가(五仙堪輿家)가 말하기를 오룬자(五倫者) 모양은 월륜(月輪)과 같아 내(川)에 잠겨 있는데, 무릇 다섯 군데 있다. 이 대(臺)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룬리라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오룬대라는 이름은 주자학(朱子學)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천연적 경승지(景勝地)인 이곳에 다섯 처사(處士)가 은둔유상(隱遁遊賞)하면서 붙인 이름인 것 같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3]

노포 마을

노포동 9통 일대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노포(老圃)란 오래된 채전(菜田)이란 뜻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노포마을의 뒤쪽 당산에 늪은 쥐가 채전에 먹이를 구하려고 내려오는 형상인 '노서하포형(老鼠下圃形)'의 지역이라 하여 노포라 하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4]

작장마을

작장마을은 지하철 노포동역 앞에 있는 노포동 11통 일대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마을의 지세가 까치 발바닥 모양이라서 까치가 걸어들어오는 형국이다. 머리는 정씨 묘가 있는 노포동 101번지이고, 앞발은 지하철역 일대이며, 뒷발은 노포동 824번지이다. 이에 풍수지리설에 따라 작장(鵲掌)마을이라 불렀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5]

홀랑내 거랑

금정산 서거담에서 두실로 가는 길에 큰 냇가 홀랑내 거랑이다. 옛날 이 거랑에서 어떤 사람이 호환을 당했는데, 호랑이가 입을 해치우고 나서, 자신의 입을 홀랑홀랑 찢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이 냇가를 홀랑내 거랑이라 부른다.

한편 호열자에 걸린 사람이 마침 이 거랑에서 죽게 되었는데, 호열자의 발음이 잘되지 않아 홀랑내(川)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6]

선동의 용발톱

금정구 선동 쉼터 큰바위에서 신선들이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이곳 냇가 앞에는 작은 바위 3개가 있는데, 이 모양이 용의 발톱과 흡사하다고 하여 용발톱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냇가가 없어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쉼터에는 5그루 고목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7]

금구선인과 소하가 놀던 소하정

동래부의 북쪽 8리에 있다. 소하(蘇蝦)는 항상 흰 사슴을 타고 금거북을 탄 선인(金龜仙人)과 놀았다 하여 속칭 소하정(蘇蝦亭)이라 하는데 새들도 깃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장전동 소정마을의 사람들은 소정경로당(금정구 장전2동 562) 뒷뜰을 신성시하는데, 이는 금정산 기슭에 살면서 글공부를 좋아한 소하가 소정경로당 뒷뜰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때때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흰사슴을 타고 내려와 심어놓은 소나무에 백로와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8]

금성동 중리마을의 풍수지리설

중리마을에 큰 인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마을 앞의 안산(案山) 때문이라고 한다. 고로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중리마을의 안산은 상계봉에서 뺏어내린 산등성으로 마을 앞 계곡 너머에 우뚝 솟아 있으나 고당봉과 파리봉의 중간에 위치한 낮은 산에 불과하다.

이 안산은 파리봉과 고당봉의 중간에서 파리봉이 더 성장하려고 하면, 고당봉에서 놀리라고 산신에게 간청하고, 고당봉이 더 성장하려고 하면, 파리봉에서 놀리라고 산신에게 간청하여 금성동 중리마을에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동쪽의 산 능선이 마을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49]

명학스님의 업보

옛날 조선조 중엽 때 영원조사(靈源祖師)라는 스님이 영원암(靈源庵)이라고 하는 작은 절을 내금강 시왕봉(十王峰) 아래에다가 세우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체득하고자 불도를 닦고 있었는데, 어느날 시왕봉 아래에서 치죄(治罪)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스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음을 가다듬어 들은 즉,

“경상도 동래군 범어사 스님 명학(明學)을 잡아 올려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잡아 올리라고 하는 스님은 의외에도 자기의 스승스님이었으므로 스님은 크게 놀라서 귀를 기울려 들은 즉

“중 명학은 죄망사보(罪蟒蛇報)가 마땅하니 죄에 의하여 흑사망(黑蛇網)을 씌어 두어라.”

는 말이 들리자, 영원조사는 슬피 통곡하고 하루 세 번씩 흑사망(黑蛇網)을 하루라도 빨리 벗도록 정성껏 주문(呪文)을 읽어 스님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⁸⁰⁾

지금도 시왕봉 아래에는 안개가 많이 끼인 날이나, 어두컴컴한 날에는 치죄하는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80) 『영원조사5세성도기』에는 명학이 다시 태어나 영원조사가 되었으며, 영원조사는 지오(智悟)대사라 말하고 있다. 『불교영험설화』 참조.

[금정구 설화 50]

원효대사 표지돌

금강공원 내 칠성암 입구에 있는 입석으로 ‘○’이 새겨져 있다.

칠성암 주지가 1950년 초 이곳에 와 불경을 공부하던 중, 어느 날 밤에 ‘원효대사가 참선을 하다가 떠날 때 자기가 참선을 하던 곳을 알릴 수 있는 표지돌을 칠성암 앞의 화단에 묻어두었다.’는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화단에서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화단을 파보니, 그 속에서 원효대사가 자기를 표시하는 ‘○’이 새겨진 돌을 찾아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을 원효대사 표지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금정구 설화 51]

행복한 삶

하담스님은 어디서나 그저 나무아미타불만을 외치며 술을 즐기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다. 단지 사람들에게 ‘부처돼라’는 한 마디로 일관했던 하담스님은 말년을 범어사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1960년경 교계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하담스님은 범어사에서 열반에 들게 됐다.

1960년 경, 교계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노스님 한 분이 부산 범어사에서 열반(涅槃: 일체의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난 최고의 경지)에 드셨다.

스님의 성은 황씨요, 법명은 하담(河潭)으로, 19세에 금강산 장안사로 출가하여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을 불렀다. 스님은 앓으나 서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웠고,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도 ‘나무아미타불’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길 10여 년이 지나자 대화를 나눌 때도 ‘나무아미타불’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잠을 잘 때도 ‘나무아미타불’과 함께하게 되었다.

마침내 하담스님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을 보고 견성(見性: 망상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성품을 깨달음)을 하였고, 무량한 빛과 무량한 진리를 체득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금강산에서 하산했다. 모든 중생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 하나를 전파함으로써 중생들의 업장(業障: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받는 장애)을 녹이고 죄업을 소멸시켜 주고자 서울로 온 것이다.

스님은 일제 강점기의 극장 선전원들이 사방에 영화 포스터를 붙인 통을 뒤집어쓰고 거리를 활보했던 모습과 같이, 앞에도 ‘나무아미타불’, 뒤에도 ‘나무아미타불’, 옆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써서 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쓴 깃대를 등에 지고 커다란 목탁을 치며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다.

스님은 서울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었다. 사람들이 귀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를 보기만 하여도 그만큼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이 생겨난다는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염불을 통한 업장참회법도 가르쳤다.

이렇게 하기를 5년여, 스님은 스스로 도를 깨우쳤다고 생각하고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중스님들로부터 막식막행승(莫食莫行僧)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절에서는 곡차(穀茶 : 절에서 술을 이르는 말)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까지 했다. 스님은 이 절 저 절로 떠돌아 다녀야 했다.

그러나, 스님은 뼈 속 깊은 곳까지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떠한 구박에도 동요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 ‘축원’을 했다. 작은 친절에도 스님은 결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합장을 하고

“이 공덕으로 다음에 부처가 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다.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조그마한 도움을 주는 이에게는 합장을 하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한결같이 말했다.

“이 공덕으로 다음에 부처가 되십시오.”

스님은 술을 좋아해 길을 가다가 목이 칼칼해지면 주막집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목을 축인 다음에는 술집 아주머니를 향해 합장반배하면서 축원했다.

“이 공덕으로 다음에 부처가 되십시오.”

절 앞에 와서 술과 음식을 벌여놓고 노는 사람들은 스님을 향해 조롱조로

“스님, 한 잔 하실라오?”

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럴 때면 스님은

“어, 거 좋지.”

하며 그들이 내미는 술을 거침없이 들이켰는데, 사람들은 장난 반, 놀림 반, 농담 반으로 스님을 질책했다.

“스님, 곡차를 드셨소? 술을 드셨소?”

“술을 마시는 것을 보니 중이 아니구먼!”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합장배례하며 오직 한 마디만 했다.

“이 공덕으로 다음에 부처가 되십시오.”

이렇게 ‘부처돼라’는 한 마디 축원으로 일관했던 하담스님은 말년을 범어사에서 보냈다. 하지만 범어사는 당대의 대율사(大律師 : 계율에 정통한 승려의 상위)이신 동산(東山)스님이 조실(祖室 : 사찰에서 가장 높은 승려)로 계시고, 계율이 엄한 사찰이었으므로 곡차를 좋아하는 하담스님을 반길 까닭이 없었다.

오직 ‘범어사에 살고 싶으면 머물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는 동산스님의

지시 덕분에 범어사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만, 대중들과 함께하는 큰방에서의 생활이나 공양은 허락되지 않았다.

스님은 뒤채에서 행자(行者 : 불도를 닦는 사람)나 일꾼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 공양이 끝나면 종일 나타나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담스님이 범어사 총무스님을 불렀다.

“석 달 후에 내가 가야 되겠소.”

하지만 총무스님은 농담처럼 들었다. 딴 곳으로 간다는 말인지, 세상을 하직한다는 말인지 조차 되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흘려버렸다. 그 뒤, 간다고 약속한 날의 꼭 일주일 전에 총무스님을 다시 방으로 불러 꼬깃꼬깃 모은 10원짜리, 100원짜리로 6만 원을 건네주면서 부탁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경책(經冊) 한 권도 없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농작 하나, 땅 덩어리 하나도 없어. 이게 전부니까 어려운 절 살림에 보태 쓰게.”

그리고는 양말 속에 넣어 두었던 3만 원을 따로 내어놓으며 말했다.

“이 돈으면 내 초상 비용은 될 거야.”

하담스님은 가겠다고 한 하루 전날, 손수 향나무를 넣어 달인 물로 목욕을 하고 미리 마련해둔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 깨끗한 장소를 골라 목욕하기 전에 입었던 옷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실로 남은 것이라고는 없었다. 수건 하나, 양말 한 켤레도 없었다. 오직 수의 위에 장삼(長衫 : 승려의 옷)과 가사(袈裟 : 장삼 위로 어깨에 걸쳐 입는 승려의 옷)를 차려 입은 것뿐이었다. ‘3개월 후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농담처럼 들었던 총무스님도 계속되는 하담스님의 이상한 거동에 경각심이 생겼다. 가신다고 한 날 이른 새벽부터 세 명의 젊은 승려들에게 스님 곁을 지키도록 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하담스님이 말했다.

“이제 내가 가야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때 곁에 있던 젊은 스님이 짓궂게 말을 던졌다.

“스님, 지금이 법당에서 마지(摩貲 : 부처에게 올리는 밥) 올리는 시간인지 모르십니까? 어찌 중이 되어서 부처님께 마지 올리는 시간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허, 듣고 보니 그 말씀도 옳구려. 나를 일으켜주시오.”

얕은 채로 고요히 열반에 들고자 했던 하담스님은 젊은 승려들의 부축을 받아 법당으로 갔다. 그리고 법당 옆에 단정히 앉아 부처님께 올리는 사시마지가 모두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사시마지가 끝났고, 스님은 옆에 있는 승려에게 부탁했다.

“이제는 할 수 없소. 나 좀 눕혀주오.”

주위 승려들의 도움으로 반듯이 누운 하담스님은 조그마한 음성으로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 너와 나 할 것 없이 일시에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계송을 읊었다.

마침내 하담스님은 열반에 들었고, 당시에 범어사 총무스님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아이구, 아이구. 진짜 도인인자 선지식(善知識 : 지혜와 덕망이 있는 승려)을 옆에다 두고, 눈 어둡고 귀가 멀어 몰라봤으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삶이 있다. 그 많고 많은 삶의 방식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복된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인가? 이름이 높아야 행복한 삶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굵신굵신 절을 해야 행복한 삶인가?

어쩌면 하담스님처럼, 가진 것 하나 없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푸대접을 받지만, 자기 마음속에 꾸준히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혼자만의 기쁨 속에 살다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고 가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주어진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완수하라.’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63~168쪽.

[금정구 설화 52]

신리마을의 줄다리기 놀이

신리마을의 줄다리기는 주민들의 단합력을 기르고 마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마을 축제 행사로 시작되었다. 마을의 줄다리기는 당산제 대신 이뤄졌는데, 단순히 화합과 단결의식만을 불러넣는 행사가 아니라 재앙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도 담겨 있었다.

신리(新里)마을(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은 이름 그대로 새로 형성된 지가 100여 년이 된 마을이다. 1920년대 청룡국민학교가 범어사에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번성해갔다.

신리마을은 새 마을이라 전통마을의 역사도 없고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堂山)도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단합력을 기르고, 마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줄다리기가 마을축제 행사로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짚을 내놓아 끈 새끼줄은 길이 50m, 지름 15cm 정도로 솟줄, 암줄의 구별이 없었다. 새끼줄을 장터골 입구 동쪽마을 수호신인 당산나무(회화나무, 130년생)에 한 쪽 줄 끝을 매어 놓고 경기를 벌이고는 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날 오후 2시면 농악을 신호로, 남녀가 마을 팔송장터골(경로당, 청룡동 84-1, 5일장)로 모여든다. 동(남자 50명)·서(여자 50명) 편으로 나눠 3판을 되는데,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되어 서로 줄을 당기는 동안 농악패는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며 세(힘)를 돋운다.

현 누더기 이도 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시집살이 말도 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상어고기 고기런다. 쾌지나 칭칭나네.
 오늘 저녁 놀아보세. 쾌지나 칭칭나네.
 이기주소 이기주소. 쾌지나 칭칭나네.
 우리 동편 이기주소. 쾌지나 칭칭나네.
 우리 서편 이기주소. 쾌지나 칭칭나네.

줄을 당길 때는 선창자(先唱者)의 노래에 따라 「쾌지나 칭칭나네」의 후렴을 일제히 따라 부른다. 줄의 경계선이 왔다갔다 막바지에 이르면,

부았네 부았네 동편 ×가 부았네.
 닳았네 닳았네 서편 ×가 닳았네.

응원가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다. 이 마을의 줄다리기는 당산제 대신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었으며,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줄다리기란 일종의 대중놀이를 통해 화합과 단결 의식을 불어넣고 재앙(災殃)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에서 남녀 대결을 할 때, 반드시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 것은 어디 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경기에서 이긴 편에게는 성냥 한 갑씩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참가인원은 한 편이 50명씩 모두 1백 명 정도였다.

남녀노소는 물론 종교의 구별 없이 참여해 마을 주민의 화평을 위한 단합 축제로 펼쳐졌다. 팔송장터골에는 포장을 친 음식점이 즐비했고 휴식시간에는 술을 마시고 장구를 치며 흥겨운 잔치가 이뤄졌다.

1972년 줄다리기 때 당시 신리마을의 촌로였던 양상홍 씨는 “대동아전쟁과 광복(1945년) 직전 잠깐 중단된 것 말고는 한 해도 빠지는 해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해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지요.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유독 신리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소. 우리는 줄다리기 덕택으로 생각했고, 그 뒤론 더욱 열심히 했지요.”

라고 덧붙였다.

줄다리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첫째, 숫줄을 암줄의 고리 속에 끼운다는 점에서 성행위를 상징한다. 이것은 생산이나 생명력을 뜻한다. 즉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둘째,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 점이다. 농경은 여자가 주관하는 사업이었다. 농경의 신(神)은 여자가 대부분이다.

셋째,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놀이이므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여성의 생리와 일치하며, 월신(月神)은 여신(女神)이고 농경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줄다리기 재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더 이상은 행해지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민속놀이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75~180쪽.

[금정구 설화 53]

화만산의 고려장터

고려장(高麗藏)은 부모가 일흔 살이 되면 아들이 지계에 지고 산중으로 들어가 약간의 음식을 드리고 돌아오는 장례 풍습이다. 이러한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는 노인을 산중에 가져다 버리는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만산 화만골에도 3기의 고려장터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상현(尙賢)마을(부산시 금정구 선동)에서 선동교(仙洞橋)를 지나 상현정사 표석을 보고 길 따라 고개를 넘으면 상현정사(강릉 김씨 재실)를 만난다. 여기서 30여 분을 더 가면 화만산(花滿山, 꽃이 만발한 산) 화만(골마리)골이 나온다. 화만골에 안장된 윤태규 묘에서 동북쪽으로 400m쯤 올라가면 7부 능선에 3기의 고려장터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고려장터의 상현마을 사람들은 화만산 화만골에 ‘고려장터’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장터는 사각형으로 돌담을 쌓고 위는 돌 뚜껑으로 덮은 구조이며, 내부는 구덩식의 출입이 가능한 굴식으로 되어 있다. 상현마을의 어느 촌로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도굴을 하여 벼루 1점이 유물로 나왔다고 한다.

고려장(高麗藏)은 늙고 쇠약한 부모가 일흔 살이 되면 아들이 지계에 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음식을 부모에게 드리고 돌아오는 장례 풍습이며, 이는 국법으로 정해진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례 풍습으로 효(孝)를 강조하는 일부 전설에서 전해질 뿐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연고를 확인할 수 없는 ‘고분(古墳)’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 옛날 어느 시대에 행해지던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는 노인을 산중에 가져다 버리는 풍습으로 전해진다.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나이가 일흔이 넘자 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를 산속에 내다 버리자니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아들은 고민을 거둬다가 마침내 어머니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어머니 산에 꽃이 가득 피었겠지요? 오늘은 어머니를 모시고 꽃구경을 가야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산속에 버려질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일부러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꽃구경을 따라나섰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지계에 지고 산으로 향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얘야,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 발로 걸어가도록 해다오.”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럼 좀 쉬었다 가자꾸나.”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질끈 눈을 감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오솔길 옆으로는 파릇파릇한 솔가지들이 늘어져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는 손을 뻗어 솔잎을 따고는, 그것을 오솔길에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왜 솔잎을 길에 뿌리세요?”

늙은 어머니가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솔잎을 뿌려 놓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아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게 옆에 15일 분의 양식과 지고 왔던 지계를 놓아둔 채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를 따라 왔던 그의 아들이 지계를 다시 지고 오기에 그는 아들에게 왜 지계를 가지고 오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아버지도 나이가 차면 이 지계에 지고 와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고 대답했다. 그 말에 그는 크게 뉘우치고 늙은 어머니를 다시 집에 모셔가 잘 봉양했다. 그 후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사라졌다고 한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81~182쪽.

[금정구 설화 54]

범어사 대웅전의 주련과 무진장스님

범어사의 동산스님이 자신의 주련 글씨를 훌륭하게 판각한 제자 해명을 칭찬했다. 그리고는 ‘재주가 무진장이로구나’하고 웃어보였다. 그 후 해명은 ‘무진장스님’으로 불렸으며, 주지 자리는 물론 바른 소리만 하는 대쪽같은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동산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있던 1960년대의 일이다. 하루는 동산스님이 제자 향운(香雲)과 원명(元明)을 불러 먹을 갈도록 분부했다. 두 제자가 먹을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한마디 했다.

“이 녀석들아, 먹은 그렇게 손으로 힘을 줘서 가는 게 아니다. 먹을 갈 적에는 참새 힘으로 같아야 하고, 글씨를 쓸 적에는 황소 힘으로 써야 하는 것이야. 힘을 빼란 말이다.”

큰 사찰에 가면 사찰 건물 기둥에, 위에서 아래로 한문으로 된 글귀를 한 줄씩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글귀를 주련(柱聯)이라고 한다. 이날 동산 스님은 범어사 대웅전 기둥에 붙일 주련을 썼다. 동산스님이 직접 쓴 주련은 넉 줄이었다.

摩訶大法王(마하대법왕) / 대법왕 부처님께서는
無短赤無長(무단적무장) / 짧지도 길지도 않으시고
本來非白墨(본래비백묵) / 본래 검지도 희지도 않지만
隨處現淸黃(수처현청황) / 곳에 따라 푸르고 누른빛을 띠시네

이 주련을 쓴 뒤 동산스님은 곧바로 제자 해명수좌를 불러오게 했다.

“이 글씨를 판각하도록 해라.”

동산스님은 제자 해명에서 분부를 내렸다.

해명은 단 한 번도 판각을 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무서운 은사스님의 명령이라 군소리 한 마디 못한 채 연필 깎는 칼 한 자루로 판각을 시작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해명수좌의 손바닥은 찢어지고 갈라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판각을 마친 해명이 몸살이 나서 자리에 누울 정도였다. 이때 해명수좌가 판각한 동산스님의 주련 글씨는 지금도 범어사 대웅전에 남아 있을 만큼 뛰어난 솜씨를 자랑한다. 동산스님은 몸살이 나서 뒷방에서 끙끙 앓고 있던 제자 해명을 친히 방문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사탕을 제자에게 쥐어 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자, 이거 사탕이다. 이거 먹으면 한결 나을 거다. 어서 먹고 일어나거라.”

“예, 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명이 너 재주가 참으로 무진장이로구나. 허허허.”

동산스님은 제자 해명의 재주를 크게 칭찬했다 그래서 해명스님의 이름은 ‘무진장(無盡藏)스님’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진장스님은 그 후로 주지 자리는 물론 어떤 감투(벼슬이나 지위)도 쓰지 않은 채, 오늘날 바른 소리만 하는 대쪽 스님이 되어 사자후(열변을 토하는 연설)를 토하고 있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83~186쪽.

2. 동래구 설화

[동래구 설화 1]

용왕의 딸과 보물상자(放鯉得龍女)

옛날,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낚시를 해서 그것을 팔아 노모를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최후로 낚시를 던졌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묵직한 게 걸린 모양이다. 그는 낚싯대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큰 잉어 한 마리가 낚시에 걸렸다. 그렇지만 잉어는 입을 버끔버끔 열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불쌍하다고 생각한 어부는 그만 그 잉어를 바다에 놓아주었다.

다음날 역시 바닷가에 나가자 갑자기 한 낫선 청의동자(靑依童子)가 나타나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다. “누구신지요” 하자 그 동자는 정중하게도 “저는 용왕의 사자입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임금의 외동딸을 구해 주셨습니다. 용왕께서 답례를 하고 싶어서 당신을 용궁까지 모셔 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어부가 말하자 “걱정하지 마십시오.”하고 말하자, 사자는 바다를 향해 무엇이랴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바다는 둘로 갈라져 훌륭한 길이 나타났다. 사자를 따라 용궁에 이르자 용왕은 버선채로 어부를 맞이해 어부를 위해 연회를 사흘 밤낮으로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귀하는 딸의 은인입니다. 제발 내 딸을 가지십시오.” 하고 용왕은 제안을 했다.

어부는 용녀와 결혼하여 몇 개월인가 지났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처에게 간청했다. 용녀는 몇 번인가 이것을 말렸지만 끝내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작별을 할 때 하나의 보물 상자를 어부에게 주면서 “용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자는 이것을 향해 주문을 외우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타납니다만 만일 열어보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상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어부는 용궁을 나서자 해안에 다다랐다. 어부는 육지에 다다르자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몇 차례 주저했지만 그는 참을 수 없어 그만 뚜껑을 열고 말았다. 그러자 상자로부터 하얀 연기가 솟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부는 그래서 끝내 용궁으로 갈 수 없었다.

- 1924년 8월, 경남 동래군읍, 박씨부인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252-253쪽. 이는 최인학이 孫晉泰, 『朝鮮民譚集』(日文), 東京: 郷土研究社, 1930, 235-237쪽에 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임.

[동래구 설화 2]

동래(東萊) 삼성대(三姓台)⁸¹⁾

宣祖9년 東萊邑 客達里(현재의 明倫동)에 한 老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나이 오십에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인은 난데없이 용 한마리가 품에 안겨드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가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집안엔 생기가 돌았다. 꿈결 같은 생활이 삼 개월쯤 지났을까,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어버렸다.

일곱 달이 지나고 부인은 유복자를 순산했다. 사내였다. 용모나 골격이 준수한 게 첫 눈에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

모친의 정성 때문인지 이 아이는⁸²⁾ 모친이 깊이 잠든 한 밤중만 되면 살짝 집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집을 나서는 곧장 집 서쪽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나지막한 봉우리(三姓臺)에 올라 呼廟하는 주문을⁸³⁾ 외어 神兵들을 모았다. 한 시간쯤 신병들을 훈련시킨 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모친 곁에 눕는 것이었다. 하루는 모친이 잠을 깨어보니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없었다. 놀라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아이가 방안으로 들어오기에 어디 갔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뒷간에 갔다 옵니다』며 잠자리에 들어간다.⁸⁴⁾ 이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혼자 뒷간에 갔다 온다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모친은 하룻저녁 수잠을 자며 아이의 행동거지를 살폈다.

한 밤중이 되니 아이는 사렴시 일어나⁸⁵⁾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몰래 아들의 뒤를 따라가서 숨어 살펴보니 三姓臺서 신병을 모아 놓고 훈련을 시킨다.⁸⁶⁾

모친의 놀라움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81)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4쪽에는 제목이 ‘동래 삼성대(三姓台)와 어린 김장군’으로 되어 있고, 본문의 한자는 한글(한자)로 병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화 본문 앞에 붙어 있다.

“뛰어난 명승지도 이름난 고적(古蹟)도 아니다.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주택들 아래에 깔려버린 옛 동래의 한 지명일 뿐이다. 수안로터리에서 대동병원 맞은편 일대가 삼성대(三姓台)인 곳이었다.

바로 이곳이 동래 어린 김장군(東萊 어린 金將軍)이 신병(神兵)을 모아 훈련시켰던 곳이기도 하다.

삼성대란 이름의 유래는 꽤나 오래된 것 같다.

동래부지 고적조(東萊府誌 古蹟條)에 보면 안(安), 송(宋), 옥(玉)씨등 세 姓의 시조가 살았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82) 그런데 이 아이는(『동래의 역사』, 194쪽).

83) 봉우리에 올라 주문을(『동래의 역사』, 194~195쪽).

84) 들어갔다(『동래의 역사』, 195쪽).

85) 아이는 일어나(『동래의 역사』, 195쪽).

86)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동래의 역사』, 195쪽).

아들에게 오늘밤 일을 말했더니 아이는 아무 걱정 말라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신신 당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친의 입에서 그 사실이 새어 나와 마침내 동네 사람들 간에 東萊에 장군이 났다고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그동안 아이의 나이도 일곱 살이 되었다.

그해 東萊府에서는 관아건물을 짓는 역사가 벌어졌다. 山城사십골(현재 부산대학 뒷편 깊숙한 골짜기) 안에 대들보에 쓸 재목을 베어두었는데 얼마나 컸던지 옮기지를 못하여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하루는 비가 몹시 쏟아졌다. 비가 갠 이튿날 아침 공사장에 나갔던 府民들은⁸⁷⁾ 놀랐다. 걱정하던 대들보 재목이 마당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 차에 현장에 육칠 세 되는 아이의 나막신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 이 아이가 한 짓임을 알아차렸다.

관가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들보를 옮긴 장본인이 客達里 金씨의 어린 아들임을 밝혀내고 나라에 상소를 올렸다. 이 아이의 신출귀몰한 재주에 대해 소상히 들은 조정에서는 장차 역모를 꾀할 아이라 하여 죽일 것을 결정했다. 漢陽으로 잡혀 올라간 아이는 매일 밤이면 東萊 모친 곁에 와서 놀다가 새벽녘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모친 곁에 와서 물었다. 『어머님, 내일은 나라에서도 죄 없는 저를 처형할 것인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죽지 말라 하시면 죽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가 죽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리어 우리 삼족이 멸화를 당할 것이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느냐.』 모자는 눈물로써 마지막 작별을 했다.

과연 이튿날 아이를 처형하라는 어명이 내렸다. 그런데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죽지를 않는다.⁸⁸⁾ 하다못해 刑吏가 『너는 어찌해서 죽지 않느냐』고 물으니 아이는 『나에게 金將軍이란 칭호를 내려 현판을 만들어 주면 죽겠다.』는 대답이었다. 金將軍 칭호를 하사하였더니 아이가 통곡하며 『소인이 죽은 십년 후면 상감께서 소인을 생각하시리라』(이것은 宣祖25년 임진왜란을 예언한 말이다.)고 말한 뒤 양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걸고 매를 세 번씩 치라고 일러 주었다. 아이가 죽자 중신들은 어린아이에게 장군 칭호는 부당하다고 주장, 현판을 치웠더니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현판을 걸고 시신을 치운 다음 그 현판을 끝내 없애 버리고 말았다.

그 뒤 동네 사람들은 어린 金將軍의 가없는 넋을 위로하여 고향인 客達里 生家(현재의 明倫동 477번지)에다 小閣을 짓고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 왔다.⁸⁹⁾ 지금도 어린 金將軍에 대한 제사는 계속되고 있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29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4~196쪽.

87) 동래 사람들은(『동래의 역사』, 195쪽).

88) 앉았다(『동래의 역사』, 196쪽).

89) 그 뒤 동래사람들은 어린 김장군의 가없는 넋을 위로하고 제사를 지내왔다(『동래의 역사』, 196쪽).

[동래구 설화 3]

동래(東萊) 관우묘(關羽廟)⁹⁰⁾

東萊 校洞(지금의 明倫洞)에 雲長 關羽를 모신 關羽廟가 있으니, 이 고을에서는 그 곳을 모두 '影堂'이라 부른다.

李朝 때, 이 廟를 지었을 때의 일이었다. 여러 人夫들이 기왓장을 지게에다 제각기 지고 사닥다리를 밟고 그 廟 지붕으로 올라가 내려놓고 하는데, 그 중에 몸가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지붕 위에 막을 들어 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어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한다. —이것은 옛날, 中國 三國時代의 蜀나라 장수 關羽가 呂蒙에게 죽었으므로 關羽는 그 원한으로 몸가 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靈이 있는 근처에 오기만 하면 죽이는 것으로서, 죽은 그 人夫도 그래서 죽인 것이라고 한다.

그 뒤에도 이것을 모르고 몸가 성을 가진 사람이 廟 안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눈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고 하며, 이래서 지금은 몸가 성을 가진 사람은 이 廟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1925年 6月 東萊郡 東萊面 校洞 徐 訓長 談)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29쪽.

[동래구 설화 4]

동래의 관항묘

지금 동래구 교동의⁹¹⁾ 관항묘가 있는 자리는 김장군이라는 아기장수가 태어난 집터였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천정에도 닿아 붙기도⁹²⁾ 하는 신동이였다. 이 얘기를⁹³⁾ 전해들은 김해의 안장군은 이곳에 찾아와서 어린이의 골상을⁹⁴⁾ 보니 장래 비범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다가올 앞날을 두려워하여 즉석에서 이 아이를 죽였다.

이때부터 이 자리에는 저녁만 되면 천병만마가 달리는 말굽 소리와 함께 군신들의 다투는 함성이 소란하여 견딜 수 없어 부득이 공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부사 박계관이 동래에 부임하여 관항묘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90) 원문의 한자 제목을 한글(한자)로 병기하여 고침.

91) 명균동 447번지의(『동래의 역사』, 186쪽).

92) 달라붙기도(『동래의 역사』, 186쪽).

93) 말을(『동래의 역사』, 186쪽).

94) 찾아와서 골상을(『동래의 역사』, 186쪽).

즉 박기체라고 부르는 동래 사람이 부산의 김모 씨 집에 놀러 갔더니 관황의 영정에 관우 신장의 위패를 세워놓고 무엇인가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박씨는 이상히 여겨,

「노형은 어찌하여 관황의 영정에 관우의 위패를⁹⁵⁾ 세워놓고 무엇을 그렇게도 공손히 빌고 있는 거요?」라고 물으니 「이 신장은 관우장이온데 무엇이든 빌기만 하면 효험이 나타나기에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거요」라고 답했다. 이말을 들은 박씨는 「노형! 이 영정을 내게 주신다면 노형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제가 성의껏 신장을 모시겠소」라고 애걸한 끝에 관황의 초상화를 얻게 되었다.

이 무렵 동래부사 박계관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차에 하룻밤 꿈속에서 관우장을 만났는데 관우가,

「부사! 나는 지금 고독하게 묻혀 있으니 넓은 자리로 옮기게 해주오」라고 청하는 말을 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부사는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해몽 끝에 김장군이 죽은 집터에 관황묘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해 후 동래부사로 있던 황정연이 논 열 마지기와 제실 다섯 간을 지어 영년 유지책을 강구해 주었으니⁹⁶⁾ 지금도 관황묘 아래 옛적 집터에는 「김장군 신위」라는 글이 씌어져 있다.⁹⁷⁾

이밖에 동래 관황묘에 대하여는 한두 가지 다른 전설이 있으니 아울러 적어 두겠다. 즉, 하나는 중국시대 당나라 장수 관우가 여몽에게 죽었으므로 그 원한으로 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이 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임진란⁹⁸⁾ 때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명의 군사들이 와서 왜병과 싸울 때,⁹⁹⁾ 관운장이 신병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국난을 도와주었다는데 연유하여 그 당시 명나라의 조정은 4천량을 내어 우리나라 여러 곳에 관황묘를 세우게 했다고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정과 의논해서 서울의 남관황묘는 명나라 장수였던 양호와 만세덕이 지었고, 청주에는 명나라 장수 모국기 그리고 명의 도독 유정은 남한 각지에 많은 관황묘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동래에 세워진 이 관황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연이 있고 명나라 장수 손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란 것을 지금의 고노들은 말하고 있다.¹⁰⁰⁾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29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6~187쪽.

95) 패를(『동래의 역사』, 186쪽).

96) 주었다(『동래의 역사』, 187쪽).

97) “지금도 …… 씌어 있다.” 대신 『동래의 역사』, 186쪽에서는 “1970년대에 와서 이 일대가 개인소유로 넘어가 김장군의 사당과 함께 관황묘가 철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98) 임진왜란(『동래의 역사』, 187쪽).

99) “원병을 …… 싸울 때”가 『동래의 역사』, 187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명의 군사들이 와서 싸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100) “위에서 …… 말하고 있다”는 『동래의 역사』, 187쪽에서는 “우리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게 동래 고로(古老)들의 얘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래구 설화 5]

전생모자(前生母子)

지금 동래구 서문통 옛날 관문대로 이르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둘째 집 뜰에 동래부사 柳심익의 비가 서 있다. 길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이 비의 주인공 유심이 전생 모친을 만난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해 두겠다.

옛날 이 집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에 마음을 의지하며 살던 과수가 살았다. 이 아들은 인물도¹⁰¹⁾ 잘 생겼을 뿐 아니라 네 살짜리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여간 영리하지 않았다.

당시 동래에는 부사가 바뀌고 새 부사가 부임할 때엔 그 도입하는 행사가 여간 성대하지 아니 하였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팔선녀를 청하면 동래의 명기를 뽑아 팔선녀의 행렬을 하고 대군복을 차려라고¹⁰²⁾ 하면 군졸에게 갑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내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성내 주민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¹⁰³⁾ 모두 집을 비우고 한길에 나와 구경했으니 이 과수도¹⁰⁴⁾ 어린 아들을 업고 길옆에 섰다. 장관을 이룬 부사 행렬을 눈 담아 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난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테야」라고 엄마 등을 동동 치고 있었다. 「애야 너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우리들은 상놈이라서 저런 벼슬은 꿈에도 못할 거야」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않더니 며칠 뒤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다. 과수의 슬픔은 말할 나위 없었다. 그녀는 밤과 낮을 이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아들을 만났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서 재상을 지내는 유씨 가문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전 상놈이란 소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툭툭히 말하고 사라졌다. 그 후 세월은 가고 세상이 바뀌어져 과수의 눈물도 말랐다.

숨 가쁜 하루살이에 피로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으나 아들에 대한 푸념은¹⁰⁵⁾ 잊을 수 없었기에 아들이 죽은 날에는 제상을 차려놓고 울기도 했다. 그런데 유심은 매년 생일날이면 꼭 꿈속에서 동래에 가서 제사음식을 먹고 돌아오곤 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장성한 유심은 동래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행차하는 동래길이 이상하게도

101) 인물이(『동래의 역사』, 185쪽).

102) 차리라고(『동래의 역사』, 185쪽).

103) 건너 마을 사람들까지(『동래의 역사』, 185쪽).

104) “구경했으니 과수도”가 『동래의 역사』, 185쪽에서는 “구경했으니 하나의 거부적(學府的) 행사인 셈이었다. 이 구경을 과수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105) 정은(『동래의 역사』, 185쪽).

꿈속에서 오가던 길과 흡사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밤중에 제삿밥을 먹던 집을 찾기 위해 통인과 함께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찾아간 집과 똑같은 집이 있었다. 유 부사는 조심하여 마당에 들어서니 백발노파가 제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사는 정중한 인사를 올리고 「노인은 어이하여 제상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요」라고 물었다.

「이몸은 가장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여 살았사오나 어린것이 단명하여 저승으로 갔사운데 오늘이 바로 그 입제일이옵니다」라고 말하고 소매를 적셨다. 아들이 죽은 날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날이 유 부사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 과수는 덧붙여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뒤 꿈속에 나타나서 서을 유씨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더군요요」라고 말했을 때 유 부사는 마음속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이 노파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임을 알았다.

부사는 그의 직권으로 전생모에게 정곡을 내려 보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¹⁰⁶⁾ 그리곤 부사가 타처로 전출되었을 때는 향사도구와 농토를 마련하여 주었으므로 이 노파는 노후에도 어렵지 않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4~435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5~186쪽.

[동래구 설화 6]

전생모자(前生母子)

지금 동래구 서문통(西門通) 옛날 관문 대로에 이르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두 번째 집 뜰에 동래부사(東萊府使) 류심(柳愔)¹⁰⁷⁾의 비석(碑石)이 서 있습니다. 길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이 비석의 주인공인 류심이 전생 모친을 만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이 집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에 마음을 의지하며 살던 과수(寡守)¹⁰⁸⁾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인물도 잘 생겼을 뿐 아니라, 네 살짜리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여간 영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래에는 부사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새로 부사가 부임(赴任)할 때면 그 행차(行次)가 여간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팔선녀(八仙女)를 청하면 동래의 명기(名妓)를 뽑아 팔선녀의 행렬을 하고, 대군복(大軍服)을 차리라고 하면 군졸에게 갑옷을

106) 배려해 주었다(『동래의 역사』, 186쪽).

107) 1608년(선조 41) ~ 1667년(현종 8). 1635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사관(史官)으로 뽑힌 뒤 참판에 이르렀다.

108) 홀어미.

입히고 말을 태워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 고을 주민들은 물론 이웃 고을의 사람들까지 모두 집을 비우고 한길에 나와서 구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사가 새로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과수도 부사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옆고 길옆에 서 있었습니다.

장관(壯觀)을 이룬 부사 행렬을 눈여겨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난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테야.”

어린 아들은 엄마 등을 동동 치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너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가없단다. 우리들은 상놈이라서 저런 벼슬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거야.”

어머니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 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말도 잘하질 않더니, 며칠 뒤 이름모를 병으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과수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과 낮을 이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서 재상(宰相)을 지내는 류씨 가문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상놈이란 소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은 이렇게 푹푹히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가고 세상도 바뀌어서 과수의 눈물도 차츰 말랐습니다. 숨 가쁜 하루살이에 허덕여야 하는 처지의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으나, 아들에 대한 생각만은 잊을 수 없었기에 아들이 죽은 날에는 제사상(祭祀床)을 차려놓고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류심은 해마다 생일날이 되면 꼭 꿈속에 동래에 가서 제사(祭祀) 음식을 얻어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서 어느덧 어른이 되어 벼슬길에 오르게 된 류심은 마침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행차하는 동래길이건만 이상하게도 생일날 꿈속에서 오가던 길과 흡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류심은 밤중에 제삿밥을 얻어먹던 집을 찾기 위해 통인(通引)¹⁰⁹과 함께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좁을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류 부사를 해마다 한 차례씩 꿈속에서 찾아갔던 집과 똑같은 집을 발견하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 부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백발의 늙은 노파가 제사상(祭

109) 조선조 말엽에 지방 관청의 우두머리에 딸려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

祀床)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어찌하여 제사상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요?”

그러자 노파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몸은 가장(家長) 없이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았사오나 어린 것이 단명(短命)하여 저승으로 갔사온데 오늘이 바로 그 입제일(入製日)¹¹⁰⁾이옵니다.”

아들이 죽은 날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날이 류 부사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과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죽은 뒤 꿈속에 나타나서 서울 류씨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류 부사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어머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 노파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부사는 그의 직권(職權)으로 전생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내려 보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전출(轉出)을 하게 되자, 부사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를 갖추어 주고, 또 약간의 농토를 마련해줌으로써 전생의 어머니가 노후에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配慮)했다고 합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36~41쪽.

[동래구 설화 기

의적 정봉서와 마누라

옛날 동래부에 구차한 집안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정봉서란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힘센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어 의원에게 물었더니 개 천 마리를 잡아먹어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개를 천 마리나 구할 길이 없었던 정봉서는 갖은 힘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 고치기를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리하여 길을 걸어가다가도 살찐 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냉큼 뒷다리를 잡아 집에 들고 와서 병든 어머니에게 고아 드리곤 했다. 이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도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바늘 도적이 소 도적 된다는 격으로 나중에는 대적이¹¹¹⁾ 되었다.

어느 날 동래 성내의 사람들이 기장의 쌍다리 험한 고개에서 험상궂게 생긴 8~9명의 도적

110) 제사 드는 날.

111) 큰 도적이(『동래의 역사』, 188쪽).

패들을 만났다. 「이놈들이 꿈쩍 말고 제자리에 섰거라」 사납게 호령을 하곤 아뭇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혼나간 행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도둑의 무리를 따라 깊은 산중으로 10여 리나 되는 먼 길을 끌려 들어갔다. 얼마 후 산중턱에 자리 잡은 그들의 소굴까지 끌려온 행인들은 괴수 앞에 꿇어앉았다. 이때 이리에 쫓긴 어린양 마냥 떨고 있던 행인 중의 한 사람이, 「저희들은 모두 동래 성내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¹¹²⁾ 이 말을 들은 괴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며 조금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깨끗한 방으로 안내시키고 맛난 음식을 차려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튿날 행인들이 떠날 때는 노자까지 빠짐없이 주었다. 이 도적의 괴수가 바로 정봉서였다.

이미 골수에 배인 도적질을 하기 쉬워서¹¹³⁾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많은 부하를 거느린 그는 깊은 산중에 본거를 두고 도적질을 하여 생계를 세웠으나 의적의 이름을 들을 만큼 부자집에서 뺏아다가 남의 구차한 집을 도와주곤 하였다.

하루는 정봉서가 가난한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안에서 방금 해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기척이 없는¹¹⁴⁾ 그 집 부역을 들여다보니 밥을 지을 쌀은 물론 국을 끓일 아무 준비가 없었다.¹¹⁵⁾ 남편 되는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산모 구호를 해줄 길이 없어 얼굴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딱한 형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쌀과 쇠고기를 집주인 몰래 사가지고 부역에 두고 안을 향하여 「이덕 바깥주인 계십니까?」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주인이 쫓아 나오더니¹¹⁶⁾ 정봉서는, 「부역에 들어가 보시오」라고 말하고는 그 집에서 사라져 버렸다. 주인은 의아하면서¹¹⁷⁾ 부역으로 나가보니 쌀과 고기와 산모에게 끓여 먹일 미역 등이 준비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적으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정봉서도 말년에 동네 포졸에게 잡히고 말았다.¹¹⁸⁾ 옥에 가두어 둔 정봉서에게 옥리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25일째 되는 날 굶어 죽었다.

정봉서의 마누라도 기운이 장사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동헌으로 쫓아가 그 앞에¹¹⁹⁾ 있던 하마석을 번쩍 들고

「이놈들, 너희들이 삼대문을 때려쳐서 판자가 날라갔다.」¹²⁰⁾

112) 말했다(『동래의 역사』, 189쪽).

113) “도적질을 하기 쉬워서”가 『동래의 역사』, 189쪽에는 “도적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14) 그러나 인기척이 없어(『동래의 역사』, 189쪽).

115) “아무 준비도 없었다”가 『동래의 역사』, 189쪽에서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로 기록하고 있다.

116) 쫓아 나오니(『동래의 역사』, 189쪽).

117) 의아해 하면서(『동래의 역사』, 189쪽).

118) 다음 구절에 “그동안 그로 인해 골치를 썩혀 왔던 터라”(『동래의 역사』, 189쪽)라는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다.

119) “정봉서의 …… 그 앞에”의 구절이 『동래의 역사』, 189쪽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봉서의 아내는 거품을 물고 동헌(東軒)으로 달려갔다. 남편 못지않게 장사였던 그녀는 동헌 앞의”라고 기록하고 있다.

120) 이 대사는 『동래의 역사』, 189쪽에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관헌이라지만 너무 심하지

지금 금강공원 입구에는 그때 정봉서의 마누라가 부순 대문 기둥으로 지은 건물이 남아 있다고 고노들은 말하고 있다.¹²¹⁾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6~437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8~190쪽.

[동래구 설화 8]

의적(義賊) 정봉서와 마누라

임진왜란이 있던 후의 일입니다.

오랜 전쟁을 치르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유리걸식(遊離乞食)¹²²⁾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현(지금의 기장군)은 사람이 없어 거의 텅 비다시피 되었고, 이 때문에 고을이 그만 동래부(지금의 동래구)에 합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정봉서라고 하는 힘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홀어머니는 지병(持病)이 위중(危重)하였습니다.

정봉서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머니에게 보신탕을 잡수시게 하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만 정봉서는 산 너머 어느 마을의 부잣집 개 몇 마리를 훔쳐 와서는 어머니에게 끓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실이 발각되고 정봉서는 포졸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산 속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 속에는 좀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던 한 떼의 도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봉서는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곧 그들의 두령(頭領)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봉서는 부하들에게 당부하기를, 우리들 처지에 어찌할 수 없어 도적질은 하되 인색하고 악질 같은 부잣집만 골라서 하고, 어려운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주는 의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정봉서는 기장현의 쌍다리재 깊은 산 속에 산막을 차려 두고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 아래 어느 마을에서 젊은 부부가 첫아기를 순산하였으나 산모가 먹지 못해 굶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쌀과 미역을 가져다 주인 몰래 그 집 부엌에다 놓아두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동래부의 관원들이 봉물(封物)¹²³⁾ 꾸러미를 싣고 가는 것을 부하 도둑들이 보고

않느냐. 내 주인이 비록 도둑은 도둑이지만 의적이라는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치며 동헌 3대문을 때려 쳐서 판자가 몽땅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다.

121) 남아 있다는 게 동래의 고로(古老)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이다(『동래의 역사』, 190쪽).

122)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음.

123) 시골에서 서울 관원에게 선사하던 물건.

그 봉물 꾸러미와 함께 관원들을 끌고 와서 정봉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봉서는 잡혀온 관원들을 풀어주고 상좌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절을 올리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겠으니 제발 병든 노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살려만 달라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래부의 관원들은 자수한 정봉서를 끌고 가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매질을 한 후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후에도 관원들은 정봉서에게 음식은커녕 물고 주지 않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힘센 장사 정봉서도 한 달이 못 되어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봉서의 마누라는 치를 떨면서 분개하였습니다. 끓어 오르는 분김을 참지 못한 정봉서의 마누라는 동래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헌 앞에 세워져 있던 하마석비(下馬石碑)¹²⁴를 뽑아서 번쩍 쳐들었습니다. 놀란 관원들을 향해서

“이놈들! 내 남편은 너희들이 산 도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것을 살려 주었고, 또 도적질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굶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너희들 대신 구제하여 주었던 의리 있는 도적이었다. 네놈들은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하고,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돌비석으로 동헌 삼대문을 내리쳐 대문판자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동래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에 있는 건물은 그때 정봉서의 마누라가 부숴버린 삼대문을 옮겨다 새로 지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개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82~85쪽.

[동래구 설화 9]

옥서계의 망령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이다. 동래에 옥서계란 고을 관속이 있었다. 옥서계라는 벼슬은 관리의 징계를 맡아보는 관직으로 동래부사로 파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직책이었다.

그런데 이 옥서계가 병들어 누워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 옥서계의 급사에 놀란 고인의 친구들이 저녁 때 상가에 찾아가느라고 지금의 동래군청 뒷길을 지나가니 죽었다는 옥서계가 별안간 친구들 앞에 나타났다.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은 「영강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헛소문이었군요. 저희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 어디로 가시는 길이옵니까?」하고 물어보자,

124)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라는 표지를 새긴 비석.

「친구들 고맙소. 나는 분명히 죽은 몸이요. 그러나 내 소실로 삼고 있던 계집이 나의 삼오도 지내기 전에 오늘 저녁 다른 남자의 품으로 살려간다고 하니 분통이 아니 터지겠소. 나는 그런 계집을 그냥 두고 저승길을 택할 수 없어 그년을 죽이러 가는 길이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란 문상객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희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술이나 한 잔 나누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라고 권하니 옥서계는 아무 말 없이 뒤따라오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곤 그들은 근처 술집에 들어가서 술상을 청하여 잔을 권하니 옥서계는 분명히 마시긴 하는데 그릇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줄어들지를 았았다.

문상객들은 「영감님! 담배나 태우시며 서서히 소실 이야기나 들어 봅시다」라고 하니 「나는 지금 몹시 바쁜 몸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소」라고 한마디 남겨두곤 일어서기가 바빴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 문상객들은 그의 뒤를 밟고 따랐다. 옥서계는 복천동에 있는 조그만 집에 들어섰다. 정말 그곳엔 한 젊은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뒤 이 여인이 부엌에 들어서며 식도를 손에 잡자마자 갑자기 배를 두 손으로 부둥켜안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이 여인의 급사를 본 문상객들이 그 집으로 다가 섰을 땐 이미 옥서계는 어디인가 간 곳이 없었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7쪽.

[동래구 설화 10]

백록의 동래온천

우리나라 수많은 온천 중에서도 동래 온천의 역사는 가장 깊다고 한다. 대충 우리나라의 온천에 관한 전설을 간추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학, 백록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얘기들이다.

동래온천 역시 이 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백록이 와서 잠자고 가는 곳을 파보니 따뜻한 샘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지금 동래온천장서도 역사가 긴 여관인 「백록관」이라는 이름도 이에 유래된다고 한다.

여기에 동래온천에 관한 다른 전설 하나를 소개해 보자.

지금으로부터 1천 수백 년 전 신라 때 동래 고을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파는 집 근처에 있는 논에 백학 한 마리가 날아와 절름거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불구의 노파는 같은 처지에 놓인 학에 크게 동정하며 한참 동안 시선을 학에서 떼지를

않았다. 학은 다음날도 역시 그곳에 와서 서 있었다. 그리곤 사흘째 되는 날 학은 이상하게도 다리를 절지 아니하고 그 근처를 몇 바퀴나 돌다가 기쁜 듯 힘차게 날아가 버렸다.

이것을 본 노파는, 「이상한 일이다. 학의 다리가 낫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학이 있던 곳으로 가보니 딱딱딱한 샘이 솟고 있었다.

「나도 이 물에 다리를 담가 보아야 하겠다.¹²⁵⁾ 아마 이것이 다리를 고쳐주는 약치이구나.¹²⁶⁾」 노파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절름거리는 다리에 몇 번이고 몇 십번이고 약수를 찍어 발랐다. 이 약수는 신기하게도 효험이 있어 수일 후에는 그 다리가 부자유함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으니 노파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곤 사람들은 이 샘을 온천이라고 불렀다.¹²⁷⁾

역사의 기록 위에서 동래온천을 보면 신라왕들은 경주에서 울산, 양산을 거쳐 동래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조시대 세종임금 20년 1438년에 상경하던 일본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목욕했다는 사실도 남아있다.

이조 말엽 우리 국세가 날로 쇠퇴해 가던 때의 일이다. 부산 왜관에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동래부사 김선근에게 동래 온천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해온 바 있었다. 이 힘에 못 이긴 부사는 동래온천, 지금 대성관 여탕 자리의 목욕탕 한 간을 빌려 주고 사용료 조로 월 40원을 받게 하였다.

이때 일본인들은 옥실 밖의 도배를 해달라고 조르기에 부사는 무심코 묵은 동래부민들의 호적부를 꺼내주었다.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 나오자 부민들은 노발대발하여 소규모였지만 민란을 일으켰다. 군민이 충돌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안동부사 조병호가 내려와서 민란을 진압 시켰다고 한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8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0쪽.

[동래구 설화 11]

동래온천과 백학(白鶴)

125) 보아야겠다(『동래의 역사』, 190쪽).

126) 약수이구나(『동래의 역사』, 190쪽).

127) 『동래의 역사』, 190쪽에 있는 '백록의 동래온천'은 이 부분까지만 기록하고 있다.

옛날 신라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동래 온천동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파는 집 근처에 있는 논에 백학(白鶴) 한 마리가 날아와 절룩거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불구의 노파는 같은 처지에 놓인 백학을 크게 동정하여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학은 다음 날에도 역시 그 곳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학은 이상하게도 다리를 절지 않고 얼마간 이리저리 걷다가는 기쁜 듯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 근처를 몇 바퀴 돌아가는 다시 힘차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학의 다리가 낫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노파는 아픈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백학이 있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백학이 서 있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따끈따끈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물에 한번 다리를 담가 보아야지. 아마도 이것이 다리를 고쳐주는 약천(藥泉)인가 보구나.”

노파는 다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절룩거리는 다시에 몇 번이고 몇 십번이고 계속해서 약수를 찍어 발랐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수는 신기하게도 효험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던 다리가 이제는 불편하지 않게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이제 하늘이라도 날을 수 있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을 온천(溫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매일 밤 이 곳에 흰 사슴 [白鹿] 이 와서 잠을 자고 가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땅을 파보았더니 따뜻한 샘물이 솟구쳐 올라서 온천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개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76~178쪽.

[동래구 설화 12]

동래부사의 젓가락

어느 삼남지방이¹²⁸⁾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할 때 한배하(韓配夏)라는 사람이 동래부사로 부임해 왔다. 논바닥이 갈라져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짓는 백성들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128) 어느 해 삼남지방에(『동래의 역사』, 190쪽).

있던 부사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의 객사에 장작을 쌓게 했다.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관장으로 이곳에 와서 이 참상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부덕에서¹²⁹⁾ 오는 소치이므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했소. 내가 죽은 뒤 부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길 빌 뿐이오.』

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장작더미 불을 붙이라고 명했다.

그러나 감히 불을 지필 사람이 없었다. 부사가 다시 엄한 어조로 하인들을 꾸짖자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작에 불을 지폈다. 장작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 할 때 별안간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연 이틀 동안이나 흠뻑 내려서 개울에는 물이 칼칼 넘쳤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 부사는 동래에 재임하는 동안 언제나 백성을 위하는 명부사(名府使)로서 이름이 높았고 나중에는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술을 금하던 때였고 또한 당쟁도 심한 때였다.

어느 날 조회(朝會)에 들어오는 한 재상의 얼굴이 홍당무 같고 술에 취한 모습이 완연히 드러남을 본 반대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감마마, 만백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재상이 나라에서 금한 술에 취해 이 엄숙한 조회에 나오다니 이를 그냥 둘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하고 상소했다.

이때 한배하 재상은,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신은 매년 구월 구일에는 꿈속에서 옛 부사로 있던 동래에 가서 술과 음식의 대접을 받습니다. 지난밤에도 꿈속에서 동래에서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듯 하옵니다.』하고,¹³⁰⁾ 말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제향에만 술을 쓰게 했으므로 반대파들은 제향을 핑계하는 비겁자라고 반박했다.

한 재상은 다시 입을 열었다.¹³¹⁾

『그러하오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제향에 갔더니 하필 소신 앞에 놓인 음식에 젓가락이 없어서 소신은 옷에 찔던 첨저(尖箸)를 뽑아 먹었사오나 돌아올 때 그만 첨저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사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기이하게도 소신의 첨저가 없어졌으니 동래 부사에게 관차(官差=관청에서 보내는 아전)를 보내어 확인하심이 어떠하오리까?』하고 덧붙였다.

이리하여 왕은 동래에 관차를 내려 보냈다. 이때 마침 동래에서는 향사에 차렸던 제물을 치우다 보니 한 부사 자리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첨저가 놓여있으므로

129) 부덕으로(『동래의 역사』, 191쪽).

130) 라고(『동래의 역사』, 191쪽).

131) 이 부분은 『동래의 역사』, 191쪽에서 없다.

모두들 야단들이었다.

이 첨저라는 것은 당시 양반의 옷에 차고 다니던 작은 칼집 안에 꽂아 두는 조그만 젓가락을 말하는 것이다. 동래 관헌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서울의 한 재상에게 알리기 위해 통인(通引)할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참인데 서울에서 내려온 관차가 들어섰다.

관차는¹³²⁾ 향사 지내던 곡절에서부터 제상의 첨저에 이르기까지 이모저모를 묻게 되었다. 관헌들은,

『그렇지 않아도 하도 일이 이상하여 서울로 사람을 올리려던 차였습니다.』하고 대답하며 그 첨저를 내놓았다.

관차는 서울로 돌아가서 왕에게 첨저를 올리고 사실대로 고했다. 왕의 얼굴에는 화색이 만연해졌다. 원체¹³³⁾ 한배하가 청렴결백한 사람임을 믿고 있던 왕은 이 말을 듣자 더욱 그를 신임하여 정승의 자리까지 주었다고 한다.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48쪽.

**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0~194쪽.

[동래구 설화 13]

한부사(韓府使)의 젓가락

옛날 영남지방에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한배하(韓配夏)¹³⁴⁾라는 분이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부임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논바닥이 갈라지고 먹을 물도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우울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한 부사는 무엇을 결심한 듯이 그의 객사(客舍)¹³⁵⁾에 장작더미를 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관장으로 이곳에 와서 이같은 참상(參狀)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덕이 부족한 까닭이니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했소. 내가 죽은 뒤에라도 부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길 빌 뿐이오.”

이렇게 말을 마치자 하인들을 둘러보며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명했습니다.

132) 관차가(『동래의 역사』, 192쪽).

133) 본래부터(『동래의 역사』, 192쪽).

134) 숙종~영조 때의 문신으로 장령·정언·승지 등을 거쳐 무주부사·동래부사·충청도관찰사·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동래부사로 있을 때(숙종 33년, 1707년)에 금정산 산성에 중성(中城)을 쌓았다고 한다.

135) 다른 곳에서 온 관원을 대접하여 묵게 하던 집.

그러나 하인들 중에는 감히 여기에 불을 지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사가 다시 엄한 어조로 하인들을 꾸짖으니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할 때쯤, 별안간 하늘 가득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이틀 동안이나 흠뻑 내려 도랑에는 물이 팔팔 넘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배하는 동래부사로 재임하는 동안 언제나 백성을 위한 선정(善政)을 베풀어 그 이름이 높았고, 나중에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술을 금하는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습니다. 또 당쟁도 심한 때였습니다. 하루는 조회(朝會)에 들어오는 한재상의 얼굴이 홍당무와 같아서 술에 취한 것이 완연했습니다.

이에 한재상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임금께

“상감마마, 만백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재상이 나라에서 금한 술에 취해 이 엄숙한 조회에 나오니 이를 그냥 둘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은 매년 구월 구일이면 꿈속에서 옛 부사로 있었던 동래에 가 술과 음식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간밤에도 꿈속에 동래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듯 하옵니다.”

하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제향(祭享)¹³⁶에만 술을 쓰게 했으므로 한재상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그를 제향을 핑계하는 비겁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 하온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사옵니다. 어젯밤 제향에 갔더니 하필 소신 앞에 놓인 음식에 젓가락이 없어 소신은 옷에 찔던 첩저(籤箸)¹³⁷를 뽑아 먹었사오나 돌아올 때 그 첩저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기이하게도 그 첩저가 없어졌사오니 동래부사에 관차(官差)¹³⁸를 보내 한 번 확인해 보심이 어떠 하오리까?”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리하여 임금은 동래부사에게 관차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 때 마침 동래부에서는 제사(祭祀)에 차렸던 재물을 치우던 중에 원래 한부사의 자리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첩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두들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동래부의 관원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서울에 계시는 한재상에게 알리기 위해 통인(通人) 한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내려온

136) 나라에서 올리는 제사, 또는 제사의 높임말.

137) 필요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도(粧刀)의 칼집에다 함께 넣어 다니는 작은 젓가락을 말함.

138) 옛날 관청에서 파견하던 아전을 말함.

관차가 당도했던 것입니다. 관차는 제사 지내던 곡절에서부터 재상의 첨저에 이르기까지 이모저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이 하도 이상해서 서울로 사람을 올려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 첨저를 내놓았습니다.

관차는 서울로 돌아가서 임금께 첨저를 올리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엔 희색이 가득하였습니다. 본래 한배하(韓配夏)가 청렴결백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던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부터 더욱 그를 신임하였다고 합니다.

* 광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67~70쪽.

[동래구 설화 14]

기왓장으로 왜적 친 두 의녀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열들을 모신 총렬사 의열각에 여자 네 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이 가운데 두 분은 습와격적의녀신위(拾瓦擊賊義女神位)로 돼 있는데, 이는 ‘기와를 주워 적을 친 의녀의 신위’란 뜻이다.

1592년(선조 25) 부산포 앞바다에 난데없이 100여 척의 왜적 병선단이 밀어닥쳤다. 피비린내 나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왜적이 몰려들자 병사들은 물론 수많은 민중들이 창과 칼, 돌맹이와 기왓장 등으로 사력을 다해 왜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총(鳥銃 :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총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여 ‘조총’이라 불림)으로 무장한 엄청난 왜적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부산진성이 무너지고 동래성이 함락되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다. 그들 중에는 연약한 아낙네가 적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열들을 모신 총렬사 의열각에 여자 네 분의 신위(神位 : 신령이 위치한 자리)를 모셔 놓았다. 그 가운데 두 분은 습와격적의녀신위(拾瓦擊賊義女神位)로 돼 있다. ‘기와를 주워 적을 친 의녀의 신위’란 뜻이다.

송공단(宋公壇 :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11호 · 동래구 복천동) 남단에도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두 무명 아낙네의 넋을 기려 세운 ‘의녀위(義女位)’ 2기가 서 있다. 이 두 아낙네가 1592년 4월 15일(음력) 시골에서 동래성 안으로 왔을 때, 그곳에 왜적이 쳐들어 와서 동래의 병사와 민중들이 함께 왜적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싸움은 치열했다. 총알과 화살이 날아들고 창끝과 칼날이 번쩍였다. 몽둥이질이 난무했다. 백병전(肉薄戰 : 적과 한데 뒤섞여 총검으로 치고받는 싸움)이었다. 시골에서 온 두 아낙네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내 고향 동래만큼은 왜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낙네들의 결의는 비장했다.

아낙네들은 돌팔매질로 항전하는 남자들을 도와 열심히 돌을 날라다 주었다. 그러나 금방 힘이 부쳤다. 급기야는 왜적에게 쫓겨 동헌(東軒 :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호·동래구 수안동) 기와지붕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그 아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왜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이들은 기왓장을 뜯어 내 김상과 함께 밀려드는 왜적을 향해 혼신의 힘으로 기왓장을 집어 던졌다.

왜적 수십 명이 그 기왓장을 맞고 고꾸라졌다. 그러나 던져도 왜적들은 끝없이 몰려들었다. 젓 먹던 힘까지 다해 기왓장을 집어던지던 아낙네들은 마침내 지붕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바로 그때 왜적의 사정없는 칼날이 날라들었다. 그들은 칼을 맞고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눈을 부라린 채 분을 삼키지 못하고 왜적을 향해 침을 뱉으며, 꺼져가는 목소리로나마 호통을 쳤다. 숨이 끊어졌다고는 하나 어찌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었겠는가?

전쟁이 끝난 뒤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이들 김상은 아낙네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죽어 있었다. 그 얼마나 장한 아낙네들이었던가. 현재 송공단에는 자그마한 빗돌 2기만이 남아있다.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속내만큼은 길이길이 남아 전해져야 할 우리네 산 역사 이야기야 아닐까.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43~44쪽.

[동래구 설화 15]

송공단의 효충비

송공단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싸우다 동래읍성 전투에서 순절한 선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후손들에게는 조상의 넋을 기리고, 백성들에게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역사 현장이다. 현재 동래시장 상가 건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음력 1592년 4월 15일, 왜적은 오전 8시부터 동래읍성 남문 주변에 집결한 후 망월산 인생문 부근에서 성을 헐고 들어왔다.

송상헌 부사는 크게 탄식하며

“나라에서 나에게 이 성을 맡겼으니, 내가 살고 성이 함락될 수는 없다. 나는 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하고 결의를 다지며 부민과 함께 싸워 죽음으로 성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동래읍성 안은 칼과 창이 하늘에 빛나고 철환(鐵丸 : 총알)은 비처럼 퍼부었으며, '와' 하는 함성은 땅을 요동시켰다. 공(公)의 의기(義氣)는 되레 태연하였으며, 급히 조복(朝服)을 찾아서 갑옷 위에 입고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호상(胡床 : 걸상처럼 된 간단한 의자)에 의지하여 손을 모으고 단정히 앉으니, 우뚝하기가 산악(山岳 : 높고 험준하게 솟은 산)과 같았다.

적군이 와서 다다르자 평조익(平調益)이 일찍이 공에게 입은 은덕을 보답하기 위해 급히 앞으로 나아가서 공에게 눈짓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았다. 평조익은 또 옷을 당기며 성 옆의 빈터를 가리켰다. 그러나 공은 이미 호상에서 내려가 북쪽을 향하여 절하였다. 절을 마치자 그 아버지에게 글을 올리기를,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무겁고 아버지와 자식의 은정은 가볍습니다.” 하고 하직을 하였다.

이때 왜적이 호상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니,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이웃 나라와 교제함에 도가 있어서 우리는 너희들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자 왜적이 크게 성내어 호상에서 끌어내리고자 하였다. 공은 신발 끝으로 차면서 대항하다가 마침내 순국을 당하니, 그때 나이 마흔두 살이었다.

평의지 등은 서로 떠들썩하게 칭송하며 탄복하고 공을 살해한 왜적을 끌어다가 죽였다.

공이 순국하기 전 휘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허리 밑에 콩만한 사마귀가 있으니, 내가 죽거든 이것을 내 시신의 증거로 삼아 시체를 거두라.”

고 말하였다.

모든 부민들이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철수와 매동은 끝까지 공을 시위(侍衛 :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며 호위함)하여 부탁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능처럼 쌓인 시체 가운데 공의 시체를 거두어 임시로 울림원(栗林園)에 묻어 두고 매년 제사일과 절진(節辰 : 기념일)에는 반드시 성찬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공의 동생 집에 가서 절의로 순국한 충신 송공의 애국심을 소상하게 말하였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한 이야기를 듣고 울림원 묘를 청주 가포리(加布里) 남쪽 골짜기로 반장(返葬 :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다가 장사함)했다. 두 관노는 끝까지 공의 부탁을 실천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1594년(선조 28) 반장할 때, 공이 동래에서 성실과 신의로써 다스렸으므로 이속(吏屬)과 부민들이 공을 사랑하고 모시기를 부모처럼 하였는데, 관구(棺柩)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로 따라 쫓아와서 모두 끌어 잡고 슬피 울면서 차마 놓지 않았으며, 적장 평의지 이하 또한 모두 말에서 내려 극진히 예를 다하였다.

그리고 연월일에 청주 가포리 묘지에 장례를 치렀다.

송공단 담장 밑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단제를 지내는 날에는 관노로 하여금 제사를 올리게 하고, 제물은 동래부에서 마련하였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45~48쪽.

[동래구 설화 16]

산저마을의 자유천과 우장춘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는 한국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1953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우장춘 박사는 전국 각지에서 전달된 조의금을 모아 물이 부족했던 산저마을에 우물을 파고 '자유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남교차로에서 우장춘로 위쪽 일대와 제1만덕터널 입구 오른쪽 대동아파트 아래쪽 일대가 산저마을이다. 이 마을은 금정산 기슭 밑에 이루어진 산촌 마을로 산저(山底)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장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종학자로 아버지 우범선(禹範善)과 일본인 어머니 사카이 나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1895년(고종 22)에 일어난 을미사변은 국모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변으로, 협조와 방조를 한 이가 조선군 우범선이다. 우범선은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일본 수비대와 함께 경복궁에 침입, 명성왕후 시해를 방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체포령이 내려져 일본군의 보호를 받아 일본으로 망명을 하였다. 동경에 거주하며 일본 여성 사카이와 결혼하여 재기를 꿈꾸던 중, 1903년 조선에서 보낸 자객 고영근(高永根)에게 암살당하였다. 우장춘(禹長春, 1898~1959)이 다섯 살 되던 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장춘은 생활이 어려워 1년 동안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하였다.

어느 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은 우장춘에게 어머니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아라. 민들레는 아무리 짓밟혀도 끝내는 꽃을 피운단다. 낙심 말고 저 민들레처럼 어려운 일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장춘에게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 후 우장춘은 힘들 때마다 민들레의 교훈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실과에 입학하여 육종학의 전문 지식을 쌓게 되었다. 그는

“나는 조선인이다. 아버지의 죄를 알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고 하면서, 어머니와 처자식을 모두 일본에 남겨두고 대한민국에 환국을 결심하였고, ‘우장춘 박사 귀국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1950년 3월 18일 부산원예고등학교에서 열린 환영식장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 일본인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며 조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본에서 귀국한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가와 일반인에게 육종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산 신품종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였다. 비록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기초 원리를

규명한 것이다. 바로 우장춘 박사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종의 합성’ 이론이다. 그의 발명은 지금 우리가 먹는 무·배추의 종자를 생산해 자급자족을 가능케 했고, 병 없는 씨감자와 체계적인 감귤 재배 기술도 이뤄냈다.

1953년 8월에 우장춘 박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장춘 박사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원예시험장의 강당에서 어머니의 위령제를 지냈는데, 전국 각지에서 조의금이 전달되었다. 그는 이 돈으로 전부터 물 부족으로 고민해온 산지마을 주민과 연구소를 위해 우장춘기념관 야외마당에 우물을 파고 ‘자유천(慈乳泉)’이라 명명했다. 이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젖과 같다’라는 뜻으로 어머니를 추모하는 우장춘 박사의 효심을 알 수 있다. 그는 매일 자유천의 우물물을 퍼 올려 세수를 하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농림부 장관직 제의도 거절하면서 오로지 채소 종자 개발에 매달리며 일생을 바친 우장춘은 죽기 직전 병상에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은 후에야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며 오열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연구 활동 유적지인 옛 원예시험장 자리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10월 21일 우장춘기념관(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62번길 7)을 개관하였다. 미남교차로에서 금강공원 식물원까지 도로명을 ‘우장춘로’라 이름 붙인 것도 그곳이 그의 옛 원예시험장 자리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함이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49~52쪽.

[동래구 설화 17]

반혼초와 동래 담뱃대 마을

임진왜란을 계기로 처음 들어온 담배는 약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반혼초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반혼초는 '죽였던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래 담뱃대는 동래 명물로 손꼽혔는데, 모양 색깔, 무늬 등에서 품질이 좋아 서울 양반들의 수요는 물론 진상품이 되기도 했다.

시골집 마루에 앉은 할아버지가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계시는 모습, 안개 같은 담배 연기가 이따금씩 피어오르던 풍경. 이렇듯 담뱃대는 지난날에 대한 향수와 장인의 손길이 맞물려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도 한다.

담배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약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반혼초(反魂草)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 유래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반혼초는 조선 영조(英祖) 때 명필인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의 연초시(煙草時) 중에 나오는 담배 별칭이다.

귀국(鬼國 : 죽은 사람이 사는 나라)은 윤상(倫常 : 인간의 도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동해 밖에 있어 군부(君父 : 임금과 아버지)를 존경할 줄도 모르고, 미신이 많아 집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몹시 꺼리어 중환자가 있을 때는 죽기도 전에 들것에 실어다가 산과 들에 내버리는 원시적 만풍(蠻風 : 야만스러운 풍속)이 만연한 곳이었다.

하루는 그 나라 공주가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공주 역시 산야(山野 : 산과 들을 함께 이르는 말)에 버려져 속절없이 까마귀 밥이 될 판이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공주는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다. 공주의 얼굴은 화사해 졌고, 동작은 씩씩하여 병에 걸린 것 같지도 않아 나라 안이 놀라 귀신의 작패라고 했다.

왕은 공주에게 살아오게 된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을 지내니 정신이 똑똑해지며 이상스런 향기가 코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향기라니?”

“그래서 눈을 떠서 살펴보았더니 꽃다운 풀이 있는데 그 잎사귀가 방석만큼, 일산(日傘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큰 양산)만큼 했사옵니다.”

“기이한지고.”

“참말 기이하옵니다. 그 큰 잎사귀에서 발산하는 향이 뇌수(腦髓 : 뇌)를 새롭게 하는 것인지만 한 번 맡으면 한 번 소생이 되었습니다. 영금영금 기어가 잎사귀 밑에 누웠더니, 그 향이 뇌수에 스며드는 것만 아니고 몸과 뺨속까지 저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에는 더욱 원기가 생겨 이렇게 일찍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로구나. 공주가 병이 들기 전보다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몸이 가뿐해져 되돌아온 것을 보면.”

왕은 탄복하여 곧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시험해 보도록 하였는데, 과연 백성들도 병이 나았으며 정신이 맑아져 돌아오곤 하였다.

백성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서로 다투어 그 풀을 뽑아다가 집 뜰 안에 심게 되었다 또한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하여 이 풀 이름을 '반혼초'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부터 동래 명물로 손꼽던 담뱃대는 구리와 니켈 등을 섞은 백동(白銅)으로 만들어 예전에는 연관(煙管 : 연기가 통하는 관)이라 불렀다. 동래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공업품으로 모양, 색깔, 무늬 등에서 품질이 좋아 서울 양반들의 수요는 물론 진상품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울산의 병영에 있던 무기 제작창에 연관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동래로 옮겨왔으며 대략 200여 년은 났을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

《동래부지》(1740년) '각색장인(各色匠人)'에 유기장 5명과 유장(鑄匠) 2명이 있고, 《임원십

육지(林園十六志) 예규지(倪圭志)의 ‘팔역장시’에도 동래장에 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반 이전부터 동래 담뱃대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담뱃대의 대꼬바리(담배통, 담뱃대의 방언)와 물부리(담배를 끼워서 입에 물고 빠는 물건)를 만들기 위해서는 1200°C가 넘는 화덕 속에 금속을 넣어 쇳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쇠막대기를 쇠망치로 쳐 두드려야 했다.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들려오면, 연관공들이 흥겹게 부르는 ‘담바귀 타령’도 밤늦게까지 흘러나왔다.

“시작일세 시작일세 담바귀타령 시작일세/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 울산 담바귀야/ 너의 국(國)이 어데길래 대한 국을 왜 왔나/ 우리 국토 좋건마는 대한의 국을 유람왔네.”

라고 불렀다.

한편, 1918년에는 ‘동래연관조합’이 결성되었다. 조합 직원은 약 800여 명으로 담뱃대 품질 개량에 힘썼다. 동래 담뱃대는 동래연관조합을 통해 바로 판매되지 않고, 서울의 조합(총판)으로 보내져 전국의 판로를 거쳐 팔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1920년 5월 1일)에서는 “조합 직공 700여 명의 품삯이 깎여 동맹 파업을 했다.”는 보도가, 6월 3일 “400명이 직공은 품삯을 올리라는 시위운동으로 조합 사무소의 유리창과 기구를 파손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어 1922년 3월 15일에는 “동래는 예부터 담뱃대를 생도(生道 : 살아가는 방도)로 삼아 수백 년 전부터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 업으로 수천 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당시 담뱃대를 생산했던 자연마을은 복천동 6통 지역 우성아파트 아래쪽 골샘 주변이었다.

1930년부터 일본이 기계로 대량생산을 시작했고, 담뱃대 흡연자가 감소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니켈이 수입 금지가 되면서 담뱃대 생산 역시 쇠퇴를 맞게 됐다.

광복(1945년) 후 담배가 께련으로 바뀌고 필터 담배가 들어왔다. 마침내 1960년대 후반 담뱃대는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전통공예 작품으로 액세서리화 되었다고 한다.

담배의 이칭(異稱 : 다른 명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의 어원부터 얘기해야 한다. 호암 문일평(湖巖 文一平)의 《담배考》에 따르면, ‘담배는 미주가 원산(原産 : 생산지)이나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이후 비로소 세계에 퍼졌다’고 한다. 담배 종자가 유럽에 들어오기는 16세기 중엽이요, 다시 해양교통에 의하여 명나라와 일본에 전래된 것은 동세기 말(同世紀末)이라 하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7세기 초인 광해(光海) 연간이었다. 일본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1614년(광해군 6)에는 담배 재배를 했다고 전해진다.

전래된 경위는 임진왜란 후 일본과 부산항이 호시(互市 : 외국과의 물물교역)를 열었는데 평화로운 교역(交易) 속에서 담배의 전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또 담배의 본래 이름은 담파고(談婆姑)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헌 《지봉유설(芝峰類說)》엔 담파고라 적혀있다.

《계곡만필(谿谷漫筆)》에는 담박귀(淡泊鬼)라 하였는데, 동음이자(同音異字)이니 이것은 모두 남영초(南靈草)와 한가지로 모두 담배의 별칭이라고 한다. 남영초란 《계곡만필》이나 《기년통고(紀年通攷)》에서 담배를 말하는 것으로, 남양(南洋)에서 생겨난 영초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

었다. 물론 이 남영초를 일본 사람들은 담파고라 했다고 씌어 있지만 실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담파고는 본시 미국의 토어(土語)로 오늘날 담배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말 담배도 담파고의 약칭이다. 또한 말하기를 ‘담파고가 토어는 토어나 연구(煙具)의 명칭이었는데 연초(煙草)의 명칭으로 변천되었다’고 하며, 또 전하기에는 담파고는 그 원산지 명이 기인된 것이라고도 했다.

어쨌든 담배의 이칭(異稱)이 《연초기(煙草記)》엔 무릇 백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전부는 기록할 수 없고 다만 몇 가지만을 모아 보면, 남쪽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남초(南草) 또는 남영초, 정신을 혼취(昏醉)케 함이 술과 같으므로 연주(煙酒), 피로를 풀어주는 차와 같다고 해서 연차(煙茶), 한 번 빨아 습성이 되면 잊으려고 하되 잊을 수 없으므로 상사초(想思草)라는 염칭(艷稱) : 부러운 마음으로 매우 칭찬하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이 염칭으로 볼 때 상당한 이야기거리의 근거가 있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53~58쪽.

[동래구 설화 18]

산저 노인과 차밭골

‘산저’라 불리는 노부부는 마을 청년들에게 자기 행랑채를 딸감으로 쓰되, 차밭골의 작설나무는 베지말라고 했다. 다음 해 산저 노인은 차밭골에서 머슴살이를 자청하는 청년을 만나 풍년을 맞았다. 그는 자신이 작설나무의 신(神)이라고 말한 후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는 데 애썼다. 작설나무가 자생한다 하여 지금도 ‘차밭골’이라 불린다.

옛날 성내에 ‘산저’라 불리는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많이 내려 성내 사람들이 딸감을 구할 방도가 없어 서로 의논한 끝에 가까이 있는 차밭골(현 부산 동래구 온천1동)의 작설나무를 베어 딸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산저 노인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차약(茶藥)을 위해 가꾸어 온 작설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으나 마을 청년들은 모두 얼어 죽게 된다면서 강행할 태세였다. 산저 노인은 부인과 의논한 끝에 마을 청년들에게 자기 집 행랑채를 헐어 딸감으로 쓰고 차밭골의 작설나무를 베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청년들은 산저 노인의 호소에 따라 노인의 행랑채를 헐어 딸감으로 쓰고 작설나무를 베지 않았다.

다음해 봄, 농사철이 닥쳤고 산저 노인이 머슴을 구하려고 했으나 행랑채가 없다 보니 아무도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큰일이군. 빨리 못자리를 만들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산저 노인이 애가 타서 차밭골에 올라가니 웬 젊은 청년이 나타나 머슴살이를 자청하는 것이었다. 산저 노인은 그 청년을 머슴으로 삼았고, 청년은 다른 머슴보다 일을 부지런히 잘했다. 못자리를 할 시기가 되어 산저 노인이 청년에게 못자리를 하도록 시켰다. 그때 청년이 “올해는 찬물이 나는 찬샘 가까운 눈에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여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그해 봄은 가뭄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의 못자리가 물이 없어 모두 말라 죽었으나, 유독 산저 노인의 못자리는 찬샘 가까운 곳이어서 그런지 남보다 모가 잘 자랐다. 일찍 모심기를 마친 산저 노인은 남은 모를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다.

또, 그해에는 원인 모를 유행병이 번져 산저 노인 댁뿐만 아니라 성내 마을과 인근 마을까지 환자가 많이 생겨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청년 머슴이 작설나무 잎으로 만든 차약을 찬 샘물에 타서 먹게 하니 산저 노부부의 병세가 치료되고, 마을에 도는 유행병도 잡을 수 있었다. 그해 산저 노인은 청년의 노력으로 풍년을 맞아 행랑채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연말에 산저 노인이 청년 머슴을 불러 새경(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을 주려 하자 청년이 산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큰절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마을 사람의 딸감으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차밭골 작설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여 살아난 작설나무의 신(神)입니다. 저는 새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 1년간 할아버지 댁에서 일을 했으며, 원인 모를 유행병도 고쳐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청년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 동래부 관가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차밭골 작설나무의 신령스러움에 놀란 성내 사람들은 그 후로 이 나무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고 한다. 이 계곡 주변에 작설나무가 자생한다 하여 지금도 ‘차밭골’이라고 불리고 있다.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65~69쪽.

참 고 문 헌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 김승찬, 『금정구 변방마을의 설화와 민요』(수고본) 수록.
- 김승찬 외,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 김승찬 외,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 김승찬, 『육담과 해학담』, 도서출판 양업서원, 2017.
-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5.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 손진태, 『조선민담집』(일문), 동경: 향토연구사, 1930.
- 주영택, 『74가지 옛 이야기로 만나는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 최인학 역편, 손진태,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제보자 색인

ㄱ

강대순 54
 강두성 155
 강두이 289, 290, 291, 292
 강일필 247
 강차희 400
 고재분 263, 264, 265, 266
 광병윤 12
 구말순 193
 권갑례 146
 권분난 13, 14, 15, 16, 17, 18, 19, 21, 22
 권숙자 303
 권영자 132
 금숙현 132
 김귀근 366, 367
 김규조 77
 김금년 302
 김금순 301
 김노미 275
 김대봉 51
 김말출 146, 147, 148
 김복련 314, 317, 319, 320, 321, 323,
 325, 326, 327, 330, 331, 334
 김복실 368
 김부권 75, 76
 김분엽 114
 김상금 195, 196
 김상현 219, 221
 김소돌 369, 370, 371
 김숙자 149
 김순남 174, 175, 176, 373
 김순내 191, 192
 김순옥 68
 김순조 210, 211, 212
 김영선 142
 김영자 93, 94, 96, 97, 98, 100, 101,
 102, 106, 107, 108, 109, 111, 113
 김용자 133, 134

김이선 374
 김일연 429
 김정수 212
 김정순 149
 김종철 156, 157
 김중순 375
 김지택 206
 김진태 129
 김춘남 44
 김필남 241, 242
 김학규 130, 131
 김형숙 247, 249
 김혜숙 69, 70

ㄴ

남궁영화 71
 노재상 55, 56

ㄷ

도광수 296, 308

ㄹ

류순임 8

ㅁ

문남순 375
 문말덕 313
 문장원 401, 402
 민색인례 57, 58

ㅂ

박경연 124, 125
 박경열 80, 81, 82

박귀필 158
 박도자 66, 67
 박말순 403
 박명철 404, 405, 430
 박명환 275
 박무성 293
 박보기 167
 박복자 199, 221, 222
 박사례 322, 329, 338
 박상숙 64, 65
 박선례 138, 139, 140
 박소남 310
 박수식 350, 351, 354, 355, 356, 361
 박숙인 59
 박순분 199, 200, 201
 박순엽 60
 박영자 168
 박옥희 77, 78, 79, 80
 박용진 376, 377, 380, 381, 382
 박원근 52, 53
 박점명 8, 9, 10
 박정숙 223, 224, 225, 226
 박춘자 193, 194
 박희찬 406, 407
 반득연 226, 227, 228, 229
 배석업 4
 백수연 82
 백순임 11
 변명임 207, 208
 병태주 408, 409, 410, 431

人

서순남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서화순 268
 손관익 307
 손순덕 231
 손운선 242, 243, 244
 손효득 232, 233, 234, 235, 236
 송구자 267
 신병철 143

신용영 93

○

안상식 213, 214, 215, 216
 안종내 43
 안종네 383, 384, 385
 양이순 305, 306
 양재철 411, 432, 433, 434
 엄소연 41
 엄육남 311
 엄태호 412, 413
 오옥분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오윤신 61
 오절 12
 우경녀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종수 125
 유남순 414
 유말순 203
 유문자 150
 윤순필 164
 윤필순 333, 335, 339
 이광수 386
 이근호 3
 이두순 276, 277, 278
 이맹숙 250, 251
 이명순 151, 152
 이복연 45
 이봉주 188, 189
 이분남 414
 이상우 387, 388, 399
 이순녀 254, 255, 256, 257, 258, 259, 260
 이애식 165, 166, 167
 이용악 290, 341, 345, 346, 348, 350,
 353, 358, 362
 이우순 5, 6
 이원님 115, 116, 117, 118, 119, 120, 121
 이점아 388, 389
 이조원 361
 이종도 203, 204, 205

이찬덕 67
 이춘자 41, 42, 43
 임달연 145, 390, 391, 392
 임채엽 121, 122, 123

스

장귀안 160, 161, 162, 163
 장기봉 131
 장민순 196
 장수자 262
 전덕순 46, 47
 정덕순 393
 정도출 417
 정명순 31
 정봉화 158, 159
 정상금 3
 정영실 190
 정옥임 144
 정인열 222
 정인자 251, 252, 253
 정재복 72, 418
 정필순 153, 154
 정형순 278, 279, 280, 281, 282, 283
 정혜연 7
 조갑선 217
 조병담 269, 270, 271, 272, 273, 274
 조분갑 245, 246
 조종례 62, 63
 주옥생 418, 419, 420, 421, 422
 주옥자 32, 33, 34, 35, 37, 38, 39, 40
 주재미 394

지덕순 197, 198
 진삼순 209, 210

ㅋ

차삼연 246
 차옥자 394, 395, 396, 397, 398
 천복자 144, 145
 최분이 424
 최수영 73
 최양자 141, 142
 최임출 218, 219
 최정순 126, 127, 128
 최진옥 426
 최해수 47, 48, 49

ㅌ

표순덕 50

ㅎ

허필순 134, 135, 136, 137
 허현임 363
 홍갑순 283, 284, 285
 홍성배 237, 238, 239, 240
 홍정희 159
 홍희정 169, 170, 171, 172, 173
 황노미 427
 황성례 114
 황춘자 73, 74

설화 제목 색인

7

- 가난 59, 250
 가난한 동대마을 383
 가락장사 24
 가을 닭 183
 가짜 상투 168
 갈가지 76
 갈치 159
 갈치제 159
 강피 6, 10, 199, 210, 219, 221, 226,
 246, 251
 개 19, 131, 170, 174, 201, 274, 280,
 414, 432
 개 각시 305
 개구리 눈 196
 개똥 223
 개똥 보리쌀 108, 228
 거짓말 330
 걱정 136
 계 82, 362
 게으른 아내 길들이기 351
 결혼 38, 218, 306, 427
 결혼식 날 429
 경주 석굴암 242
 경주공방 431
 계명봉 397
 계모 184
 고당지 389
 고당할매 481
 고려장 5, 31, 33, 41, 44, 62, 93, 134,
 141, 148, 158, 163, 165, 182,
 197, 203, 206, 211, 213, 218,
 222, 224, 227, 235, 241, 245,
 247, 251, 254, 269, 276, 321, 371
 고려장터 494
 고민 81
 고생 399
 고양이 28
 고양이 새끼 322
 고추 90
 곡소리 262
 곡식 112
 곤혹 118
 곱감 6, 32, 45, 54, 124, 131, 134, 158,
 152, 158, 156, 164, 166, 167, 178,
 192, 212, 219
 관세음보살 475
 교미 174
 교장선생님 174
 구렁이 22, 175, 188, 240
 구렁이술 93
 구멍 3, 46, 223, 242, 252, 256
 국청사(國淸寺) 468
 귀 어두운 사람 186
 귀신 8, 44, 54, 72, 153, 159, 191, 412
 귀신 소리 279
 그림 189
 그림 편지 186
 글공부 250
 금구선인 487
 금도끼 238, 271
 금샘 368, 395
 금성동 488
 금정산 368, 481
 금정산 계명봉 473
 금정산 미륵암 473, 474
 금정산 범어사 437, 438
 금정산의 삼밭골 466
 금줄 239, 240
 기왓장 381, 515
 기차 89
 길 252
 김해 김씨 38
 김해 김씨 묘 204
 김해 허씨 38
 김효문의 처 468
 까마귀 432

까치 새끼 120
 까치발 형상 380
 꼬꾸랑 이야기 375
 피 17, 326
 꿀 장사 262
 꿈 이야기 273

L

나무 432
 나무꾼 34, 41, 114, 125, 137, 205, 271
 난리 132
 남녀 149
 남산 470
 남자 43, 81
 남편 39, 102, 171, 189
 남편 방귀 211
 남평문씨 467
 낭백스님 478, 479
 낭패 84
 내 방귀 400
 내력 5, 33, 41, 31, 44, 62, 93, 134, 141,
 148, 158, 163, 165, 172, 182, 196,
 203, 206, 213, 218, 222, 224, 227,
 235, 241, 245, 247, 251, 254, 269,
 276, 371
 냄새 179
 노름꾼 13
 노부부 112
 노스님과 이무기 471, 472
 노적거리 바위 474
 노포 391
 노포 마을 486
 노포1동 482
 녹동마을 482
 녹천탕 175, 187
 논 396
 누룩장사 180
 누명 320
 눈 15, 207, 313
 눈물 24
 느티나무 483

늑대 116

C

다람쥐 29
 다리 263
 단칸방 49, 56, 123, 195, 196, 198, 228,
 253, 266
 달 204
 달강고개 101
 달마스님 257
 당산나무 369
 당산제 176
 대결 285
 대응전 주련 495
 대화 30, 244
 도(道) 314, 476
 도깨비 46, 50, 53, 57, 60, 71, 72, 73,
 74, 75, 78, 144, 147, 151, 150,
 153, 188, 221, 232, 233, 249,
 277, 278, 325, 367, 373, 380,
 386, 388, 393, 396, 418, 421, 423
 도깨비불 372, 404
 도둑 339
 도둑질 331
 도망 97, 156
 도망간 아이들 423
 독버섯 124
 독사지옥 419
 돈 259
 돈 도깨비 348
 돌 264
 돌탑거리 485
 동대 382
 동래 녹천탕 426
 동래 담뱃대 마을 519
 동래 송공당 407
 동래 정씨 시조 406
 동래(東萊) 관우묘(關羽廟) 500
 동래(東萊) 삼성대(三姓台) 498
 동래기생 431
 동래부사 511

동래부사 민영훈 377
 동래온천 509, 510
 동래의 관항묘 500
 동성동본 398
 돼지 121
 된장 86
 두 의녀 515
 두구동 376, 465
 두구동 방귀쟁이 307
 두꺼비 94, 128
 두실마을 485
 딸 18, 47, 57, 63, 65, 67, 80, 157, 166,
 260, 284
 떡 57
 떡 장사 어머니 217
 퐁 86
 퐁떡 163

□

마누라 39, 505, 507
 마을 51
 만덕고개 275, 404
 말 37, 38, 91, 107, 162, 185
 망령 508
 매구 235
 매구 이야기 350
 매미 전설 291
 매학동자 439
 머리카락 72
 머슴 199, 310
 멋잇감 15
 며느리 3, 6, 7, 9, 13, 41, 48, 55, 63,
 66, 67, 77, 80, 85, 86, 108, 135,
 138, 142, 142, 146, 148, 151,
 166, 177, 183, 193, 193, 203,
 210, 211, 214, 218, 224, 228,
 242, 243, 246, 249, 254, 265,
 268, 282, 290, 331, 409, 420
 명 풍수 이야기 323
 명당 205
 명당자리 204, 236

명륜동 관운묘 401
 명주 30
 명태귀신 169
 명판결 226
 명학동지(明鶴同知) 442
 명학스님 488
 모(毛)탕 86
 모래 398
 목욕 267
 목조미륵보살좌상 474
 목탁 280
 뫼자리 427
 묘 411
 묘전화상 474
 무덤 406
 무진장스님 495
 문동병 93
 문둥이 93, 117, 181
 문수보살 283
 물 115, 395
 미륵암 3, 152, 158

ㅅ

바구니 375, 383
 바닷물 137, 159
 바람 238
 바리데기 127
 바보 207, 311
 바보 아들 154, 403
 바위 51, 387
 박권농의 아들 446, 448
 반흔초 519
 받침 80
 밤 75
 방구 13
 방귀 3, 9, 63, 67, 85, 88, 135, 138, 139,
 146, 149, 183, 210, 211, 225
 방귀 시합 391, 393
 방귀 힘 214, 224, 282, 384, 420
 방귀쟁이 아주머니 392
 방귀쟁이 할머니 390

방법 102
 방앗고 354
 밭 175
 백록 509
 백말 피 233
 백여우 481
 백학(白鶴) 510
 뱀 15, 23, 41, 180, 482
 뱀 서방 이야기 341
 뱀 이야기 292
 버들 유씨 398
 벌 53
 범 375, 383
 범어사 396, 438, 439, 483, 495
 법 70
 법정스님 475
 병어리 58, 244
 병어리 할멈 334
 벼락 370
 벼락덤불 370
 변명 13, 86
 별난 시조부 335
 별난 아이 120
 병 264
 보리타작 소리 161, 167, 267
 보물상자 497
 보양 203
 복 35, 202, 281
 복 없는 며느리 413
 복방귀 소리 210
 복수 15, 199, 231
 본처 211
 봉사 부부 244
 봉양 108
 봉양 6, 7, 48, 66 77, 108, 135, 142,
 146, 148, 151, 177, 193, 214, 218,
 223, 228, 243, 246, 249, 254, 268
 부모 211, 226
 부모 봉양 225
 부부 162, 225, 266, 301
 부인 6, 10, 59, 62, 81, 154, 199, 210,
 219, 221, 226, 246, 251

부자 109, 325, 427
 부자 된 형제 410
 부지런한 며느리 345
 복문 사당 394
 불 106
 불 냄새 75
 불현이 고개 이야기 363
 비 50
 비단 310
 빗자루 72, 144, 188, 232, 418, 421
 뼈꾸기 27

人

사돈 356
 사돈집 173
 사람 4, 35, 41, 44, 46, 50, 53, 57, 58,
 60, 73, 74, 78, 116, 121, 122, 123,
 130, 139, 145, 147 150, 153, 161,
 191, 195, 197, 209, 216, 221, 228,
 231, 235, 249, 250, 252 253, 256,
 259, 266, 267, 277, 278, 281, 373,
 374, 386, 388, 393, 396, 413, 419,
 430, 432, 433
 사랑 49, 56, 70, 88, 173
 사연 106, 126, 132, 149, 196, 321
 사위 243, 330
 사타구니 149
 산삼 345
 산성 362
 산성마을 468
 산신령 464, 482
 산신령 발자국 389
 산저 노인 522
 산저마을 518
 산적 275
 산짐승 399
 삶 489
 삼년상 155, 157
 삼밭골의 산삼 465
 삼일운동 252
 삼일장 256

삼천갑자 동방삭 283
 삼형제 229
 삽살개 28
 상객 68, 133, 356
 상놈 132
 상마 382
 상사뱀 24
 상사병 86
 상여소리 402
 상여집 73
 상좌 290, 293, 314, 440, 476
 새 31
 새끼 47
 새청못 469
 서울 122
 석대 382
 선녀 34, 41, 114, 125, 137, 271, 329
 선동 487
 선동마을 143
 성기 149, 208
 성기 명칭 206
 세 명인 이야기 319
 세 소녀 69
 세 정승 딸 358
 세상 구경 170, 201, 274, 278, 280
 소 29, 259, 280
 소금장사 279
 소나무 485
 소도둑 219
 소리 27, 124
 소머리 바위 469
 소식 189
 소하 487
 소하정 487
 손님 35, 109
 손자 257
 송공단 516
 쇠미로 237
 수내마을 144, 469
 수숫대 61, 126, 270
 술 221
 숲장이 308

스님 30, 82, 289, 293
 스승 84, 440
 승천 293
 시모 313
 시아버지 247, 385
 시어머니 6, 7, 21, 41, 48, 55, 66, 77,
 108, 121, 135, 142, 146, 148,
 151, 162, 177, 188, 193, 203,
 214, 218, 223, 228, 243, 246,
 249, 254, 257, 268
 시어머니의 노래 409
 시주 317
 시집 67
 시집살이 58, 289
 신랑 15, 422
 신리마을 492
 신부 320, 429
 신부의 얼굴 크기 422
 신식 208
 신암마을 52
 신천 방귀쟁이 391
 신천마을 366
 실수 173, 355
 쌀 3, 46, 152, 158, 185, 223, 242, 252,
 256
 쌀바위 474
 쑥 247
 씨름 57, 60, 386

○

아가씨 50
 아기 177, 395
 아기 엮은 귀신 374
 아낙네 381
 아내 17, 102, 171, 189, 358
 아들 17, 91, 186, 326
 아버지 14, 127, 228, 236
 아이 7, 12, 33, 41, 19, 77, 87, 96, 114,
 117, 126, 136, 155, 161, 165, 181,
 222, 226, 234, 240, 266, 267, 268,
 276

- 아이들 88, 162
 아주머니 399
 아카시아 51
 암수닭 바위 473
 암자 46
 양갓음 28
 애기 장수 303
 애장터 181
 야시고개 481
 양반 132
 어리석은 범 이야기 331
 어머니 11, 22, 29, 67, 82, 154, 170,
 194, 201, 274, 278, 280, 305, 403
 어사 317
 어사 박문수 283
 얼어붙은 영감 348
 엄마 228
 업 281
 업보 488
 에밀레종 7, 12, 33, 41, 77, 87, 96, 114,
 126, 155, 161, 165, 177, 222,
 268, 276
 여동생 62
 여우 18, 47, 63, 98, 157, 260
 여인 30, 208
 여자 49, 118, 180, 362
 여자 도깨비 115
 여자 말 160
 여자 밀 179
 여자 음부 81, 82, 106
 열녀 468
 염불 소리 418
 옛 14
 영동할매 80, 166, 238
 영원조사(祖師) 442
 영혼 258
 오누이 204
 오륜대 486
 오빠 62
 오입 43
 옥서계 508
 온천 175, 263
 온천수 401
 왜구의 침범 461
 왜놈 381
 왜적 515
 외가 353
 외동딸 98
 욕심 112
 욕쟁이 아버지 68
 용 302, 387
 용굴 473
 용두봉 366
 용발톱 366, 487
 용왕의 딸 497
 우렁각시 56, 140, 218
 우물 239
 우애 410
 우장춘 518
 운봉 사람들 382
 울음 31
 원력(願力) 479
 원망 29
 원혼 322
 원효대(元曉臺)의 전설 450, 455
 원효대사 표지돌 489
 원효대사의 장군기 462
 원효대사의 호로병 461
 월경 71
 유기그릇 259
 유래 65, 101, 144, 237, 256, 366, 367,
 371, 382, 386, 397, 401, 406, 407,
 426
 은도끼 238, 271
 은혜 40, 94, 128, 339
 음경 92
 음부 49, 92, 97
 의미 27, 31
 의적 정봉서 505, 507
 이 빠진 할아버지 173
 이무기 302
 이북 도깨비 272
 이씨 집안 470
 이야기 12, 173, 238, 245, 289, 306, 335

이유 38, 61, 119, 137, 160, 267, 398,
411
인연 305, 306
일본사람 51
일하기 싫어하는 며느리 385
임금 130

스

자기 새끼 79, 87, 119, 125, 169, 231,
247, 275
자기 자식 259
자루 90
자부심 143
자손 24, 25
자식 225, 417
자식 걱정 211
자유천 518
작장 376
작장마을 380, 486
작장천 380
장가간 총각 358
장님 영감 334
장사 259
장자 469
장전1동 482
저승 4, 58, 60, 139, 145, 216, 256, 413,
433
저승사자 430
전생모자(前生母子) 502, 503
전설 215
절 223
점지 283
젓가락 511, 513
정과정곡(鄭瓜亭曲) 406
정묘 12, 284
정묘 이야기 26
정성 18, 110, 176
정월 대보름날 239
제사 18, 68, 110
제삿날 65
제삿밥 54, 64, 7, 2 153, 159

제자 84, 296
젓밥 327
조병창 180
조상 259
조엄 478
조치원역 172
존댓말 142, 193, 242, 265
좃 대회 91
주산당 482
주산당산 482
주인 131
죽은 소 199
죽은 스님 168
죽은 아비 327
죽음 303
줄다리기 놀이 492
중 362
중리마을 488
중매 132
쥐 21, 258, 310
지략 295
지략 많은 외손자 353
지령이 82, 108, 228, 313
지령이 띠 196
지령이 자식 329
지령이국 6, 11, 41, 48, 55, 66, 77, 135,
142, 146, 148, 151, 177, 193,
203, 214, 218, 243, 246, 249,
254, 268
지명유래 362
지킴이 뱀 187
지혜 26
지혜 많은 처 332
지혜로운 아들 355
직선 23
질투 121
짐승 136
집 35
집지킴이 구렁이 119, 190
집안 47, 157, 260, 348
짚신 삼는 법 417

ㄷ

차밭골 522
 차씨 398
 창건 437, 438
 책 413
 처녀 325
 천리마 285
 천석꾼 308
 철수 89
 첩 211
 첩 노래 245
 첫날밤 403
 청도 사리암 256
 청룡동 371
 청룡마을 369
 체 장사 345
 초립동 신랑 338
 초상 411
 총각 56, 140, 218
 충청도 방귀쟁이 307
 치료 401
 치매 257
 치매환자 185
 친절 67
 친절아버지 133
 칭찬 385

ㅋ

코 258
 콩 247
 콩쥐 8
 콩쥐 팔쥐 270

ㅅ

택시 기사 8
 토끼 130
 특징 382

ㅍ

판단 226
 팔 194
 팔송정 386
 팔자 59, 199, 202, 210, 219, 221, 226,
 246, 251
 팔쥐 8
 편지 22, 80
 포기 91
 풍속 402
 풍수 말 205
 풍수지리설 488
 피 71
 피난길 272
 피난지 209

ㅎ

하마마을 382
 하얀 머리 25
 학 401, 408
 학소대 408
 한부사(韓府使) 513
 한자 명칭 376
 한탄 43
 할머니 26, 136, 163, 384
 할미 348
 할미꽃 215
 함지기 412
 합궁 154
 해 204
 해월사 471, 472
 행복 489
 허깨비 69
 허벅지 살 171
 혀 37, 38, 91, 107, 161, 162, 185, 267
 혀 짧은 사람 167
 호랑이 6, 32, 40, 45, 47, 48, 49, 54, 57,
 75, 79, 81, 87, 88, 97, 119, 124,
 125, 130, 131, 134, 158, 152,
 158, 156, 164, 166, 167, 169,

178, 179, 192, 194, 208, 212,
217, 231, 234, 247, 252, 275,
398, 432
호랑이 도움 155, 157
호랑이 새끼 132, 253
호랑이산 367
호로병 462
호식을 면한 사람 432
흘랑내 거랑 487
흘린 사람 367
화만산 494
화장실 413
환생 201, 274, 278, 280, 317
환생한 어머니 414
활 285
항새 263
회천리 허씨장자 469
효부 17, 223, 313
효부 이야기 338
효성 301, 464
효자 155, 157, 346
효자 강성구 465
효자 노릇 145
효자 노총각 427
효자 이야기 361
효충비 516
효행 467
흥년 377
흙 76

■ 편집자(현장조사 책임·교열·주석 담당자)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민요학회 회장. 제60회 부산시문화상(인문과학 분야)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출강.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2014), 『6·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등 다수가 있다.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채록 등, 2017~2018년도 기준)

- 정혜란(부산외대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민지, 박소영, 신혜림, 이다연, 표민경(이상 부산외대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김대희, 김은수, 이소영(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문헌 소재 자료 타이핑)

■ 조사팀별 조사지역

- 조사1팀(박경수 팀)
 - 금정구 : 구서1~2동, 금성동, 남산동, 부곡1~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 동래구 : 명장1~2동, 안락1~2동, 복산동
- 조사2팀(황경숙 팀)
 - 금정구 : 금사동, 서1~3동, 장전1~3동
 - 동래구 : 명륜동, 사직1~3동, 수민동, 온천1~3동

■ 시사편찬위원회(2018. 4. 3 ~ 2021. 4. 2)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

부위원장 : 김동철(부산대)

위원(가나다순)

권영오(대저중)	김강식(한국해양대)	김대래(신라대)	김인호(동의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재욱(신라대)	박창희(스토리랩 수석)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동아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유영옥(동아대)	이정은(범어사 성보박물관)	이종봉(부산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 9

중부산 문화권 설화(I) 김정구 · 동래구 편

발행처	부산광역시
발행처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6~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인쇄	대훈기획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17-3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시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자연마을 사진제공 : 강서구문화원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